

中國學

CHINESE STUDIES

第27輯

大韓中國學會

Kore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2006. 12. 20

〈大韓中國學會〉

고 문 : 성과 스님 조남규 여사

명예회장 : 이근효(경성대 명예교수)

회 장 : 김태관(동의대)

부 회 장 : 이철리(경남대) 이인택(울산대) 임수암(경남정보대)

감 사 : 이재하(경성대) 진광호(부산외대)

운영이사 : 강식진(부산대) 김남희(부산외대) 김성문(진주보건간호대) 김창경(부경대) 김태만(한국해양대) 이상규(영산대) 류영표(경성대) 박경실(울산대) 박추현(경상대) 신석찬(부산여대) 심형철(신라대) 박숙경(동서대) 이철리(경남대) 임효섭(동아대) 정귀화(창원대) 정옥근(동의대) 김명자(동의공업대) 왕옥지(동명대) 박용래(부산경상대) 최성경(경남정보대) 한중호(동주대)

총무이사 : 강경구(동의대)

학술이사 : 김창경(총괄, 고전문학 분과, 부경대)

박노중(현대문학 분과, 동아대) 문병순(중국어학 분과, 경남대) 서석홍(사회과학 분과, 부경대)

편집이사 : 하영삼(경성대)

편집위원 : 이화범(경성대) 신용권(인천대) 문병순(경남대) 정영록(서울대) 전성홍(서강대) 이중희(부경대) 윤희탁(고구려문화재단) 서성(열린사이버대) 이규일(영동대) 김창경(부경대) 김태만(한국해양대) 이주노(전남대) 유병태(인제대)

섭외이사 : 김태만(한국해양대)

기획이사 : 오창화(경성대)

사무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내
(☎614-714)

연 락 처 : 사무실: (051) 890-1252

총 무: (051) 890-1257(연구실), 016-644-4815

편 집: (051) 620-4266(연구실), 016-807-6738

[題字] : 성파스님(通道寺 瑞雲庵 住持)

中國學

第27輯

2006年 12月

目 次

康寔鎭·중세국어 방점에 관한 연구	1
金世煥·〈千字文〉 典故 考究	33
李雄吉·魏晉시기 入聲韻 詩韻部 分部考	69
이수진·《老乞大》 처치문의 把/將字 연구	85
金和英·《翻譯老乞大》에 나타난 동보구조 고찰	109
金正必·「在+NP」의 공간범주와 ‘在’의 기능분석	127
金炫兌·孫東玉·韓中 五色色彩語의 文化象徵意味 對照 分析	143
盧英順·“動詞+‘出’類趨向動詞”研究	167
張幼冬·任務型教學法在對外漢語教學中的實踐	181
金泰寬·唐太宗入冥 高사를 통해 본 서유기의 형성과정 연구	195
高八美·中國近體詩法論(律詩)	227
임효섭·中唐 山水詩 研究	257
정옥근·중국의 天鵝 處女型 이야기와 한국의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비교 연구	293
姜鯨求·高行健 소설의 소통, 우정, 그리고 소설형식	319

趙誠煥·북경의 기억, 그리고 서사된 북경	339
안승응·沈從文的 향토소설과 자연	379
박노종·연극 <暗戀桃花源> 을 통해 본 《桃花源記》 패러디 양상	401
박정희·교과서 식의 문학사	429
劉美景·中國啓蒙思潮與文學	453
권세진·중국관광산업의 발전모델과 정책 분석	465
全冬梅·徐永輝·한·중 양국 소비문화 비교연구	491
張智惠·외자기업의 중국기업 M&A 현황 및 전망	515
부 록·심사규칙 및 편집양식	539

CHINESE STUDIES

Volume 27

December 2006

The Typological Analysis of Side-dot(旁點) in Middle Korean Languagehe / <i>Kang Sik-Jin</i>	1
A Research on the Authentic Precedents of 《The Thousand Character Text》 / <i>KIM Se-Hwan</i>	33
The Study on Poetry Riming "RuSheng(入聲)" System of Wei-Jin Period / <i>Lee Woong-Gil</i>	69
A study on "Ba/Jiang" of the "Ba/Jiang" Sentence in 《Laoqida》 / <i>LEE Su-Jin</i>	85
A study of the Verb-complement Structure in 《FanYi Lao Qi Da》 / <i>Kim, Hwa-Young</i>	109
An Analysis on function of 'ZAI(在)' in "Prep.+NP" category of space / <i>Kim Jeong-Pil</i>	127
A Comparative analysis of symbolic significance based on culture of five cardinal colors between Korea and Chinan / <i>Kim, Hyun-Tae</i>	143
A Study of the constructions of "Verb + chu / chulai / chuqu" / <i>LU, Yingshun</i>	167
The Utility of the Task-assigne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of Chinese as a Second Language / <i>Zhang, You-Dong</i>	181
A Study on the Influence of <i>Dang Taejong's Journey into the Underworld</i> on the Formation of <i>Seoyugi</i> / <i>KIM, Tae-Kwan</i>	195
A Discussion On The Eight-Line Style Of Chinese Verse / <i>Ko Pal-Mee</i>	225
The Study on the Scenic Poem of the Later Period of	

the Tang Empire/ <i>Lim Hyo-Sub</i>	257
The tale of woodcutter and fairy maiden in ancient China and in ancient Korea / <i>Zheng, Ok-Gen</i>	293
A communication, friendship and Novel formalities in The Gao, XingJian's Novels / <i>Kang, Kyong-Koo</i>	319
Peking's Memory and Written Peking / <i>Cho, Sung-Hwan</i>	339
The nature of Shen Cong Wen's Country life novel / <i>An, Sung-Woong</i>	379
The Aspects of Parady of 《T'aohuayanji》 in 《Hidden love and T'aohuayan》 / <i>Park, Roo-Jong</i>	401
Textbook type Literary History: Tangtao's 『Chinese Modern Literary History』 / <i>Park Jeong-Hee</i>	429
The enlightenment and literature in China / <i>Yoo, Mi-Kueng</i>	453
The Development Model and Policy Analysis of Chinese Tourism Industries / <i>Kweon Sae-Jin</i>	465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umption Cultures Between Korea and China: laying emphasis upon life style characteristics about consumption / <i>Quan Dong-mei, Xu Yong-hui</i>	491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Possibility of M&A in the China Companies / <i>JANG, JI-HUE</i>	515

중세국어 방점에 관한 연구**

— 음절성조 분화 기능과의 비교를 통한 유형론적 분석 —

康寔鎭*

〈목 차〉

1. 문제의 제기	3.2.2 성조의 독자적, 단계적 분화
2. 중세국어에 대한 유형론적 시각	4. 성조와 중세국어 방점의 비교
2.1 중세국어의 방점에 대한 설명	4.1 중세국어의 음절 구조
2.2 중세국어 성조언어 여부에 대한 기존의 견해	4.2 중세국어 방점의 음절 분화 자질
3. 성조와 성조언어의 특징	4.3 중세국어 방점의 대립 자질
3.1 성조와 성조언어의 정의	5. 결론
3.2 성조언어와 성조의 음운론적 특징	[참고문헌]
3.2.1 성조언어의 조소	[中文摘要]

1. 문제의 제기

말소리의 音調(pitch)가 한 언어에서 변별적 자질로 쓰일 때 그 음조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聲調言語(tonal language)와 音調 악센트 言語(pitch accented language) 등으로 나눈다. 이런 음조가 모든 음절에서 독자적인 역할로 그 음절을 분화하는 언어 유형을 성조언어라 하고, 단어의 어느 특정 음절에 음조로 실현되는 악센트를 주어 다른 소리로 분화하는 언어 유형을 음조 악센트 언어라고 한다. 대표적 성조언어에는 漢語, 베트남어 등이 있고, 대표적 음조 악센트 언어에는 Somali어, 일본어 등이 있어 이를 중국어형 성조와 일본어형 혹은 아프리카 형 성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조로 나누어 부르기도 한다.¹⁾

일반적으로 비성조언어에서는 자음과 모음의 조합만으로도 하나의 음절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자 체계도 분절음만을 書寫하게 될 뿐, 高低, 長短, 強弱의 초분절적 요소를 특별히 표기하지 않지만, 성조언어에서는 성조가 음절의 어떤 요소보다 上位의 변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의 표기는 필수적이다.

성조언어의 대표 격인 한어의 경우에도 한자의 字形으로 그 글자가 四聲八調의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었으며, 현대적 한자음의 표기 수단인 漢語拼音方案에서도 성조의 표기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朝鮮의 어학자들은 한어의 음절이 聲母와 韻母로 나누어지고, 韻母는 韻頭(매개모음), 韻腹(핵모음), 韻尾로 구성되며, 이렇게 구성된 음절이 모두 사성을 가진다는 점을 참고하여, 훈민정음에서 初聲에는 聲母를, 中聲에는 韻頭, 韻腹 및 모음 韻尾를, 終聲에는 初聲 자음과 자음인 韻尾를 배치하고, 四聲은 旁點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한자음의 四聲까지도 방점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이 旁點 表記法은 漢語史上 한자의 초분절적 요소인 사성을 체계적으로 표기한 최초의 방안이다.²⁾ 이들은 한자음을 훈민정음 식으로 표기하면서 그 사성까지 방점으로 표시하는 새로 창안된 방안을 당시 국어의 표기에도 적용하였다.

조선의 어학자들은 한어의 사성과 같은 맥락의 소리의 높낮이가 국어에도 있다고 보고, 한자음에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을 표시하듯 국어

1) 필자는 이 논문에서 성조언어와 음조 악센트 언어에 작용하는 음조는 서로 아주 다른 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성조언어의 음조를 “성조”라 하고, 음조 악센트 언어의 음조를 “음조 악센트(pitch accent)”라 칭하기로 한다. 사실 “聲調”라는 단어는 后覺, 〈聲調究竟有沒有用處〉, 《國語月刊》第一卷第八期, 1922), 趙元任, 〈五聲의 標準〉, 《國語月刊》, 第一卷第八期, 1922) 등에서 漢語에 나타나는 高低起伏形의 초분절소를 지칭하는 용어로 처음 사용되었다.

2) 漢字음을 한자가 아닌 기호로 처음 표기한 것은 1269년에 반포된 八思巴 문자(phags-pa script)의 《蒙古字韻》(1308년)이지만 이에는 四聲을 표기하기 위한 기호를 따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에도 방점으로 이런 것들을 표기하였다. 이러한 국어에 적용된 방점의 성질에 대해서도 《訓民正音 諺解》와 《訓蒙字會 凡例》 《翻譯老乞大 朴通事 凡例》 등에서 중국의 전통적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 방점 표기법은 훈민정음이 반포된 1446년부터 《訓蒙字會》의 1527년경까지 대략 81년간 훈민정음으로 작성된 문헌에 비교적 엄정하게 적용되었다.

이 시기의 훈민정음에 표기된 방점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고, 여러 가지의 추정이 분분하였으나 일단 그것은 성조 혹은 음조 악센트를 표기한 것이란 가정 하에 이 방점의 규칙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아주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아직도 방점은 성조를 표기한 것이고 따라서 중세국어는 성조언어였을 것이란 추정에 대한 원초적인 의문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방점에 대한 설명과 실제 방점이 가해진 양상이 한어의 그것과 너무나 흡사하여 중세국어를 한어와 같은 성조언어로 간주한다 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반면 한어와 같은 單音節語의 성조가 유형론적으로 완전히 다른 국어에 존재한다는 것은 언어학적 상식에 비추어도저히 수긍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언어학적 상식이란 성조언어의 성조는 모든 음절에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는 음절의 絕對不可缺의 초분절소이지만 비성조언어의 음조(pitch)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국어와 성조언어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어학계에서 중세국어가 성조언어라고 확신하게 된 원인은 위에 언급한 《訓民正音 諺解》 등에서 당시 국어에도 한어의 사성과 같은 高調와 低調 및 上昇調의 대립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실제 방점으로 그것을 표시하였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에 필자는 그 동안 이루어진 많은 연구 결과를 볼 때, 중세국어의 성조언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공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는 중세국어에 대한 당시의 설명이나 방점 자체에서 취득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먼저 당시의 비교 대상이었던 한어를 위주로 한 성조언어의 성조에 대한 고찰과 상호 비교를 통해 중세국어의 성조언어였는지

의 여부를 이 논문을 통해 밝혀보려고 노력하였다.

중세국어가 성조언어였는지의 여부를 위에 말한 방법으로 논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80여 년에 걸쳐 가해진 방점이 나타내는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탐구는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후속 논문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2. 중세국어에 대한 유형론적 시각

2-1 중세국어의 방점에 대한 설명

중세국어의 사성을 표기하기 위한 방점의 표기 규칙은 (1)과 같고, 그 용례는 (2)와 같으며, 당시 국어에 있다고 본 사성의 성질에 대해서는 (3)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訓民正音 諺解〉

左加一點則去聲，二則上聲，無則平聲，入聲加點同而促急。

(2) 〈訓民正音 解例 合字解〉

諺語平上去入，如 활爲弓而其聲平，· 돌爲石而其聲上，· 갈爲刀而其聲去，· 분爲筆而其聲入之類。

(3) 〈訓民正音 解例 合字解〉

平聲安而和，上聲和而舉，去聲舉而壯，入聲促而塞。

(1)에서는 국어 음절이 去聲이면 점 하나를 찍고, 上聲이면 점 둘을 찍고, 平聲에는 점을 찍지 않는다는 방점의 사성 표기법을 규정하고, 실제로 (2)와 같이 표기한다는 것이다. (3)의 국어 사성에 대한 설명은 중국의 전통적 표현법을 모방한 것이다. 이런 초분절소에 대해서는 千數百 동안 중국의 성운학자들도 달리 묘사할 방법이 없었다. 이는 소리에 대해 물리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시적 형태로 보여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사성에 대

한 설명은 청각적 느낌을 바탕으로 모호하게 기술할 수밖에 없었다. 元刻本 《玉篇》에 神洪이 인용한 唐代 和尚 處忠이 지은 《元和韻譜》(806-827년)의 기술 “平聲哀而安, 上聲厲而舉, 去聲清而遠, 入聲直而促”이나 《康熙字典》에 明代 釋真空의 《玉鑰匙歌訣》을 《分四聲法》이라고 기록한 “平聲平道莫低昂, 上聲高呼猛烈強, 去聲分明哀遠道, 入聲短促急收藏” 등이 이러한 예인데, 조선에서도 이런 방법대로 (4)와 같이 한어의 사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만, 그것을 표기하는 방법만은 창안하였던 것이다.

(4) 〈訓蒙字會凡例〉

凡字音高低, 皆以字旁點之有無多少爲準, 平聲無點, 上聲二點, 去聲入聲皆一點, 平聲哀而安, 上聲厲而舉, 去聲清而遠, 入聲直而促, 諺解亦同.

한어의 사성이 국어에 존재할리 만무하지만, 중세 국어학자들은 국어에도 한어의 사성과 같은 요소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한어의 사성과 같이 방점을 치는 것은 물론이고, 한어 사성의 묘사를 상호 대비시켜 국어의 그것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5)와 같은 〈翻譯老乞大朴通事 凡例 國音條〉 뿐만이 아니고 〈翻譯老乞大朴通事 凡例 旁點條〉 및 〈翻譯老乞大朴通事 凡例 漢音條〉에서도 계속 되지만 조선 학자들이 국어에 존재했다고 믿고 있는 사성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혀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것은 국어에 존재한다고 믿는 사성의 실체가 한어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달라 표면적인 상호 비교로는 밝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³⁾

(5)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 國音條〉

凡本國語音有平有仄, 平聲哀而安, 仄音有二焉, 有厲而舉如齒字之呼者, 有直而高如位字之呼者. 哀而安者爲平聲, 厲而舉者[원문에는 “爲上聲”이

3) 漢語의 四聲과 國語의 그것에 대한 대비 설명으로 국어의 성조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자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金完鎭, 《中世國語聲調의 研究》(서울: 韓國文化研究所, 1973) 7-16쪽, 許雄, 《中世國語研究》(서울: 正音社, 1963) 263-272쪽 참고

누락된 것으로 보임], 直而高者爲去聲爲入聲, 故國俗言語, 平聲無點, 去聲[원문에는 “國”이나 “聲”으로 바로 잡음]入聲一點. 今之反譯漢字下, 在右[원문은 “左”이나 “右”로 바로 잡음]諺音並依國語高低而加點焉. 但通攷內漢音字旁之點, 雖與此同而其聲之高低鄉漢不同焉. 詳見旁點條.

국어의 이러한 자질에 대해 (1)에 대한 훈민정음 식 풀이의 俠注에서 그 자질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6)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6) <訓民正音 諺解 訓民正音 俠注>

左加一點則去聲{去聲은 못노픈 소리라}, 二則上聲{上聲은 처서미 늦잡고
乃終이 노픈 소리라}, 無則平聲{平聲은 못늦가쁜 소리라}, 入聲加點同而
促急{入聲은 썰리 굿든 소리라}.

(6)의 설명에 의하여 국어의 평성은 “낮은 소리”, 거성은 “높은 소리”, 상성은 “낮은 곳에서 높아지는 소리”이고, 국어의 입성도 한어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저에 의한 분별이 아니고, 한어의 운미가 內破音으로 끝난 경우를 지칭하듯이 국어에서도 末音이 내과음으로 끝난 경우를 입성이라 하지만 그 고저는 平, 上, 去와 같다는 것이다. 결국 국어에도 한어와 같이 平, 上, 去, 入聲이 다 갖추어져 있지만 그 고저는 한어와 다르다는 뜻이다. 따라서 중세국어도 한어와 같이 사성을 구비하고 있고, 나아가 실제로 (7)과 같이 방점이 나타내는 음조에 의해서만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중세국어도 성조언어라고 속단할 수 있을 것이다.

(7) <旁點에 의한 의미 구별 단어>

손(客) ↔ 손(手)

서·리(霜) ↔ 서리(間)

·가지(枝) ↔ 가지(種) ↔ ·가지(轎)

2-2 중세국어의 성조언어 여부에 대한 기존의 견해

중세국어에서 비록 방점으로 사성을 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근

거로 유형론적 특징이 완전히 다른 국어가 한어와 같은 성조를 가졌다고 규정하는 것은 언어학적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하리라는 의심은 일찍부터 있었다.

이러한 의문을 가진 早期의 학자로는 洪起文님, 南廣祐님 등이 있다. 이들은 방점을 근거로 당시 국어에 성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우리말의 언어학적 특성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가정이며, 이러한 방점은 단지 중국 한자음에나 있을 사성을 우리말에도 적용하여야만 한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한 무의미한 것으로 보았다. 洪起文이 --여기서부터 존칭은 생략한다-- 방점에 대해 “四聲은 한자에 있는 것이니 漢字音을 表示함은 좋으나 우리말까지 表할 물건은 못 된다. 그 당시 우리말에 四聲이 있었느냐? 지금 와서 없어졌느냐? 言語學으로 보아서 우리말과 같은 言語에 四聲을 가지는 例가 없다. 450년간 언어가 달라지고 변해도 졌지만 있던 四聲이 송두리째 없어지리라고는 推測하지 못한다. 그것은 오직 漢字音의 中毒이 아니면 안 된다. 漢字音 本位로 四聲을 만들고 다시 無條件 盲目的으로 우리말에까지 延長하려 한 것이다.”⁴⁾라고 한 것과 南廣祐가 “우리나라에서 點을 찍어 所謂 四聲을 구별하게 된 根本動機는 아무래도 漢字字韻에서 온 것이라 여겨진다.”⁵⁾라고 한 것에서 이러한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무리 언어학적 상식에 비추어 국어에는 사성이 있을 수 없다하더라도 엄격하게 표기된 방점을 무의미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견해는 앞서 우리말에는 사성이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하였던 洪起文에 의해서도 제기된다. 그는 이 방점이 적어도 우리말 체계 내에서 상호 대비되는 어떤 자질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勿論 우리말에는 한자와 같은 平上去의 억양이 없고 또 이 三聲의 說明은 漢字의 抑揚 그대로지만 우리말에도 三聲의 旁點이 찍히어 있는 것이 嚴然한 사실이다. 우리말에 꼭 漢字와 같은 平上去가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上記의 說明에 依한 그 區別에 적어도 對比될 만한 무엇이 있지 않았을까 疑心한다.”⁶⁾ 라고 하면서 성조는 한어

4) 洪起文, 《朝鮮文法研究》(서울: 서울신문사, 1947) 30쪽.

5) 南廣祐, 《國語學論文集》(서울: 中央大學出版局, 1965) 301쪽.

와 같은 단음절어에 특유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지 국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 보면서 방점의 본질은 성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에도 흔히 볼 수 있는 外國語의 一定한 高低強弱과는 다르나 品詞와 品詞가 연속하는 데서 일어나는 獨特한 變化에서 오는 語調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하자면 當時 中國韻學 漢字字韻에 젖은 漢學者들의 머리에 착각을 일으키게 할만한 內在的 原因”⁷⁾에 의하여 표기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반해, 許雄은 일본어나 지금의 경상방언에도 성조가 있음을 근거로 중세국어에도 성조가 있었던 것⁸⁾으로 보고 있고, 李基文은 이러한 방점의 의의에 대해 “中世語의 聲調를 表記한 것이다. 그러나 中國語의 四聲體系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국어의 聲調體系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表記를 마련했던 것⁹⁾으로 보고 있다.

위에 언급한 방점에 대한 초보적 회의를 제외하면, 이후 연구는 중세국어의 성조언어 여부에 대한 깊은 논의도 없이 일단 성조언어로 보거나 적어도 그 방점들이 일관된 성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간의 연구는 주로 성조의 단위, 성조의 형태 음운론, 성조의 울동규칙 등으로 진행되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중세국어가 성조언어라는 전제로 수행된 것들이다. 따라서 金完鎭도 “本稿에서의 敍述은 中世國語를 聲調語로 보는 先驗的 判斷에서 出發한 것이기 때문에, 그 反對의 判斷이 成立된다면 여기서 認識된 內容들의 表現이 相當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¹⁰⁾ 라고 하였다.

그 동안 특별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형성된 통설에 대해 鄭然燾은 성조언어가 아니라 음조 악센트 언어일 것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에 맞서 李基文은 중세국어는 성조언어라는 주장을 다시 하게 된다.

6) 洪起文, 《正音發達史》(서울: 서울신문사, 1946) 138쪽.

7) 南廣祐, 《國語學論文集》(서울: 中央大學出版局, 1965) 302쪽.

8) 許雄, 《中世國語研究》(서울: 正音社, 1963) 257쪽.

9) 李基文, 《國語音韻史研究》(서울: 韓國文化研究所, 1973) 118쪽.

10) 金完鎭, 《中世國語聲調의 研究》(서울: 韓國文化研究所, 1973) 130쪽

鄭然燾은 중세국어의 방점을 분석하여 “① 慶尙道方言의 聲調나 中世國語 語末音節에서는 모두 低調와 去聲으로만 나타나므로 그 기능은 전혀 辨別의 意味를 缺하여 zero라고 해석한다. ② 慶尙道方言의 聲調나 中世國語의 聲調나 語頭 제1음절이 그 기능이 최대이며, 이것이 그 語詞의 가장 直接的 決定的 核心的 意味를 가지는 것이다. ③ 特定位置의 音節의 聲調 機能이 언제나 zero로 볼 수 있고, 또한 特定音節의 聲調 機能이 언제나 최대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이 한 語詞(助詞와 語尾도 포함해서)를 단위로 하여 언제나 결정적이라면 이는 word-pitch system이라고밖에 달리는 해석할 수 없다.”¹¹⁾ 라고 하였다. 이는 모든 음절에 변별적 기능을 하는 성조가 있어야 성조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 위치에는 같은 성조만 출현한다는 것은 변별적 기능이 없는 것이므로 성조언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지만, “성조라는 용어의 채택이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므로 계속 성조라고 부르는 것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鄭然燾의 이런 견해에 대해 李基文은 “어떤 언어가 성조언어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① 音調만으로 意味가 區別되는 單語들을 發見하고 ② 그 音調가 어떤 音聲의 또는 文法의 事實에 의해서 條件된 것이 아님을 증명함으로써 이루어진다.(Pike1948 : 46-47)”라는 Kenneth. L. Pike의 논리에 따라 음조만으로 의미를 구별하는 단어가 제법 존재하며, 비록 대부분의 動詞 語幹의 音調는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語尾에 따라 音調가 바뀌기는 하지만 名詞에 있어서는 그 聲調가 대체로 일정해 있었고 또 그것이 音聲的 事實이나 文法的 事實에 의해서 條件되지 않았기 때문에 聲調言語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것¹²⁾으로 보아, 결국 중세국어가 한어와 같은 성조언어에 속하는지 아니면 일본어와 같은 음조 악센트 체계(pitch accent system)인지, 이도 저도 아니면 제3의 유형인지에 대한 결론은 도출될 수 없었다.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병존할 수 있었던 것은 鄭然燾의 “특정 위치의 음절이

11) 鄭然燾, 《國語聲調에 관한 研究》(서울: 一潮閣, 1976) 18쪽.

12) 李基文, 《國語音韻史研究》(서울: 韓國文化研究所, 1973) 150-151쪽

변별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논거에 합당한 예와 李基文이 제시한 “음조만으로 의미를 구별하는 단어 및 일정한 聲調를 가진 부분적 單語群의 존재”라는 논거에 적절한 예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비교 대상인 성조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심지어 金次均은 중세국어나 현대 국어 성조 방언들을 진정한 성조 언어로 보지 않고 다른 음조체계로 보려는 사람들이 있음에 대해, “20세기 전반의 수준에서 나온 성조 체계의 유형론에 매이지 말고, 높낮이가 낱말의 뜻을 분화하는 변별적인 기능을 하면 모두 진정한 성조 언어로 보면 여러 가지 성조 체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말의 성조 방언들도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성조 언어라고 보면 된다.”¹³⁾라고 까지 하여 성조언어와 비성조언어 사이에 존재하는 매우 엄연한 차이점 자체를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유필재는 중세국어가 성조언어 혹은 음조 악센트 언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각각의 근거를 제시하였다.¹⁴⁾ 여기에서 성조언어로 볼 수 없는 이유로는 “성조언어는 성조가 없는 방언이 없으나, 일본어와 같은 악센트어는 악센트가 없는 방언이 존재하고 국어의 경우에도 성조를 가진 방언은 동부에만 존재하며, 성조언어는 그 음조가 어떤 음운론적, 문법적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중세국어 용언 어간의 성조는 어간 말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악센트 언어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중세국어는 둘 이상의 구성요소가 복합어를 이룰 때 중국어와 같이 자기의 고유 성조를 유지하지만, 일본어는 하나의 악센트형을 가진다. 따라서 중세국어는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음절단위의 성조를 가지고 있으며, 중세국어의 성조는 선행 음절을 복사하는 듯한 현상을 보이고, 율동규칙이 있는데, 이 현상은 성조언어에서 보이는 變調(tone sandhi)나 다운스텝(down step)과 흡사하여 성조언어의 성격을 지녔다.”라는 것이

13) 金次均, 〈우리말 성조 연구에서 방점 표상과 성조 표상〉, 《한글》 265 (2004.9) 9-10쪽.

14) 유필재, 〈中世國語 聲調 研究史〉, 《울산어문논집》 제15집(2001) 151-152쪽.

다.

이러한 근거 역시 성조언어의 성조는 음절에 귀속된 불가결의 구성 요소인데 반해, 비성조언어의 음조는 그러하지 않다는 핵심적인 차이점만 이해하면 모두 충분히 논증될 수 있는 것들이다.

3. 성조와 성조언어의 특징

3-1 성조와 성조언어의 정의

일반적으로 모든 음절에 필수적으로 음절 자체에 대해 독자적으로 변별적인 기능을 하는 음조가 존재하는 언어를 “聲調言語(tonal language)”라고 하고 이러한 음조를 “聲調(tone)”라고 하지만, 사실 “聲調”라는 용어는 애당초 漢語의 음조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이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22년경부터이다.¹⁵⁾ 성조와 유사한 의미로 “四聲”¹⁶⁾이란 말이 중국의 전통적 韻學 용어로 오랫동안 쓰이긴 했지만 이것은 聲調와 그 의미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四聲은 일반적으로 平聲, 上聲, 去聲, 入聲의 네 가지를 총칭하는 말¹⁷⁾이고 또 入聲은 聲調에 의한 분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平上去入은 각기 聲母의 清濁에 따라 陰聲調와 陽聲調로 나누기도 하고 韻尾에 따라 陽聲韻(-m, -n, -ŋ), 入聲韻(-p, -t, -k)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분류는 모두 子音에 따른 분류이며, 入聲은 韻尾에 따른 분류이다. 따라서 四聲은 자음과 모음 및 소리의 고저에 따른 종합적 분류라고 할 수 있다.

15) “聲調”라는 단어는 后覺, 〈聲調究竟有沒有用處〉, 《國語月刊》1:8(1922), 趙元任, 〈五聲의 標準〉, 《國語月刊》1:8(1922) 등에서 漢語에 나타나는 고저의 초분절소를 지칭하는 용어로 처음 사용되었다.

16) “四聲”이란 말이 정확하게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南史》에서이다. 《南史 卷五七》〈列傳四七沈約(441-513)〉의 “帝問周捨曰, 何謂四聲, 捨曰, 天子聖哲是也, 然帝竟不遵用。”, 《南史 卷四八》〈列傳三八陸厥(472-499)〉의 “……將平上去入四聲, 以此制韻……”

17) 四聲이란 말은 예외적으로 普通話의 陰平(제1성), 陽平(제2성), 上聲(제3성), 去聲(제4성)을 지칭하는 말로도 쓰인다.

성조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널리 참고하는 논저는 성조언어와 성조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한 Kenneth Lee Pike의 《Tone Languages》이다. 이 논저에서는 성조언어를 (8)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8) 〈K. L. Pike의 성조언어에 대한 정의〉 18)

A tone language may be defined as a language having lexically significant, contrastive, but relative pitch on each syllable.

성조언어란 모든 음절에 어휘적인 의미를 분화할 수 있는, 서로 대립적이지만 상대적인 음조가 모든 음절에 존재하는 언어이다.

(8)의 정의에 따르면 성조언어는 음조가 ① 어휘적 의미를 분화할 것, ② 대립적일 것, ③ 상대적일 것, ④ 모든 음절에 존재할 것의 4가지 조건을 구비한 언어이다. Pike가 말하는 대립적(contrastive)이란 한 언어 체계에서 音素(phoneme)가 상호 대립적으로 존재하듯 음조도 高調 대 低調, 下降調 대 上昇調와 같이 그 調素(toneme)가 상호 대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며, 상대적(relative)이란 조소가 물리적인 절대치의 높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앞 뒤 음절에 존재하는 음조와 서로 비교되는 상대적인 높이로 표현되는, 즉 각 음절의 음조가 진동수의 절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절과의 대비를 이루는 상대치로 표현되는 음조라는 것이다.¹⁹⁾

Pike는 또 변별적 음조가 모든 음절에 존재하는 언어를 성조언어라 하고, 단어 단위로 존재하는 체계를 단어 음조 체계(word-pitch system)라 하였으며, 음조가 구절 단위로 존재하여 억양(intonation)을 나타내는 체계는 구절 음조 체계(phrase-pitch system)라고 하였다. 단어 단위로 음조가 존재하는 언어에서는 그 단어를 구성하는 음절간의 대비만으로 의미를 분화하므로 James D. McCawley는 이런 언어를 음

18) Kenneth, L. Pike, *Tone Languages* (Ann Arbor, Michigan U.S.A.: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48), 3쪽.

19) Kenneth, L. Pike, *Tone Languages* (Ann Arbor, Michigan U.S.A.: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48), 3-4쪽.

조 악센트 언어(pitch accent language)²⁰⁾라 하였으며, 이런 언어는 성조언어의 범주에 넣지 않았다.

음조가 상호 대립적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진동수가 일정 音域(register) 동안 변동 없이 유지되는 형태의 水平調體系(level pitch register system)와 高調와 低調 사이가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즉 음역 내에서의 진동수가 점차적으로 변하여 高低사이가 연결되는 형태의 屈曲調體系(gliding pitch contour system)가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또 수평조 체계와 굴곡조 체계도 각각 그 높이와 굴곡의 형태에 따라 高調(high pitch), 中調(middle pitch), 低調(low pitch) 등과 上昇調(rising pitch), 下降調(falling pitch), 昇降調(rising-falling pitch), 降昇調(falling-rising pitch) 등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인데, 성조언어는 屈曲調(contour tone) 형태의 語彙的 聲調(lexical tone)를 가지며, 아프리카나 일본어는 水平調(register tone) 형태의 문법적 기능 분화를 하는 指標的 聲調(특징적 성조; characteristic tone)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성조언어가 음조 악센트 언어에 비해 더 많은 음조적 변별자질을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Pike는 또 음조 악센트 언어에서는 한 단어 내의 음조 악센트를 지시하는 언어이므로 악센트가 주어진 모라(mora)의 위치를 알면 단어 내의 다른 음절은 상대적 저음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나머지 음절의 음조를 예측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성조언어이든 음조 악센트 언어이든 음조적 변별자질로 어휘적 의미를 분화한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성조언어의 성조와 비성조언어의 음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음절 단위로 존재하느냐의 여부 한 가지이다. 따라서 변별적인 기능을 하는 음조가 음절 내에 귀속되어 있는 언어의 성조는 “音節 聲調”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유형의 언어를 “音節 聲調 言語”라고 규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성조언어의 성조가 음절에 귀속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음조 악센

20) James D. McCawley, *The Phonological Component of A Grammar of Japanese* (The Hague and Paris: Mouton, 1968)

트와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요약한다고 할 수 있다. 성조는 음절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분절음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그것의 기능 또한 상당한 차이점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차이점을 중세국어의 방점이 나타내는 것과 상호 비교하면 중세국어의 성격도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다음 절에서 성조와 성조언어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3-2 성조언어와 성조의 음운론적 특징

성조언어에서 성조가 하는 역할 중에는 음절 간의 경계 구분 기능, 음소 보다 강력한 음절의 변별 기능, 旋律的 변화를 활용한 수사 기능 등도 있지만, 이것도 결국은 성조가 모든 음절에 귀속됨으로써 나타내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방언을 포함한 한어나 티베트어, 베트남어 등의 성조언어에도 고대에는 성조가 없었다는 것과 성조가 출현하여 비성조언어에서 성조언어로 전환되는 원인은 음절 구조의 내재적 변화에 따른 음절수의 감소를 완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음절수의 감소 현상은 지금의 성조언어에 속하는 여러 언어에서 다양하게 관찰되는데, ① 경음(fortis)과 연음(lenis)의 대립성 상실, ② 장모음과 단모음 대립성의 상실, ③ 複子音 聲母의 소실이나 聲母의 대립성 축소 ④ 풍부했던 자음 韻尾의 소실 등과 같은 경우가 있다.²¹⁾

음절수의 감소를 초분절소를 활용하여 보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고저, 장단, 강약의 二分的 대립을 고저를 기초로 한 高低起伏形의 음조로 전환하여 그 대립형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음절 내부에서 이런 초분절소가 마치 음소처럼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필자는 성조언어와 비성조언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21) 지금까지 연구된 성조 출현에 대한 학설은 ① 松緊元音說 ② 聲母決定說 ③ 韻尾決定說 ④ 長短元音與韻尾共同決定說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郭錦桴, 《漢語聲調語調闡要與探索》(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3), 15-29쪽 참고

모두 음절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성조언어의 성조가 음절에서 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2-1 성조언어의 조소

소리의 높낮이에 의해 분절음을 분화하는 방법은 장단이나 강약에 비해 더 많은 대립쌍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음성의 강약은 발음기관을 통과하는 음파 에너지의 양에 의해 결정되므로 強音과 弱音의 二分的 대립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장단은 성대의 진동시간에 의해 결정되므로 장음과 단음의 변별자질 외의 다른 변별자질을 추가하기 어려운데 반해, 음성의 높낮이로는 고조와 저조의 平板調 외에도 일정 정도의 音域을 가질 때 고조에서 저조로, 저조에서 고조로 혹은 고음에서 하강하여 다시 상승하는 등의 음고의 起伏의 자질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특징이 그것이다. 따라서 한 언어에 필요한 변별 요소가 二分的 대립으로 충족될 수 있을 때는 高調(pitch), 強勢(stress), 長音(long sound)으로 충분히 구현될 수 있지만 한 언어의 내재적 특성상 3개 이상의 초분절적 변별요소가 필요하다면 결국 고저의 起伏의 자질을 추가하게 될 것이다.

王洪君은 自立分節音韻論(Autosegmental Phonology)에 근거하여 한어의 성조와 아프리카 및 일본어에 있는 음조와의 차이점에 대해 논하였는데 이를 종합하면, ① 한어의 성조는 단음절 내의 고저 변화곡선이지만 아프리카나 일본어의 음조는 반드시 한 음절 내에 속하는 것만은 아니고 몇 개의 음절에 걸쳐 구현되는 고저변화 곡선이다. ② 한어의 성조는 3종의 음고로 구성된 굴곡형이지만 아프리카나 일본어에는 이런 패턴이 없다. ③ 한어 및 아프리카나 일본어에서 모두 모라(mora) 단위로 삭제, 확장, 율동 등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음역 내 陰陽의 상호 교체와 같은 交替式 변화는 한어에서만 일어난다.²²⁾ 라고 하여 한어와 일본어식의 음조에는 존재 위치, 굴곡형의 존재 여부, 음절 머리 자음의

22) 王洪君, 《汉语非线性音系学》(北京: 北京大学出版社, 1999).

유무성음에 의한 조소의 교체 여부가 차이난다고 하였다.

한어의 이러한 예를 보면 고대나 현대를 막론하고 어느 방언이나 그 음절구조는 聲母와 韻母로 이루어져 있으며, 聲母는 모두 자음이지만 韻母는 韻腹(핵모음;주요모음)을 중심으로 앞과 뒤에 韻頭(매개모음)와 韻尾가 첨가되는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운미의 위치에 올 수 있는 자음도 入聲韻尾(-p, -t, -k)와 陽聲韻尾(-m, -n, -ŋ)로 고정되어 있어 음절수가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그 음절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대신 성조에 의한 음절의 분화는 증가하는 현상이 있다.

북방중국어의 경우를 보면, 中古漢語에서 近代漢語로 오기까지 일어난 대표적인 음절수의 감소 현상은 “濁音清化”(유성음의 무성음화)와 “入派三聲”(入聲韻尾 탈락으로 平, 上, 去聲으로의 이동)이다. 中古漢語에 존속하던 入聲韻尾의 탈락과 陽聲韻尾 -m이 -n과 합류하게 된 것도 역시 음절수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지만, 특히 聲母의 清濁 대립 상실은 음절수를 대폭 감소시키게 되지만, 귀속 한자가 가장 많던 平聲에서는 聲母에 의해 구별되던 陰聲調와 陽聲調를 제1성과 제2성의 성조에 의한 구별로 전환하게 된다. 그 결과 음절수는 408개 정도로 축소되었으나, 성조를 평성, 상성, 거성의 3개에서 고조(H), 저조(L), 상승조(HL), 하강조(LH)의 4개로 증가시킴으로써 성조를 포함한 음절수는 1652개로 대폭 늘어난다.²³⁾

실제로 한어의 모든 방언과 베트남어 같은 성조언어는 분절음에 의해 구별되는 聲母의 陰陽과 韻尾에 의한 入聲調를 제외한 성조만의 대립은 3내지 5종의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普通話도 4개의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조사된 1186개의 한어의 방언 중 고조와 저조의 二分的 대립을 하는 방언은 장단의 대립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兰州红古” 방언 하나뿐이고 나머지 방언 및 기타 Sino-Tibetan에 속하는 다른 언어가 모두 3개 이상의 성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이는 충분히 증명된다.²⁴⁾

23) 郭锦桴, 《汉语声调语调纲要与探索》(北京: 北京语言学院出版社, 1993), 93쪽 참고

3-2-2 성조의 독자적, 단계적 분화 기능

음향학적으로 성조는 음절 내에서 성대의 진동을 동반할 수 있는 요소, 즉 유성음 전체의 진동수의 변화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성조가 생리, 물리, 음향학적으로 소리의 고저 변화라는 것은 1924년 음성분석기를 이용해 시행된 刘复의 《四声实验录》²⁵⁾에 의해서도 당연히 밝혀질 수 있는 것이었지만 성조와 분절음의 관계, 나아가 음절의 어느 구성 요소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모습은 파악되지 않았었다.

분절음 음소(segment phoneme)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성조도 모든 음절에서 음소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이를 調素(toneme)로 구성되는 초분절음 음소(suprasegment phoneme)로 보고 분절음에 음소가 차지하는 위치와 동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1933년 赵元任에 의해 제의되었으며²⁶⁾ 1948년 Pike도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음소와 같은 선상에서 조소에 의해 성조를 분석하였다.

중국에서는 1950년대에 이르러 성조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가 시작되는데 이에 관한 견해는 ① 성조는 음절에 귀속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음소로 자음이나 모음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 ② 성조는 모음에 부착된 것이며, 독립된 음소가 아니고 모음 음소를 분화하는 성분이다. ③ 성조는 음절 전체의 높낮이로 단지 異音(allophone)을 구성하는 조건일 뿐이며, 독립된 음소가 아니다.²⁷⁾ 라는 3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중 ①의 관점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졌었다. 또한 1987년 胡伟民은 조소는 자음이나 모음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음소는 음

24) 郭锦桴, 《汉语声调语调阐要与探索》(北京: 北京语言学院出版社, 1993), 4-14쪽; 刘俐李, 《汉语声调论》(南京: 南京师范大学出版社, 2003), 393-469쪽 참고.

25) 刘复, 《四声实验录》(北京: 群益书局, 1924).

26) 赵元任, 《赵元任语言学论文集》(北京: 商务印书馆, 2002), 742쪽.

27)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刘俐李, 《汉语声调论》(南京: 南京师范大学出版社, 2003), 19-21쪽 참고.

절 성분 차원의 단위이고 조소는 음절 차원의 단위로 보아야 하며, 성조는 음절 전체의 음높이가 아니고 음절 내 유성음에 의해 구현되는 것²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이전에 이미 주장된 음향학적 이론과 부합하는 것이었다.

1995년 林茂灿은 음향적 실험을 통하여 성조는 음절 내 전체 유성음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 아니고 음절 구성 요소 중 절대 빠질 수 없는 韻腹(핵모음)과 그 過渡의 과정에서만 실현되며 심지어는 韻頭나 韻尾와도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²⁹⁾

이는 비성조언어의 음조는 단순히 단어 내의 특정 음절에 작용하여 변별적 기능을 함에 비해 성조언어의 성조는 핵모음을 1차적으로 분화하고, 분화된 핵모음으로 모든 음절을 2차적으로 분화하는 이중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실제로 普通话 성조의 음절 분화력이 10개인 핵모음이나 22개인 성모나 4개인 매개모음보다 훨씬 강력함은 분절음에 의해 구성된 음절의 수가 408개에 불과한 것을 성조는 4개의 조소만으로 1652개로 증가시킨다는 것에서도 충분히 증명된다. 다른 한편 한어는 단음절적이기 때문에 한 음절이 하나의 단어가 되거나 적어도 하나의 형태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동일 음절이 성조에 의해 분화된다 해도 음절 수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예는 상용단어 3996개 중 1136개의 단음절 단어가 있는데, 이중 성조까지 포함했을 때 의미가 분별되는 단어는 657개인 58%, 성조를 포함해도 의미가 분별되지 못하는 단어는 42%였다³⁰⁾는 점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어는 결국 말소리로는 구분되지 않고 오로지 시각적인 漢字의 字形으로만 구별 가능한 것이다.

이는 비성조언어의 음조가 단어 내에서 특정 음절에 음조를 부여하여 분화하는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러한 특징이 말로 성조언어

28) 胡伟民, 〈调位三论〉, 《语文导报》12(1987)

29) 林茂灿, 〈北京话声调分布的知觉研究〉, 《声学学报》20:6(1995).

30) 郭锦桴, 《汉语声调语调纲要与探索》(北京: 北京语言学院出版社, 1993), 93쪽 참조

와 비성조언어를 가르는 결정적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普通話에는 a, o, ɤ, e, i, u, y, ɯ, ɨ ㅏ의 10개의 핵모음이 있어 이것을 4개의 조소로 분화하면 40개의 서로 다른 핵모음이 생겨나고 이 40개의 핵모음으로 음절을 再分化할 수 있지만, 단어에 음조가 주어지는 경우는 동일 음절을 음조의 조합으로만 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음조 악센트 언어인 일본어와 대비시켜 예시해 보면 (9) (10)과 같다.

(9) 〈音節聲調의 이중 분화[普通話의 성조 체계]〉

- ① 1차분화: “a”는 a[H], a[LH], a[L], a[HL]로 분화한다.
- ② 2차분화: a[H], a[LH], a[L], a[HL]는 “bao”를 bao[H], bao[LH], bao[L], bao[HL]와 같이 분화하지만, 동음절 동성조 내에도 많은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 구별은 결국包/胞/… ↔ 雹/薄/… ↔ 宝/饱/… ↔ 报/刨/…와 같이 시각적인 표의문자로 할 수 밖에 없다.
- ③ 3차 분화: bao[H], bao[LH], bao[L], bao[HL]는 “baodao”에서 [H-L] ↔ [H-LH] ↔ [H-HL] ↔ [H-H] ↔ [L-L] ↔ [L-LH] ↔ [L-HL] ↔ [L-L] …… 등과 같이 산술적으로 4²의 대립쌍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报道[HL-HL], 报到[HL-HL], 报导[HL-L], 宝岛[L-L], 宝刀[L-H], 刨刀[HL-H]와 같은 대립쌍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또 동음절 동성조 내에서의 의미 구별은 报道/报到와 같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10) 〈음조 악센트 언어의 음절 분화[일본어]〉

- ① hi[L](日)와 hi[H](火), kaki[L-H](柿)와 kaki[H-L](下記)의 대립은 이미 형성된 음절 hi 및 kaki에 음절 악센트를 부여 하거나 단어 내의 서로 다른 음절에 음조 악센트를 두어 구별한다.

(9) (10)에서 성조는 음절을 분화하기 위해 독자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음조 악센트는 기왕의 음절에 악센트를 부여하여 음절 자체를 분화시킬 뿐이란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 그 음절수는 성조에 의해 조소의 음절수 제공으로 늘어나며³¹⁾, 이런 음절은 보편적

31) 예를 들면, 일음절 A는 [L]과 [H]의 2개 조소로는 2¹의 음절로 분화할 수

으로 모두 분포되어 있음에 비해, 음조 악센트 언어의 hi[L]와 hi[H]의 대립은 hi라는 음절을 상호 대립시킨 것이지 i[L]와 i[H]의 대립의 결과로 hi[L]와 hi[H]의 대립 음절을 만든 것은 아니다. 만약 hi[L]와 hi[H]의 대립이 i[L]와 i[H]의 대립의 결과로 재분화한 것이라면 gi[L] ↔ gi[H], ni[L] ↔ ni[H]와 같은 대립 음절도 반드시 분포되어 그것에 의해 어휘적, 문법적 분화가 일어나야 하지만 실제로 일본어의 음절 분포에는 이런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성조언어에서는 성조가 모든 음절을 예외 없이 분화하지만, 여전히 성조까지 포함한 음절로 의미의 분화를 완결할 수는 없는데 반해 음조 악센트의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의미 분화의 역할을 완결한다. 위의 예에서 성조언어에서는 包와 胞, 霽와 薄, 報道와 報到 같이 성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미를 분화하지 못한 어휘들이 존재하지만, 음조 악센트는 hi[L]와 hi[H], kaki[L-H]와 kaki[H-L] 같이 의미 분화를 완결하여 더 이상 의미 분화를 하지 못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4. 성조와 중세국어 방점의 비교

중세국어의 방점이 나타내는 것에 대한 유형론적 논의는 방점이 음조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그것이 성조이나 아니면 음조 악센트이나의 문제로 전개 되었는데, 이는 결국 중세국어의 중국어식의 성조언어나 아니면 일본어식의 음조 악센트 언어이나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것은 그 동안 국어학계에서 논의 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어의 성조 및 일본어의 음조를 상호 대비하면 간단히 해소될 수 있는 의문이다.

성조언어의 성조는 독자적이고도 단계적으로 모든 음절을 분화한다

있고, [L], [H], [LH], [HL]의 4개 조소로는 4¹의 음절을 분화할 수 있다. 이음절 AB는 2개의 조소로 2²의 음절을 분화할 수 있고, 4개의 조소로는 4²의 음절을 분화할 수 있다. 3음절 ABC의 경우에는 2³의 음절과 4³의 음절로 분화할 수 있다.

는 점이 비성조언어의 음조와 가장 명확한 차이점이다. 따라서 중세국어에 가해진 방점이 이런 특성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중세국어는 성조언어에 속하고 방점은 성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1 중세국어의 음절 구조

訓民正音의 음절 구성은 한어의 음절을 모방하여 初聲, 中聲, 終聲으로 나누고 初聲에는 聲母를, 中聲에는 韻頭, 韻腹 및 모음 韻尾를, 終聲에는 初聲 聲母인 자음과 자음 韻尾를 배치함과 아울러 사성은 방점으로 표기하도록 하여 한어의 음절 구성과 흡사 같아 보이지만 훈민정음의 자음 17자와 모음 11자의 결합 방식은 한어와는 완전히 달라 초성과 중성을 각각 2 또는 3자로 조합하고, 口, ㅂ, ㅃ, ㅍ 아래 “ㅇ”을 붙여 순치음을 나타내기까지 하며, 終聲에 초성을 모두 쓸 수 있게 함으로써 초성은 결국 $17 \times 17 \times 17 + 17 \times 17 + 17$ 자가 있게 되고, 중성은 $11 \times 11 \times 11 + 11 \times 11 + 11$ 자를, 중성 5220(5219+중성이 없는 경우의 1)의 음절 구성 요소를 가진다. 따라서 이들의 조합은 적어도 산술적으로는 $384 \text{억}(5219 \times 1413 \times 5220)$ 여개의 음절을 적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현대 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초성 19자와 중성 21자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음절수는 중성이 없는 경우 $399(19 \times 21)$ 자, 초, 중, 중성이 모두 있는 음절이 $10773(399 \times 27)$ 자로 실제 음절수는 11172개가 된다. 따라서 중세국어이든 현대 국어이든 음절수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조가 활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세국어에 방점으로 표시한 음조는 성조언어의 성조가 음절수의 증가를 위해 1차적으로 핵모음을 분화하고 이를 통해 2차적으로 음절을 분화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중세국어를 성조언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2 중세국어 방점의 음절 분화 자질

중세국어에도 그것이 나타내는 실체가 무엇이든 간에 모든 음절에

방점이 표시되어 있는 셈이므로 이런 방점이 성조를 나타낸다면 모든 음절에 성조는 독자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실제로 李基文이 제시한, 음조만으로 의미가 구별될 뿐 음운론적, 문법적인 제약받지 않는 것으로 예시된 (11)과 같은 경우를 (9)의 음절성조와 상호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난다.

- (11) <중세국어의 방점에 의한 대립쌍> 32)
 손[L](客) ↔ 손[H](手)
 서리[L-H](霜) ↔ 서리[H-L](間)
 가지[H-L](枝) ↔ 가지[L-H](種) ↔ 가지[H-H](輪)

위 (11)의 방점은 각기 음절 단위로 존재하여 의미를 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성조언어의 성조와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음절성조는 독자적으로 음절을 분화하는 작용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손[L]과 손[H], 서리[L-H]와 서리[H-L]의 대립은 “손”과 “서리”라는 既成의 음절에 음조를 부가하여 의미를 분화한 것이며 이런 음조의 배치로 의미의 분화는 완결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성조언어의 성조 체계와 같이 2차 분화에 의해 음절적 대립을 한 것이라면 “손”의 대립은 “ㄱ”의 독자적인 1차 분화, 즉 ㄱ[L] ㄱ[H]의 단계를 거쳐 2차 분화로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ㄱ[L] ↔ ㄱ[H], ㄴ[L] ↔ ㄴ[H], ㄷ[L] ↔ ㄷ[H]과 같은 독자적, 단계적 2차 분화를 거친 음절이 대립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만약 서리[L-H]와 서리[H-L]의 대립쌍도 “ㄴ”과 “ㄷ”의 독자적, 단계적 1차 분화에 의한 2차 분화의 결과라면 서리[L-L], 서리[H-H], 거니[L-L], 거니[L-H], 거니[H-L], 거니[H-H]와 같은 음절도 분포되어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않다.

한어는 격변화나 어미변화가 없기 때문에 음절성조를 유지할 수 있지만 국어는 語辭의 굴절에 의해 문법적인 사항을 나타내므로 근본적으

32) 李基文, 《國語音韻史研究》(서울: 韓國文化研究所, 1973), 150쪽. 平聲은 [L], 去聲은 [H], 上聲은 [LH]로 바꾸어 적었다.

로 음절성조를 가질 수 없는 유형론적 특성이 있다.

(12)에서와 같이 중세국어의 語辭가 격변화나 어미변화를 할 때 그 어간이 일정한 방점을 가지지 않고 또 대부분의 조사와 어미의 末音節은 거성으로 끝난다는 점은 음절성조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12) <중세국어 어간의 방점 변화> 33)

말이[LH-H](기타환경), 말애[LH-H](치격조사)

몸이[H-H](기타환경), 몸애[L-H](치격조사)

먹고[L-H], 먹어서[L-H-H], 먹으니[L-H-H]

가고[L-H], 가서[H-H], 가니[L-H]

듣고[L-H], 들어서[L-H-H], 들으면[L-L-H]

(12)의 체언 “말”과 “몸”이 기타 환경에서는 자기의 방점을 유지하지만 치격조사 앞에서는 몸[H]이 몸[L]으로 변하는 것처럼 어간의 방점이 유지되지 않고 있으며, 또 몸이[H-H]가 방점에 의한 의미 있는 음절 분화라면 그것은 몸이[L-L], 몸이[L-H], 몸이[H-L], 몸이[H-H]도 의미 있는 대립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동원되지만³⁴⁾ 어쨌든 그것은 음절성조가 아니란 점을 증명한다. 만약 음절성조이라면 몸[H]과 몸[L]은 완전히 다른 음절로 그 의미도 서로 다른 별개의 단어일 것이기 때문이며 또 문법적 변화에 방점이 간여한다면 그것도 음절을 분화하는 방점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점은 의미 분화나 음절 분화의 어느 측면에서도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른 한편 중세국어에 (13)과 같은 단음절 단어가 상당수 있지만 이들과 방점에 의해 구별되는 대립쌍의 예는 없으며, 또한 (14)의 복음절

33) 이 예들은 유필재, <中世國語 聲調 研究史> 《울산어문논집》 15(2001), 1136-138쪽에서 온 것이며, 앞의 예에 따라 上聲은 LH로 바꾸어 적었다.

34) 이런 규칙들은 下野六郎, <朝鮮古文獻의聲點たついて> (《朝鮮學報》 1(동경: 1951), 金完鎭, 《中世國語聲調의 研究》(서울: 韓國文化研究所, 1973) 등에 상세하게 추정되어 있다.

단어들도 방점에 의해 구별되는 다른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 상 그 음절에 있는 방점은 무의미 할 뿐 아니라, “그럭”과 “ㄹ래”가 각기 독립적인 형태소로 합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럭”, “ㄹ”와 “래” 등의 음절에 음조가 독자적이고도 단계적으로 그 분화에 간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은 한어의 경우와 같은 단음절어에서나 그러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으나, “琵琶”, “葡萄”, “葫蘆”, “芙蓉”등과 같이 모두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複音節 단어에서도 성조가 독자적이고도 단계적인 분화 작용을 여전히 하고 있음과 비교하면 그 차이점은 자명해지며, 이런 점이야말로 중세국어의 성조언어가 아니란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13) 〈訓民正音 解例本에 보이는 單音節 단어〉³⁵⁾

길[L](柱), 납[L](猿), 념[L](脅), 닥[L](楮)
갈[H](笠), 갈[H](刀), 굽[H](蹄), 깃[H](巢)
감[LH](柿), 김[LH](繪), 널[LH](板), 돌[LH](石)

(14) 〈訓民正音 解例本에 보이는 複音節 단어〉

그럭(雁), ㄹ래(楸), 노로(獐), ㄷ리(橋)

한편 (15)와 같은 중세국어의 복합어는 음절성조와 같이 자기 음조를 유지하고 복합어의 구성 성분이 되지만 이것 역시 각 음절이 독자적이고도 단계적인 분화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음절성조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15) 〈중세국어의 복합어〉³⁶⁾

아버[L-H]+ 님[LH] → 아바님[L-H-LH]
아버[L-H]+ 아들[L-H] → 아비아들[L-H-L-H]

35) (13)과 (14)의 예들은 鄭然燾, 《國語聲調에 관한 研究》(서울: 一潮閣, 1976), 24-25쪽에서 온 것이며, 平聲은 [L], 去聲은 [H], 上聲은 [LH]로 바꾸어 적었다.

36) 이 예들은 유필재, 〈中世國語 聲調 研究史〉, 《울산어문논집》15(2001), 152쪽에서 온 것이다.

아버지[L-H]+어미[H-H(H-L)] → 아버지미[L-H-H-L]

4-3 중세국어 방점의 대립 자질

훈민정음에서는 방점이 평성, 상성, 거성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또 평성, 상성, 거성이 각기 다른 소리임을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나타내는 것에 대해 평성은 저조를, 거성은 고조를 지시한다고 보지만, 상성에 대해서는 독립된 한 조소로 보지 않고 평성과 거성의 並置로 보는 二調素說은 下野六郎³⁷⁾에서 제기되어 李基文³⁸⁾, 鄭然燾³⁹⁾, 金完鎭⁴⁰⁾ 등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고 있다. 李基文은 下野六郎의 상성을 평성과 거성의 병치로 보는 견해에 대해 “聲이 곧 平聲과 去聲의 並置임을 證明하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15世紀의 上聲을 低調와 高調의 並置로 解釋함으로 해서 도리어 窮地에 빠지는 경우는 하나도 없으니, 구태여 上聲을 昇調(rising tone)로 보아 中世語의 聲調 體系를 복잡하게 할 理由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中世語의 聲調 體系는 低調와 高調의 두 聲調素의 對立으로 된 平板體 體系였다. 이것은 平板調 體系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이다.⁴¹⁾”라고 하여 중세국어의 방점은 고조와 저조만을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二分的 체계였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金完鎭은 “上聲은 平聲과 去聲의 한 音節 안에서의 並置로 분석하였을 때에는 音長이 聲調結合을 音節에 附隨적으로 나타나는 剩餘資質이므로 中世聲調는 平聲과 去聲의 2分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나 聲調體系의 變質過程에서도 매우 重要的 機能을 擔當했던 存在로 聲調 그 自體는 아니지만 聲調論에서는 제외될 수 없는 要素로 보아 무방하

37) 下野六郎, 〈朝鮮古文獻의 聲點에 關하여〉, 《朝鮮學報》1(1951)이 수록된 下野六郎, 《下野六郎著作集1》(동경: 平凡社, 1979) 414쪽.

38) 李基文, 〈小學諺解에 대하여〉, 《한글》제127호(1960)가 수록된 李基文, 《國語史概說》(서울: 民衆書館, 1977) 146쪽.

39) 鄭然燾, 〈十五世紀 國語의 Tone에 對한 研究〉, 《國語研究》8(서울대, 1960).

40) 金完鎭, 《中世國語聲調의 研究》(서울: 韓國文化研究所, 1973), 30쪽.

41) 李基文, 《國語音韻史研究》(서울: 韓國文化研究所, 1973), 147쪽.

다⁴²⁾고 하였다.

三調素說은 상성도 하나의 조소로 보는 許雄에 의해 제안된 것⁴³⁾이며, 黃希榮은 上聲을 〈訓蒙字會 凡例〉에 보이는 설명을 근거로 낮은 가락에서 높은 가락으로 올라가는 音調變動을 일으키는 ‘水平調’ 複合連結曲線的 長音(level toneme juxtaposed to form glide)⁴⁴⁾으로 보았고, 金次均은 상성을 ‘평성+거성’으로 보려면 상성의 전반부는 평성과, 후반부는 거성과 같은 음조이어야 하는데 훈민정음의 설명에 의하면 상성의 후반부는 “노푼 소리”이지만, 거성은 “뭇노푼 소리”로 그 음조가 같다고 할 수 없고, 또 상성이 평성과 거성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예는 대부분 굴절에서 보이는데, 그렇다면 중세국어의 격음은 평음과 “ㅎ”의 결합으로 보아야 한다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⁴⁵⁾ 상성도 하나의 조소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위 二調素說의 견해와 같이 만약 중세국어의 방점이 저조와 고조만을 지시하는 것이라면 중세국어는 사실 고조의 한 자질로만 음절의 구분을 표시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어와 같은 성조언어의 성조는 최소 3개의 조소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중세국어는 절대 성조언어의 범주에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세국어를 방점이 저조와 고조를 지시하는 平板調로 보는 이유는 (16)과 같이 평성과 거성인 두 음절이 다른 한 음절로 축약될 때 축약된 음절에서는 상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16) 〈平聲+去聲이 上聲이 된 예〉

부터[L-L](佛)+이[H](主格) → 부테[L-LH]

다리[L-L](橋)+이[H](主格) → 다리[L-LH]

42) 金完鎭, 《中世國語聲調의 研究》(서울: 韓國文化研究所, 1973) 30쪽.

43) 許雄, 〈旁點研究〉, 《東方學志》2,(연세대, 1955)가 수록된 許雄, 《中世國語研究》(서울: 正音社, 1963) 263쪽.

44) 黃希榮, 《韓國語音韻論》(서울: 二友出版社, 1979) 319쪽.

45) 金次均, 《나랏말의 소리》(서울: 태학사, 1988) 476쪽.

문저[L-L]+이오[H-H] → 문제오[L-H-LH]

(16)에서 보인 것과 같이 평성과 거성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에 상성으로 구현되는 것에 대해 李基文은 평성과 거성은 하나의 모라(mora)이지만, 상성은 두 개의 모라⁴⁶⁾로 보았고, 金完鎭은 평성과 거성의 平板型에 상성은 한 음절에 실현되는 평성과 거성의 複合⁴⁷⁾으로 보았다.

이는 결국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축약되어도 원래 음절의 음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결국 한 음절에 두 개의 음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성조언어에서는 음절이 각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병합될 수 없다는 점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음절성조는 한 음절에 하나 이상 포함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음절성조의 기본 원칙과도 크게 차이난다. 이와 관계없이 상성을 하나의 독립된 음조로 보고 그 調值가 어떻든 위의 예와 같은 경우는 성조가 음절에 귀속되어 테[L], 테[H], 테[LH]와 같은 서로 대립된 음절을 독자적으로 형성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방점이 나타내는 調值에 대해서도 高低說, 長短說, 高低長短說 등으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다르다. 이에 대해 洪起文은 “上聲字의 大部分은 長音이다. 그런데, 발(廉), 골(郡)과 같이 길게 내는 소리는 前後兩段으로 나누어져서 前段에서는 보통의 음과 같다가 後段에서 혀를 다시 끌어들이면서 길게 하는 것이 그 特徵이다. 그런데, 우리말은 한자 長短이다. 漢字의 高低와는 결코 같지 않다.”⁴⁸⁾라고 하여 중세국어에 사성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장단으로 대비되는 요소는 있다고 보았다. 반면 許雄은 《訓民正音諺解》와 《訓蒙字會》의 설명을 바탕으로 평성은 낮은 소리, 거성은 높은 소리, 상성은 낮다가 높아가는 소리⁴⁹⁾로 보았다. 이러한 長短說이나 高低說과는 달리 상성은 평성이나

46) 李基文, 《國語音韻史研究》(서울: 韓國文化研究所, 1973), 148쪽.

47) 金完鎭, 《中世國語聲調의 研究》(서울: 韓國文化研究所, 1973), 30쪽.

48) 洪起文, 《正音發達史》(서울: 서울신문사, 1946), 138쪽.

49) 許雄, 〈旁點研究〉(《東方學志》2, 연세대, 1955)의 재수록, 許雄, 中世國語研究(서울: 正音社, 1963), 261쪽.

거성에 비해 두 배의 소리 길이를 가지는 長短 辨別로 보아, 평성과 거성은 고저로 대립되고, 상성은 평성 및 거성과 장단으로 대립되는 調值라고 보기도 하였다.⁵⁰⁾ 만약 중세국어의 방점이 장단으로 대립되는 요소를 나타낸다면 그것은 성조가 아니며, 고저 대립형의 平板調로 본다면 상성을 저조와 고저의 병합으로 본다면 결국 모라의 장단으로 구별되는 자질이므로 이 또한 음절성조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5. 결론

국어가 성조언어가 아니란 점은 “국어의 모든 음절에 예외 없이 고저로 형성된 초분절적 변별자질이 분포되어 있는가?”라는 간단한 물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점에 근거하여 중세국어도 성조언어라는 주장이 엄존하는 이유는 한어의 聲母, 韻母, 聲調의 음절 구조를 고수하기 위하여 훈민정음에서도 初聲, 中聲, 終聲, 旁點 체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중세국어에 한어와 같은 성조가 있어 그것을 방점으로 표기한 것이라면 방점은 모든 음절의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방점의 표기 없이는 그 음절을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방점 표기를 절대 생략할 수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방점들은 일시적으로 존재하다가 사라지게 된다. 이것은 훈민정음의 음절에서 방점은 필수불가결의 요소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중세국어의 방점은 성조를 표기한 것이 아니란 것을 충분히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세국어의 방점은 비록 모든 음절에 표기되어 있는 셈이지만, 성조가 핵모음의 분화를 통해 음절을 2차적으로 분화하는 방법으로 모든 음절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점을 근거로 중세국어를 성조언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방점이 성조를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0) 李奭周, 〈中世國語聲調에 관한 問題點 檢討〉(《漢城大學論文集》1982), 143쪽.

그렇다면 방점이 지시하는 평성, 상성, 거성이 나타내는 것의 실체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남는다. 이것에 대해 일단 평성이 無標識이고 저조인데 반해 거성은 一點으로 표시된 고조라는 점에 미루어 보면 語辭 내에 존재하는 일종의 악센트를 직관적으로 표시한 것이고, 상성은 장단으로 변별되는 語辭 내의 장음의 표시가 아닌가 하고 추정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비교적 난해한 장문의 논문이 필요할 것 같아 다음으로 미룬다.

[참고문헌]

- 赵元任, 〈五声的标准〉, 《国语月刊》 1:8(1922).
 后觉, 〈声调究竟有没有用处〉, 《国语月刊》 1:8(1922).
 刘复, 《四声实验录》(北京: 群益书局, 1924).
 下野六郎, 《朝鮮方言學試攷》(동경: 東部書籍, 1945) ▶ 下野六郎, 《下野六郎著作集(1)》(동경: 平凡社, 1979)에 수록.
 洪起文, 《正音發達史》(서울: 서울신문사, 1946).
 洪起文, 《朝鮮文法研究》(서울: 서울신문사, 1947).
 Pike Kenneth, L., *Tone Languages* (Ann Arbor, Michigan U.S.A.: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48).
 下野六郎, 〈朝鮮古文獻の聲点について〉, 《朝鮮學報》 1(1951) ▶ 下野六郎, 《下野六郎著作集1》(동경: 平凡社, 1979)에 수록.
 下野六郎, 〈中期朝鮮語用言語幹の聲調いて〉, 《金田一博士古稀記念言語民俗論朝叢鮮》(동경: 三省堂, 1953) ▶ 下野六郎, 《下野六郎著作集(1)》(동경: 平凡社, 1979)에 수록.
 下野六郎, 《下野六郎著作集(1)》(동경: 平凡社, 1979).
 南廣祐, 〈傍點攷〉, 《국어국문학》 7(1953).
 許雄, 《中世國語研究》(서울: 正音社, 1963).
 許雄, 〈傍點研究〉, 《東方學志》 2(연세대, 1955) ▶ 許雄, 《中世國語研究》(서울: 正音社, 1963)에 수록.
 許雄, 《中世國語研究》(서울: 正音社, 1963).
 李基文, 〈小學諺解에 대하여〉, 《한글》 127(한글학회, 1960) ▶ 李基文, 《國

- 語史概說》(서울: 民衆書館, 1977)에 수록.
- 鄭然榮, 〈十五世紀 國語의 Tone에 對한 研究〉, 《國語研究》8(서울대, 1960).
- 金完鎭, 〈形態部 聲調의 動搖에 對하여〉, 《西江大學論文集》1(1963) ▶ 金完鎭, 《國語音韻體系의 研究》(서울: 一潮閣, 1971)에 수록.
- 鄭然榮, 〈十五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의 聲調에 對하여〉, 《忠南大論文集》8(1963) ▶ 鄭然榮, 《國語聲調에 관한 研究》(서울: 一潮閣, 1976)에 수록.
- 李崇寧, 〈15世紀의 活用에서의 聲調의 考察〉, 《亞細亞研究》7:2(1964).
- McCawley James D., *What is a Tone Language?*(1964) ▶ Fromkin V. A. 편, *Tone--A Linguistic Survey* (USA: Academic Press, 1978)에 수록.
- 南廣祐, 《國語學論文集》(서울: 中央大學出版局, 1965).
- McCawley James D., *The Accentual System of Modern Standard Japanese* (Cambridge: MIT dissertation, 1965).
- McCawley James D., *The Phonological Component of A Grammar of Japanese* (The Hague and Paris: Mouton, 1968).
- 鄭然榮, 〈國語 聲調의 機能 負擔量十에 對하여〉, 《黎堂金五載世元紀博士回甲紀念論叢》(1969) ▶ 鄭然榮, 《國語聲調에 관한 研究》(서울: 一潮閣, 1976)에 수록.
- 鄭然榮, 〈중세국어 관형사형의 성조에 대해〉, 《한글》146(1970) ▶ 鄭然榮, 《國語聲調에 관한 研究》(서울: 一潮閣, 1976)에 수록.
- 金完鎭, 《國語音韻體系의 研究》(서울: 一潮閣, 1971).
- 鄭然榮, 《國語聲調에 관한 研究》(서울: 一潮閣, 1976).
- 金完鎭, 《中世國語聲調의 研究》(서울: 韓國文化研究所, 1973).
- 李基文, 《國語史概說》(서울: 民衆書館, 1977).
- 李基文, 《國語音韻史研究》(서울: 韓國文化研究所, 1973).
- 李基文, 《國語音韻史研究》[再版](서울: 國語學會, 塔出版社發行, 1977).
- Fromkin V. A. 편, *Tone--A Linguistic Survey* (USA: Academic Press, 1978).
- 黃希榮, 《韓國語音韻論》(서울: 二友出版社, 1979).
- 李奭周, 〈中世國語聲調에 관한 問題點 檢討〉, 《漢城大學論文集》(1982).
- 韓在永, 〈中世國語 聲調에 관한 一考察--특히 피동사와 사동사의 파생을 중심으로--〉, 《國語學》14(1985)
- 金成煥, 〈中世國語聲調의 變異와 聲調型〉, 《大邱教育大學校論文集》

- 22:1(1986).
- 胡伟民, 〈调位三论〉, 《语文导报》 12(1987).
- 金次均, 《나랏말의 소리》(서울: 태학사, 1988).
- 김경관, 〈중세 국어 성조의 재분석〉, 《言語研究》(1991).
- 郭锦桴, 《汉语声调调阐要与探索》(北京: 北京语言学院出版社, 1993).
- 林茂灿, 〈北京话声调分布的知觉研究〉(《声学学报》 20:6(1995)).
- Steven Bird, *Strategies for Representing Tone in African Writing System: A Critical Review* (USA: Penn State, 1999).
- 金星奎, 〈중세국어 2음절 용언 어간의 성조 유형〉, 《國語學》 32(1998).
- 김차균, 《나랏말과 겨례의 슬기에 바탕을 둔 음운학강의》(서울: 태학사, 1998.)
- 王洪君, 《汉语非线性音系学》(北京: 北京大学出版社, 1999).
- 車載銀, 《중세국어 성조론》(서울: 도서출판 월인, 1999).
- 金永万, 〈15-16世纪韩国(朝鲜)汉字音的超分节音(韵素)研究--与中古汉音声掉对比〉, 《东疆学刊》 16:4(1999.10).
- 유필재, 〈中世國語 聲調 研究史〉. 《울산어문논집》 15(2001.11).
- 赵元任, 《赵元任语言学论文集》(北京: 商务印书馆, 2002).
- 刘俐李, 《汉语声调论》(南京: 南京师范大学出版社, 2003).
- 유필재, 〈후기 중세국어 용언 어간의 성조와 기저형 설정〉, 《語學研究》 39:1(2003).
- 金次均, 〈우리말 성조 연구에서 방점 표상과 성조 표상〉, 《한글》 265 (2004.9).
- San Duanmu, "Tone and Non-tone Languages: An Alternative to Language Typology an Parameter"(*Language and Linguistics* 5:4, University of Michigan, 2004).

[中文摘要]

《訓民正音》是韩语所使用的字母，为一四四三年朝鲜朝第四代世宗大王所创造，於一四四六年十月颁行。制定《訓民正音》时，为了拼写韩语的音节，参考汉语声母和韵母的结构，制定初声、中声、终声二十八个字母，同时为了注明四声，发明了“旁点”。并且将这个旁点加在翻译汉字音的或所记韩语的韩文左边，以此标注汉字的四声或当时韩语的“四声”。《訓民正音諺解》在解释用旁点拼注韩语里的平上去入的办法说：“左加一點則去聲，二則上聲，無則平聲，入聲加點同而促急。”，此外《訓民正音解例合字解》在说明韩语的四声调值时说：“平聲安而和，上聲和而舉，去聲舉而壯，入聲促而塞。”，看这些解释，似乎当时韩语也具有类似汉语里特有的声调。后人对这旁点所表示的意义，有的认为当时韩语也属于声调语言，旁点代表声调，有的认为旁点表示乐调重音(Pitch Accent)，意见不一。

一般把声调分为汉语式的声调(或曰“字调”)，与非洲、日语式的声调(或曰“词调”)，汉语声调的音高变化在音节内，非洲、日语声调的音高变化在跨越多音节构成的一个词上。笔者为了分清楚音高作为辨意作用的语言中，把类似汉语声调附属于音节内的语言称之为声调语言，其音高变化才看成“声调”，而类似非洲、日语，声调在音节间的语言称为乐调重音语言，其音高变化看成乐调重音。

声调语言的声调是属于音节的，而且每个音节都有一个声调，而非声调语言的音调不一定与一个音节连接，而是跨越在若干个音节之上的，这若干个音节构成一个词。因当时韩文的每个音节字左边都有标记四声的旁点，由一音节一声调的准则，很难确定韩语是否为声调语言。

既然声调语言的声调是为了补偿语音结构简化而导致的音节数目不足而产生的，笔者认为声调的主要功能在于语音区别作用。声调为独自发挥语音区别功能，先用音高变化把主要元音分为几个类型，再分每个音节。但是由于乐调重音落在词汇里的对比重音音节上，只表示相对重音，并没有独自发挥先后两阶的分化作用。笔者从这一特点出发，分析这些旁点，推导出旁点并不表示声调，理所当然地，当时的韩语也决不会是声调语言。如果当时的韩语属于声调语言，每个音节都具有起辨别作用的声调，就绝不可能取消标记声调的手段的旁点，然而开始使用旁点做调号之后，过了短短八十多年就取消旁点调号的系统，并且并没有给韩语的语音表达带来混乱，这也可以证明当时韩语并不属于声调语言。

키워드: 중세 국어, 방점, 성조, 유형론

〈千字文〉 典故 考究**

金世煥*

〈 목 차〉

1. 서 언
2. 典故의 出處와 意味
3. 결 어
[참고문헌]
[論文摘要]

1. 序言

"讀千文已, 猶一字不知也. 千文有用處, 以之標田, 以之標試卷焉, 可也. 於小學何與? 苟爾雅說文不可復, 徐居正之類合, 猶其近者也."¹⁾

千字文을 다 읽어도 한 字도 모르는 것과 같다. 천자문의 用處라면 田畝의 표시나 시험 답안지 표시를 하는 것 정도이다. 아이들 교육에서 무엇에 쓰겠는가? 《爾雅》나 《說文》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면 徐居正 《類合》이 더 나올 것이다.

丁若鏞(1762-1836) 선생은 그의 雜評 〈千文評〉에서 〈千字文〉을 이처럼 맹렬하게 비평하면서 그 無用論을 거세게 주장하였다. 〈千文評〉은 〈千字文〉의 내용이나 체계가 지나치게 어렵고 산만하여 아이들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丁若鏞 著,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다산시문집9·雜評》(서울: 솔출판사, 1986.12), 原文 66쪽.

에게 적절한 漢字 학습용 교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매우 과격한 어투로 지적한 글이다.

〈千字文〉이 아동의 학습 교재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지만, 〈千字文〉이 매우 난해하다는 丁若鏞 선생의 지적은 누구라도 공감할 만하다. 〈千字文〉은 中國 고대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이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옛날 〈千字文〉의 교육은 단지 글자 위주의 학습이었고, 그 내용을 이해시키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 書堂에서 주로 사용한 것은 韓濩(石峯;1543-1605) 선생의 書帖이었으며, 이는 글자를 익히고 붓글씨를 연습하는 교습용으로 〈千字文〉의 註解書는 아니었다.

〈千字文〉은 본시 漢文 학습서라기보다는 붓글씨 연습을 위한 서첩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丁若鏞 선생이 이 점을 생각했다라면 그렇게 격분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千字文〉에 관한 가장 초기의 기록은 姚思廉(557-637)의 《梁書》에 있는 〈周興嗣傳〉이라 할 것이다.

"〈銅表銘〉, 〈柵塘碣〉, 〈北伐檄〉, 〈次韻王羲之書千字〉, 並使興嗣爲文, 每奏, 高祖輒稱善, 加賜金帛."²⁾

〈銅表銘〉, 〈柵塘碣〉, 〈北伐檄〉, 〈次韻王羲之書千字〉에 周興嗣로 하여금 글을 짓게 하였는데, 매년 지어 올릴 때마다 高祖(武帝)는 거듭 칭찬해마지 않았으며 금과 비단을 하사하였다.

여기에서 〈次韻王羲之書千字〉가 바로 〈千字文〉의 原題였다고 할 수 있다. 梁 나라(502-557) 武帝(蕭衍; 502-549 在位)는 평소 王羲之(303-361)의 글씨를 무척 좋아하였다. 그는 王子들의 붓글씨 교육용으로 王羲之의 글씨 중에서 중복 글자 없이 1000字의 글자를 榻本하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내용이 없는 글자의 片鱗은 단지 여수선할 뿐이었다. 그래서 文才가 뛰어난 周興嗣(生卒未詳)로 하여금 이를 詩와 같이 韻文으로 지어오게 하였고, 武帝는 이에 매우 만족 하였다.³⁾ 즉 〈次韻

2) 姚思廉 撰, 《梁書·周興嗣傳》(北京: 中華書局 影印), 443쪽.

王羲之書千字〉는 '王羲之 글씨 千字를 韻文으로 지었다'라는 뜻으로, 그 후 〈千字文〉의 주해서 등에서는 周興嗣라는 이름 아래 항상 이 '次韻' 두 글자가 붙어 다녔다.

〈千字文〉을 짓게 한 武帝의 의도는 일차적으로 王羲之의 붓글씨를 익히게 하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의미 없는 낱글자의 연습은 단조로울 뿐 효과적이지 못하여, 이를 형식과 내용의 체계를 갖춘 의미 있는 문장으로 만들게 한 것이다. 周興嗣는 과연 이 임무를 본래의 의도 이상으로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깊은 내용을 미려한 형식으로 담아낸 이 1000字的 노래는 현대 교육의 西洋化 이전까지 약 1500년 가까이 中國이나 우리나라 모두에서 不朽의 학습서로 사용되어 왔다.

형식으로는 4字 1句인데 두 句를 한 聯으로 하여 매 聯의 끝 글자에 押韻을 하였다. 즉 250句 125聯으로 된 1000字는 정교한 조직의 詩歌 형식으로 암송에 매우 적절한 요건을 갖춘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동들에게 訓讀을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의 韻律은 느낄 수가 없다.

내용으로는 中國 古代의 역사와 문화를 집약하여 음미할수록 새로운 의미를 깨우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효과적인 암송을 위해서는 형식의 流麗함도 중요하지만 내용의 깊은 의미가 없으면 쉽게 지루하게 된다. 아울러 단순한 지식보다는 볼수록 새로운 의미와 지혜를 깨달을 수 있어 평생을 보아도 싫증나지 않는다면 훌륭한 문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千字文〉의 내용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러한 의도에서 지었기 때문이다. 즉 다른 經典처럼 평생을 보아도 충분히 음미할만한 깊은 내용을 함축하고자 한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급적 창작을 피하고 대부분 典故를 사용하였다. 가령 第一聯의 '天地玄黃', 第二聯의 '日月盈昃' 그리고 第三聯의 '寒來暑往' 등의 句는 모두 《周易》에서 인용한 것이다. 쉬운 글자이기 때문에 아동이라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出典에서의 의미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때문에 지속적인 음미를 통하여 조금씩 깨닫게 되며 성인이 된 후에도 많은 여운이 남는

3) 汪嘯尹 纂集, 《千字文釋義》(北京: 中國書店, 1991.9), 1-2쪽 참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글은 〈千字文〉이지만 사실상 經典을 보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經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千字文〉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千字文〉이 난해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千字文〉은 지금까지 주해서가 많지 않다. 여기에서 臺本으로 사용한 책은 淸 나라 汪嘯尹이 纂集한 《千字文釋義》이다. 中國의 주해서로서는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752년 발간된 洪聖源 선생의 《註解千字文》이 대표적이었다고 보인다.⁴⁾ 다만 그 주해가 매우 간략하여 큰 도움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웠다. 현대에 와서 비교적 상세한 주석서들이 출판되어 〈千字文〉의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⁵⁾

이 글의 목적은 〈千字文〉에서 활용한 典故의 출처를 찾아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⁶⁾ 〈千字文〉이 난해한 이유가 바로 〈千字文〉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典故에 있으며, 출전을 통해 이러한 典故의 의미가 밝혀지지 않으면 〈千字文〉의 이해를 도모할 수가 없다. 옛날 사람들은 漢學에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典故의 註解가 크게 필요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전통 학문을 대부분 내던져버린 지금은 상세한 설명이 매우 긴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三國時代부터 이미 〈千字文〉을 小學의 교재로 사용하였다. 경전보다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 경전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修身書로서의 의미도 컸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대부분 漢字로

4) 洪聖源 註解, 成百曉 譯註, 《註解千字文》(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2.12), 5-6쪽 참고.

5) 예로, 李民樹 譯解, 《千字文》(서울: 惠園出版社). 김근, 《육망하는 천자문》(서울: 삼인도서출판, 2003.6). 李民樹 선생의 책은 출처의 설명이 상세하지만 서술이 다소 번다한 느낌을 주고, 김근 교수의 책은 글자의 풀이가 매우 자세한데 출처의 설명이 다소 미흡해 보인다.

6) 여기에는 필자의 개인적인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즉 필자는 현재 〈千字文〉의 주해서를 집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따로 마련하기 위해 이 논문을 구상하였다. 책이 완성되면 이 논문은 부록으로 첨가할 계획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체의 설명을 생략하고, 단지 典故의 출처와 그 부분에 한정된 의미를 밝히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

적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千字文〉의 의미는 현대에서도 퇴색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되었다.

2. 典故의 出處와 意味

1. 天地玄黃, 宇宙洪荒: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우주의) 공간은 넓고 시간은 무한하다.

《周易》: "夫玄黃者, 天地之雜也, 天玄而地黃."⁷⁾ 무릇 玄黃이란 天地의 어우러짐이니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淮南子》: "往古來今謂之宙, 四方上下謂之宇."⁸⁾ 옛날로부터 지금까지를 '宙'라 하고, 사방 상하를 '宇'라 한다.

《法言》: "鴻(洪)荒之世, 聖人惡之."⁹⁾ (禮義가 갖추어지지 않은)太古의 세상이 있었으니 성인은 싫어하였다."

2. 日月盈昃, 辰宿列張: 해는 뜨고 지며 달은 차고 이지러진다. 12辰으로 나뉘고 28宿로 펼쳤다.

《周易》: "日中則昃, 月盈則食."¹⁰⁾ 해가 중천에 이르면 기울고, 달이 차면 이지러진다."

《淮南子》: "天設日月, 列星辰, 調陰陽, 張四時."¹¹⁾ 하늘에 일월을 두고 星辰을 펼쳐 음양을 조절하니 네 계절이 이어졌다.

3. 寒來暑往, 秋收冬藏: 추위가 오면 더위가 물러가니, 가을에 마무리하

7) 《十三經注疏·周易正義·坤卦·文言》(第一版;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12), 39쪽.

8) 劉文 典撰, 《淮南鴻烈集解上·齊俗訓》(第一版; 北京: 中華書局, 1989.5), 362쪽.

9) 揚雄 撰, 《諸子集成·第十冊法言·問道》(第一版; 河北: 河北人民出版社, 1992). 10쪽.

10) 《十三經注疏·周易正義·豐卦·彖傳》, 263쪽.

11) 《淮南鴻烈集解下·泰族訓》, 663쪽.

고 겨울이면 된다.

《周易》：“寒往則暑來，暑往則寒來。”¹²⁾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더위가 가면 추위가 온다.

《史記》：“夫春生夏長，秋收冬藏，此天道之大經也。”¹³⁾ 봄이면 소생하고 여름에 자라며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쉬는 것이 하늘의 큰 길이다.

4. 閏餘成歲，律呂調陽：남는 날들로 윤달을 두어 일년의 歲曆을 만든다. 天地의 陰陽에 맞추어 律과 呂의 音階를 만든다.

《書經》：“朞三百有六旬有六日，以閏月定四時，成歲。”¹⁴⁾ 일년의 주기(태양을 기준으로 할 때)는 366일이니 윤달을 두고 4계절을 바로 잡아 한 해의 歲曆을 만들지라.

5. 雲騰致雨，露結為霜：구름이 올라가서 비가 내리고, 이슬이 얼어 붙으니 서리가 된다.

《周易》：“雲行雨施，品物流形。”¹⁵⁾ 구름이 지나면서 비를 내리게 하니 사물마다 제각각 모습을 갖춘다.”

6. 金生麗水，玉出崑岡：금은 麗江에서 나고, 옥은 崑崙山에서 난다.

《韓非子》：“荊南之地，麗水之中生金。”¹⁶⁾ 荊南의 땅 麗水에서 금이 난다.

《史記》：“代馬胡犬不東下，崑山之玉不出，此三寶者亦非王有已。”¹⁷⁾ 代馬와 胡犬이 동쪽으로 내려오지 않을 것이며 崑山의 玉도 나오지 않을 것이니 이 세 가지 보배가 왕의 것이 아닙니다.

12) 《十三經注疏·周易正義·繫辭傳下》358쪽.

13) 司馬遷 撰, 《史記·太史公自序》(北京: 中華書局 影印), 3290쪽.

14) 《十三經注疏·尚書正義·堯典》, 35쪽.

15) 《十三經注疏·周易正義·乾卦·象傳》, 8쪽.

16) 《諸子集成·第八冊韓非子集解·內儲說上》, 168쪽.

17) 《史記·趙世家》, 1818쪽.

7. 劍號巨闕, 珠稱夜光: 검이라면 巨闕이요, 진주라면 夜光珠를 말해야 할 것이다.

《荀子》: "閩間之干將·莫邪·鋸闕·辟間, 此皆古之良劍也."¹⁸⁾ 閩間的 干將·莫邪·鋸闕·辟間는 모두 옛날의 훌륭한 劍들이었다.

《史記》: "臣聞明月之珠, 夜光之璧,"¹⁹⁾ 신은 明月珠와 夜光의 玉璧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8. 果珍李柰, 菜重芥薑: 과일 중에서는 자두와 능금이 좋고, 채소로는 갖과 생강을 중히 한다.

《論語》: "不撤薑食."²⁰⁾ (孔子는 식사 후에도 생강을 놓아두도록 했다.

9. 海鹹河淡, 鱗潛羽翔: 바닷물은 짜고 강물은 심심하다. 물고기는 물속으로 들어가고 새는 하늘을 飛翔한다.

10. 龍師火帝, 鳥官人皇: 伏羲氏 神農氏가 있었고, 黃帝와 그의 아들 少昊氏가 있었다.

《春秋左傳》: "炎帝氏以火紀, 故爲火師而火名. ……大皞氏以龍紀, 故爲龍師而龍名. ……我高祖少皞摯之立也, 鳳凰適至, 故紀於鳥, 爲鳥師而鳥名.

²¹⁾ 엄제는 불로 紀綱(나라의 기틀)을 세워 관직의 首長은 불의 이름으로 官名을 붙였습니다.²²⁾ ……대호씨는 용으로 기강을 세워 관직의 首長에는 용의 이름을 붙였습니다.²³⁾ ……내 高祖 少皞氏가 즉위할 때에는 봉황이

18) 《諸子集成·第三冊荀子集解·性惡篇》, 299쪽.

19) 《史記·魯仲連鄒陽列傳》, 2476쪽.

20) 《十三經注疏論語注疏·鄉黨》, 150쪽.

21) 《十三經注疏春秋左傳正義·昭公十七年》, 1567쪽.

22) 예로, 春官을 大火로, 夏官을 鶉火, 秋官을 西火, 冬官을 北火라 한 것과 같다. 〈孔穎達疏〉, 1568쪽.

23) 예로 春官을 靑龍이라 하고 夏官을 赤龍이라 하며 秋官은 白龍 冬官을 黑

날아들었기 때문에 새의 이름으로 기강을 세워 수장에 새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11. 始制文字, 乃服衣裳: 黃帝는 처음으로 文字를 창제하고, 옷을 만들어 입게 하였다.

《說文解字》: "倉詰之初作書, 蓋依類象形, 故謂之文. 其後形聲相益, 卽謂之字."²⁴⁾ 창힐이 처음 글을 만들 때 대저 종류에 따라 모양을 본뜨니 '文'이라 하였다. 그 후 그 모양과音を 합하여 만드니 이는 '字'라 하였다.

《周易》: "黃帝·堯·舜垂衣裳而天下治, 蓋取諸乾·坤."²⁵⁾ 黃帝·堯·舜 임금은 의상을 드리우는 것으로도 천하가 다스려졌으니 대저 (衣裳은) 乾과 坤에서 취하였음이라.

12. 推位讓國, 有虞陶唐: 天子的 제위와 나라를 禪讓하였으니, 堯帝가 舜帝에게 그렇게 하였다.

《史記》: "堯立七十年得舜, 二十年而老, 令舜攝行天子之政, 薦之於天."²⁶⁾ 堯帝는 즉위한 지 70년 만에 舜을 얻었고 그 후 20년이 지나 몸이 늙자 순에게 명하여 천자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으며 하늘에 순을 천거하였다.

《史記》: "帝堯爲陶唐, 帝舜爲有虞."²⁷⁾ 堯帝는 陶唐이라 했고, 舜帝는 有虞라 했다.

13. 弔民伐罪, 周發商湯: 백성을 慰撫하고자 죄인을 벌하였으니, 周의 武王과 商의 湯王이 그리 하였다.

《孟子》: "誅其君而弔其民."²⁸⁾ 君王(桀王)을 誅殺하여 백성을 위무하였

龍 中官을 黃龍이라 한 것 등이다. <孔穎達 疏>, 1568쪽.

24) 段玉裁, 《說文解字注》(臺北: 蘭臺書局影印, 1977), 761쪽.

25) 《十三經注疏·周易正義·繫辭下》, 353-354쪽.

26) 《史記·五帝本紀》, 30쪽.

27) 《史記·五帝本紀》, 45쪽.

다.

《孟子》：“湯放桀，武王伐紂。”²⁹⁾ 탕왕이 걸왕을 쫓아냈고, 무왕은 紂王을 토벌하였다.

14. 坐朝問道，垂拱平章：朝廷에 앉아 의견을 물으니, 옷을 갖추고 손을 모아 나라를 다스렸더라.

《書經》：“垂拱而天下治。”³⁰⁾ 옷을 드리우고 손을 모으니 천하가 다스려졌다.

《書經》：“平章百姓。”³¹⁾ 百官의 직분을 살펴 밝혀지도록 했다.

15. 愛育黎首，臣伏戎羌：백성에게 사랑으로 선정을 베풀었으니, 멀리 戎族 羌族들도 신하가 되어 俯伏하였더라.

《管子》：“外內均和，諸侯臣伏。”³²⁾ 나라 안팎으로 모두 화평하고 주위 제후들은 굴복하여 신하가 되었다.

16. 遐邇壹體，率賓歸王：멀거나 가깝거나 모두가 하나이니 사방의 種族이 몰려와 天子를 받들었더라.

《詩經》：“溥天之下，莫非王土。率土之濱，莫非王臣。”³³⁾ 천하의 大地가 왕의 영토 아닌 것이 없고, 그 영토 안에서는 왕의 신하 아닌 사람이 없다.

17. 鳴鳳在竹，白駒食場：봉황은 대나무에서 울고, 흰 망아지는 채전의 풀을 뜯는다.

28) 《十三經注疏·孟子注疏·梁惠王下》，70쪽.

29) 《十三經注疏·孟子注疏·梁惠王下》，64쪽.

30) 《十三經注疏·尚書正義·武成》，350쪽.

31) 《十三經注疏·尚書正義·堯典》，31쪽.

32) 《諸子集成·第七冊管子校正·四稱》，182쪽.

33) 《十三經注疏·毛詩正義·北山》，931쪽.

《詩經》：“鳳凰鳴矣，于彼高岡。”³⁴⁾ 봉황이 와서 울고 있네! 저 높은 산마루에서.

《詩經》：“皎皎白駒，食我場苗。”³⁵⁾ 희고 흰 망아지 내 菜田의 싹을 먹어라.

18. 化被草木，賴及萬方：교화는 초목에까지 이르고, 은택은 만방에 미친다.

19. 蓋此身髮，四大五常：

20. 恭惟鞠養，豈敢毀傷：

대저 이 몸과 터럭은 地水火風의 물질이요, 마음은 오상의 덕성이라. 모두 부모님께서 물려 주심음을 받들었으니, 어찌 이 몸과 덕을 훼손하리오.

《孝經》：“身體髮膚，受之父母，不敢毀傷，孝之始也。”³⁶⁾ 몸과 四肢, 모발과 피부는 모두 부모로부터 받았으니 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孝의 시작이다.

《詩經》：“父兮生我，母兮鞠我。”³⁷⁾ 아버지는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셨도다.

21. 女慕貞潔，男效才良：여인은 바른 氣質과 순결을 흠모하며, 남자는 재능과 善良의 德을 배우고자 한다.

22. 知過必改，得能莫忘：잘못을 알았으면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요, 할 수 있는 일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論語》：“過，則勿憚改。”³⁸⁾ 잘못되었으면 고치는 것을 두려워 말아라.”

34) 《十三經注疏·毛詩正義·大雅·卷阿》，1334쪽.

35) 《十三經注疏·毛詩正義·小雅·白駒》，787쪽.

36) 《十三經注疏·孝經注疏·開宗明義》，4쪽.

37) 《十三經注疏·毛詩正義·小雅·蓼莪》，909쪽.

《論語》: "日知其所亡, 月無忘其所能, 可謂好學也已矣!"³⁹⁾ 날마다 모르던 것을 알고, 달이 가도 할 수 있는 일을 잊지 않는다면 배움을 좋아한다고 할 것이다.

23. 罔談彼短, 靡恃己長: 상대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지 말라.

《書經》: "罔失法度, 罔遊于逸, 罔淫于樂."⁴⁰⁾법도를 잃지 않도록 하고, 안일함에 빠지지 말며, 향락에 젖지 말라.

24. 信使可覆, 器欲難量: 信實함은 거듭 지속될 수 있어야 하고, 기량은 헤아리기 어려워야 한다.

《論語》: "信近於義, 言可復也. 恭近於禮, 遠恥辱也."⁴¹⁾ 스스로의 신념이義에 가깝다면 말은 지켜질 것이다. 공손함이 예에 맞는다면 부끄러운 일로부터는 멀어질 것이다.

25. 墨悲絲染, 詩讚羔羊: 墨子は 生絲에 물들여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였고, 《詩經》은 羔羊의 소박함을 찬미하였다.

《墨子》: "子墨子言見染絲者而歎曰, 染於蒼則蒼, 染於黃則黃. 所入者變, 其色亦變, 五入必而已則爲五色矣. 故染不可不慎也."⁴²⁾ 墨자가 生絲에 염색을 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며 말했다. '파란 색을 들이면 파래지고, 황색을 들이면 황색으로 된다. 매번 (염료에) 담글 때마다 색깔이 변화하니, 다섯 번을 담그면 다섯 가지의 색깔이 나온다. 염색은 참으로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구나!

《詩經》: "羔羊之皮, 素絲五紵."⁴³⁾ 양의 가죽을 흰 실로 덧대어 만든 옷

38) 《十三經注疏論語注疏·學而》, 9쪽.

39) 《十三經注疏論語注疏·子張》, 292쪽.

40) 《十三經注疏尚書正義·大禹謨》, 105쪽.

41) 《十三經注疏論語注疏·學而》, 12쪽.

42) 《諸子集成·第六冊墨子閒詁》, 7쪽.

이라.

26. 景行維賢, 克念作聖: 큰 덕은 오직 현명한 지혜에서 비롯되니, 화에 전념하여 성인의 길을 가야 한다.

《詩經》: "山仰止, 景行行止."⁴⁴⁾ 높은 산은 우러러보게 되며, 큰 덕은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

《書經》: "惟聖罔念作狂, 惟狂克念作聖."⁴⁵⁾ 성인도 화에 전념하지 않으면狂인이 될 수 있고, 광인이라도 화에 전념 한다면 성인이 될 수 있다.

27. 德建名立, 形端表正: 덕이 있어야 이름이 서고, 용모가 단정해야 儀表도 바르다.

28. 空谷傳聲, 虛堂習聽: 빈 계곡의 소리는 메아리로 울리고, 빈 집의 소리는 울려 다시 들린다.

29. 禍因惡積, 福緣善慶: 災禍는 惡行으로 쌓이고, 행복은 善行에 따라 주어진다.

《周易》: "積善之家必有餘慶, 積不善之家必有餘殃."⁴⁶⁾ 선행을 쌓은 집안에는 福이 자손에까지 이르며, 不善을 쌓은 집안에는 불행이 자손에까지 미친다.

30. 尺璧非寶, 寸陰是競: 한 자의 璧玉이 보배가 아니라, 한 寸의 시간을 아낄지라.

《淮南子》: "聖人不貴尺之璧, 而重寸之陰, 時難得而易失也."⁴⁷⁾ 聖人은 한

43) 《十三經注疏·毛詩正義·國風·召南·羔羊》, 99쪽.

44) 《十三經注疏·毛詩正義·小雅·車輦》, 1023쪽.

45) 《十三經注疏·尚書正義·多方》, 543쪽.

46) 《十三經注疏·周易正義·坤·文言》, 36쪽.

자의 벽옥을 귀하다 하지 않고 존음을 아꼈으니, 시간은 얻기 어려우면서 쉽게 잃기 때문이다.

31. 資父事君, 曰嚴與敬: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군왕을 받드니 ‘嚴’과 ‘敬’일 뿐이라

《孝經》: "資於事父以事君, 而敬同."⁴⁸⁾ 아버지를 섬기듯 임금을 섬기니 그 공경함이 같다.

《孝經》: "以養父母曰嚴, 聖人因嚴以教敬,"⁴⁹⁾ 부모님 봉양을 날로 더 엄중히 한다. 성인은 이러한 엄중함으로 존경을 가르치는 것이다.

32. 孝當竭力, 忠則盡命: 효도는 힘을 다해야 하고, 충성은 목숨을 다한다.

《論語》: "事父母能竭其力, 事君能致其身."⁵⁰⁾ 부모를 섬기는 데에는 그 힘을 다하고, 군왕을 섬기는 데에는 그 몸을 다한다.

33. 臨深履薄, 夙興溫清: 깊은 물가나 얇은 얼음을 지나듯 조심하고 일찍 일어나 따뜻함과 시원함을 살피 드릴지라.

《詩經》: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冰."⁵¹⁾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마치 깊은 물가를 지나듯, 얇은 얼음 위를 걷는 듯 하라.

《禮記》: "冬溫而夏清."⁵²⁾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려야 한다.

34. 似蘭斯馨, 如松之盛: 난과도 같은 향기일러니, 소나무처럼 푸를지

47) 《淮南鴻烈集解上·原道訓》, 27쪽.

48) 《十三經注疏·孝經注疏·士章》, 16쪽.

49) 《十三經注疏·孝經注疏·聖治》, 38쪽.

50) 《十三經注疏·論語注疏·學而》, 8쪽.

51) 《十三經注疏·毛詩正義·小雅·小旻》, 868쪽.

52) 《十三經注疏·禮記正義·曲禮》, 27쪽.

니.

《周易》：“二人同心，其利斷金。同心之言，其臭如蘭。”⁵³⁾ 두 사람의 마음이 같으면 그 예리함이 쇠를 끊겠고, 한 마음으로 하는 말은 향기가 난초와 같다.

《詩經》：“如松柏之茂”⁵⁴⁾ 松柏의 무성함처럼.

35. 川流不息，淵澄取映：넋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맑은 연못에서는 스스로를 비추어본다.

《詩經》：“如山之苞，如川之流。”⁵⁵⁾ 마치 산의 뿌리처럼, 마치 강물의 흐름처럼.

《周易》：“天行健，君子以自強不息。”⁵⁶⁾ 하늘의 운행은 강건하니 군자도 또한 스스로 강건하여 쉬지 않는다.

36. 容止若思，言辭安定：용모와 行動舉止는 사려 깊게 하고, 말은 편하면서 분명하게 하라.

《孝經》：“容止可觀，進退可度。”⁵⁷⁾ (군자의) 용모와 자세는 본보기가 되어야 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은 법도에 맞아야 한다.

《禮記》：“毋不敬，儼若思，安定辭。”⁵⁸⁾ 공경하지 않음이 없어야 한다. 태도는 사려 깊게 장엄해야 하고 말은 편안하면서 분명해야 한다.

37. 篤初誠美，慎終宜令：좋은 시작은 참으로 아름다우며, 신중한 끝맺음도 응당 훌륭하다.

53) 《十三經注疏·周易正義·繫辭上》，326쪽.

54) 《十三經注疏·毛詩正義·小雅·天保》，686쪽.

55) 《十三經注疏·毛詩正義·大雅·常武》，1475쪽.

56) 《十三經注疏·周易正義·乾·象傳》，11쪽.

57) 《十三經注疏·孝經注疏·聖治》，42쪽.

58) 《十三經注疏·禮記正義·曲禮》，7-8쪽.

《詩經》: "靡不有初, 鮮克有終."⁵⁹⁾ 잘하지 않는 시작은 없으나 이를 끝까지 잘하는 일은 드물다.

38. 榮業所基, 籍甚無竟: 영예스러운 功業의 바탕이라, 명성을 떨치면 끝이 없을지라.

《漢書》: "賈以此游漢廷公卿間, 名聲籍甚".⁶⁰⁾ 陸賈는 이로부터 漢나라 조정의 公卿들과 교류하였는데 명성이 藉藉하였다.

39. 學優登仕, 攝職從政: 배움에 여력이 있으면 관직에 나아가, 직무를 맡아 政事를 보필할 것이라.

《論語》: "仕而優則學, 學而優則仕."⁶¹⁾ 관직을 수행하면서 여력이 있으면 배움에 힘써야 하고, 배움에 힘써 여력이 있으면 관직에 나가야 할 것이다.

《論語》: "由也果, 於從政乎何有?"⁶²⁾ 仲由(子路)는 과단성이 있으니 정치에 종사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40. 存以甘棠, 去而益詠: 감당나무(팔배나무)가 그대로 있으니, (召公이) 가신 후 노래 소리 높았다.

《詩經》: "蔽芾甘棠, 勿翦勿伐, 召伯所茇".⁶³⁾ 자그마한 감당나무 베거나 자르지 마세, 召伯께서 머무셨던 곳이라네.

41. 樂殊貴賤, 禮別尊卑: 음악은 귀천을 가리며, 예는 존비를 구별한다.

59) 《十三經注疏·毛詩正義·大雅·蕩》, 1356쪽.

60) 班固 撰, 《漢書·陸賈傳》(北京: 中華書局 影印), 2115쪽.

61) 《十三經注疏·論語注疏·子張》, 295쪽.

62) 《十三經注疏·論語注疏·雍也》, 81쪽.

63) 《十三經注疏·毛詩正義·國風·召南·甘棠》, 92쪽.

《禮記》: "天尊地卑, ……則禮者, 天地之別也".⁶⁴⁾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이렇듯 예란 하늘과 땅을 구별하는 것이다.

42. 上和下睦, 夫唱婦隨: 윗사람은 화합으로 대하고 아랫사람은 따른다. 지아비가 先唱하면 부인은 따른다.

《孝經》: "導之以禮樂, 而民和睦."⁶⁵⁾ 예악으로 이끌면 백성들은 화목한다.

《白虎通》: "陽倡陰和, 男行女隨."⁶⁶⁾ 陽이 부르면 陰이 화답하니 남자가 주도하고 여자가 따르는 것이다.

43. 外受傳訓, 入奉母儀: 밖에서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집에 들어와서는 어머니의 규범을 받는다.

44. 諸姑伯叔, 猶子比兒: 姑母와 伯父 叔父가 계시고, 내 아이와 같은 조카들이 있다.

《論語》: "回也視予猶父也, 予不得視猶子也."⁶⁷⁾ 回야, 너는 나를 아버지처럼 여겼지만, 나는 너를 자식처럼 해주지 못하는구나!

45. 孔懷兄弟, 同氣連枝: 형제는 서로 크게 우애하니, 같은 기운을 받은 가지(枝)라.

《詩經》: "死喪之威, 兄弟孔懷."⁶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형제는 서로 생각하네.

《周易》: "同聲相應, 同氣相求."⁶⁹⁾ 같은 소리는 서로 和音을 이루고, 같은 氣運

64) 《十三經注疏·禮記正義·樂記》, 1275쪽.

65) 《十三經注疏·孝經注疏·三才》, 24쪽.

66) 班固 撰, 《白虎通疏證·嫁娶》(北京: 中華書局, 1994), 452쪽.

67) 《十三經注疏·論語注疏·先進》, 163쪽.

68) 《十三經注疏·毛詩正義·小雅·常棣》, 666쪽.

69) 《十三經注疏·周易正義·乾·文言》, 20쪽.

은 서로 통한다.

46. 交友投分, 切磨箴規: 친구를 사귄다는 意氣가 투합 하고, 서로 권면하고 잘못은 충고해야 한다.

《詩經》: "有匪君子, 如切如磋, 如琢如磨."⁷⁰⁾ 고매한 군자이시니, 골각을 깎아 다듬은 듯, 옥석을 쪼아 간 듯.

47. 仁慈隱惻, 造次弗離:

48. 節義廉退, 顛沛匪虧:

仁이란 사랑과 惻隱之心이니, 이는 잠시라도 떠날 수 없다.

節概와 義理 그리고 廉恥와 謙讓의 마음은 넘어지고 엎어져도 없을 수 없으리.

《孟子》: "惻隱之心, 仁之端也."⁷¹⁾ 惻隱하게 여기는 마음이 곧 仁의 시작이다.

《管子》: "是以上之人務德, 而下之人守節義."⁷²⁾ 때문에 위의 군왕이 덕을 닦기에 힘쓰면 아래의 신하들도 절의를 지킬 것이다.

《論語》: "君子無終食之間違仁, 造次必於是, 顛沛必於是."⁷³⁾ 군자는 밥 먹을 동안이라도 仁을 떠날 수 없다. 급한 중이라도 그렇고 넘어지고 엎어져도 그러하다.

49. 性靜情逸, 心動神疲: 심성이 고요하면 심정 또한 편안하고, 마음이 움직이면 정신도 피로하다.

50. 守真志滿, 逐物意移: 참된 본성을 지키면 心志가 만족스럽고, 외적 조건을 따르면 마음이 떠난다.

70) 《十三經注疏·毛詩正義·國風·衛風·淇奥》, 254쪽.

71) 《十三經注疏·孟子注疏·公孫丑上》, 113쪽.

72) 《諸子集成·第七冊管子校正·君臣上》, 163쪽.

73) 《十三經注疏·論語注疏·里仁》, 52쪽.

《莊子》：“惜乎惠施之才，駘蕩而不得，逐萬物而不反。”⁷⁴⁾ 애석하다. 惠施의 재능이란 산만하여 끝나는 곳이 없으니, 만물의 껍질을 따를 뿐 묘한 道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51. 堅持雅操，好爵自縻：바른 志操를 견지하면, 좋은 벼슬이 저절로 찾아온다.

《周易》：“我有好爵，吾與爾靡之.”⁷⁵⁾ 나에게 좋은 벼슬이 있으면 당신에게 주어 함께 하리라.

52. 都邑華夏，東西二京：중국의 都邑이었던 곳으로 東西 두 京城이 있었다.

53. 背邙面洛，浮渭據涇：(洛陽의) 뒤는 邙山이요, 앞은 洛水라. (長安은) 渭水가 흐르고 涇水를 끼었네.

《書經》：“華夏蠻貊，罔不率俾.”⁷⁶⁾ 中原과 변방에 이르기까지 따르지 않는 자가 없었다.

54. 宮殿盤鬱，樓觀飛驚：궁전의 건물들이 구비구비 빼곡한 곳, 樓觀은 날아갈 듯 驚異롭네.

55. 圖寫禽獸，畫彩仙靈：祥瑞로운 禽獸가 그려져 있고, 神仙의 모습이 채색되어 있네.

56. 丙舍傍啟，甲帳對楹：옆으로는 別宮의 문들이 열리고, 기둥에는 휘

74) 《諸子集成·第五冊莊子集釋·天下》，481쪽.

75) 《十三經注疏·周易正義·中孚》，285쪽.

76) 《十三經注疏·尚書正義·武成》，346쪽.

황한 휘장이 늘어져 있네.

57. 肆筵設席, 鼓瑟吹笙: 筵席을 내어 펴고, 琴瑟과 笙簧을 연주하네.

《詩經》: "肆筵設席, 授几有緝御."⁷⁷⁾ 宴席을 펴고 받침을 놓아 시중을 드네.

《詩經》: "我有嘉賓, 鼓瑟吹笙."⁷⁸⁾ 나에게 귀한 손님이 있어, 음악을 연주하며 즐기네.

58. 陞階納陛, 弁轉疑星: 섬들을 올라 大殿에 들어가는데, 걸음 따라 움직이는 冠玉이 별과도 같네.

《詩經》: "充耳琇瑩, 會弁如星."⁷⁹⁾ 귀에 늘어진 보석은 빛나고, 모자에 달린 옥석은 별과도 같구나.

59. 右通廣內, 左達承明: 오른쪽으로는 광내전에 통하고, 왼쪽으로는 승명전에 닿아있네.

60. 既集墳典, 亦聚群英: 三墳五典이 수집되어 있고, 수많은 인재들이 모였더라.

《春秋左傳》: "是能讀《三墳》·《五典》·《八索》·《九丘》."⁸⁰⁾ 능히 《三墳》·《五典》·《八索》·《九丘》를 읽을 줄 안다.

61. 杜稿鍾隸, 漆書壁經: 杜度の 초서, 鍾繇의 예서, 그리고 漆로 쓰인 竹簡과 벽 속의 경전.

77) 《十三經注疏·毛詩正義·大雅·行葦》, 1269쪽.

78) 《十三經注疏·毛詩正義·小雅·鹿鳴》, 650쪽.

79) 《十三經注疏·毛詩正義·國風·衛風·淇奥》, 256쪽.

80) 《十三經注疏·春秋左傳正義·昭公十二年》, 1504쪽.

62. 府羅將相, 路俠槐卿: 殿內에는 將相이 나열하며, 殿 밖의 外朝에는 公卿大夫들이 도열 하네.

63. 戶封八縣, 家給千兵: 將相들에 8개의 縣을 封土로 주고, 公卿들에 1000명의 병사를 주었네.

64. 高冠陪輦, 驅轂振纓: 높은 관을 쓰고 천자를 모시니, 달리는 수레 안에 갓끈이 날리네.

65. 世祿侈富, 車駕肥輕: 세습으로 받는 祿에 사치와 부를 누리고, 駿馬의 수레를 모는데 가죽옷은 가볍네.

《論語》: "赤之適齊也, 乘肥馬, 衣輕裘."⁸¹⁾ 赤(孔子的 제자 公西赤)이 제 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그는 좋은 말을 타고 가벼운 가죽옷을 입고 갔다.

66. 策功茂實, 勒碑刻銘: 기록된 공로가 많고도 컸으니, 모두 碑文으로 새겨 전하네.

67. 礪溪伊尹, 佐時阿衡: 姜太公과 伊尹이 있었으니, 때에 맞추어 나라를 도왔구나.

《詩經》: "實維阿衡, 實左右商王."⁸²⁾ 오직 아형이 있었으니, 실로 상왕을 도왔더라.

68. 奄宅曲阜, 微旦孰營: 奄 나라가 곡부를 차지하고 있었으니, 周公 아나라면 누가 다스렸으리요.

69. 桓公匡合, 濟弱扶傾: 桓公이 제후들을 모아 세상을 바로 잡았으니,

81) 《十三經注疏論語注疏·雍也》, 79쪽.

82) 《十三經注疏·毛詩正義·商頌·長發》, 1719쪽.

약한 나라를 구하고 기우는 왕실을 일으켰네.

《論語》: "桓公九合諸侯, 不以兵車, 管仲之力也. …… 管仲相桓公, 霸諸侯, 一匡天下, 民到于今受其賜,"⁸³⁾ 환공이 제후들을 아홉 번이나 모으면서 군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관중의 힘이였다. …… 관중이 환공을 도와 제후들의 패자가 되어 천하를 바로잡게 하였으니 백성은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70. 綺迴漢惠, 說感武丁: 綺里季는 漢의 惠帝에게 왔고, 傳說은 武丁의 뜻에 감응 했네.

《史記》: "武丁夜夢得聖人, 名曰說."⁸⁴⁾ 武丁이 꿈에 성인을 얻었는데 이름이 '說'이었다.

71. 俊乂密勿, 多士寔寧: 俊傑들이 온 힘을 다하였으니, 나라는 많은 인재로 평안 하였네.

《尚書》: "俊乂在官, 百僚師師."⁸⁵⁾ 뛰어난 인재들이 관직에 있으니 百官이 서로 배운다.

《詩經》: "濟濟多士, 文王以寧."⁸⁶⁾ 훌륭한 인재들이 많으니 文王이 나라를 평안케 하네.

72. 晉楚更霸, 趙魏困橫: 晉과 楚가 서로 霸者가 되었고, 趙와 魏는 連橫과 合縱에 곤혹스러웠네.

73. 假途滅虢, 踐土會盟: 길을 빌려 虢나라를 滅하였고, 踐土에서 제후를 모아 盟約을 하였네.

83) 《十三經注疏論語注疏·憲問》, 217-218쪽.

84) 《史記·殷本紀》, 102쪽.

85) 《十三經注疏尚書正義·皋陶謨》, 127쪽.

86) 《十三經注疏毛詩正義·大雅·文王》, 1125쪽.

《孟子》：“假道於虞以伐虢。”⁸⁷⁾ 虞나라의 길을 빌려 虢나라를 치고자 하였다.

《春秋》：“公會晉侯·齊侯·宋公·蔡侯·鄭伯·衛子·莒子，盟于踐土。”⁸⁸⁾ 僖공이 晉의 文公·齊의 昭侯·宋의 成公·蔡의 莊侯·鄭의 文公·衛의 叔武(成公의 동생으로 成公을 대신하여 참가함)·莒의 茲丕公들과 踐土에서 盟約을 맺었다.

74. 何遵約法，韓弊煩刑：蕭何는 簡略한 법을 따랐고，韓非는 煩多한 형 법으로 죽었네.

《漢書》：“高祖初入關，約法三章。”⁸⁹⁾ 高祖가 처음 關中에 들어가자 곧 約法三章을 정하였다.

《史記》：“與父老約，法三章耳：殺人者死，傷人及盜抵罪。”⁹⁰⁾ 어른들에게 (秦의 수많은 가혹한 법을) 간략하게 三章으로 줄였으니，살인한 자는 사형이고，사람에게 傷害를 입혔거나 도둑질을 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준다.

75. 起翦頗牧，用軍最精：白起，王翦，廉頗，李牧이 있었으니 이들은 군대를 가장 훌륭하게 지휘하였다.

76. 宣威沙漠，馳譽丹青：그 위세가 멀리 사막에까지 떨쳤으니 명성은 그림처럼 오래 전해졌다.

77. 九州禹跡，百郡秦并：九州는 우임금의 발자취가 남아있고，秦은 백개의 郡을 두었네.

《春秋左傳》：“芒芒禹迹，畫為九州。”⁹¹⁾ 아득한 禹王의 행적이 九州로

87) 《十三經注疏·孟子注疏·萬章上》，313쪽.

88) 《十三經注疏·春秋左傳正義·僖公二十八年》，505쪽.

89) 《漢書·刑法志》，1096쪽.

90) 《史記·高祖本紀》，362쪽.

91) 《十三經注疏·春秋左傳正義·襄公四年》，963쪽.

나뉘었도다.

78. 嶽宗泰岱, 禪主云亭: 五嶽은 태산을 宗主로 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云云山과 亭亭山에서 땅에 제사를 하였네.

《史記》: "昔無懷氏封泰山, 禪云云, … 黃帝封泰山, 禪亭亭."⁹²⁾ 옛날 無懷氏는 泰山에서 封祭를 지내고, 云云山에서 禪祭를 지냈으며, … 黃帝는 泰山에서 封祭를 지내고 亭亭山에서 禪祭를 지냈다.

79. 雁門紫塞, 雞田赤城: 雁門關은 紫色의 城인데, 양쪽은 雞田과 赤城으로 이어진다.

80. 昆池碣石, 鉅野洞庭: 昆池와 碣石山, 鉅野와 洞庭湖가 있다.

81. 曠遠綿邈, 巖岫杳冥: 땅은 광활하고 요원 한데 산과 계곡은 아득하고 깊다.

82. 治本於農, 務茲稼穡: 農事로 살림의 근본을 찾으니, 오곡을 심고 거두는 일에 힘쓴다.

《尚書》: "厥父母勤勞稼穡,"⁹³⁾ 그들 부모는 힘써 심고 거둔다.

83. 俶載南畝, 我藝黍稷: 남녘의 땅에 농사를 시작하고, 나는 黍稷을 심는다.

《詩經》: "以我覃耜, 俶載南畝."⁹⁴⁾ 내 잘 다듬은 쟁기로 남녘 밭에서 일을 시작 한다.

92) 《史記·封禪書》, 1361쪽.

93) 《十三經注疏·尚書正義·無逸》, 507쪽.

94) 《十三經注疏·毛詩正義·小雅·大田》, 991쪽.

《詩經》：“自昔何爲？我蓺黍稷。”⁹⁵⁾ 옛적에 왜 그리 했는가? 내黍稷을 심으려 함이었네.

84. 稅熟貢新，勸賞黜陟：곡식이 익으면 세금을 매겨 新穀을 거두는데, 農家は 장려하고 관리는 성과에 따라 벼슬의 진퇴를 결정한다.

《尚書》：“三載考績，三考黜陟幽明。”⁹⁶⁾ 3년에 한차례 업적을 살피되, 이를 세 차례 하여 賢명한 관리는 승진시키고 어리석은 관리는 축출한다.

85. 孟軻敦素，史魚秉直：孟子는 소박함을 숭상하고, 史魚는 강직하였네.

《論語》：“直哉，史魚！邦有道，如矢。邦無道，如矢。”⁹⁷⁾ 곧도다 史魚여! 나라에 道가 있어도 화살 같고 나라에 道가 없어도 화살과 같구나!

86. 庶幾中庸，勞謙謹敕：중용에 가까워지고자 한다면 노력하여 겸허하고 삼가 조심해야 할 것이다.

《禮記》：“君子中庸，小人反中庸。”⁹⁸⁾ 군자는 중용을 따르고 소인은 중용과 어그러진다.

87. 聆音察理，鑑貌辨色：남의 말을 들으면 그 뜻을 살피고, 용모와 氣色으로 사람을 읽는다.

88. 貽厥嘉猷，勉其祗植：후손에게 좋은 교훈을 물려주니, 공경으로 立身에 힘쓰네.

95) 《十三經注疏·毛詩正義·小雅·楚茨》，947쪽.

96) 《十三經注疏·尚書正義·舜典》，98쪽.

97) 《十三經注疏·論語注疏·衛靈公》，237쪽.

98) 《十三經注疏·禮記正義·中庸》，1664쪽.

《書經》：“明明我祖，萬邦之君，有典有則，貽厥子孫。”⁹⁹⁾ 밝고 밝은 나의 조상은 萬邦의 天子이셨으니, 經典과 法則을 그 후손들에게 남기셨네.

《書經》：“爾有嘉謀嘉猷，則入告爾后于內。”¹⁰⁰⁾ 너에게 좋은 계책과 좋은 方道가 있으면 너의 君王에게 말하라.

89. 省躬譏誠, 寵增抗極: 충애가 더하여질수록 몸을 굽혀 사람들의 勸誠를 살피야 한다.

90. 殆辱近恥, 林泉幸即: 恥辱의 때가 가까웠으니, 山川을 찾음이 다행이로세.

《漢書》：“吾聞‘知足不辱，知止不殆。’功遂身退，天之道也。”¹⁰¹⁾ 내(疏廣)가 듣기로는 '足함을 알면 辱됨이 없고 멈출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 하였고, 또한 '功을 이루었으면 물러나는 것이 天道'라 하였다.

《莊子》：“山林與! 皋壤與! 使我欣欣然而樂與!”¹⁰²⁾ 산림이여! 물가 언덕이여! 그 곳에서 나는 흐뭇하고 즐거울지라!

91. 兩疏見機, 解組誰逼: 疏廣과 疏受 두 사람이 적절한 時機에 관직을 사직하였으니 누가 시켜 한 일이었겠는가?

《周易》：“君子見幾而作，不俟終日。”¹⁰³⁾ 군자는 幾微(機微)를 보면 곧 행동하니 종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92. 索居閒處, 沈默寂寥: 한적한 곳에 홀로 지내니, 사람 소리나 人跡도 없소.

99) 《十三經注疏·尙書正義·五子之歌》，98쪽.

100) 《十三經注疏·尙書正義·君陳》，580쪽.

101) 《漢書·疏廣傳》，3039쪽.

102) 《諸子集成·第五冊莊子集釋·知北游》，334쪽.

103) 《十三經注疏·周易正義·繫辭下》，363쪽.

《禮記》: "吾離群而索居, 亦已久矣."¹⁰⁴⁾ 내가 동문 친구들을 떠나 홀로 쓸쓸히 지낸 지가 오래 되었구나.

《老子》: "有物混成, 先天地生. 寂兮寥兮, 獨立而不改."¹⁰⁵⁾ 모든 것이 어우러진 무엇이 있었는데 天地에 앞서 생겨났다. 소리도 없으며 형체도 없었으니 오직 하나였으며 변함이 없었다.

93. 求古尋論, 散慮逍遙; 옛사람의 지혜를 찾아내어, 잡념을 버리고 소요하니라.

《論語》: "我非生而知之者, 好古, 敏以求之者也."¹⁰⁶⁾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옛것을 좋아하여 그것을 민첩하게 배워 알게 된 것이다.

《莊子》: "彷徨乎無為其側, 逍遙乎寢臥其下."¹⁰⁷⁾ 그 곁에서 발 가는대로 거닐거나 또는 그 아래에 누워 悠悠自適하리라.

94. 欣奏累遣, 感謝歡招; 기쁨으로 나아가 번뇌를 떨쳐내며, 근심을 접고 즐거움을 부르리.

95. 渠荷的歷, 園莽抽條;池塘의 연꽃이 燦然하고, 園林은 무성하게 새가지가 돋느니.

96. 枇杷晚翠, 梧桐早凋; 비파는 늦게까지 푸른데, 오동은 일찍도 잎이 지누나.

97. 陳根委翳, 落葉飄飄; 오랜 뿌리는 힘없이 시들고, 낙엽은 바람에 날리누나.

104) 《十三經注疏·禮記正義·檀弓上》, 236쪽.

105) 《諸子集成·第四冊老子道德經·二十五章》, 14쪽.

106) 《十三經注疏·論語注疏·述而》, 102쪽.

107) 《諸子集成·第五冊莊子集釋·逍遙遊》, 21쪽.

98. 游鶡獨運, 凌摩絳霄: 한가로운 곤새 홀로 날아 붉게 물든 구름을 향해 솟아오른다.

99. 耽讀翫市, 寓目囊箱: 책에 빠져 책방을 즐겨 찾았으니, 눈은 책 보 따리를 응시할 뿐이라.

《後漢書》: "王充..., 家貧無書, 常游洛陽市肆, 閱所賣書, 一見輒能誦憶."¹⁰⁸⁾ 王充이 집이 가난하여 책이 없었던 고로 늘 낙양 시장에 나가 파는 책을 읽었는데 한번 보고 능히 암송을 하였다.

100. 易輶攸畏, 屬耳垣牆: 쉽고 가벼움을 두려워할 것이라, 담장에도 듣는 귀가 있으려니.

《詩經》: "君子無易由言, 耳屬於垣."¹⁰⁹⁾ 君子는 가벼이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벽에도 듣는 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101. 具膳餐飯, 適口充腸: 음식을 마련하고 밥을 먹는 것은 입맛에 따라 배를 불리고자 함이라.

102. 飽飫烹宰, 飢厭糟糠: 배가 부르면 고기 음식도 싫고, 배가 고프면糟糠도 맛이 있네.

《史記》: "仲尼獨薦顏淵為好學, 然回也屢空, 糟糠不厭."¹¹⁰⁾ 孔子는 유독 顏淵을 뽑아 학문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顏淵은 언제나 가난하여 조강 조차 배부르게 못 먹었다.

103. 親戚故舊, 老少異糧: 친척과 지인들을 함께 하니,老少에 따라 음

108) 范曄 撰, 《後漢書·王充傳》(北京: 中華書局 影印), 1629쪽.

109) 《十三經注疏·毛詩正義·小雅·小弁》, 880쪽.

110) 《史記·伯夷列傳》, 2124쪽.

식을 나누네.

《論語》: "君子篤於親則民興於仁. 故舊不遺則民不偷."¹¹¹⁾ 君王이 親屬을 잘 대해 주면 백성이 서로 仁愛하게 되고, 옛 知人을 버리지 않으면 백성이 薄情하지 않게 된다.

104. 妾御績紡, 侍巾帷房: 첩은 남편과 동침을 하며 아울러 紡績을 하면서 규방의 婦女 역할을 다 한다.

《禮記》: "妾雖老, 年未滿五十, 必與五日之御……妻不在, 妾御莫敢當夕."¹¹²⁾ 첩은 비록 나이가 많아도 오십 세가 되기 전에는 반드시 오일에 한번 남편과 동침을 한다.……부인이 不在中이라도 첩이 부인의 동침 일을 대신하지 못한다.

《春秋左傳》: "寡君之使婢子侍執巾櫛, 以固子也."¹¹³⁾ 우리 국왕께서 첩으로 하여금 당신의 아내가 되도록 한 것은 당신을 안심시키려 한 것입니다.

105. 紈扇圓潔, 銀燭焯焯: 비단 부채 둥글고 희며, 은촛은 환하게 빛나누나.

106. 晝眠夕寐, 藍筍象床: 낮잠과 밤잠에는 각각 푸른 대자리와 상아 침상을 사용한다.

107. 弦歌酒讌, 接杯舉觴: 음악을 울리며 酒宴을 열어, 잔을 받아 높이 들어 권하네.

111) 《十三經注疏·論語注疏·泰伯》, 112쪽.

112) 《十三經注疏·禮記正義·內則》, 1001쪽.

113) 《十三經注疏·春秋左傳正義·僖公二十二年》, 461쪽. 여기에서 '侍執巾櫛'은 수건과 빗 등을 들고 남편을 시중든다는 뜻에서 아내를 나타내는 謙辭로 쓰였음.

《史記》: "三百五篇, 孔子皆弦歌之."¹¹⁴ 삼백오편(《詩經》)을 모두 伴奏으로 노래하였더라.

《漢書》: "及置酒宴(讌), 奉觴上壽, 辭禮閑雅, 上甚謹說."¹¹⁵ 주연을 베풀자 잔을 받들어 萬壽無疆을 축원하는데 말이 모두 禮法에 맞아 고아하니 임금께서 매우 기뻐하셨더라.

108. 矯手頓足, 悅豫且康: 손을 들고 발을 구르며 춤을 추니 기쁘고 즐거움은 오직 안락할 뿐이라.

109. 嫡後嗣續, 祭祀烝嘗:嫡자가 후손을 이어가니, 계절마다 제사를 모시네.

《禮記》: "天子諸侯宗廟之祭, 春曰禘, 夏曰禘, 秋曰嘗, 冬曰烝."¹¹⁶ 天子和 諸侯는 종묘에서 제사를 올리는데 春祭를 禘, 夏祭를 禘, 秋祭를 嘗, 그리고 冬祭를 烝이라 했다.

110. 稽顙再拜, 悚懼恐惶: 엎드려 俯伏하며 再拜하니, 송구하고 두려울 뿐이라.

《禮記》: "拜而后稽顙 顙乎其順也. 稽顙而后拜, 順乎其至也."¹¹⁷ 拜禮를 하고 稽顙하는 것은 공손하게 순서를 따르는 것이며, 먼저 稽顙하고 나중에 拜禮하는 것은 지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다.

111. 牋牒簡要, 顧答審詳: 서신은 간략하게 요약하며, 회답은 깊이 살펴 자세하네.

112. 骸垢想浴, 執熱願涼: 몸에 때가 묻으면 씻고자 하고, 뜨거운 것을

114) 《史記·孔子世家》, 1936쪽.

115) 《漢書·疏廣傳》, 3039쪽.

116) 《十三經注疏·禮記正義·王制》, 451쪽.

117) 《十三經注疏·禮記正義·檀弓上》, 199쪽.

취면 식히려 하네.

《詩經》: "誰能執熱, 逝不以濯."¹¹⁸⁾ 손에 뜨거운 것을 잡게 되면 누가 이를 씻어내려 하지 않겠는가?

113. 驢騾犢特, 駭躍超驥: 당나귀, 노새, 송아지, 수소들이 놀라 뛰고 넘어지며 달린다.

114. 誅斬賊盜, 捕獲叛亡: 盜賊은 斬首로 死刑을 하고, 叛逆이나 逃亡者는 잡아들인다.

《春秋左傳》: "殺人不可爲賊."¹¹⁹⁾ 사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賊이라 한다.

《春秋左傳》: "竊賄爲盜."¹²⁰⁾ 재물을 훔치는 자를 盜라 한다.

115. 布射僚丸, 嵇琴阮嘯: 呂布의 弓術과 熊宜僚의 구슬공 묘기, 嵇康의 彈琴과 阮籍의 휘파람.

《後漢書》: "諸君觀布射小支, 中者當各解兵, 不中可留決鬪."¹²¹⁾ 제군은 내(呂布)가 저 창끝을 (활로) 쏘는 것을 보시오. 맞히면 각자 군대를 끌고 돌아가고, 맞히지 못하면 남아서 싸우시오.

《莊子》: "宜僚弄丸, 而兩家之難解."¹²²⁾ 宜僚가 구슬공 묘기로 두 나라의 어려움을 풀었다.

116. 恬筆倫紙, 鈞巧任鈞: 蒙恬은 붓을 만들고 蔡倫은 종이를 발명하였네. 馬鈞의 숨씨 巧妙하고 任나라 공자는 낚시를 하였네.

118) 《十三經注疏·毛詩正義·大雅·桑柔》, 1387쪽.

119) 《十三經注疏·春秋左傳正義·昭公十四年》, 1542쪽.

120) 《十三經注疏·春秋左傳正義·文公十八年》, 662쪽.

121) 《後漢書·呂布傳》, 2448쪽.

122) 《諸子集成·第五冊莊子集釋·徐无鬼》, 368쪽.

《莊子》: "任公子爲大鉤巨緇,……且且而釣."¹²³⁾ 任 나라의 公子가 거대한 갈고리와 줄을 가지고 매일 낚시를 하였다.

117. 釋紛利俗, 並皆佳妙: (위의 사람들은) 紛糾를 풀어주고 세상을 이롭게 하였으니 모두가 아름답고 절묘하였다.

118. 毛施淑姿, 工嘖妍笑: 毛嬙과 西施의 아름다운 자태는 쩡그리거나 웃거나 예뻐네.

《莊子》: "西施病心而曠其里. 其里之醜人, 見而美之, 歸亦奉心而曠其里"¹²⁴⁾ 西施는 가슴이 아파 쩡그리고 다녔는데, 마을의 醜女가 그것을 보고 예쁘다 여겨 돌아와 자신도 가슴에 손을 얹고 쩡그리고 다녔더라.

119. 年矢每催, 曦暉朗曜: 年矢는 세월을 재촉하고, 태양은 밝게 빛을 발하네.

《後漢書》: "孔壺爲漏, 浮箭爲刻."¹²⁵⁾ 물시계의 항아리에서 물이 떨어짐에 따라 물위의 화살이 時刻을 가리킨다.

120. 璇璣懸幹, 晦魄環照: 북두칠성이 하늘의 중심을 돌고, 달빛은 그 밑에서 초승으로 이어가네.

《尚書》: "在璿璣玉衡, 以齊七政."¹²⁶⁾ 북두칠성을 관찰하여 日月과 五星의 運行을 측정하였다.

121. 指薪修祜, 永綏吉劭: 뉘갠을 이어 넣듯이 德을 쌓으니, 오래도록

123) 《諸子集成·第五冊莊子集釋·外物》, 399쪽.

124) 《諸子集成·第五冊莊子集釋·天運》, 228쪽.

125) 《後漢書·律曆下》, 3056쪽. '矢'를 '浮箭'의 뜻으로 봄.

126) 《十三經注疏·尚書正義·舜典》, 64쪽.

평안하고 아름다울지라.

《莊子》：“指窮於爲薪，火傳也，不知其盡也。”¹²⁷⁾ 뿔감이 다 타면 새 뿔감을 넣으니 불은 계속 이어져 꺼질 줄을 모른다.

122. 矩步引領，俯仰廊廟：고개를 들고 반듯하게 걷다가, 조정에서 머리를 숙이고 들고 한다.

《春秋左傳》：“我君景公引領西望曰。”¹²⁸⁾ 우리의 군왕 景公은 머리를 들고 서쪽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國語》：“夫謀之廊廟，失之中原，其可乎？”¹²⁹⁾ (오랫동안) 조정에서 계획한 일을 (일시에) 들관에서 잃는다면 가한 일입니까?

123. 束帶矜莊，徘徊瞻眺：衣冠을 갖추어 바르고 엄숙하게, 앞으로 뒤로 멀리 바라보네.

《論語》：“赤也，束帶立於朝，可使與賓客言也。”¹³⁰⁾ 公西華(赤)는 朝服을 갖추고 조정에 나아가 賓客을 상대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荀子》：“談說之術，矜莊以莅之，端誠以處之。”¹³¹⁾ 말하는 요령은 정중한 자세로 임하고 정직과 성의로 처신하는 것이다.

124. 孤陋寡聞，愚蒙等誥：孤陋한 채로 견문도 적어, 우매함은 다만 책망을 기다릴 뿐이라.

《禮記》：“獨學而無友，則孤陋而寡聞。”¹³²⁾ 홀로 공부하여 벗이 없으면 고루하고 식견이 부족하게 된다.

127) 《諸子集成·第五冊莊子集釋·養生主》，60쪽.

128) 《十三經注疏·春秋左傳正義·成公十三年》，871쪽.

129) 左丘明 撰，《國語·越語下》(臺北：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1983)，652쪽.

130) 《十三經注疏·論語注疏·公冶長》，63쪽.

131) 《諸子集成·第三冊荀子集解·非相》，54쪽.

132) 《十三經注疏·禮記正義·學記》，1238쪽.

125. 謂語助者, 焉哉乎也: 단지 어조사를 말하였으니, 焉·哉·乎·也였을 뿐이라.

3. 結語

〈千字文〉이 오랜 세월 동안 불후의 명작으로 암송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내용의 의미가 컸기 때문이다.

우선 〈千字文〉은 매우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汪嘯尹은 그의 《千字文釋義》에서 〈千字文〉을 네 개의 章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였다. 이를 요약한다.

第一章은 첫 聯 '天地玄黃, 宇宙洪荒'으로부터 第18聯 '化被草木, 賴及萬方'까지로, 天地人의 道를 그 시작으로 한 것이다. 먼저 天地의 開闢으로부터 천지의 由來를 말하고, 아울러 日月星辰이나 雲雨, 霜露가 四時二氣를 이루는 天道의 攄을 보였다. 이어 땅의 金玉珠寶나 생물들, 즉 山川草木이나 鳥獸蟲魚들의 繁盛으로 地道의 넓음을 보였다. 또한 三皇五帝가 문명을 열어 사람과 만물을 仁愛함으로써 德澤을 넓히는 人事의 성대함을 보였다.

第二章은 第19聯 '蓋此身髮, 四大五常'로부터 第51聯 '堅持雅操, 好爵自縻'까지로, 君子의 修身의 道를 설명하였다. 五常을 닦아 자신의 몸을 해치지 않고 아울러 五倫을 밝히니 이는 사람들이 仁義禮智信의 五德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勉勵한 것이다.

第三章은 第52聯 '都邑華夏, 東西二京'부터 第81聯 '曠遠綿邈, 巖岫杳冥'까지로 천하의 帝王을 말하였다. 그 京城의 크기와 궁궐의 웅장함, 그리고 典籍과 英才가 많고 國土의 넓음이 이와 같음을 보인 것이다.

第四章 第82聯 '治本於農, 務茲稼穡'으로부터 第124聯까지로 끝의 第125聯 '謂語助者, 焉哉乎也'는 단락에서 제외하였다. 이 단락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이 章은 處身과 治家의 도리를 말하였으니, 조심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즉 美色이나 言語 그리고 威儀 등은

신중히 하여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것들이다. 治家の 도리로는, 음식의 節度와 飮食의 안락함, 宴會의 즐거움과 祭事의 예절, 人情의 마땅함과 환난의 예방, 畜産과 利器의 사용 등 모두가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일들로 깊이 주의할 것을 말한 것이다.¹³³⁾

이처럼 〈千字文〉은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中國의 문명사를 축약하였다고 할 만 하다. 그 방법은 경전을 인용하여 그 思想을 함축한 것이었다.

125聯에서 典故의 사용이라고 확인된 句는 87聯에서 122句였다. 38聯은 典故와 무관하거나 혹은 필자가 확인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122句 중에서 86句는 十三經이 그 出處였으며, 史書와 諸子書에서 각각 17句가 사용되었고 기타가 2句였다.

이렇게 볼 때 〈千字文〉은 周興嗣 개인의 창작이 아니고, 孔子의 '述而不作'¹³⁴⁾의 정신을 이어받아 中國 經典의 大義를 전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곧 본래 붓글씨 교본이라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 15세기 가까이 啓蒙書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의미는 퇴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參考文獻]

- 丁若鏞 著,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다산시문집9·雜評》(서울: 서울출판사, 1986.12).
- 汪嘯尹 纂集, 《千字文釋義》(北京: 中國書店, 1991.9).
- 洪聖源 註解, 成百曉 譯註, 《註解千字文》(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2.12).
- 李民樹 譯解, 《千字文》(서울: 惠園出版社).
- 김근 지음, 《욕망하는 천자문》(서울: 삼인도서출판, 2003.6).
- 《十三經注疏·周易正義》(第一版;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12).
- 《十三經注疏·論語注疏》

133) 《千字文釋義》第一章 15-16쪽, 第二章 33쪽, 第三章 53쪽, 第四章 74-75쪽.

134) 《十三經注疏·論語注疏·述而》, 93쪽.

- 《十三經注疏·孟子注疏》
- 《十三經注疏·尚書正義》
- 《十三經注疏·春秋左傳正義》
- 《十三經注疏·毛詩正義》
- 《十三經注疏·孝經注疏》
- 《十三經注疏·禮記正義》

劉文典撰,《淮南鴻烈集解》(第一版;北京:中華書局,1989.5).

揚雄撰,《諸子集成·第十冊法言》(第一版;河北:河北人民出版社,1992).

《諸子集成·第八冊韓非子集解》

《諸子集成·第三冊荀子集解》

《諸子集成·第七冊管子校正》 1

《諸子集成·第六冊墨子閒詁》

《諸子集成·第四冊老子道德經》

《諸子集成·第五冊莊子集釋》

左丘明撰,《國語》(臺北: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1983).

司馬遷撰,《史記》(北京:中華書局影印).

班固撰,《漢書》(北京:中華書局影印).

班固撰,《白虎通疏證》(北京:中華書局,1994).

范曄撰,《後漢書》(北京:中華書局影印).

段玉裁,《說文解字注》(臺北:蘭臺書局影印,1977).

姚思廉撰,《梁書》(北京:中華書局影印).

[中文摘要]

〈千字文〉作者周興嗣,字思纂,南朝齊梁時陳郡項人。他少年時遊學京師,博通記傳,善屬文,成了著名文章家。梁武帝蕭衍特別推崇王羲之的書法,拓下一千個不同的字用以觀摩和學習,不過這些字由於雜碎無序,難以記誦。武帝平時十分賞識周興嗣文章,便讓他將這一千個字編成一篇韻文。梁史有如此的記載:

"〈銅表銘〉,〈柵塘碣〉,〈北伐檄〉,〈次韻王羲之書千字〉,並使興嗣爲文,

每奏，高祖輒稱善，加賜金帛。”

這是有關〈千字文〉的最早記錄。周興嗣領旨後，連夜工作，在天將破曉的時候，完成了這篇千古不朽之作。〈千字文〉問世以後，就在社會上廣泛地流傳下來，得到人們的普遍重視和喜愛，一直到現今，將近1500年的時間裏始終盛行不衰。

不過韓國的丁若鏞先生曾猛烈批評〈千字文〉，其內容實很難解，並不適合用於童蒙讀物。他說：

“我邦之人，得所謂周興嗣千文，以授童幼，而千文非小學家流也。學天地字，乃日月星辰山川丘陵，未竭其族，而遽舍之曰，姑舍汝所學，而學五色。學玄黃字，乃青赤黑白紅紫緋綠，未別其異，而遽舍之曰，姑舍汝所學，而學宇宙，斯何法也？雲雨之間，騰致介之，能竭其族乎？霜露之間，結爲梗之，能別其異乎？夫汝是也，故童幼眩瞶，不辨旨義。……讀千文已，猶一字不知也。千文有用處，以之標田，以之標試卷焉，可也。於小學何與？苟爾雅說文不可復，徐居正之類合，猶其近者也。”

他說得有理，如果把〈千字文〉只當做識字教材，則其句中含意太難，教育效果也不會很大。例如，第一聯‘天玄地黃’，第二聯‘日月盈昃’和第三聯‘寒來暑往’，這些句子都是從《周易》引來的，其含意不易爲童幼理解。

〈千字文〉繼承孔子‘述而不作’的精神，作者隱藏自己創作能力，只盡努力傳授經典精髓。〈千字文〉125聯中，87聯122句有用典，其中86句從十三經引典，其他出典也是史書及諸子書，似乎作者在〈千字文〉裏要網羅中國古代文化精神。因此對中國經典及歷史文化若無相當的理解，便難望解曉〈千字文〉。筆者在此欲做的工作，首先是考據典故，標明出處，詮釋典故。其次對〈千字文〉中蘊含的中國古代文化精神給予解析，追溯作者的行文意圖，助於讀者理解。

主題語：〈千字文〉，典故，‘述而不作’

魏晉시기 入聲韻 詩韻部 分部考

李雄吉*

목 차

1. 序言
 2. 韻部分論
 - (1) 屋沃燭覺韻
 - (2) 質術櫛韻
 - (3) 物月沒曷末黠薛屑韻
 - (4) 藥鐸陌麥昔錫韻
 - (5) 職德韻
 - (6) 緝葉韻
 3. 結言
- [참고문헌]
[論文摘要]

1. 序言

약 400여 년에 걸친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시대는 한어음운사에서 상고(上古)시대와 중고(中古)시대의 과도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문학방면으로 운문이 발달하였고, 문학 비평이 번영하는 등 문학 활동이 활발하였다. 언어상에 있어서도 빈번한 전쟁과 대규모의 인구 이동 등으로 인해 북방어와 남방어가 융합되는 국면이 형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자들의 언어에 대한 인식과 관심 또한 높아져 이에 상응하는 이론과 논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이 시기의 언어

* 동서대학교 외국어학부 중국어전공 부교수

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¹⁾

운서(韻書)가 편찬되기 이전 시대의 음운체계를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운문(韻文)에 사용된 압운자(押韻字)이다. 연구대상이 개인과 전체에 따라서 도출되는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주조모(周祖謨)가 “魏晉宋 이 시기의 작가는 많고, 시문압운의 상황도 아주 복잡하여 운류의 분합을 확정하려면 보편성으로부터 착안할 수밖에 없다.”²⁾라고 하였듯이 어느 한 시기의 대표적인 작가 몇몇 만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결과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출된 결과와 다를 수 있다.³⁾

시기 구분에 있어서 위진남북조시대는 다시 세분되어지는데, 우해연(于海宴)⁴⁾과 주조모(周祖謨)는 魏·晉·宋(北魏 포함)과 齊·梁·陳·隋(北齊와 北周 포함) 두 시기로 나누었고,⁵⁾ 왕력(王力)은 남북조시기를 제1기, 제2기, 제3기 세 시기로 나누었으며,⁶⁾ 하대안(何大安)은 남북조시기를 1기와 2기로 나누었는데, 제2기를 다시 남방구와 북방구로 나누었다.⁷⁾

주조모는 “魏는 兩漢과 가깝고, 宋은 齊梁과 가깝다. 晉은 중간시기이다.”⁸⁾라 하였다. 이로 보면 위진시기는 양한시기와 남북조시기의 교량 역할을 하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선진양한위진남북조시(先秦兩漢魏晉南北朝詩)》⁹⁾를 텍스트로 하여 위진시기의 문인과 민가의 시에 사용된 압운자를 통해 입

1) 何九盈, 《中國古代語言學史》(中國: 廣東教育出版社, 2000), 86쪽.

2) 周祖謨, 〈魏晉宋時期詩文韻部研究〉, 《中國語言學報》1(北京: 商務印書館, 1983), 112쪽.

3) 王力은 〈南北朝詩人用韻考〉에서 텍스트로 삼은 《漢魏六朝百三名家集》중 남북조시인 4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王力이 나눈 운부는 陰聲韻 17부, 陽聲韻 18부, 入聲韻 18부인데, 何大安이 나눈 운부와 다르다.

4) 于海宴, 《漢魏六朝韻譜》(중국: 河南人民出版社, 1989), 19-24쪽 참조

5) 周祖謨, 〈魏晉宋時期詩文韻部研究〉, 〈齊梁陳隋時期詩文韻部研究〉(《周祖謨學術論著自選集》, 北京師範學院出版社, 1993), 190쪽-250쪽 참조

6) 王力, 〈南北朝詩人用韻考〉, 《龍蟲並彫齋文集》1(中華書局, 1980), 3-4쪽.

7) 何大安, 《南北朝韻部演變研究》(臺灣大學博士學位論文, 1981), 318쪽 참조.

8) 周祖謨, 〈魏晉宋時期詩文韻部研究〉, 《周祖謨學術論著自選集》(北京師範學院出版社, 1993), 191쪽.

9) 逯欽立 輯校, 《先秦兩漢魏晉南北朝詩》(臺灣: 木鐸出版社, 1983).

성운(入聲韻)은 몇 개의 운부로 나누어지고 또 각 운부 속에 어떠한 운류(韻類)의 글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조모가 분류한 魏·晉·宋의 운부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韻部分論

1. 屋·沃·燭·覺韻

韻尾가 /-k/인 《廣韻》의 屋·沃·燭·覺 네 운은 양한시기에서는 屋韻의 일부분, 燭韻, 覺韻의 일부분, 沃韻의 /僕/자는 屋部에 속하였고, 沃韻(/僕/자 제외)과 屋韻의 일부분 그리고 覺韻의 /覺學/자와 燭韻의 /勗/자는 沃部에 속하였다.¹⁰⁾ 위진시기에서는 이 들 네 운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먼저 독용과 통압의 통계 상황으로부터 살펴보겠다.

	魏				晉			
	屋	沃	燭	覺	屋	沃	燭	覺
屋	2	0	4	0	9	1	14	3
沃		0	0	0		0	0	0
燭			2	1			11	4
覺				0				0
〈표1〉 屋·沃·燭·覺韻 독용 및 통압 통계표								

위의 〈표1〉을 보면 屋韻과 燭韻의 독용이 있지만 상호 통압의 비율이 독용보다 높아 동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屋韻이 양한시대에 나타난 것처럼 나누어지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屋韻에 속한 글자를 압운자로 사용한 예는 다음과 같다.

10) 羅常培·周祖謨, 《兩漢魏晉南北朝韻部演變研究》第1分冊(北京: 科學出版社, 1958), 222쪽과 225-6쪽 참조.

1) 屋韻 독용

魏 : 衄肉逐(焦先의 <祝衄歌>), 蹙熟(民歌의 <沈瑩引諺>)

晉 : 倮服淑目(傅咸의 <毛詩詩>), 肅穆(傅玄의 <地郊饗神>), 陸穆逐宿(陶淵明의 <勸農詩>), 肅熟福(王嘉의 <歌>), 目復(竺法崇의 <詠詩>), 目復(民歌의 <武帝太康>), 腹服(民歌의 <著布謠>), 服復(民歌의 <荊州童謠>), 服木(民歌의 <桓玄纂詩>)

2) 屋韻과 燭韻 통합

魏 : 木曲速足(陳琳의 <詩>), 足鹿(曹植의 <孟冬篇>), 足速谷俗僕玉綠(郭遐叔의 <贈嵇康詩>), 獨蜀腹(薛綜의 <嘲蜀使張奉>)

晉 : 漉僕屬辱(傅咸의 <與尙書同僚詩>), 曲玉木谷(陸雲의 <答孫顯世詩>), 覆玉錄(陸雲의 <答兄平原詩>), 菊菽宿玉(陸雲의 <失題>), 曲漉速(陸機의 <贈斥丘令>), 辱蠅(陸機의 <詩>), 鬻淑玉(陸機의 <贈紀士>), 木谷浴燭(陶淵明의 <讀山海經>), 谷足木束促卜(張協의 <雜詩>), 速谷綠屬(謝混의 <秋夜長>), 玉俗陸菊軸(庾闡의 <遊仙詩>), 木宿欲辱(左芬의 <啄木詩>), 木曲(民歌의 <南廣陵郡行>), 漉曲(民歌의 <春歌>)

3) 屋韻과 沃韻 통합

晉 : 目毒(孫楚의 <之馮翊祖道詩>)

4) 屋韻과 覺韻 통합

晉 : 岳鍊(傅咸의 <詩>), 服幄穀嶽(陸雲의 <贈汲郡太守詩>), 漉濁(無名氏의 <獨漉篇>)

위의 예에서 사용된 屋韻字는 /衄肉逐腹蹙熟目倮服淑育牧宿覆鬻菊菽陸竹肅馥軸福穆復木卜速漉穀僕鍊族谷瀆濮屋瀆祿斛讀穀哭/이다. 이 중 /木卜速漉穀僕鍊族谷瀆濮屋瀆祿斛讀穀哭/자는 1等韻이고, /衄肉逐腹蹙熟目倮服淑育牧宿覆鬻菊菽陸竹肅馥軸福穆復/자는 3等韻이다. 아래의 <표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等韻字는 燭韻과 통합하고 있는 반면 3等韻字는 燭韻과의 통합보다 독용의 비율이 훨씬 높다. 이로 보면 위진 시대에서도 양한시대와 마찬가지로 屋韻 내에 1等韻字와 3等韻字로 나누어지고 屋韻 1等韻字는 燭韻과 동용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2>에서 보이는 것처럼 覺韻도 燭韻, 屋韻1等과의 통합이 많아 통계상으로 같은 운부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陌錫鐸藥昔韻과 통합한 예가 있어 覺韻 내에 구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魏					晉					
	屋3	屋1	沃	燭	覺	屋3	屋1	沃	燭	覺
屋3	2			1		7	1	1	5	1
屋1				3					8	2
沃				0						
燭				2	1				11	4
覺										

〈표2〉 屋3等·屋1等·沃·燭·覺韻 독용 및 통합 통계표

다음은 覺韻을 압운자로 사용한 예이다.

1) 屋韻1等·燭韻과 동시 통합한 예

魏 : 渥獨漉穀(曹植의 〈時雨謠〉), 嶽贖(曹植의 〈責躬〉)

晉 : 渥足玉(傅玄의 〈宴會詩〉), 曲欲濁祿(傅玄의 〈明君篇〉), 岳餗(傅咸의 〈詩〉), 嶽族樸玉(陸機의 〈贈顧令文〉), 躑谷足幄木玉曲樸欲(陸機의 〈招隱詩〉), 俗樸足瀆(夏靖의 〈答陸士衡詩〉), 岳谷足鶯束錄曲速躑促璞燭(司馬彪의 〈贈山濤詩〉), 濁燭獨木綠屋曲(張協의 〈雜詩〉), 欲朴辱局斲楠足僕續谷族(曹摅의 〈贈王弘遠詩〉), 玉谷玉足蜀數斛粟足讀角(蘇伯玉妻의 〈盤中詩〉), 俗屋樸(張華의 〈食舉東西〉), 木燭璞駮(盧諶의 〈贈劉琨詩〉), 欲穀濁足俗促燭速玉曲(張翼의 〈詠懷詩〉), 曲濁(趙整의 〈諷諫詩〉), 矚岳(湛方生の 〈遊園詠〉), 促錄木哭覺辱足(陶淵明的 〈挺挽歌辭〉), 漉濁(無名氏의 〈獨漉篇〉)

2) 屋韻3等과 통합한 예

晉 : 樂逐(民歌의 〈翳樂〉)

3) 屋韻 3等·屋韻1等·燭韻과 동시 통합한 예

晉 : 促足岳育服(陸機의 〈贈弟士龍〉), 服幄穀嶽(陸雲의 〈贈汲郡太守詩〉), 族木嶽祿玉宿(王讚의 〈三月三日〉)

4) 陌·錫·鐸·藥·昔韻과 통합한 예

魏 : 駁作(左延年的 〈從軍行〉)

晉 : 鑠貊(傅玄의 〈詩〉), 柏落託石洛鶴鑠樂邈(何劭의 〈游仙詩〉), 迪鑠邈灼(陸機의 〈贈憑文羆〉), 略幙灼邈廓(郭璞의 〈與王使君詩〉), 駁闊昨索(羊徽의 〈贈傅長獻傳〉)

5) 1),4)와 동시 통합한 예

晉 : 濯囑足樂(陶淵明的〈時運詩〉)

6) 職韻과 통합한 예

晉 : 域覺(陸機의〈詩〉)

7) 錫沃韻과 동시 통합한 예

晉 : 迪邈篤告(陸雲의〈大安二年〉)

8) 錫德韻과 동시 통합한 예

晉 : 嶽國續錫(陸機의〈與弟清河雲〉)

위의 용례에서 사용된 覺韻字는 다음과 같다.

1)에서 사용된 覺韻字: 嶽渥岳濁璞樸數斲角朴桷覺簫

2)에서 사용된 覺韻字: 樂

3)에서 사용된 覺韻字: 岳嶽幄

4)에서 사용된 覺韻字: 駁邈樂

5)에서 사용된 覺韻字: 濯樂

6)에서 사용된 覺韻字: 覺

7)에서 사용된 覺韻字: 邈

8)에서 사용된 覺韻字: 嶽

1), 2), 3), 4), 5), 6), 7), 8)에서 1), 2), 3)과 4)를 비교해보면 중복되는 覺韻字는 없다. 즉 覺韻 내에 구분이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위의 용례에서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글자들이 있는데, 이들 글자들이 어느 운부에 속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岳嶽/자는 屋韻 1等·燭韻과 동시에 통합한 예가 있는 반면 屋韻 3等과 통합한 예가 없어 屋韻 1等·燭韻과 동용한다고 할 수 있으며, /幄/자는 詩에서 위의 예뿐이지만 文에서는 屋韻 1等·燭韻과 통합한 예가 있는 반면 屋韻 3等과 통합한 예가 없어 屋韻 1等·燭韻과 동용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樂濯覺/자는 文에서도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는 점이 나타나지 않는다.¹¹⁾

11) /樂/자는 鐸韻과의 통합이 1회, 屋3等·屋1等·燭·德韻과의 동시 통합이 1회, 4)의 글자들과 통합이 1회 있다. /濯/자는 1)과 鐸韻과의 동시 통합이 1회, 錫韻과의 통합이 1회, 鐸·錫·沃韻과의 동시 통합이 1회 있으며, /覺/자는 沃韻과의 통합이 1회, 4)와 鐸韻과의 동시 통합이 1회, 屋1等과 /學/자와의 동시

/樂濯/자는 諧聲의 관계로 볼 때 4)의 글자들과 동용한다고 할 수 있다.¹²⁾

위의 사실로 屋部는 《廣韻》 屋韻의 3等字와 沃韻 그리고 覺韻의 /覺/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燭部는 《廣韻》 屋韻의 1等字와 燭韻 그리고 覺韻의 일부(嶽渥岳濁璞樸數斲角朴桷鶯輦)을 포함하고 있다.

2. 質·術·櫛韻

《廣韻》에서 운미가 /-t/인 운인 質·術·櫛韻과 物·月·沒·曷·末·黠·屑·薛韻은 상호 통압이 거의 없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質·術·櫛 세 운 사이에 구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魏			晉		
	質	術	櫛	質	術	櫛
質	3	2		11	5	1
術						
櫛						
〈표3〉 質·術·櫛韻 독용 및 통압 통계표						

위의 〈표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術韻과 櫛韻은 독용과 상호 통압이 없다. 그리고 質韻 이외의 다른 운과의 통압도 없어 이 세 운은 동용한다고 할 수 있다.

質部는 《廣韻》 質·術·櫛韻과 物韻을 포함하고 있다.¹³⁾

3. 物·月·沒·曷·末·黠·屑·薛韻

통압이 1회 있다. (/學/자는 覺韻에 속하지만 屋1等韻과의 통압과 錫韻과의 통압 그리고 4)의 글자들과 鐸韻 동시 통압한 예가 있는데, /學/자와 통압한 錫韻字 /威迪/자는 다른 錫韻字와 통압하지 않았다.)

12) /濯/자와 諧聲의 관계에 있는 /擢/자가 4)의 글자들과 통압하고 있고, /樂/자와 諧聲의 관계에 있는 /爍/자 또한 4)의 글자들과 통압하고 있다.

13) 物韻에 대해서는 3. 物·月·沒·曷·末·黠·屑·薛韻 참조.

《廣韻》 物·月·沒·曷·末·黠·屑·薛韻 사이에 어떠한 구분이 있는지 살펴 보겠다.

	魏								晉							
	物	月	沒	曷	末	黠	屑	薛	物	月	沒	曷	末	屑	薛	
物	1								1	1						
月							1	3		5			1	3		
沒			1								1					
曷						1							2			
末					1								1		1	
屑								1							11	
薛								3							4	
〈표4〉 物·月·沒·曷·末·黠·屑·薛韻 독용 및 통압 통계표																

위의 〈표4〉에서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첫째, 魏代에서 物韻, 沒韻, 末韻의 통압 예가 없다.
- 둘째, 魏代에서는 月韻, 屑韻, 薛韻 세 운은 동용한다.
- 셋째, 晉代에서는 沒韻만이 통압의 예가 없다.
- 넷째, 晉代에서는 屑·薛韻의 동용이 뚜렷하다.

위의 첫째는 용례가 적어 운부의 독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어 文을 참고하여 보면 物韻은 독용이 1회, 質部와의 통압이 2회 있다. 詩와 文에 사용된 예들을 다 합쳐도 통계상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晉代의 文에서는 物韻의 독용이 1회뿐이지만 質部와의 통압이 8회 있어 物韻은 質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沒韻은 魏代의 文에서도 독용과 통압의 예가 나타나지 않으나 晉代의 文에서는 沒韻 독용이 6회, 質部와의 통압이 2회 있어 沒韻은 하나의 운부로 독립한다고 할 수 있다.

末韻은 魏代의 文에서 독용이 1회, 曷韻과의 통압이 2회 있고, 晉代

에 독용이 1회, 曷韻과의 통압이 3회 있으나 曷韻의 독용이 없어 曷·末韻을 합쳐 하나의 운부로 세울 수 있다. 그리고 黠韻은 魏代에 曷韻과의 통압이 1회, 曷·泰韻과의 동시 통압이 1회 있으나, 晉代에서는 屑·薛韻과의 동시 통압이 3회 있는 반면 曷·末韻과의 동시 통압이 1회 뿐이며 黠韻은 魏代에서는 曷·末韻과 동용한다고 할 수 있고, 晉代에서는 屑·薛韻과 동용한다고 할 수 있다.

月韻은 魏代에서는 독용이 없고 屑·薛韻과의 통압만 있어 세 운은 동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晉代에서는 위의 <표4>에 나타난 바와 같이 月韻의 독용이 薛韻과의 통압보다 많아 동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屑·薛韻과의 동시 통압이 5회 있어 晉代에서도 이 세 운은 동용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사실로 沒部는 《廣韻》 沒韻을 포함하고 있으며, 曷部는 魏代에서는 《廣韻》 曷韻과 末韻 그리고 黠韻을 포함하고 있고, 晉代에서는 曷韻과 末韻을 포함하고 있다. 月部에는 魏代에 《廣韻》 月·屑·薛 세 운이 포함되어 있고, 晉代에서는 月·屑·薛·黠 네 운이 포함되어 있다.

4. 藥鐸·陌·麥·昔·錫韻

《廣韻》에서 屋·沃·燭·覺韻 이외의 운미가 /-k/인 운은 藥·鐸·陌·麥·錫·昔·職·德韻인데, 藥·鐸·陌·麥·錫·昔韻과 職·德韻과의 통압이 거의 없어 둘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선 藥·鐸·陌·麥·錫·昔韻이 나누어지는지 살펴보겠다.

아래의 <표5>에서 나타난 것으로부터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藥韻과 鐸韻은 동용하고 있다.

둘째, 陌韻은 昔韻과의 통압은 있으나 錫韻과의 통압이 없고, 昔韻은 錫韻과의 통압이 있다.

위의 사실로 昔韻字 내에 구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昔韻字 내에 어떠한 구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魏						晉						
	藥	鐸	陌	麥	錫	昔	藥	鐸	陌	麥	錫	昔
藥		2						2	1	1		
鐸						1		9			4	
陌				2	1	1			6		7	
麥											3	
錫						1					3	
昔											3	7
〈표5〉 藥·鐸·陌·麥·錫·昔韻 독용 및 통합 통계표												

다음은 昔韻字가 압운자로 사용된 예들이다.

1) 鐸陌韻과 통합한 예

魏 : 宅客陌苜索石錯柏席落惜(曹丕의 〈陌上桑〉), 客席鐸夕(曹植의 〈當車已駕行〉), 落閣澤穫博客惜薄(曹植의 〈贈丁儀詩〉), 壁薄(曹植의 〈詩〉), 隙石白客逆陌澤(應璩의 〈百一詩〉), 落客籍(應璩의 〈百一詩〉), 宅惜(嵇康의 〈四言贈兄秀〉)

晉 : 愕錯石(夏侯湛의 〈山路吟〉), 柏夕昔席客石(潘岳의 〈楊氏七哀詩〉), 柏落託石洛鶴樂邈(何邵의 〈遊仙詩〉), 客宅惜(陸機의 〈與弟清河雲〉), 赫宅昔格(陸機의 〈皇太子賜宴〉), 薄宅郭廓籍壑昔澤(左思의 〈詠史詩〉), 昔薄夕索(張翰의 〈贈張弋陽詩〉), 魄白柏夕液石客(郭璞의 〈遊仙詩〉), 鶴壑魄迹(梅陶의 〈怨詩行〉), 託客宅昔落(王羲之의 〈蘭亭詩〉), 宅石役席昔析(陶淵明的 〈移居詩〉), 宅跡百白惜(陶淵明的 〈飲酒詩〉), 役逆適(楊羲의 〈臨去吟〉), 赫石(民歌의 〈時人爲歌〉), 惜薄(民歌의 〈子夜吟〉)

2) 錫陌韻과 통합한 예

晉 : 易析迹壁(張華의 〈雜詩〉), 易隔益役歷跡壁惕隻析滴積擊(潘岳의 〈悼亡詩〉), 感役(陸機의 〈挽歌辭〉), 皙歷壁跡赤愷益獲畫績易役翮鬣摑曠摛擲適積核迹適鏗錫碧責壁(左思의 〈嬌女詩〉) 翮壁積(張載의 〈擬四愁詩〉), 惕易跡役壁(潘尼의 〈答陸士衡詩〉), 辟積(傅玄의 〈食學東西〉), 腋績跡翮益昔易厄積役惕隔蹟壁(盧諶의 〈答魏子悌詩〉), 夕役適析擊策積寂蹟釋(支遁의 〈八關齊詩〉), 跡適關隔翮益(釋慧遠의 〈廬山東林〉), 荻積(民歌의 〈安帝義熙〉), 壁適(民歌의 〈夏歌〉), 摛覓(民歌의 〈夏歌〉), 覓跡(民歌의 〈冬歌〉)

3) 昔韻 독용 예

晉 : 易跡(束皙의 <補亡詩>), 奕石(民歌의 <京師爲劉>), 尺錫(民歌의 <五月歌>)

4) 鐸陌錫麥韻과 동시에 통합한 예

魏 : 石澗客澤(陳琳의 <贈從弟詩>)

晉 : 澤奕石輅客尺夕獲釋(潘岳의 <內顧詩>), 爵辟易錫績(陸雲의 <有皇>), 適隔澤昔(湛方生の <遊園詠>), 積昔翻隔役易析柏(陶淵明的 <乙巳歲三月>)

위의 용례에서 昔韻字만 추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1)에서의 昔韻字 : 石夕席惜璧昔陌籍液迹役跡適

2)에서의 昔韻字 : 易迹積益役跡隻璧赤襞擲適碧腋昔夕釋闢擿辟

3)에서의 昔韻字 : 易跡奕石尺錫

4)에서의 昔韻字 : 石赫尺夕昔適釋辟易積役

1)과 2)에서 중복된 글자는 /夕璧昔迹役跡適/인데, /夕昔/자는 1)에서의 사용 횟수가 6회인 반면 2)에서의 횟수가 1회이며 鐸陌韻과 동용한다고 할 수 있고, /璧役跡適/자는 1)에서의 사용 횟수가 1회인 반면에 2)에서의 사용 횟수가 4회(璧), 6회(役), 6회(跡), 5회(適)이며 錫麥韻과 동용한다고 할 수 있다. /迹/자는 해성의 관계로 보아 錫麥韻과 동용한다고 할 수 있으며, 4)에서의 /奕尺釋辟/자 가운데 /奕尺/자와 /釋/자는 3)에서 나타난 사실과 해성의 관계로 보아 鐸陌韻과 동용한다고 할 수 있다. /辟/자도 해성의 관계로 보아 錫麥韻과 동용한다고 할 수 있다.

麥錫韻도 위의 용례 2)와 4) 그리고 다음의 文에서의 용례를 보면 운자 사이에 구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策揚(曹植의 <責躬>) - 錫麥韻 통합

獲帛(曹植의 <賦犬>) - 陌麥韻 통합

즉 錫韻의 /溺/자와 麥韻의 /獲/자는 陌韻과 동용하고, 錫韻의 /惕壁析歷績滴擊錫荻覓寂/자와 麥韻의 /策隔核厄蹟摘/자는 昔韻의 /易迹積益役跡隻璧赤辟襞擲適碧腋闕擿/자와 동용한다.

그리고 覺韻字 /駁邈鑠濯樂/자는 藥鐸韻과 동용하므로 이 운부에 포함시킬 수 있다.¹⁴⁾

위의 사실로 藥部는 《廣韻》 藥鐸·陌韻과 昔韻의 /石夕席惜昔跖籍液奕尺/자, 錫韻의 /溺/자 및 麥韻의 /獲/자 그리고 覺韻의 /駁邈鑠濯樂/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昔部는 《廣韻》 昔韻의 /易迹積益役跡隻璧赤辟襞擲適碧腋闕擿/자와 錫韻의 /惕壁析歷績滴擊錫荻覓寂/자 그리고 麥韻의 /策隔核厄蹟摘/자를 포함하고 있다.

5. 職·德韻

魏代에는 職韻 독용만 있고, 晉代에서는 德韻과의 통압이 8회 있지만, 職韻 독용이 27회, 德韻 독용이 13회 있어 각각 하나의 운부로 독립한다고 할 수 있다.

職部에는 《廣韻》 職韻을 포함하고 있고, 德部에는 《廣韻》 德韻이 포함되어 있다.

6. 緝·葉韻

운미가 /p/인 《廣韻》의 緝·合·盍·葉·帖·狎·業·乏韻에서 魏代에서는 緝韻의 독용 밖에 없고, 晉代에서는 緝韻의 독용과 葉韻의 독용 그리고 緝韻과 葉韻의 통압뿐이다. 緝韻의 독용(13회)이 뚜렷하기 때문에 하나의 운부로 세울 수 있다. 그러나 葉韻의 독용이 1회, 緝韻과 葉韻의 통압도 1회뿐이어 葉韻의 독립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다. 그래서 文을 참고로 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 文에서는 葉韻과 緝韻의 통압이 1회 있는 반면 葉韻의 독용이 2회 그리고 盍·帖·洽·狎·業·乏韻과의 통압이 4회

14) 1. 屋·沃·燭·覺韻 참조.

있어 葉韻는 하나의 독립한다고 할 수 있다.

緝部에는 《廣韻》 緝韻이 포함되어 있고, 葉部에는 《廣韻》 葉韻이 포함되어 있다.

3. 結 言

각 운의 독용과 통합 상황으로 分部한 결과 이 시기의 入聲韻은 12韻部로 나누어짐을 볼 수 있다. 각 운부와 포함된 운류는 다음과 같다.

1. 屋部 - 《廣韻》 屋韻의 3等字, 沃韻, 覺韻의 /覺/
2. 燭部 - 《廣韻》 屋韻의 1等字, 燭韻, 覺韻의 일부(嶽渥岳濁璞樸數
斲角朴柎篤幄)
3. 質部 - 《廣韻》 質韻, 術韻, 櫛韻, 物韻
4. 沒部 - 《廣韻》 沒韻
5. 曷部 - 《廣韻》 曷韻, 末韻, 黠韻 - 魏
曷韻, 末韻 - 晉
6. 月部 - 《廣韻》 月韻, 屑韻, 薛韻 - 魏
月韻, 屑韻, 薛韻, 黠韻 - 晉
7. 藥部 - 《廣韻》 藥韻, 鐸韻, 陌韻, 昔韻의 일부(石夕席昔昔跖籍液
奕尺), 錫韻의 /溺/자, 麥韻의 /獲/자, 覺韻의 일부(/駁邈鑠濯樂)
8. 昔部 - 《廣韻》 昔韻의 일부(易迹積益役跡隻璧赤辟襞擲適碧腋闕
擿), 錫韻의 일부(惕壁析歷績滴擊錫荻覓寂), 麥韻의 일부(策隔核
厄曷摘)
9. 職部 - 《廣韻》 職韻
10. 德部 - 《廣韻》 德韻
11. 緝部 - 《廣韻》 緝韻
12. 葉部 - 《廣韻》 葉韻

그리고 구조모가 나눈 魏·晉과 宋의 운부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魏·晉		劉宋
1	屋(屋韻의 일부분, 燭韻, 覺韻의 일부분)	1	屋(屋韻, 沃韻, 覺韻의 일부분)
2	沃(屋韻의 일부분, 沃韻, 覺韻의 일부분, 錫韻의 일부분)		
3	藥(覺韻의 일부분, 藥韻, 鐸韻, 陌韻, 麥韻의 일부분, 錫韻의 일부분, 昔韻의 일부분) - 晉	2	藥(藥韻, 鐸韻)
4	錫(錫韻의 일부분, 昔韻의 일부분, 麥韻의 일부분)	3	錫(錫韻, 陌韻, 麥韻, 昔韻)
5	職(職韻, 屋韻의 일부분) - 魏	4	職(職韻)
	職(職韻) - 晉		
6	德(德韻, 麥韻의 일부분) - 魏	5	德(德韻)
	德(德韻) - 晉		
7	質(質韻, 術韻, 櫛韻, 物韻, 迄韻, 沒韻) - 魏	6	質(質韻, 術韻, 櫛韻)
	質(質韻, 術韻, 櫛韻, 物韻, 迄韻) - 晉	7	物(物韻)
8	沒(沒韻) - 晉	8	沒(沒韻, 月韻)
9	屑(月韻, 屑韻, 薛韻, 黠韻)	9	屑(屑韻, 薛韻, 黠韻)
10	曷(曷韻, 末韻, 鎋韻)	10	曷(曷韻, 末韻, 鎋韻)
11	緝(緝韻)	11	緝(緝韻)
12	合(合韻)	11	合(合韻)
13	盍(盍韻)	12	盍(盍韻)
14	葉(葉韻, 帖韻, 洽韻, 狎韻, 業韻, 乏韻)	13	葉(葉韻, 帖韻, 洽韻, 狎韻, 業韻, 乏韻)

[參考文獻]

- 遠欽立 輯校, 《先秦兩漢魏晉南北朝詩》(臺灣: 木鐸出版社, 1983).
- 丁福保, 《全漢三國晉南北朝詩》(臺灣: 世界書局, 1978).
- 嚴可均, 《全上古秦漢魏晉南北朝文》(臺灣: 世界書局, 1982).
- 余迺永 校著, 《互註校本宋本廣韻》(臺灣: 聯貫出版社, 1980).
- 曹道衡 沈玉成, 《南北朝文學史》(北京: 人民大學出版社, 1991).
- 白翠錦, 《魏晉南北朝民族史》(中國: 四川民族出版社, 1996).
- 勞幹, 《魏晉南北朝史》(臺灣: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0).
- 何九盈, 《中國古代語言學史》(中國: 廣東教育出版社, 2000).
- 董同龢 著, 孔在錫 譯, 《漢語音韻學》(서울: 凡學圖書, 1975).
- 周振鶴 游汝杰, 《方言與中國文化》(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6).
- 羅常培 周祖謨, 《兩漢魏晉南北朝韻部演變研究》第一分冊(北京: 科學出版社, 1958).
- 丁邦新, 《魏晉音韻研究》(《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專刊之六十五》, 臺灣: 1975).
- 于安瀾, 《漢魏六朝韻譜》(中國: 河南人民出版社, 1898).
- 王力, 《龍蟲並雕齋文集》(北京: 中華書局, 1980).
- 周祖謨, 《周祖謨學術論著自選集》(北京: 北京師範學院出版社, 1993).
- 何大安, 《南北朝韻部演變研究》(臺灣: 臺灣大學博士學位論文, 1981).
- 林炯陽, 《魏晉詩韻考》, 《師大國文研究所集刊》16(臺灣: 1972).
- 李雄吉, 〈北魏·北齊詩韻小考〉, 《論文集》7(동서대학교, 2001).
- 〈劉宋時期 詩韻小考〉, 《中國語文學》40(2002).
- 〈齊梁陳隋北周시기의 詩 韻部合韻현상분석〉, 《中國學》21(2003).
- 〈北周시기 詩 韻部 연구〉, 《中國語文學》44(2004).
- 〈魏晉시기 陰聲韻 詩韻部 分論〉, 《論文集》11(동서대학교, 2005).
- 王越, 〈魏晉南北朝之脂支三部及東中二部之演變〉, 《國立中山大學文史學研究所月刊》1:2(中國).

[中文摘要]

在漢語史上,魏晉南北朝是大變革期.這時代,由于頻繁的戰爭、建國和興衰、異族的中原侵入、人口遷移,在漢語方面上北方語和南方語互相融合現象出現了.還有由于韻文的發達、文學批評繁榮,對語言學發展起了很大的影響,而且新學問-音韻學出現,所以這時期是能夠糾明上古音到中古音之音韻演變的重要的時代.

本稿以《先秦兩漢魏晉南北朝詩》為考察材料,聯系魏晉時期文人使用的詩的押韻情況.分析來入聲韻可以類分幾個韻部,以及每一韻部里面有什么韻類,進而考察比較周祖謨分類的魏晉宋的韻部起來有什么樣的差異.

結論認為,魏晉時期的入聲韻可以類分出12韻部.魏晉時期的12個入聲韻部列如下:1.屋部,2.燭部,3.質部,4.沒部,5.曷部,6.月部,7.藥部,8.昔部,9.職部,10.德部,11.緝部,12.葉部

키워드 : 押韻字, 韻類, 獨用, 屋韻3等字, 諧聲

《老乞大》 처치문의 把/將字 연구

이수진*

〈 목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1. 머리말2. 《老乞大》 처치문의 將과 把<ul style="list-style-type: none">1. 將의 용법1.1 동사 將1.2 조사 將2. 把의 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3. 將과 把의 변화<ul style="list-style-type: none">3.1 將과 把가 그대로 운용되는 경우3.2 將이 把로 대체되는 경우3.3 문장 내 다른 성분이 把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3. 맺음말

1. 머리말

《老乞大》는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어 학습용 교재로 편찬되었던 책으로써 원대 말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舊本老乞大》를 시작으로 《重刊老乞大諺解》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간 여러 차례 수정되고 보완되어 내려져 왔다. 《老乞大》가 수정되고 보완되는 400년간은 그 역사분기가 근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중국어의 변화 발전사 전체 과정에서 어순 및 어휘 교체 등, 많은 변화 발전 과정을 겪은 시기에 해당한다. 다른 문헌들과 달리 《老乞大》의 여러 판본들이 한어사 연구에 있어 특별한 주목을 받는 까닭은 상술한 한어사의 시기적인 문제와 더불어 책의 편찬 목적에 의거해 그 내용이 회화체의 구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즉 《舊本老乞大》부터 《重刊老乞大諺解》

* 부산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강사

까지 각 판본의 개별 문장들은 당시 중국어 구어체의 시기별 변화를 그대로 반영해주기 때문에, 판본간의 비교는 어법 및 어휘의 변화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老乞大》의 각 판본이 출판되던 그 시기는 중국어의 특수한 구문 형태 중 하나인 처치문이 많은 변화를 겪던 시기와도 일치한다.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처치문은 7, 8세기경 처음 출현한 이후 만당 시대에 이르기까지 초기 처치문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 당대 이전에 將과 把는 “持, 拿” 등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 용법으로 쓰여 주로 연동문 구조를 지니는 경향이 많았고 이후 송·원·명·청대를 거치면서 “처치(處置)”의 의미를 지니는 전치사 용법과 서로 혼용되다가 점차 현대 한어의 처치문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¹⁾ 처치문의 이러한 변화 발전 과정 중, 《老乞大》의 여러 판본이 출판되는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동사로서의 將과 把가 전치사 용법과 혼재되어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해당 문장의 구조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老乞大》의 판본 속에서는 이와 같은 처치문의 변화 과정을 그대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老乞大》의 초기 판본으로서 1300년대 중반에 출간되었다고 추정되는²⁾ 《舊本老乞大》, 1509년 경 최세진의 병음 및 번역이 가미되어 재판된 《翻譯老乞大》, 이후 1761년에 다시 수정되어 출판된 《老乞大新釋諺解》, 1795년의 《重刊老乞大諺解》, 이 네 가지 판본에서 처치문을 추출하여 각 문장의 변화 과정으로 살펴보도록 한다.³⁾

1) 吳福祥, 〈再論處置式的來源〉, 《語言研究》3(2003).

2) 《老乞大》의 초판에 해당되는 《日本老乞大》의 제작 연대에 대해서는 원대 말기와 명대 초기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으나 그 고증자료들에 근거해볼 때 그 제작 연대가 원대 말기라는 의견이 비교적 설득력 있다. 梁伍鎮, 〈論元代漢語《老乞大》的語言特點〉, 《民族語文》6(2000).

3) 인용 예문들은 이들 판본 가운데 《舊本老乞大》와 《重刊老乞大諺解》에서 추출하되 해당 문장의 전체 변화 과정을 살필 필요가 있을 경우 나머지 판본을 참고하도록 한다. 다만 텍스트의 한정성으로 인해 처치문의 숫자가 적어 근대 한어의 처치문에 대한 특징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우나 개별 문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시의 처치문 연구에 근거로 보충 제공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老乞大》 처치문의 將과 把

《老乞大》에서 將과 把는 처치문에서 목적어를 동사 술어 앞으로 이동시키는 표지사 외 다른 용법으로도 쓰이고 있다. 《老乞大》에 나타난 將과 把의 사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이 동사로서 실사(實辭)적인 용법으로 사용되다가 점점 허사(虛辭)화 되어 가는 과정을 알아보려고 한다.

1. 將의 용법

최초의 판본으로 추정되는 《舊本老乞大》의 경우 將과 把중에서 將이 훨씬 더 많은 사용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아래에서는 《舊本老乞大》에서의 將이 어떤 용법으로 쓰이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후의 판본에서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⁴⁾

1.1 동사 將

동사로서 將은 “持” “扶助” “帶領”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런 의미의 영향으로 인해 將으로 구성된 술어는 그 동작에 일종의 방향성을 부여 받게 된다.⁵⁾ 이 방향성은 동태(動態)적인 개념의 것으로 전체 술어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래 예문 중에서 將이 단독으로 술어가 되는 문장은 (1)의 예 하나뿐이며 나머지 문장들은 將(+ O) + 来/去의 구조를 형성하여 將의 동태적 방향성을 보충해주고 있다. 將의 이러한 의미 특질은 把와 더불어 처치문의 표지사로 역할하게 하는 원인과 이후 거의 일괄적으로 把로 대체되는 원인을 동시에 제공하게 된다.

4) 將의 기타 용법 중 동사와 동작 완성의 표지사로서의 용법이 이후 처치문의 변화 발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여기에 한정시켜 살펴보도록 한다.

5) 马立春, 王莹莹, <“將”字句和“把”字句消长考因>, 《河南机电高等专科学校学报》2(2006).

《舊本老乞大》에서 將은 그 사용 분포⁶⁾를 보면 동사로 가장 많이 쓰였으며 그 구조 또한 방향 보어, 결과 보어와 결합되거나 將 (+ O) + V + ... 와 같은 연동문을 이루는 등 단순동사로 쓰이기보다 비교적 복잡한 술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동사로서의 將은 이후 《翻譯老乞大》에서는 그대로 연용되기도 하고 拿, 帶 등으로 바뀌기도 하면서 변화의 시작을 보이다가 《老乞大新釋諺解》, 《重刊老乞大諺解》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拿, 帶, 取 혹은 그 외 해당 의미의 다른 동사로 대체된다. 아래 예문은 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1) 現將印信文引 (老乞大 13b-14a)⁷⁾
現帶得印信文引在此 (老重 上 44a)
- (2) 將幾箇來 (老乞大 7b)
拿幾領來鋪上 (老重 上 23a)
- (3) 我將料水去 (老乞大 9b)
我取料水去 (老重 上 29b)
- (4) 將好擇鈔來 (老乞大 37a)
拿好細絲來 (老重 下 60a)
- (5) 與他將些去 (老乞大 12a)
帶些去給他 (老重 上 38b-39a)
- (6) 更與你將來 (老乞大 13a)
教給你喫帶來 (老重 上 41ab)

6) 김광조, <《老乞大》에 나타난 "將/把"字문의 文法化 研究>, 《中語中文學》 30(2002.6).

7) 인용문의 출처는 《《老乞大》·《朴通事》原文諺解 比較 資料》를 참고하였으며 인용문의 해당 판본은 《舊本老乞大》는 (老乞大), 《翻譯老乞大》는 (翻老), 《老乞大新釋諺解》는 (老新), 《重刊老乞大諺解》는 (老重)으로 略稱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 (7) 你將椀櫛確兒去 (老乞大 13ab)
你可拿了椀櫛與瓦罐回家去 (老重 上 42ab)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 將은 《舊本老乞大》에서 동사적 용법으로 쓰이다가 이후의 판본으로 가면서 대부분 다른 동사로 대체된다. 《重刊老乞大諺解》에 이르러서도 將이 그대로 운용되면서 동사 용법 또한 그대로 지니는 경우에는 아래 두 개의 예문만이 해당된다.

- (8) 我將這幾箇馬賣去 (老乞大 3a) (老重 上 7b)

- (9) 將馬和布子大都賣了 (老乞大 4b)
將馬四與布到京都賣了 (老重 上 13a-14b)

그러나 이 인용문은 두 가지의 해석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문장에 대한 해당 언해문은 “이 여러 말을 가져 팔라 가노라” “말과 뵈 가져 서울 가 다 팔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로 이 문장을 연동문의 구조로 보고 將을 동사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언해문의 참고 없이 구조 자체만을 본다면 수사자(受事者)에 대한 표지사로도 또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후행하는 동사 賣가 문장 전체의 술어이고 그 목적어가 처치문의 표지사 將에 의해 앞으로 이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將의 목적어는 동사 술어 賣의 수사자(受事者)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해석 가능성은 일종의 기의(歧義)현상을 낳게 한다. 將의 기의(歧義)현상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3.2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이 두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문장에서 將이 이후의 판본으로 넘어가면서 다른 동사로 대체되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점차 더 이상 동사로서의 의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將이 실사(實辭)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동시에 동사 뒤에 결합되는 조사로서도, 처치문의 표지사로서도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즉, 將의 개별 용법들 중 어느 것은 강화되고 어느 것은 소실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쓰임이 약화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게 된다. 다음 절에서는 이 조사로

서의 將과 그 변화를 알아보기로 한다.

1.2 조사 將

본래 동사로 쓰이던 將은 처치문의 표지사보다 동사술어의 방향보어 표지사 혹은 동작의 완성을 표시하는 표지사로 먼저 그 허사화 과정을 밟기 시작한다. 將의 이 용법은 위진 남북조 시기부터 “V + 將 + 방향동사”의 격식으로 사용되다가 원대에 그 발전의 최고봉에 이르게 되고 청대부터 조금씩 사라진다고 알려져 있다.⁸⁾ 따라서 원대 말에 출판된 《舊本老乞大》에서도 將의 이 용법은 비교적 출현 빈도가 높다.

해당되는 문장에서 그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당대부터 이후의 여러 문헌 속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종류의 유형에 속한다.⁹⁾

a. V + 將 + (단순)방향보어來/去

- (10) 从那裏厮合將來 (老乞大 5b)
从那裏同來的? (老重 上 15b)

- (11) 大片兒切著, 將來爨者 (老乞大 6b)
大片兒切著, 炒來罷 (老重 上 18b-19a)

- (12) 一處趕將來 (老乞大 21b)
一同趕來要賣 (老重 下 5b-6a)

- (13) 送將來與恁 (老乞大 25a)
送來與你 (老重 下 17b-18a)

8) 王国栓, 〈“动+將+趨”式中“將”的性质〉, 《语文研究》3(2004).

9) 다음의 논문들이 참고할 수 있는 관련 논문이다. 郜林涛, 〈《根本说一切有部毘奈耶》中的助词“將”与“著”〉, 《太原师范学院学(社会科学版)》3(2005); 刘海燕, 〈简述《水浒传》中“將”的用法〉, 《宜春学院学报》3(2002).

b. V₁ + 將 + O + (단순)방향보어 (+ V₂)

(14) 再牽將別箇的來飲 (老乞大 11a)
再牽別的來飲水 (老重 上 33b)

(15) 你趕將馬來 (老乞大 13a)
你趕馬來 (老重 上 41b)

(16) 做將粥來與恁喫 (老乞大 15b-16a)
做些粥來與你們喫罷 (老重 上 50b)

(17) 俺數將布去 (老乞大 37ab)
點數了布去 (老重 下 60a)

여기서 將은 동사 뒤에서 실사(實辭)로서의 의미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단지 동작이 이미 완성되었거나 혹은 앞으로 완성될 것임을 나타내는 문법 의의만을 나타내고 있다. 동태조사로서 將이 나타내는 그러한 문법 의의는 선행하는 동사의 의미 특징에 따라 동작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가정문, 명령문 등의 문형 속에서는 앞으로 실현될 것임을 나타내기도 한다.¹⁰⁾ 위의 예에서 (10)만이 동작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나타내고, 나머지 예는 앞으로 실현될 것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어법 기능 또한 앞서 말한 동사로서의 용법에서 기원하고 있음을 해당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마치 將이 방향보어의 일부인 것처럼 사용되는 것이다. 즉, 방향성이라는 동태의 개념을 가진 동사 將이 다른 동사와 어울려 동사 병렬 구조를 취하고 이에 來/去를 후행 동사로 삼고 있는데 목적어가 없는 a.의 구조에서는 將뒤에 나타나는 동사가 來/去이고, 또한 목적어가 있는 b.의 구조에서는 將은 현대한어의 복합방향보어가 목적어를 가지는 것과 같은 구조, 즉 “V₁ + 將 + O + 來/去”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將은 다만 동태개념만 남고 실사의 의미는 사라진다. 將의 이런 허사화 과정은 把보다 시

10) 王艳芳, 〈《元曲选》中动态助词“将”的用法〉, 《语文学刊》3(2003).

기적으로 먼저 일어나 그 사용에 있어 보편성을 획득하게 되고 이로 인해 《舊本老乞大》에서도 처치문의 표지사인 허사로 把보다 더 많은 출현 분포를 보이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식 및 특징은 《翻譯老乞大》에서도 그대로 사용되다가 이후 《重刊老乞大諺解》에 이르러서는 두 가지 형태로 변화되는데 하나는 문장 속에서 더 이상 의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생략되는 것이며 또 하나는 현대한어의 동작 완성 표지사인 了로 대체되고 있다.¹¹⁾

2. 把의 용법

把 역시 將과 마찬가지로 동사에서 허사화 과정을 거쳐 현대 한어의 표지사로 정착된 단어이다. 다만 그 차이점은 將은 그 본래의 동사 자질 때문에 여러 기능으로 분화되어 허사화되지만 把는 비교적 단일하게 변화해간다는 것이다. 원래 把는 손의 동작 “握”의 의미로 동사 자체가 비교적 정태적인 상황을 제시하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같은 처치문이라고 할지라도 將과 바꾸어 쓸 수 없는 예가 있기도 하다.¹²⁾

《老乞大》의 초기 각 판본에서 把가 동사로서 쓰인 예는 아래 한 문장에만 해당된다.

(18) 欄門蓋兒都把了也 (老乞大 29a)

이 문장은 《翻譯老乞大》에서 문미의 也만 생략되고 그대로 운용되며 이후 《重刊老乞大諺解》에서는 내용이 수정되어 해당예문이 아주 다

11) 예외적으로 아래의 예에서는 將이 了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첨가되는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將이 다른 의미를 표현하지는 못하고 역시 동작 완성의 표지로만 사용되고 있다.

你不肯時趕將去 (老乞大 26a)

若不肯你就趕將了去罷 (老重 下 21ab)

12) 石毓智, 《語法化的動因與機制》(北京大學出版社, 2006.7)를 참고할 수 있다.

르게 표현되어 있다.

이 유일한 동사적 용법 외에 《舊本老乞大》에서는 수사자(受事者)를 나타내는 표지사로 소수 쓰이고 있으며

(19) 把那賊圍在一箇山峪裏 (老乞大 9a) (老重 上 27ab)

《老乞大新釋諺解》에서부터 점차 將에서 대체되어 거의 모든 처치문의 표지사로 쓰이게 된다.

이 시기의 把는 동사든 처치문의 표지사이든 그 사용 분포가 낮아 특이한 사항은 보이지 않는다.

3. 將과 把의 변화

《老乞大》의 여러 판본에 나타나는 처치문의 변화는 우선 표지사에서 그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그 외 동사 술어와 보어의 순서, 문장내 부사어의 위치 등 일부 변화를 제외하고 將이 把로 대체된다고 해서 그로 인한 문장 전체의 구조적 변화 등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당시 처치문이 현대한어의 그것과 같은 구조 및 “처치(處置)”의 개념을 완전히 획득하기 이전 단계로 將이나 把의 단순한 쓰임만 변화되던 시기이기 때문이다.¹³⁾

13) 현대한어의 처치문이 가지는 문법적 특징 중 일반진술문의 동사 + 목적어 순서와 어법 기능상 차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把의 목적어의 한정성”과 “처치의 개념을 표현해줄 수 있는 술어의 제약”임은 이미 일반적인 견해이다. 처치문에서 그 표지사의 목적어는 화자나 청자가 알고 있는 대상으로 그 한정성이 요구되며, 술어는 그 의미 기능이 전치사 把 혹은 將의 목적어를 향한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줄 수 있는 기타 성분-보어, 동태 조사, 간접목적어의 동반을 요구하게 된다. 《老乞大》의 처치문은 시작 단계도 완성 단계도 아닌 시기의 것들로 초기 처치문의 형식과 발전 과정 중의 여러 오용된 형식과 완성된 처치문의 형식들이 두루 공존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개별 문장의 분석에서 필요한 경우 언급하도록 하며 따로 논의하지 않도록 한다.

이에 將과 把의 쓰임을 근거로 각 판본간의 문장들을 비교 대조해보면 그 변화 유형에 따라 아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將과 把가 그대로 운용되는 경우
- 2) 將이 把로 대체되는 경우
- 3) 문장 내 다른 성분이 把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

이와 같은 양상 속에서 해당 전치사로의 변화는 문장 내 다른 성분의 변화를 유발하여 문장 전체의 구조 및 의미 개념이 현대한어의 그것과 유사하게 발전해 나가게 된다.

3.1 將과 把가 그대로 운용되는 경우

《舊本老乞大》에서 사용된 표지사가 이후의 판본에서도 그대로 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처치문의 구조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목적어의 의미, 술어의 의미 조건, 어순 등을 통해 처치문의 전체 발전 과정 중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형태가 서로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0) 便將功折過免了打 (老乞大 1b-2a)
便將功折過免打了 (老重 上 3b-4b)

- (21) 每日學長將那頑學生師傅行呈著 (老乞大2b)
每日學長將那頑學生向師傅稟了 (老新 1;8b-9a)
每日學長將那頑學生稟了師傅 (老重 上 6b-7a)

- (22) 逐將自己元買到, 赤色驢馬一疋, …, 賣與直南府客人張五 (老乞大 24b)
願將自己原買, 赤色驢馬一疋, …, 賣與山動濟男府客人李五 (老重 下 15b-17a)

- (23) 教別人將咱每做甚麼人看? (老乞大2a)
別人將我們看作何如人? (老重 上 4b-5a)
- (24) 乾把地主併側近平人涉疑打傳 (老乞大 8a-8b)
單把地主併左近人拷打 (老重 上 25b)
- (25) 把那賊圍在一箇山峪裏 (老乞大 9a) (老重 上 27ab)
- (26) 把那人頭上打了一下 (翻老 上27b-28b)(老重 上 24b-26a)
- (27) 把馬每鬆動者 (老乞大19b)
把馬鬆綫了 (老重 上 63a)

(20)은 將의 목적어가 도구인 예로 현대한어의 처치문에서는 보이지 않는 형태이지만 머리말에서 언급했듯 ‘연동문을 그 기원으로 하고 이후 도구식 문장으로 넘어간다’는 처치문의 발전 과정 중에서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예에 해당한다. (21)에서는 간접목적어의 순서가 주의할 만하며 (23)(24)(27)은 동사 술어와 보어의 순서에 주의할 만하다. 그러나 이들 어순의 변화는 “처치”의 개념상, 처치문이 요구하는 구조로 변화되는 것이라기보다 간접목적어, 보어 자체의 변화 발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6)의 경우 把의 목적어로 나타나있는 那人頭上이 비록 방위사와 결합되어 처소사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동작의 발생 배경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동작의 목표 지점 즉,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舊本老乞大》에서 이 문장은 投那人頭上打了一下(老乞大 8a-8b)로 동작의 목표 지점으로 설명되다가 《翻譯老乞大》에서 把로 표기가 되고 그 언해본에서는 “머리 우회다가 한 번 터”로 번역되며 이후의 판본 언해본에서 “머리를 한 번 쳐”로 번역되는 것으로 보아 동작의 수사자(受事者)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동작의 수사자(受事者)로 인정할 수 있다면 처치문의 기본적 구조를 이미 획득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

3.2 將이 把로 대체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문법화 과정이 비교적 기본적이고 사용빈도 수가 높은 단어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은 문법 발전사 전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처치문의 표지사로서 將 역시 위진 남북 조부터 당대에 이를 때까지 把에 비해 그 사용이 훨씬 보편적이었고 이로 인해 把 보다 먼저, 또한 더 빠른 속도로 문법화되지만 이후 원명 시기를 거치면서 거의 대부분이 把로 대체되고 일부 문언체의 문헌 속에서만 將의 흔적을 찾을 수 있게 된다. 《老乞大》의 처치문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28) 你將料撈出來 (老乞大 7b)
你把料撈出來 (老重 上 21b-22b)

(29) 將帖落提起來 (老乞大 10b)
把柳罐提起來 (老重 上 32a)

(30) 將草都拋撒了 (老乞大 7b)
把草都拋撒了 (老重 上 21b-22b)

(31) 將官人的馬牽控拿者, (老乞大 31b-32a)
就把馬拉去 (老重 下 43a-44a)

위의 예문들은 단순히 將이 把로 대체될 뿐 다른 구조상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데 이미 《舊本老乞大》에서부터 처치문이 요구하는 술어의 조건에 부합하고 있는 문형들이다. 즉, 동사 술어가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방향보어나 결과보어와 결합되어 把 목적어의 위치상 변화를 설명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문장의 경우에는 把가 표지사로 대체되고 문장 전체의 구조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 아래의 예문이 이에 해당한다.

- (32) 則將料水拌與他 (老乞大 7b)
就把料水拌草與他喫 (老重 上 21b)
- (33) 將這切了的草, 豆子上蓋覆了 (老乞大 6a)
把那薙的草, 放在豆子上盖好了鍋子 (老重 上 17b-18a)
- (34) 那賊便將那一箇弓手放箭射下馬來 (老乞大 8b-9a)
那賊就放一箭, 把一箇弓手射下馬來 (老新 1: 36a-37a)
那賊就放一箭, 把一箇弓手放箭射下馬來 (老重 上 26a-27a)

이 중 (33)의 인용문만 처소사가 다른 전치사의 도움 없이 술어 앞에 위치하는 것을 장소를 나타내는 결과보어 구문으로 바꾸어 처치문의 형식을 완성시키고 있으며 다른 예는 그 변화가 현대한어의 처치문 형태에서 더 멀어지고 있어 표지사의 변화로 유발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외 몇 가지 예와 더불어 표지사의 변화는 《老乞大》의 처치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이다.

이처럼 원명시기를 거치면서 把가 지배적으로 사용되는데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그 근거를 將과 把의 문법화 과정 속에서 찾고자 하기도 한다. 石毓智(2006)¹⁴⁾은 將과 把은 처치문의 표지사로서 공통점도 있지만 그 기본 의미에 근거하여 볼 때 분명한 차이점을 안고 출발한다고 전제한다. 즉 원래 동사로 출발한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보면 將은 “객체의 위치 이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把는 “객체를 붙잡거나 움켜쥐는 행위”를 설명하고 있고, 이후 처치문의 발전 과정 중에서도 그 핵심 의미는 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핵심 의미는 처치문의 전신(前身)으로 여겨지는 연동문 구조 속에서 把보다 將의 활용도를 더 높게 해주었고 이로 《舊本老乞大》에서 보았듯 將은 초기 처치문 형태에서 더 자주 출현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과정을 통해 將이 가지게 된 불분명한 문법적 의미 기능은 처치문의 기의(歧義) 현상을 유발한다는 것

14) 石毓智, 《语法化的动因与机制》(北京大学出版社, 2006.7).

이다. 이런 현상은 《老乞大》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35) 那賊將那人的纏帶解下來看呵 (老乞大 8a-8b)
那賊把那人的搭包解下來看 (老重 上 24b-26a)

(36) 你將這一張黃樺弓上絃者 (老乞大 28a)
一張黃樺皮弓上了弦 (老重 下 29a)

(37) 那厮每將著鈔破使了 (老乞大 34a-35a)
那些幫閑的, 把銀子花使了 (老重 下 50a-52a)

이 세 문장의 공통점은 《舊本老乞大》에서의 將이 동사로 해석될 수도 있고 수사자(受事者)의 표지사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 문장에 대한 《翻譯老乞大》의 언해본 번역이 “전대 가져다가” “이 누른 붓 니핀 활 한 당 가져다가” “가져서 간대로 쓰고”라는 사실을 참고한다면, 또한 더불어 세 번째 문장의 경우 將이 着와 결합되어 있음을 보면 여기서 將은 동사로 쓰여 일종의 연동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처치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그것은 將의 목적어가 의미상 후행하는 동사의 목적어로 이해될 수 있어 처치문의 일반적 구조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重刊老乞大諺解》에 이르러서는 이 將이 拿, 取, 帶등의 다른 동사로 대체되지 않고, 처치문의 표지사 把로 대체되며 “전대를(다가) 글러보니” “누른 붓 낚힌 활을다가” “은을다가 허피 쓰고” 라고 번역되고 있다. 將에 대한 이와 같은 두 가지 해석은 해당 문장이 요구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의미 기능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한 把에 비해 처치문의 표지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將의 이러한 한계점은 把의 장점에 밀려 결국 보편성을 상실하게 된다.

동사, 동작 완성의 표지사, 처치문의 표지사 외 부사로서도 쓰이기도 하는 將은 그 다양한 의미 기능으로 텍스트 전체에서 높은 출현 빈도수를 보이지만 결국 그 다양한 의미 기능이 오히려 일종의 “기의(歧義)

현상”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將과 把와의 공존시기 동안 그 경쟁력 약화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3.3 문장 내 다른 성분이 把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

《舊本老乞大》에서는 일반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던 문장이 이후의 판본으로 넘어가면서 문장 속의 일부 성분을 把의 목적어로 만들어 문장 전체를 처치문으로 바꾸는 예들이 있다. 이 예문들을 분석하면 다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a. NP(受事者)+ VP → 把+ NP(受事者)+ VP

문장 내에서 동사 앞에 위치하고 있는 NP가 후행하는 동작 동사의 수사자(受事者)인데 이 명사성 성분이 《老乞大新釋諺解》, 《重刊老乞大諺解》를 거치면서 모두 把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이다. 《舊本老乞大》의 원래 문장 속에서 이 NP들의 문장 성분을 살펴보면 단순히 동사 앞에 위치한다기보다 V + O라는 한어의 일반적 어순을 벗어나 “강조성”을 띠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 NP는 문장 내에서 주어로서 동사 앞에 위치하기도 하고

(38) 你燒的鍋滾時 (老乞大 6a)
你把燒的鍋燒滾了 (老重 上 17b-18a)

문두에서 주제화된 주어로서 동사 앞에 위치하기도 하며

(39) 這馬都卸下行李 (老乞大 11b)
把這馬上行李卸下 (老重 上 35b-36a)

또한 의미상 분명 목적어지만 동사 앞으로 도치되어 그 의미가 강조되던 명사성 성분도 있다.

- (40) 生葱, 料物拌了 (老乞大 6b)
把生葱作料着上 (老重 上 19b)
- (41) 但是咱每行李收拾到者 (老乞大16b)
須把咱們的行李明白查看 (老重 上 53b-54a)
- (42) 瘦馬鞍子摘了 (老乞大 31b-32a)
把鞍子摘了 (老重 下 43a-44a)
- (43) 布帳子疾忙打起者 (老乞大 31b-32a)
把帳房忙打起來 (老重 下 43a)
- (44) 二三十兩酒肉, 喫了時 (老乞大 34a-35a)
不受銀子多少, 把酒肉喫飽了 (老重 下 50a-52a)

이 NP들은 비록 동사 앞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동사의 수사자(受事者)이기 때문에 처치문의 표지사 把로 이끌어질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술어 또한 처치문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처치의 개념을 나타내어 줄 수 있는 성분 - 결과보어·방향보어·간접목적어 등을 새롭게 첨가하기도 한다.

여기서 NP들이 把의 목적어로 이끌어 질 수 있는 것이 문장 내의 그 위치에 상관없이 단순히 동작의 수사자(受事者)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처치문이 가지는 문법의의와 연관시켜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일부 견해에서는 처치문에서 문장 전체의 초점은 把의 목적어에 있다고도 한다.¹⁵⁾ 이에 따르면 현대한어의 처치문이 가지는 기본적인 문법의의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하나는 “처치(處置)”의 개념으로, 또 하나는 “화제(話題)-설명(說明)”의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把의 목적어에 어떤 처치의 개념이 작용하는 문장도 처치문으로 표현될

15) 胡文泽, 〈也谈“把”字句的语法意义〉, 《语言研究》2(2005)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수 있으며, 또한 把의 목적어가 문장 전체의 화제가 되고 이하 동사 술어는 그에 대한 진술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예문들 또한 이와 같은 “화제(話題)-설명(說明)”의 구조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인 SVO 어순에서 목적어가 술어 앞에 위치하는 경우는 고대·근대 한어에서 술어가 부정부사와 결합된다거나, 의문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인다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것이 화제화되어 문두 혹은 술어 앞으로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어나게 된다. 위의 예문들은 통사적 요구에서 비롯되어 술어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화제화(話題化) 작용으로 술어 앞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문장을 앞뒤 문장과 연결하여 그 언어환경을 살펴보면, 여러 개의 동작이 병렬되어 전체의 동작과 그 대상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 청자에게 모종의 행위를 지시하거나 가르칠 때 사용된 문장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술어 앞에 위치하고 있는 이들 NP가 문장 내에서 일종의 초점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처치문의 “화제(話題)-설명(說明)”기능을 나타내는 문법 의의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표지사의 변화, 그로 인한 구조의 변화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이외 특이한 경우로 동사 앞의 처소사가 동작의 대상이 아니라¹⁶⁾ 동작의 출발점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把의 목적어가 되는 예가 있는데 초치 처치문 중에서는 把 + NP(처소사) + VP의 구조도 더러 찾아볼 수 있어 이 문장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처치의 개념 없이 단순하게 변형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45) 俺糶來的米裏頭, 那與恁三升 (老乞大 15b)

我就把糶來的米裏頭, 給你三升 (老重 上 49b)

b. $V_1 + NP_1 + V_2 (+NP_2) \rightarrow 把 + NP_1 + V_2 (+NP_2)$

16) 현대한어의 경우 처소사가 동작 발생의 배경이 아니라 동작의 대상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처치문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妈妈一起床就把房间打扫得干干净净.

두 개의 동사 술어를 가지고 연동문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던 문장에서 V₁의 목적어가 把의 목적어로 전환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구조 변화도 NP₁가 把와 더불어 어떤 의미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다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도구를 나타내는 경우

- (46) 箸筋子攪動 (老乞大 6b)
把筷子攪動 (老重 上 19b)

- (47) 且著布衫襟兒抱些草去 (老乞大 9b)
且把衣襟抱些草去 (老重 上 29b)

《舊本老乞大》에서는 동사 箸의 수사(受事) 목적어로 쓰이던 것이 이후의 판본에서 把의 목적어로 대체되어 처치문의 형식을 가지게 된다. 이 문장들이 비록 처치문의 형식을 갖추어 술어 뒤에 목적어를 가지거나 결과보어와 결합되기는 하지만 현대한어의 처치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把의 목적어가 동사 술어가 제시하는 동작 행위의 도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翻譯老乞大》의 번역을 참고하자면 “저로 두의저터” “뵈웃자락으로 딥 가져가라”로 역시 도구임을 알 수 있고 把로 대체된 이후에도 그 번역은 “저로다가 뒤저어” “웃자락에 저기 열물을 안아 가라”로 되어 있으니 여전히 도구로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把+ 도구성 NP”가 현대 한어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은 그것이 처치문의 개념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연동문의 제 1 동사의 목적어가 다른 구조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고 그대로 把의 목적어로 단순히 대체되고 문장 전체의 의미관계상 “도구”로 해석해버린다면 그 술어의 의미제약이 처치문의 개념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상을 낳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처치문의 동사술어는 把의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把의 목적어를 향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동작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를 나타낸다면 술어는 그 목적어에 대한 “처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술어의 방식만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 문장 전체의 攪動과 抱은 각각 筷子와 衣襟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용상 그 전에 제시된 다른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¹⁷⁾ 그런데 이들 문장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또한 도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처치문의 동사 술어는 후행하는 직접 목적어를 지닐 수 없는데 만일 후행하는 직접 목적어를 가진다면 把로 이끌어지는 의미상 목적어와 더불어 두 개의 직접 목적어를 가지는 셈이 되고 이는 하나의 술어가 하나 이상의 직접 목적어를 지니지 못하는 한어의 기본적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把의 목적어가 도구를 나타낸다면 술어 뒤에 다른 직접 목적어가 온다고 해도 두 개의 직접 목적어가 오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의 성립이 가능해진다. 위의 예들은 그러한 의미 구조 속에서 성립이 가능해진 것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형식은 성립이 되지만 그 개념은 처치문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동시에 지니게 된다. 다시 말해 把와 그 목적어가 도구를 나타낸다면 문장은 처치의 개념을 획득할 수가 없고 이는 처치문의 가장 큰 문법 의의와 부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把가 더 이상 도구를 나타내는 표지사로 역할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舊本老乞大》에서 연동문 구조로 제 1 동사가 도구 표지사로 사용되던 예문이 이후 판본에서 일괄적으로 把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개별 문장 구조와 단어 간의 의미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발전 과정 중의 단순한 혼용 현상인지는 다른 문헌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좀 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반적인 수사자(受事者)를 나타내는 경우

17) 이에 해당하는 다른 예로 아래의 예문도 있다.
不受銀子多少, 把酒肉喫飽了 (老重 下 50a-52a)

- (48) 到五更一發都與料喫 (老乞大7b)
到五更再把料都添與他喫 (老重 上 21b-22a)

- (49) 著箇銅盃, 頭上頂水 (老乞大10b)
放箇銅盃在頭上頂水 (老新 1 : 45a-46b)
把箇銅盃放在頭上頂水 (老重 上 32b-33a)

이에 해당하는 예문은 把로 동작 대상을 이끌어 내면서 전치사구 보어를 형성하고 문장 내 다른 부사어와의 어순을 조정하며 현대한어의 처치문과 같은 구조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48)은 목적어를 한정해주는 범위 부사가 그 뒤에 위치하게 되고 동사 술어는 與 전치사구 보어를 가지게 되고, (49)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다른 전치사의 도움 없이 문중에 위치하다가 이후 在 전치사구 보어로 장소를 나타내게 된다.¹⁸⁾

그 외 문장의 내용상 단어가 보충되면서 把로 표현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다.

- (50) 那客人就告了 (老乞大8b-9a)
那客人就把緣故告了 (老重 上 26a-27a)

- (51) 因此將那人家連累 (老乞大 14ab)
因此就連累他犯官司 (老重 上 45b-46b)

3. 맺음말

현대 한어의 특수 구문 중 하나인 처치문은 중고(中古) 한어시기의 동사 將과 把가 의미와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며 현재의 형식을 갖추게 된다. 처치문의 표지사인 이 將과 把는 그들의 본래 의미의 지켜 연동

18) 아래의 예문도 처소사의 문장 내 구조가 이와 같이 변화하는 예이다.
將這切的草, 豆子上蓋覆了 (老乞大 6a)
把那剝的草, 放在豆子上蓋好了鍋子 (老重 上 17b-18a)

문의 구조의 제 1 동사로 쓰이다가 기능의 분화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14세기의 구어체 한어를 기록하고 있는 《舊本老乞大》는 그 기능의 분화시기에 출간된 것으로 변화 양상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이후 각각의 기능들이 쇠퇴하고 발전하는 모습은 《舊本老乞大》을 원간(原刊)으로 하는 여러 판본들 속에서 그대로 살펴볼 수가 있다.

본고에서는 처치문의 탄생과 그 발전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14세기 말에 출간된 최초 판본 《舊本老乞大》과 그 수정 및 번역본인 16세기의 《翻譯老乞大》, 18세기의 《老乞大新釋諺解》와 《重刊老乞大諺解》의 처치문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표지사 將과 把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처치문의 판본 간 비교를 통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당시의 다른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과 일치하는데 표지사 將이 把로 거의 대부분 대체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일부 학자들은 將의 태생적인 한계를 들고 있다.

초기 판본에서 동사와 조사로 쓰이던 將은 동사로서의 의미 자체가 방향성이라는 동태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 把에 비해 허사화 과정을 더 빨리 시작하게 되고, 더 많은 기능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그 특징이 오히려 한계가 되어 단일하고 명확하게 발전되어가던 把에 비해 오용 및 기의(歧義)의 가능성을 더 많이 제공하게 되고 그에 대한 결과로 동사로서도, 조사로서도, 처치문의 표지사인 전치사로서도 제대로 자리 잡기 힘들어지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老乞大》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將의 쇠퇴 원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둘째, 일반적인 진술문의 구조를 가진 문장들이 처치식의 문장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18세기에 이르러 처치문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가자 일반적 진술문의 구조를 가지던 문장들도 처치식으로 바뀌어 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老乞大》에 보이는 그 유형을 살펴보면 그 목적어가 강조성을 띠고 있는 경우에 바뀌기도 하고 두 개의 술어 동사가 있는 연동문의 구조에서 형식으로 바뀌기도 한다. 이들 문장의 개별적 구조를 살펴보면 “처치(處置)”의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지 못했으나 그 구조를 운용해서 쓰고자 하던 당시의 언어적 상황을 엿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문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처럼 당시의 처치문이 가지던 특징과 발전과정은 《老乞大》와 그 이후의 판본에서 그대로 찾아볼 수 있었으며 몇몇 개별적인 특수한 구문들은 북방방언의 영향인지, 처치문의 여러 형식이 변화되어 가던 중의 오용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 박재연 較點, 《《老乞大》·《朴通事》原文·諺解 比較 資料》(鮮文大學校 中韓 翻譯文獻研究所, 2003).
- 김광조, 〈《老乞大》에 나타난 “將/把”字文의 文法化 研究〉, 《中語中文學》 30(2002.6).
- 이성란, 〈宋元明清時期“把/將字句”研究〉(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1998).
- 吳福祥, 〈再論處置式的來源〉, 《語言研究》3(2003).
- 梁伍鎮, 〈論元代漢語《老乞大》的語言特点〉, 《民族語文》6(2000).
- 王國柱, 〈“動+將+趨”式中“將”的性質〉, 《語文研究》3(2004).
- 郜林濤,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中的助詞“將”与“著”〉, 《太原師範學院學報 (社會科學版)》3(2005).
- 劉海燕, 〈簡述《水滸傳》中“將”的用法〉, 《宜春學院學報》3(2002).
- 王艷芳, 〈《元曲選》中動態助詞“將”的用法〉, 《語文學刊》3(2001).
- 胡文澤, 〈也談“把”字句的語法意義〉, 《語言研究》2(2005).
- 馬立春, 王瑩瑩, 〈“將”字句和“把”字句消長考因〉, 《河南機電高等專科學校學報》 2(2006).
- 蔣紹愚, 〈《元曲選》中的把字句——把字句再論〉, 《語言研究》1(1999).
- 王森, 〈《老乞大》《朴通事》的融合式“把”字句〉, 《古漢語研究》1(1995).
- 石毓智, 《語法化的動因与机制》(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6.7)

[中文摘要]

处置句是七、八世纪开始到现在不断演变的一种特殊句法形式，刊行各版本《老乞大》的十六到十八世纪正处于处置句句法演变的最高峰时期。早期《老乞大》里出现若干类型的处置句后，随着其后的各版本，反映刊行时代的语言，处置句的结构也呈现一定程度的变化，由此可以考究元代以后处置句的变化和发展过程。

本文为阐明各时期的处置句句法和发展情况，并提供处置句的共时、历时研究资料，加以分析各版本《老乞大》里的“将”字、“把”字式处置句的用法和其变化，获知《老乞大》各版本处置句句法特点如下：

第一，在《旧本老乞大》里比较广泛使用的“将”，以后的版本里以“把”代替，而“将”本身渐渐被淘汰。“将”以“把”代替而淘汰的原因来自它的动词意义。它的“持”或“带领”的动词词义反而让它持有几种语法意义的可能性，由“将”的几种语法意义引起处置句的误用和歧义现象，导致“将”的语法地位弱化的结果。

第二，《旧本老乞大》里的非处置义的句子也受到当时的语言环境，以处置句表达，句子中其他成分成做“把”的宾语的句式，强调原句的中心词语。这符合于现代汉语处置句的语法意义，就是中心词语的话题化。

这些现象与有关处置句的研究结果部分一致，可以证明处置句的发展过程。

키워드: 《老乞大》, 처치문, 把, 將, 관화

《翻譯老乞大》에 나타난 동보구조 고찰

金和英*

〈목 차〉

1. 서 론
2. 《번역노걸대》에 나타난 동보구조
 - 2.1 결과보어
 - 2.2 추향보어
 - 2.3 정도보어
 - 2.4 가능보어
3. 결 론

1. 서론

《노걸대》는 14세기에서 18세기까지 사용된 중국어의 학습서였다. 《박통사》와 더불어 원·명·청대에 사용된 중국어를 반영하고 있어, 그 시대의 언어적 특징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노걸대》 제간본의 중국어원문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노걸대》, 《번역노걸대》, 《노걸대언해》까지는 중국어 원문이 거의 일치한다. 이후에 수정되어 나온 《노걸대신석언해》, 《중간노걸대언해》에서부터 변화가 보이는데, 이전에 나온 판본들과 비교하면 중국어 원문이 많이 다르다. 본고에서는 《번역노걸대》에 나타나는 동보구조를 살펴, 근대 한어에서의 보어의 형식과 그 변화양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동의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2. 《번역노걸대》의 동보구조 고찰

2.1 결과보어

현대중국어의 결과보어는 술어동사 뒤에 동사나 형용사가 붙어서 동사+ 결과보어식이 이루어지게 된다. 결과보어는 동작 또는 변화에서 빚어진 결과를 나타낸다. 《번역노걸대》에 나타난 결과보어를 살펴보면 현대중국어와 별반 차이를 느끼기가 어렵다. 다만 현대중국어와 비교해 봤을 때, 상용되는 보어로 사용되는 단어가 술어동사 앞에 위치하여 부사어로 사용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我昨日冷酒多吃了」가 있다.

2.1.1 V+C (형용사성)

臨晚也，我濫賤賣與你(鬪老 下23a)
나중에 다드라 내 네손딤 디우 프라 주마

人叫喚大了，纔射的歪了(鬪老 下36b-37a)
사름이 짓글휴물 크게 흐느다 앓가 쓰물 기우로 흐야다

這肉都煮熟了(鬪老 下38b)
이 고기 ㄷ 슬마 닉거다

已前盤纏了的火帳，都算計明白(鬪老 下72ab)
이전에 뜨고 더근 것들 다 명빅이 헤져

劉月華(1987)는 형용사가 결과보어로 될 때는 종종 어떤 표준에 맞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주로 大, 小, 快, 慢 등의 형용사가 여기에 속한다. 위의 예문 중 첫 번째는 마땅히 도착해야 하는 시간에 맞지 않음을 나타내고, 두 번째 예문은 적당한 소리의 크기에 맞지 않음을

나타낸다.

2.1.2 V+C (동사성)

但是咱們的行李，收拾到著，主人家的東西，休錯拿了去 (鬮老 上 58b-59a)

물 잊 우리 짐들 흘 설어주믈 지그기 흥고 주인짓 거스란 그르 자바가디 말라

咱們休磨拖，趁涼快，馬又喫的飽時，趕動著 (鬮老 上60a)

우리 문그으디 말오 서늘흔 적 미쳐 물도 쏘 머건 디 비 브른 저기오라 녀져

這馬每都絃住者，教那兩箇起來 (鬮老 上58b)

이 물들 다 미야 두라 더 들흘 히야 닐에 흥라

到那卦鋪裏坐定，問先生，你與我看命 (鬮老 下70b-71a)

더 유명흥는 저재 가 안자서 셤싱드려 무로디 네 날 위흥야 물즈 보고려

我買的價錢，小絹一匹三錢，染做小紅裏絹 (鬮老 上13a)

내 사는 갑슨 흥근 김 흥 피렌 세돈 주고 사 쇼흥물 드려 앓김 삼고

결과보어로 사용된 「到」는 동작이 목적에 도달하거나 성취된 것을 나타내고, 「動」은 힘이 충분하여 움직일 수 있거나 또는 효과가 미침을 표시한다. 「住」는 동작을 통해서 사람 또는 사물의 위치가 고정됨을 나타내고, 「定」은 동작이나 행위가 그대로 쭉 변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2.2 추향보어

《번역노걸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보어가 바로 추향보어라고 말할 수 있다. 추향보어는 일반적으로 단순추향보어와 복합추향보어로

나누는데, 《번역노걸대》에서 나타나는 추향보어의 형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단순추향보어, V+ 將+來/去, 복합추향보어가 바로 그것이다. 이 중에서 V+ 將+來/去는 근대한어에서 볼 수 있는 추향보어 유형의 큰 특징이라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將」은 동사에서, 당대부터 문법화되기 시작하여 만당, 송대에 이르면 선행하는 V의 추향보어 표지 또는 완성표지의 기능을 담당하는 조사로 문법화 된다.¹⁾ 《번역노걸대》에서는 동사와 개사로 사용되는 「將」이 섞여있으므로, 문법화 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2.1 단순추향보어

단순추향보어로 사용되는 동사는 來, 去 이외에 上, 下, 進, 出, 過, 開, 起가 있다.

2.2.1.1 V+來, V+O+來

這車子, 折了車輦子, 輻條將來, 可惜了(鬮老 下35b-36a)
이 술위 술위 바휘 밧 돌이 히여디도다. 살들 가져오라

過賣, 先將一碗溫水來, 我洗面(鬮老 上61a)
음식 푸는 덧 사르마 몬져 혼 사발만 드스물 가져오라 내 뇨 시서지라

賣酒的, 拿二十箇錢的酒來(鬮老 上63a)
술 풀리여 슌므 닛 돈엣 술 가져오라

都安樂, 你那小女兒, 出疹子來(鬮老 下4b)
다 편안히더라. 네 그 저문씩리 되야기 내여 잇더니

這們便布袋裏取銀子來(鬮老 下14b)
이러면 비짚의 은 가져다가

1) 김광조, <《노걸대》에 나타난 將/把字文의 문법화 연구>, 《중어중문학》 30, 6쪽.

V+O+來형식에서 단순추향보어에 쓰인 술어동사를 살펴보면, 將, 拿, 取, 出로 축약된다. 이 중에서 將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다. 「가지다」는 뜻으로 동사를 사용할 때 將을 보편적으로 사용했음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다. 또한 《노걸대》에서 《노걸대언해》까지 동사로 「將」을 쓰던 것이 《노걸대신석언해》, 《중간노걸대언해》에서는 「拿」, 「取」, 「帶」로 바뀌어 사용되었다.

2.2.1.2 V+去, V+O+去

這們時, 我借去 (飜老 上19a)
이러면 내 빌라가마

我將料水去 (飜老 上33a)
내 쿡 술믄 물 가져가마

這們時, 明日就店裏尋你去 (飜老 下7a)
이러면 톨일 店에 너 츠자 가서

你那裏打聽去 (飜老 上70a)
네 아모디나 듣보라 가고려

這冷的你拿去, 爐裏熱著來 (飜老 上62a)
이 츠니란 네 가져가 화로에 데워 오라

你先打水去, 我兩箇牽馬去 (飜老 上34b)
네 문져 물 기르라 가라 우리 들히 톨 잇거 가마

吉慶店裏有我相識, 那裏問去 (飜老 上70b)
吉慶店에 내 사피느니 잇더니 더기 무르라 가마

V+O+去형식에서 단순추향보어 去앞에 사용된 술어동사는 V+O+來형식보다는 將의 사용빈도가 높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동사들

에 비해 높은 편이다. 슬어동사로는 將, 打廳, 拿, 打, 牽등이 있다.

V+來/去와 V+O+來/去는 현대중국어와 어순을 비교해보면 별 차이를 느끼기가 어렵다. 단지 V+來/去+O의 형식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주의할 점이다.

2.2.1.3 그 외 단순추향보어

1) 起

若背不過時, 教當直的學生背起, 打三下 (鬪老 上3b)
외오디 못흐야든 덕일 선비 흐야 어피고 세 번 티느니라

早修起了, 比在前, 高二尺闊三尺, 如法做的好 (鬪老 上26ab)
불셔 고터 잇느니 아리두곤 두 자히 높고 석 자히 어위오 밍다이 밍글기
물 도히 흐엿느니라

我先番北京來時, 你這店西約二十里來地, 有一坐橋塌了來, 如今修起了不曾 (鬪老 上26a)

내 문것 버너 北京의 너러올 제 네 이 덤 셋넉 겨티 거스 시십 릿 짜해 혼
곤 드리 물어디여 잇더니 이제 고터 잇는가 못흐얏는가

五月裏到高唐, 收起綿絹, 到直沽裏上船過海, 十月裏到王京, 投到年終, 貨物都賣了, 又買了這些馬弁毛施布來了。(鬪老 上15ab)
五月에 高唐의 가 소음과 깃들 거두워 直沽애 가 빅타 바다 건너 시위래
王京의 가 年終애 다드라 포물들다 풀오 쏘 이 물와 모시봐 사 오노라

2) 上

你燒的鍋滾時, 下上豆子 (鬪老 上19b-20a)
네 가마의 불디더 ㄱ장 글커든 콩 너허 두고

我恰纔這槽兒裏頭, 拔上兩洒子水也, 著馬喫 (鬪老 上35a)
내 앓가 이 구시 안해 두 드렛 물 기러 잇다 물들홀 머기라

有甚麼難處，刷了鍋著，燒的鍋熱時，著上半盞香油，將油熟了時，下上肉，著些鹽，著筋子攪動，炒的半熟時，調上些醬水生蔥料物拌了，鍋子上蓋覆了，休著出氣(飜老 上21b-22a)

므슴 어려운 고디 이시리오 가마 굽싯고 가마에 불디더 덥거든 반잔만 줌 기름 두워 기르미 닉거든 고기녀허 두의저티며 소곰 두고 저로 두의저터 붓가 반만 닉거든 장물와 과와 약들 빠 노하 짓고 가맛우홀 돕고 김 나게 말오

3) 下

罷罷，將就留下著，便使不得也罷(飜老 上65b)

(두워 두워 들워 두져 쓰디 몬햐도 므던타)

食後喫，每服三十丸，生薑湯送下(飜老 下41a)

食後에 머구디 미 혼 복에 설흔 환식 햐야 싱양 달힌 므레 느리우라

4) 過

到晚，師傅前撒簽背念書，背過的，師傅與免帖一箇(飜老 上3b)

(나죄 다듣거든 스승님 앞피셔 사슬 췌혀 글 외오기 햐야 외오니란 스승님이免帖 혼나홀 주시고 햐다가)

5) 出

這飯裏盛出一碗飯，與那箇火伴(飜老 上42a)

(이 밥에서 혼 사발만 다만 내어 더 버들 주져)

《번역노걸대》에서 「來」와 「去」가 방향보어로 사용된 비율과 비교하여 단순방향보어로 사용될 수 있는 방향동사들의 사용빈도가 많지 않은 점으로 보아, 다른 단순방향보어들은 여전히 동사로서 많이 사용되었다고 보여 진다.

2.2.2 V+將+來/去, V+將+O+來/去

你這幾箇火伴，從那裏合將來(鬪老 上17b)
너희 이 여러 번들히 어디브터서 모다 오노

該著八兩銀價錢，你要過的牙錢，通該著一錢二分，你卻迴將來(鬪老 下20a)
은 여덟 량 감시 들어든 네 바다 잇는 즘갑도 모도와 혼 돈 두 폰이로소
니 또 물리오라

肯時便賣，你不肯時趕將去罷(鬪老 下22b-23a)
즐기거든 곧 풀오 네 말어든 모라 가져가도 르던하다

我買時，不是買自穿的，一發買將去，要覓些利錢(鬪老 下59b-60a)
내 사도 사 내 니블 거시 아니라 흠의 사 가져가 리편 얻고져 호노라

那們時，你兩箇先去，我兩箇後頭慢慢的趕將頭口去(鬪老 上66b)
그러면 너희 둘히 먼저 가라 우리 둘흔 뒤헤 날회여 즘승 모라 가마

舊例買主管稅，賣主管牙錢，你各自算將牙稅錢來(鬪老 下17b-18a)
舊例에는 살 님재 글월 벗김 갑슬 마스말오 풀 님재 그름갑슬 마스마느니
네 각각 즘갑과 글윽갑들 헤라

V+將+추향보어, V+將+O+추향보어에서 추향보어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단순추향보어인 來와 去밖에 없다.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將」은 선행하는 V의 추향보어 표지 또는 완성표지의 기능을 담당하는 조사로 사용되어 「가지다」는 동사의 뜻은 내포가 되어 있지 않다. 《노걸대신석언해》나 《중간노걸대언해》에서는 이 「將」이 거의 모두 생략되거나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는 것은 「將」이 《노걸대언해》까지만 추향보어표지로 왕성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로는 사라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3 복합추향보어

1)上來

那火伴如今趕上來了不曾(鬪老 上1b)
그 버디 이제 미처 올가 못 올가

2)下來

捕盜官將著弓兵, 往前趕到約二十里地, 趕上那賊, 捉拿其間, 那賊便將一箇弓手, 放箭射下馬來, 那賊往西走馬去了。(鬪老 上29b-30a)
捕盜官이 弓兵 더블오 나사가 거의 시십리만 싸해 다드라 그 도즈글 미처가 자블 스시에 그 도즈기 즉재 한 弓手를 살 허 노하 쏘니 물게 느려디니 그 도즈기 셋녁으로 물들여 니거늘

3)下去

你買下飯去時, 這間壁肉案上買豬肉去, 是今日殺的好豬肉(鬪老 上20b)
너 차반 사라 가거든 이 보름 스싯 짓 도마 우회 도티 고기 사라 가라 이 오늘 주긴 도흔 도티 고기라

我自買下飯去(鬪老 上20b)
나는 차반 사라 가마

4)出來

火伴你將料撈出來, 冷水裏拔著, 等馬大控一會, 慢慢的喂著(鬪老 上24a)
버디 네 콩을 건더 내여 다가 춘 프레 거터 므리 혼 디위 ㅁ장 쉬어든 기 들워 날회여 머기라

你偏不理會的, 從年時天旱田禾不收, 飢荒的上頭, 生出歹人來(鬪老 上26b-27a)
네 독버리 모르느고나 전년브터 흥닐히 ㅁㅁ라 던회 거두디 못흥야 간난 흥 전츠로 아니완흥 사람이 낫느니라

那人們，卻是達達人家走出來的(鬪老 上50b)
(그 사름들히 쏘 다대 사름미 도망하야 나가니어늘)

5) 回來

那客人射的昏了，蘇醒迴來，恰好有捕盜的官來，那裏巡警，那客人就告了。(鬪老 上29b)
그 나그내 띄여 어즐하얏다가 썩야 나니 마치 捕盜官와서 거기와 슬피거
늘 그 나그내 즉제 고흐니

到半夜前後，卻著這裏的兩箇，替迴來(鬪老 上57a)
(밤썩만 다든거든 쏘 옛 들흘 하야 그라 도라오게 하야)

6) 回去

正要買迴去的貨物，尋思不定，恰好你來到(鬪老 下66a)
(정히 도라갈 황호 사려 하야 헤아림 일덩티 몬하얏더니 마치 네 울서)

7) 過來

這六箇馬，每一箇五升料一束草，通算過來，盤纏著二錢銀子 (鬪老 上
11b-12a)
이 여섯 마리 믹 혼나히 콩 닷 되 덩 혼 못곰 하야 통히 헤요니 은 두 돈
을 쓰고

他們高麗地面，守口子渡江處的官司，比咱們這裏一般嚴，驗了文引，仔細的盤問了，纔放過來(鬪老 上51ab)
저희 고려사 사해는 구즈옛 느랴 마는 구의 우리 예 혼가지로 엄정하
야 글월 보고 즈세히 묻져주고아 곳 노하 보내느니

那邊先射過來(鬪老 下36b)
(더너기 묻져 뿌라)

你來了, 你趕過馬來, 在一處著, 容易照管 (飜老 上58a)
(네 오난다 네 들들 모라다가 혼디 잇게 하라 수이 보습필 거시라)

8) 過去

要甚麼糶米, 我的飯熟了, 客人們喫了過去 (飜老 上40a)
(므스므려 ㅅ를 맞고려 혼노요 우리 바비 니거 잇느니 나그내네 먹고 디 나가라)

9) 起來

我教與你, 將酒子提起來, 離水面擺動倒, 撞入水去, 便喫水也 (飜老 上36b)
(내 너드려 마르쥬마 드레를 드려 물 우희 띄워 베타 구으리혀 므레 맞바 다 드리가면 즉재 물 먹느니라)

我夜來錯記了, 今日再想起來, 有三十里多地 (飜老 上59b-60a)
내 어제 그르 싱각흐듯더라 오늘 다시 싱각흐니 三十里 남즈기 잇는 짜히로다

10) 入來

那西頭有, 行李都搬入來著 (飜老 上68b-69a)
더 셋 녁 그테 잇느니라 짐들 다 옮겨 드려오고

11) 入去

行李且休搬入去, 等鋪了席薦時, 一發搬入去。(飜老 上69a)
지므란 안직 옮겨 드리디 말오 듯과 지즘 신라든 기들워 흙씨 옮겨 드리라

술어동사가 같은 복합추향보어는 하나만 기재하였다. 복합추향보어로 사용되는 복합추향동사는 上來, 上去, 下來, 下去, 進來, 進去, 出來,

出去, 回來, 回去, 過來, 過去, 開來, 起來, 入來, 入去 등이 있는데, 《변역노걸대》에서는 上去, 進來, 進去, 出去, 開來가 보어로 사용된 예는 없다.

2.3 정도보어

정도보어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사용되어, 술어인 동사나 형용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행위, 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을 말한다.

早修起了, 比在前, 高二尺闊三尺, 如法做的好 (鬪老 上26ab)

불서 고타 잇느니 아리두곤 두 자히 높고 석 자히 어위오 법다이 땡마로
물 도히 흐엿느니라

這裏有五虎先生, 最算的好 (鬪老 下70b)

여기 잇는 오호 선싱이 마장 추명 잘 흐느니

咱們休磨拖, 趁涼快, 馬又喫的飽時, 趕動著 (鬪老 上60a)

우리 문그스디 말오 서늘흔 적 미쳐 물도 쏘 머건 디 빅 브른 저기 모라
너져

連其餘的馬, 都染的壞了 (鬪老 下19a)

다른 말조차 다던섬흐야 히야디리로다

我有一箇火伴落後了來, 我沿路上慢慢的行著等候來, 因此上, 來的遲了
(鬪老 上1b)

내 흘 버디 떠디여 올식 내 길조차 날회여 너 기들워 오노라 흐니 이런 전
츄로 오미 더디요라

咱們一箇人, 牽著兩箇去, 絃的牢著 (鬪老 上38a)

우리 흐나히 들콰 잇거가 킨요물 구디 흐라

人叫喚大了, 纔射的歪了 (鬪老 下36b-37a)

사르미 짓글휴믈 크게 흐느다 앓가 쏘뵤 기우로 흐야다

위의 예문들은 전부 술어동사+得+형용사로 이루어져 있다. 黃曉雪(2004)은 일부 예문들은 형식표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바로 了와 著를 말하는데, 완성이나 실현을 나타내는 조사 了와 바램, 명령어기를 나타내는 著가 있으면 정도보어라는 것이다. 아래의 4가지 예문에 이런 형식표지가 나타난다.

- 喫得飽那不飽? (老乞大 12b)
- 喫得飽那不飽? (翻譯老 上42b)
- 머구미 브르녀 아니 브르녀
- 吃得飽不飽? (老新 1:54a)
- 喫得飽不飽? (重老 上39b)

정도보어의 의문형으로 정반의문문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후의 간본인 《노걸대신석언해》와 《중간노걸대언해》에서는 여기서 那가 빠져서 현대중국어와 어순이 동일해졌다. 동사는 喫에서 吃로, 다시 喫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대중국어에서는 喫은 사용되지 않고 吃이 사용되고 있다.

《번역노걸대》에 나오는 “的”은 동사 뒤에 붙어져 나올 때, “得”과 의미와 용법이 대부분 일치한다. 가능보어에서는 的과 得의 사용비율에서 得의 비율이 훨씬 많으나, 정도보어에서는 的의 사용비율이 높다.

2.4 가능보어

가능보어는 술어동사의 가능과 불가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긍정은 ~할 수 있다, 부정은 ~할 수 없다로 해석된다. 본고는 주로 형식을 기초로 가능보어를 나누어 보았다. 가능보어의 형식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V + 得(不) + C, V + 得(不) + 了, V + 得(不得)가 있는데, 《노걸대》제 간본에서는 이 세 가지 유형이 전부 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유형인 V + 得(不得)가 가장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그 뒤로 V + 得(不) + C가 차지하고, V + 得(不) + 了는 한 예만 있었다.

2.4.1 V + 得(不) + C

若背不過時，教當直的學生背起，打三下。(翻老 上3b)
외오디 못ㅎ야든 덕일 선비 ㅎ야 어피고 세 번 티느니라

這衙衙窄，牽著馬多時，過不去。(翻老 上34a)
이 고리 조브니 뭇 잇기 만ㅎ면 나가디 못ㅎ리라

將就喫的過。(翻老 上63a)
둘워 먹져.

첫 번째 예문과 두 번째 예문을 살펴보면 가능보어의 형식에는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 거의 모든 판본들에서 동일한 형식이 나타난다. 세 번째 예문을 살펴보면 형식은 가능보어이나 의미는 가능이 아니다. 이 문장만 떼어서 보면 「두면 바로 먹을 수 있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글로 두워 먹져(翻老 上63a), 두워라 먹자(老諺 上 57a), 두어라 먹자(重老 上57b)라고 해석이 되어 있으므로, 권유의 의미를 나타낸다.

2.4.2 V + 得(不) + 了

許多草幾時切得了!(翻老 上19a)
하나한 디플 어느제 사홀료

이 때, 了(liao)는 切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이 있음을 나타낸다. 「了」는 본디 「완료되다」라는 동사였지만 문법화 과정을 거쳐 조사로 바뀌었다. 그러나 현대중국어에서는 여전히 옛 모습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가능보어로 사용될 때이다. 《중간노걸대》에서는 了가 完으로 바뀌나, 똑같이 가능보어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의미변화는 없다.

2.4.3 V + 得(不得)

2.4.3.1 긍정형

這夏店我曾走了一兩遭，都忘了，那裏記得! (翻譯老 上60b)

이 하덤에 내 아리 혼두 번 둔년마룬 다 니즈니 어디 싱각햐야 이시리오

這銀只有八成銀，怎麼使的 (翻譯老 上63a)

이 은이 다른 바품 은이로소니 엇디 쓰료

若依著這般用心行時，不揀幾時，成得人了 (翻譯老 下43a)

이다이 용심햐야 둔니면 아모제라 업시 사름 도의리라

2.4.3.2 부정형

부정형은 또 다시 V+ 不得과 V+ 不得+ O의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상대적으로 V+ 不得의 비율이 V+ 不得+ O보다 높다.

1) V+ 不得

日頭卻又這早晚也，這裏到夏店，還有十里來地，到不得也 (翻譯老 上46ab)

히 햐마 이리 늦도고나 예서 夏店에 가매 당시론 十里사 짜히 이시니 가디 몬햐리로다

雖然這般時，房子委實窄，宿不得。(翻譯老 上49a)

비록 이러햐나 지비 진실로 조브니 자디 몬햐리라

這橋梁橋柱，比在前忒牢壯，這的捱十年也壞不得。(翻譯老 上38b-39a)

이 드릿보와 기동들히 아리치와 견조면 너므 굳다 이거시 십 년을 디나도 햐야디디 아니햐리로다

2) V+ 不得+ O

死的後頭, 不揀甚麼, 都做不得主張。(鬮老 下41b-42a)
주근 후에는 아모 것도 골히디 못흐야 다 쥬변 못홀 거시니

若教道他, 不立身成不得人, 也是他的命也。(鬮老 下42b)
흐다가 저를 가르쳐도 립신 못흐고 사름 도의디 못흐면 그도 제 명이어니
쓰나

依不得我時, 我不賣。(鬮老 下61a)
내 말 좃디 못홀 자기면 내 아니 프로리라

이 유형의 동사 뒤에는 빈어가 매우 드물다. 그러나 빈어가 온다면 빈어의 구조는 매우 간단하다고 유일화는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2)에서 예를 든 것과 같다.

2.4.3.3 의문형

省的那省不的? (老乞大 2b)
省的那省不的? (鬮老 上6a)
알리로소녀 아디 못흐리로소녀
你都能懂得了懂不得呢?(老新 1:7a)
你都能懂得懂不得(重老 上5b)

你這月儘頭到的北京麼到不得? (鬮老 上2a)
네 이 들 그믄의 北京의 갈가 가디 못홀가

정도보어와 달리 가능보어에서 的과 得의 사용비율은 得의 사용비율이 훨씬 높다. 현대중국어에서는 的은 사용하지 않고, 得만을 사용하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차후 연구해 볼 문제이다.

V + 得(不得)유형은 거의 대부분이 부정형식을 이루고 두 경우가 의문형식을 이루고 있다.

의문형으로는 “省的那省不的”와 你這月儘頭到的北京麼到不得?의 두

예만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정반의문문 형식으로 되어있다. 전자는 《노걸대》와 비교해 봤을 때, 후기 간본들에서는 어기사가 사라지고 현대중국어의 가능보어형식과 완전히 일치하게 된다. 현대중국어와 비교해 봤을 때, 가능보어의 의문형식과 차이가 나는 것은 긍정형과 부정형 사이에 어기사 那와 了가 삽입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후자는 긍정부정의 정반의문문 사이에 목적어가 삽입되어 있다. 이는 현대중국어의 어순과 확실히 다른 부분이다. 그러므로 《번역노걸대》에 나타나는 가능보어의 의문형 유형으로 V+得+V+不得과 V+得+O+V+不得 두 종류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번역노걸대》에 나타난 동보구조를 살펴보면, 추향보어에서 V+去의 형식이 후기간본에서는 去+V로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看去(보러가자)가 후기간본에서는 똑같은 형식이거나 去看 혹은 看으로 바뀌어 있다. 이것은 동사+추향보어에서 연동문형식이거나 추향보어를 제외한 술어동사만을 사용한 것으로 바뀐 것이다. 《번역노걸대》에서 많이 사용된 보어의 형식으로는 추향보어와 가능보어를 들 수 있다. 추향보어에는 현대중국어에는 볼 수 없는 V+將+단순추향보어來/去의 형식이 있는 점을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고, 가능보어에서는 세 가지 형식 중에서 V+得/不得이 가장 사용빈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 강식진, 《노걸대박통사연구》(대만: 학생서국, 1985).
- 유성은, 《노걸대 박통사 어법연구》(서울: 연세대학교, 2000).
- 허성도, <중간노걸대에 보이는 중국어어법에 대한 연구>, 《서울대》 25.
- 정광, 《원본노걸대》(서울: 김영사, 2000).
- 장소우, 《近代漢語研求概況》(북경: 북경대학교출판사, 1994).

- 劉月華, 《현대중국어문법》(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石毓智, 李訥, 《漢語語法化的歷程》(북경: 북경대학출판사, 2004).
김광조, 〈「노걸대」에 나타난 將/把字文의 문법화 연구〉, 《중어중문학》 30.
黃曉雪, 〈古本《老乞大》의 動補結構〉, 《黃岡師範學院學報》(2004.8).
姚慶保, 〈《老乞大》, 《朴通事》中的 動補結構〉, 《五邑大學學報》(2002).

〈Abstract〉

A study of the Verb-complement Structure in 《*FanYi Lao Qi Da*》

Kim Hwa-Young

Kinds of 《*Lao Qi Da*》 was the study book of Chinese used from the 14th century to the 18th century.

This is the important materials to be known as the linguistic features of those days in reflecting used Chinese in an age of the Won, Myung, and Cheong.

One of those, 《*FanYi Lao Qi Da*》, is the study book of Chinese which is translated Korean based on Chinese Character between the orthoepist and the popular pronunciations by Choi, Se-Jin in the Chosun Dynasty era.

The Verb-complement organizes Resultative Complements, Directional complements, Degree Adverb Complement, Potential Complements, Quantifier Complements showed 《*FanYi Lao Qi Da*》. However, this article was not explained about the complement of Quantifier Complements.

To be extremely careful in the Resultative Complements, the complement could be the adverb moving ahead of the verb and 「Jiang 將」 which was normalized to preposition in the modern Chinese was used to Directional complements or completion marks.

「V+de/bu de」 is used a lot among three types in the Potential Complements.

Key words : Resultative Complements, Directional complements, Degree Adverb Complement, Potential Complements

「在+NP」의 공간범주와 ‘在’의 기능분석

김정필*

〈목 차〉

1. 서언
2. 「X+NP」의 분포위치와 ‘X’의 허화
 - (1) 「V+X+NP」의 구조분석과 ‘술목화’ 추세
 - (2) 「V+X」의 어휘화와 ‘X’의 허화
3. 「在+NP」의 공간범위와 ‘在’의 기능범주
 - (1) 「在+NP」의 분포위치와 ‘NP’ 공간범위의 변화
 - (2) 「V+在+NP」의 공간범위와 ‘在’의 기능화
4. 결어

1. 서언

지금까지 「X+NP+V」와 「V+X+NP」의 어법분석에서는 대체로 술어(V) 앞에 위치한 ‘X+NP’는 상어로, 술어(V) 뒤에 위치한 ‘X+NP’를 보어(혹은 목적어)로 분석하였으며, ‘X’가 개사라는 점에서는 異見을 보이지는 않았다.¹⁾ 하지만, 최근의 연구경향은 술어 뒤에 위치하는 「V+X+NP」 구조에서 ‘X’를 개사에서 허화된 형태소로 앞의 동사와 결합하여 복합동사를 구성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V+X

*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강사

1) 「V+X+NP」에 대한 분석은 ‘술보관계’와 ‘술목관계’의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지만, ‘X’가 개사라는 것에는 최근까지 異見이 없었다.

+NP」의 의미관계를 ‘술보관계’가 아닌 ‘V+X’와 후행하는 ‘NP’의 관계를 ‘술목관계’로 분석하면서, ‘X’의 성질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주요 흐름은 우선, 분석의 초점이 개사 ‘X’를 중심으로 한 ‘X+NP’의 분석에서 「V+X(介)+NP」의 구조관계 전반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V+X(介)+NP」의 구조분석에서는 ‘X’의 기능을 개사에 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미 개사의 성질을 넘어 형태소로 허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V/X(介)+NP」(술보관계)의 분석에서 「V+X(介)/+NP」(술목관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의 요인을 이음절화라는 통시적 현상과 개사의 허화정도에 따른 구문구조의 불균형이라는 대전제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논의는 여전히 X가 개사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또한 개사의 허화라는 새로운 사실로부터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X가 몇몇의 성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사이며, 구문 내부에서 또 다른 ‘V’를 만나지 않으면 ‘V+NP’의 ‘동목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X가 가지는 개사 이전의 품사적 특징이 동사라는 점은 여전히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어에서 어순의 차이가 서로 다른 형식구조의 형성을 통해 의미와 기능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X+NP+V」와 「V+X+NP」에서 X(개사)의 의미지향(NP)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특이한 상황은 아니다. 또 술어의 뒤에 오든 앞에 오든 모두 개사라고 규정하면서도, ‘X’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의 의미지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개사의 또 다른 어법기능이 부가되어야 함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통해서 「X+NP+V」와 「V+X+NP」에서 ‘NP’가 가지는 공간범주의 내부에 모종의 변화가 감지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X’가 개사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V’와 ‘NP’사이에서 드러나는 의미정보와 어법정보를 통한 연구의 초점을 바꾸어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가장 공간성이 뛰어난 ‘在+NP’의 분

포적 대비를 통해 ‘在’가 표현하는 공간범위가 차이가 기능의 변화에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X+NP」의 분포위치와 ‘X’의 허화

(1) 「V+X+NP」의 구조분석과 ‘술목화’ 추세

일반적으로 개사구조라고 지칭되는 「X+NP」의 분포위치는 크게 문두(주어 앞: A형)와 문중(주어와 술어사이: B형), 문미(술어 뒤: C형)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앞의 두 위치에 대한 ‘X’의 성질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지만, 개사구조가 술어의 후미에 위치하는 「V+X+NP」에 대한 구문분석은 ‘술보구조’와 ‘술목구조’라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고 있었다.²⁾ 대체로 지금까지의 학교문법에서는 ‘X’가 개사로서 ‘介+NP’가 술어(V)의 보어가 되는 ‘술보관계’의 관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경향은 뒤의 ‘X(개사)’가 동사와 밀접한 의미관계를 형성하면서 ‘술보구조’에서 다시 ‘술목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³⁾

특히 이러한 주장의 중심에는 고대한어의 단음절 중심의 어휘가 현대한어로 오면서 이음절화되고 있다는 공인된 사실을 토대로, 「V+X+NP」에서 ‘X(介)’의 허화를 촉진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증과정이 성립하려면, 우선 ‘V’가 단

2) 보어로의 분석은 黄伯荣、廖序东의 《现代汉语》와 《中学教学语法体系提要》를 중심으로 주장되었으며, 목적어로의 분석은 胡裕树主编의 《现代汉语》와 文炼의 《处所、时间和方位》를 중심으로 주장되었다.

3) 陈昌来(2002)에서는 “「V+介+NP」구조는 ‘술보구조’에서 ‘술목구조’로 가는 변화의 과정에 존재한다”고 하면서, “변화과정 중에 명확한 경계를 그을 수는 없지만, 언어의 발전과 다수의 언어사실로 볼 때, ‘술목구조’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林华东、蒋艳(2005)에서도 “통시적 각도에서 「V+介+NP」구조에 대한 ‘술보관계’로서의 기능에 대한 주장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은 비록 두 관계가 여전히 경쟁관계 속에 발전하고 있지만, 한어의 발전 추세 중의 하나인 어휘의 이음절화를 통한 어휘화(복합동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음절동사라는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즉 단음절동사와 강한 접촉력을 지닌 단음절개사는 그 출현빈도가 많아짐으로써 점차 하나의 이음절단위의 합성어로 전환된다는 것이다.⁴⁾

林华东·蒋艳(2005)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술목구조’가 가지고 있는 구문구조의 ‘불균형 현상’과 개사의 허화정도에 따라 ‘X’의 의미지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 (1) 我在八里之外就闻〈到〉了香味了。
- (2) 两个小伙子张罗着把对联贴〈到大门的两侧〉。

예문(1)에서 ‘到’는 추향동사로 보어가 되어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到’는 의미지향은 술어동사에 있으며, 예문(2)의 ‘到’는 개사로서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뒤에 오는 NP에 의미지향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到’의 의미지향과 의미특징이 달라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왜 동일한 분포위치를 지니는 ‘到’가 하나는 추향동사이고, 또 하나는 개사라는 서로 다른 어법기능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연유를 제시하기는 힘들다. 사실 개사의 허화정도에 따른 구문상의 의미 기능범주의 불균형성⁵⁾은 한편으로는 구문구조상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V’와 ‘NP’의 의미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V+X+NP’의 술목관계로의 발전을 긍정하면서도 “일반적인 술목관계와는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며, 여전히 ‘술보관계’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⁶⁾

4) 陈昌来(2002)는 ‘고대한어의 개사는 더욱 쉽게 동사에 부착되어 복합사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吕文华(2001)에서는 ‘동개식복합사’라고 칭하였으며, 陈光磊(2001)에서도 ‘복합동사’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5) 개사의 허화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金昌吉(1995), 林华东·蒋艳(2005) 등 참조.
6) 비록 그들은 “점차 이러한 추세는 감소하고 있으며, ‘술목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사가 지니는 기능상의 이중성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개사 자체의 특성을 통해 이러한 변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바로 개사의 점착성에 따른 방향성의 변화이다. 즉 ‘V+X+NP’구조에서 ‘NP’와 ‘V’ 사이의 의미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개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인도기능의 개사는 자연스럽게 V의 뒤에 부착되는 보조기능으로 전환되어 V의 보충성분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착성을 검증해주는 방법으로 ‘X’와 ‘NP’사이에 또 다른 성분의 삽입 가능성을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 a. 爬到 / 山上 → 爬到了 / 山上 - 爬得到 / 山上
- b. 跳出 / 山门 → 跳出了 / 山门 - 跳不出 / 山门
- c. 来自 / 大城市 → 来自于 / 大城市

비록 위의 a, b, c에서 화살표 좌측과는 달리 우측에 동태조사, 가능보어의 형식 등이 추가 되었지만, ‘X’의 허화정도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또 특이한 점은 여전히 ‘X’를 보어가 아닌 개사로 보고 있으며, 개사가 허화를 통해 V와 복합동사를 구성하여 뒤의 NP와 ‘술목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⁷⁾

사실 문중(B형)과 술어 뒤(C형)에 존재하는 ‘在+NP’는 구문의 형성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있으며, 술어인 동사와 밀접한 의미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두 개의 구식은 상호 호환되어도 의미상의 변화가 없다고 설명된다.

- (3)a. 他一直住在这儿。 ↔ b. 他一直在这儿住。
- (4)a. 他一直在河里游泳。 ↔ b.*他一直游泳在河里。

하지만, 전환이후의 의미차이가 전혀 없다고 단정한다하더라도 예문(4)처럼 전환되지 못하는 구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傅雨贤 等(1997)은 ‘在+NP’가 술어 앞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이유를 동작이 도달

7) 하지만, 朱德熙(2002)에서는 ‘走向邮局’와 ‘谈到半夜’를 각각 ‘술보구조’가 장소목적어와 시간목적어를 대동한다고 설명함으로써, ‘X’가 보어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는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이며, 만약 B형과 C형이 모두 상태의 출현을 표시할 경우에는 두 구식의 호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일부분의 'V+X+NP'가 'X+NP+V'로 전환되더라도 의미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藏在家里→在家里藏着)고 설명하면서, 문맥 중에서 구조관계가 새로운 표현방식의 영향을 받아 동사와 개사 사이의 긴밀도가 약해질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비록 개사의 의미가 이미 허화되었지만, 여전히 의미지향이 뒤에 오는 NP에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혀 의미상의 차이가 없이 호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예문(3)에서처럼 호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在这儿'이 표현하는 공간범위는 다르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2) 「V+X」의 어휘화와 'X'의 허화

우선 개사의 허화와 관련된 주장을 살펴보면, 林华东·蒋艳(2005)에서도 'V+X+NP'의 'V'와 개사의 관계는 이음절화 추세의 영향으로 인한 역방향 현상을 통해 개사와 NP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동사와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독음과정에서 'V(X)/NP'의 휴지구조가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현상은 동보구조가 목적어를 대동하는 모습과 유사하여, 언어유추현상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

(5) (飞机)飞上了蓝天。 (飞机)飞向了蓝天。

(6) (火车)开进北京。 (火车)开往北京。

이들은 우선 'V+X+NP'의 술목구조로의 변화추세에 대한 설명에서 그 내부원인을 개사의 허화에서 찾고 있다. 그리하여 'V+X+NP'를 형성하는 과정을 1)개사가 NP 앞에 부가되어 개사구조를 형성하여, 2)다시 '개사구조'가 함께 V의 보어가 되고, 3)다시 개사가 V 뒤에 부착되면서 동보구조를 형성하고 4)다시 목적어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X+NP'가 결합해 개사구를 형성하여 동사와 통사관계를 형성한

이후에, 어떻게 개사가 다시 동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동사에 접사처럼 부착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완전한 설득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 a. 走向 / 新时代、奔向 / 前方、逃亡 / 乡下、来自 / 大城市
- b. 忠于 / 事业、站在 / 家门口、热心于 / 慈善事业、出生于 / 军人家庭

위의 예문에서 X가 지향하는 방향은 다르지만, ‘向新时代走’나 ‘从大城市来’ 등의 ‘X+NP+V’와 대비시켜 보면 여전히 공간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검증과정을 보면, ‘V+X+NP’구조가 가지는 강세의 특징에 그 관련성을 두고 있다. 본래 ‘V+X+NP’구조에서 강세가 ‘V’에 존재함으로써, 음절상의 휴지가 개사 뒤인 ‘X’와 ‘NP’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X’의 ‘V’와의 의미관계가 강화됨으로써 V와 NP의 어법적 연계가 긴밀화되어, 개사가 기능적 압박을 받음으로서 개사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거의 없어지게 된다(淡化).”고 설명하기도 하고, “회화체에 표현되는 독음의 약화는 음절의 탈락현상을 가져오기도 한다.”⁸⁾고 설명한다.

- (7) 抓在手里 搁在书架上 存在银行里
- (8) 贴到信奉上 踢到球门框上 躺在沙发上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이미 기능화 된 이후의 허화의 측면에서 관찰한 것이지, 왜 허화되었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으로는 여전히 부

8) 朱德熙(1984)에서는 ‘坐在椅子上’에서 회화체는 ‘坐·de/在椅子上’으로 개사는 이미 탈락의 상태에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金昌吉(1995)에서는 개사탈락의 조건을 “V후의 NP는 반드시 장소명사나 방위명사(방위구절)이어야 하며, NP가 너무 길면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개사 탈락 후에 동사와 체사의 슬목관계가 더욱 드러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너무 길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개사가 존재하더라도 이들 간의 의미관계는 여전히 ‘동목관계’이지 ‘동보관계’로 보기는 힘들다.

족하다. 특히, 현대한어에서 장소목적어를 직접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많지 않으며, 만약 동사가 장소목적어를 취할 때는 추향동사나 ‘在’나 ‘到’ 등의 특정성분을 부가적으로 취하게 된다. 이것은 위의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장소(공간)목적어를 취하는 ‘V’는 대부분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자동사이다.⁹⁾ 따라서 ‘X’가 개사로부터 허화된 것인지 아니면 단독의 보어로부터 직접 허화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V+X+NP’구조에서 ‘X’의 기능은 여전히 단독으로 보어가 된다고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허화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3. 「在+NP」의 공간범위와 ‘在’의 기능범주

(1) 「在+NP」의 분포위치와 ‘NP’의 공간범위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在+NP」의 분포위치가 표시하는 기능은 문두상어(A형), 주어와 술어사이의 상어(B형), 그리고 술어 후미의 보어(C형)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세 위치에 존재하는 공간의 범위는 A형의 의미범주는 전체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되며, B형은 동작의 발생 혹은 상태 출현의 장소이며, C형은 동작이 어떤 상태에 도달하여 그 상태가 드러난 장소로 구분된다. 이 세 가지 의미범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在+NP’의 분포위치가 보여주는 어순의 순차성에 따른 내부 공간의 범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NP’가 나타내는 공간의 크기는 A형에서 C형으로 가면서 ‘大→小’의 공간구조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이들이 들고 있는 개사허화와 복합동사의 형성은 오히려 동사의 비자립성에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은 대체로 이동의 의미를 지닌 开、通、迁、送、寄、运、派、飞、逃、走、奔、冲、流、漂、滚、转、倒、驶、划、指、射、杀、刺、投、引、推、偏 등의 단음절 동사에 한정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 (9) 在鼓楼前，他在灯下抢着个座儿。
- (10) 在学校，我在宿舍里接了一根地线在暖气片上。
- (11) 在乡下，我们在天蒙蒙亮的时候就要田里干活。

예문(9)-(11)의 A형의 상어가 표시하는 공간범위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공간범위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형은 그 공간범위에 제약을 가하는 다른 부사나 조동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으며, 수식이나 보충성분을 지니지 못하는 단독의 동사는 A형을 구성에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2)a. 他在家住。
- b. *在家里他住。
- c. 他住在家。
- (13)a. 他们在楼上开会。
- b. *在楼上他们开会。
- c. 在楼上他们正开着会呢。

A형의 공간은 사건의 형성에는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비교적 독립적인 배경으로 존재하지만, 후반부의 사건을 배경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후반부의 사건이 한정된 공간이어야만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문(12b) 성립하려면, ‘在家里他住过一阵儿’나 예문(13b)는 예문(13c)와 같이 후반부의 사건이 시간적 공간의 한정을 받음으로서 성립함을 알 수 있다.

- (14) 在鼓楼前，他在灯下抢着个座儿。
- (15) 黄土高原，一些人住在窑洞里。
- (16) 他在客房里把一个窃听器安放在沙发上。
- (17) 在学校，我在宿舍里接了一根地线在暖气片上。

일반적으로 전반부의 ‘在+NP’가 표시하는 공간범위는 후반부의 그

것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은 傅雨賢 等(1997)에서 공간범위의 ‘大小’에 맞지 않는 예외구문으로 설정된 것이다.

(18) 在一家姓方的家里, 主人全家大小, 连仆人, 都在邮局有个储金折子。

예문(18)를 예외구문으로 규정한 것은 여전히 ‘在○○家里’와 ‘在邮局’의 개념범위를 비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字句가 표현하는 의미범위만을 비교했을 뿐, ‘在一家姓方的家里’는 ‘方氏’ 성을 가진 사람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종복을 포함한 우체국에 예금통장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은 비록 ‘方氏’집안의 모든 사람이 드나들긴 하지만, 단순히 예금통장의 취급과 관련된 공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전히 ‘大→小’의 공간범주는 지켜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V+在+NP」의 공간범위와 「在」의 기능화

구문의 어순이 지니는 순차적 공간의 크기는 「在+NP+V」의 B형이 표시하는 ‘배경적 공간’과 「V+在+NP」의 C형이 표현하는 ‘초점의 공간’로 대비시켜 볼 수 있다. 인간이 어떤 대상이나 사태를 파악함에 있어, 그 일면에 주의의 초점을 맞추어 언어화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어휘를 통해 표현되더라도 그 공간이 가리키는 윤곽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어떤 동작에 초점을 두고 배경으로 작용하는 공간은 그 윤곽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추상적 공간으로 작용한다. 이에 비해, 초점적 공간은 단순히 동작이나 상태가 드러나는 지점으로, 화자의 시야에 일정한 대상에 대비될 수 있는 윤곽을 드러냄으로써 비교적 작은 공간으로 인지되는 것이다.

먼저 「在+NP+V」(이상 ‘B형’)에서 ‘在+NP’가 표시하는 장소는 술어(V)동작의 활동영역이 되는 배경으로, 윤곽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비교적 추상적 공간을 점유하게 된다. 朱德熙(1984)는 ‘在+NP’가

드러내는 공간을 사물의 위치와 사건발생의 장소로 구분하고, 이 때 구문이표현하는 공간개념과 지속의 상태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19) 他在黑板上写字呢。(위치공간)

(20) 他在河里游泳呢。(사건발생공간)

하지만, 예문(19)와 예문(20)을 위치공간과 사건발생의 공간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참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예문(19)(글자가 쓰여 있는 공간)이나 예문(20)(수영이 행해지는 공간) 모두 사건 발생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참여자 위주의 공간의 구현은 다음과 같은 구문을 서로 다르게 설명하게 된다.

(21) 在飞机上看书。

(22) 在飞机上看海。

예문(21)에서의 공간범위인 ‘在飞机上’은 ‘书’가 위치한 공간이 아닌 사건발생의 공간이라고 하면서, ‘他在飞机上看书’일 경우에는 ‘书’는 당연히 ‘在飞机上’에 있지만, 예문(22)의 ‘海’는 ‘在飞机上’에 위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아래의 다양한 구문에서 보듯이 모두 동작이나 상태가 출현하였음을 표시하고 있다.

(23) 姥姥在院子里晒被子。

(24) 他在小狗身上抓到一个虱子。

(25) 今晚我不在这儿住。

(27) 他只在心里哭。

(28) 衣服在墙上挂着。

(29) 那只大肚子肥猪，在黑影里静静地躺着。

예문(23)-(29)는 각기 타동사(23-24)과 자동사(25-26)의 동작이 일

어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태동사로 표현된 예문(28)와 (29)는 비록 지속을 표시하고 있지만, 모두 동사 뒤의 ‘着’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공간은 지속을 표시하지는 않는다. 비록 동작이 시작되어 지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들 공간이 표시하는 것은 술어가 표현하는 동작이 행해진 배경이나 상태가 출현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와 반대로, 「V+在+NP」에서 ‘在+NP’가 표시하고자 하는 공간은 동작발생 이후에 受事나 當事가 접촉하는 장소를 표시한다. 傅雨賢等(1997)에서 “동작이 동태적 동작행위를 표시할 때는 동작 참여자가 동작발생 이후에 도달한 장소이거나, 상태가 출현하거나 지속을 표시할 때는 상태가 발생하거나 지속하는 때의 장소”¹⁰⁾는 어떤 장소에 도달한 주체가 施事이든 當事이든 간에 동작이 완성되거나 상태가 출현하는 곳으로, 동작과 공간이 순간적으로 접촉하는 특정한 위치에 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0)a. 在椅子上坐着。
b. 坐在椅子上。

朱德熙(1984)에서는 예문(30b)의 구어적 특성인 ‘坐·de/椅子上’을 예를 들어 ‘坐在/椅子上’으로 분석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a형과 b형의 상호 전환이 가능한 것은 예문에서 표현되는 공간범위가 모두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를 표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V在’의 구조를 구성할 수 있는 동사는 대부분 단음절동사이며, 이러한 단음절 동사는 기타 보조성분의 도움 없이 「在+NP+V」로 전환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동사의 자립성에서 그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 (31)a. 孩子在床上躺着。 ↔ b. 孩子躺在床上。
(32)a. 孩子在床上咳嗽。 ↔ b. *孩子咳嗽在床上。

10) 傅雨賢 等(1997), 97쪽.

예문(31)의 ‘在床上’이 표시하는 공간범위는 ‘孩子’가 위치하는 장소를 표시하지만, 예문(32)에서 ‘在床上’이 표시하는 공간범위는 사건발생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b로의 호환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간의 중심을 참여자의 위치만을 중심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음의 예문에서 구문의 성립여부는 참여자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동사와 공간을 중심으로 파악해야만 한다.

- (33)a. 在食堂里吃饭。 b. *饭吃在食堂里。
 (34)a. 在北京上大学。 b. *大学上在北京。
 (35)a. 水桶掉在井里。 b. *井里掉着水桶。
 (36)a. 刀砍在石头上。 b. *石头上砍着刀。

西嶺光正(1998)은 ‘N+ 在NP1+ V+ 了+ V’의 구조를 가지면 NP1은 개사의 목적어가 되지만, ‘N+ 在NP2+ 把+ N+ V+ 了+ V’에서는 NP2가 개사의 목적어가 아닌 장소만을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N+ 在NP2+ 把+ N+ V+ 了+ V’구조가 把에 의해 새로운 목적어를 가져옴으로써, NP1이 ‘V’와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37) 他在我的肩上拍了拍。
 (38) 他把我的肩轻轻地拍了拍。
 (39) 他在旁边把我的肩膀拍了拍。

비록 이때의 ‘在’는 어떤 성분인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지만, ‘在 NP’가 술어에서 왼쪽으로 멀어진다는 것은 ‘在’와 술어의 의미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在NP’가 표시하는 공간범위는 더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록 앞에서 주장했던 다양한 요인들도 ‘X’의 기능변화에 나름대로의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오히려 분포위치를 통해 달라지는

‘NP’가 가지는 공간범위의 차이가 ‘X’의 기능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더 근원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어

사실 술목화와 복합동사로의 변화는 단순히 ‘X’의 허화만을 통해 바라볼 수는 없다. 오히려 ‘X’가 허화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은 ‘NP’의 공간범위의 변화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 (40) 他在沙发上坐着。↔ 他坐在沙发上。
- (41) 在水面上漂着。↔ 漂在水面上。
- (42) 在黑板上写字。↔ 字写在黑板上。
- (43) 在山顶上盖房子。↔ 房子盖在山顶上。

위에 주어진 예문에서 만약 화자가 좌측과 우측의 구문을 각기 발화했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의미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가 교학과정에서 모두 상어로 번역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까?

- (44) 他住在城里。
- (45) 他在城里住。

위의 두 예문이 표현하는 구문의미는 ‘住’가 지니는 정태적 특성으로 인해 그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인지언어학의 형식과 내용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면, 이들 분포위치의 차이가 보여주는 의미상의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설사 ‘住’와 같은 정태동사일지라도 장소를 표시하는 개사구가 동사 뒤에 있을 때는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어, 결과보어의 통사적 위치를 점유하게 된다. 특히 이들 장소가 가지는 공간구조의 비율이 후방으로 갈수록 점차 협소해지고 있다는 것은 ‘他在北京住’와 ‘他住在北京’에서 두 개의 동작 ‘住’가 미치는 ‘北京’의

공간범위가 ‘在’의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좀 더 나아가, 만약 화자의 시각을 이러한 구체적 물질공간을 추상적 공간 혹은 심리공간에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면, ‘我送给他一本书’와 ‘我给他送一本书’ 등의 동작이나 변화의 공간이 나타내는 구체적 관계를 추상적 혹은 심리적 관계로 변하는가에 대해서도 규명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비록 장소의 공간이 아닌 시간의 공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구조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만약 ‘在’와는 다른 개사구조인 ‘X(介)+NP’의 구조에서도 다만 그 크기를 물리적인 大小의 차이로 짚 수 없겠지만, ‘추상적 공간→구체적 공간’이나 ‘심리적 공간→물리적 공간’의 차이는 여전히 大小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參考文獻]

- 金昌吉, 《漢語介詞和介詞短語》(天津: 南開大學出版社, 1996).
傅雨賢 等, 《現代漢語介詞研究》(廣州: 中山大學出版社, 1997).
范繼淹, 〈論介詞短語“在+處所”〉, 《語言研究》1982:1.
——, 《范繼淹語言學論文集》(北京: 語文出版社, 1986).
徐通鏞, 〈結構的不平衡性和語言演變的原因〉, 《中國語文》1990:1.
林華東·蔣艷, 〈介詞虛化与“V+介+NP”的述賓化趨勢〉, 《漢語學習》2005:1.
齊滬揚 等, 《現代漢語虛詞研究綜述》(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02).
朱德熙, 《語法講義》(北京: 商務印書館, 1984).
陳光磊, 《漢語詞法論》(上海: 學林出版社, 2001).
임지룡 등, 《인지언어학키워드사전》(서울: 한국문화사, 2004).

[中文摘要]

汉语句法分析中,对‘V+X(介)+NP’结构的分析有两种方法;一种是述补关系,另一种是述宾关系。最近的分析倾向于述宾结构,(而且)在使用时把‘X(介词)’虚化为语素而与述语构成复合动词。这种‘X(介词)’的虚化现象通过双音节化和插入成分的方法来证明其虚化过程。

首先,笔者认为这样的研究焦点的变化与‘在+NP’在不同结构上所表现的空间范畴来有关系,并借此观察‘X(介词)’的功能演化的原因。这种不同句法结构上的‘在+NP’所表现的空间范围,可以说都遵守了从大到小的语序原则。这一原则基本上和汉语思维一致,即可以适用于处所空间,也可以适用于时间空间。其次,这种空间范畴的大小虽然没有词汇意义上的变化,但是可能产生语用意义的差异而造成功能上的变化。因此,在发生这种介词虚化的现象时,而主张从述补关系到述宾关系演化过程。学者们主张这种述宾化是在双音节化趋势和汉语介词后附趋势的作用下,受其他相关结构的影响而形成的。其实,其根本原因存在于‘NP’空间范围的缩小,而且在所表示的持续过程比较短。

总之,通过空间范畴的标准来考察‘X+NP’的空间范围的变化及‘X’虚化的原因。如果这一大小的意义范畴可以扩大到‘抽象空间和具体空间’或‘心理空间和物理空间’的对比关系的话,可能适用于所有的‘X(介)+NP’的结构关系。

키워드: 공간범주, 공간범위, 개사, 허화, 기능화, 술목관계

韓中 五色色彩語의 文化象徵意味 對照 分析***

金炫兌* · 孫東玉**

〈 목 차 〉

1. 序言
2. 五色色彩語의 範疇 設定
3. 五色色彩語의 文化象徵意味 對照
 - 3.1 푸르다--靑
 - 3.2 붉다--赤
 - 3.3 누르다--黃
 - 3.4 희다--白
 - 3.5 검다--黑
4. 結言

1. 序言

색채란 빛이 물체의 표면에 작용하여 반사 또는 흡수된 상태를 우리의 눈으로 느끼는 것이다. 색채는 어떤 물체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성질이 아니고, 그 물체의 표면에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빛의 성질이다.¹⁾ 이처럼 빛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이 色知覺 현상이고, 이를 언어로 기

* 경남대학교 중국학부 조교수

** 마산대학 관광통역학부 강사

*** 본 연구는 2006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 장려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1) 이양자, 《색채와 구성적 감각》(미진사, 1984), p.5.

호화한 것이 바로 색채어이다. 즉 색채어는 색채에 대한 심리적 작용의 결정체인 것이다.²⁾

색에 대한 느낌을 언어로 나타내는 것은 국가마다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서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색채에 대해서도 지역과 민족 그리고 시대에 따라, 그에 내포된 문화적 함의도 서로 다르다. 동일 문화권에 속하지만 한국과 중국도 서로 다른 사유습관과 행동방식으로 인하여, 양국 색채어의 의미는 공통성을 갖기도 하지만, 개별성을 띠기도 한다. 그리하여 색채어 어휘의 표면적 의미만을 고려하고 이에 내포된 내·외연적 문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심각한 의사소통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즉, 이로 말미암아 자국의 문화의식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민족의 문화에 적용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는 세계화로 뻗어가는 현대 사회의 정치·경제·외교 등 많은 분야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색에 대한 응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으며, 세계화로 인한 국제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더 높은 차원에서 색채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자국의 색채어 연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타 언어와의 대조³⁾ 연구도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의미론적 차원에서 양국 색채어의 문화적 특성을 고찰하고, 문화적 의미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밝히고, 이를 통하여 양국의 언어문화는 물론 사회문화와 정신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양국 간의 색채어를 통한 각 분야의 교류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2) 이경자, <색채어의 범주와 의미고>, 《월촌 구수영선생 화갑기념 논집》(형설 출판사, 1985), pp.443~458 참조.

3) 우리는 습관적으로 언어·문화·사회 등 분야를 막론하고 다른 것과의 비교를 시도할 때 ‘비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언어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계통의 언어는 ‘비교’라고 하지 않고 ‘대조’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2. 五色色彩語의 範疇 設定

음양오행사상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 문화권에서 우주 인식과 사상체계의 중심이 되어 온 원리이다. 음양오행설은 고대 중국의 철학 사유의 기본 출발점으로 색채 문화도 이러한 사상기초에서 형성되었다. 예로부터 한국을 포함한 동양에서는 색채에 대한 설명을 심리적인 반응이나 감정적 효과로 보지 않고,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소 혹은 생성소로 보아, 우주의 섭리인 오행의 道에 기인하여 풀이해 왔다. 이에 따라 靑·赤·黃·白·黑을 오행의 각 기운과 직결된 다섯 가지 기본 색이라 하여 五色 또는 五彩라 불렀다.⁴⁾

음양오행설에 의하면 먼저 아무런 형체가 없던 무극에서 음과 양의 두 기운이 생겨나 하늘과 땅이 되고, 다시 음양의 두 기운이 다섯 가지 원소를 생산했는데, 이것이 바로 木·火·土·金·水의 오행이다. 우선 동서남북과 중앙의 五方이 주된 골격을 이루고 있고, 五方과 직결된 季節·五色·五味·五常·五臟·五官·五音·五事 등이 상응하고 있다.

음양오행설은 비록 중국에서 태동하여 형성되었으나, 전 동양 문화권에서 그 영향을 받고 있다. 1870년대쯤 실용주의학과가 한국으로 전파되어 계몽과 실학의 자연과학적 세계관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서도 세계를 아는 기본 이념이 바로 고대 중국의 세계관인 음양오행우주관의 사상체계였다.⁵⁾ 그러므로 양국은 모두 음양오행설에 바탕을 둔 ‘五色’의 구조를 주된 골격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의 연구 범주는 바로 음양오행설에 나타난 오색색채어인 ‘푸르다-靑’, ‘붉다-赤’, ‘누르다-黃’, ‘희다-白’, ‘검다-黑’으로 정한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오색색채어의 예는 《中韓辭典(2003)》, 《韓中辭典(2002)》, 《新詞語大詞典(2003)》, 《現代漢語新詞語詞典(2005)》 및 참고문헌에서 밝힌 여러 문헌들

4) 구미래, 《한국인의 상징세계》(교보문고, 2004), pp.74~78 참조.

5) 鄭鳳然, 〈漢韓語言色彩詞的異同〉, 《畢節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18:3(2000), p.26 참조.

에서 발췌하였다.⁶⁾

3. 五色色彩語의 文化象徵意味 對照

상징이란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거나 또는 그렇게 나타낸 표지, 기호, 물건 따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비둘기’라는 구체적인 사물로 ‘평화’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나타내는 것 따위가 있다. 사용된 사물들은 그 사물의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깃발의 상징 색채, 신분계급의 구분, 방위의 표시, 지역의 구분, 기업의 상징 색 등이 이에 속한다.

본고에서는 양국의 상징의미가 서로 같거나 다른 것, 즉 동일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대조에 중점을 두며, 부수적으로 양국이 특정 색채에 대하여 어떠한 긍정적·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1 푸르다--靑

고대에는 청색을 正色으로 보았다. ‘靑出於藍而靑於藍’에서 알 수 있듯이 청색보다 약간 열으면 남색이 된다. 청색보다 짙으면 검정이 되고, 약간의 노랑이 섞이면 녹색이 된다. 그래서 중국 고대 사람들은 綠·藍·黑 삼색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청색으로 일컬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綠’과 ‘藍’ 二色을 ‘靑色’으로 일컬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양국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綠·藍·靑 삼색의 상징의미를 비교하고, ‘黑’색은 별도의 한 절에서 대조해보기로 한다.

3.1.1 한국어에서의 의미

6) 편쪽의 한계 및 양국 언어에 나타난 고유한 색채문화 상징의미의 대조 분석을 위해 한국어 색채어는 일부 한자어를 제외하고는 우리 고유어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선별하였다.

- 1) 생명, 젊음: 청춘, 청소년, 이팔청춘
- 2) 미숙함: 푸른 과일(보리)
- 3) 희망이나 비전: 청사진, 푸른 꿈
- 4) 안전: 푸른 신호등
- 5) 길조(吉兆): 청신호, 청조(파랑새)
- 6) (위풍이나 권세가) 높음, 대단함: 서늘이 퍼렇다, 시어머니가 시퍼렇게 살아 있다.
- 7) 기녀: 청상(靑裳)
- 8) 높은 지위(벼슬): 청운의 꿈·뜻
- 9) 자연 또는 농작물: 녹즙, 녹지대
- 10) 심한 정도: 새파랗게 젊다
- 11) 맑고 깨끗함: 푸른 물결·공기·하늘
- 12) 무답: 녹슬다⁷⁾

3.1.2 중국어에서의 의미

- 1) 생명, 젊음: 青春, 青年, 萬古長青, 萬古長春
- 2) 미숙함: 半靑半黃
- 3) 바람난 여자의 남편: 綠帽子, 綠頭巾⁸⁾, 綠色疑雲⁹⁾
- 4) 기녀: 靑樓, 靑樓楚館, 靑衣女子¹⁰⁾
- 5) 안전: 紅綠燈
- 6) 통과를 허락함: 開綠燈, 綠色通道¹¹⁾

7) 원래 금속이 산화하여 빛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녹색으로 산화한다고 해서 생긴 표현이다. 그런데 금속의 산화라는 물리적 현상에서 출발해 ‘어떤 상태나 기능 따위가 무너지다’라는 의미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이때 ‘녹색’이 산화된 금속의 특성을 반영하여 ‘무너지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8) 바람난 여자의 남편을 조롱하여 이르는 말. 옛날 천민 혹은 기생의 가족을 일반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녹색 두건을 쓰게 한 일이 있으며 명나라 때에는 기생집의 주인에게 碧綠巾을 쓰게 한 일이 있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다.

9) 남편이 아내가 바람난 것을 의심하는 것을 이르는 말

10) 명대에는 기녀에 대한 규정이 아주 엄격했다. 옷은 모두 일률적으로 ‘靑衣’만 입고, 아무런 표식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래서 기생집은 그냥 색을 빌려 ‘靑樓’라고 하였다.

http://www.jl.xinhuanet.com/newscenter/2004-09/16/content_2882704.htm
참조

- 7) 하위 관직: 靑衫¹²⁾, 綠衫¹³⁾, 脫白掛綠¹⁴⁾, 白發靑衫¹⁵⁾
- 8) 희망, 비전: 綠苗¹⁶⁾, 藍圖
- 9) 무공해: 綠色產品, 綠色食品
- 10) 농작물, 자연: 踏靑¹⁷⁾, 綠色工程¹⁸⁾, 綠化, 綠色長城¹⁹⁾, 綠色車間²⁰⁾, 綠色革命²¹⁾, 綠色警察²²⁾, 綠色銀行²³⁾, 綠文化
- 11) 높은 지위(벼슬): 平步靑雲, 平步靑霄, 平地靑雲, 直上靑雲, 靑雲直上, 致身靑雲²⁴⁾
- 12) 맑고 깨끗함, 청렴함: 靑天²⁵⁾, 靑天白日, 靑霄白日, 靑天靑霞

- 11) 어떤 사물을 통과시키는데 속도가 빠르고 장애가 없는 통로를 일컫는다.
- 12) 唐代 官制에서는 3품 이상은 관복을 검붉은 색(자주색)으로, 4품5품의 관복은 붉은색으로, 6품7품의 관복은 녹색으로, 8품9품의 관복은 청색으로 착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座中泣下誰最多, 江州司馬靑衫濕(白居易·琵琶行)”에서 보듯 당시 白居易가 江州에서 9품인 司馬란 관직을 두고 귀양살이할 때 입은 관복이 바로 9품을 나타내는 ‘靑衫’이다.
- 13) “分手各拋滄海畔, 折腰俱老綠衫中(白居易·憶微之)”에서 보듯 등허리가 구부러진 늙은 나이까지도 미천한 하위 관직에서 못 벗어난 失意의 한탄이다. 여기의 ‘綠衫’도 위의 ‘靑衫’과 같은 맥락의 뜻이다. 李載勝, 〈漢語顏色詞의 民俗文化象徵意義〉, 《人文論叢》18(慶南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2004), pp.215~224 참조.
- 14) 흰 옷을 벗고 푸른 옷을 입는다. 즉 벼슬길에 오르다.
- 15) 흰머리에 푸른 옷. 즉 만년 관직을 얻다. 또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천한 관직에 있다.
- 16) 희망을 걸고 있는 어리거나 젊은 후계자.
- 17) 봄날 清明節을 전후하여 교외로 나가 산보하며 즐기는 것. 이 때 ‘靑’은 ‘靑草’를 가리킨다.
- 18) 바람과 모래를 막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 숲을 가꾸는 사업.
- 19) 중국 북방의 新疆에서 黑龍江省에 이르는 건조 지대와 경작 지대 사이에 조성된, 防風 및 防砂를 위한 防護林帶를 가리킴 = 綠色萬里長城
- 20) 녹색 직장. 일종의 생산 조직 형식으로, 농번기에는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농한기에는 공업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의 생산 단위를 가리킴.
- 21) 품종 개량 따위로 농작물의 수확을 크게 늘리는 일.
- 22) 삼림보호 담당 경찰.
- 23) 경제림. 목재 따위의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꾸는 삼림.
- 24) 단번에 높은 지위나 수준에 오르다. 출세하다.
- 25) 푸른 하늘. 청렴한 관리. 북송시대의 유명한 정치가 包拯(999~1062)은 강직한 성품으로 청렴결백하고 공평무사한 정치를 펼쳤다. 탐관오리와 악덕 토호세력을 척결한 것은 包拯의 일생 중 가장 돋보이고 가장 칭송을 받는

13) 높은 경지: 爐火純青²⁶⁾, 青雲獨步²⁷⁾

3.1.3 한중 '푸르다--靑'의 상징의미 대조

순번	의미항	한국어 표현	의미 비교	중국어 표현	통계
1	생명, 젊음	이팔청춘	=	萬古長靑	7
2	미숙함	푸른 과일	=	半靑半黃	
3	희망, 비전	청사진	=	藍圖	
4	자연, 농작물	녹	=	綠色工程	
5	기녀	청상(靑裳)	=	靑衣女子	
6	높은 지위	청운의 꿈	=	平步靑雲	
7	안전함	푸른 신호등	=	綠燈	
8	맑고 깨끗함	푸른하늘	<	靑天霹靂 包靑天	1
	청렴한 관리				
9	吉兆	청신호	x		9
10	(위풍이나 권세가) 높음, 대단함	서슬이 푸르다.	x		
11	심한 정도	새파랗게 젊다.	x		
12	무덤	녹슬다.	x		
13	높은 경지		x	爐火純靑	
14	통과를 허락함		x	開綠燈	
15	바람난		x	綠帽子	

부분이다. 백성들은 그의 청렴한 품격을 맑은 하늘과 같다 하여 '包靑天' 이라고 우러러 불렀다. 그 유래로 靑白吏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http://www.chinabang.co.kr/renwu/baoqingtian.htm>
<http://scec.ess.ucla.edu/~yfrong/article/fubai.html> 참조.

26) (학문, 기술, 일 처리 등이) 숙련되고 완벽한 경지에 이른다.

27) 지위나 학문이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여자의 남편				
16	하위 관직		x	白發青衫	
17	무공해		x	綠色食品	

〈표1〉 한중 푸르다-靑 상징의미 대조표1)

3.2 붉다--赤

3.2.1 한국어에서의 의미

색채의 상징의미는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2002년 붉은 악마를 통해 한국에서 빨강은 냉전시대가 낳은 금기의 색에서 맹렬히 불타오르는 열정과 감성의 색으로 탈바꿈했다. 다음은 붉은 색에 대한 상징의미와 표현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여인: 홍일점, 이왕이면 다홍치마
- 2) 심한 정도: 새빨간 거짓말, 벌건 대낮.
- 3) 위험·경고: 적신호, 빨간불, 적색경보
- 4) 선정성: 빨간집, 흥등가, 빨간책²⁸⁾, 빨간 딱지²⁹⁾
- 5) 공산주의자 친북세력: 빨간 딱지³⁰⁾, 빨간책³¹⁾, 빨갱이
- 6) 전과: 빨간 줄이 그어지다
- 7) 한국인의 힘과 화합: 붉은 악마³²⁾

28) 음란서적

29) 음란물에 붙이는 표지로서 미성년자 관람불가의 영화를 ‘빨간 딱지를 붙인다’라고 표현한다.

30)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경우에 ‘빨간 딱지를 붙인다’라고도 표현한다.

31) ‘마르크스 레닌주의 혹은 공산주의’에 관한 책이라는 뜻으로 일종의 금서라는 면에서 ‘위험, 경고’ 내지는 ‘금지’의 의미도 담고 있다.

32) 그 동안 한국사회는 가치 ‘레드 콤플렉스’라고 불릴 만큼 붉은색에 대해 경직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붉은 악마의 출현으로, 붉은색은 더 이상 이데올로기의 상징이 아니라, ‘정열과 희열’ 나아가 한국인의 힘과 화합을 상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3.2.2 중국어에서의 의미

붉은 색은 중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이며 國色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오성홍기부터 일상 문화까지 곳곳에서 붉은 색을 찾아볼 수 있다. ‘붉다’계열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赤, 朱, 丹, 紅’등 형태소들이 포함된다. 상징의 의미향과 어휘 표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경사나 길상의 기원: 紅被褥, 紅尿布, 紅肚兜兒, 紅雞蛋, 紅腰帶³³⁾, 紅包, 紅喜事, 紅白事, 紅裳紅襖, 紅蓋頭, 紅轎, 紅鞭炮, 紅綢, 紅花, 紅線, 紅對聯, 紅燭, 紅雙喜, 紅窗花兒³⁴⁾
- 2) 성공·인기: 朱門³⁵⁾, 走紅, 紅得發紫, 紅極一時, 紅人(兒), 紅角(兒), 紅星
- 3) 시기 질투: 眼紅, 眼目紅赤, 紅眼, 紅眼病(症)
- 4) 번창하고 활기가 넘침: 紅火, 開門紅, 滿堂紅
- 5) 이득: 分紅, 紅包, 紅利
- 6) 여자: 紅顏, 紅妝, 紅汗, 紅閨, 紅袖, 紅粉, 紅樓, 紅顏薄命, 紅裙, 女紅

-
- 33)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중국인들은 거의 붉은 색으로 경사를 표현하며 길상과 행복을 기원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붉은 칩구에, 붉은 기저귀를 채우고 붉은 배두렁이를 입혔다. 심지어 산모도 붉은색 껌질의 계란을 먹고 붉은 허리띠를 매었다.
 - 34) 중국인들은 장성하여 결혼 할 때면 붉은색을 애용하는 것이 그야말로 극에 달한다. 신혼부부의 의상과 장신구는 말할 나위도 없고 대문부터 신방까지 혼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붉은 색으로 도배 했다. 심지어 하객들의 축의금도 붉은 봉투에 넣어서 전한다. 그리하여 한쪽은 결혼을 일컬어 ‘紅喜事’라고 하였다. 신부는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머리 수건을 덮고 붉은 결혼 가마에 실려 오며 신부를 위해 붉은 폭죽을 터트린다. 신랑은 붉은 리본으로 단장하고 가슴에는 붉은 꽃을 달았으며 식이 진행되는 동안 신부와 신랑은 붉은색 끈으로 함께 연결된 두 개의 잔으로 인약을 다짐하는 술과 꿀을 마셨다. 대문에는 붉은 축하 對聯을 붙이고 신방에는 붉은글씨의 쌍 ‘囍’자를 붙이고 한 쌍으로 된 붉은 화촉도 빠지지 않는다. 파버비렌, 김진한 옮김, 《색채의 영향》(시공사, 1996) p.23 참조
 - 35) 봉건시대에 ‘붉다’는 특권층이 누리는 색이었다. ‘朱門酒肉臭, 路有凍死骨(杜甫·自京赴奉先詠懷五百字)’의 ‘朱門’은 붉은 색을 칠한 대문을 말하며富豪들을 일컫는 말이다. 駱峰, 《汉语色彩词的文化审视》(上海辞书出版社, 2003), p.30 참조.

- (gōng)³⁶, 紅杏出牆³⁷, 紅顏知己³⁸)
- 7) 충성: 赤忱, 赤誠, 赤膽, 赤膽忠心, 忠心赤膽, 赤心, 赤誠, 赤子³⁹, 海外赤子, 丹心, 丹忱, 丹誠, 丹款, 丹悃, 丹魄, 赤心報國, 赤心奉
 - 8) 혁명: 紅區, 紅旗, 紅專, 紅軍, 紅領章, 紅色政權, 紅心, 紅色根據地, 紅色資本家, 紅衛兵, 紅五類⁴⁰, 紅寶書⁴¹, 紅像章, 紅海洋⁴², 紅色專家, 紅色英雄, 紅色電波⁴³, 紅色歌曲, 紅色江山⁴⁴, 紅色宣傳員, 紅色旅游⁴⁵, 紅五月⁴⁶, 紅秀才
 - 9) 위험·경고: 紅燈, 紅牌,
 - 10) ‘아무것도 없음’ 또는 ‘완전히 드러남’: 赤背, 赤膊, 赤膊上陣, 赤膊食品⁴⁷, 赤地, 赤腳, 赤腳醫生⁴⁸, 赤露, 赤裸(裸), 赤身, 赤身露體, 赤手, 赤手成家, 赤手起家, 赤手空拳, 赤條精光, 赤條條,
 - 11) (운이) 좋음: 運氣紅, 走紅運
 - 12) 선정성: 紅燈區, 紅燈街

3.2.3 한중 ‘붉다-赤’의 상징의미 대조

-
- 36) (바느질·자수 등의) 여자의 일. 또는 여자들이 만들어 낸 물건.
 - 37) 부녀자가 외도를 하다.
 - 38) 남성들의 여성知己
 - 39) 갓난아기 또는 조국에 대해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
 - 40) 毛澤東을 지지한 학생 조직인 홍위병의 구성 멤버인 노동자·빈농이나 하층 중농(中農)·혁명 열사·혁명 간부 및 해방군 또는 그 자제.
 - 41) 문화대혁명 기간 중 毛澤東 어록이나 선집을 가리킨 말.
 - 42) 문화대혁명 초기 대문·벽 등에 적색 페인트로 빨갱게 칠을 하고 그 위에 毛澤東의 어록이나 표어를 쓴 것.
 - 43) 혁명적 소식을 전송하는 전파. 특히 문화 대혁명 시기에 모택동의 지시·주요 뉴스·社論 등을 일컬음.
 - 44) 문화 대혁명 시기에 무산계급 정권이나 사회주의 국가를 지칭
 - 45) 혁명의 성지나 기념지 등을 여행지로 만들어진 여행상품이나 그러한 여행.
 - 46) 붉은 5월. 5·1 노동절, 5·4 청년절, 5·7, 5·9 國恥기념일, 5·30 사건 등 중국 혁명사에 특기할 만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데서 나온 말.
 - 47) 비포장 식품
 - 48) 맨발의 의사. 중화 인민 공화국 농촌 인민 공사에 소속되어 농업에 종사하면서 의료·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초급 의료 기술자.

순번	의미항	한국어 표현	의미 비교	중국어 표현	통계
1	위험·경고	적색경보	=	紅燈	2
2	선정성	빨간집	=	紅燈區,紅燈街	
3	여인	홍일점	<	紅顏知己	2
4	공산당 공산주의	공산당 공산주의(사상) 빨갱이	>	共產黨, 共產 主義(思想)	
5	심한 정도	새빨간 거짓말	x		3
6	전과(前科)	빨간줄	x		
7	힘과 화합	붉은 악마	x		
8	경사나 길상의 기원		x	紅白事 紅雙喜	12
9	성공, 인기		x	走紅	
10	번창하고 활기가 넘침		x	紅火	
11	이익		x	分紅	
12	시기, 질투		x	紅眼病	
13	충성		x	赤膽忠心	
14	혁명		x	紅色政權	
15	'이무것도 완전히 드러남'		x	赤手成家	
16	(운이)좋다.		x	走紅運	

〈표2〉 한중 '붉다-赤'의 상징의미 대조표

3.3 누르다--黃

3.3.1 한국어에서의 의미

- 1) 알짜 또는 가장 중요한 부분: 노른자(위),

- 2) 가망이 없음: 짝수가 노랗다
- 3) 절망, 쇠약, 병적 상태 : 하늘이 노랗다, 세상이 노랗다, 떡잎에 황이 들다, 얼굴이 누렇게 뜨다
- 4) 적음, 인색함: 노랑돈, 노랑이,

3.3.2 중국어에서의 의미

- 1) 황제: 黃袍, 黃袍加身, 黃門, 黃屋, 黃鉞, 黃榜, 黃封
- 2) 吉瑞: 黃道黑道, 黃道吉日
- 3) 부귀, 소중함: 黃金日, 黃金周, 黃金月, 黃金時代
- 4) 퇴폐적·외설적, 음탕하고 선정적이고 저속한 것⁴⁹⁾: 黃色電影, 黃色故事, 黃色小說, 黃色歌曲, 黃色讀物, 黃色刊物, 黃色文學, 黃色新聞, 黃色錄像, 黃案, 黃潮, 黃販, 黃書, 黃害, 黃禍, 黃窩⁵⁰⁾, 黃源⁵¹⁾, 掃黃, 黃毒賭⁵²⁾
- 5) 일이 실패하거나 혹은 계획을 실현할 수 없는 것: 黃了, 這件事恐怕黃了: 이 일은 아마 틀려 버린 것 같다. 那筆買賣黃了: 그 장사는 실패했다. 因爲借不到這麼點兒錢, 這門親事就黃了: 그 정도의 돈을 빌리지 못해 이 혼사는 깨졌다.
- 6) 오랜 세월: 人老珠黃, 發黃的回憶, 發黃的記憶, 發黃的照片
- 7) 철부지, 어린이: 黃口小兒, 黃口孺子, 黃毛(兒)丫頭, 黃童白叟, 黃牙嘴

49) 중국의 역사를 보면 노란색은 부정적인 의미와는 거리가 멀 것만 같다. 하지만 19세기말 중국은 서양문물을 흡수하면서 黃色에 대한 서양적 문화의 미도 일부 수용 하였다. 그 중에 '저속하고 선정적'이란 의미의 연원이 바로 그것이다. 19세기말 뉴욕의 두 신문사 'Morning Journal'과 'World'는 신문 판촉 경쟁을 벌였다. 1896년 'Morning Journal'에서 특별기획으로 만화 칼럼 'Yellow Kid'를 출시했는데 재질이 거친 노란색 용지를 사용했다. 그래서 경쟁사로부터 '저속한 노란 신문'이란 조롱을 당했다. 그때부터 노란색은 '저속, 선정적' 등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황색에 관한 저속한 신조어들이 파생되기 시작했다. 张德鑫, 《中外语言文化漫议》(华语教学出版社, 1996), p.230;
<http://blog.naver.com/andk1221?Redirect=Log&logNo=140004678882>
참조.

50) 음란물을 제조 판매하는 곳[소굴].
51) 음란물의 출처[제조원]
52) 매춘, 마약, 도박

- 子,
 8) 병적 상태: 黃皮寡瘦, 面黃肌瘦, 臉黃肌瘦
 9) 황하: 黃學⁵³⁾, 黃汛, 黃龍, 黃泛區⁵⁴⁾, 治黃

3.3.3 한중 '누르다-黃'의 상징의미 대조

순번	의미항	한국어 표현	의미 비교	중국어 표현	통계	
1	병적 상태	얼굴이 노랗게 된다.	=	面黃肌瘦	1	
2	알짜 또는 가장 중요한 부분	노른자(위)	x		4	
3	가망 없음	씩수가 노랗다.	x			
4	절망, 쇠약	세상이 노랗다	x			
5	적음, 인색함	노랑돈, 노랑이	x			
6	황제		x	黃袍加身	12	
7	길서		x	黃道吉日		
8	부귀, 소중함		x	黃金時代		
9	오랜 세월		x	人老珠黃		
10	철부지, 어린이		x	黃童白叟		8
11	황하		x	黃汛, 治黃		
12	일이 실패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것		x	黃了		
13	퇴폐적, 선정적		x	黃書, 掃黃		

〈표3〉 한중 '누르다-黃'의 상징의미 대조표

3.4 희다-白

- 53) 황하학, 황하의 개발과 이용을 연구하는 학문
 54) 중일 전쟁 중 중국 정부군이 황하의 제방을 터서 범람한 지역.

3.4.1 한국어에서 의미

- 1) 상서로움, 신성함: 白虎, 白蛇⁵⁵⁾, 백설기⁵⁶⁾
- 2) 터무니 없음: 흰소리, 흰수작
- 4) 텅 비다, 없음: 백지수표, 백수, 백수건달, 백지화, 여백, 공백
- 5) 상복 : 흰옷
- 6) 결백, 깨끗함: 백옥무하, 백의민족, 청렴결백, 청백, 솔직담백
- 7) 대낮, 환하다: 백일몽, 백주대낮
- 8) 항복: 백기를 들다
- 9) 간호사: 백의의 천사
- 10) 신분 따위가 낮음: 백정, 백두, 백신, 백민
- 11) 옳음: 흑백을 가리다
- 12) 마약: 백색가루, 백색공포

3.4.2 중국어에서의 의미

- 1) 고결, 깨끗함: 白璧無瑕, 坦白, 清白
- 2) 상서로움, 신성함: 白鹿, 白雉, 白狼⁵⁷⁾

55) 흰색이 상서로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역대로 흰 동물이 나타나면 나라의 상서로운 징조라 생각하였다. 흰 사슴 백 마리가 살았다는 한라산 백록담의 설화나 흰 학에 비유된 선비의 의복 학창의(鶴氅衣)는 모두 흰 동물에 대한 숭상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특히 백호(白虎)·백사(白蛇)는 흰 동물의 대표로서 신성시된 영물이었다. 이는 마음이 흰색처럼 맑아져 탁한 욕망이 사라지는 까닭이다. ‘흰 동물은 상스럽다’는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공고해져 여러 동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박영수, 《색채의 상징, 색채의 심리》(살림출판사, 2005), pp.38~40 참조.

56) 한국인들은 백설기를 아기 축하음식으로 만든다. 백설기는 ‘흰무리’라고도 하는데, 하얗게 찌넨 떡으로 ‘신성하다’는 뜻의 상징이었다. 백설기는 삼신할미에게 바치는 신성한 음식의 상징이었으며, 백설기를 이웃에 돌린 이유도 신의 입김에 닿은 신성한 음식의 복을 골고루 나누기 위함이었다.

57) 중국 고대인들은 정치가 청명하면 하얀색 동물들이 나타나고 따라서 나라가 상서로울 것이라고 여겼다. 白鹿：王者明惠及下則見(《宋書符瑞志》), 白雉：王者德流四海則見(《春秋感精符》), 白狼：王者仁德明哲則見(《瑞應圖》), 魯寶元, 《漢語與中國文化》(華語教學出版社, 2000), p.183 참조.

- 3) 정확함, 명백함: 清白, 一清二白, 不白之冤, 真相大白, 白色人情, 白色收入.
- 4) 보람없이 헛됨: 白白, 白幹, 白跑, 白辛苦, 白費, 白活, 白死, 白扯, 白忙, 白搭, 白賠
- 5) 공짜: 白吃, 白拿, 白喝, 白看, 白給, 白落(lào), 白饒, 白食, 白送
- 6) 텅 비다: 一窮二白, 空白, 空白支票, 空白委任狀, 白卷(兒), 白飯, 白開水, 白沸湯, 白版, 白打, 白戰, 白地, 白田, 白話, 白皮貨, 白手, 白手起家, 白手成家, 白手興家, 白煮, 空拳白手
- 7) 반동: 白色政權, 白色據點, 白區⁵⁸⁾, 白軍, 白匪⁵⁹⁾, 白俄⁶⁰⁾, 白色恐怖⁶¹⁾, 白狗子
- 8) 장례: 紅白事, 白巾麻衣, 白紙須子⁶²⁾, 白堂, 白棚⁶³⁾, 白色消費⁶⁴⁾, 白孝⁶⁵⁾, 白鞋⁶⁶⁾
- 9) (신분 따위가) 낮음: 白屋, 白衣, 白丁, 白氏, 白衣人, 白身, 白徒, 白民, 白土, 白役
- 10) 간사하거나 불길한 사람: 白臉兒⁶⁷⁾, 唱白臉, 白臉狼, 白鼻子, 白虎星
- 11) 투항: 白旗,
- 12) 대낮, 환함: 東方發白, 白晝, 白日做夢, 白天
- 13)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白衣天使, 白衣戰士, 白大褂
- 14) 마약: 白粉, 白貨, 白面兒
- 15) 옳음: 黑白分明, 黑白顛倒

3.4.3 한중 '희다--白' 상징의미의 대조

-
- 58) 1927년~1937년 사이의 국민당 통치하의 지구.
 - 59) 1927년~1937년 사이의 국민당 군대
 - 60) 외국으로 망명한 반동분자
 - 61) 반동파가 혁명가들을 죽이고 압박하던 일
 - 62) 흰색 종이를 오려서 만든 술로, 대문에 걸어서 喪家임을 알린다.
 - 63) 장례 따위를 할 때 마당에 임시로 짓는 가설물.
 - 64) 장례식에 드는 물품과 비용.
 - 65) 흰 상복. 素服
 - 66) 喪中임을 나타내기 위해 흰 베 조각을 꿰매 붙인 신발.
 - 67) 고대 희곡에서 흰색 얼굴 분장은 '사악함'을 나타내었다. 때문에 모든 간악하고 요사하며 거짓되고 음흉하고 사악한 간신, 고집불통, 비열하고 웅졸한 도적 같은 무리는 일반적으로 얼굴을 흰색으로 분장하였다. 경극에서 秦代의 趙高, 三國時代의 曹操, 明代의 嚴嵩 등의 얼굴 분장은 모두 흰색이다.

순번	의미항	한국어 표현	의 미 비 교	중국어 표현	통계
1	상서로움	백호(白虎)	=	白雉	8
2	결백, 깨끗함	청렴결백	=	清白	
3	대낮, 환함	백일(白日)	=	白天	
4	항복	백기	=	白旗	
5	텅 비다, 없음.	배수건달	=	白手起家	
6	옳음	흑백을 가리킴	=	黑白分明	
7	신분 따위가 낮음	백정	=	白屋, 白丁	
8	마약	백색가루, 백색공포	=	白粉, 白貨	
9	상복	흰옷(소복)	<	白孝	2
	장례에 관계된 것			白事	
10	간호사	백의의 천사	<	白衣天使	2
	의료진			白大褂	
11	신성함	백설기	x		2
12	터무니 없음	흰소리	x		
13	정확함, 명백함		x	真相大白	7
14	보람없이 헛됨		x	白辛苦	
15	공짜		x	白吃	
16	反動		x	白色政權	
17	간사하거나 불길한 사람		x	唱白臉	

〈표4〉 한중 '회다-白' 상징의미 대조표

3.5 검다--黑

3.5.1 한국어에서의 의미

- 1) 음흉함, 악독함: 검은손, 뱃속이 검다, 흑심, 흑막, 검은 속셈
- 2) 아득함: 까만 옛날의 일, (부산까지는) 아직 가깝다
- 3) 깡그리,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다, 까맣게 모르다, 미술에 까끔하다
- 4) 무지함, 무지한 사람: 까막눈
- 5) 희망이 없음: 앞이 까끔(까끔)하다, 무식은 암흑이요 지식은 광명이다.
- 6) 잘못·시비·선악: 흑백을 가리다
- 7) 불법·부정: 흑색선전, 검은 돈
- 8) 검소함·엄숙하고 경건함: 영정사진에는 검정색 액자와 검정색 리본으로 장식한다. 조문객들도 남녀불문하고 검정 옷을 입는다.

3.5.2 중국어에서의 의미

- 1) 강직함·공평무사함: 黑臉⁶⁸⁾
- 2) 검소함·엄숙하고 경건함: 黑衣宰相⁶⁹⁾
- 3) 잘못·시비·선악: 黑白不分, 黑白分明, 黑白顛倒, 黑白混淆, 黑風,
- 4) 음흉함, 악독함: 黑心腸, 手黑, 黑心, 黑心眼, 黑點子
- 5) 수치, 불명예, 누명: 墨刑⁷⁰⁾, 抹黑, 黑鍋, 背黑鍋⁷¹⁾
- 6) 반동적·반혁명적: 黑線, 黑線人物, 黑線專政, 黑幫, 黑爪牙, 黑幹將⁷²⁾,

68) 검정은 냉철한 철색(鐵色)과 비슷했기에, 굳은 의지 그리고 인정에 구애되지 않는 공평무사함을 나타냈다. 고대 戲劇에서 검정색 얼굴 분장은 이런 상징성을 잘 반영하였다. 唐代的 尉遲恭, 宋代的 包公과 李逵 등 인물의 臉譜는 모두 검정으로 칠하여 ‘黑臉’이다.

69) 불교가 중국에 전해져 들어오면서 東晉시기에, 승려들은 袈裟 외에 붉은기가 약간나는 검은 승복인 ‘緇衣’를 입었으며, 그 후로 ‘緇衣’는 승려의 별칭이 되었다. 검정은 검소한 복색이다. 南朝·宋 시기에 孔凱는 慧琳을 ‘黑衣宰相’으로 불렀고, 齊初期에, 荊州 竹林寺의 僧慧과 玄暢은 ‘黑衣二傑’로 불렸다. 이리하여 검정은 검소하고 엄숙하고 경건한 상징의미를 나타냈다.

http://www.zjfg.org/newsinfo/live/dress/2006_7_20_1144718258.html 참조.

70) 중국의 고대 五刑(墨, 劓, 剕, 宮, 大辟)의 하나로, 墨刑은 범인의 이마나 얼굴에 문신을 새기고 나서 먹(검정)을 칠하여, 지워지지 않을 치욕의 표시로 남겨 주었다. 이런 연유로 검정의 수치불명예란 상징의미는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71) ‘黑鍋’는 ‘억울한 죄(누명)’, ‘背黑鍋’는 ‘누명을 쓰다’

- 黑筆杆, 黑秀才, 黑五類⁷³⁾, 黑八類⁷⁴⁾, 黑詩, 黑樣板
- 7) 불법·부정: 黑戶(口), 黑孩(子), 黑工, 黑會, 黑片, 黑田, 黑地], 黑車, 黑房子⁷⁵⁾, 黑貨, 黑錢, 黑點(兒), 黑哨, 黑旗⁷⁶⁾,
- 8) 비밀리·암암리: 黑材料, 黑稿, 黑信, 黑帖(兒), 黑活兒, 黑話, 黑市彙率, 黑價
- 9) 폭력 조직: 黑社會, 黑手黨, 黑漢, 黑老虎, 黑面兒, 黑道人物, 黑道, 掃黑
- 10) 아편·마약: 黑飯, 黑籍⁷⁷⁾, 黑買賣, 黑籍同胞, 黑界

3.5.3 한중 '검다--黑'의 상징의미 대조

순번	의미항	한국어 표현	의미 비교	중국어 표현	통계	
1	음흉함, 악독함	검은 속셈	=	黑心腸	4	
2	잘못, 시비, 선악	흑백은 카리다	=	黑白分明		
3	불법, 부정	흑색선진	=	黑車		
4	검소함, 인습하고 경건함	검정 리본	=	黑衣宰相		
5	아득함	까만 옛날	x		4	
6	깜그리,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다	x			10
7	무지함, 무지한 사람	까막눈	x			

72) 문혁 시기에 반혁명 수정주의 노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유력 인사를 지칭하는 말.

73) 지주·부농·반혁명 분자·악질분자·우파 분자 또는 그 자녀.

74) 문혁 시기의 지주·부농(富農)·반혁명 분자·불순분자·우파 분자·반역자·스파이·주자와 등 여덟 부류의 사람.

75) 감옥

76) 부정한 판정. 축구경기에서 심판의 편파적 판정을 말한다. (黑哨 - 돈으로 매수된 주심의 호루라기. 黑旗 - 돈으로 매수된 선심의 깃발)

77) 아편중독자

8	희망이 없음	안이 깜깜(깜깜) 하다	x			
9	가진함 공영무자함		x	黑臉(包公)	6	
10	수치, 불명예, 누명		x	抹黑, 黑 鋪		
11	반동적, 반혁명적		x	黑線專政		
12	비밀리, 암암리		x	黑材料		
13	폭력 조직		x	黑社會		
14	아편, 마약		x	黑飯		

〈표5〉 한중 '검다-黑'의 상징의미 대조표

4. 結言

지금까지 한중 오색채어의 상징의미 특징을 살펴보았다. 양국 색채어의 대조표에 나타난 의미항의 동일성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푸르다-靑'에 관한 의미항(17개) 중에, 한중 양국에서 공통으로 상징되는 의미항(7개)으로는 '생명, 젊음', '미숙함', '희망, 비전', '자연, 농작물', '기녀', '높은 지위', '안전함' 등이 있다. 기본 상징의미는 같으나 의미 범위가 차이가 있는 의미항(1개)은 '맑고 깨끗함'이다. 한중 양국이 서로 다른 상징의미(9개) 중에, 한국에서만 상징되는 의미(4개)로는 '길조(吉兆)', '(위풍이나 권세가)높음, 대단함', '정도가 심함', '무덤' 등이 있고, 중국에서만 상징되는 의미(5개)로는 '높은 경지', '통과를 허락함', '바람난 여자의 남편', '하위 관직', '무공해' 등이 있다.
2. '붉다-赤'에 관한 상징의미(16개) 가운데, 한중 양국에서 같은 상징의미를 가진 항목(2개)은 '위험, 경고', '선정성'이 있다. 기본 상징의미는 같으나 의미 범위가 차이 있는 의미항(2개)은 여인, '공산당, 공산주의자'이다. 한중 양국이 서로 다른 상징의미(12개) 중에, 한국에서만 상징되는 의미항(3개)은 '심한 정도', '전과(前科)', '힘과 화합' 등

이 있다. 중국에서만 상징되는 의미항(9개)은 ‘경사나 길상의 기원’ ‘성공, 인정 받음’, ‘변창하고 활기가 넘침’, ‘이익’, ‘시기, 질투’, ‘충성’, ‘혁명’, ‘비다, 없음’, ‘(운이) 좋음’ 등이다.

3. ‘누르다-黃’에 관한 상징의미(13개) 중에, 양국에서 공통으로 상징되는 의미항(1개)은 ‘병적 상태’ 밖에 없다. 한중 양국이 서로 다른 의미항(12개) 중에, 한국에서만 상징되는 의미항(4개)은 ‘알짜 또는 가장 중요한 부분’, ‘가망 없음’, ‘절망, 쇠약’, ‘적음, 인색함’ 등이 있다. 중국에서만 상징되는 의미항(8개)은 ‘황제’, ‘길서’, ‘부귀, 소중함’, ‘오랜 세월’, ‘철부지, 어린이’, ‘황하’, ‘일이 실패하거나 혹은 계획을 실현할 수 없는 것’, ‘퇴폐적, 선정적’ 등이 있다.
4. ‘희다-白’에 관한 의미항(17개) 중에, 한중 양국이 같거나 비슷하게 상징되는 의미항(8개)으로는 ‘상서로움’, ‘결백, 깨끗함’, ‘대 낮, 환함’, ‘항복’, ‘텅 비다, 없음’, ‘(신분 따위가) 낮음’, ‘옳음’, ‘마약’ 등이 있다. 기본 상징의미는 같으나 그 의미의 범위가 차이 있는 의미항(2개)으로는, ‘장례에 관한 것’과 ‘의료진’이 있다. 한중 양국의 상징의미가 서로 다른 의미항(8개) 중에서, 한국에서만 상징되는 의미(2개)로는 ‘신성함’, ‘터무니 없음’이고, 중국에서만 상징되는 의미(5개)로는 ‘정확함, 명백함’, ‘보람없이 헛됨’, ‘공짜’, ‘반동’, ‘간사하거나 불길한 사람’ 등이 있다.
5. ‘검다-黑’에 관한 의미항(14개) 중에, 양국이 같거나 비슷하게 상징되는 의미(4개)로는 ‘음흉함, 악독함’, ‘잘못, 시비, 선악’, ‘불법, 부정’, ‘검소함, 엄숙하고 경건함’ 등이 있다. 한중 양국이 서로 다른 항목(10) 중에서, 한국에서만 상징되는 의미(4개)로는 ‘아득함’, ‘깡그리, 완전히’, ‘무지함, 무지한 사람’, ‘희망이 없음’ 등이 있고, 중국에서만 상징되는 의미(6개)로는 ‘강직함, 공평무사함’, ‘수치, 불명예, 누명’, ‘반동적, 반혁명적’, ‘비밀리, 암암리’, ‘폭력 조직’, ‘아편, 마약’ 등이 있다.

이상 오색채어의 상징의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살펴보면 한국어 색채어는 중국어 색채어보다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선, ‘붉다-赤’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이는 붉은색은 역사적으로 줄곧 북한을 의미했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는 반세기 넘게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깊어진

이념적 갈등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것으로 남북간 정치적 상황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면 일시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는 2002년 월드컵을 전후로 음지의 붉은색이 '정열과 희열', '한국인의 힘과 화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상징의미의 급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도 그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다음은 '누르다-黃'에서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림픽의 깃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란색은 아시아의 대표색이다.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 아시아 국가에서는 노란색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아시아의 정서와 모순된다. 이런 현상을 진실로⁷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시도하였다. 하나는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떠올리는 노란색과 실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노란색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노란색은 개나리나 병아리 같은 밝고 선명한 노랑이 아닌 누렇게 퇴색한 색이다. 그러므로 일상 언어에는 밝고 선명한 긍정적인 노란색보다는 어둡고 탁한 부정적인 누런색이 더 많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이유는 색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태도를 들 수 있다. 이는 다른 색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인의 정신세계와 생활양식을 지배했던 유교적 사고방식은 인간적인 감각이나 감정을 억제하고 멀리하면서 인격과 형식·규범 등을 중요시한 사상이었기 때문에 색이란 곧 감정이나 감각을 뜻한다고 보았고, 이는 곧 욕신의 욕망이라고 생각하여 천하고 품위 없는 것으로 여겼다. 이처럼 한국인은 색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실제 언어생활에도 색이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노란색에도 '가망 없음', '절망, 쇠약', '적음, 인색함' 등 부정적인 표현이 많다는 것이다.

반대로 '희다-白'에서는 중국어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많았다. 중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흰색을 거의 쓰지 않는데, 특히 귀족들이나 황가들의 건물이나 의상들은 흰색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흰색을 기피하였

78) 진실로, 《색채어 번역 연구: 한국어·영어 간의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p.91-95.

다.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호화로운 색상의 이미지는 붉은 계통과 노란 색, 녹색 계통을 적절히 혼합한 것이 대부분인데 중국에서는 흰색을 허무하거나 충일감이 없는 색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 보아진다.

그 외에 ‘푸르다-靑’에서는 양국 다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했고, ‘검다-黑’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함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의미론적 측면에서 한중 오색채어의 여러 가지 예를 일일이 찾아 대조 연구를 시도하였다. 대조 시 누락된 의미항이나 예가 있을 것이다. 또한 편폭의 한계로 화용론적 차원에서 색채어의 실제 쓰임에 관한 연구까지 확대시키지 못하였다. 이는 필자 및 후학들의 향후 과제임을 밝혀두고 더욱 확대된 연구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康寔鎮, 南德鉉, 李相度, 郭樹競, 《韓中辭典》(進明出版社, 2002).
- 高大民族文化研究所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2003).
- 김복년, 《현대 중국어의 색채어 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구미래, 《한국인의 상징세계》(교보문고, 2004).
- 남영신, 《우리말 분류 사전》(한강문화사, 1992).
- 박영수, 《색채의 상징, 색채의 심리》(살림출판사, 2005).
- 비렌파버, 김진한 역, 《색채의 영향》(시공사, 1996).
- 이경자, 〈색채어의 범주와 의미고〉, 《월촌 구수영선생 화갑기념 논집》(형실출판사, 1985).
- 李載勝, 〈漢語顏色詞의民俗文化象徵意義〉, 《人文論叢》18(慶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2004).
- 이양자, 《색채와 구성적 감각》(미진사, 1984).
- 조환이, 《중국 색채어의 문화적 상징의미 연구》(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진실로, 《색채어 번역 연구: 한국어·영어 간의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문화 상징사전》(동아출판사, 1992).

- 허은영, 《중국어 색채어 연구-오색어의 문화 상징과 조어 구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常敬宇, 《漢語詞匯與文化》(北京大學出版社, 1993).
- 曹成龍, 《漢語顏色詞研究》(黑龍江大學 석사학위논문, 2002).
- 陳建民, 《中國語言和中國社會》(關東教育出版社, 1999).
- 陳啓英, 〈漢語色彩詞與漢民族物質文化〉, 《雲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5).
- 程娥, 《漢語紅、黃、藍三類顏色詞考釋》(武漢大學 석사학위논문, 2005).
- 符淮青, 《現代漢語詞彙》(北京大學出版社, 1985).
- 葛本儀, 《現代漢語詞彙學》(山東人民出版社, 2001).
- 金福年, 《現代漢語顏色詞運用研究》(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4).
- 魯寶元, 《漢語與中國文化》(華語教學出版社, 2000).
- 駱峰, 《漢語色彩詞的文化審視》(上海辭書出版社, 2003).
- 吳東平, 《色彩與中國人的生活》(團結出版社, 2000).
- 《現代漢語新詞語詞典》編委會編, 《現代漢語新詞語詞典》(商務印書館, 2005).
- 徐銀春, 《朝漢顏色詞對比研究》(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2005).
- 許餘龍, 《對比語言學概論》(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04).
- 楊德峰, 《漢語與文化交際》(北京大學出版社, 1999).
- 張德鑫, 《中外語言文化漫議》(華語教學出版社, 1996).
- 鄭鳳然, 〈漢韓語言色彩詞的異同〉, 《華師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18:3(2000).
- http://www.jl.xinhuanet.com/newscenter/2004-09/16/content_2882704.htm
- <http://www.chinabang.co.kr/renwu/baoqingtian.htm>
- <http://scec.ess.ucla.edu/~yfrong/article/fubai.html>
- <http://blog.naver.com/andk1221?Redirect=Log&logNo=140004678882>

[中文摘要]

因语言的不同, 不同国家对颜色的表达也存在着很大程度上的差异。对于相同的颜色词, 因其地区、民族、时代的不同, 它的文化内涵也不尽相同。韩国和中国虽处在同一文化圈内, 但由于思维习惯和行动方式上的差异, 两国的颜色词各自保存着独有的个性, 同时也存有共性。如果不能正确

地、深刻地理解他民族颜色词的文化内涵，那么小到颜色词，大到文化，势必导致交流和沟通上的障碍，造成无意间将本国的文化意识，生搬硬套在他国的颜色词乃至文化上，以致在政治、经济、外交等一系列方面造成不良的影响。以此，本论文将从语义学的角度，来考察两国颜色词的文化特征，进而阐明两国颜色词文化含义的异同，从而提高对两国的语言文化乃至社会文化与精神文化的理解度，为增进两国间在各领域的交流作出微薄的贡献。

關鍵詞：韩中对照，色彩语，阴阳五行，象征语义

“動詞+‘出’類趨向動詞”研究

盧英順*

〈目 次〉

1. 引言
2. “動詞+‘出’類趨向動詞”的句法特点
3. “動詞+‘出’類趨向動詞”的語義特点
4. 認知圖景和“V出”等的句法、語義特点
5. 結束語

1. 引言

“動詞+‘出’類趨向動詞”指的是動詞與趨向動詞“出”或者“出來、出去”組成的結構。這類結構一般稱之為動趨結構。像下列例(1)這類句子不在本文討論的範圍：

(1) 她未嘗不想出去找個小事，胡亂混一碗飯吃。(張愛玲：傾城之戀)

因為其中的“想出去”不是動趨結構，而是整個的動詞短語“出去找個小事”作“想”的賓語。

除劉月華(1998)、呂叔湘(2001)對相關問題有比較詳細的描寫之外，語法學界專題探討這個問題的不多。本文打算在已有研究成果的基礎上，吸收認知語言學的一些理論方法，對這類結構的句法、語義特點進行進

* 中國復旦大學 中文系 副教授

一步的探讨。

2. “动词+‘出’类趋向动词”的句法特点

“动词+‘出’类趋向动词”的句法特点主要体现在这种结构所构成的句式以及相关的动词、名词特点等方面。

2.1. 先看看“动词+出”(简称“V出”)的情况

从句式的角度来看,“V出”所构成的句式有以下几种:

第一种, NP+V出+NPL, 其中NPL是表示处所的词语, NP是非处所性词语, 例如:

- (2) 当他们走出那个小庄户院的时候, 他们远远地看见一幅蓝格子头巾正在河滩的青杨树林里闪动。(张承志: 北方的河)
- (3) 他踩着粉碎的白瓷片, 撞开拥塞的人群, 一直冲出了食堂。(张承志: 北方的河)
- (4) 他们走出房间。(张承志: 北方的河)

上述例子中,“小庄户院”、“食堂”和“房间”这几个NP都是典型的处所名词, 它们的所指都有一个明显的空间范围。有时表示处所的名词语并不那么典型, 如例(5)中的“怀抱”:

- (5) 我使劲挣出她油腻的怀抱。(张承志: 黑骏马)

第二种, NP1+V出+NP2, 其中的NP1和NP2都不是表示处所的名词性成分, 例如:

- (6) 一个老头取出一块案板, 从案板背的横木里抽出菜刀, 慢腾腾地切了些肉。(张承志: 黑骏马)

- (7) 我打开箱子，摸出一柄父亲送我的蒙古刀。（张承志：黑骏马）
(8) 我说不出心里的滋味儿，只觉得跑来的好像不是那个和我耳鬓厮磨地一块儿生活了六七年的沙娜了。（张承志：黑骏马）

例（6-8）中的NP1都是施事作主语，NP2是宾语，既可以是表示具体事物的名词，如“案板、蒙古刀”，也可以是抽象名词，如“滋味儿”。

第三种，NP+V出。例如：

- (9) 结婚启事在报上刊出了，徐先生徐太太赶了来道喜。（张爱玲：倾城之恋）
(10) 他来不及字斟句酌，但他惊喜地发现已经有些亮闪闪的字眼排着队，不可思议地从笔下涌出，留在他的稿纸上。（张承志：北方的河）

这种结构中，施事NP1没有出现，NP2充当了话题，例（9）中的“结婚启事”、例（10）中的“字眼”都是此类。

第四种，NPL+V出+NP。这种句式与第一种不同的是，表示处所的名词性词语位于句首作话题，例如：

- (11) 窗口渐渐变得亮了起来，东方现出了晨曦。（张承志：北方的河）
(12) 卡车偶尔驶上一道山梁时，苍茫的视野中一下子闪出一些桔黄色的光点，那是些帐篷里未熄抑或是早燃的灯火。（张承志：黑骏马）
(13) 在山上敦伟大友谊时，嘴里喷出白气。（王小波：黄金时代）

在由“V出”构成的句式中，V一般是表示主体位移或者能够使客体位移的动词，就是说，V要具有或者隐含空间领域里[位移]这一语义特征，但并不是必然要如此，如：

- (14) 他猛地一把从书包里抓出一张纸。（张承志：北方的河）

例（14）中的“抓”本身并不具有[位移]这一特征，但它和“出”结合后组成的“V出”结构具有[位移]的特征，这是构式的作用。（参阅Goldenber

g) 上述例(13)中的“喷”类似, 而(11、12)中的“现、闪”需另作解释(参后)。

下面的例子, 整个“V出”都不表示位移:

- (15) 当卡车在山嘴上头换了挡, 发出一种均匀的吼声时, 他的眼睛亮了:
他认出了这个地方。(张承志: 北方的河)
- (16) 电话通了, 他尽量装出一口青海腔, 大模大样地讲: “研究生办么?”
(张承志: 北方的河)

2.2. 再看看“动词+出去”(简称“V出去”)的情况

与“V出”相比, 由“V出去”构成的句式要简单。从搜集到的语料来看, 只有下面几种。

第一种, NP+V出去。例如:

- (17) 他每天上午十一点钟提起菜篮子, 火急火燎地跑出去采买一番, 然后回来交给母亲做饭。(张承志: 北方的河)
- (18) 后来人家把她押出去, 后面有人揪住她的头发, 使她不能往两边看, 也不能低下头。(王小波: 黄金时代)
- (19) 柳原道: “船没开出去。”(张爱玲: 倾城之恋)

上述三例内部有些不同。例(17)中的“跑”是不及物动词, 后面本来就没有宾语; 例(18)则不然, “押”是及物动词, 后面本来可以带一个名词性成分作宾语, 可这句中的“她”并没有以宾语形式出现。例(17、18)中都隐含了处所成分, 而且这些处所成分是比较典型的; 而例(19)的处所就不怎么典型, 它只表示“船”停泊的附近的水域。

第二种, NP1+V出+NP2+去。在这一句式中, NP1是行为的主体, 在句子中作主语; NP2作宾语, 但宾语所表示的语义成分不同, 有的表示处所, 如例(20), 有的表示受事, 如例(21):

- (20) 等到她想叫我来掸时, 我已经一步跨出门去。(王小波: 黄金时代)

(21) 向她伸出手去, 抚摸着她蓬乱的长发。(张承志: 黑骏马)

例(20)中的“门”虽然本身不是处所名词, 但它是一个建筑物的出入口, 这点与(21)中的“手”不同。

2.3. 再看看“动词+出来”(简称“V出来”)的情况

上述“V出去”所能构成的句式, “V出来”也有, 例如:

(22) 她追了出来, 看见我正取近路走回十四队。(王小波: 黄金时代)

(23) 不知道为什么要说她是破鞋, 把她押上台去斗争, 也不知道为什么

又说她不是破鞋, 把写好的材料又抽出来。(王小波: 黄金时代)

(24) 他在屋子里翻腾了好一阵, 大概是没有找到什么像样的干粮吧, 最后, 他骂骂咧咧地把一壶酒揣进怀里, 走出门来。(张承志: 黑骏马)

(25) 夏季早晨的凉风正精神抖擞地摇晃着满树绿叶, 他从存车处推出自行车来, 走出了医院大门。(张承志: 北方的河)

其中, 例(22、23)属于第一种, 例(24、25)属于第二种。请看下面例(26):

(26) 三爷又道: “想当初你哭哭啼啼回家来, 闹着要离婚, 怪只怪我是个血性汉子, 眼见你给他打成那个样子, 心有不忍, 一拍胸脯子站出来: 好!”(张爱玲: 倾城之恋)

从句式上看这句属于第一种, 不过这里的“站出来”并不一定表示从某一典型的处所“出来”, 而且“站”不具有[位移]特征, 它表示从某一人群中“出来”, 甚至连人群都没有。这是一种引申用法。

除上述两种句式以外, 由“V出来”还可以构成“NPL+V出+NP+来”句式。例如:

(27) 传达室的窗口伸出一只手来。(张承志：北方的河)

(28) 到了家，推开了虚掩着的门，拍着翅膀飞出一群鸽子来。(张爱玲：
倾城之恋)

例(27)中，表示处所的词语是“传达室的窗口”；例(28)中，表示处所的“家”承前省略了。

3. “动词+‘出’类趋向动词”的语义特点

“动词+‘出’类趋向动词”的语义特点可以从两方面去探讨：一是趋向动词“出/出去/出来”本身的语义特点及“V出/出来/出去”结构的语义特点，二是“动词+‘出’类趋向动词”这一结构所涉及的语义成分。

3.1. “出/出去/出来”本身的语义特点及“V出/出来/出去”结构的语义特点

刘月华(1998：217-256)把“出/出来”这两个趋向动词首先分为“趋向意义”和“结果意义”两大类，然后再分为若干小类；“出去”只有趋向意义，没有结果意义。我们觉得，这种大的分类似乎不可取，因为“趋向”实际上也是一种行为的“结果”。本文参照刘月华(1998)和吕叔湘(2001)直接将它们的意义概括如下。

先看看“出”的情况。“出”的基本意义是表示“某客体在空间领域从某容器(如建筑物类)里面向外面作位移”，如例(29、30)；还可以表示“非空间领域客体某种状态的出现或凸显”，刘月华(1998：221)称之为“由无到有，由隐蔽到显露”，如例(31-33)：

(29) “罚款一元，”等警察掏出小本开发票时，他如释重负，从钱包里摸出一张“透明大团结”递过去，等着警察找钱。(张承志：北方的河)

(30) 有时候她走出房门，往后山上看，看到山丘中有很多小路蜿蜒通到深

山里去。(王小波：黄金时代)

(31) 她嘴角泛出了一个紧张的笑纹。(张承志：北方的河)

(32) 地上是一块冲出防滑钉的铁踏板。(张承志：北方的河)

(33) 怪不得我一下子就吐出了心底的秘密，这秘密我从来没向任何一个人说过。(张承志：北方的河)

例(29)和(30)虽然都表示空间位移，但两者有所区别：前者的位移客体“小本、一张透明大团结”本身并不能位移，它们的位移借助警察“掏”的行为和他“摸”的行为才能实现；而后者则不然，位移客体本身具有位移的能力，不需借助外在的力量，因而(30)中的“她”可以看作是位移客体和行为主体的重合。

例(31、32)中的“笑纹、防滑钉”本来是不存在的，因为某种行为才出现的；例(33)中的“秘密”在显露出来之前就已经存在，只是在心底，别人并不知道。

上述“出”的两种意义，“出来”也具有。例如：

(34) 她追了出来，看见我正取近路走回十四队。(王小波：黄金时代)

(35) 他把牙刷从嘴里掏出来，满嘴白沫地和我讲话，我觉得很讨厌，就一声不吭地走掉了。(王小波：黄金时代)

(36) 现在，该重新把这个问题提出来了。(张承志：黑骏马)

与“出/出来”相比，“出去”主要表示空间领域客体由内向外的位移，例如：

(37) 等到她追出门去，我已经走了很远，我走路很快，而且从来不回头看。(王小波：黄金时代)

(38) 这件事传出去对谁都没好处，所以就没向上报告，只是在农场内部通缉王二和陈清扬。(王小波：黄金时代)

例(37)表示的是典型的领域位移情况；例(38)则不然，“这件事”不是具体的位移客体，它所在的“空间”也不是具有具体范围的空间，其空间范围是知道“这件事”的人。“传出去”是指将“这件事”从知道的人传播到

知道这件事之外的人。

“V出/出来/出去”结构的典型语义特点是“通过V所表示的行为使客体从空间领域的某范围内向范围外作位移，有时行为主体和位移客体可以融为一体”。

3.2. “V出/出来/出去”结构所涉及的语义成分

与“V出/出来/出去”结构的语义特点相关，这一结构所涉及的语义成分除它们自身外，还包括：行为主体、位移客体和表示容器的成分。就每个具体的句子而言，这些不同的成分并不一定都出现。下面是这几个成分都出现的例子：

- (39) 挨斗时她非常熟练，一听见说到我们，就从书包里掏出一双洗得干干净净用麻绳拴好的解放鞋，往脖子上一挂，等待上台了。（王小波：黄金时代）
- (40) 他把纸团扔出房间去。
- (41) 他从柳先生的四合院里走了出来，倚着一颗树擦着头上的汗。（张承志：北方的河）

从语义成分在句法平面的映射情况来看，主语与行为主体之间，宾语与位移客体之间，状语与容器之间，都有个比较自然的关联，但映射为主语的不一定是行为主体，映射为宾语的也不一定是位移客体，如此等等。例如：

- (42) 他愤怒地把听筒一摔，冲出了公用电话间。（张承志：北方的河）
- (43) 在山上敦伟大友谊时，嘴里喷出白气。（王小波：黄金时代）

在例（42）中，容器成分“公用电话间”映射为宾语，而例（43）中的容器成分“嘴里”则映射为主语。“V出”语义成分的其他映射情况以及“V出来”、“V出去”与“V出”映射的异同，请参阅前面的句法特点部分。

4. 认知图景和“V出”等的句法、语义特点

上述“V出”等的句法、语义特点，可以结合相关的认知图景来进行解释。

4.1. 认知图景与“V出”等的空间位移用法

先看看“出”的认知图景。它可以这样描述：某客体从容器内沿着某一路径向容器外作位移，这客体一般是像人这样可以自身移动的，不需要借助外在的力量。可简单图示如下：



这一认知图景涉及三个要素：位移客体、容器、路径。当位移客体自身不具备位移能力的时候，就必需借助外在的主体的行为使之产生位移，这时就多了一个行为主体要素。这两种认知图景有个特点，就是它只涉及位移客体与容器的关系（在容器的里面或容器的外面），而不涉及观察者的视点（参照点）。

与“出”的认知图景略有不同的是，“出去”和“出来”的认知图景中都包含参照点的要素。前者的典型参照点在容器之内，后者的参照点在容器之外。

从理论上说，这几个要素在语言上表现为相应的不同的句法、语义成分（参上）；而实际上，位移客体一旦超出容器的范围，它就位于容器之外，就是说，路径是可以忽略不计的。所以在现实语料中，与路径相对应的句法、语义成分极少出现。请看下面的例子：

(44) 我冲出邮局大门，看见了横亘在面前的额尔齐斯河，那天我深深地体验到了我们知识青年心里的苦。（张承志：北方的河）

(45) 有时她拿一个从我肩上扔出去，百发百中，中弹的从陡坡上滚下去。（王小波：黄金时代）

(46) 七妹, 你打哪儿钻出来了, 吓我一跳! (张爱玲: 倾城之恋)

(44) 中的“邮局大门”是客体位移的一个路径, 可以作路径来理解; 不过这个路径极其短, 可以忽略不计, 人们可能更倾向于把“大门”看作“邮局”这个容器内外的分界线, 凸显的是客体现在在邮局之外。(45) 中的“从我肩上”、(46) 中的“打哪儿”则更容易理解为路径。

4.2. “V出”等的引申用法

“V出”等的认知图景只能解释客体在空间领域发生位移的情况。从上述“V出”等的句法、语义特点来看, 它们的用法有的难以直接从认知图景得到解释, 必须在此基础上借助原型理论和隐喻理论来进行解释。

先看下面的例子:

(47) 卡车偶尔驶上一道山梁时, 苍茫的视野中一下子闪出一些桔黄色的光点, 那是些帐篷里未熄抑或是早燃的灯火。(张承志: 黑骏马)

(48) 她的脑海里浮现出她的另一幅作品, 那是一个扑向晚霞烧红的黄河的男人。(张承志: 北方的河)

(49) 流苏回到旅馆里, 又从窗户里用望远镜望出来, 这一次, 他的身边躺着一个女人, 辫子盘在头上。(张爱玲: 倾城之恋)

(50) 骑着车回家的路上, 他突然又想起李希霍芬的那本《中国》里也有一些他不曾留心的黄土论述, 他决定当天晚上就把那些段落找出来精读一遍。(张承志: 北方的河)

例(47-50)中“出”和“出来”的用法都是对典型用法的偏离。例如, (47) 中的“苍茫的视野中”不是典型的容器, 因为这里看不出具体、可感的容器的边界; “桔黄色的光点”也不是位移的客体, 而是出现的事物。

(48) 类似。例(49)中, 观察者的视点不在旅馆的房间里, “出来”的也不是具体、可感的客体, 而是无形的视线。(50)中, 对应“容器”成分的是“《中国》”这本书, “那些段落”也没有从《中国》这本书中“位移”出来, 只是因为“找”而“出现”了。

再看下面的例子：

- (51) 好久，我都判断不出索米娅是否已经躺下。(张承志：黑骏马)
(52) 我在清平遇上了同学，虽然化了装，人家还是一眼就认出我来。(王小波：黄金时代)
(53) 徐太太打听了出来，原来他在外面有了人，若要拆开，还有点麻烦。(张爱玲：倾城之恋)

(51-53) 并不是直接表示“出现”，而是在这一意义的基础上进一步得到引申：通过“出/出来”前动词所表示的行为“发现”某种事实。例(51)中的“判断不出”表示通过“判断”不能“发现”“索米娅是否已经躺下”这一事实；例(52)中的“认出我来”表示通过“认”这一行为“发现”那个化了装的人是“我”这一事实；例(53)中的“打听了出来”则表示通过“打听”而“发现”了“他在外面有了人”这一事实。

与“V出”和“V出来”相比，“V出去”就不具有前两者的“出现”义和“发现”义。这一不对称现象可作如下解释：客体处于容器中时，由于容器是有边界的实体(就典型情况而言)，所以人们就看不到容器内部的客体。当客体从容器里面位移到容器外面的时候，这不只是一个位移过程问题，由于这一过程的实施，人们就能够看到原来看不到的客体，因为观察者的视点在容器外面。因而“V出来”就获得了“出现”等意义。“V出去”则不然，它所表示的是，客体原来在容器的里面，观察者的视点也在里面，因而是看得见的，一旦位移到容器外面，自然就看不见了；因而“V出去”也就缺乏获得“出现”等意义的认知基础。为什么“V出”也能获得这样的意义呢？因为“V出”没有反映客体位移的参照点，所以当它表示客体由容器里面向容器外面位移时，视点可以在容器的外面。正是在这种情况下它才能获得“出现”等意义。正因为这个缘故，在这个意义上，“V出”只能和“V出来”互换¹⁾，而不能和“V出去”互换。

再看下面的例子：

1) 可能在有些情况下不能互换，但不是因为意义方面的问题，而是其他问题。

(54) 当天夜里, 奶奶执拗地躲到蒙古包西侧去睡; 炉灶正北的、属于男女主人的那块白垫毡空出来了…… (张承志: 黑骏马)

例(54)中的“空出来”跟空间位移没有明显的关系, 刘月华(1998: 236)称之为“表示领有关系或占有关系的转移”。这种用法涉及两方面的因素: 一是客体的位移已大大偏离了容器这个典型, 二是这种位移已不是空间领域的了, 因而是一种隐喻的用法。

5. 结束语

本文对“V出/出来/出去”结构的句法、语义特点进行了描写, 它们的主要特点是表示客体在空间领域内从容器里面向外面位移, 或者从容器外向容器里面位移。典型的容器是一个具体、可感的, 具有明确边界的三维实体, 不过, 它们在具体用法上可以对典型的容器有不同程度的偏离。它们的句法语义特点都直接或者间接地受相关的认知图景的制约。本文对此也作了相应的解释。

我们在搜集语料时, 碰到了下面的例子:

(55) 她是豁出去了, 也就让他送她一程。(张爱玲: 倾城之恋)

(56) 还没走进那条小河岔, 两个景颇族孩子就从里面一路打出来, 烂泥横飞, 我身上也挨了好几块, 直到我拎住他们的耳朵, 他们才罢手。(王小波: 黄金时代)

例(55)中的“豁出去”的意思是“(某人)不顾一切后果”, 这种用法难以直接解释, 是不是“豁出命去”的格式塔理解?²⁾ 不管怎样, 它似乎可以作一个熟语来看。例(56)中的“打出来”并不表示通过“打”这一行为而使客体“出来”, “打”在这句中只表示“出来”的一种伴随方式。

与其他趋向动词相比, “出”类趋向动词的虚化程度较低, 动词与“出”类之间很容易插入“不/得”表示“不能够/能够”。

2) 可参阅卢英顺, 〈语言理解中的格式塔原则〉, 《修辞学习》5(2005).

[參考文獻]

- 刘月华主编,《趋向补语通释》,(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1988).
- 卢英顺,〈语言理解中的格式塔原则〉,《修辞学习》5(2005).
- 卢英顺,〈认知图景与句法、语义成分〉,《复旦学报》3(2005).
- 卢英顺,〈认知观与对外汉语教学〉,《汉语学习》1(2004).
- 吕叔湘主编,《现代汉语八百词》(商务印书馆,2001).
- 马玉卞,〈趋向动词的认知分析〉,《汉语学习》6(2005).
- 束定芳,〈认知语义学的基本原理、研究目标与方法〉,《语言文字学》2(2006).
- 今井敬子 等,〈现代汉语趋向结构的层次〉,《山西大学学报》2(1987).
- 熊学亮,《认知语用学概论》(上海外语教育出版社,1987)
- 陈忠,《认知语言学研究》(山东教育出版社,2006).

Abstract

This paper gives a description of the syntactic and semantic features of the constructions of “Verb + *chu* /*chulai* /*chuqu*”. It points out that these constructions mainly express the meaning that an entity transfers or is transferred from the inside of a container to the outside, or vice versa. The various features depend on the relevant cognitive scenes directly or indirectly.

Key Word: *Chu*, *Chulai*, *Chuqu*, Syntactic and Semantic features, Cognitive

任務型教學法在對外漢語教學中的實踐

張幼冬*

〈目 次〉

1. 任務型教學法在外語教學中的產生發展和使用
 - (1) 理論來源
 - (2) 任務的內涵
 - (3) 完成任務的過程
 - (4) 任務型教學法的借鑒意義
2. 用任務型教學法的理論來審視目前對外漢語教學的不足
 - (1) 教材的問題
 - (2) 課堂教學中的問題
 - (3) 完成任務的過程中沒有把課堂教學和課後任務結合起來
3. 如何在對外漢語教學中實踐任務型教學法
 - (1) 指導思想
 - (2) 以不同階段、不同課型為例來說明任務型教學法的實踐

1. 任務型教學法在外語教學中的產生發展和使用

(1) 理论来源

传统的外语教学方法有语法翻译法、阅读法、认知法。二十世纪产生的改革派的教学法有直接法、听说法、全身反应法、静默法、启示法等等。

* 中国 山东师范大学 对外汉语系 / 蔚山大学 中国语中国学科 教授

20世纪70年代以后出现的功能交际法,吸收了上述多种外语教学法的优点,在各种流派和学科中汲取营养,强调培养学生用外语进行交际的能力,帮助学生在特定的情景和话题中完成一项交际功能,这个方法对世界各国产生了广泛的影响。而任务型教学法是交际功能教学法的进一步发展。D.Nunan的《交际课堂的任务设计》¹⁾是任务型教学法形成的标志性著作,书中介绍了任务型教学法的基本理论,并介绍了一些国家和地区实行和采用的任务型教学大纲²⁾。20世纪90年代,任务型教学法成为英语教育的国际主流。在中国香港,1996年教育署编制了以Task-based Approach 为主导的香港中小学英语教学大纲。中国大陆教育部于2001年研制了《英语课程标准》³⁾,以推进英语课程改革。《标准》明确指出,英语课程"倡导任务型的教学模式,让学生在老师指导下,通过感知、体验、实践、参与、合作交流等方式,实现任务的目标,感受成功。"之后众多的外语教育工作者进行了广泛的教学实验和研究,通过一系列实验数据和实验报告,获得了很多积极的结论,任务型教学的探索取得了可喜的成果。

(2) 任务的内涵

D.Nunan在《交际课堂的任务设计》中指出"任务是一项以意义为中心的活动,使学习者使用目的语参与到理解、处理、输入和互动之中", "在此过程中他们的注意力主要集中在意义上,而不是形式上。"他还把任务分为真实任务和教学任务。其他语言学家如J.Willis,S.Gass,J.Richards,也分别阐述了对"任务"的理解。虽然对于交际任务的定义名家说法不一,但是在本质

1) D.Nunan, *Designing Tasks for the Communicative Classroom* (人民教育出版社, 1989)。

2) J.Richards认为任务型教学起源于1975年马来西亚的英语教学大纲。英语教育家N.Prabhu在1982年介绍了他在印度采用的一种英语教学方法,即让学生完成一些实际运用的学习任务,这被认为是任务法最早的尝试。J.Yalden对任务型途径进行了发展,为加拿大政府海外事务部制定了一份任务型教学大纲。

3) 2001年2月,中国国家教育部下发文件规定:从2001年开始,各地小学要逐步开设小学英语课程,并以"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制订"的名义刊行《全日制义务教育普通高级中学英语课程标准》(简称《标准》)正式出版,在全国开展实验。

上是相同的。P.Skehan在A cognitive Approach to Language Learning(1998, 上海外语教育出版社)一书中综述了大家的观点, 客观地提出了任务的几个主要特征: ①以意义为中心, 即意义是首要的, 而不是以操练某种意义不大, 甚至是无意义的语言形式为目的。因此, 课堂语言活动更接近于自然的习得; ②有某个交际问题要解决, 而且这一问题必须与现实世界有一定关系, 这种联系是具体的, 贴近学生生活、学习经历和社会经验, 能引起学生的共鸣和兴趣, 激发学生积极参与的欲望。③任务的设计和执执行应注意任务的完成, 即交际问题的解决, 任务完成的结果是评估任务是否成功的标志, 同时, 也为学习者提供了自我评价的标准, 并能使其产生成就感。

我们可以从不同的角度划分出不同的任务类型, 但无论如何, 任务的含义比以往任何时候都要全面和广泛, 它涉及知识、技能、文化、语言运用、智力能力、情感等要素, 是人们在日常生活、学习、工作、娱乐中所做的有目的活动行为。只有在这样的过程中学习和使用外语, 才能真正形成外语能力。所以在任务型教学法中, "任务"的含义与一般意义上的"作业"、"练习"、"话题"、"活动"等有根本的不同, 它把整个教学活动置于真实生活的背景中, 将其看成一系列有意义的任务链, 由大大小小不同的子任务组成, 打破了课上、课下的界限, 为学生以习得的方式获得外语能力创造了可能。

(3) 完成任务的过程

按照任务型教学理论的要求, 整个任务教学分为三个大的环节, 任务准备和设计、课堂任务展示及任务学习和运用、任务运用评估。第一个环节是教师在课堂教学前的准备工作, 关键是结合学生的能力培养目标, 制定和设计真实任务。第二个环节, 可以在课堂上进行, 必要时把完成任务放在课下。首先教师展示已设计好的任务, 并提出本堂课的知识、技能等功能项目, 然后输入要学习的相关知识、技能的材料, 这些材料既可以是一篇课文、一段录音、一些有用的词汇, 也可以是图画、图表、地图、说明书, 还可以是一些实物, 让学生带着具体任务去学习, 边学习边完成任务。学生在

感受到任务的要求与他们目前的能力之间存在明显差距时,会产生学习输入的材料和内容的内驱力,最终通过获取必要的知识、技能来完成任务。第三个环节是运用任务的教学评估,包括自我评价、小组评价、教师的归纳和分析,目的是对教学任务的完成进行及时反馈,了解学生的学习程度,规范教学行为,发现问题后及时纠正和强化。

具体来说,任务型教学的环节跟以往的3p教学步骤(present, practice, production)有很多不同。表面上看是顺序不同,传统的教学步骤是教师先呈现某个语言项目,然后学生进行练习,最后用所学的语言项目进行表达。任务型教学法似乎把步骤颠倒过来了,把要完成的任务首先展示出来,然后呈现语言项目,最后完成任务。实际上二者最大的区别在于,"任务"不是机械的语言形式的反复操练和模仿,也不仅仅是有一定局限性的情景交际会话,它的覆盖面更广,是紧密结合生活实际的真实行为、行动。按照任务的目的不同,我们可以把任务分成学习任务 and 运用任务两大部分,学习任务包括语言技能学习、文化学习等,(这在以往普通的教学中占主要地位),而运用任务范围更广,主要包括以下几方面:(1)认知性任务(比较、辨别、分析、归纳事物的性质、特点、因果关系、逻辑关连)。(2)交际性任务(社会交往、学校交往)。(3)创造性任务(手工制作、文化创作、电子制作)。(4)解决问题的任务(解决语言难题、解决知识难题、解决生活难题)。(5)做出决定的任务(选择、判断)(6)信息性任务(提供信息、获取信息、交换信息、查询信息)。(7)愉悦性任务(游戏、表演、欣赏、兴趣活动、智力活动)。另外,任务型教学提倡"课上任务和课下任务相结合"、"个人和集体合作完成任务",并重视对完成的任务进行评估,这些都是以往教学活动中比较薄弱的方面,它也是任务型教学理念的先进性之所在。

(4) 任务型教学法的借鉴意义

由于任务型教学法的理论价值在外语教学实践中得到了充分的展示和体现,同样在对外汉语教学中也有重要的借鉴意义。因为对外汉语教学和外语教学既有相似又有不同。首先对外汉语教学作为“对外国人的汉语教学”也是

一种语言教学,跟外语教学有共性,它们同属于第二语言教学,学生在语言习得过程中有很多相似的问题,老师在教授过程中也有许多共同的教学经验。当然二者的不同之处也很多,背景不同,学生主体不同,学习目标不同。因此任务教学作为一种理论,必须结合对外汉语的教学实践。

首先,对外汉语教学在使用"任务型教学法"时既有利条件也有不利条件。(1)有利条件是:第一,对外汉语教学的学生是在目的语国家——中国学习汉语,生活的环境就是一种外语环境,教师设计的任务执行起来更有条件,结合生活实际的课下任务比较容易完成。如完成某项调查,跟中国学生的交流,请中国人来作讲座,参观工厂、企业、学校等。即使如此,如果缺乏特定的语言任务设计,或者没有明确的指导思想和监控,学生的学习效果仍然比较低。因此科学合理的任务设计和操作可以让学生在可控的情况下有效地完成一定的任务,达到教学要求和目标。第二,留学生在某学校专门接受汉语学习,所有课程都是关于汉语和中国语言文化的,因此比起外语学习来,课时多,学习内容密集,是在一定程度和时间上的强化学习。任务设计安排得好的话学习效果非常显著。(2)不利条件是:外语教学的对象是本国的中小学生,他们在学校接受义务教育,班级人数稳定,年龄、文化水平等有较大相似性,学生之间的关系比较单纯,容易沟通,便于课下集体完成某个任务项目。而对外汉语教学的对象——学生主体比较复杂。留学生是来自不同文化背景的各国人,年龄、文化程度、民族习惯都有较大的差异,每个人的学习目的、汉语基础、学习习惯都不一样,在一堂课中实施某任务给老师带来很大的难度,对设计任务的要求比较高。再比如,学生之间的关系相对来说比较松散,课后完成合作任务也存在一定难度,因此,课堂教学有特别重要的意义,我们要加强课堂任务设计的研究,力求更加科学、合理、有效。另一方面,在布置课外任务时要把"个人完成和集体完成"两种方式结合起来。

其次,要正确对待"任务型教学法",把它放在一个合理的地位上,最重要的是把它作为一个指导思想,吸收和借鉴其合理有效的成分,注重其实用性,绝不能照抄照搬。对原有的教学观念、教学内容和方法要扬长避短。比如现有的对外汉语教材,在初级阶段对语言技能项目的总结、归纳、描述都比较成熟,是值得肯定和继承的,但中级和高级阶段的语言项目则不够细

致，也不全面，就需要加以补充和细化而不是简单的否定。

2. 用任務型教學法的理論來審視 目前對外漢語教學的不足

在前面的介绍中我们可以看出，任务型教学法是功能交际法的一种新的形态，是对交际法的发展，现在已经在课程设计、教材编制、教学实践等各方面取得了丰富的成果，它最有价值的思想概括起来就是：任务真实而有意义、具有可操作性，任务紧密结合生活背景，要延伸到课堂之外，能激发学生的自主性，可以在合作中学习。而对外汉语教学的各个环节中，恰恰在这几个方面存在不足。

(1) 教材的问题

1. 輸入的材料真實性不够，類型單一、缺少變化。

按照任务型教学法的要求，每课输入的学习材料可以是文字、图片、录音、实物等。目前我们大多数的教材仍以课文输入为主，不用说，类型过于单一，缺少变化，另外真实性不够，没有结合学生生活实际。比如，在初级阶段，有一个重要的语言项目就是学习“用几和多少来问数量”。一般的课文内容是“问家庭成员”，几乎所有的教材都一样。实际上，根据真实生活情况，我们可以选择的内容还有很多，比如问班里的人数(包括男生、女生的人数，来自多少个国家)，问学校有多少系或学院，一个系多少人，教师的人数，女教师的人数等，或者问学校有几个食堂、体育场、教学楼等。随着汉语水平的提高，中高级汉语阶段的材料输入也完全可以丰富多样，选择一首歌曲、一段相声、一幕话剧、一份说明书、一张海报、一个活动通知等，是完全可行的。

2. 教材的任務設計不妥

大多数的教材没有任务的概念, 把练习等同于任务, 这个认识应当改变。首先根据任务型教学法的要求, "任务"必须具备这样几个要素:有实际意义、有练习目的、背景清晰、师生共同参与、活动方式明确。而一般教材的课后练习, 要求不具体, 体现不出学生的活动方式, 没有可操作性, 还有的练习没有实际意义, 是机械的。比如, "根据课本内容回答问题"这个练习, 究竟要练习什么?要检查学生是否理解了课本内容?还是他们的记忆力?实际上操作时我们发现, 绝大多数学生都理解课文内容, 但回答时要忙着找书上的答案, 只有一部分学生能不看书准确回答问题。实践的结论是:如果是为了检查理解力, 这个练习是多余的, 如果要检查记忆力, 这个练习因要求不明确而没有达到效果。再比如, "替换练习"这个类型也是很多教材都采用的, 反复使用一个句式, 设计目的是扩大词汇, 并熟练某个表达式。一般的操作是逐个提问学生, 让学生马上完成, 结果发现两个目标都没达到。一方面, 这些扩展的词汇成了拦路虎, 虽然在补充生词中出现了但还没来得及消化, 有些学生仍然不认识, 或读不准, 影响他练习句式, 另外, 由于每人只读一句, 别人在读时, 学生是旁观者, 没有积极参与, 所以那些抽象的句式最终仍是过眼烟云, 在脑子里留不下什么痕迹。因此我们要按照任务型教学法的要求重新审视这些练习, 修改不合理的设计, 增加类型, 加大学生生活的分量, 把"练习"变成"任务", 重视学生完成的过程, 把时间交给学生, 让他们在合作、交流、质疑、释疑过程中学会并掌握语言。

(2) 課堂教學中的問題

1. 教學安排和時間分配不合理

很多教师在课堂中用大部分时间讲解生词和课文, 而对最应该重视的练习和任务匆匆带过, 所花时间和精力不够。对学生出现的问题, 没有及时归纳、总结、讲解。从参与方式上看, 也往往是教师一人唱独角戏, 或者是教

师与少数程度好的学生的互动，这都是教学的误区。比较合理的安排是：生词的预习可以放在课下，课堂只讲容易出错的，举例最好是课文中出现的句子。对课文也不必逐字逐句讲解，可以把阅读、理解都交给学生分组学习、研究，教师集中讲解其中的难点和重点。课堂的一半时间要用来练习设计好的任务，完成的过程要让学生合作，下课之前要有足够的时间反馈结果，教师对结果进行分析评价，及时纠正出现的错误，给出正确的答案和结论。

2. 活動過程中缺乏合作學習

合作学习起源于上世纪60年代社会心理学家对学生集体动力作用的研究，80年代中期逐步发展为一种教学的策略。这一策略目前已广泛地用于许多国家的中小学课堂。合作学习的理论基础可以从不同角度去研究。认知理论强调学生共同活动本身对学业成绩的积极影响。自控理论认为人的行为内驱力来自人的固有需要，小组学习更有利于满足学生的心理需要，促进学生情感发展，从而产生学习的内驱力，使学生自觉地从学习活动中。集体动力理论的研究也表明：在合作学习中，学生不必畏惧教师的权威，也不需担心个人学习的失败，合作的环境有利于学生产生自尊自重的情感，降低学习焦虑，跟学生的学业成绩成正相关。可是在对外汉语课堂教学中我们还没有充分认识到合作学习的重要性，学生在完成某个任务时仍是各自独立作战，影响了积极性和主动性的发挥。同时，忽视合作性也成为设计课外学习任务的瓶颈，白白丢失了课外合作学习可以带来的成果，这不能不说是一个极大的遗憾。

3. 忽視評估和反饋

教学过程是一个循环往复的过程，螺旋式上升和前进，因此反馈、评估、纠正应该始终伴随整个教学过程。只有在做的过程中发现问题、解决问题，才能真正学会解决问题的方法。比如学生在语言表达方面经常出错，教师的态度是容许学生的错误，并反复纠正，让学生在多次改正中提高。而目

前, 大多数的教学安排几乎没有给学生出错的机会, 换句话说, 在教师的心理期待中, 不出错或少量的错误是正常的, 大量出错会影响教学安排, 打乱课堂节奏, 要么是教师的讲解不到位, 要么是学生努力程度不够。在这种心理定势下, 学生的错误得不到充分的展示, 也没有课堂谈论的机会, 当然也就没有深刻的印象。实际上, 学习和其他事情一样, "出错"是必经的阶段, 教师应预先估计到, 并留出足够的时间让大家讨论, 自我纠正错误, 而不是对出现的错误轻描淡写地改过来就行。更进一步地说, 学生在完成任务的过程中出现的问题, 可能不仅仅是语言表达方面的, 还会有认知方面的, 有情感方面的, 有生活经验和能力方面的, 教师要对照自己的计划, 对学生完成的任务进行评价, 如果没有达到目标, 就应该指出其不足, 这些方面的提高和改进正体现了"任务"不同于"练习"之处。

(3) 完成任务的过程中没有把课堂教学和课后任务结合起来

任务型教学法的一个有价值的思想就是, 运用目的语完成生活各方面的任务。有些任务操作比较简单, 可在课堂上完成。如初级班可以在课堂上做的任务有: 词语接龙, 拼音听写, 选字组词, 连词成句等。也有些任务步骤比较复杂, 仅靠课堂的时间和地点都不允许, 必须在课下完成, 上课时让学生汇报完成的情况, 或再进行模拟, 教师进行检查和评价。很多教师在课上的任务设计能够做到真实有意义, 但课下的任务却没有贯彻落实真实性的要求, 一般都是对课堂内容的简单重复, 比较机械, 没有什么太大的意义, 没有丰富的形式, 更谈不上集体合作完成, 无法给学生带来完成任务的成就感。

中高级阶段的任务, 应该更有难度和挑战性, 特别要设计一些课外任务。因为课外任务是课堂教学的延续、深化和补充, 有利于学生智力开发, 有利于学生实践能力、创造能力和创新意识的培养, 从而与任务型课堂教学融为一体, 形成任务型教学的多维度和立体化。这类的任务设计有: 表演(小品, 相声, 话剧, 学汉语节目汇演), 比赛(朗诵、演讲、辩论比赛等), 课外交流(a带领学生参观某个工厂、农村、公园之后写文章。b请一个中国

人到班里来做讲座。c看一场电影、京剧、杂技、演出等，之后讨论或写作。d在班里看一场电影、纪录片，之后给它们配音。)

3. 如何在對外漢語教學中實踐任務型教學法

(1) 指导思想

(1) 对现有教材的处理要取其精华，去其不足。有些教材尽管存在一些缺陷，但都凝结着前人宝贵的经验，对语言知识和文化的总结归纳比较全面、深入，一些技能训练项目也很有价值。因此不能一概弃之不用，要适当增加和删改。(2) 在编写新的教材时要充分体现任务型教学法的要求，并大胆探索各课型的不同任务模式，还要体现层次性。(3) 任务也要有合理的数量和难度，课堂任务要简明，便于监督和评价。课下任务要及时检查，反馈。如果任务过于复杂、繁琐，结果只能是有始无终。(4) 教师在使用任务型教学法时要灵活，结合不同的实际情况来实施。亚洲班和欧美班的情形不一样，混合班和国别单一的班又不同，我们要扬长避短，调动各个有利的因素，让学生在合作中共同进步。

(2) 以不同阶段、不同课型为例来说明任务型教学法的实践

1. 初級綜合課

学生的状况是汉语知识不足，所学有限，极大地限制了任务的内容和方式，难以展开复杂的练习。于是很多教师在教学实践中进行了可喜的尝试，使用了一些语言游戏、趣味汉语活动，具有了任务教学的思想，只是比较盲目，还没有置于理论指导之下。所以我们还要不断探索，切忌任务设计流于形式，避免内容肤浅和幼稚化。首先我们可以利用多种手段——画画、唱歌、使用视听说设备和网络设施等。其次，把学习汉语知识和学习中国文化联系起来。另外，合作学习在这一阶段特别重要，既可以同伴结对，也可以

分成小组。因为在合作学习中，成员间是互相依赖的，教师又是以总体表现为奖励依据，从而使小组成员形成一个密不可分的整体，这对学生会产生积极的群体压力，培养学生自我管理的能力，并最终提高学习的效果和课堂教学的质量。

下面以《汉语教程》第一册(下)⁴⁾为例来说明怎样在教材和课堂教学中体现任务型教学法的理念。本书第二十三课《你的生日是几月几号》，课文材料内容并不复杂，涉及的词语不多，主要教学目标是让学生掌握年、月、日、时的表达方式。课后练习中共八个练习题，其中(一)是语音练习、(三)选词填空、(五)用疑问语气提问、(八)阅读。这几项分别是语音、词语、句法练习和文化知识扩充，是对本课内容或以前所学内容的巩固，无论内容还是形式都非常有价值 and 意义，而其他四项练习，如“读出年月日、用年月日回答问题”等，就显得单调和机械，我们可以取消这样的练习，以任务来代替。比如，我们可以设置四个任务项目，以填表格等形式，让学生分组讨论完成。

任务(1) 完成班级同学生生日等有关项目调查表

同学姓名	国籍	出生年月日	属相	爱好

任务(2) 完成家庭成员及朋友生日等有关项目调查表

人员	出生年月日	属相	爱好	喜欢的礼物
父亲				
母亲				
兄弟姐妹				
朋友				

4) 杨寄洲 主编，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1999年。

任务(3) 完成本年中国(及你的国家)重要节假日日期调查表

本年 重要节日名称	国家	时间 (年月日星期)	放假期限	主要活动
春节				
中秋节				
圣诞节				
国庆节				

任务(4) 制作一张生日贺卡, 写上祝福的话。

以上任务根据学生水平和学习进度, 教师可以灵活选择。比如任务(1), 主要让学生在小组中自我表达, 之后让小组的代表向全班汇报, 这个过程主要是练习课本内容, 检查掌握情况。任务(2)可以进行评比, 因为学生并不一定了解家庭成员和朋友的生日, 看看谁做的最好让他在全班汇报, 没有完成的同学, 要求课后完成, 这样就把"课上任务和课后任务"结合起来了。任务(3)可以放在第二次课中, 也要分组进行, 要求在一定的时间内完成。任务(4)可以放在课下, 课上展示结果, 教师纠正其"祝贺语"表达上的错误。

总之, 上面的任务设计, 要求学生亲自动手, 并合作完成, 任务是紧密结合生活实际的, 调动了学生的积极参与意识, 任务目标既有知识性的, 还有认知和情感等方面的, 培养了学生综合运用外语的能力。这样的学习过程给学生留下的印象很深, 效果很好。

2. 中級階段口語課

这个阶段的学生, 汉语水平有了较大提高, 能够说出完整的语段。除了要求他们掌握汉语的语义外, 还要注意语用, 因此, 语境是非常重要的。目前的教材, 无论课文材料还是课后练习, 跟以往相比, 都把"语境"放在空前重要的位置上, 但对"语境"的理解和处理还比较片面和狭隘, 往往犯"高、大、全"的毛病, 难以深入下去。下面是改进的建议:

首先, 輸入的材料語言背景要豐富。既然社會生活是多場景的, 那麼事件的发生地就有可能有"家庭、車站、劇院、體育場、飯店食堂", 甚至"宿舍、馬路、走廊"。因此, 談話背景不必一定在校園, 人物也不必是留學生。同樣, 事件也不一定發生在你身上。這樣設計, 人物角色就會豐富多彩了, 語言也會個性化, 材料多語體也就成為可能。比如, 課文除了一般性的對話外, 可以選擇"相聲、小品、電視劇、電影、日記、演講、幽默故事"等各種形式, 其涉及的人物和場景自然也就多樣化了。在這種多語體的材料中, 學生就可以接觸到不同人物的口語表達的特點, 包括年齡特點、性別特點、職業特點、身份特點、地域特色等, 還可以學到相關的交際策略"減縮、拖延、補償、回避、語速"等, 準確掌握"雙關、諧音、誇張、比喻、象徵"等語言修辭手段。

其次, 任務類型也要模擬多種語言背景。比如學習了"找工作"這一話題進行模擬表演, 一般教材的任務設計都不外乎"幾位同學之間的對話"這一模式。有的材料改進了一點, 就把任務設計成招聘者和應聘者之間的對話。我們認為還有更大的拓展空間, 比如任務既可以設計成同學之間的探討、抱怨、交流經驗教訓, 也可以是家長對孩子的教誨、叮囑, 年長一些的朋友對後生的提醒、勸導, 還可以是工作中上司對下屬的讚揚、批評, 等等。總之, 只要跟工作有關的情景都可以成為模擬的對象。再比如可以設計場景不明的幾組人物對話, 讓學生根據語氣和語用分析判斷談話場景、分析人物角色性格特點, 分析人物關係, 並分角色表演等。

完成任務過程中, 可以讓學生同伴結對或幾人一組進行討論, 然後進行情景表演。必要時, 讓他們在討論過程中作筆記, 以書面形式為輔助, 還可以課下準備。這樣的運用才能使語言真正成為交際的工具, 而不是脫離實際的、抽象的概念符號。

3. 高級話題討論課

處於高級階段的學生容易出現口語表達的"高原期", 即停滯不前的狀況, 這是許多漢語教師的共同反映。一方面是由於老生常談的話題讓學生產

生了厌倦情绪,另一方面是学生难以摆脱表达上的程式化。具体来说就是,学生习惯于用熟悉的、简单的词语进行表达,而不是更难词语,即使那些词语学过,看了也不陌生,但使用时却想不起来,这已成为高级阶段的学生提高口语的瓶颈。因此高级口语课程对高年级的学生来说,绝不是可有可无的。跟一般的口语课相比,高级话题讨论课有以下几个特点:(1)其独特的价值就在于它的时效性,应该比一般的课更紧密结合生活现实,有一定的敏感度。比如"婚外恋、跨国婚姻、低龄留学"等社会问题和一些前卫文化都是好的切入点。(2)表达方式以议论为主,包括讨论、辩论、个人演讲等形式。(3)重视语言表达的逻辑性和说服力。要求学生学会搜集翔实材料,运用恰当的词语进行合理的组织安排。在具体教学过程中要注意下面的问题:

首先,要求教师提供的材料内容、样式和题材以及任务类型除了丰富多样外,还应该有一定的深度,有独特的视角。讨论或辩论的结果不一定也不必是预料中的,对独特的观点要有一定的容忍度。任务设计应该更细致,更严密,大话题下有小话题,把讨论步步引向深入。

其次,要及时总结和反馈,对讨论中出现的语言表达上的词语错误、句式结构错误等要反复纠正。高级阶段的学生虽然错误相对来说较少,但可能更顽固,因为有的已经形成了习惯,纠正起来更麻烦。

第三,口头表达应该跟阅读、写作等训练结合起来。因为口头表达上的错误不像书面错误那样可以回顾,也更容易被忽视,因此比较有效的方法是,在讨论之后让学生根据讨论的内容进行写作练习。修改的方法有两种,一是教师修改,之后让学生整理出来。二是教师提供一篇相关的文章,学生参照文章中的词语、句式等修改自己的作文,然后再提交给教师,教师对其进行点评。

总之,对外汉语教学中的课程类型非常丰富,分技能训练的目标和侧重点不同,我们在贯彻任务型教学法时要结合实际情况,探索其特殊性规律,力求为不同课型总结设计出新颖独特的任务项目,并不断监督、改进、完善其实施过程,从而优化教学效果,提高对外汉语教学的整体质量。

[參考文獻]

- 李燕, 〈任務型教學法與對外漢語初級口語教學〉, 《雲南師範大學學報》2006:3。
陳東東, 〈用任務型學習理論指導美國學生的漢語學習〉, 《國際漢語教學動態與研究》2004:3。
吳勇毅, 〈從任務型語言教學反思對外漢語口語教材的編寫〉, 《國際漢語教學動態與研究》2004:3。
吳中偉, 〈從3P教學法到任務型教學〉, 《國際漢語教學動態與研究》2004:3。
馬箭飛, 〈任務式大綱與漢語交際任務〉, 《語言教學與研究》2002:4。
方文禮, 〈外語任務型教學法縱橫談〉, 《外語與外語教學》2003:9。
魯子問, 〈英語真實任務教學實踐論〉,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2003)。
徐子亮, 《漢語作為對外漢語教學的認知理論研究》(華語教學出版社, 2000)。
龔亞夫·羅少茜, 《任務型語言教學》(人民教育出版社, 2003)。

〈Abstract〉

The theory of Task-based Approach has effected the teaching field greatly after it was put forward, which is regarded as the most effective means for language training currently. Teaching Chinese to foreigners as a second language can also draw lessons from this theory.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application of Task-based Approach in Chinese teaching by teaching practice .

Key Word: Task-based Approach, teaching Chinese to foreigners, task designing

唐太宗入冥 고사를 통해 본 서유기의 형성과정 연구

김태관*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서유기 소설의 구성
3. 취경 인연을 통해 본 서유기의 사상성
4. 당대중입명기의 형성과정
5. 결론

1. 들어가는 말

옛날부터 사람들은 자신들의 견해에 따라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西遊記》를 해석했다. 멀리는 청나라 때의 오일자(悟一子)、장서신(張書紳) 및 오원도인(悟元道人) 등과 같은 사람들은 서유기를 “대학지도(大學之道)”、“선문심법(禪門心法)” 및 “금단묘결(金丹妙訣)” 등으로 해석했다. 가까이로는 최근의 어떤 연구자들은 《西遊記》는 “예술화된 왕양명(王陽明)의 심학(心學)”이라고 분석하기도 하고 “마음의 적을 깨부수는”、인민의 봉기를 와해시키려는 반동정치소설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하나의 극단적인 관점이 있으나, 약간의 연구자들은 대료천궁(大鬧天宮)¹⁾이 농민봉기의 영웅들이 용감하게 봉건통치에 반대한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tkim@deu.ac.kr)

사실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손오공이 부처님께 귀의하여 취경대열(取經隊列)에 합류한 것을 두고 농민봉기의 영웅들이 투항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결론의 궁색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찾아낸 “주제전화론(主題轉化論)”이 나왔는데, 대료천궁(大鬧天宮)인민영웅들이 통치자에 반항하는 영웅적인 투쟁을 반영하고 있지만, 서천취경(西天取經)²⁾에 이르러선 그 주제가 이미 인민영웅들이 인민을 위협하는 나쁜 세력들이나 자연의 험난함과 투쟁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다.³⁾

이러한 논쟁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자리 잡고 있다. 첫 번째는 서유기라는 작품 스스로 大鬧天宮故事에 나타난 주인공 손오공의 모습과 서천취경고사에 나타난 손오공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주제의식을 설명하기가 몹시 어려운 데서 유래한 것이다. 두 번째는 대륙의 일부 학자들이 사상적인 경향성을 띠면서 무리하게 계급혁명적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하려는 일종의 학문적 편향성이 빚은 결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서 작자의 원래의 의도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사건을 연결하는 다리인 제8회에서 제12회까지의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서 작가가 직접 이야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가감이 없이 순문학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 1) 서유기 1회부터 7회까지의 내용을 한 마디로 이야기하여 대료천궁이라고 이야기 한다. 굳이 번역을 한다면 (손오공이) 천궁을 크게 어지럽힌 사건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大鬧天宮으로 1회부터 7회까지의 내용이란 말을 대신하기로 한다.
 - 2) 13회부터 99회까지의 현장스님 일행이 천축으로 가서 불경을 구해오는 과정에서 겪는 81년의 전 과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여 西天取經고사라고 일컫는다. 본 논문에서는 13회에서 99회까지의 81년의 전 과정을 대신하는 말로 서천취경고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3) 이 내용은 李時人, 《西遊記考論》의 《西遊記》“鬧天宮故事形成考辯”, p.94 하단에서 발췌 인용한 것임.

2. 서유기 소설의 구성

서유기의 중심고사는 당연히 현장스님의 취경고사이다. 그러나 작자의 상상력이 적지 않게 개입되어 있다. 그는 현장스님의 고사에서 암시를 받아, 금원(金、元)의 회극에서 재료를 취해 와서 자신의 상상력을 보태어, 뜻밖의 대 신화를 창조해 내었다. 이 책의 구조는 중국의 고대 소설 가운데 가장 정밀하다고 할 수 있다. 그의 구조는 아래와 같이 3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제1부분: 제천대성(齊天大聖)의 전기(傳記)(제1회에서 7회까지)⁴⁾

제2부분: 취경(取經)의 인연과 취경(取經)에 참여하는 사람.(제8회부터 12회까지)

제3부분: 81년의 경과(제13회부터 100회까지.)⁵⁾

제1부분은 세간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있는 신화문학이다. 내가 앞 문장에서 잠깐 이 원숭이왕의 내력에 대해서 고증을 한 바와 같이 이 신령스런 원숭이에 관한 이야기는 비록 그 것이 인도로부터 전해져 들어온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7회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작자가 창조해낸 것이다. 수보리(須菩提)조사가 전법(傳法)한 이야기는

4) 《西遊記》(臺北: 河洛圖書出版社), p.1280 부록 호적 선생의 西遊記考證이라는 문장에서 재인용한 것임 인용문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길어 번역해서 본문으로 처리하고 출처를 밝혀둠.

5) 《西遊記》(臺北: 河洛圖書出版社), p.1280 부록 호적 선생의 西遊記考證이라는 문장에서 재인용한 것임. wtpqjsWo 부분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1)文殊師利告善財言:「善男子, 於此南方, 有一國土名曰可樂, 其國有山名爲和合; 於彼山中, 有一比丘名功德雲, 汝詣彼問, 云何菩薩學菩薩行, 修菩薩道, 乃至云何具普賢行。」

(2)功德雲比丘告善財言:「善男子, 南方有國名曰海門, 彼有比丘名曰海雲, 汝應詣彼問菩薩行」

(3)海雲比丘告善財言:「善男子, 汝詣南方六十由旬, 有一國土名曰海岸, 彼有比丘名曰善住, 應往問彼云何菩薩修清淨行」

(4)善住比丘言:「善男子, 於此南方, 有一國土名曰住林, 彼有長者名曰解脫. 汝詣彼問」

선종(禪宗)의 육조대사가 전법을 한 이야기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것일 것이다. 그러나 작가가 원숭이왕이 크게 천궁(天宮)을 어지럽히는 일을 묘사한 긴 이야기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옥황상제는 원숭이왕을 하늘나라로 청해서 미관말직인 필마온이라는 벼슬을 내렸으나, 원숭이왕은 화가 나서 천궁(天宮)을 내려가 스스로 제천대성(齊天大聖)이라 불렀다. 옥황상제는 다시 군대를 파견하여 징벌하려 하였으나 또다시 패하고 말았다. 옥황상제는 달리 방법이 없어 다시 그를 하늘나라로 불러 제천대성(齊天大聖)으로 봉하였으나, 그에게 직함과 녹봉은 주지 않았다. 그 후 하늘나라의 대신들은 그가 아무 하는 일 없이 노는 것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그를 반도원(蟠桃園)에 보내어 관리하도록 하였다. 하늘나라의 귀족들이 반도성회를 열었으나, 그들은 지난해의 규정대로 당연한 듯 이 필마온(弼馬溫)을 초대하지 않았다. 뜻밖에도 이 게걸스런 원숭이가 순간적으로 흥이 나서 연회에 쓸 음식과 과일과 술을 모두 훔쳐 먹고서 연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장엄하기만 하늘나라를 온통 형편없이 망가뜨려놓고서, 다시 하계로 내려와 왕의 노릇을 했다. 옥황상제께서 세 번째로 천병과 천장을 파견하여 어렵사리 그를 붙잡았으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태상노군이 그를 팔괘로(八卦爐)에 집어넣고 49일 동안 녹였으나, 그는 여전히 산채로 튀어나와 “아래 위를 가리지 않고 철봉을 동서남북으로 휘둘렀으나, 아무도 대적을 할 만한 사람이 없어, 곧바로 통명전(通明殿)까지 쳐들어와 영소보전(靈霄寶殿)밖에서 소란을 피웠다.” 옥황상제는 다급해져서, 사람을 서천(西天)으로 보내어 여래불(如來佛)께 도움을 간청해 모시고 왔다. 여래(如來)가 도착하여 원숭이왕을 굴복시켜 오행산 아래에 감금을 시켰다.

제3부분은 서유기의 몸통부분이다. 이 부분은 네 개의 래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현장본전(玄奘本傳)의 기록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우리는 이미 앞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 몇 부분을 인용했었다. 이러한 난관은 실재했던 것이나 약간의 종교적인 심리작용이 개입되어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소설가에서 수많은 암시를 던져주었음에 틀림없다. 사막에서 광선의 굴절로 인해서 생긴 환영(幻影)은 시간이 흐르면서 진짜 요괴로 바뀌어 갔고, 사막의 모래바람은 서서히 황풍대왕(黃風大王)

의 괴풍(怪風)과 나찰녀(羅刹女)의 철선풍(鐵扇風)으로 바뀌어 갔으며, 사막에서의 4박5일 간의 건조함 속에서의 행군이 둘레가 8백리나 되는 화염산(火焰山)을 만들어 내었으며, 폭염이 쏟아지고 더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사하(沙河)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길이가 팔 백리나 되는 “새들의 깃털마저도 뜨지 않는” 유사하(流沙河)로 바뀌어 갔으며, 고창왕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대당(大唐)의 태종(太宗)으로 바뀌어 갔고, 고창왕의 왕비와 후궁들은 점점 탁탑천왕(托塔天王)의 가짜공주와 천축국의 요망한 공주 등으로 바뀌어 갔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이야기들이 민간에서 구전되어질 때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운명인 것이니, 하물며 이 이야기와 같은 종교적인 이야기일 때는 말할 필요도 없다.

두 번째는 남송(南宋)이나 원초(元初)의 《大唐三藏取經詩話》와 금원(金元)때의 희극인 《唐三藏西天取經》 고사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이러한 고사들의 신화적 성질은 이미 위에서 설명을 했다. 원(元)대 잡극의 체제로 미루어 보아, 오창령(吳昌齡)의 서유기가 비록 당시에 가장 긴 여섯 본의 희(六本戲)라고는 하나 여섯 본은 아무리 많아도 24절(折)을 넘을 수가 없고, 설자(楔子)까지 합친다 하더라도 30절(折)을 넘을 수가 없다. 여기에 81년의 경과를 다 기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들 이야기들은 기껏해야 적은 부분의 소재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入法界品》(晉譯第三十四品, 唐譯第三十九品)이라고 불리는 화엄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이 품의 분량은 화엄경 전체의 4분의 1 가량이나 되며, 선재동자(善財童子)가 신심이 깊어 구법(求法)여행을 떠나 용맹정진을 해서, 110개의 성을 지나며 110명의 선지식(善知識)을 방문하여, 마침내 정과(正果)를 이루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入法界品》은 곧 서유기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110개의 성을 지나는 과정은 곧 81년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入法界品》의 체제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 (1) 문수사리(菩薩)께서 선재(童子)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이 남방에 가락이라는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화합이라는 산이 있

- 는데, 그 산에 공덕운이라고 하는 한 비구승이 계신다. 너는 마땅히 그 스님을 찾아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으며, 또 어떻게 보현행을 갖추는지를 물어보도록 해라。」
- (2) 공덕운비구께서 선재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남방에 해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해운이라는 비구승이 계신다. 너는 마땅히 그를 방문하여 보살행을 물어보도록 해라.」
- (3) 해운비구께서 선재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너는 남방을 육십 유순(?)을 방문하도록 해라, 거기엔 해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선주라는 비구승이 계신다. 너는 마땅히 그를 방문하여 보살이 어떻게 청정행을 행하는지를 물어보도록 해라.」
- (4) 선주비구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이 남방에 주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해탈이라는 장자가 계신다. 너는 그를 찾아가서 묻도록 해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하나 차례로 110개의 이야기가 나와서 맨 끝으로 미륵보살을 방문하고 나서 다시 문수사리보살을 만나, 마침내 무량대지광명(無量天智光明)을 성취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일체의 부처님과 더불어 한 몸에 일체세계가 충만하게 된다.” 이 “신심이 깊어 구법(求法)여행을 떠나 용맹정진을 했다.”(信心求法, 勇猛精進)의 고사는 틀림없이 서유기의 작가에게 무수한 암시를 주었을 것이다.

네 번째로 작가의 상상력과 창조력에서 유래했다.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내원(來源)은 그 81년의 소재를 공급할 수는 없고, 기껏해야 수많은 암시를 제공하는데 불과하다. 서유기의 81년은 대부분이 작가의 상상력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요괴와 재난을 생각해 내고, 이렇게 수많은 신화를 생각해 내는 것은 오히려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서유기는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것은 바로 서유기의 이야기가 모두 익살스럽다는 점이다. 정색을 하고 하루 종일 진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성인이나 보살들이 할 일이지 보통 사람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서유기가 세계적인 신화소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서유기에 등장하는 각각의 신화들이 모두 해학성(諧謔性)을 띠고 있어,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데 바로 이러한 웃음이 신화를 인화(人化)화 했다고 할 수 있다. 서유기에 나오는 신화들은

모두가 인간적인 맛이 나는 신화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격이 판이한 두 가지 이야기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 작품은 대단히 정밀하게 구성된 앞뒤가 잘 연결된 주제가 일맥상통하는 작품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우선 두 번째 부분의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8회: 我佛造經傳極樂 觀音奉旨上長安

제9회: 陳光蕊赴任逢災 江流僧復讐報本

제10회: 老龍王拙計犯天條 魏丞相遺書託冥事

제11회: 遊地府太宗還魂 進瓜果劉全續配

제12회: 唐王秉誠修大會 觀音顯聖化金蟬

위의 제2의 부분은 서로 성격이 다른 제1부분의 大關天宮故事와 제3부분의 西天取經故事를 서로 연결해주는 중간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성적으로 보면 제2 부분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8회는 제3부분의 서천취경고사가 모두 부처님의 서원에 의하여 일어났음을 밝히고 있으며, 제9회, 제10회, 제11회는 제3부분의 서천취경고사가 당태종이 地府(저승)를 여행하면서 인과응보와 윤회사상을 깨닫고 구천을 떠도는 원혼을 구제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선업을 쌓기 위해 불사를 하게 되는 인연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밖의 많은 이야기들은 소설적인 재미를 창조하기 위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 민간고사에서 소재를 취해 와서 주제와 부합하도록 가공을 한 것이다. 제12회는 당태종은 수륙대회를 열고 관음보살의 뜻을 받들어 국가적인 사업으로 당현장을 천축으로 파견하게 된다는 취경인연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제2부분은 모두가 작자의 창작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여기에 작자의 창작의도와 주제가 들어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취경 인연을 통해 본 서유기의 사상성

제8회, “我佛造經傳極樂 觀音奉旨上長安”(여래는 경서를 지어 극락을 전도하고, 관음은 성지를 받들어 장안길을 떠나다.)에서는 취경 인연과 취경 인물을 소개하여 앞으로 있을 81년이 모두 부처님과 인연으로 인하여 일어남을 예고하고 있다. 부처님은 자신이 남섬부주(중국)에 삼장진경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일을 계획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내게 있는 삼장진경은 하늘에 대한 법과 법(法)장과, 땅에 대한 논(論)장, 그리고 영혼에 대한 경(經)장이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이치를 깨닫는 길이 될 것이며 선으로 돌아가는 올바른 문이 되리라. 나는 이것을 저 동녘 땅에 전해주고 싶지만 섭섭하게도 그 곳의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진언을 헛뜯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법문의 참뜻을 모르며, 유가(瑜伽)의 정종(正宗)을 깔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법력이 있는 신선을 하나 동녘 땅에 보내 착한 사람 하나를 골라, 그더러 수륙만리의 고초를 겪으면서 내게로 오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삼장경서를 동녘 땅에 가져다가 중생들에게 가르쳐 그들을 널리 감화시킨다면 그 것은 실로 산에다 비길만한 복덕이요, 바다에다 견줄만한 경사일 것이다. 그런데 그대들 가운데 누가 한 번 다녀올 사람이 없는가?”

여래의 말에 관음보살이 남보다 먼저 보련대 앞으로 다가가 여래에게 삼장의 예를 올리며 말했다.

“제가 비록 제주는 없지만 동녘 땅에 가서 경을 가지러 올 사람을 구해보겠습니다.”⁶⁾

다음으로는 사오정의 인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보살님! 부디 이놈의 불찰을 용서해 주시고, 사정을 좀 보아주십시오. 저는 본디 요괴가 아니라 천궁의 영소보전에서 난여(鸞輿:임금님의 수레)를 모시고 있던 권렴대장(捲簾大將)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도회 때 잘못해 그

6) 중국오대기서, 《西遊記》 제1권, p165, 제8회를 참조할 것

만 유리잔을 깨뜨렸습니다. 그 죄로 옥죄님께서 저에게 곤장 8백 대를 치게 하시고 저를 하계로 내쫓아 이런 몰골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레 만에 한 번씩 날카로운 칼을 날려 보내 저의 가슴과 옆구리를 백여 차례씩 찌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처럼 괴로움에 부대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굶주림과 추위까지 겹치고 보니 저는 하는 수 없이 2, 3일에 한 번씩 물속에서 뛰쳐나와 지나가는 행인을 잡아먹곤 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공교롭게도 보살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례하게 굴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요괴의 말에 보살이 입을 열었다.

“너는 천궁에서 죄를 짓고 하계로 내려 왔다면서 왜 또 살생을 하는 거냐? 나는 지금 여래의 뜻을 받들고 경을 가지러 갈 사람을 찾으러 가는 길이다. 그러니 너는 우리 불문에 귀의해 장차 경을 가지러 갈 사람의 제자가 되어 서방으로 가서 부처님을 만나 뵈고 불경을 구해도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했다면 내가 너에게 날아오는 칼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마. 그리고 공을 세워 죄를 용서받게 되는 날 다시 복직되게 해주마. 그러니 네 생각은 어떠냐?” ………

보살은 비로소 요괴의 머리에 손을 얹어 계(戒)를 내리고 유사하(流砂河)라는 강의 이름을 살려 성은 사(沙), 이름은 오정(悟淨)이라고 지어주었다.

다음은 저팔계(豬八戒)의 인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보살님 저는 요정도 멧돼지도 아닙니다. 저는 원래 천계의 은하수에서 일을 보던 천봉원수(天蓬元帥)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술김에 월궁의 상아를 희롱했기 때문에 옥제께서는 저에게 2천대의 매를 안긴 다음 하계로 귀양 보내셨습니다. 제 탄엔 아주 훌륭한 새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를 빌려 들어간다는 것이 그만 잘못해 암태지의 뱃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몰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김에 저는 암태지를 물어죽이고 다른 돼지들까지 죄다 물어 죽인 다음 이 산속에 들어앉아 인간을 잡아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뜻밖에도 보살님을 뵈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보살이 대답하였다)………

“나는 여래의 뜻을 받들고 경을 가지러 갈 사람을 구하러 동녘 땅으로 가

는 길이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가 되어 서역을 한 번 다녀오도록 해라. 그러면 너는 그 공로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게 되고 지금의 이 불행에서도 구원 받게 될 것이다.”

요괴가 가기를 맹세하자 보살은 그의 머리를 잡고 불가의 계를 내려준 다음 성은 저(猪) 범명은 오능(悟能)이라 부르게 했다.

다음은 용마의 인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는 서해용왕 오운(敖閔)의 아들입니다. 일전에 저는 불장난을 하다가 그만 잘못해 어전의 구슬을 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왕께서는 저를 불효자라고 천궁에 상소했습니다. 옥제께서는 저를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매를 삼백 대나 때렸습니다만 얼마 후에는 저를 아예 죽여 버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살님 부디 저를 살려주십시오!”

보살은 얼른 인사를 하고 나서 옥제에게 아뢰었다.

“소승은 여래의 분부를 받고 경을 가지러 갈 사람을 구하러 동녘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웬 용 한 마리가 벌을 받고 공중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그 용의 목숨을 살려 주시고 그를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소승은 그에게 경을 가지러 갈 사람을 태울까 합니다.”

목숨을 구해 받은 옥룡은 보살에게 거듭 절을 하고 보살의 가르침에 따르기로 했다. 보살은 옥룡을 깊은 골짜기의 개울에다 놓아주며 경을 가지러 가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백마가 되어 서역으로 가서 공을 이루라고 일렀다.

다음은 손오공의 인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손오공이) 아닙니다. 저도 이젠 모든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부디 보살님께서 저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꼭 참된 마음으로 수행을 할 것입니다.”

오공의 말에 보살은 속으로 무척 기뻐했다.

“불경에 이르기를 그대의 말씀이 착한 말씀일 때 천리 밖에서도 응해줄 것이요, 그대의 말이 불손할 말일 때 천리 밖에서도 외면하고 말리라고 했다. 네가 이처럼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내 동녘 땅 당나라에 가서 경을 가지러 갈 사람을 구해 그더러 너를 구해 주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그 사람의 제자가 되어 우리의 불문에 들어와 올바른 도를 닦도록 하라, 알겠느냐?”

이상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우리는 하나의 공식과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취경대오에 참여하는 삼장법사를 제외한 모든 구성요원인 손오공(孫悟空)、저팔계(豬八戒)、사오정(沙悟淨)、용마(龍馬)등 구성원들이 하나 같이 옥황상제에게 죄를 지어 형벌을 받고 하계에 쫓겨나 있으며 현재에도 고통을 받고 있고 장차 부처님께 귀의하여 계를 받고 경을 가지러 가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 경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으로 인하여 정과를 얻어 새롭게 태어난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이것은 서유기의 사상이 인과응보와 윤회에 있음을 웅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현장스님마저도 “근본에 정통한 금선장로, 부처님 전도에 마음이 없어, 온갖 수난 겪어 보려고 천계에서 진세로 내려왔구나,”⁷⁾하고 윤회설로 인해 태어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고, 또 “그러던 차에 태종이 고승들을 모아놓고 법사를 열고 강류화상을 단주(壇主)로 선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단주는 곧 극락세계에서 내려온 불제자요 보살 자신이 태를 빌려 이 세상에 내려 보낸 금선장로가 아닌가?”⁸⁾하고 인과응보와 윤회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또 그리고 이 모든 업적이 모두 동녘 땅에도 삼장진경을 전하겠다는 부처님의 뜻에 따라 운명적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옥황상제에게 죄를 짓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아 서유기는 한 부의 종교 소설이며 불교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읽다보면 문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온 탕아”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아’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7) 《西遊記》 제1권(서울: 삼성출판사), p.258 하단 시를 참고.

8) 주 7의 책 p.265를 참고.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 객지의 사창가로 떠돌며 몽땅 탕진하고, 일약 알거지 신세가 되어 돼지먹이로 끼니를 연명하며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용서와 환대를 받는다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색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 주인공들의 모습은 모두 죄를 지었지만 다들 속죄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공을 이루어 정과를 얻는 대단히 종교적 색채가 농후한 인물들임을 볼 수 있다. 특히 손오공의 모습에서 우리는 더욱더 종교적인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다. 소설 서유기를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앞에서 들은 주제전환론 등과 같은 비약적인 논리가 아니라 앞뒤가 순조롭게 연결되는 그러한 느낌이 든다.

다음으로 9회, 10회, 11회의 이야기는 이 서천취경고사가 당태종황제가 지부(地府)를 여행하고 나서 인과응보와 윤회를 체험하고 선행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과정이 들어 있다.⁹⁾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제 11회:遊地府太宗還魂 進瓜果劉全續配(당태종은 지옥을 구경하고 나서 환혼을 하고 유전은 명부에 호박을 전하다.)의 태종이 지옥을 여행한 이야기가 있고, 이와 직접 관계되는 이야기로 위징참용(魏徵斬龍: 위징이 용의 목을 벤 이야기.)고사가 있다. 이 단락은 수많은 작은 이야기들이 뒤섞여져 있는데 연구를 해보면 매우 재미가 있다. 원천강신산(袁天罡神算: 원천강이 귀신춤 점을 칩)고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이다.(太平廣記七六、二二一을 참조할 것.) 진숙보(秦叔寶)와 호경덕(胡敬德)이 문신(門神)이 된 이야기는 아마도 당나라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이며, 경하용왕이 죄를 짓는 이야기는 이미 당인소설에 보이고 있다. 태평광기(太平廣記)四一八에는 《續玄怪錄》을 인용하여 이정(李靖)이 용왕을 대신하여 비를 내리는데, 잘못하여 이십팔 척(尺)이나 되는 비를 내림으로서 용왕모자가 하늘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오래된 이야기이다.¹⁰⁾

9)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4장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한다.

제9회; 陳光蕊赴任逢災 江流僧復讐報本의 내용은 아마도 取經因緣과 取經人物) 가운데 역사적 사실과 가장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일 것이다.¹¹⁾ 현장스님은 본래 후씨(侯氏:지명.현 하남성)사람으로, 아버지는 독서인이고, 형님은 유명한 스님이었으며, 그가 스스로 출가한 사실은 그의 전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제9회에서는 그의 부친은 장원(壯元)이며, 어머니는 재상의 딸 로 묘사되어 있다. 장원의 아들이며 재상의 외손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출가를 하게 되었을까? 따라서 은소저(殷小姐)가 굴욕을 당하고 이에 보복을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어(太平廣記一二二, 陳義朗의 故事를 참조할 것), 현장스님의 출가의 이유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바꾸기는 일반 독자들의 심리에도 잘 부합하는 것이다. 현장스님의 가세와 유년기는 사실 너무나 평범하여 소설적 흥미가 없어 이를 바꿀 필요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현장스님은 훗날 사람들이 신처럼 여겼으므로, 그의 부모도 마땅히 신분이 높여졌다. 따라서 장원과 재상 덕의 따남으로 높여졌던 것이다. 따라서 《大唐西域記》、《大唐三藏法師傳》에서는 역사 속에 살아 있는 진실한 영웅적 인물인 현장스님이 소설 《西遊記》에서는 당태종의 신하로 국가적인 취경사업에 참여하는 초라한 모습의 현장스님으로 탈바꿈하고 만다.

마지막으로 제12회唐王秉誠修大會 觀音顯聖化金蟬(진현장은 정성들여 법사를 거행하고 관음보살은 현신해서 금선을 감화시키다.)에서는 취경인연을 이야기하고 있다. 태종황제께서 地府에서 약속을 한대로 상국사가 완성이 되자 “여러 신하들과 의논해 중들을 불러다 수록대회를 열고 주인이 없는 고혼들을 제도하기로 했다.”¹²⁾그리고 그 일이 있는

10) 이 부분은 호적선생의 서유기고증이라는 논문에서 발췌 요약하여 번역한 것임.

11) 이시인, 《西遊記考論》, p.117을 참고. “오승은의 서유기에 나오는 당승의 출생고사는 “陳光蕊, 江流兒”이라는 이야기에서 나왔으며 오승은 고향에서는 아마도 이 전설이 성행했을 것이며 그 이전의 문학작품에서도 취경고사의 소재로 사용함으로써 오승은이 독립된 한 장으로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12) 주 7의 책 p.256.

후 장안에서 승려들에게 강의를 할 단주를 뽑았는데 현장이 단주로 뽑혀 설법을 하는데 《受生度亡經》을 읽고 《安邦天寶緣》을 강술한 뒤에 《勸修功卷》을 이야기했다. 이때 관세음보살이 그를 보고 “그대가 강술하는 소승교법만으로는 망자를 구제해 승천시킬 수가 없고 겨우 속세를 벗어나는 정도에 그치고 말지. 내게는 대승불법 삼장(三藏)이 있는데, 그것은 망자들을 구제해 승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자를 구제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무량의 수명을 얻게 하며, 생사를 초월한 적멸의 경지에 이르게 할 수가 있는 거야.”¹³⁾하고 말했다. 다시 관세음보살은 현성을 하여 공중에서 쪽지를 하나 내려 보내어 “대당의 주상께 삼가 아뢰입니다. 서방에는 묘문이 있으며 리 수로는 10만 8천리가 되지만 대승불법만은 꼭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경문이 귀국에 전해지면 망자도 구제되어 귀신의 무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경문을 가지러 갈 것을 원하는 자가 있으면 올바른 보응을 받아 반드시 부처가 될 것입니다.”¹⁴⁾하고 적어 놓았다. “그것을 읽어보고 난 태종은 곧 중들을 향해 어명을 내렸다. ‘이 법사를 잠시 중지하라. 짐은 사람을 보내 대승불법을 가져온 뒤에 다시 성심으로 이 대회를 계속하리라.’”¹⁵⁾하고 말하였다. 이상이 바로 이제2부분의 핵심내용임과 동시에 이 소설의 중심사상이다.

그 결과 소설의 성격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다. 역사 속의 취경고사(取經故事)에는 현장스님이 경문(經文)의 뜻이 분명하지 않아 여러 가지 이설이 분분하여, 원문경전을 구해오기로 굳게 결심을 했다. 이러한 그의 정신은 대단히 과학적인 정신이고 절로 고개가 숙여지지만, 그러나 통속소설의 소재로는 적합하지 않아서, 이를 각색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부처님께서 동녘 땅에 불법삼장이 전해지기를 위하여 경전을 가지러 올 사람을 구하러 보내는 것으로 바뀌어 버리자, 현장은 주동적이고 자발적인 입장에서 수동적이고 타의에 의해서

13) 주 7과 같은 책, p.274 참조.

14) 주 7과 같은 책, p.278 참조.

15) 주 14의 바로 아랫부분임.

경을 구하러 떠나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 더 이상은 주인공이 아닌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는 조연으로 떨어지고, 손오공에게 마저도 자리를 내어주고 조연의 위치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언급을 하여야 할 것은 현장스님이 스스로 경을 가지러 가겠노라고 신청을 하였으나, 당나라 조정에서는 공문을 내려 허락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유기소설에서는 당태종이 경을 가지러 갈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현장스님이 거기에 자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현장스님은 한 번 더 완전히 수동적인 입장으로 떨어짐으로서 역사속의 인물과는 완전히 다른 문학작품 속의 조연급 인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신 개인적이었던 취경사업은 국가적인 종교사업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은 이질적인 문화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토착화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외래의 종교인 불교가 중국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국왕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절대적이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국왕의 지원을 받아 불교가 번창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불교 스스로 변하여 충효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유가사상이 지배하는 중국의 환경에 적응하여 개인적 깨달음을 중시하는 소승불교에서 중생의 제도를 중시하는 대승불교로 탈바꿈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호국 불교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4. 당태종입명기의 형성과정

태종유지부(太宗遊地府)고사 역시 대단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당나라 때 사람 장작(張鷟)이 쓴 《朝野僉載》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¹⁶⁾

16) 호적선생의 서유기고증에는 王靜菴선생이 《太平廣記》에서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였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여기에서는 《太平廣記》를 찾아서 확인을 하고 이를 번역하였음. 원문은 아래와 같다.
唐太宗極康豫, 太史令李淳風見上, 流淚無言. 上問之, 對曰: 「陛下夕當晏駕」...
... 太宗至夜半, 奄然入定, 見一人云: 「陛下躡合來, 還即去也。」帝問: 「君是何人?」. 對曰: 「臣是生人判冥事。」太宗入見判官, 問六月四日事, 即令還. 向見者又迎送引導出. 淳風即見乾象, 不許哭泣. 須臾乃寤. 及曙, 求昨所見者, 令

당나라 태종은 아주 강건하였으나, 태사령인 이순풍이 임금을 보더니 그만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임금이 묻자, 대답하여 “폐하께서는 오늘 저녁에 돌아가십니다.”고 하였다. 태종은 한밤중에 홀연히 입정(入定)에 들었는데, 한 사람이 “폐하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금방 다시 돌려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임금이 “그대는 누구신가?”하고 묻자, 그는 “신은 산 사람에게 저승의 일을 재판하는 사람입니다.”하고 대답했다. 태종이 들어가 관관을 보자, (관관은) 6월 4일의 일을 묻고 나서 금방 되돌아가라고 하였다.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사람이 다시 그를 인도해서 바래다주었다. 순풍이 하늘을 보고 점을 쳐보더니, 모두 들 곡을 하지 못하게 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임금이 다시) 깨어났다. 아침이 되어 어제 본 그 사람을 불러다 소사(所司)와 한 관리에게 명하여 마침내 축도일승(蜀道一丞?)을 기록하게 했다.

위의 내용이 당태종입명기의 초기형태일 것이다. 이와 같은 환혼(還魂)고사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고사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일은 아직도 관관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6월 4일의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아직도 불교사상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민간설화나 민간전설의 형태로 유전되어지고 있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노신은 《중국소설사략》의 제12편에서 宋의 話本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¹⁷⁾

《당태종입명기》는 처음과 끝이 모두 결여되어 있고 중간만이 겨우 남아 있으며 대개 태종이 建成과 元吉을 죽였기 때문에 생혼이 처벌을 당하는

所司與一官，遂注蜀道一丞。

17) 《中國小說史略》， 제12편 〈宋의 話本〉， p.123을 참조. 원문은 아래와 같다.

「判官燥惡，不敢道名字。」帝曰：「卿近前來。」輕道「姓崔名子玉」「朕當識」言訖，使人引 皇帝至院門，使人奏曰：「伏惟陛下且立在此，容臣入報判官速來」，言訖，使者到廳前拜了，啓判官：「奉大王處 太宗是生魂到領，判官推勘，見在門外，未敢引。」判官聞言，驚忙起立。

일을 기술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조정의 과오를 말하기를 꺼려서 宋朝에 와서야 비로소 성행되었을 것이며 이는 비록 太宗에 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까닭으로 역시 당인의 작일게다.

재미난 사실은 최근에 영국사람 스테인(A.Stein)이라는 사람이 돈황에서 당나라 때의 필사본 두루마리와 서적들을 발견했는데, 그 가운데 변문이 한 편 발견되었는데, 앞과 뒤는 없어지고 중간부분만 남아있는데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관관은 대단히 엄격한 분이어서 감히 (그 분의) 이름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경은 가까이 오라.”하고 말했다. “(관관의)성은 최가이고 이름은 자옥이라 하옵니다.”하고 (저승사자가) 조용히 대답했다. “짐도 당연히 알고 있지.”하고 말했다. 이야기를 마치자, (저승)사자는 황제를 인도 하여 한 건물 앞에 다다라, “폐하 이곳에서 잠시만 기다리소서! 신이 열른 들어가 관관에게 보고하고 돌아오겠나이다.”하고 말씀을 드렸다. 말을 마치자, 사자는 건물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절을 하며 관관에게 보고하며 “대왕의 명령을 받들어 태종황제의 생혼을 모시고 왔으니, 관관께서 물어 볼 일이 있으면 물어 보소서! 지금 문 앞에 기다리시게 하고 감히 안으로 모시고 오지는 못했습니다.”하고 말했다. 관관은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급히 일어났다.

변문에서는 이미 관관의 이름이 성이 최(崔)씨이고 이름이 자옥(子玉)으로 나오고 있다. 우리들은 위징이 용을 죽이고 소개서를 쓰서 최관관에게 보낸 이야기도 파손된 부분에 들어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해보지만 애석하게도 다른 변문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아마도 노신선생이 이 책을 쓸 때까지는 아직도 돈황변문집(敦煌變文集)이 출판되지 않아서 전문을 다 볼 수 없었던 것 같다. 현재 출판된 돈황변문집에는 이 이야기가 실려 있다. 앞뒤가 잘려나가고 결손된 부분이 많아서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어 대단히 안타까웠으나, 다행히 이 방면의 전문가인 高國藩 선생이 최대한 정리를 해서 《中國古代小說總目提要》에 그간의 사정과 본문의 내용을 최대한 정리를 해놓아 그대로 인용을 하면 아래와 같다.¹⁸⁾

18) 「당태종입명기」 돈황 사본이다. 런던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編號는 斯2630호이다. 원문에는 원래 표제가 없으며 작자의 성명도 없다. 누런 종이 위에 쓰여져 있으며 머리와 끝 부분이 모두 떨어져 나가고 겨우 중간부

분만 잔존한다. 원본이 파손이 많이 되어 있어서 대영박물관의 직원들이 복원을 할 때 문장의 순서를 잘못 알아 순서가 뒤바뀌어졌으나, 王慶菽 선생이 자세히 교정을 하고 문장의 뜻에 따라 잘못 붙여진 글자를 바로잡아 《敦煌變文集》에 수록을 하였다. 표제는 왕국유와 노신 등의 견해에 따라 그 후에 붙여졌다. 책이 결손된 부분이 많아 이것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이 글을 쓴 연대를 고증하는 것도 비교적 복잡하다. 斯2630호 寫卷(두루마리)의 말미에 題記가 있는데 “天復六年 丙寅歲閏十二月二十六日記, 善斌書記”라고 적고 있다. 善斌이라는 사람은 이 사권을 베껴 쓴 사람일 것이며 결코 이 사권(變文)을 쓴 작자는 아닐 것이다. 天復은 唐昭宗의 년호이다. 그러나 서기 901년부터 天復으로 바꾸었으나, 다시 904년에 天祐로 바꿈으로서 天復이란 연호는 겨우 삼년동안 사용되었으니, 六年이 있을 수가 없다. 그때 昭宗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인 李柁가 즉위하였으니 곧 哀帝이니 마지막 황제이다. 따라서 天復六年은 天祐三年(906)인데, 아마도 돈황이 사막변방지역이었고, 또 많은 지방 세력들이 할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서 善斌이 이 작품을 베껴 썼을 당시에도 天復이라는 연호를 쓰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906년은 이 작품을 베껴 쓴 해일뿐 이 작품이 쓰여진 연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작품이 쓰여진 연도를 추정할 때는 이 작품의 본문 속에서 단서를 찾을 수밖에 없다. 一, 문장에서 수차례 “太宗皇帝”라는 4자를 쓰고 있는데 :1.“太宗皇帝李某生還” 2.“太宗皇帝生魂到”, 3.“大唐天子太宗皇帝去武德七年”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 《自治通鑒》一九九권 “唐紀”十五에 의하면 “貞觀二十三年八月庚寅일에 昭陵에 장사지냈는데 廟號를 太宗이라고 하였다..” 하고 있는바, “太宗”이라는 호칭을 쓴 것은 太宗이 환혼을 할 당시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쓸 수 있는 호칭이니 아무리 빨라도 高宗이 즉위하고 난 이후의 일일 것이며, 또 李某라고 쓴 것은 태종의 이름을 避諱를 한 것이니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이 작품은 적어도 高宗이 왕위를 계승한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二, 또 작품 가운데 大雲經을 필사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門街西邊寺錄, 講大雲經, 陛下自出幾分錢, 抄寫大(雲經)(문가 서변사에서 대운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속강을 열기도 하는데 폐하께서도 얼마를 내시어 대운경을 필사하시도록 하시지요.)”하는 컷이 있다. 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天授元年(690)에 승려 法明 등 10인이 《大雲經》 4권을 올렸는데, 武則天 “七月辛巳, 流舒王元名於和州, 頒大雲經于天下.(무즉천 7월 신사일에 유서왕 원명이 화주 대운경을 천하에 반포하였다)”하고 적고 있다.(《新唐書·則天皇后》) 唐睿宗 등 6만 여명이 상소를 올려 나라를 바꿀 것을 건의하니 무즉천은 마침내 聖神皇后라고 하였다. 대운경을 반포한 것은 무즉천이 황위에 오른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이니, 여기에 근거하여 《唐太宗入冥記》 天授元年(690)년 이후에 쓰여졌으며 이는 “大雲經”시대를 상징하는 징표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이 문장은 고국번 선생이 《中國古代小說總目提要》에 쓴 원문을 《敦煌變文集》과 대조를 해 본 결과 거의 일치하였으므로 고 선생의 고증문

이 작품에서는 당태종이 저승사자에 인도되어 명부(冥府)의 관청에 도착하여 자신이 살인을 너무 많이 하여 “아무래도 그 죄의 값을 다 치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다시 환생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노심초사하였다.

저승사자는 곧 태종을 이끌고 관청 문 앞에 이르러 길게 소리를 읊었으나 황제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리려고 하지 않았다. 전상에 있는 고위관리가 절을 하여 예의를 갖추라고 하였다. 태종은 :“ 짐이 장안에 있을 때는 단지 다른 사람이 절을 올리는 것을 받기만 했기 때문에 절을 올리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못하겠다. 고 하였다. 또 ”짐은 대 당나라의 천자이고, 염라왕은 귀신무리의 우두머리에 불과한데, 어찌 절을 올리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거부했다. 염라왕은 한 바탕 꾸지람을 듣고 나자, 지옥의 (만조백관들을)보기가 부끄럽고, 여러 신하들을 보기가 민망스러웠다. 마침내 얼굴색이 변하면서 좌우에 분부를 내렸다.

사자는 또다시 태종의 생혼을 인도하여 관관의 사무실 앞에 이르렀는데, 관관은 催子玉이었다. 그는 아직도 양계에서 관직을 가지고 있었고 식솔들만도 오백 여명이나 되어 만약 황제에게 죄를 짓게 되면 전 가족이 몰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황제에게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태종도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사자가 자신의 악행을 이야기할까봐 두려워하였다.

태종은 催子玉을 보자, 李軋風 의 친필서신을 건네주었다. 催子玉은 이전부터 李軋風과 우의가 두터웠기 때문에 태종의 일을 부탁하는 서신을 보냈다. 催子玉이 서신을 다 읽은 후 李軋風이 편지를 쓴 것은 이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쓴 것이라고 말하자, 황제는 그 일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子玉은 황제에게 그를 따라오라고 하였다.

催子玉은 앞에 서고 황제는 그를 뒤따라가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동쪽 담을 따라 돌아 가다가 建成과 元吉 두 왕자가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催子玉은 두 사람이 冥府에서 황제께서 형제를 살해하고 황위에 올랐다고 고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탄원서를 올려 황제를 지옥으로 잡아들여야 한다고 탄원을 했다고 알려주었다. 또 “그들을 만나 보아서 안 된다.”고 말하고, 그를 심사실로 데리고 갔다.

催子玉이 육조관에게 생사문서를 가져오게 하여 보니, 황제는 이미 수명을 다 하였다. 편법으로 이를 고치려 하였다. 催子玉이 마침내 황제에게 5년의 양수(陽壽: 이승에서의 나이)를 더해주자, 황제는 “짐이 장안으로 돌

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하였다.

아가 마땅히 공물을 바치는데 이를 모두 그대에게 주겠노라!”고 허락하였다. 催子玉은 “수명을 더 늘려주면, 변변한 관직 한 자리를 얻을 수 있겠구나.”하고 생각했다. 마침내 황제에게 5년의 양수를 더 늘려주어 합해서 10년을 늘려주었다. 그러나 태종은 또다시 “짐이 장안에 돌아가면 하늘에 돈을 공물로 바치겠는데 마땅히 이를 모두 그대에게 주겠노라!”고만 하는 것이었다.

催子玉은 또 “두 번이나 나에게 돈과 물건을 공물로 보내겠노라고 약속을 하면서도 관직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네.”하고 생각하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태종이 子玉에게 빨리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子玉은 “太宗皇帝는 어찌하여 지난 武德7년에 궁전 앞에서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를 후궁에 가두었는고?”하고 묻고 고개를 들고 답을 하게 하니, 태종은 그만 절구방망이로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고 근심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런 틈을 타서 催子玉이 자신도 이승에서 높은 벼슬을 한 자리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자, 태종은 근심이 사라지고 웃음을 띠면서 “경은 왜 빨리 말을 하지 않고 뭘 그리 꾸물거렸는가?”하고 말했다. 드디어 催子玉을 蒲州刺史 겸 河北二十四州의 採訪使 에 봉하고 관이 어사대부에 올랐으며, 紫金魚袋를 하사하고 蒲州현 창고에서 돈 2만관을 催子玉의 집에 내리도록 하였다.

떠날 때가 되자, 태종에게 장안으로 돌아가면 천하에 대 사면령을 내리고 大雲經을 강설하고 大雲經을 필사하도록 하라고 부탁을 했다.

太宗이 배가 몹시 고프다고 말하자, 催子玉은 “폐하 배가 고프시면, 신이 당연히 가서 밥을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곧 밖으로 나가서 좌우를 둘러보며 분부를 하였다.

이 글은 앞뒤가 다 파손이 되어 있어서 제11회의 “進瓜果劉全續配 (유진이 지부에 호박을 전달하는 이야기)”와 제10회의 “老龍王拙計犯天條 魏丞相遺書託冥事(늙은 용왕이 졸속한 계책으로 하늘에 죄를 지어, 위승상이 꿈속에서 경하용왕을 처형하다.)”등이 더 들어 있을지 함부로 추측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지금 남아 있는 부분만을 가지고도 지부의 판관이 최자옥(催子玉)이며 그의 친구인 이 건풍(李軌風)(서유기에서는 위징으로 나온다. 이름만 다를 뿐 역할은 완전히 같다.)이 편지를 쓰서 황제를 환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저승에서 建成과 元吉 두 왕자가 황제에게 원한을 품고 고발을 하는 일 및 마지막으로 저승을 떠나올 때 대 사면령을 내리고 大雲經을 강설하고 大雲經을 필사하도록 하라고 부탁을 하는 일 등 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 서유기나 다음에 이야기할 서유기전(사유기중 西遊記傳)에 나오는 당태종입명기의 기본골격을 다 갖추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 변문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인 이승의 황제인 당태종과 저승의 왕인 염라대왕이 절을 하는 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는 사건과 그리고 판관인 최자옥과 황제인 당태종간에 명부를 고치는 문제를 놓고 흥정을 벌이는 사건은 대단히 재미있고 묘사도 뛰어나다.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는 민간문학의 소재로 대단히 훌륭한 소재이지만 소설 서유기에서는 이 부분은 모두 빠지고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취경고사의 단서를 제공한 신성한 태종 황제의 인격이 훼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빼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또 서유기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의 하나로 취급되어지는 위징이 경하의 용와을 목베는 이야기를 대단히 비중이 있게 다루고 있고, 또 당태종이 지부(地府)를 여행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된 삼조대안(三曹對案)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당대 변문이 유행할 당시까지는 아직도 이 이야기가 서유기의 이야기에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특히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은 “떠날 때가 되자, 태종에게 장안으로 돌아가면 천하에 대 사면령을 내리고 大雲經을 강설하고 大雲經을 필사하도록 하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유기의 중심고사인 제13회부터 제100회까지의 취경고사가 가능하게 한두 축 가운데 한 축인 당태종이 저승을 여행하고 나서 윤회와 인과응보의 사상을 체험하고 드디어 선행을 쌓기 위해서 수륙대회를 열고 관음보살의 권유를 받아들여 불경을 구하러 천축으로 현장스님을 보내는 이야기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 불교의 현지화 토착화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띤다.

다음으로는 명초의 소설인 사유기에 보이는 당태종입명고사를 살펴보자. 참으로 아쉬운 것은 四遊記가 나오기 전 단계인 송대의 《大唐三

藏取經詩話》와 금원대의 희극대본인 《大唐三藏西天取經》에서는 당태종입명고사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몰라 무척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하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여기에서는 다음의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다. 노신선생은 소설 四遊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¹⁹⁾

이런 소설을 모아서 집성한 것으로 오늘날 《四遊記》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데, 이 책은 모두 4종이며 저자는 3인으로 누가 編定한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오직 각본의 모양을 보아서 明代에 나온 것이 틀림이 없다. 그 중 하나는 《上洞八仙傳》인데 또 《八仙出處東遊記傳》이라고도 하며, 2권 56회로 되었고, “蘭江 吳元泰著”라고 하였다. 이 傳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그 중 둘째는 《五顯靈官大帝華光天王傳》으로 곧 《南遊記》이며, 4권 18회로 되어 있고 “三台山人仰止 余象斗編”이라고 제하였다. ……

그 중 셋째는 《北方真武玄天上帝出身志傳》이라고 하는 것인데, 곧 《北遊記》이며, 4권 24회로 되었고 역시 余象斗가 編한 것으로 真武의 내력과 成道降妖한 일을 기술하고 있다……

그 중 넷째는 《西遊記傳》으로, 4권 41회로 되어 있고 “齊雲 楊志和編, 天水 趙景真校”라 題하였으며, 孫悟空이 得道하고 唐太宗이 入冥하며 현장이 詔에 응하여 經을 구하러 가다가 도중에서 난을 만나지만 결국엔 西土에 이르러 經을 구해 가지고 東歸하는 일을 서술하고 있다.

《서유기》의 제10회 “唐太宗陰司脫罪(태종이 저승에서 죄를 벗다.)”라는 부분은 그렇게 길지 않으므로 이를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²⁰⁾.

각설하고 태종은 위징과 바둑을 두는데, 막 오시 삼각이 되었을 때, 위징이 갑자기 잠에 빠져들었으나, 태종은 그를 깨우지 않았다. 금방 위징이 깨어나서는 땅바닥에 엎드리어 “신이 그만 깜빡 졸았습니다. 폐하 용서해 주시옵소서!”하고 말했다. 태종이 “과인은 별하지 않을 것이다.”하고 대답을 하였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진숙보 등이 용의 머리 하나를 들고 들어와서는 황제 앞에 내려놓았다. 태종이 “이게 무엇이나?”하고 물었다. 숙보는 “사거리에 용머리 하나가 떨어져 있었는데, 신이 보고를 드리지 않

19) 정범진 역, 《중국소설사략》, p.172 참조.

20) 明·吳元泰 等, 《四遊記》(北京: 中國戲劇出版社), p.166 참조.

을 수 없어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하고 대답했다. 당왕은 위징에게 물었다. 위징은 고개를 조아리며 “이것은 경하의 늪은 용입니다. 하늘에 죄를 지어 천병들에 의해 참용대에 묶여 있었는데, 옥제께서 저에게 명령서를 보내 참하라 하므로, 신이 잠깐 꿈을 꾸는 사이에 가서 목을 베었기 때문에 목이 허공에서 떨어진 것입니다.”하고 대답했다. 태종은 이야기를 듣고서 몹시 무서웠으나 억지로 참으면서 그 것을 시가지에 가지고 가서 내걸어 백성들에게 보이려고 명령을 내렸다. 그런 후 모든 신하들은 다 퇴권하고, (태종은) 몹시 우울해져서 내전으로 돌아오니 몸이 약간 피곤한 듯하였다. 그날 밤 이경이 되었을 때, 몽롱하게 잠이 든 듯하였을 때, 그 용왕이 나타나 “태종아 나를 살려내라!”하고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길길이 날뛰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관음보살이 나타나 고함을 치며 내쫓자, 그 용왕은 지름길로 저승에 가서 이 일을 고발하였다. 각설하고 태종이 잠에서 깨어나니, 온 몸에 땀이 범벅이 되어, “귀신이다!”하고 소리를 질러 되었다. 궁녀들과 환관들은 놀라서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날이 밝아 백관들이 출근을 하여보니 대전에 태종은 보이지를 앓고 태후가 의관을 불러들이는 소리를 듣고서 비로소 태종이 병환이 낫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나흘이 지나고 나서 중신들이 의관들에게 무슨 병이냐고 물었다. 의관은 “이미 맥박이 정상이 아닙니다. 아마도 쾌차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하고 대답했다. 중신들은 깜짝 놀랐다. 갑자기 태후께서 성지를 내려 徐茂公、鄂國公、護國公은 안으로 들라고 하였다. 삼공이 성지를 받들어 입궁하여 예를 마쳤다. 태종은 “짐의 침소 문밖에 귀신과 요정들이 있어 밤만 되면 떠들어 다니니, 짐은 참으로 두렵다.” 하고 말했다. 숙보가 “폐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엔 신과 경덕이 문에 파수를 서며 어떤 귀신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말했다. 그날 저녁에는 두 사람이 갑옷을 차려 입고 문 앞에서 파수를 섰으므로 태종은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다. 이렇게 며칠을 계속하자 태종은 두 장수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화공을 불러 두 장수의 모습을 그리게 하여 문 위에다 붙여 놓으니 그날 밤도 역시 편안하고 무사했다. 하루 이틀이 더 지나 다시 후문 위에서 벽돌과 기왓장을 부수는 소리가 나서 다시 위징의 모습을 그려 붙이자 앞뒤 문이 모두 다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었으나,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금방이라도 곧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다. 위징이 “폐하! 신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어 폐하를 오래도록 사시게 할 수 있습니다.”하고 말했다. 태종이 “병이 이렇게 위중한데 무슨 방법이 있겠소?”하고 물었다. 위징이 “신에게는 崔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현재 鄴都관관을 지내고 있는데, 꿈속에서 항상 신과

만나고 있습니다. 신이 쓴 편지를 폐하께 드릴 터이니, 저승에 가지고 가셨다가 그에게 전해주시기만 하면 틀림없이 폐하께서 이승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놓아 주실 것입니다.”하고 말했다.

태종은 그 것을 받아서 소매 자락에 넣고는, 그만 눈을 감고 숨을 거두었고, 영혼은 저승으로 갔다. 가다가 보니 풀밭 속에 한 사람이 길가에 꿇어 엎드려서 “폐하! 신이 멀리 마중을 나가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태종이 “그대는 뉘신가?”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신은 성이 崔(최)이고 이름은 瑊(간)이라고 하옵니다. 이승에 있을 때는 폐하의 승상인 위징과 절친한 친구로 지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태종은 이야기를 듣고서 몹시 기뻐하며 “먼 곳까지 마중을 나오게 해서 미안합니다. 짐이 떠나올 때 위징이 편지를 써주면서 꼭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태종이 편지를 건네자, 최각이 펴서 읽어보았는데, 그 것은 수를 널려달라는 부탁이었다. 최각은 “폐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이 폐하를 이승으로 모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말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십왕(十王: 저승에 있는 10명의 대왕)이 달려 나오면서 영접을 했다. 태종이 상견례를 마치고 주인과 객이 각자 자리를 나누어 앉았다. 진광왕이 두 손을 마주잡고 공손히 “폐하! 경하의 늙은 용왕이 폐하께서 살려주마고 허락을 하시고서 도로 죽었다고 고발을 해 왔는데, 어찌된 일입니까?”하고 물었다. 태종이 “짐이 꿈을 꾸는데 용왕이 나타나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기에 그러마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짐이 위징을 불러 바둑을 뒀는데, 순식간에 그가 꿈을 꾸는 듯 하더니 그만 참수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인조관의 출입이 신출귀몰한 것 때문이었고, 또 그 용왕은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이므로 짐의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고 답했다. 십왕들은 듣고 나서, 최판관에게 가서 명부(命簿)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판관이 얼른 사무실로 돌아와 명부를 살펴보니 태종은 정관 13년에 죽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최판관은 붓에 먹을 듬뿍 찍어 일자 위에다 두 획을 더하여 명부를 가져다 바쳤다. 십왕들이 (명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죽 살펴보니 태종의 이름 밑에 삼십삼년(三十三年)이라고 적혀 있었다. 십왕이 “폐하 이미 십년이 지났으니, 아직도 이십년이 더 남았습니다, 이승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하고 말했다. 태종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허리숙야 감사를 표했다. 십왕은 최판관과 주태위(朱太尉)를 시켜 태종의 영혼을 환혼하라고 하였다. 태종이 다시 궁중의 가족들의 안부를 물으니, 십왕은 “다른 사람은 모두 아무 일 없으나, 누이만은 목숨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고 하였다. 그래서 태종은 마침내 재배를 하며 “이승으로 돌아가면 아무 것도 드릴만한 것이 없으니 호박이라도 붙여

드리겠습니까.”하고 감사를 표시했다.

태종이 십왕과 이별을 하자, 그 태위는 인혼변을(引魂幡) 들고 앞에 서고, 최각은 임금의 뒤를 따랐다. 태종이 고개를 들어 앞을 한번 바라보니 지난 번 온 그 길이 아니었으므로 “이 길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관관은 “틀리지 않습니다. 저승에는 들어오는 길만 있고 나가는 길은 없습니다. 지금은 전륜전에서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고 대답을 하였다. 태종이 그들을 따라 길을 가다보니 음산 등 십팔층 지옥을 지나고 다시 내하교(奈何橋)를 지나 마침내 왕사성(枉死城)에 도착하니, 온통 머리가 없고 목이 없는 귀신들이 득실거리며 그의 앞길을 막아섰다. 태종은 그만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최선생! 어찌하면 좋단 말이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 관관은 “괜찮습니다! 저들은 그 64번의 치열한 전투와 72번의 원정전투에서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옵니다. 폐하! 돈이나 몇 푼 주어서 보내버리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하고 말했다. 태종은 “과인은 빈손이라 땡전 한 푼 가진 게 없다.”하고 대답했다. 관관은 “하남 개봉부에 상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금은을 보관한 창고를 열세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폐하! 차용증을 쓰고 그에게 빌려 쓰시고 나서 이승으로 가서 갚도록 하십시오.”하고 말했다. 태종은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차용증을 써주고 한 창고를 빌리니, 관관이 이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돌려보내었다. (관관이) “폐하 이승으로 돌아가시거든, 다시 수륙대회를 여시고 저들의 지할 데 없는 외로운 영혼들을 제도하십시오!”하고 말했다. 마침내 여러 귀신들이 모두 흩어졌다. 관관은 태위에게 인혼변을 흔들면서 왕사성을 지나가라고 명령을 내렸다. 어디로부터 (저승을) 빠져나갔는지를 알려면 다음의 이야기를 기대하십시오.

위징은 꿈속에서 용왕의 목을 베니, 태종은 그 재앙을 막아내지 못 했네. 늙은 용은 분노해 저승에 고발을 하니, 당왕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다. 다행히 관관 최각의 도움을 얻어 이승의 수를 더해 다시 돌아 왔네. 오는 길에 원혼들이 길을 막아 많은 돈을 빌려서 목숨을 샀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서유기 11회의 전반부의 줄거리를 잘 정리를 해 놓은 것 같다. 다른 어떤 설명보다도 서유기에서 태종이 저승을 다녀와서 신하들에게 자신이 다녀온 경과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과 직접 비교를 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 그 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짐은 그날 위징이 전해 달라는 편지를 받아들이고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궁문을 나섰는데 우림군이 사냥을 가기 위해 짐을 기다리고 있었소. 그런데 한참 나아가자 별안간 우림군의 종적은 간곳없이 사라지고 이미 승하하신 부왕과 짐의 형제들이 나타나 짐을 못살게 구는 것이었소. 때마침 검은 빛 모자에 검은 빛 옷차림의 관관 최각이 나타나 그들을 쫓아버리고 짐을 구해주었소. 짐은 인혼변을 든 두 검은 옷차림의 동자들에게 안내를 받아 삼라전에 들어가 10대 염왕들과 만나게 되었소. 염왕들의 말이 경하의 용왕이 상소한 바에 따르면 짐은 용왕을 살려 주마 하고서 도리어 그의 목을 베었다 하니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였지. 그래서 짐이 염왕들에게 사실대로 말을 했더니, 염왕들은 그것으로 삼조대안이 끝났다면서, 짐의 수명을 알아보기 위해 명부를 가져오게 하는 거였소. 최관관이 가져다주는 명부를 보니 짐은 33년 동안의 천록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겨우 13년이 지났으니, 아직 20년의 수명이 남아있는 셈이었소. 그 것을 본 염왕들은 즉석에서 주태위와 최관관더러 짐을 이승으로 돌려보내게 하는 거였소. 짐은 염왕들과 작별을 하면서 과일들을 보내 은혜를 갚겠노라 약속을 했소. 그 길로 삼라전을 나와 지옥을 지나며 보니 까 불효불충을 했거나 예의를 모르거나, 오곡을 함부로 천대했거나, 남을 업신여겼거나, 저울눈을 속였거나, 간음과 사기행위를 했거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한 무리들이 거기서 온갖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수가 몇 천 몇 만인지 헤아릴 수가 없었소. 또 왕사성을 지나려니까 수많은 원혼들이 짐의 앞길을 가로막는데 그것들은 모두가 64개 처의 명란과 72개 처의 적란에서 죽은 망령들이었소. 다행히 최관관을 보증인으로 부탁해 하남땅의 상량이라는 노인으로부터 돈 한 곳간을 빌려, 그 망령들을 매수한 결과 가까스로 그곳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소. 그런데 최관관은 거기서 짐에게 작별을 고하며 이승으로 돌아가거든 반드시 수륙대회를 열어서 주인 없는 고혼들을 구제해 주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거였소. 나중에 육도윤회의 네거리로 나서자 주태위가 짐을 말 위에 태우기에 짐은 쏜살같이 내달렸소. 한참 만에 위수하 기슭에 이르러보니 물 위에 한 쌍의 잉어가 노닐고 있어서 짐은 잠깐 그 것을 구경하고 있었소. 그런데 주태위가 짐을 발로 차서 물에 다 밀어 넣는 바람에 짐은 이렇게 되살아나게 되었소.

위와 같은 발전 과정을 거쳐서 당태종입명기의 고사는 점점 더 당태종이 윤회사상과 인과응보를 깨달아 불사를 열게 되고 그 인연으로 수

륙대회를 열게 되는데 관세음보살이 현성을 하여 당태종을 인도하여 대승법을 구하러 현장스님을 천축으로 파견하게 하고, 관세음보살의 인도로 현장스님이 불경을 구해오는 이야기로 굳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에서 이 글의 주제와는 다소 동떨어지지만 다시 한 번 서유기의 예술적 성과와 작가 오승은의 역할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고사의 내용은 천여 년을 내려오면서 거의 즐거리가 고정되어졌다는 점이다. 이 작품의 최대의 장점은 그 해학성에 있다. 물론 설화인(說話人)이나 잡극의 배우들에 의해서 상당부분 원형이 갖추어져 있지만 그 것을 소설체의 문자로 정착시킴에 있어 모든 것을 익살로서 풀어내고, 그 익살을 통해 인물의 전형화와 사건의 형상화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 작품의 특징이고 작가가 거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取經因緣과 取經人物에는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

첫째, 역사 속에서는 현장스님이 스스로 경을 가지러 가겠노라고 신청을 하였으나, 공문을 내려 허락을 하지 않았으나, 불굴의 의지로 경을 구해가지고 돌아온다. 그러나 소설 서유기 속의 현장 스님은 당태종이 경을 가지러 갈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현장스님이 그곳에 자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당태종은 주동적인 위치에 서게 되고 현장스님은 피동적인 위치로 밀려나게 된다. 취경사업은 독실한 학승인 현장스님의 개인적인 사업에서 선행을 행하여 선업을 쌓으려는 국왕인 당태종에 의해서 실행에 옮겨진 국가사업으로 승격을 하게 되며, 현장스님은 국왕의 명을 받들어 국가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수많은 신하중의 한 명으로 그 역할이 축소되어지고 만다.

둘째, 역사 속의 현장스님은 경문(經文)의 뜻이 분명하지 않아 여러 가지 이설이 분분하여, 원문경전을 구해오기로 굳게 결심을 했다. 그러

나 소설 속에서는 “ 내게 있는 삼장진경은 하늘에 대한 법과 법(法)장과, 땅에 대한 논(論)장, 그리고 영혼에 대한 경(經)장이다. 삼장진경은 통틀어 서른다섯 부로 1만 5천 1백 44권이나 된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이치를 깨닫는 길이 될 것이며 선으로 돌아가는 올바른 문이 되리라. 나는 이것을 저 동녘 땅에 전해주고 싶지만 험악하게도 그 곳의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진언을 헐뜯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법문의 참 뜻을 모르며, 유가(瑜伽)의 정종(正宗)을 깔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법력이 있는 신선을 하나 동녘 땅에 보내 착한 사람 하나를 골라, 그더러 수륙 만리의 고초를 겪으면서 내게로 오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삼장경서를 동녘 땅에 가져다가 중생들에게 가르쳐 그들을 널리 감화시킨다면 그것은 실로 산에다 비길만한 복덕이요, 바다에다 견줄만한 경사일 것이다. 그런데 그대들 가운데 누가 한 번 다녀올 사람이 없는가?” 하는 부처님의 서원에 따라 관세음보살이 안배를 하고 실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역사적인 인물의 전기에서 완전히 종교적인 소설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다.

셋째, 역사 속에서의 현장스님은 원작, 연출, 주인공 등을 모두 혼자서 도맡은 모노드라마의 주인공이지만, 소설 속에서는 부처님이 원작을 쓰고 관세음보살이 연출을 맡고, 손오공이 주연을 하는 잘 짜여진 드라마의 속의 한 조연으로 전락을 하고 만다. 그 것은 서유기라는 소설이 종교소설이라는 것을 거꾸로 증명을 해 준다. 그 결과 취경고사가 나오기까지의 인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손오공은 단독으로 제1회부터 제7회까지 전체와 제8회의 일부분인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현장스님은 기껏해야 제9회 전체와 제12회(제11회 끝부분 포함)의 부분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그 역할에 있어서 현저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으며, 저팔계, 사오정, 용마 등은 제 8회의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취경고사에서의 역할도 그와 꼭 같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大唐西域記》와 《大唐慈恩寺三藏法師傳》 등에 나오는 역사 속의 인물인 현장스님의 개인적 영웅적 취경고사가 소설 《西遊記》 속의 가공인물인 현장스님의 81년 고사로 바뀌는 과

정 속에서 위에 든 세 가지의 큰 질적인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11회의 당태종입명고사는 제8회; “我佛造經傳極樂 觀音奉旨上長安”(여래는 경서를 지어 극락을 전도하고, 관음은 성지를 받들어 장안길을 떠나다.)의 고사와 함께 작품의 주제를 종교적인 내용으로 탈바꿈시키고 인물과 사건 및 배경 등의 구성에 있어서도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그 이론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參考文獻]

1. 明·吳承恩, 《西遊記》(臺北:河洛圖書出版社, 1980).
2. 吳承恩 原著, 小典 批點, 《西遊記》(江蘇省江: 蘇古籍出版社, 1992).
3. 오승은, 안의운 옮김, 《西遊記》(서울: 삼성출판사, 1994).
4. 明·吳元泰 等, 《四遊記》(北京: 中國戲劇出版社).
5. 魯迅 撰, 郭豫適 導讀, 《中國小說史略》(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6. 魯迅, 丁範鎮 譯, 《中國小說史略》(서울: 學研社, 2003).
7. 楊家駱 主編, 《敦煌變文》(臺北: 世界書局, 1980).
8. 郭在貽 等, 《敦煌變文集校議》(湖南: 岳麓書社, 1990).
9. 蘇興, 《西遊記及明清小說研究》(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10. 李時人, 《西遊記考論》(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91).
11. 孫楷第, 《中國通俗小說總目提要》(天津: 中國文聯出版公司, 1991).
12. 劉世德 主編, 《中國古代小說百科事典》(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3).
13. 唐·玄奘、辯機 原著, 季羨林 等 校注, 《大唐西域記校注》(北京: 中華書局, 1985).

[中文摘要]

西遊記的中心故事雖然是玄奘的取經，但是著者的想像力真不小！他得了玄奘的故事的暗示，採取了金元戲劇的材料，加上他自己的想像力，居然造出一部大神話來！這部的結構，在中國舊小說之中，要算最精密的了。他的結構共分作三個部分：

第一部分：齊天大聖的傳(第一回至第七回)

第二部分：取經因緣與取經的人(第八回至第十二回)

第三部分：八十一難的經歷(第十三回至第一百回)

第一部分是世間最有價值的神話文學。大鬧天宮的孫悟空是挑戰玉帝權威的反抗英雄。西遊記故事的母胎，《大唐西域記》和《大唐慈恩寺三藏法師傳》都沒有這些故事，很可能是作家用想像力而創造的。第三部分是取經故事。這個部分的來源有四個。第一個來源自然是《大唐西域記》和《大唐慈恩寺三藏法師傳》的記載。第二個來源是南宋或元初的《大唐三藏取經詩話》和金元戲劇裏的《唐三藏西天取經》故事。第三個來源是最古的，是華嚴經的最後一大部分，名為〈入法界品〉的。第四個來源自然是作家的想像力和創造力了。取經故事皆是根據玄奘的歷史的事實而發展的。第一部分大鬧天宮和第三部分取經故事之間有不可逾越之溝，但是有第二部分作個橋梁的作用。一，孫悟空的角色判若兩樣，一是反抗英雄，一是虔誠的修行者，有釋迦牟尼佛招伏猴王、五行山下壓抑了五百年、按排合流取經隊伍而終於證得正果以成佛(第七回末、八回)，西遊記變為一部宗教小說。二，取經故事的主人翁由玄奘轉為孫悟空，這一轉變作出決定的作用的就是唐太宗入冥故事。所有過程雖然皆是由釋迦牟尼佛寫劇本、由觀世音菩薩當做演出，但是這個轉變的主角就是唐太宗，變化的中心有入冥故事，因此玄奘個人的取經事業變為國王主管的國家事業，玄奘由取經事業的偉大的主人翁轉變為忠誠於國王的被動的配角。

중심어: 取經故事, 大鬧天宮, 唐太宗入冥故事, 玄奘, 孫悟空, 觀世音菩薩

中國近體詩法論(律詩)**

高八美*

〈목 차〉

1. 머리말	(1) 押韻規則
2. 平仄	(2) 押韻種類와 形式
(1) 平仄格式	4. 對仗
(2) 粘對法	(1) 對仗規則
(3) 拗救法	(2) 對仗種類와 屬對方法
(4) 孤平과 三平調	5. 맺음말
3. 押韻	

1. 머리말

중국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詩經》을 보면, 한 句가 2言부터 8言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고, 한 편의 시에서도 여러 句式이 섞여 나타나며, 句數도 일정하지 않다. 그러던 것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고유의 시가체제가 형성된다. 이러한 詩體는 唐代 이후로 몇 가지 格律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近體詩가 등장하면서 이전의 시를 古體詩라고 하여 近體詩와 구분하게 되었다. 近體詩의 기본적인 특징은 平仄相對、對仗工整、音韻和諧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중국어가 形、音、義를 갖춘 單音節語이며 高低昇降의 변화가 있는 聲調語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탄생된 詩體이다. 齊梁시기 周顒(473전후)이 四聲을 발견하고, 沈約(441~513)이 이를 시가의 聲律에 운용하면서 “四聲八病”설¹⁾을 제기하고, “永明”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1) 沈約은 중국어의 성조를 平聲、上聲、去聲、入聲의 四聲으로 분류하고, 시가

體²⁾를 창작하면서 近體詩로 나아가는 표지가 되었다.³⁾ 初唐에 이르러 上官儀(608~664)는 對仗방법의 八對⁴⁾를 정리했고, 그 후 沈佺期(?~713전후)、宋之問(?~713전후)은 격률시의 형식을 확정했다. 이로 부터 格律詩는 중국고대시가의 가장 중요한 詩體形式이 되었고 古體詩와도 명확히 구분지어 졌다. 近體詩의 格律은 중국 시인들이 구현하고

를 창작할 때 四聲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음성의 조화를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여덟 가지 병폐로 ‘平頭’、‘上尾’、‘蜂腰’、‘鶴膝’、‘大韻’、‘小韻’、‘旁紐’、‘正紐’를 지적하여 八病이라고 하였다. 平頭는 한 聯의 上句 첫 두자와 下句 첫 두자의 평측이 相同한 것이고, 上尾는 한 聯에서 上下 두 句의 끝자의 평측이 相同한 것이다. 蜂腰는 한 구에서 앞 두 자와 뒤 두 자가 仄聲이고 가운데가 평성이며, 제2자와 제5자의 평측이 같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鶴膝은 한 구에서는 앞 두 자와 뒤 두 자는 평성이고 가운데 한 자가 측성이며, 첫 구의 제5자와 제3구의 제5자는 同聲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大韻은 한 구에서는 앞 두 자는 끝 글자와 同韻 同聲調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小韻은 한 구에서는 끝 자 외에 다른 4자는 同韻 同聲調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旁紐는 한 구에서는 隔字 雙聲이 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正紐는 한 구에서는 紐중의 두 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 2) 《梁書》「庾肩吾傳」：“齊永明中，文士王融、謝朓、心約文章，始用四聲，以爲新變。(제나라 영명시기에 왕용, 사조, 심약 등의 글에 처음으로 사성을 사용하고 새로운 변화라 하였다.)” 이는 沈約、王融、謝朓 등이 詩作에서 聲律을 중시하여 근체시의 격률에 가까워지는 시를 썼다는 말이다. 후세 중국문학사에서 이때의 새로운 시체를 그 시대 齊 武王의 연호인 永明(483~493)을 따서 “永明體”라 부른다.
- 3) 沈約은 《宋書》「謝靈運傳論」에서 四聲을 시가에 어떻게 운용하는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夫五色相宣，八音協暢，由乎玄黃律呂，各適物宜，欲使宮羽相變，低昂互節，若前有浮聲，則後須切響，一簡之內，音韻盡殊：兩句之中，輕重悉異，妙達此旨，始可言文。(오색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팔음이 서로 화음을 이루는 것은, 색채와 음률이 제각기 사물의 규율에 들어맞기 때문이다. 宮羽를 서로 변화시키려면, 低昂을 서로 조절해야 한다. 만약 앞에 浮聲이 있으면, 뒤에는 반드시 切響을 두어야 한다. 한 구 안에서 음과 운이 모두 달라야 하고, 두 구 안에서 輕重이 모두 달라야 하니, 이러한 이치에 통달해야 비로소 문장을 논할 수 있다.)”
- 4) 八對에는 ‘的正對’(예: “送酒東南去，迎琴西北來”)、‘異類對’(예: “風織池邊樹，蟲穿葉上文”)、‘雙聲對’(예: “秋露香佳菊，春風馥麗蘭”)、‘疊韻對’(예: “放蕩千般意，逍遙一介心”)、‘聯綿對’(예: “望日日已晚，懷人人不歸”)、‘雙擬對’(예: “議月眉欺月，論花頰勝花”)、‘回文對’(예: “情親由得意，得意遂情親”)、‘隔句對’(예: “相思復相憶，夜夜淚沾衣。空悲亦空歎，朝朝君未歸”)같은 것이다.

자 했던 整齊性, 音樂性, 對稱性 등을 고루 갖춘 定型詩의 최종 결과물이며, 이를 격률시라고도 한다.

近體詩에는 絶句, 律詩, 排律의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全篇이 여덟 句로 이루어지는 律詩는 整齊美, 音樂美, 對稱美를 고루 갖춘 중국 최고의 시가형태라고 일컬어지며 “서양의 문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국적인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고,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중국 순수예술의 대표”⁵⁾라고 평하고 있다. 律詩의 격률은 全篇이 여덟 句로 이루어지며, 한 句가 다섯 자로 이루어진 五言律詩와 일곱 자로 이루어진 七言律詩 두 종류가 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요구되는 格律이 더 있다. 각 句는 제2, 4, 6 자의 平仄을 엇갈리게 써야 하고, 句와 句 사이에는 平仄이 對 또는 黏을 이루어야 하며, 중간의 두 聯, 즉 頷聯과 頸聯에는 對仗을 이루어야 하고, 韻을 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해진 句數나 字數는 확연하여 더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平仄聲律과 對仗規則, 그리고 用韻의 요구사항 등 까다로운 格律은 다시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律詩의 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律詩의 格律을 平仄, 押韻, 對仗으로 나누어 심층 분석하여, 중국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중국최고의 순수예술이라고 칭송하는 율시의 묘미를 탐색하고 율시의 격률을 이해하려 한다.

2. 平仄

近體詩의 平仄은 聲調와 관계된다. 上古시대에는 오직 平聲과 入聲 두 성조만 있었으나, 魏晉시기에 聲韻學이 일어나면서 한자의 성조에 대한 구분이 精微해져 平聲, 上聲, 去聲, 入聲의 四聲이 생겼다. 平聲은 長音으로 음 높이가 평형을 이루고, 仄聲은 短音으로 음 높이가 굴절과 기복을 이루는 上, 去, 入 三聲을 말한다. 元나라 때에는 入聲이 소실되어 入聲字는 平聲이나 上聲 또는 去聲으로 분화 귀속되었고, 平聲은 다시 陰平과 陽平으로 나뉘었다. 현대중국어의 성조는 약간의 글자들에서

5) 聞一多, 《聞一多全集》 제3권, p.415.

만 읽는 음이 다를 뿐⁶⁾ 대부분은 陰平이 제1성, 陽平이 제2성, 上聲이 제3성, 去聲이 제4성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元代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근체시의 平仄이 비록 중고음의 平, 上, 去, 入聲을 기준으로 하지만, 현대중국어음으로 본다면 平聲은 제1성과 제2성을 포괄하고, 仄聲은 제3성과 제4성을 포괄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陰平과 陽平으로 귀속해 들어온 中古音의 入聲字를 현대중국어음에서는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韻書를 찾아야하고 이것이 平仄을 판단하는 가장 힘든 점이다. 다만 중국남방의 浙江、福建、廣東、廣西 등지에서는 아직도 入聲字를 보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한자음에서도 아직 入聲字가 그대로 보존돼 있다.⁷⁾

(1) 平仄格式

오언율시와 칠언율시는 각각 仄起式과 平起式의 기본적인 平仄格式이 있다. 이는 首句 둘째 字의 平仄을 기준으로 하여⁸⁾ 둘째 字가 平聲

-
- 6) 예를 들면, “斜”를 당나라 때의 음으로는 “xiá”라고 읽었고, “夜”를 “yà”로, “蛇”를 “shá”로 읽는 등 성조가 현대 중국어와 다른 글자들이 있다. 때문에 고인들의 음을 알아야 고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 7) 우리나라 한자음의 終聲이 -k, -t, -p, -l 로 끝나면 이는 중국 중고음의 입성자이다. 즉 한자음의 받침에 ㄱ, ㄷ, ㄹ 이 있으면 입성자라는 말이다. 예를 들면, 學、屋、燭、覺、泣、濕、入、褐、忽、沒 …… 등이다.
- 8) 왜 하필이면 둘째 字를 기준으로 하는가? 이는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 원인은, 둘째 字를 기준으로 다른 각 글자의 平측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平측 교체 원칙에 따르면 제2자가 측성이면 이어지는 다음 음절은 반드시 平聲으로 한다는 것이다. 둘째 원인은, 제2자는 음절의 關鍵이 되는 위치로 平측이 가장 고정되기 때문에 시의 격률규정을 제2자가 기준이 되도록 하였던데, 그 까닭은 한자음절의 구성과 관계가 있다. 음절은 音步라고도 하는데, 이는 시구의 단어를 구성하는 절주단위를 말한다. 보통 시 한 구는 2개 이상의 단어가 조합돼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단어가 마디마디 이어질 때 음절도 단음절과 쌍음절로 나뉘게 된다. (예를 들면 平平-측측-평평-측, 측측-평평-측측-평) 그래서 시를 읽을 때는 음절과 음절사이에 약간의 휴식을 주어야 하며, 그렇게 해야 절주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한자는 두 자가 한 단어를 이루는 쌍음절이 기본이기 때문에 음절에 근거해서 시구의 聲節도 兩平이나 兩仄이 기본단위가 되었다. 또한 쌍음절 독음은 제2자의 음에 중심

이면 平起式, 仄聲이면 仄起式이 된다. 일반적으로 五言律詩는 仄起式이 正格이고 平起式은 變格이며, 七言律詩는 반대로 平起式이 正格이고, 仄起式이 變格이다. 또한 오언율시는 首句에 韻을 넣지 않는 것이 正格이고, 운을 넣으면 變格이 되며, 칠언율시는 반대로 首句에 韻을 넣는 것이 正格이고, 운을 넣지 않으면 變格이 된다. 먼저 五言律詩 正格인 仄起式을 보면,

(仄)仄平平仄, 平平仄仄平.
 (平)平平仄仄, 仄仄仄平平.
 (仄)仄平平仄, 平平仄仄平.
 (平)平平仄仄, 仄仄仄平平.

괄호 안은 平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예로, 杜甫의 「春望」시를 보면,

丨丨一一丨 一一丨丨一
 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
 一一一丨丨 丨丨丨一一
 感時花濺淚, 恨別鳥更心.
 丨丨一一丨 一一丨丨一
 烽火連三月, 家書抵萬金.
 一一一丨丨 丨丨丨一一
 白頭搔更短, 渾欲不勝簪.⁹⁾
 (‘一’는 平聲, ‘丨’는 仄聲을 가리킴)

이 있기 때문에 격물시의 평측도 제2, 4, 6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중 특히 제2자가 가장 엄격하다. 제4, 6자는 어떤 경우에는 拗救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평측도 바뀔 수 있지만, 제2자는 절대 바뀌는 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제2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 9) “나라는 깨어져도 산하는 여전하여, 장안성은 봄이 되니 초목이 우거졌네. 시국이 서러워 꽃을 봐도 눈물 나고, 이별이 애달파 새소리에 마음 놀라네. 봉황불 연이어 석 달을 타고르니, 고향소식 한 통은 만금의 값어치라. 흰 머리는 굵어서 더욱 짧아져, 이제는 비녀도 이기지 못하겠네.”

五言律詩 變格인 平起式은,

(平)平平仄仄, 仄仄仄平平.
 (仄)仄平平仄, 平平仄仄平.
 (平)平平仄仄, 仄仄仄平平.
 (仄)仄平平仄, 平平仄仄平.

예로 王維의 《山居秋暝》를 보면,

一一一 | | 一 | | 一一
 空山新雨後, 天氣晚來秋.
 一 | 一一 | 一一 | | 一
 明月松間照, 清泉石上流.
 一一一 | | | | | 一一
 竹喧歸浣女, 蓮動下漁舟.
 | | 一一 | 一一 | | 一
 隨意春芳歇, 王孫自可留.¹⁰⁾

이상은 首句에 不入韻 正格이다. 首句에 入韻한 變格은 仄起式 首句가 ‘仄仄仄平平’, 平起式 首句는 ‘平平仄仄平’이 되고 나머지 각 句의 平仄은 正格과 같아야 한다.

七言律詩는 五言律詩가 定型화된 후 확대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平仄格式도 역시 五言律詩에다 두 字를 더해서 이루어졌다. 七言律詩의 平起式을 보면;

(平)平(仄)仄仄平平, (仄)仄平平仄仄平.
 (仄)仄(平)平平仄仄, (平)平(仄)仄仄平平.
 (平)平(仄)仄平平仄, (仄)仄平平仄仄平.

10) “빈 산 갓 비온 후, 날씨는 벌써 늦가을 되었는데. 밝은 달 소나무 사이로 비 추고, 맑은 샘 돌 위를 흐르네. 대나무 소리 내며 빨래하던 여인 돌아가고, 연 잎 움직이며 고기잡이 배 지나가네. 제멋대로 봄 향기는 가버렸지만, 귀한 손님 의연히 머물러있네.”

(仄)仄(平)平平仄仄, (平)平(仄)仄仄平平.

五言律詩 仄起式 變格 첫 두 字의 平仄과 相反되는 두 字를 앞에 첨가했음을 알 수 있다. 예로, 白居易의 《錢塘湖春行》을 보면,

一一 | | | 一一 | | 一一 | | 一
孤山寺北賈亭西, 水面初平云脚低.
| | | 一一 | | 一一 | | 一一 | | 一一
幾處早鶯爭暖樹, 誰家新燕啄春泥.
| 一一 | 一一 | | | 一一 | | 一
亂花漸欲迷人眼, 淺草才能沒馬蹄.
| | 一一 | | 一一 | | | 一一
最愛湖東行不足, 綠柳陰里白沙堤.¹¹⁾

七言律詩의 仄起式은,

(仄)仄平平仄仄平, (平)平(仄)仄仄平平.
(平)平(仄)仄平平仄, (仄)仄平平仄仄平.
(仄)仄(平)平平仄仄, (平)平(仄)仄仄平平.
(平)平(仄)仄平平仄, (仄)仄平平仄仄平.

역시 五言律詩 平起式 變格 첫 두 字의 平仄과 相反되는 두 字를 앞에 첨가했다. 예로, 溫庭筠의 《題李處舊居》를 보면,

| | 一一 | | 一 一一 | | 一一
水玉蠶頭白角巾, 瑤琴寂歷拂輕塵.
一一 | | 一一 | | | 一一 | | 一
濃陰似帳紅薇晚, 細雨如煙碧草新.
| | | 一一 | | 一一 | | | 一一

11) “고산사의 북 고정의 서쪽, 수면이 구름과 발밑이 평평해지기 시작하자. 몇 곳엔 벌써 앵무새들 따뜻한 나무 찾고, 어느 집엔 새 제비 봄 진흙 쪼아오네. 현란한 꽃 점점 사람 눈 미혹하나, 미천한 풀이야말로 말 발자국 지울 수 있네. 호수 동편 다니기 부족하여, 푸른 버들 그늘 속의 흰 모래 뚝 거닐기 좋아하네.”

隔竹見籠疑有鶴, 卷帘看畫靜無人.
 一一 | | 一一 | | | 一一 | | 一
 南窓自有忘機友, 谷口徒稱鄭子眞.¹²⁾

위 두 首는 모두 首句에 入韻한 正格이지만, 首句에 不入韻한 變格은 五言律詩의 正格 첫 두 字의 平仄과 相反되는 글자를 첨가하면 되는 것이다.

이상의 律詩 平仄格律를 종합하면 모두 기본적인 다음 4종의 句型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五言律詩는 (1)(仄)仄平平仄 (2)平平仄仄平 (3)(平)平平仄仄 (4)(仄)仄仄平平 이고, 七言律詩는 (1)(平)平(仄)仄平平仄 (2)(仄)仄平平仄仄平 (3)(仄)仄(平)平平仄仄 (4)(平)平(仄)仄仄平平 이다. 이들은 律詩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구형으로, 모든 律詩는 이들을 조합하여 만든다. 이 平仄句型은 平仄을 서로 교체시켰기 때문에 낭송할 때 고저의 기복을 이용하여 음악적 운율을 느끼게 되며, 全詩는 서로 다른 평측구형들을 조합하기 때문에 소리의 높낮이와 어조의 조화가 리드미컬한 음악미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2) 粘對法

格律詩에서 平仄을 운용할 때는 粘對규칙을 따라야 한다. 粘은 같은 平仄으로 이어주는 것이고, 對는 平仄을 교체시키는 것이다.

한 句 안에서는 平仄을 서로 교체시켜야 하고, 한 聯에서는 上句와 下句의 平仄이 서로 對를 이루어야 한다. 律詩의 對에는 두 종류의 기본 형식이 있다.

(1) 仄仄平平仄, 平平仄仄平 (2) 平平平仄仄, 仄仄仄平平

12) “물옥잠 머리 흰 두건 쓴 처사, 옥 거문고 적막하게 버려둬 가벼운 먼지 터네. 짙은 그늘 늦은 백일홍 장막 같고, 가랑비 새로 난 파란 풀 안개 같네. 새장 대나무 사이로 학이 있는 듯 보여. 술기 말아 그림 보니 사람 없이 고요하네. 남녘에 세상사 잊은 벗 있으니, 골짜기 어구 사람들은 그를 참 정자라 부른다네.”

만일 첫 句에 押韻을 하면, (1)의 첫 구는 ‘仄仄平平’이 되고 다음 句는 변함없으며, (2)의 첫 句는 ‘平平仄仄’이 되고 다음 句는 역시 변함이 없다. 七言은 五言 첫 두 字와 平仄이 相反되는 두 字를 앞에다 첨가시키면 된다.

두 聯 사이에서는, 아래 聯 上句와 위 聯 下句 첫 머리의 平仄이 같아야 하는데 이를 粘對이라고 한다. 즉 下聯 上句 제2字的 平仄이 반드시 上聯 下句 제2자의 平仄과 서로 일치되어야 한다.¹³⁾ 예를 들면,

仄仄平平仄, 平平仄仄平.
平平平仄仄, 仄仄仄平平.

격률시에 이처럼 粘對를 강구하는 목적은 시의 平仄을 다양하게 선회 반복시켜 永明體 詩律에서 말하는 “한 구 안의 음운이 모두 다르고, 두 구안의 경중을 다 다르게 한다”¹⁴⁾는 예술적 요구를 달성시키려는 것이다. 때문에 粘對規則은 시 전체의 音調와 節奏에 변화하고 旋回하는 아름다움을 가져오고, 시가의 단조롭고 딱딱한 弊端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만약 對를 이루지 않으면 上下 두 句의 平仄이 똑같을 수 있고, 粘을 이루지 않으면 前後 두 聯의 平仄이 다시 중복되기 때문에 다양한 聲調의 변화를 추구할 수 없게 된다. 平仄의 粘對格律은 杜甫의 《春夜喜雨》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잘 나타나 있다.

 | | -- | 對 -- | | - 粘
首聯 -- 好雨知時節, 當春乃發生.
 --- | | 對 | | | -- 粘
頷聯 -- 隨風潛入夜, 潤物細無聲.
 | | -- | 對 -- | | - 粘
頸聯 -- 野徑雲俱黑, 江船火燭明.
 --- | | 對 | | | --

13) 이처럼 시구 중에서 제2자의 “粘”만 강구하는 까닭은 주4)를 참고하라.

14) 沈約, 《宋書》〈謝靈運傳論〉: “一簡之內, 音韻盡殊, 兩句之中, 輕重悉異”

尾聯 -- 曉看紅濕處, 花重錦官城. 15)

(3) 拗救法

粘을 위반하면 失粘이라 하고, 對를 위반하면 失對라고 한다. 失粘과 失對는 平仄規則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인들은 성률에 부합할 수 있도록 補救하는 습관이 있었다. 平仄 규칙에 어긋나는 字를 拗字라고 하며, 拗를 補救하는 것을 拗救라고 한다. 拗救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本句自救와 對句相救 두 종류가 있다.

本句自救는 本句에 拗字가 나타나면 本句의 적당한 위치에서 補救해주는 것이다. 일반적인 本句自救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五言의 제1자가 拗면 제3자에서 補救하고, 七言의 제3자가 拗면 제5자에서 補救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孤平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孤平拗救라고 하는데, 뒤에서 다시 서술하겠다. (2) 五言 제4자가 拗면 제3자에서 補救하고, 七言 제6자가 拗면 제5자에서 補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五言 ‘平平平仄仄’의 제4자에 平을 썼으면 제3자에 仄을 써서 ‘平平仄平仄’으로 補救하고, 七言 ‘仄仄平平平仄仄’의 제6자에 平을 썼으면 제5자에다 仄을 써서 ‘仄仄平平仄平仄’으로 補救한다. 이때 五言의 제1자와 七言의 제3자는 반드시 平으로 유지해야한다.

對句相救란 上句의 拗를 下句에서 救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對句相救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五言 제1자와 七言 제3자를 補救해주는 방법이다. ‘平平平仄仄, 仄仄仄平平’구식에서 上句 제1자를 仄으로 썼으면 下句 제1자는 平으로 補救해서 한 聯의 平仄이 대립되도록 ‘仄平平仄仄, 平仄仄平平’으로 변화시킨다. 마찬가지로 七言 ‘仄仄平平平仄仄’구식의 제3자에 仄을 썼으면 下句 ‘平平仄仄仄平平’구식의 제3자는 平으로 補救한다. 이러한 拗救는 오직 仄拗平救에만 국한되며 平拗仄救

15) “좋은 비 시절을 알아, 봄이 되자 내리기 시작하네. 바람결에 몰래 밤에 찾아들어, 만물을 적시네 가늘어 소리도 없이. 들길은 온통 구름으로 잠잠하고, 강 위의 배에 등불만 깜박인다. 새벽이면 보이리라 그 붉게 젖은 곳에, 꽃으로 금관성이 겹겹이 덮인 것을.”

면 孤平을 범하게 된다. (2) 五言 제4자와 七言 제6자가拗일 경우, 下句의 五言 제3자와 七言 제5자에서 補救하는 것이다. 즉, 五言 ‘仄仄平平仄, 平平仄仄平’ 聯에서 上句 제4에 仄을 썼으면 下句 제3자에 平으로 補救하고, 七言 ‘平平仄仄平平仄, 仄仄平平仄仄平’에서 上句 제6자가 仄이면 下句 제5자를 平으로 補救해 준다. 그러나 五言 제3자와 七言 제5자가拗일 경우는 補救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律詩에서는 本句自救와 對句相救 결합시켜, 먼저 本句自救하고 다시 對句相救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五言 ‘仄仄平平仄, 平平仄仄平’ 聯을 上句拗救하여 “平平仄仄平”으로 만든 후, 다시 下句에서도 상응하여 “仄平平仄平”으로 변화시키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李白의 五言律詩 《宿五松山下荀媪家》를 보면:

我宿五松下, 寂寥無所歡.
田家秋作苦, 隣女夜春寒.
跪進雕胡飯, 月光明素盤.
令人慚漂母, 三謝不能飡.¹⁶⁾

제1구 제3자에 본래는 平聲을 써야 하는데 仄聲 ‘五’를 써서 本句自救했고, 제2구 제1자도 平聲이어야 하지만 仄聲 ‘寂’을 써서 對句相救했다. 또 제2구의 제3자는 平聲 ‘無’로 바꿔 孤平을 피했다. 제6구 제1자는 平聲이어야 하나 仄聲 ‘月’을 썼고, 제3자는 仄을 써야하나 平聲 ‘明’으로 本句自救해서 제2구처럼 孤平拗救에 속한다. 그러나 제5구와는拗救관계가 없다. 이와 같은 경우는 칠언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許渾의 七言律詩 《咸陽城西樓晚眺》를 보자.

一上高樓萬里愁, 蘆葭楊柳似汀洲.

16) “내가 오송산 아래에 살 때는, 적막하고 쓸쓸하여 기쁜 것이 없었다네. 농가에선 가을걸이로 고생을 하느라, 이웃집 아낙은 밤에 추위에 떨며 절구질을 한다네. 꿩이 앉아 菰米밥을 가져오니, 달빛은 소반을 밝혀주네. 사람들 뺨래하는 노파 부끄럽게 만들어, 세 번이나 감사드리면서도 저녁밥을 먹을 수 없다네.”

溪雲初起日浸閣, 山雨欲來風滿樓.
鳥下綠蕪秦苑夕, 蟬鳴黃葉漢宮秋.
行人莫問當年事, 故國東來渭水流.¹⁷⁾

위 詩의 제3구 제5자는 平聲이어야 하나 仄聲을 써서 ‘日’은 拗字가 된다. 그러나 제4구 제3자에 平聲 대신 仄聲字 ‘欲’을 써서 補救했고, 또 제5자는 仄聲이어야 하나 平聲字 ‘風’을 써서 ‘欲’을 本句自救했으며 동시에 上句 ‘日’을 對句相救했다.

拗救의 규정은 비록 엄중하지만 사람들은 拗가 있다고 반드시 補救한 것은 아니다. 어떤 拗字나 拗句는 詩意의 표현이나 音韻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 補救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拗句라도 補救하지 않는 詩句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4) 孤平과 三平調

律詩에서는 孤平이 되거나, 三平調가 되는 현상은 크게 기피했다.

孤平은 한 句에서 韻脚의 平聲字 외에 한 개의 平聲字만 남겨두는 것을 말한다. 孤平 문제는 오직 平脚句에서만 존재하며 仄脚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위의 李白 시에서 “我宿五松下”의 “仄仄仄平仄”은 다만 拗句일 뿐이지 仄脚句이기 때문에 孤平을 범한 것은 아니다. 平脚句式은 五言에는 ‘平平仄仄平’와 ‘仄仄仄平平’ 두 句式이 있고, 7언에는 ‘仄仄平平仄仄平’과 ‘平平仄仄仄平平’ 두 句式이 있다. 그 중 뒤의 구식에서는 孤平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韻脚은 고정된 것이고, 그 외에 五言의 제4자와 七言의 제2, 6자도 음의 절주점이어서 고정시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孤平은 주로 앞의 구식에서만 출현한다. 詩句의 음절 節奏點은 제2, 4, 6자에 있기 때문에 그곳의 平

17) “높은 누각 오르니 만 리나 되는 근심, 역새와 버들은 마치 汀洲의 것 같네. 계곡에 구름일자 해는 闕으로 지고, 산에 비 내리면 바람만 누각에 온통 불어 닥칠 듯. 새는 푸르름 우거진 저녁 秦苑에 내려오고, 매미는 누렇게 단풍든 漢宮의 가을을 노래하네. 나그네여 그때 일을 묻지 말게나, 고국은 동쪽으로 와도 渭水는 흐른다네.”

仄만 맞으면 된다고 하여 세간에서는 “一三五不論, 二四六分明”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어떤 것은 이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¹⁸⁾ 앞의 구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五言 “平平仄仄平”의 제1자에 仄聲을 쓴다거나 七言 ‘仄仄平平仄仄平’의 제3자에 仄聲이 오면, 韻脚의 平聲字를 빼면 孤平이 된다. 이는 古人들이 가장 기피하는 금기사항으로 반드시 拗救해야 한다. 五言 제3자를 平聲으로 고쳐 ‘仄平平仄平’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七言 제3자에 仄聲을 썼으면 제5자에 平聲을 써서 ‘仄仄仄平平仄平’으로 바꿔 孤平을 피해야 合律이 된다. 이것이 孤平拗救이다. 그러나 사실 이는 平仄의 위치를 바꿔 “以拗救拗”격이 된다. 前人들은 이를 “以病還病, 反而無病”는 이치로 이해했으나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된다는 이치와 상통하는 말인 것이다.

또한 律詩에서는 ‘三平調’의 출현도 크게 금기시 했다. 三平調란 句尾에 연이어 3개의 平聲字가 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古體詩에서는 三平調가 전형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된다¹⁹⁾. 그러나 律詩는 예를 들면 기본구형중의 ‘仄仄仄平平’에서 제3자를 절대 仄聲字로 바꿀 수 없고 만약 바꾸면 三平調가 되어 격률에 어긋나게 된다.

요컨대 律詩에서 平仄을 엮어서 사용해야 하고, 上下句의 平仄이 相對를 이뤄야 하고, 다음 聯의 平仄은 相粘해야 한다는 平仄規則은 同一

18) “一三五不論, 二四六分明”이란 칠언시구의 제1, 3, 5자는 평측에 구속받지 않아도 되지만, 제2, 4, 6자는 반드시 격식에 따라서 평측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 말이 격언처럼 전해지고 있다. 이로부터 추론해 본다면 오언시구는 “一三不論, 二四分明”이 된다. 이 말은 평측격식을 간단명쾌하게 설명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으며, 어떤 구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대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의 몇 가지 상황에서는 제1, 3, 5자의 평측을 따지지 않아 안 된다. ①오언 “평평측측평”구식의 제1자와 칠언 “측측평평측측평”구식의 제3자는 반드시 따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孤平을 범하게 된다. ②오언 “평평측평측”과 칠언 “측측평평측평측”은 일종의 특정격식이다. 이 특정구식에서 오언의 제1자와 칠언의 제3자는 반드시 따져야 한다. ③ 오언의 제3자와 칠언의 제5자는 평측격식에 따르는 것이 正例이고, 평측격식에 따르지 않는 것이 變例이므로 일반적인 정황에서는 역시 따지는 것이 원칙이다.

19) 고체시에서는 예를 들면 李白의 <下終南山過斛斯山人宿置酒> 시에서 “長歌吟松風, 曲盡河星稀” 이 두 句는 끝 3자가 모두 평성이다.

性を 꺼리고 相異性を 추구하여, 통일 속에 변화를 기탁함으로써 리드미컬한 리듬과 애도는 듯한 선율감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²⁰⁾

3. 押韻

韻은 시가에서 回還美를 느끼게 해 준다. 왜냐하면 押韻을 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音質이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 출현하기 때문에 분산된 聲音이 하나의 총체를 구성하여, 마치 음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선율처럼 전체리듬을 관통하여 통일시키므로²¹⁾ 回還美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格律詩는 짝수 句의 末尾에 押韻을 한다. 句의 末尾는 의미와 소리가 자연스럽게 멈추는 곳이므로 그곳에 押韻을 하면 리듬감이 훨씬 강렬해진다. 옛사람들은 “시의 운각은 마치 큰 건물의 주춧돌과 같아서, 이곳이 부실하면 즉시 기울어지고 꺾어진다.”²²⁾ 고 하며 押韻을 중시했다. 본 장에서는 押韻規則과 押韻種類 및 형식에 대해 살펴보겠다.

(1) 押韻規則

근체시는 고체시에 비해 押韻 방식이 훨씬 엄격하다. 그러나 오늘날 고시를 읽다보면 押韻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시들이 많다. 그것은 한자의 독음법이 두 가지 이상인 때문이기도 하고, 또 고금의 언어변화 때문이기도 하다.²³⁾

20) 吳戰壘, 유병례 역, 《중국시학의 이해》(서울: 태학사, 2003), p.216.

21) 吳戰壘, 위의 책, p.221.

22) 清·沈德潛, 《說詩碎語》: “詩中韻脚, 如大廈之有柱石, 此處不牢, 傾折立見.”

23) 예를 들면 劉禹錫의 《烏衣巷》: “朱雀橋邊野草花(hua), 烏衣港口夕陽斜(xié). 舊時王謝堂前燕, 飛入平常百姓家(jiā).”에서 현대중국어의 발음으로는 花(hua)、斜(xié)、家(jiā)가 모두 같은 운이 아니지만 당나라 때의 음으로는 “斜”를 “xiá”라고 읽었기 때문에 압운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夜”를 “yá”로, “蛇”를 “shá”로 읽는 등 이런 종류의 글자들이 적지 않게 있다. 때문에 고인들의 시운을 알아야 고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押韻法 은 隋唐이전에는 當時의 언어습관에 따라 가까운 韻을 썼으나, 근체시가 나온 이후부터는 엄격하게 韻書에 의거했다. 先秦詩歌나 漢나라 때의 韻部는 그 폭이 넓어 비슷한 음이면 압운이 되었으나, 六朝에 이르러 차츰 엄격해지기 시작하였다. 韻書의 역사는 魏의 李登이 편찬한 《聲類》 10권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후 晉 呂靜이 엮은 《韻集》 6권, 南齊 周顒의 《四聲切韻》, 梁나라 沈約의 《四聲韻補》 등이 있었으나 모두 남아있지 않다.²⁴⁾

唐代 근체시 창작 때 이용한 韻書는 주로 《切韻》과 《唐韻》이었다.²⁵⁾ 《切韻》은 隋의 陸法言이 당시 洛陽 音價를 기준으로 193개의 韻部로 정리한 韻書이고, 《唐韻》은 唐 開元년간 孫愐이 《切韻》 193개의 운부를 205개로 늘려 주석을 가한 韻書이다. 이 책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韻書로 채택되어 과거시험의 詩賦에서 押韻의 표준으로 삼았다. 그 후 唐 시인들은 모두 《唐韻》을 따라 시를 지었으나²⁶⁾, 이 책들도 잔본만 전해지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韻書는 宋의 陳彭年 등이 황제의 명을 받고 《切韻》을 수정 편찬한 《廣韻》이다. 그 후 南宋 平水사람 劉淵은 《廣韻》의 206개의 韻部를 107개로 통합 정리하여 1252년에 《壬子新刊禮部韻略》을 편찬해 냈다. 이 책은 韻學의 과학성과 실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날 唐詩의 用韻을 고찰할 때는 이 책을 참고하게 된다. 元의 陰時夫는 《韻府群玉》을 편찬하면서 劉淵이 정리한 107개 韻部를 최종 106韻部로 정리했²⁷⁾, 이것이 오늘날까지 근체시 押韻의 준거로 자리 잡은 이른바 ‘平水韻’이다.²⁸⁾ ‘平水韻’은 《切韻》체

24) 《隋書經籍志》에 보면 육조시대에 운서를 편찬한 사람으로 殷宏、李概、周研、夏侯詠、陽休之 등이 있으나, 이들이 편찬한 책도 모두 전하지 않는다.

25) 朱承平, 《詩詞格律教程》(廣州: 暨南大學出版社, 2000), p.30.

26) 宋나라 許權의 《東齊記事》에 “自孫愐集爲唐書, 諸書遂廢.(손면이 《당운》을 엮어내자, 여러 운서들이 마침내 사라졌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성당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당운》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27) 入聲 ‘拯’韻部를 ‘迺’韻部에 병합시킴.

28) “平水韻”은 南宋의 劉淵이 平水사람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평수운의 106개 운부는 平聲이 30韻, 上聲이 29韻, 去聲이 30韻, 入聲이 17韻이다. 이 106개의 운부에는 각기 성모와 성조가 서로 같은 글자들이 집합돼 있다.

계의 韻部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唐詩의 실제 用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近體詩의 押韻방법에는 3대 원칙이 있다.

첫째는, 平聲韻으로 押韻해야 한다. 근체시는 고체시와 달리 平聲韻과 仄聲韻을 혼용하는 예가 전혀 없으며 韻字는 반드시 平聲韻字를 써야 한다. 平聲韻은 長音이어서 音調를 길게 늘어 음악미와 여운을 추구할 수 있지만, 반대로 仄聲韻은 음조가 오르내리고 리듬이 짧기 때문에 여운을 느끼기 힘들며 平聲韻 만큼 부드럽고 조화롭지 못한 단점이 있다.²⁹⁾ 韻脚은 시의 음악적 효과를 좌우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평성운을 사용하여 리듬감과 여운을 추구했던 것이라 여겨진다. 平聲韻에는 上平和 下平 각 15개씩 30개 韻部가 있다.

上平聲： 一東、二冬、三江、四支、五微、六魚、七虞、八齊、九佳、十灰、十一眞、十二文、十三元、十四寒、十五刪。

下平聲： 一先、二蕭、三肴、四豪、五歌、六麻、七陽、八庚、九青、十蒸、十一龍、十二侵、十三覃、十四鹽、十五咸

이상 30개 韻部는 글자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用韻의 難易度를 寬韻, 中韻, 窄韻, 險韻의 네 등급으로 분류했다. 寬韻은 속한 글자 수가 가장 많은 ‘支虞陽先尤眞庚東’ 韻部이며, 中韻은 寬韻보다는 적은 ‘元蕭寒歌灰豪麻魚齊冬侵’ 韻部이고, 窄韻은 더 적은 ‘青蒸文鹽覃微刪’ 韻部이며, 險韻은 가장 적어 韻字를 고르기 어려운 ‘肴佳咸江’ 韻部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는, 隔句 押韻 원칙이다. 제1구(首句)를 제외한 홀수 句는 절대 押韻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짝수 句에만 압운하며 모든 聯의 마지막 글자가 韻脚이 된다. 제1구는 押韻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五律은

그 중 平聲字에 속해 있는 글자가 가장 많아서 平聲을 上下 두 卷으로 나누어 平聲上卷은 上平、平聲下卷은 下平이라 하였으며, 모든 운부의 앞에는 서수와 대표자를 표기하여 韻母의 종류를 표기하였다.

29) 江永, 《音學辨微》: “平聲長空, 如擊鐘鼓; 上去入短實, 如擊木石.”

押韻하지 않는 것이 正格이고, 七律은 押韻하는 것이 正格이다.

셋째는, 一韻到底의 원칙이다. 詩 한 首는 처음부터 끝까지 本韻 하나로만 押韻해야 하며, 중간에 다른 韻을 混用하거나 換韻해서는 안 된다. 글자 수가 적은 險韻이라도 예외가 없다. 出韻³⁰⁾은 近體詩에서 대단히 금기시 했다. 本韻이 아닌 隣接한 韻을 隣韻이라고 하는데, 주로 ‘東冬’、‘支微齊’、‘魚虞’、‘佳灰’、‘真文元寒刪先’、‘蕭肴豪’、‘庚青蒸’、‘覃鹽咸’의 8部類가 이에 해당한다. 唐나라 때는 隣韻을 出韻으로 보았으나, 宋 이후로는 首句에 押韻할 때는 隣韻을 사용하는 현상이 있었다. 그러나 근체시의 押韻에서 무엇보다 가장 기피하는 것은 同一한 詩에 同一한 글자를 두세 번 중복 사용하는 重韻현상이다.

(2) 押韻形式

압운에는 分韻、限韻、和韻 등의 형식이 있으며, 和韻에도 次韻、用韻、依韻、疊韻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分韻은 여럿이 시를 지을 때 미리 韻字를 여러 개 정해놓고(보통은 옛 선인들의 詩文에서 한 句를 선택) 한 사람이 한 자씩 韻字를 나눠 갖고, 그 韻字가 속해 있는 韻部에 근거해 시를 짓고 그 韻字도 韻脚으로 쓰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權德與의 《送薛溫州得驚字》시 “昨日饋連營, 今來刺列城. 方期建禮直, 忽訪永嘉程. 郡內裁詩暇, 樓中遲客情. 憑君減千騎, 莫遣海鷗驚”³¹⁾는 제목을 보면 分韻이 ‘驚’字임을 알 수 있다. 韻脚은 ‘營、城、程、情、驚’으로 모두 ‘驚’자와 같은 下平 ‘8庚’에 속한다. 마지막 구는 ‘庚’자로 韻脚을 삼았다.

‘限韻’은 어느 한 韻部 중에서 押韻할 韻字를 미리 뽑아놓고 그 韻字

30) 다른 운목의 글자를 쓰는 것으로 “낙운(落韻)”이라고도 한다.

31) 「薛溫洲를 보내며 驚字를 얻어 시를 짓다」: “어제는 연이어진 병영에서 음식을 대접하더니, 오늘은 여러 성을 정탐하러 왔구려. 마침 올바른 예절이 세워지길 바라던 차, 홀연 永嘉의 모범이 방문하셨구려. 고을 안에선 시를 지으며 한가로움을 헤아리는데, 누각에는 손님 맞는 정감이 더디 이는구려. 그대가 천의 기병을 감소한다지만, 해구가 놀랄까 파견할 수 없다오.”

를 모두 韻脚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紅樓夢》 제37회에 賈寶玉의 봄놀이 장면을 서술하는데, 4명이 하얀 해당화를 서술하는 7언 율시를 ‘13元’ 韻部の ‘門、盆、魂、痕、昏’ 다섯 자를 韻字로 삼아 짓기로 한다. 林黛玉의 지은 시를 보면 “半卷湘帘半掩門, 碾冰爲土玉爲盆. 偷來梨蕊三分白, 借得梅花一紅魂. 月窟仙人縫縞袂, 秋閨怨女拭啼痕. 嬌羞默默同誰訴, 倦倚西風夜已昏.”³²⁾ 제1、2、4、6、8句의 마지막 자에 각기 ‘門、盆、魂、痕、昏’ 다섯 자를 韻脚으로 삼았다. 이런 방식이 限韻이다.

다른 사람의 시에 회답하거나 應和할 때 原詩의 운으로 압운하는 것을 和韻이라고 한다. 和韻에도 次韻、用韻、依韻、疊韻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次韻은 步韻이라고도 하며 贈詩에서 쓴 운을 차례도 바꾸지 않고 완전히 그대로 쓰는 것을 말한다. 次韻은 和韻 가운데서 가장 엄격한 방법이지만 한 때 당나라에서 유행하여 元稹、白居易、皮日休、陸龜蒙 등의 應和詩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宋나라 蘇軾도 이에 능했다고 한다. 用韻은 다른 사람이 原詩에서 사용한 韻字로 시를 쓰되 原詩의 순서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依韻은 다른 사람의 原詩에서 사용한 韻에 따라 시를 쓰되 原詩와 동일한 韻部에 속하기만 하면 되고 原詩의 韻字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 疊韻은 이미 과거에 자기가 사용한 적이 있었던 韻을 가지고 계속 시를 짓는 것이다. 시 제목에다 ‘用前韻’、‘再用前韻’、‘復次前韻’、‘疊前韻’ 등으로 나타내며 만약 세 차례나 중복 사용했으면 ‘三疊前韻’, 그리고 ‘四疊...’、‘五疊...’으로 연속사용하기도 한다. 次韻、用韻、依韻、疊韻 등은 모두 唱和詩에서 原詩의 韻에 따라 시를 쓰는 방법이다. 그러나 唱和詩에서도 原詩의 내용에 근거해서 답을 하되 韻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³³⁾ 劉禹錫과

32) “반 썸 걷힌 문발에 반썸 열린 문인데, 얼음 갈아 흙을 빗고 옥으로 화분 삼네. 배꽃에서 훔쳐 낸 삼분썸의 흰 빛깔, 매화에서 빌려온 한 줄기의 녀이라. 달 속의 선녀는 흰 비단옷을 꿰매고, 가을을 원망하는 여인은 눈물을 씻네. 말 없는 부끄러움 누구에게 속삭이라. 호젓이 서풍에 맞서니 어느새 밤이 짙었네.”

33) 백거이가 다음과 같은 〈醉贈劉二十八使君〉 시를 지어 劉禹錫에게 주었다. “爲我引杯添酒飲, 與君把箸擊盤歌. 詩稱國手徒爲爾, 命壓人頭不奈何. 舉眼風

柳宗元이 나눈 창화시가 대다수 이리했다.

4. 對仗

對仗은 언어가 짝을 이루는 駢偶를 말하는데, 마치 고대의 儀仗隊처럼 서로 마주 대칭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는 본래 근체시에만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체시는 일반 詩文에서보다 더 엄격한 규칙을 요구한다. 중국시가에서 이처럼 대장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은 漢字가 表意文字、單音節語、聲調語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서양의 시가와 현저하게 다른 중국시가의 두드러진 특징이 된다.³⁴⁾ 한자의 특징들은 글자, 성운, 평측 모든 면에서 대우를 만들기 적당하기 때문에 대칭하게 배열하는 對仗의 형식구조는 서방언어문자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近體詩의 對仗은 내용의 對

光長寂寞，滿朝官職獨蹉跎。亦知合被才名折，二十三年折太多”。이에 유우석은 다음의 〈酬樂天揚州初逢席上見贈〉이란 시를 지어 답했다. “巴山楚水淒涼地，二十三年棄置身。懷舊空吟聞笛賦，到鄉翻似爛柯人。沉舟側畔千帆過，病樹前頭萬木春。今日聽君歌一曲，暫憑杯酒長精神。” 위 두 시의 운을 살펴보면 앞의 원시는 운각이 “歌、何、蹉、多” 이고, 뒤의 화시는 “身、人、春、神”으로 완전히 독립된 운을 사용하고 있어 원시의 운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4) 黃侃은 〈書《後漢書》論贊〉에서 “문장 가운데 짝을 이루는 말이 많은 것은 진실로 외우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마음이 사물에서 감동을 받으면 연상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매우 복잡다단한 사물에서 가지런하게 정리된 것을 찾을 수 있으며, 비유를 통해서 더욱 명료해지기도 하고 반복 되풀이함으로써 명백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어는 글자 하나가 하나의 뜻을 나타내므로, 句가 격식을 이룰 수 있고, 語도 가지런할 수 있다. 연상하는 사유는 인류 모두가 공유한 것이지만, 나란히 짝을 이루는 문장을 짓는 것은 중국 민족이 지닌 독특한 장기이다. 문체를 논하는 자는 이점을 마땅히 살펴야 한다. (尙考文章之多偶語，固有便于諷誦；亦緣心靈感物，每有聯想之能；庶事浩穰，常得齊同之致。或比方而愈瞭，或反復而相明。兼以諸夏語文，單簡成義，斯所以句能成式，語可同均。是則聯想之事，人類所同有；排比之文，吾族所獨擅，論文體者，宜於此察也.)”라고 하여 “중국민족이 지닌 독특한 장기”라고 밝히고 있다.--吳戰壘, 유병례 역, 《중국시학의 이해》(태학사, 2003), p.217 재인용.

照와 曠觀, 그리고 整齊한 형식 가운데서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칭미를 드러낼 수 있고, 대응성을 지닌 조화와 相反相成하는 리듬을 획득하여, 내용의 중점과 운율미를 강조시킬 수 있다. 대장은 因果·承繼·漸進 등의 논리적 연계를 생략하며 고도로 농축되고 정련된 언어형식을 사용해서, 張力이 풍부한 특수구조를 구성한다.³⁵⁾ 본 장에서는 이러한 대장의 규칙과 대장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다.

(1) 對仗規則

엄정한 대장을 이루려면 반드시 다음 세 개의 기본요구를 부합시켜야 한다.

첫째, 詩語가 서로 對를 이루고, 上下句의 구조가 서로 대칭을 이뤄야 한다. 예를 들면 杜甫 「旅夜書懷」의 함련 “星隨平野闊, 月湧大江流”의 ‘星’과 ‘月’, ‘隨’와 ‘湧’, ‘平野’와 ‘大江’,

‘活’과 ‘流’은 모두 서로 대를 이루며 上下句가 대칭이고 어법구조도 같다.

둘째, 對仗을 이루는 詩語의 성질과 종류가 서로 같아야 한다. 王力은 《漢語詩律學》³⁶⁾에서 對仗을 구성하는 시어의 종류를 11류로 대별하고 다시 그것을 28가지로 세분했다. 대를 이룰 때 가장 工整한 對法은 소부류 끼리 짝을 이루는 것이다.

셋째, 節奏가 서로 같고, 平仄이 서로 대가 돼야 한다. 상하구의 절

35) 위의 책, pp.218~219.

36) 제1류는 天文(天、月…), 時令(年、時…), 제2류는 地理(山、水…), 宮室(樓、宮…), 제3류는 器物(船、鐘…), 衣飾(衣、冠…), 飲食(酒、藥…), 제4류는 文具(筆、紙…), 文學(詩、經…), 제5류는 植物(柳、桃…), 動物(馬、鶴…), 제6류는 形體(心、骨…), 人事(名、情…), 제7류는 人倫(弟、友…), 代名(吾、予…), 제8류는 方位(東、中…), 數目(一、萬…), 顏色(紅、碧…), 干支(甲、丁…), 제9류는 人名、地名, 제10류는 同義運用(格調、賓客…), 反義運用(興亡、高下…), 連綿字(寂寞、翡翠…), 重疊字(漫漫、蕭蕭…), 제11류는 副詞、連介詞、助詞 이다. 王力, 《漢語詩律學》(上海教育出版社, 1978), pp.153-156.

주가 같고 평측은 서로 대립돼야만 앞뒤의 성조가 호응하여 왕복선회하는 대칭미를 형성하게 된다.

이상은 대장을 이루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인 반면, “合掌”과 “同字”는 피해야 할 금기사항이다. “合掌”이란 상하구에 의미가 같은 동의어로 대장을 만들어 의의가 같아지는 것을 가리킨다. 대장의 기본 원칙은 정제된 가운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인데, 상하구에 의미가 같은 동의사를 중복 사용하면 표면적인 차이만 존재할 뿐 의미가 중복되기 때문에 劉勰은 《文心彫龍》에서 이를 “正對”라고 하여 가장 졸렬하다고 평가했다.³⁷⁾ 때문에 대장에서 상하 두 구의 의미가 중복되는 시어를 사용하는 “合掌”은 금기시 하는 것이다.

(2) 對仗種類와 屬對方法

對仗에는 여러 종류의 형식이 있고 이름도 번잡하게 많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크게 ‘工對’와 ‘寬對’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工對’는 對句가 매우 정교한 경우를 일컫고, ‘寬對’는 변통할 여지가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다음에서는 律詩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工對、寬對、隣對、借對、流水對、交錯對、扇對의 屬對方法을 살펴보겠다.

1) 工對의 屬對방법은 엄격하게 實字는 實字, 허자는 허자 등 소부류까지 같은 시어로 對를 이루는 방법이다. 古人들은 시어의 범위가 좁을 수록 대장이 공정하고 또 高難度라고 여겼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工을 구하다보면 ‘室’ 대 ‘房’、‘別’ 대 ‘離’、‘舟’ 대 ‘船’처럼 同義相對를 만들어 자칫 앞에서 지적한 “合掌”을 범하게 된다. 전형적인 工對의 屬對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동일한 소부류의 시어로 구성한다. 예를 들면, 李白의 「塞下曲」 제1

37) 《文心彫龍》〈麗詞〉：“反對者，理殊趣合者也，正對者，思異義同者也。”(反對란 뜻은 다르나 정취는 같은 것이고, 正對는 사례는 다르나 의의는 일치하는 것이다) “反對爲優，正對爲劣”(反對를 이루는 것이 우수하고, 正對를 이루는 것은 졸렬하다)

수의 頸聯 “曉戰隨金鼓, 宵眠抱玉鞍”은 대를 이루는 ‘曉’와 ‘宵’는 시간명사이고, ‘金鼓’와 ‘玉鞍’은 기물류명사로 모두 동일한 소부류에 속한다.

- (2) 소부류가 같지 않아도 天地、詩酒、花鳥、兵馬、人物 등처럼 항상 병렬되는 명사로 구성한다. 예로, 杜甫 「不見」시 “敏捷詩千首, 飄零酒一杯”의 ‘詩’와 ‘酒’는 工對가 된다.
- (3) 반의어 끼리, 또는 반의어와 동의어, 혹은 동의어 끼리 相對를 이룬다. 예를 들면, 李商隱 「無題」 “身無彩鳳雙飛翼, 心有靈犀一點通”의 ‘無’와 ‘有’가 相對를 이루었다. 王安石 「卽事」 “縱橫一川水, 高下數家村”는 ‘縱橫’과 ‘高下’ 반의어를 연용 했다.
- (4) 句中自對(當句對)면서 다시 兩句相對 한다. 예를 들면, 杜甫 「聞官軍收河北河南」시 尾聯 “卽從巴峽穿巫峽, 便下襄陽向洛陽”의 ‘巴峽’과 ‘巫峽’가 當句對이고, ‘襄陽’과 ‘洛陽’이 當句對이면서 다시 上下句가 相對를 이뤄 工對가 됐다.
- (5) 否定詞로 相對를 이룬다. 예를 들면, 杜甫 「登高」의 “無邊落木蕭蕭下, 不盡長江滾滾來”에서 부정사인 ‘無’와 ‘不’이 相對를 이뤘다.
- (6) 雙聲語와 疊韻詞로 대장을 이룬다. 예를 들면, 李商隱의 「春雨」시 “遠路應悲春畹晚, 殘宵獲得夢依稀”는 쌍성 ‘畹晚’과 접운 ‘依稀’가 서로 대가 됐다.

2) 寬對는 工對와 비교하면 자유로운 對仗이기 때문에 운용범위가 광범하다. 고금을 통해 공히 寬對라고 보는 것은 ‘半對半不對’의 상황일 때이다. ‘半對半不對’란 全聯중에 일부분은 相對이나 다른 일부분은 對仗이 工하지 않거나 혹은 對가 되지 않는 것이다. 흔히 上半句는 대를 이루고 後半句는 대를 이루지 않는데 주로 押韻 때문에 어쩔 수 없이 對仗을 희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은 入韻한 首聯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율시 首聯은 대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頷聯에서 보이는데 頷聯의 대장은 頸聯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3) 隣對는 隣近 事類가 서로 대장을 이루는 것이다. 예를 들면, 天文類와 時令類, 天文類와 地理類, 地理類와 宮室類, 文學類와 文具類 등이 相對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

4) 借對(假對)는 某字의 義나 音을 借用하여 다른 字와 대장을 구성

하는 것이다. 시인들은 屬對할 때 某字와 相對의 字가 意義上 對를 이룰 수 없을 때 교묘하게 同音字나 同義字를 빌어 對仗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借義와 借音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借義의 예를 보면, 劉禹錫 「西塞山懷古」시의 頷聯 “千尋鐵鎖沉江底, 一片降幡出石頭”에서 ‘江底’는 명사와 방위사로 조성되었지만, 下句의 ‘石頭’는 南京의 별칭이지만 字面에 따라 ‘江底’와 相對를 이뤘다. 借音의 예는, 劉長卿 「新安奉送穆諱德」시에 “事直皇天在, 歸遲白髮生”의 ‘皇’이 동음자 “黃”을 차용하여 “白”과 대장을 이뤘다. 이와 같은 借音은 어떤 때는 뜻하지 않은 예술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옛 시인들의 깊은 애호를 받고 널리 응용되었다.³⁸⁾

5) 流水對는 上下 두 句의 의미가 연관되어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끊어지지 않고, 상호 顛倒시킬 수 없다. 대장은 보통 상하구의 위치를 바꾼다 해도 대장의 요구나 의의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流水對는 상하구의 위치를 바꿀 수 없다. 예를 들면, 陸游 「書憤」의 頸聯 “塞上長城空自許, 鏡中衰鬢已先斑”도 上句는 젊어서의 자신감 넘치는 웅대한 포부를 말했고, 下句는 현재 늙은 자신은 포부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말이므로 시간적으로 상하구의 위치를 바꿀 수 없다. 또 杜荀鶴 「春宮怨」의 “承恩不在貌, 教妾若爲容”도 上句는 원인, 下句는 결과이므로 두 구의 위치를 전도시킬 수 없다. 이처럼 流水對의 특징은 출구와 대구의 위치를 서로 바꿀 수 없다는 데 있다. 流水對를 운용하면 단조롭던 시구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고, 물 흐르듯 내려가므로 대장의 흔적을 보이지 않으면서 對偶의 정취를 느낄 수 있지만,³⁹⁾ 초학자가 시도하기는 어려운 것이다.⁴⁰⁾

38) 이에 대해서는 明나라 俞弁이 《逸老堂詩話》의 일단에 잘 밝혀 놓았다. 여기에서 들고 있는 借音의 예를 보면 色對나 動植物對에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9) 沈德潛, 《說詩碎語》: “中聯以許實對, 流水對爲上, 卽征實一聯, 亦宜各換意境. 略無變換, 古人所輕.”

40) 왜냐하면 詩語의 意像은 마치 물이 흘러가듯 순조롭게 아래로 흘러야 하고, 또 자면 상으로는 평측 및 시어품사의 대장구성요구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도 일정의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6) 交錯對(錯綜對)는 上下 두 句의 對仗인 시어를 서로 교차시키는 방법으로, ‘蹉對’라고도 한다. 交錯對는 평측의 조화나 시어를 어법규칙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예를 들면, 李商隱 「隋宮」의 頸聯 “于今腐草無螢火, 終古垂楊有暮鴉”에 ‘螢’과 ‘鶴’、‘火’와 ‘暮’가 대를 이루어야 하는데 만약 ‘火螢’이라고 하면 평측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교차시켰다. 또 李群玉 《杜丞相筵中贈美人》시의 “裙拖六幅湘江水, 鬢聳巫山一段雲”는 ‘六幅’과 ‘一段’, ‘湘江’과 ‘巫山’이 대를 이루지만, 만약 下句를 “鬢聳一段巫山雲”라고 하면 모두 측성이 되어 失調하게 된다. 이런 경우 交錯對를 이용하면 평측의 失調를 補救할 수 있다.

7) 扇對(扇面對 혹은 隔句對)는 한 聯에서 上下 두 句가 對仗을 이루지 않고, 두 聯에서 上句는 上句끼리, 下句는 下句끼리 서로 隔句에서 對仗을 이룬다. 이런 대장 형식은 《詩經》에서부터 기원하였고,⁴¹⁾ 후에는 詩體의 한 형식으로 발전되었으며, 고대의 율시나 절구에서는 “扇對格”이라고 하였다.⁴²⁾ 白居易 시 《野聞爭中彈瀟湘送神曲感舊》중의 두 聯 “縹緲巫山女, 歸來七八年. 殷殷湘水曲, 留在十三弦”는 上句는 上句끼리 下句는 下句끼리 서로 隔句에서 완벽하게 對仗을 이뤘다.

律詩의 對仗은 통상 頷聯과 頸聯 두 聯에서 이루어지며, 首聯과 尾聯은 거의 대장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시 전체가 대장을 이루는 구절도 있고, 대장을 이루지 않는 구절도 있어 성률의 리듬에 변화와 통일미의 미를 증가시켜 준다. 그밖에도 오직 頸聯만 對仗을 이룬 蜂腰對가 있고, 首聯과 頸聯이 대장이고 頷聯은 대장이 아닌 偷春對도 있다. 소수이긴 하지만 三聯, 혹은 시 전체에 대장을 사용한 것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짝을 이루면서도 이루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정

41) 《詩經·采薇》：“昔我往矣，楊柳依依。今我來思，雨雪霏霏”의 제2구와 隔句인 제4구가 대장을 이루고 있다.

42) 宋나라 嚴羽는 《滄浪詩話》〈詩評〉에서 “有扇對，又謂之隔句對。如鄭都官‘昔年共照松溪影，松折碑荒僧已無。今日已思錦城事，雪消花謝夢如何’是也。”라고 하였고, 明나라 謝榛도 《四溟詩話》卷4에서 “江淹「貽表常侍」曰‘昔我別湘水，秋月麗秋天。今君客吳飯，春日媚春泉’。子美「哭蘇少監」詩曰‘得罪台洲去，時違棄碩儒。移官逢閣後，谷貴殘潛夫。’此皆隔句對，亦謂之扇對格”이라고 했다.

제한 가운데 활발하게 유동하는 정취를 드러내는 것을 최상으로 꼽는다.⁴³⁾

5. 맺음말

漢字가 形(형태)、音(발음)、義(뜻)를 갖춘 單音節語이며 高低昇降의 변화가 있는 聲調語라는 특징은 平仄、對偶、用韻을 기본 외재율로 하는 중국고전시가의 형태를 잉태시켰고, 특히 齊梁 이후에 조성된 格律詩는 그러한 형태가 성숙되어 나타난 최종결과물이다.

그중 律詩는 全篇이 여덟 句이고, 한 句의 字數가 五言 혹은 七言이며, 각 句는 제2, 4, 6자의 平仄을 엇갈리게 해야 하고, 句와 句 사이에는 平仄이 黏對를 이루며, 中間의 頷聯과 頸聯은 對仗을 이루고, 一韻到底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격률이 있다. 이러한 律詩의 格律을 결정짓는 기본요소는 바로 平仄, 押韻, 對仗이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律詩의 平仄, 押韻, 對仗의 格律을 심층 분석하여 “서양의 시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국최고의 순수예술”⁴⁴⁾이라고 칭송하는 律詩의 외재율을 탐색하고 그 묘미를 이해하고자 했다.

平仄은 聲調와 관계된다. 중국어의 四聲은 음 높이가 평형을 이루는 平聲과 음 높이가 굴절과 기복을 이루는 仄聲으로 구분되며, 平仄이 규칙적으로 교체되고 중복되면서 音調의 조화를 이루고, 詩行의 리듬감을 만들어내 音樂美를 이룬다. 律詩의 平仄規律은 平起式이나 仄起式이나, 혹은 첫 구에 押韻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格式이 다르다. 平仄을 운용할 때는 粘對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粘은 같은 平仄으로 이어주는 것이고, 對는 平仄을 교체시키는 것이다. 한 句 안에서는 平仄을 서로 교체시켜야 하며, 한 聯에서는 上句와 下句가 서로 對를 이루어야 하고, 두 聯 사이에서는 아래 聯 上句와 위 聯 下句 첫 머리가 粘을 이루어야 한다. 만약 對를 이루지 않으면 上下 두 句의 平仄이 똑같을 수 있고,

43) 吳戰壘, 위의 책, p. 220.

44) 주) 5와 같음.

粘을 이루지 않으면 前後 두 聯의 平仄이 다시 중복되기 때문에 다양한 聲調의 변화를 추구할 수 없게 된다. 粘對의 강구로 인한 平仄의 변화와 旋回 반복의 節奏는 시 전체에 旋回하는 리듬감과 변화를 가져와 단조롭고 딱딱한 弊端을 없앨 수 있다. 때문에 粘對에 부합하지 않는 拗句는 성률에 부합하도록 補救했다. 拗救방법에는 本句自救와, 對句相救의 두 가지가 있는데, 律詩에는 本句自救와 對句相救 결합시켜 本句自救한 후, 다시 對句相救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一三五不論, 二四六分明”이라고 하여 詩句의 제1, 3, 5, 자는 平仄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고, 제2, 4, 6자는 반드시 平仄을 엄수해야 한다고 전해져 온다. 제2, 4, 6자는 平仄이 교체되고 對粘을 이루는 절주점이기 때문에 그곳의 平仄만 맞으면 된다는 말이지만, 어떤 경우는 적용되지 않아 ‘犯孤平’이 되거나 ‘三平調’가 될 수 있다. 孤平은 한 句에서 韻脚의 平聲字 외에 한 개의 平聲字만 남겨두는 것이고, 三平調는 句의 끝머리에 平聲이 연속 3개 이어지는 것인데, 이들은 율시에서 시인들이 가장 금기시 하는 것이다.

押韻 역시 성율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押韻은 聯의 末尾(韻脚)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音質의 글자를 반복 출현시키는 것으로, 이는 분산된 聲音이 하나의 총체를 구성하면서 왕복선회하는 回還美를 가져다준다. 近體詩의 押韻規則에는 3대 원칙이 있다. 첫째는, 平聲韻으로 押韻해야 한다. 韻脚은 시의 음악적 효과를 좌우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平聲韻을 사용하여 리듬감과 여운을 추구했다. 둘째는, 隔句 押韻 원칙이다. 首句를 제외한 홀수 句는 절대 押韻할 수 없으며, 반드시 隔句인 짝수 句에만 압운하고, 首句에는 압운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셋째는, 一韻到底의 원칙이다. 詩 한 首는 처음부터 끝까지 本韻 하나로만 押韻해야 하며, 중간에 다른 韻을 混用하거나 換韻해서는 안 된다. 글자 수가 적은 險韻이라도 예외가 없다. 押韻에는 分韻、限韻、和韻 등이 있으며, 分韻과 限韻은 여러 사람이 함께 시를 지을 때 미리 韻字를 정해놓는 것이고, 和韻은 應和詩에서 原詩의 韻으로 압운하는 것이다. 和韻에는 次韻、用韻、依韻、疊韻 등의 방법이 있다.

對仗은 언어가 짝을 이루는 駢偶를 말하며, 역시 근체시의 격률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律詩의 對仗은 일반적인 對句와는 다르게 上下 두 句 간의 平仄、語義、構造가 모두 엄격한 對를 이루어야 한다. 對仗은 고도로 농축되고 정련된 언어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組合과 對應을 통해 내용의 중점과 운율미를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내용의 對照와 曠觀 그리고 整齊한 형식 속에서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가지런한 對稱美를 가져다준다. 對仗의 종류와 屬對方法은 工對、寬對、隣對、借對、流水對、交錯對、扇對 등 대단히 다양하다. 그러나 크게 工對와 寬對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工對는 對句가 매우 정교한 경우를 일컫고, 寬對는 변통할 여지가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對句의 기본원칙은 정제된 가운데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對仗의 내용과 방식을 막론하고 上下句가 附和雷同하는 ‘舐掌’을 금기시켰다. 律詩의 對仗은 통상 頷聯과 頸聯의 두 聯에 안배하여 對仗을 이룬 聯과 그렇지 않은 聯을 서로 결합시켜 성물의 리듬에 변화와 통일의 美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소수이긴 하지만 三聯 혹은 四聯 전체에 對仗을 사용한 詩도 있다.

이상과 같은 律詩의 格律은 중국어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에서 나올 수 있는 현상으로, 중국적인 아름다움과 整齊美、音樂美、對稱美、回還美 등을 고루 갖춘 최고의 언어예술이라 칭송할 만하다.

[參考文獻]

- 《全唐詩》(臺北: 文史哲出版社 影印本).
 《清詩話》(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清詩話續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明·許學夷, 《詩源辯體》(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8).
 清·何文煥, 《歷代詩話》(北京: 中華書局, 1997).
 清·王夫之, 《唐詩評選》(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7).
 清·沈德潛, 《唐詩別裁》(長沙: 岳麓書社, 1998).
 清·仇兆鰲, 《杜詩詳注》(北京: 中華書局, 1995).

- 清·王琦,《李太白全集》(臺北:華正書局,1991).
- 葉葱奇,《李商隱詩集疏注》(北京:人民文學出版社,1998).
- 陳伯海 主編,《唐詩彙評》(杭州:浙江教育出版社,1996).
- 《唐詩鑑賞辭典》(上海:上海辭書出版社,1992).
- 宋緒連 外 2人,《唐詩藝術技巧分類辭典》(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1996).
- 呂晴飛 主編,《漢魏六朝詩歌鑑賞辭典》(北京:和平出版社,1990).
- 王力,《漢語詩律學》(上海:上海教育出版社,1978).
- 經本植,《中國古典詩歌寫作學》(北京:語文出版社,1999).
- 高右工·梅祖麟·李世耀 譯,《唐詩的魅力》(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0).
- 木齋,《中國古代詩歌流變》(北京:京華出版社,1998).
- 方瑜,《唐詩形成的研究》(臺北:牧童出版社,1975).
- 孫琴安,《唐七律詩正品》(上海:上海社會科學出版社,1978).
- 沈祥源,《文藝音韻學》(武漢:武漢大學出版社,1998).
- 梁啟超,《中國之美文及其歷史》(北京:東方出版社,1996).
- 楊鎌·薛天緯 主編,《詩歌通典》(北京:解放軍文藝出版社,1999).
- 王鍊·曾明德,《詩詞曲語詞集釋》(北京:語文出版社,1991).
- 王永義,《格律詩寫作技巧》(青島:青島出版社,1998).
- 王涌豪·駱王明 主編,《中國詩學》(上海:東方出版中心,1999).
- 楊仲義·梁葆莉,《漢語詩體學》(北京:學苑出版社,2000).
- 施向東,《詩詞格律初階》(天津:天津大學出版社,2001).
- 孫菊生,《詩和詞的文藝尋踪與拾遺》(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2000).
- 賀慧宇·劉再華,《詩通》(長沙:湖南大學出版社,1999).
- 陸耀東 主編,《唐代詩學》(長沙:湖南人民出版社,2000).
- 夏授道,《詩詞曲聲律淺說》(武漢:湖北教育出版社,2000).
- 陳伯海 著,이종진 譯,《당시학의 이해》(서울:사람과 책, 2001).
- 吳戰壘 著,유병례 譯,《중국시학의 이해》(서울:태학사, 2003).
- 前野直彬 著,김양수·최순미 譯,《중국문학서설》(서울:도서출판 창, 1992).
- 김학주,《중국문학의 이해》(서울:신아사, 1994).
- 김학주,《중국문학사》(서울:신아사, 1991).
- 김준연,《당대 칠언 율시 연구》(서울:도서출판 역락, 2004).

[中文摘要]

近體詩指唐代以來的格律詩。其基本特色是對仗工整，平仄相對，音韻和諧，辭詞華美。齊梁時期，周顒發現了漢語四聲，沈約又把四聲運用到詩歌聲律上，創造了永明體，這是詩歌從古體走向近體的標志。初唐上官儀、沈佺期、宋之問等人完成了律詩的形式。從此以後，格律詩完成為中國古代最重要的詩體形式，古體詩和近體詩的界限也有了明確的劃分。

近體詩有律詩、絕句、排律三種形式。本論文以律詩來探討其平仄、用韻、對仗的用法。

所謂詩的格律，主要就是四聲平仄的配合。詩歌講究平仄的目的在於協調詩句中字詞聲調的高低、輕重，使之錯落有致，形成一種循環往復的旋律，從而產生一種和諧動聽的音樂美。

律詩的平仄格式可以綜合如下三點：第一，五言律詩和七言律詩，各有四種最基本平仄聲調交錯使用的平仄句型。五言律詩的是：①仄仄平平仄 ②平平仄仄平 ③平平平仄仄 ④仄仄仄平平 七言律詩的是：①平平仄仄平平仄 ②仄仄平平仄仄平 ③仄仄平平平仄仄 ④平平仄仄仄平平 所有五、七言律詩的平仄格式，都是由這些最基本的平仄句型排列組合起來的。詩句中的音節因平仄交錯，讀起來高低起伏；全詩語調因由不同平仄句型交替使用而富有抑揚頓挫之美。第二，格律詩對‘對’、‘粘’十分講究，要求很嚴。每一聯上句與下句的平仄必須相反，這叫做‘對’；上一聯下句與下一聯上句的平仄必須相同，這叫做‘粘’。只有這樣相對、相粘，才能使全詩的音調節奏有一種變化之美，而無單調、板滯之弊。該對的不對叫做‘失對’，該粘的不粘叫做‘失粘’，這些就是詩家所忌諱的‘拗’。一旦發生拗的現象，就要在同一句的另一個地方或對句的相應字位上用一個與原平仄相反的字，這叫做‘拗救’。不過，相對、相粘主要看第二、四、六字，這些字處在詩句的音調節奏點上，在這些字位上相對、相粘了，全詩也就可以不算失對、失粘了。第三，一行詩句在運用平仄交替律時，千萬不能使一句中除了韻腳的平聲字外，剩下一個平聲字；也不能造成句尾一連三個平聲字。否則就被稱為‘犯孤平’或‘三平調’，這兩者在格律詩中都被視為大忌。

詩歌都是需要押韻的，但與古體詩相比，格律詩的用韻比較嚴格。每首詩

限用平聲韻押，而且必須一韻到底，中間不能換韻，押韻的位置有明確的規定，不能改換。逢雙句押韻，即第二、四、六、八句押韻，第三、五、七句不可押韻，第一句可以用韻也可以不用韻。唐宋人作詩用韻原來所依的韻書是《切韻》、《唐韻》、《廣韻》。南宋末江北平水人劉淵總結了唐宋人用韻的規則，重新編了一本《壬午新刊禮部韻略》，被稱為‘平水韻’。它既反映了唐宋格律詩的用韻實際，也為明清時人普遍使用。它把漢語詩韻分為五大部(上平、下平、上聲、去聲、入聲)106韻部。押韻最大的忌諱是用重韻，即在同一首詩中用了兩個相同的字作韻腳。此外，格律詩押韻還有限韻、和韻、疊韻的說法。限韻是規定寫某首詩必須押某韻，或寫某首詩必須用某韻和該韻中的某一個字。和韻是指應和、回答別人是，採用別人作品的原韻作詩。疊韻是用自己前面一首詩的原韻作詩，即自己和自己的詩。

對仗，即對偶。它本不是格律詩所特有，但因其比一般詩文中的對偶要求嚴格，必須字數相等、詞性相同(或相近)、平仄相對、句型一致，所以也成為格律詩的格律之一。律詩要求對偶的詩句是頷聯、頸聯的上、下句。但是，在實際創作中，律詩還有只一聯或三聯、甚至全詩用對偶的。格律詩用對仗既可以在詩體結構上造成一種對稱的形式美，也可以使詩中情意得以鋪展。

關鍵詞：律詩，格律，平仄，押韻，對仗

中唐 山水詩 研究**

임효섭*

<목

차>

1. 서론
2. 沈澱된 悲嘆속의 관조
3. 内心과 괴리된 현실수용과 여유
4. 기억속에 체현된 비극의 깊이
5. 결론

1. 서론

盛唐 시기의 관료지식인 사대부는 그들의 이상을 현실 질서구조 속에서 실현시킬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1) 과거제의 시행은 문벌귀족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지적 역량만으로도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부와 사회적 명예를 획득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安史의 난으로 그 질서는 붕괴되었고 희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자신의 이상을 현실세계에 실현함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지식인이 그 희망을 상실하였다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

* 동아대학교 중국일본학부 교수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국외단기파견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梁超然, <论略柳州的激愤与忧伤>, 《唐代文学论丛》4(1983), 70쪽 참고.

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中唐 초기의 사대부 지식인은 혼란한 현실 질서를 비판하면서도 그들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찾지 못함으로써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韋應物의 산수시가 한적을 추구하면서도 적막감을 떨치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뒤이어 방향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사대부들이 등장하였다. 고문운동과 신악부운동의 주체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현실의 변화를 인식하고, 현실을 변혁하고자 하였다. 그들의 변혁운동이 철저하게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의 정신은 그 시대의 정신이었고, 그들의 작품에는 그 시대의 정신이 담겨있다. 고문과 신악부에는 변혁의 정신이, 산수시에는 변혁의 실패로 인한 정신적 갈등과 고뇌가 녹아있다. 특히 柳宗元의 시가 그러하다. 본고는 유종원의 柳州시기 작품을 통해 중당 시기 관료지식인 사대부의 정신적 갈등과 고뇌를 살펴보고자 한다.

柳州로의 두 번째 貶謫길에 오른 柳宗元은 “동정호를 지나 湘江에 이르렀는데 죄를 지어 貶謫된 자가 아니라면 여기로 오는 사람이 많지 않으리라. 하물며 臨源嶺을 지나 漓水를 지나면 남쪽으로 荔浦가 나타나는데, 刑部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으면서도 이곳으로 오는 관리는 더욱 더 적으리라”²⁾고 탄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유주에 당당한 柳宗元은 長安의 정계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해도 柳州의 행정장관으로서 經世의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한마디로 그는 柳州에 도착한 후 “이 어찌 정치를 하기에 못하지 않으리요”라고 말하고, 그 환경과 풍속에 의거하여 教化와 禁制를 설치하자 州의 사람들이 모두 따르게 되었다고 한다.³⁾ 따라서 이 시기 柳宗

2) 《柳河東集》卷23〈送李渭赴京師序〉：“過洞庭，上湘江，非有罪名左遷者罕至，又況逾臨源嶺，下漓水，出荔浦，名不在刑部而來吏者，其加少也固矣。” 실제로 柳州는 當時 中原의 정치경제적 발달의 혜택을 받지 못한 황량한 지역으로, 경제와 문화 면에서 낙후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소수민족의 반란이 끊이지 않아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인적도 드물고 戶口도 감소추세에 있는 데다 亞熱帶의 수목 속에 瘴癘가 기승을 부리는 곳이었다.

元の 내면세계는 清廉한 刺史로서 현실을 경영해야 하는 현재와 내면에 맺혀있는 애뜻한 과거가 시공의 거리로서 대립하는 것이었다. 현재가 柳州에 갇힌 것이었다면 山水와 벗을 매개로 한 그의 과거지향은 예외 없이 長安時期와 관련된 哀愁였던 것이다.

2. 沈澱된 悲嘆속의 关照

정월에 長安으로 돌아온 유종원은 3월에 다시 永州보다도 더 멀고 편벽된 柳州의 刺史로 방출되었다. 이 사건은 조정에 유종원을 동정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였지만, 그를 적대시하는 권력층의 시각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憲宗이 즉위과정에서 ‘八司馬’와 돌이킬 수 없는 감정적인 간극을 갖게 된 데다 소환되어 돌아온 유종원과 劉禹錫 등은 결코 지난 과오를 회개하는 태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은 누명을 씻으려는 태도를 보이기가 했다. 특히 유우석은 〈元和十年自朗州承召至京戲贈看花諸君子〉詩에서 玄都觀의 桃花를 빌어 당시의 정치현실을 풍자함으로써⁴⁾ 반대파들에게 결정적인 구실을 제공하고 말았다.

3월 14일의 再貶謫은 刺史를 제수받은 것이기는 하였지만 폄적지는 지난 번 보다 더 멀고 험한 곳이었다.⁵⁾ 柳宗元은 柳州로의 재편직에 유

3) 《韓昌黎集》卷32〈柳子厚墓誌銘〉：“既至(柳州)，嘆曰：‘是豈不足爲政邪？’因其土俗，爲設教禁，州人順賴。”

4) “紫陌紅塵拂面來，無人不道看花回。玄都觀裏花千樹，盡是劉郎去後栽。”(《劉禹錫集箋證》卷24(上海古籍出版社，1989)，702쪽. 이 시에 대한 분석으로는 卞孝萱，〈劉禹錫年譜〉(中華書局，1963)，80-82쪽. 卞孝萱，卞敏，〈劉禹錫評傳〉(南京大學出版社，1996)，69-75쪽 참고.

5) 그 중 劉禹錫의 貶謫地 播州는 특히 황량하고 먼 곳이었다. 당시 劉禹錫의 母親은 80 여세로 播州까지 여행을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고, 만약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이별이 될 정황이었다. 柳宗元은 이러한 劉禹錫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자신의 貶謫地인 柳州와 劉禹錫의 貶謫地 播州를 맞바꾸어 달라는 상소문을 준비하였다. 다행히도 御史中丞 裴度が 憲宗에게 간청을 하여 劉禹錫을 連州刺史로 再任命하였다. 이 사건은 柳宗元 劉禹錫에 대한 朝廷의 가혹한 태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앞의 책，〈柳宗元評傳〉

우석과 동행하였다. 십년 전의 꺾적길이자 한 달 전에 돌아온 길을 다시 내려가는 그의 심정은 매우 참담하였다. 일차 꺾적 때에는 고난의 길이지만 가슴속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병치레로 체력이 약해진데다 조정의 자신에 대한 깊은 적대의식을 확인한 터여서 너무나도 절망적이었다. 그나마 刺史로 부임하는 길이라는 것이 위안이 될 뿐이었다. 비탄의 골짜기로 추락해버린 이 시기의 심경을 가장 잘 보여주는 詩는 동행하던 유우석과 이별하며 지은 3 수이다. 먼저 〈衡陽與夢得分路贈別〉를 보자.

十年憔悴到秦京	십년동안 초췌하여 京都에 돌아왔더니
誰料翻爲嶺外行	嶺外行이 다시 될 줄 생각이나 했으랴
伏波故道風煙在	伏波將軍 옛길에는 바람 연기 날리고
翁仲遺墟草樹平	翁仲石人 남은 터에 초목만 무성하네
直以慵疏招物議	어리석고 소홀하여 物議를 초래하여
休將文字占時名	文字로써 세상 명성 구하지 않으리라
今朝不用臨河別	이 朝廷에 쫓겨나서 강 두고 이별하니
垂淚千行便濯纓 ⁶⁾	천만 갈래 흐른 눈물 갖 끈을 씻는구나

元和 10년(815) 정월, 劉禹錫과 함께 長安으로의 소환 명령을 받고, “십 년간의 고초 끝에 京都에 돌아왔건만,” 그해 3월 政敵의 모함으로 다시 유종원은 柳州刺史로, 유우석은 連州刺史로 꺾적되어 산 넘고 물 건너 환희에 젖어 왔던 길을 절망을 짊어지고 다시 돌아가야만 했다. 그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 다시 자신들의 재능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래에의 꿈에 부풀어 있던 그들은, 유우석이 지은 詩 한편으로 그들의 복권을 달가워하지 않던 政敵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⁷⁾ 너무나도 고대하던 복귀였기에 기쁨에 들떠 풍자의 뜻이 담긴 詩 한 편을 지었는데 그것이 물의를 일으켜 다시 쫓겨

(中國思想家評傳叢書)》, 131쪽 참고.

6) 《柳河東集》卷42 〈衡陽與夢得分路贈別〉.

7) 《舊唐書·劉禹錫傳》：“元和十年自武陵召還，宰相復欲置之郎署。時禹錫作〈遊玄都觀詠看花君子〉詩，語涉譏刺，執政不悅，復出爲播州刺史。”

나게 되고 보니, 그 한 순간의 소홀함이 땅을 칠만큼 후회스러워 스스로를 어리석다 自嘲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다시는 글을 지어 남에게 보이지 않으리라 맹세도 한다.

이렇게 억울한 심정을 안고 柳州로 가는 흙먼지 휘날리는 머나먼 길⁸⁾에 그의 눈에 비치는 것은 바람 따라 흔들리다 흩어지는 연기와 무성한 초목 속에 멍하니 선 무덤가의 석상뿐이다. 스스로가 바람에 날려 하늘가로 흩어지는 연기같이 외롭고 힘을 잃은 존재요, 무덤가에 멍하니 서있는 석상처럼 의미 없는 존재인 듯 느껴진다. 이렇게 힘겨운 길을 그나마 知己와 같이라서 견딜 수 있었건만 이제 이 衡陽에서 헤어지려니 그들 앞에 흐르는 강물이 이별의 강이요 눈물의 강이 되어 북받치는 슬픔을 감출 수가 없다. 이 강이 永州 시기에 그토록 다시 건너 長安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湘水임을 생각한다면 그 슬픔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은 七言律詩로서 뛰어난 구법을 구사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⁹⁾ 첫 연은 십년간의 貶謫 생활을 지내고 ‘憔悴’한 모습으로 長安城을 들어설 때에는 다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었지만, 다시 ‘嶺外行’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음을 吐露하고 있다.¹⁰⁾ 둘째 연의 伏波는 漢代 장군의 명칭이고, 翁仲은 墓 앞의 石人이다. 여기서는 아마 衡陽 馬援의 묘 앞에서 있던 석인을 가리키는 것 같다. 西漢 武帝가 파견한 伏波將軍 路博德은 오늘날의 湖南을 거쳐 越을 정벌하러 갔으며, 東漢 光武帝 때의 伏波將軍 馬援이 交趾에 갈 때에도 역시 이 길을 지나갔다. 유종원 유우석이 지나던 곳이 바로 그들이 지나갔던 길인 것이다. 따라서 이 연은 그 옛날 馬援과 지금의 자신

8) 柳州는 永州에서 2 천 리나 더 먼 곳이었다. 永州에서 桂州까지가 천 리인데 柳州는 계주에서 다시 천 리를 더 가야만 했다. “桂州西南又千里”: 〈寄韋珩〉《柳河東集》卷42.

9) 金湙生, 《粟香隨筆三筆》卷1: “凡律詩最重起結, 七言尤然. 起句之工於發端, 如柳宗元 ‘十年憔悴到秦京, 誰料翻爲嶺外行’……. 落句以語盡意不盡爲貴, 如柳宗元 ‘今朝不用臨河別, 垂淚千行便濯纓’, 皆足爲一代楷式.”

10) 梁超然, 〈论略柳诗风格〉, 《文学遗产》2(1994), 49쪽 참고.

들을 비교하여 더욱悲痛해지는 심정을 말한 것이다. 漢代 伏波將軍이 南征할 때 남긴 荒涼한 古道와 草木 속에 묻혀 있는 零落한 古墓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前途도 이 모습처럼 暗澹하고 淒涼할 것있음 예견한다. 셋째 연은 첫째 연을 이어받아¹¹⁾ 再貶謫 당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慵疏”와 “文字”가 두 가지 죄¹²⁾라고 하였다. 그러나 “慵疏”는 자신의 이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실천방법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자책한 말이고, “文字”는 앞서 설명한 유우석의 시를 지칭¹³⁾하는 것이라면 내심으로는 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直以”가 이런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말이고 “休將”이 후회하여 경계하는 말¹⁴⁾이라면, 차후 실천의지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연은 주제인 이별의 슬픔을 토로하였다. 따라서 전체 詩는 近藤元粹의 評처럼 그 慷慨淒惋함이 情景과 어우러져 읽는 이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¹⁵⁾

이어서 〈重別夢得〉과 〈三贈劉員外〉을 살펴보자.

二十年來萬事同	이십년간 모든 일을 함께 다 하였는데
今朝岐路忽西東	오늘 아침 갈림길에 동서로 나뉘다니
皇恩若許歸田去	皇恩 입어 田園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晚歲當爲隣舍翁 ¹⁶⁾	만년에는 이웃집의 노인이 되세 그려
信書成自誤	책을 믿는다는 게 잘못된 줄을
經事漸知非	일 겪으며 내 잘못 알게되었네
今日臨岐別	오늘 이 갈림길에 이별하면은

11) 孫月峯, 《評點柳州集》卷42: “起兩句點得事明, 三·四點景渾雅, 五·六申首聯, 末以惜別意, 結格最穩.”

12) 朱三錫, 《東岳草堂評訂唐詩鼓吹》卷1: “一以慵疏取罪, 一以文字取罪, 輕輕用‘濯纓’兩字以見清濁之分, 有罪無罪, 千載下自有定論, 無容更置一喙也.”

13) 近藤元粹, 《柳州集》卷2: “劉再謫蓋文字之禍, 故第六云如此.”

14) 趙臣瑗, 《山滿樓唐詩箋注》卷4: “‘直以’者, 無可奈何之詞也. ……故曰‘休將’. ‘休將’者, 悔而戒之之詞也..”

15) 近藤元粹, 《柳州集》卷2: “慷慨淒惋, 情景俱窮, 直堪隕淚.”

16) 《柳河東集》卷42 〈重別夢得〉

何年休汝歸¹⁷⁾어느 해에 그대가 돌아오려나

〈重別夢得〉의 “二十年”·“今朝”·“晚歲”에 대해 汪森은 그 필법이 相生의 妙를 발휘하였다고 評하였다.¹⁸⁾ 과거 20년간 뜻을 같이 하여 현실 개혁에 모든 노력을 다하였지만, 지금은 중앙조정에서 쫓겨나 변방의 刺史로 뿔뿔이 흩어져야 할 상황에 처하였다. 近藤元粹는 두 사람의 우정을 알 수 있다고¹⁹⁾ 하였지만 둘째 구는 단순한 이별에 대한 슬픔 외에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숨어있다. 그래서 셋째 구와 넷째 구에서 田園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내자고 말하는 것이다. 〈衡陽與夢得分路贈別〉의 3연에 이어 또다시 현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앞 절에서 유종원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약화되고 또 그만큼 잃어버린 기력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이상을 포기하지는 않았으나 때로는 모든 것을 잊고 田園과 山水 속에 은거하여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은 심정을 가지기도 하였던 것이다.

永州에서 10 년간의 貶謫 생활을 끝내고 長安으로 소환되어 환희에 젖었다가 다시 柳州로 貶謫되어 절망에 빠졌을 때, 남방 貶謫길에 동행해 온 知己 유우석과 헤어지며 지은 작품이다. 첫 연은 이별의 아쉬움을 그리고 있다. “이십 년간 모든 일을 함께 다 하였는데”라는 첫 구절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지난 일들을 연상케 한다. 이 20 년 속에는 貶謫생활 10년도 포함된다. 실제로 유종원과 유우석은 貞元 9년 793년에 같이 進士가 되었는데, 이 작품을 지은 때는 元和 10년 815년 이므로 대략 23년이 흘렀다. 이 23년의 기간 동안 이상에 대한 열정을 함께 하고 혁신에 동참하여 동지애를 나누기도 했지만, 혁신의 패퇴로 각각 남방에 貶謫되어 만나지 못한 시간이 10년이다. 그런데 이십 년간 모든 일을 함께 하였는데 오늘 헤어지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貶謫

17) 《柳河東集》卷42 〈三贈劉員外〉

18) 汪森, 《韓柳詩選》: “‘二十年’·‘今朝’·‘晚歲’ 筆法相生之妙.”

19) 近藤元粹, 《柳柳州集》卷2: “交情可想.”

10년을 헤어진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제는 정말 헤어지게 되었다는 뜻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헤어짐과 10년 전의 헤어짐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는 지난 10년은 다시 자신들의 이상을 펼칠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희망과 신념 속에서 헤어져 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서로의 만날 날을 기약하고 있었던 반면, 지금의 헤어짐은 다시 만날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이다. 앞으로도 여전히 같은 이상을 지향하는知己의 관계임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이제 그 이상을 함께 실현할 길이 없으리라는 절망감에 빠진 것이다. 따라서 둘째 연의 田園으로 은거하자는 말은 이 절망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절망감은 바로 과거에 대한 회한이며 동시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러면서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해결책으로 隱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²⁰⁾

그는 자신의 앞날에 아무런 전망을 가질 수 없었다. 유우석과 헤어지기 전에는 그래도 완전히 절망에 빠지지는 않았었다. 아직도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永州 시기에 가졌던 희망과는 그 기대치가 다르다. “오직 하나 가을바람 다시 한 번 빌려서/만리 창공 솟아올라 구름에 날았으면”하는 바람 즉, 여름철 새장 속에 갇힌 사냥매가 사냥철인 겨울이 오면 다시 날개를 힘차게 펼치고 창공을 날듯, 그도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아 자신의 웅지를 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영주시기의 희망이, “皇恩 입어 田園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만년에는 이웃집의 노인이 되세 그려”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제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현실을 개혁하겠다는 꿈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었다. 당시의 현실 속에서 이상을 실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獨善其身할 수 있는 田園생활이나마 영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 작은 희망도 그 성격이 활달하고 낙관적인 유우석과 함께 할 때의 것이다. 비통한 편적길이지만 평생의 지기인 유우석과 동행하는 동안은 다소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三贈劉員外〉의 1,2구는 〈衡陽與夢得分路贈別〉 3연의 자신들은 잘

20) 汪森, 《韓柳詩選》: “二十年·今朝·晚歲, 筆法相生之妙.”

못이 없다는 불평을 다시 토로하고 있다. 책을 믿는다는 것이 잘못된 줄을 알게 되었다는 말은 잘못이 없다는 강력한 웅변이다. 따라서 이 이별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본의를 숨기거나 뒤틀어 표현하는 어법은 유중원 시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희열로 건넌 강을 비통한 심정으로 다시 건너야 하는 상황을 언제까지나 못건너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성이 비통한 심정으로 가라앉으면서 그의 정서도 정상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商山臨路有孤松往來斫以爲明好事者憐之編竹成援遂其生植感而賦詩〉는 商州에 도착하여 길가의 孤松을 빌어 자신의 심정을 관조가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결과이다.

孤松停翠蓋	孤松은 푸른 모자 높이 쓰고서
託根臨廣路	뿌리에 의탁하여 한 길에 섰네
不以險自防	위험해도 스스로 막지 못하고
遂爲明所誤	잘못된 명성 얻어 찢릴 지경에
幸逢仁惠意	다행이 은혜로운 마음 만나서
重此藩籬護	소중히 울타리로 보호받으니
猶有半心存	반이라도 살 마음 남아 있으면
時將承雨露 ²¹⁾	때 맞추어 雨露를 받으려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재 처지가 길가의 孤松처럼 스스로의 총명 때문에 꺾박을 당하면서 스스로를 지킬 아무런 방도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오직 權勢家의 “仁惠”에 希望을 걸 수밖에 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이 작품은 아무래도 悲痛에 기운 모습이다. 이와 비슷한 작품으로는 〈長沙驛前南樓感舊〉가 있다. 한스런 마음으로 漢江을 내려가 洞庭湖를 건너 湘江을 거슬러 長沙에 이르렀을 때, 30년 전 이곳의 기억이 떠올라 感懷를 노래한 이 시는 직접적인 내면의 토로이면서도 완성도가 매우 높은 작품이다.

21) 《柳河東集》卷42 〈商山臨路有孤松往來斫以爲明好事者憐之編竹成援遂其生植感而賦詩〉.

海鶴一爲別	바다 학과 단 한번 이별하고서
存亡三十秋	생사존망 삼십년 세월이라니
今來數行淚	오늘에야 몇 줄기 눈물 흘리며
獨上驛南樓 ²²⁾	홀로 驛 南樓위를 오르는구나

이 시에 대해 俞陞雲은 유종원의 벗에 대한 돈독한 정을 알 수 있는²³⁾ 작품이라고 평하였는데, 이는 柳宗元의 “昔與德公別於此”라는 自註에 근거한 評이라 판단되는데 德公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陳景雲에 의하면 어린 시절 부친을 따라 鄂州에 있을 때에도 湘江을 건너 南下한 적이 있었을 것이라 한다.²⁴⁾ 이 작품을 지을 때 유종원의 나이가 43세였으므로 “三十秋” 이전이라면 13세이므로 德公과의 이별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부친과 함께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작품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德公과의 이별에 대한 감회 때문이라기 보다는, 顧樂의 評처럼 지난날과 앞으로의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며 흘린 눈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⁵⁾ 더욱이 “存亡三十秋”의 存亡은 지난 삶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獨上驛南樓”의 獨上은 현재와 미래의 孤立無援의 처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長沙驛前南樓感舊〉를 정점으로 유종원의 시는 격량의 한 시기를 지나 객관 景物을 더 수용하기 시작한다. 비탄의 정점이 지나버림으로써 결집된 자아가 모여있던 자리를 경물이 차지하고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 柳州로 가는 길에 다시 界圍巖을 들러 지은 〈再至界圍巖水簾遂宿巖下〉가 바로 그 예이다.

古苔凝青枝	오랜 이끼 푸르른 가지에 살고
陰草濕翠羽	음지 풀이 과량새 날개 적시네

22) 《柳河東集》卷42 〈長沙驛前南樓感舊〉.

23) 俞陞雲, 《詩境淺說續編》: “一死一生, 乃見交情. 況歷三十年之久. 重過南樓, 歷歷前程, 行行老淚, 山陽聞笛之情, 馬策西州之慟, 無以過之. 知子厚篤於朋友之倫矣.”

24) 陳景雲, 《柳集點勘》: “蓋隨父在鄂時亦嘗渡湘而南.”

25) 顧樂, 《唐人萬首絕句選》: “有俯仰身世之感.”

蔽空素彩列 하늘 가득 흰 비단 펼쳐져 있고
 激浪寒光聚²⁶⁾ 거센 물결 차가운 빛이 모인 듯

이 詩 역시 界圍巖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詩이다. “靑枝”, “翠羽” 그리고 하늘을 가득 덮은 “素彩” 등은 앞의 詩처럼 界圍巖과 폭포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心象들이다. 그러나 “古苔”와 “陰草”가 무언가 어두움을 느끼게 한다. 앞의 詩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경쾌함과 밝음이 아니다. 더욱이 앞 詩의 구비 구비 푸른 옥벽을 휘감아 돌던 비단결 같은 “澄流”가 이 詩에서는 “寒光”이 영긴 “激浪”으로 바뀌었다. 두 詩가 모두 아름다운 心象들을 병렬하고 있지만 앞 詩가 경쾌하고 밝은 心象들임에 반해, 이 詩에는 다소 무겁고 어두움을 느끼게 하는 心象들이 각구의 첫머리에 배치되어 있다. 情緒의 변화와 心象 구성은 이렇게 긴밀하게 결합되어 詩人을 표현한다. 아름다운 界圍巖이 柳州로 가는 柳宗元에게 한순간 미적 쾌감을 불러일으키기는 하였으나 그를 슬픔에서 완전히 건져내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지금 이 湘水를 건너면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지 알 수 없다는 絶望감에 빠져들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⁷⁾

하지만 景物에 의하여 淡泊해지기는 했어도 이 시기의 情緒는 여전히 가라앉는 중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情緒의 한 복판에 絶望이 자리 잡고 있었다. 柳宗元은 침전되어가는 자신의 絶望을 쉽게도 觀照해 낸다.

好在湘江水 잘있구나 湘江水야
 今朝又上來 오늘 아침 또 왔구나
 不知從此去 여기에서 떠나가면
 更遣幾時回²⁸⁾ 몇 년 지나 돌아올지

26) 《柳河東集》卷42 〈再至界圍巖水簾遂宿巖下〉의 일부.

27) 刘繼才, 〈柳宗元与陶淵明比較論〉, 《遼寧教育學院學報》15:2(1998), 79쪽 참고.

28) 《柳河東集》卷42 〈再上湘江〉.

년 초에 이 강을 건너며, “다시 오길 그윽한 꿈에 붙이고/ 정을 두고 가는 배 재촉하노라”²⁹⁾고 노래하며 떠날 때에는 이렇게 빨리 다시 올 줄 생각도 못하였다. 자신의 기막힌 사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湘水는 예와 같이 흐르는데 공연히 자신만 한 때는 기쁘게 또 한 때는 슬프게 건너왔다 건너갔다 할 뿐이다. 그래서 “今朝又上來”의 “又”에 순간의 복잡미묘한 감정이 교차된다. 좌절의 비애도 귀경의 환희도 함께 나누었던 강이다. 그러나 지금 이 강을 건너 柳州로 가면 이제 정말 살아서 돌아올지 알 수가 없다. 한 마디 한 마디가 애를 끊는 처절함으로 느껴진다.³⁰⁾

이런 그의 미래에 대한 예감이 평담한 것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衡陽에서 유우석과 헤어진 유종원이 예감하는 것은 근심이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죽음이었다. 이제 그에게는 살아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절망만이 남은 셈이었다. 바로 이 같은 비탄을 유종원은 다음과 같이 관조해 낸다.

瘴江南去入雲煙	瘴氣 물결 구름 안개 속으로 흘러 들고
望盡黃茆是海邊	누런 순채 눈끝 닿은 그곳이 해변이라
山腹雨晴添象跡	비 개이자 산허리의 구름은 白象같고
潭心日暖長蛟涎	날 더운데 강 가운데 이무기 침 흘러며
射工巧伺遊人影	射工蟲이 나그네의 그림자를 엿보고
颶母偏驚旅客船	颶母 바람 한편에서 여객선 놀래키니
從此憂來非一事	이로부터 근심 걱정 한가지 아닐터라
豈容華髮待流年 ³¹⁾	백발에겐 흘러가는 세월도 주지않으리

유종원은 柳州로 가는 지름길을 택하여 湘江에서 靈渠를 지나 灘水로 가서 桂江을 타고 다시 潯江 유역에서 거슬러 올라갔다. 이 詩는 배로 강을 타고 가면서 五嶺 이남 지역의 낮선 풍물을 보고 지은 것이다. 단순히 낮선 풍물이 아니라 오싹 몸을 움츠리게 하는 두려운 광경이다.

29) “再來寄幽夢, 遺貯催行舟.”: 〈界圍巖水簾〉의 끝 부분.

30) 蔣之翹, 《柳集輯注》卷42: “淒絕, 一言腸斷矣.”

31) 《柳河東集》卷42 〈嶺南江行〉.

끝도 보이지 않는 毒氣가 피어오르는 강 물결, 너무 더워 강 속에서 머리를 내밀고 침을 흘리는 이무기, 자신을 숨어 엿보는 듯 한 독기를 뿜어 사람을 죽이는 射工蟲,³²⁾ 타고 가는 배를 뒤집어버릴 듯 거센 회오리바람을 몰아오는 颶母구름³³⁾ 등등. 폼적길이 아니라 유람길이라면 누런 순채로 뒤덮힌 北海灣의 모습과 아열대 기후의 낮 비가 그친 뒤에 산허리를 휘감은 흰 코끼리 형상의 구름³⁴⁾은 이채롭고 경이로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의 유종원에게 그것은 낯설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두려운 대상이다.³⁵⁾ 그에게는 아름다운 남방의 경물이 눈에 들어오지도 느껴지지도 않는다. 아무런 전망도 가질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이 온 몸을 휘감을 뿐이다. 그래서 급기야 이 두렵고 황량한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리라는 절망에 빠지고 만다.³⁶⁾

3. 內心과 괴리된 현실수용과 여유

柳州는 唐代에 桂州 이남에서는 비교적 큰 州邑이었지만, 황량한 下州이긴 다른 남방 州邑과 다를 바 없었다.³⁷⁾ 그러므로 처음 柳州에 당도한 유종원은 그 황량함에 두려움과 비애를 함께 느낄 수밖에 없었다.³⁸⁾ 멀리 柳州가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지은 〈銅魚使赴都寄親友〉은

32) 張華, 《博物志》卷3〈異蟲〉: “江南山溪中有射工蟲, 甲蟲之類也. 長一二寸, 口中有弩形, 氣射人影, 隨所著處發瘡, 不治則殺人.”

33) 《國史補》卷下: “南海人言, 海風四面而至, 名曰颶風. 颶風將至, 則多虹蜺, 名曰颶母.”

34) 周去非, 《嶺外代答》卷2: “象州郡治西樓正面山雨晴, 山腹忽起白雲, 狀如白象, 經時不滅.” 何焯, 《義門讀書記》: “近峯聞略: ‘廣西象州, 雨後山中遍成象迹, 而實非有象也.’”

35) 朱三錫, 《東岳草堂評訂唐詩鼓吹》卷1: “一二寫地, 言瘴江海外, 一望雲煙也. 三四寫景, 嶺南山水皆在所望之中矣. 五六寫物, 卽七之憂非一事也. 極言景物之異, 以見所居之非地耳.”

36) 梁超然, 〈論略柳詩風格〉, 《文學遺產》2(1994), 47쪽 참조.

37) 《元和郡縣志》에 의하면, 당대의 柳州는 약 1300 戶였고, 1 호를 평균 5 인으로 계산하면 인구는 약 6500 명으로 추산된다.

38) 梁超然, 〈柳詩風格論略〉《國際柳宗元研究擷英》('93柳宗元國際學術討論會

자신의 시야에 들어온 柳州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行盡關山萬里餘	변경의 산 만여 리를 걷고 또 걸어서
到時間井是荒墟	당도하니 마을들은 황량한 폐허로다
附庸唯有銅魚使	작은 고을이라 오직 동어사 밖에 없어
此後因無寄遠書 ³⁹⁾	이후로는 먼 곳으로 편지도 못하리라

長安에서 柳州까지는 육천여 리의 머나먼 여정이었다. 여기에 “변경의 산 만여 리를 걷고 또 걸어서”라고 한 것은 永州에서 長安까지의 사천여 리를 합한 거리이다. 이 머나먼 여정에 산을 넘고 강을 건너 柳州 州邑에 당도하고 보니, 州邑이라고는 하나 북방의 번성한 고을들에 비교하면 “황량한 폐허”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황량한 폐허가 만 여리의 행로라는 고난의 결과이기에 그 허탈감과 비애가 충분히 감지된다. 게다가 너무 작은 州邑이라 附庸⁴⁰⁾으로 치부되어 직접 長安으로 문서를 전달하는 관리가 없고, 都府에 위탁한다.⁴¹⁾ 그래서 長安을 비롯한 먼 거리에는 편지도 전할 길이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부임하자 업무를 인계하고 떠나는 전임 刺史편에 부치는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일 것만 같다. 그의 이러한 고립감을 더해주는 것은 柳州의 풍속과 언어였다. 〈柳州峒氓〉는 柳州에 들어가서 느낀 문화적인 이질감을 표현하고 있다.

郡城南下接通津	郡城 남쪽 아래로는 나무로 이어지나
異服殊音不可親	다른 복장 다른 말씨 친해질 수 없구나
青箬裹鹽歸峒客	대잎으로 소금 싸서 동굴로 가는 사람
綠荷包飯趁虛人	연잎에다 밥을 싸서 장터로 가는 사람
鵝毛禦臘縫山罽	거위 털로 추위 막고 山짐승 털옷 짓고
鷄骨占年拜水神	닭뼈로는 점을 치고 水神에게 절하네

論文選, 梁超然·謝漢強 主編, 南寧: 廣西人民出版社, 1994), pp.209-210.

39) 《柳河東集》卷42 〈銅魚使赴都寄親友〉.

40) 附庸은 천자에 직속되지 못하는 諸侯에 부속된 작은 나라를 말한다. 《禮記·王制》〈鄭玄注〉: “附庸, 小城也, 附庸者, 以國事附於大國.”

41) 〈自注〉: “嶺南支郡無綱官, 考典帳典等, 悉附都府至京.”

愁向公庭問重譯 근심끝에 公館에 가 통역에게 물고선
欲投章甫作文身⁴²⁾ 衣官 던져 버리고서 紋身하고 싶구나

柳州는 少數民族이 集居하는 지역이었다. 柳宗元은 소수민족의 생활 습속을 존중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고대 일반 지식인의 華夷偏見의 풍조에서 보기 드문 태도이다. 그가 쓴 西南少數民族 집거지역의 풍광과 습속을 묘사한 시는 중국 문학사상에서 보기 드문 작품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힘든 것이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곳 저 곳 사람들이 들고나는 나루터에 나가 세상 소식을 듣고 싶지만, 낮은 복장에서부터 이질감을 느끼는데 말까지 통하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이 이를 데 없다. 제 2 연과 제 3 연은 풍속과 언어의 차이로 말미암은 그의 고립된 상황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심상들이다. 야만 상태에 가까운 柳州 지방 백성들의 삶은 지방 목민관으로서 교화시켜야 할 대상임과 동시에, 자신을 절대적 고립 속에 가두는 장벽이기도 하다.⁴³⁾ 그 답답함을 못 이겨 유일하게 말이 통하는 통역을 불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번거롭기도 하거니와 대화의 내용과 양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직을 버리고 柳州 백성처럼 몸에 문신을 하여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습속을 익히는 것이 이렇게 답답하게 지내는 것보다 나은 것 같다. 죽을 때까지 편적에서 풀려나기를 갈망한 유종원이기에, 그리고 첫 구에서 이미 “친해질 수 없구나”라고 말하였기에 마지막 구는 그가 얼마나 극심한 고립감에 괴로워하였는가를 여실히 말해준다.⁴⁴⁾

柳州에 당도하자 自然도 사람도 모두 낯설었다. 〈寄韋珩〉은 當時 柳州의 自然과 사회를 描寫하면서 자신이 직면하게 된 행정장관으로서의 과제와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자신의 노쇠를 대비시키고 있다.

42) 《柳河東集》卷42 〈柳州峒氓〉.

43) 李跃, 〈试论柳宗元在柳州时期的诗〉, 《广西师院学报》1(1982), 41쪽 참고.

44) 朱三錫, 《東嶽草堂評訂唐詩鼓吹》卷1: “通首極言柳州之惡, 中四句皆異服殊音也. 既曰異服殊音不可親矣, 而結又云欲投章甫作文身, 是先生憂憤之極, 以寓自傷之意耳.”

初拜柳州出東郊
道旁相送皆賢豪
迴眸炫晃別羣玉
獨赴異域穿蓬蒿
炎煙六月咽口鼻
胸鳴肩舉不可逃
桂州西南又千里
灘水鬪石麻蘭高
陰森野葛交蔽日
懸蛇結虺如蒲萄
到官數宿賊滿野
縛壯殺老啼且號
飢行夜坐設方略
籠銅枹鼓手所操
奇瘡釘骨狀如箭
鬼手脫命爭纖毫
今年噬毒得霍疾
支心攪腹戟與刀
邇來氣少筋骨露
蒼白滯汨盈顛毛
君今矻矻又竄逐
辭賦已復窮詩騷
神兵廟略頻破虜
四溟不日清風濤
聖恩儻忽念行葦
十年踐踏久已勞
幸因解網入鳥獸
畢命江海終遊遨
願言未果身益老
起望東北心滔滔⁴⁵⁾

柳州刺史 除授받아 동쪽 교외 나설 때
길옆에서 餞送하는 모든 어진 이들과
차례차례 눈빛으로 인재들을 이별해
異域땅의 잡초 속에 나 홀로 들어오니
유월이라 더운 연기 입과 코에 메이고
가슴 울고 어깨 떨려 달릴 수가 없는데
桂州에서 西南으로 다시 千里를 가니
灘水에는 험한 바위 치솟은 麻蘭山에
짙은 숲과 칩덩쿨은 얽혀 해를 가리고
포도처럼 살모사와 뱀들이 달렸더니
官府에 와 몇일 목자 온 들엔 도적떼가
장정 묶고 노인 죽여 눈물로 울부짖어
허기지며 다니면서 밤에 앉아 方策 짜
둥둥 둥둥 북과 북채 양 손에 쥐었던만
괴상한 瘡 뼈에 박혀 물골은 화살갈고
귀신 손은 터럭처럼 목숨을 빼앗가며
금년에는 독에 물려 霍疾을 얻었으니
심장 밟고 배 휘젓길 창과 칼 다름없고
이후로는 기력 줄고 힘줄 뼈 드러나서
식은땀이 창백해진 정수리로 흐르네
그대 지금 억울하게 멀리 쫓겨났지만
辭賦에도 詩騷에도 통달을 하였으니
귀신같은 策略으로 오랑캐 쳐부수어
며칠만에 사방으로 맑은 바람 일리라
聖恩께서 혹여 문득 길가 갈대 살필까
십년동안 짓밟혀서 고생 이미 오랜데
요행으로 그물 풀면 짐승을 벗삼아서
평생토록 강과 바다 즐기며 지내련만
하고픈 말 결실 없이 몸은 더욱 늙어서
동북쪽을 바라보니 마음만 물결치네

편적당한 韋珩⁴⁶⁾을 동정하여 지은 시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자신이

45) 《柳河東集》卷42〈寄韋珩〉.

柳州로 폄적되어 오는 과정의 고초와 부임 초기의 어려운 상황을 다소 조약하나마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韋珩의 폄적을 동정하고, 그러나 韋珩의 재주가 뛰어나 곧 소환되리라 위로한 뒤 자신도 요행히 사면을 받으면 산수와 전원을 즐기며 살겠다는 심경을 밝히고 있다. 먼저 앞 두 연은 친우들과 헤어지는 장면이다. 여러 벗들과 “차례차례 눈빛으로[迴眸炫晃]” 이별의 인사를 대신하고 이역땅으로의 발길을 옮긴다. 여기에서 말없이 눈빛으로 이별한다는 것은 이역 땅으로의 폄적되는 고초를 서로가 잘 알기 때문에, 혹은 폄적이 너무나 억울한 것임을 서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별의 슬픔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그리고 長安에서 柳州로 가는 것은 “群玉”과 어울리다 “蓬蒿”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비유된다. 다음 세 연은 남방의 숨쉬기조차 어려운 더위와 험난한 지형,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 환경 등이 열거된다. 여기에 열거된 심상들은 여행 과정의 고초를 서술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힘을 가졌기에 그것들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의 심리적 위축감-절망감을 환기시킨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또한 있지만 그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그것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초를 겪으며 극도로 위축된 심리상태의 유종원이 임지에 당도하자마자 겪어야만 하는 고난이 6·7·8·9·10 연이다. 노소를 가리지 않고 살상을 자행하는 도적들, 재산을 약탈당하고 부모형제를 잃어 울부짖는 백성들을 위해 밤낮 없이 끼니도 잇고 소탕 계략을 짜 출동을 하지만, 도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남방의 독충과 풍토병이다. 이 풍토병과 독 속에서 사람의 목숨은 터럭만큼이나 보잘 것 없다. 결국 질병을

46) 韋珩은 柳宗元의 후배 문인으로 당시의 京兆尹 夏卿의 동생 韋正卿의 아들이고 이름은 群玉이다. 어질고 재주가 있어 韓愈가 그를 천거한 적이 있다. 그가 한유에게 문장 지도를 부탁하자, 한유는 그에게 답신을 보내어 柳宗元을 추천하였다. 柳宗元이 永州에서 그에게 〈答韋珩示韓愈相推以文墨事書〉라는 글을 써 주었다. 이후 柳宗元이 장안에서 柳州로 떠나갈 때 그는 長安 東郊까지 송별해주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머지않아 그 역시 貶謫당했다. 그가 貶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柳宗元이 그를 同情하여 이 詩를 지었다.

얻어 내장이 칼과 창으로 찌르는 듯 고통스럽고 물골은 화살같이 앙상하게 말라만 간다. 움직이기 힘들뿐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정수리에서 흘러내리는 식은땀이 머리를 적시고 창백한 얼굴로 흘러내린다. 이렇듯 죽음을 연상하리만치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 그는 韋珩의 꺾적을 생각한다. 이는 同病相憐의 의미이다. 그도 나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고통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詩人에게 한 가닥의 여유를 준다.

이에 후반 다섯 연은 韋珩에게 赦免의 희망이 있으리라 위로하며, 절망 속에서 부여잡고 있는 자신의 마지막 실낱같은 소망을 피력하고 있다. 韋珩 그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문학적 소양도 뛰어나므로 지금 억울하게 쫓겨났지만, 조정이 발호하는 藩鎮을 토벌⁴⁷⁾하는 정황으로 보아 곧 정치적 쇠신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韋珩 그대는 다시 조정으로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길가의 갈대 같은 자신도 흑시라도 성은으로 꺾적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기대를 한다. 다행히 황제의 관대한 조치로 사면을 받으면 새와 짐승을 벗 삼아 강과 바다를 즐기며 삶을 마감하리라는 소박한 바람도 조심스럽게 퍼 보인다. “解網”은 황제의 인애로운 마음을 비유⁴⁸⁾하는 동시에 속세의 그물을 벗어 던지고 싶다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유종원이 永州 시기에 가지지 않았던 원망을 읽을 수 있다.⁴⁹⁾ “십년동안 짓밟혀서 고생 이미 오랜데”는 永州에로의 꺾적에 대

47) 元和 11년 12월, 朝廷은 李愬에게 서부전선을 책임지고 지휘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12년 정월 전쟁은 패색을 만회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7월, 재상 裴度가 전방에 가서 군사를 독려했고, 10월에 李愬는 기병을 출동시켜 눈 내리는 밤을 틈타 蔡州를 공격하여 吳元濟를 생포하고 淮西를 平靜했다. 《舊唐書·裴度傳》：“(元和十二年八月)二十七日, 至鄆城, 巡撫諸軍, 宣達上旨, 士皆賈勇. 時諸道兵皆有中使監陣, 進退不由主將. 度至行營, 並奏去之, 兵權專制之於將, 衆皆喜悅, 軍法嚴肅, 號令畫一, 以是出戰皆捷.”

48) 《呂氏春秋》卷10〈孟冬紀·異用〉에 의하면, 商나라 군주 成湯이 그물 사냥꾼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그물의 삼면은 없애고 한 면만 남겨두라 하여 인자함을 나타냈다. 후에 이는 제왕의 仁愛之心을 칭송하는 典故로 사용되었으며, 형벌에 관대하고 죄를 사면해 주는 비유로 자주 사용되었다.

49) 元和10년에 吳元濟가 반란을 일으키고, 재상이 피살되자 朝廷은 藩鎮과 전쟁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朝廷에는 많은 인재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柳宗

한 항변이고, “평생토록 강과 바다 즐기며 지내련만”은 조정에 대한 단호한 결별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자신의 이상이 현실 속에서 아무런 성취도 이루지 못한 채 늙어감에 대한 아쉬움으로 마음은 더욱 허전해진다. 이렇게 柳宗元은 柳州의 폼적으로 인한 절망으로 탈진 상태에 빠져든다.

이상과 같은 자아와 현실의 관계는 벗을 그리워하는 데에 있어서조차 격리된 자신의 상황을 곱씹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柳州에 도착한 그해 가을 柳州의 城樓에 오른 유종원은 자신과 함께 폼적된 韓泰·韓曄·陳諫·劉禹錫 등을 생각하며 <登柳州城樓寄漳汀封連四州刺史>를 짓는다. 山水一如의 서정보다는 산수에 의한 격리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 시의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城上高樓接大荒	성곽 위의 높은 누각 황야로 이어졌고
海天愁思正茫茫	바다 하늘 愁心으로 진정코 망망한데
驚風亂颭芙蓉水	놀랜 바람 부용강에 물결을 일으키고
密雨斜侵薜荔牆	장대비는 벽려담에 비끼어 스며드네
嶺樹重遮千里目	고개 마루 나무들은 千里의 눈길 막고
江流曲似九回腸	강물결은 굽이쳐서 九曲肝腸 같은데
共來百越文身地	모두 함께 文身하는 百越에 쫓겨와서
猶自音書滯一鄉 ⁵⁰⁾	소식 담은 서찰마저 한 고을에 멈췄네

첫 연의 “高樓”와 “海天”은 바라보고(혹은 만나고) 싶은 마음 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고 “正”은 그 고통이 극에 이르렀음을 강조한 시어이다.⁵¹⁾ 둘째 연의 “驚風”과 “密雨”는 사람의 이런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음으로써 愁心을 더하는 實景이자,⁵²⁾ 세상사

元은 오히려 남방의 황량한 小州로 다시 쫓겨났던 것이다. 이 사건은 柳宗元의 心理적 평형을 크게 깨뜨렸다.

50) 《柳河東集》卷42 <登柳州城樓寄漳汀封連四州刺史> .

51) 金聖嘆, 《唐才子詩甲集》卷5: “一句下個高樓字, 二句下個海天字, 高樓之爲言欲有所望也, 海天之爲言無奈并無所望也. 於是心絕氣絕矣. 然後下個正字, 正之爲言人生至此, 已是入到一十八層之最下層, 豈可還有餘苦未喫再要教喫.”

52) 朱三錫, 《東岳草堂評訂唐詩鼓吹》卷1: “偏是驚風密雨, 全不顧人; 亂颭斜侵,

의 험악함과 내심의 놀램과 두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표현은 離騷에 비견되기도 한다.⁵³⁾ 셋째 연의 “巖樹”는 시선을 가로막음으로써 자신을 죄인처럼 가두는 담장으로 느껴지고, “江流”는 내면의 고통에 비유되는 생동적인 표현이다. 넷째 연의 “共來”와 “猶自”는 이 황량한 蠻夷의 땅에 꺾적와서 만날 수도 소식을 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대한 비분과 원망의 크기를 나타낸다.⁵⁴⁾ 꺾적을 언어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嶺南의 독특한 풍광 묘사를 통해 내면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토로하였을⁵⁵⁾ 뿐만 아니라 律詩의 格律에서도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된다.⁵⁶⁾ 그를 죽음으로 이끈 요인은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하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무더위와 이방인에게 있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풍토병이라는 외적·육체적 苦痛이었고, 다른 하나는 참을 수 없는 절망과 울분—심리적 균형 상실—의 내적·정신적 고통이었다.⁵⁷⁾

작품 속의 시각은 끊임없이 옮겨 다녀 화면이 다소 산란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황야에서 바다와 하늘이 잇닿은 수평선으로, 다시 물결치는 부용강에서 비바람 속의 담장으로, 그리고 고개마루 나무에서 구비치는 강물결로 옮겨 다닌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이 작품을 초점 없이 산만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다소 현란한 듯한 시선의 움직임은 바로 끝연에 모아져 멈춰지기 때문이다. 황야·수평선·강 끝으로 이어지는 물결·

有加無已，愁思不愈難爲情乎？”

53) 吳以梅, 《唐詩貫注》卷38: “離騷: ‘攀薜荔兮水中, 采芙蓉兮木末.’ 今兩物同用, 本於此, 寫騷人之幽怨. 而九歌山鬼章曰: ‘若有人兮山之阿, 被薜荔兮帶女蘿.’ 則又有暗射詭秘之意. 荷花又謂草芙蓉, 楚辭又云: ‘芙蓉始發, 雜芰荷些. 紫莖屏風, 文綠波些.’ 今詩之用, 總括騷怨, 探其來歷, 則句皆有根有味.”

54) 朱三錫, 《東岳草堂評訂唐詩鼓吹》卷1: “曰‘共來’曰‘猶是’, 愁之深, 怨之至也.”

55) 王文濡, 《唐詩評注讀本》卷3: “前六句直下, 皆言登樓所望之景. 末二句總括, 不明言謫宦而謫宦之意自見.”

56) 陸胎典: “子厚詩律細於昌黎, 至柳州諸詠, 尤極神妙, 宣城參軍之匹.” (《瀛奎律髓彙評》卷4) 汪森, 《韓柳詩選》: “柳州諸律詩格律嫺雅, 最爲可玩.”

57) 李育仁, 〈論柳宗元詩中悲劇性格特征〉, 《唐代文學研究》1(1988), 149-150쪽 참고.

하늘과 땅을 잇는 보슬비·千里目·九曲肝腸 이 모두가 무한대의 의미이며 동시에 거리낄 것 없는 자유로움의 의미이다. 이에 대비되어 “文身하는 百越땅”에 쫓겨 온 시인과 그의 친우들의 처지는 손발이 엮매인 감금의 상태에 다름 아니다. 이 詩의 절정은 “猶自音書滯一鄉”의 ‘滯’ 字이다. 滯는 막혀 있다는 뜻으로 자유롭지 못함을 말한다. 따라서 ‘滯’는 역방향으로 자유 즉 동료들과의 교류 나아가서는 고향 혹은 長安으로의 회귀에 대한 강한 바람을 암시하며 이것이 바로 이 詩 전편에 은폐된 초점이다. 그래서 산란해 보이는 화면은 더 이상 부서지지 않고 앞 세 연의 심상들은 마지막 구의 ‘비통함’과 그 이면에 숨은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에의 열망이라는 초점으로 집중된다. 이 열망은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은근하게 작품 속에 모습을 드러낸다.

柳州刺史로서 유종원은 이 지역의 개발에 뛰어난 공헌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노비를 풀어주고 인신매매를 금지하였으며, 농민의 노예로의 전락을 막기 위하여 고리대를 금지하였다. 그리고 柳州의 낙후된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중원의 생산기술을 도입하고 자신이 직접 나무를 심어 造林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도로와 주거를 정비하고 우물을 파고 미신을 타파하는 등 柳州의 생활환경과 풍속의 개선에 힘써, 3,4 년의 펴적기간 동안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種柳戲題〉는 버드나무를 심은 뒤의 所懷를 밝힌 시다. 柳州를 경영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던 그였지만 뜻밖에도 그의 經世는 시작에 있어서의 戲文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세가 의미를 잃어가면서 유종원의 시작은 독백 속의 대화 같은 가벼운 장르로 변해 간다.

柳州刺史
種柳江邊
談笑爲故事
推移成昔年
垂陰當覆地
聳幹會參天
好作思人樹

柳州땅에 부임한 柳氏刺史가
柳江邊에 버들을 심어 두어서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세월이 흘러 흘러 옛날이 되면
그림자 드리워서 땅을 뒤덮고
줄기는 우뚝 솟아 하늘 찌르리
그 님을 사모하는 나무되려도

慚無惠化傳⁵⁸⁾ 전해질 恩惠 없어 부끄럽구나

당초 조정에서 유종원을 柳州로 파견한 것은 그의 姓이 柳였기 때문에, ‘농담하는’ 태도로 이 임명을 결정하였고, 유종원도 이에 대해 ‘戲言’으로 이 작품을 지었다고 한다.⁵⁹⁾ “戲”라고 제목을 붙였으나 한 자 한 자 눈물이 숨어 있다.⁶⁰⁾ 柳씨가 柳州刺史가 되어 柳江邊에 柳樹를 심어 훗날 역사상의 故事가 되리라고 하였다. 나무가 크게 자라 그늘을 드리워서 후대 사람들이 나무를 보고 자기를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셋째 연은, 周 召公이 甘棠을 심어 後人들이 차마 베지 못한 故事를 暗用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이 후대에 아무런 “惠化”를 남기지 못해 부끄럽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위해 힘써서 좋은 地方官이 되겠다는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⁶¹⁾ 자신의 직책에 충실하여 仁政을 베풀고 백성을 사랑하여 “惠化”를 남기겠다는 것이다. 〈種木榭花〉도 木榭花를 심으며 柳州로의 僻적에 대한 짧은 哀傷을 표현한 작품이다.

柳宗元이 柳州 조립사업의 일환으로 城西北에 柑橘 200 그루를 심어 크게 자라 녹음이 우거지자 지은 〈柳州城西北隅種甘樹〉 또한 비슷한 분위기다. 시작에 대한 절실함이 사라지면서 지금 이곳에 대한 시는 점점 애수를 띤 자신의 신변일기가 되어간다.

手種黃甘二百株	내 손으로 황감 이백 그루를 심었더니
春來新葉徧城隅	봄이 오자 새순들이 성 모퉁이 덮는데
方同楚客憐皇樹	바야흐로 屈原처럼 황감을 아끼지만
不學荊州利木奴	荊州 李衡 얻은 리는 배우지 않았다고
幾歲開花聞噴雪	몇 해 후면 꽃이 피어 날리는 눈 내음에
何人摘實見垂珠	그 누구가 열매 따며 늘어진 구슬 볼까
若教坐待成林日	만약 앉아 숲 이를 날 기다린다면 하여도
滋味還堪養老夫 ⁶²⁾	그 재미가 병든 노인 즐겁게 해주리라

58) 《柳河東集》卷42 〈種柳戲題〉.

59) 앞의 책, 《柳宗元評傳(中國思想家評傳叢書)》, 136쪽 참고. 혹자는 이 작품은 柳宗元의 작품이 아니라 후대 사람이 지은 것이라고도 한다.

60) 屈復, 《唐詩成法》卷4: “題雖曰‘戲’,而意則一字一淚.”

61) 梁超然, 〈論略柳詩風格〉, 《文學遺產》2(1994), 47-48쪽 참고.

둘째 연의 “楚客”은 屈原을 지칭하는데, 屈原은 〈橘頌〉을 지어 글을 “后皇佳樹(천지간의 아름다운 나무)”라 칭하여 그 “受命不遷(천명을 받아 변하지 않는)”의 굳은 품격을 칭송하였다. 荊州는 東吳의 丹陽太守 李衡을 지칭하는데, 그는 굴 천 그루를 심어 임종시에 자식에게 이 천 그루의 굴나무는 천 명의 “木奴(나무노비)”로서 생계의 자원으로 남겨둘 만한 것이라고 하였다. 유종원은 굴원처럼 굴의 고상한 품격을 사랑하여 자신도 初志를 변치 않을 것이며, 李衡처럼 이익을 피하려는 마음이 결코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셋째 넷째 연은 자신의 꺾적이 오래도록 풀리지 않으리라는 예감에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마음을 은근한 언어로 표현한 점에서 묘미를 느끼게 하지만,⁶³⁾ 둘째 연의 힘을 이어받지 못해 전체 시는 격조가 높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⁶⁴⁾

사실 성급히 이루려고 하고 그러지 못함에 번민하는 마음으로는 나무를 심을 수 없다. 그것은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조용히 인내하며 먼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작가가 심은 나무는 단순한 황감나무가 아니라 이루지 못한 꿈의 실체이다. 뜰에 나무가 자라듯 ‘내’ 마음에도 나무가 자란다. 봄이 와서 성 모퉁이를 덮은 새순은 ‘내’ 마음에도 파릇파릇한 생명이 돌아나게 한다. 둘째 연의 굴원은 작가로 하여금 현실을 환기시키는 매개체이다. 나무를 심으며 잠깐이나마 인간사를 잊으려 했는데 하필 그것이 감귤나무라 굴원을 연상하게 되고 자연히 굴원의 불행과 자신의 처지가 병치된다. 이어서 셋째 연에서는 아직 작은 굴나무를 보며 그것이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을 날을 생각한다. 이는 자신의 앞날에 대한 우려이기도 하다. 만발하여 눈처럼 휘날릴 꽃잎을 생각한다. 그 화사함에 몸을 떨면서 주렁주렁 ‘늘어진 구슬같은 열매’ 속에 가만가만 조심스레 꿈을 품는다. 그러나 이 화려하고 충만한 날은 단지 상상 속에서나 가능 할 뿐이다. 상상으로부터 현실로 돌아오

62) 《柳河東集》卷42 〈柳州城西北隅種甘樹〉.

63) 吳闓生, 《古今詩範》卷16: “深文曲致, 蓋恐其久謫不歸, 而詞反和緩, 所以妙也.”

64) 紀昀, 《瀛奎律髓刊誤》卷27: “語亦清切, 惟格不高耳.”

면⁶⁵⁾ 화려한 희망은 눈앞의 외로움을 더욱 크게 만든다. 그래서 “몇 년 후에나[幾歲]”, “그 누군가[何人]” 로 길게 탄식한다. 즉 진정 이 굴이 꽃 피고 결실을 맺는 것처럼 자신의 꿈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지, 이는 앞의 ‘나무를 심는 마음’ 과는 또 다른 태도이다. ‘나무를 심고’ 고 요히 그 결과만을 기다리려 했었는데 결국 내 마음은 그러하지 않아 감 굴은 곧 굴원을 연상시키게 되고 꼬리를 무는 여러 가지 상념에 한순간의 평정은 깨어지고 만다. 그러나 마지막 연에 이르면 다시 자신을 추스린다. 이 작은 나무들이 자라 숲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면 그 재미 또한 몸과 마음이 병든 노인을 즐겁게 해주리라는 것이다. 조급해 한들 마음의 고뇌만 더해줄 뿐이니 스스로 자족하며 때를 기다리겠다며 애써 마음을 가라앉힌다. 사실 나무를 심고 반드시 결실을 보고자 하거나, 그 그들의 혜택을 구하려 한다면 아직 세상 이치를 깨닫지 못한 셈이다. 누군들 그 결실과 그늘을 구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유종원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열심히 묵묵히 충실할 뿐 결과에 대해 그다지 연연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 기억 속에 체현된 비극의 깊이

經世의 현실이 여유를 낳고 있었다면 유종원의 기억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다. 知人과 산수에 의하여 매개되는 기억과 鄉愁는 담담해 지면서도 잊을 수 없는 것들을 애수로 끼어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柳州에서의 유종원은 자신을 찾아 온 知人들과 山水를 遊歷하기를 좋아하였는데, 永州에서 만난 적이 있는 僧 浩初가 柳州에 柳宗元을 만나러 오자, 그와 함께 遊歷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與浩初上人同看山寄京華親

65) 《三國志·吳志》注에서 《襄陽記》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丹陽 태수 이형이 사람을 시켜 무릉 용주(지금의 호남 한수)에 굴나무 천 그루를 심고 자녀들이 즐기도록 했다. “千頭木奴”란 즉 그 수확에서 얻는 이익이 노예 천 명과 맞먹는다는 뜻이다. 理想의 두 구가 뜻하는 것은, 자신이 굴나무를 심은 것은 屈原과 마찬가지로 그 고귀한 품격을 사랑해서이지, 李衡처럼 그것을 木奴로 삼아 이익을 피하려는 것을 배운 게 아니라는 말이다.

故〉이다. 정경의 낯섬과 절실한 향수의 진솔한 서술이 뛰어난 예술성으로 빛어진 이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海畔尖山似劍鋌	바닷가의 뾰족산은 마치 칼끝 같아서
秋來處處割愁腸	가을 되자 곳곳에서 愁心찬 창자 끊네
若爲化得身千億	만약 몸이 변하여서 천억 개가 된다면
散上峯頭望故鄉 ⁶⁶⁾	산마루에 흩어져서 故鄉을 보련마는 ⁶⁷⁾

柳州의 奇峰峻嶺이 자신의 창자를 찌르는 날카로운 칼에 비유되었다. 이 기발한 상상력은 그의 고통스러운 심경을 느끼게 한다. “바닷가의 뾰족 산은” 객관의 경물로서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칼끝 같다[劍鋌]”는 심상은 시인만이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또한 “愁心찬 창자[愁腸]”라는 주관의 감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더 에이는듯 한 아픔을 유발한다. 그래서 “칼끝 같다[劍鋌]”는 “愁心찬 창자[愁腸]”에 의거하여 心象화되고, “愁心찬 창자[愁腸]”는 “칼끝 같다[劍鋌]”로 개성적 형상을 얻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인의 눈앞에 보이는 경물은 마음속의 象이 되고 다시 하나의 용광로에 경물과 감정이 융합되어 心象이 된 것이다. 그리고 칼끝과 “같다[似]”는 비유적 심상이 수십찬 창자를 “끊는다[割]”라는 심상을 가능하게 한다. 첫 연의 이러한 감정과 표현의 자연스럽고 조화스러움이 전체 시의 정서를 응집한다. 애초 浩初上人과 산에 오른 것은 근심을 풀고자 함이었는데, 칼끝 같이 뾰족한 산을 보자 근심을 털려하다 더욱 근심에 빠지고 만다. 그래서 둘째 연의 “만약 몸이 변하여서 천억 개가 된다면[化得身千億]”의 심상은 응축되고 강렬한 칼로 베이는 듯한 애절한 정조를 자아낸다.⁶⁸⁾ 향수의 감정이 경물을

66) 《柳河東集》卷42 〈與浩初上人同看山寄京華親故〉.

67) 蘇軾, 《東坡題跋》卷2: “韓退之詩云: ‘水作青羅帶, 山爲碧玉簪.’ 柳子厚詩云: ‘海上羣山若劍鋌, 秋來處處割愁腸.’ 陸道士云: ‘二公當時不相計, 會好做成一屬對.’ 東坡爲之對云: ‘繫閣豈無羅帶水, 割愁還有劍鋌山.’ 此可編入詩話也.” 瞿佑歸田詩話卷上曰: “柳子厚詩: ‘海畔尖山似劍鋌, 秋來處處割愁腸. 若爲化得身千億, 散上峯頭望故鄉.’ 或謂子厚南遷, 不得爲無罪, 蓋雖未死而身已上刀山矣. 此語雖過, 然造作險譎, 讀之令人慘然不樂, 未若李文饒云: ‘獨上高樓望帝’

68) 李跃, 〈试论柳宗元在柳州时期的诗〉, 《广西师院学报》1(1982), 45쪽 참고.

압도하는 유형의 대표적인 시라 할 수 있다.⁶⁹⁾

한 치의 여지도 없이 주어진 절망감은 회귀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바뀐다. 그것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싶은 회한일 수도 있고 자포자기의 상태일 수도 있으며 주어진 삶 속에서 견뎌낸 자세로 나머지 생을 채워 나가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유종원이 택한 것은 바로 세 번째의 태도였다. 그러나 柳州의 산수는 그의 내적 고통을 심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 이질적인 南蠻의 산수가 자신의 현실적 상황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촉발된 감정은 永州時期의 현실에 대한 집착이나 울분과는 달리 현실에 대한 절망감과 향수에 머문다고 할 수 있다. 〈柳州寄丈人周韶州〉 〈登柳州峨山〉 〈得盧衡州書因以詩寄〉 〈柳州寄京中親故〉 등이 모두 이러한 이질적 산수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결합된 작품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옛 知人들은 유종원을 柳州時期 이전으로 회복시켜주는 매개체였다. 이 같은 자기회복의 결과는 經世에 의하여 형성된 긴장감 없는 시작과는 전혀 다른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酬曹侍御過象縣見寄〉 를 보자.

破額山前碧玉流	저 과역산 앞으로는碧玉이 흐르는데
騷人遙駐木蘭舟	설운 詩人 저 멀리서 목란배에 머무니
春風無限瀟湘意	봄바람에 끝도 없이 그리운 정 솟구쳐
欲採蘋花不自由 ⁷⁰⁾	부평꽃을 주려해도 뜻대로 할 수 없네

화면이 매우 맑고 시원하면서 화려하며 정조는 흔들리는 목란배와 같다. 長安에서 멀리 떨어진 瀟湘마저 바라만 볼 뿐 갈 수 없는 머나먼 彼岸이다. 曹侍御에게 갈 수 없는 상황과 자신의 마음을 담은 부평꽃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길이 없는 두 가지 심경을 담고 있다.⁷¹⁾ 때로는 가벼운 한숨도 비통의 눈물보다 더 독자에게 건딜 수 없을 만큼의 무거움

69) 梁超然, 〈论略柳州柳州的激愤与忧伤〉, 《唐代文学论丛》4(1983), 71쪽 참고.

70) 《柳河東集》卷42 〈酬曹侍御過象縣見寄〉.

71) 沈德潛, 《唐詩別裁》卷2; “欲採蘋花相贈, 尚牽制不能自由, 何以爲情乎. 言外有欲以忠心獻之於君而未由意, 與〈上蕭翰林書〉同意, 而詞特微婉.”

을 줄 수도 있다. 이 시의 구조가 그러하다. 그리고 셋째 구의 瀟湘은 長安에서 매우 먼 곳에 있는데 왜 이처럼 瀟湘에 마음을 두는가?72) <柳州寄京中親故>에서는 “勞君遠問龍城地, 正北三千到錦州”73)라 하였다. 錦州는 長安에서 3천리 떨어져 있고 柳州 북쪽의 龍城은 다시 錦州에서 3천리 떨어져 있다. 柳州가 얼마나 먼 변방에 있는가를 강조하기 위하여 중간 지점인 瀟湘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瀟湘은 故鄉으로 가는 물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贈酬詩의 주요한 정조 중의 하나는 지인과 함께 하지 못함에서 연유하는 비애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다.74)

<酬徐二中丞普寧郡內池館卽事見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鵷鴻念舊行	鵷鴻은 함께 날던 옛날 그리고
虛館對芳塘	텅빈 客館 연못의 芳草 보노니
落日明朱檻	떨어지는 해 붉은 난간 비추고
繁花照羽觴	무성한 꽃 깃 달린 술잔 비추네
泉歸滄海近	샘물은 滄海가로 돌아가는데
樹入楚山長	나무는 楚山에 와 크게 자랐네
榮賤俱爲累	榮辱과 貴賤 모두累가 되려니
相期在故鄉 ⁷⁵⁾	故鄉에서 서로를 기약하려네

첫 연의 “鵷鴻”은 줄지어 다니는 기러기의 일종으로 朝官을 비유하는데, 여기에서는 시인이 徐容州와 조정에서 같이 근무했던 일을 비유한다. 따라서 첫 구절은 옛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고 있다. 텅 빈 객관에서 연못의 방초를 바라보며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그 그리움을 달래고 있노라니 어느덧 서산에 지는 해가 정자의 난간에 비껴들고 만발한 꽃 그림자가 술잔을 비춘다. 둘째 연의 “방초[芳塘]”는 활력이 넘

72) 《南史》에 柳惲이 吳興太守가 되어 <江南曲> “汀洲采白蘋, 日落江南春”을 노래하였다고 하는데, 柳宗元은 “非是白蘋州畔客 還將遠意問瀟湘”(《得盧衡州書因以詩寄》《柳河東集》卷42)이라 하였다.

73) 《柳河東集》卷42 <柳州寄京中親故>.

74) 梁超然, <论略柳柳州的激愤与忧伤>, 《唐代文学论丛》4(1983), 71-72쪽 참고.

75) 《柳河東集》卷42 <酬徐二中丞普寧郡內池館卽事見寄>.

치던 “옛날[舊行]”에 대비되어 그리움을 배가시키고, “무성한 꽃[繁花]”은 “떨어지는 해[落日]”과 대비되어 쓸쓸한 감정을 돋운다. 그리고 셋째 연의 “샘물”과 “나무”는 모두 제 자리를 찾아 가고 또 성장함으로써 뜻을 잃고 고향을 떠나 쓸쓸한 나날을 보내는 시인의 심정과 대조를 이룬다. 나무는 楚 땅에서도 잘 자라건만 나는 왜 이리 그리움과 외로움으로 흔들리는가. 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시인은 현실의 “영욕과 귀천”을 모두 무시하려 한다. 관직에 대한 욕망이 시인에게 가져다 준 것은 구속과 절망뿐이니,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고향에서 田園생활의 평온을 즐기자고 작게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욕망을 버리고 평온을 가지자고 말하는 만큼 작품 전체가 안정된 정서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앞 세 연의 심상들이 그리움과 쓸쓸함의 색조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시인이 유주의 폼적생활 동안에 얼마나 큰 좌절과 이에서 벗어나려는 열망으로 갈등을 겪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강렬한 정서를 담박한 정취로 담아내는 것이 유종원 시의 특징이다. 그래서 유종원의 시 중 뛰어난 작품은 阮籍의 깊은 ‘孤沉’의 사유와 陶潛의 ‘淡泊’한 情緒와 謝靈運의 ‘明朗’한 화면을 하나의 용광로에서 녹여 정련해 낸듯한 지극한 맛을 풍긴다. 대부분의 柳州時期 贈酬詩가 삶의 긴장감 해이와 함께 詩的 긴장감을 담지하지 못하였지만, 전체에 비하여 적은 수이긴 하나 두 번째 부류의 작품들은 유종원 시 특유의 정서구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집착보다는 초월의 지향이 강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 같은 유종원의 창작경향은 지인의 죽음을 애도할 때에는 자기회복이 배가된 진정을 드러내곤 하였다. 먼저 徹上人の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韓漳州書報徹上人亡因寄二絕〉을 보자.

早歲京華聽越吟
聞君江海分逾深
他時若寫蘭亭會
莫畫高僧支道林

어릴 적에 경성에서 越 노래 들었더니
강남에서 그대 노래 듣고 더욱 좋았네
다른 날에 蘭亭會를 또다시 그린다면
그 중 高僧 支道林은 그리지를 말게나

頻把瓊書出袖中	시나브로 소매에서 옥같은 책을 꺼내
獨吟遺句立秋風	남긴 詩를 읊으면서 추풍에 홀로 서면
桂江日夜流千里	桂江 물결 밤낮으로 천리를 흐르건만
揮淚何時到甬東 ⁷⁶⁾	이 눈물은 그 언제나 용동에 당도할까

徹上人은 會稽 사람으로 유종원의 오랜 친구이다. 貞元年間에 長安에 와서 이름을 떨쳤고 이 때부터 유종원과 교분이 있었다. 元和 11년 宣州 開元寺에서 71 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작품을 지었다. 첫째 시에서는 지난날의 만남을 회상하며 蘭亭會⁷⁷⁾와 支道林⁷⁸⁾의 古事를 빌어 徹上人을 찬양하였다. 즉 徹上人이 支道林에 비견할 만큼 뛰어나다는 것이다. 시 전편에 애도의 눈물이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시에 와서야 徹上人의 遺詩를 읽으며 그를 그리워하여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永州時期처럼 그 감정이 격렬하지 않다. 그런 점은 〈聞徹上人亡寄侍郎楊丈〉도 마찬가지다.

東越高僧還姓湯	동쪽 越의 高僧 또한 그 성이 湯씨인데
幾時瓊佩觸鳴璫	瓊玉 佩와 鳴璫으로 그 언제 만났던가
空花一散不知處	허공의 꽃 흩어지면 간 곳 알지 못하니
誰采金英與侍郎 ⁷⁹⁾	어느 누가 국화 꺾어 侍郎에게 보내리

둘째 구의 瓊佩와 鳴璫은 각각 徹上人과 楊於陵의 인품과 재능을 비유한 것이다. 그리고 金英⁸⁰⁾의 典故를 빌어 哀悼를 표현하였다. 蔣之翹

76) 《柳河東集》卷42 〈韓漳州書報徹上人亡因寄二絕〉.

77) 蘭亭會: 會稽山 陰顯縣에 蘭亭이 있는데 그곳에서 王羲之, 李允, 孫綽, 許詢, 支遁등과 더불어 修禊를 하여 후인이 修禊圖를 그렸다고 한다.

78) 支道林: 支遁, 字는 道林, 여기서는 徹上人을 암시, 支道林은, 東晉의 이름난 승려다. 王羲之·許詢 등과 교제했는데 역시 난정연회에 참석했다. 후인들은 그의 이름을 승려의 미칭으로 사용했다. 옛 사람들이 修禊圖를 그렸는데, 支遁도 그 속에 있었다. 이 詩에서는 “支道林”으로 徹上人을 비유하였는데 칭찬의 뜻이 담겨 있다. 나중에 만일 修禊圖를 그린다면, 支道林을 빼고 徹上人을 그려도 괜찮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79) 《柳河東集》卷42 〈聞徹上人亡寄侍郎楊丈〉.

의 評⁸¹⁾처럼 用事는 교묘하지만, 哀悼의 감정은 숨겨져 있다.

이와 같이 柳州時期的 哀悼詩가 永州時期的 哀悼詩와는 달리 감정이 節制된 이유는 첫째, 애도의 대상이 永州時期에는 생사를 같이한 혁신 동지들이었다는 점과, 둘째 柳州時期的 초월지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絶句의 형식이 감정의 절제를 요구하며 전고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柳州時期的 진정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別舍弟宗一〉이다. 이 시는 送別詩의 형식을 취한 향수를 읊고 있다. 永州時期的 향수와 柳州時期的 그것은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진다. 永州에서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長安 조정으로의 복귀에 대한 열망의 우회적 표현이었다. 그러나 柳州에서는 중앙조정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터였다. 따라서 고향에 대한 이 시기의 그리움은 다른 의도가 없는 절실함으로서 다가서고 있다. 李躍이 이 작품을 “감정이 격렬해져 절망과 울분의 토로에 가까워진다”⁸²⁾고 하였던 것도 절망이 매개한 절실한 향수의 내면적인 경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零落殘魂倍黯然
雙垂別淚越江邊
一身去國六千里
萬死投荒十二年
桂嶺瘴來雲似墨
洞庭春盡水如天
欲知此後相思夢

버림받아 지는 영혼 더욱 더 암담하여
두 줄기의 이별 눈물 월강 가에 뿌리네
이 한 몸은 故鄉에서 육천 리나 떨어진
황무지에 던져져서 죽을 고생 십이 년
재 너머로 독기 불고 구름은 먹 같은데
동정호엔 봄 지나서 물은 하늘 같으리
오늘 이후 相思夢을 알고 싶어지려는

80) [金英]: 금빛 꽃봉오리, 菊花를 지칭. 徹上人은 菊花를 사랑하던 高僧으로 親知에게 따서 건네곤 하였다. 鮑照《鮑氏集》卷八 附 釋惠休〈贈鮑侍郎〉; “玳枝兮金英, 綠葉兮紫莖. 不入君王懷, 低彩還自榮. 想君不相艷, 酒上視塵生. 當令芳意重, 無使盛年傾.” 鮑照는 일찍이 〈答休上人〉이라는 詩로 화답했다. 惠休는 國화를 읊은 詩를 鮑照에게 바쳐서 두 사람의 두터운 우정을 나타냈다. 이 詩에서는 이러한 典故를 빌어, 惠休를 徹上인에, 鮑照를 楊侍郎에 비유함으로써 철상인의 죽음에 대한 깊은 哀悼를 표했다.

81) 蔣之翹, 《柳集輯注》卷42: “用事亦巧洽, 特先有故實而後合題者.”

82) 李躍, 〈試論柳宗元在柳州時期的詩〉, 《廣西師院學報》1982:1, 39-47쪽 참고.

長在荊門郢樹煙⁸³⁾ 荊門산의 나무 안개 위에 항상 있으리

이 작품은 향수를 제재로 하고 있지만 향수라기보다는 절망에 더 가깝다. 죽음을 앞둔 유종元の 향수와 절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이 작품은 향수가 된 의지를 숨기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비애를 영원한 시간 속에 존속시키는 데에 성공하고 있다. 원한이 아니면서도 원한에 가깝게 표현된 그의 비애는 경물을 벗어난 ‘峭’의 경지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林繼中은 그가 “閑適을 가장하면 할수록 더욱 그 고통은 배가될 뿐이었다”⁸⁴⁾고 하였고 梁超然 또한 “그는 산수를 배회하고 창작의 제재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모두는 분노와 비애와 울분을 환기시킬 뿐이었다. 이러한 정황에서 그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실천의지를 유지할 수 없었다. 이제 그는 외부로의 실천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정서적 균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절망을 넘어 현실을 초월하고자 사색의 경지에 심취하려 하지만 가슴 속에 응어리진 욕망과 울분을 털어버릴 수가 없었다”⁸⁵⁾고 하였던 것이다.

柳州時期 말의 이런 절실함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는 李夷簡이 門下侍郎中書門下平章事로 승진 부임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유종원이 죽기한 해 전에(元和 13 년) 보낸 서신이 있다.

저는 三塗의 험난한 길을 가다 천 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길쪽을 올려다보고 소리치며 구해달라고 애원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하루에 천 명 백 명이 넘건만 모두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설령 그를 붙잡히 여겨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나무를 붙잡고 고개 숙여 쳐다보며, 눈쌀을 심히 찌푸리고 크게 한숨만 쉬다가, 한참 후에 가버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어찌 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拋棄하지 않고 여전히 길 쪽을 올려다보며

83) 《柳河東集》卷42 〈別舍弟宗一〉.

84) 林繼中, 〈燃燒的寂寞—柳宗元山水詩風格特徵之形成〉, 《國際柳宗元研究擷英》(93柳宗元國際學術討論會論文選, 梁超然謝漢強 主編, 南寧: 廣西人民出版社, 1994), 230-231쪽.

85) 梁超然, 〈论略柳柳州的激憤与忧伤〉, 《唐代文学论丛》4(1983), 70쪽 참고.

구해 달라 고함을 쳤습니다. 잠시 후 烏獲처럼 기운이 장사인 듯한 사람이 천 길이나 되는 긴 밧줄을 가지고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의 힘은 충분히 그를 구해줄 수 있고 그의 도구는 충분히 그에게 내려줄 수 있는데, 소리쳐 불러도 돌아보지 않더니만, 그러다 돌아보고서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이 말을 듣자 그 사람은 자신이 그 깊은 골짜기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결코 만날 수 없는 그렇게 좋은 기회를 운 좋게 만났는데도 그 구원의 행운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나자 자신의 운명이 다하고 형세가 중국에 이르렀음을 알게 되자, 더 이상 위쪽을 쳐다보지 않고 마침내 소리치며 분격하다 스스로 죽었습니다.……86)

자신의 고통을 모두 다 방관할 뿐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을 절절하게 토로하고 있다. 마음은 있으나 힘이 닿지 않는 사람은 “어찌 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지만, “烏獲처럼 기운이 장사인 듯한 사람이 천 길이나 되는 긴 밧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도움을 주지 않는 현실에, “분격하다” 죽을 운명에 처한 자신을 돌아보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 유종원은 마지막 희망을 李夷簡에게 걸고 구원을 요청하였다.

제가 예전 날 어려서는 마음이 모나서, 지름길로 가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길이 험한 줄을 모르고 가다가 큰 곤경에 빠져서, 막다른 곳에서 넘어져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독방의 죄수처럼 간헐 날마다 소리치며 위를 바라본 지 14 년입니다. 그동안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거나 돌아보되 눈썰만 심히 찌푸린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개 들고 목칭 높여,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며, ‘남다른 마음과 능력이 있으며 실권을 가진 사람이 길을 가다 나를 보고 仁을 베풀어 주겠지’하고 생각했던 바입니다. 이제 귀하게서 仁義와 정직으로 朝廷에 들어가 재상

86) 《柳宗元集》卷34 〈上門下李夷簡相公陳情書〉：“宗元聞有行三塗之艱，而墜千仞之下者。仰望於道，號以求出，過之者日千百人，皆去而不顧。就令哀而顧之者，不過攀木俯首，心曠太息，良久而去耳。其卒無可奈何。然其人猶望而不止也。俄而有若烏獲者，持長綆千尋，徐而過焉。其力足爲也，其器足施也，號之而不顧，顧而曰不能力，則其人知必死於大壑矣。何也？是時不可遇而幸遇焉，而又不逮乎已。然後知命之窮，勢之極，其卒呼憤自斃，不復望於上矣。……”

의 자리에 앉으시니, 저는 실로 마음을 어루만지고 스스로를 축하하며, 이제야 소망을 이루게 되었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런 글월을 올려 애타는 심정을 吐露하는 것입니다. 만약 또 저를 버리고 돌아보지 않으신다면, 깊이 묻혀 엎드려 죽어서, 다시 떨쳐 일어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귀하의 현명하심으로 제가 죄를 얻고 비방을 당하는 이유를 오래 전부터 알고 계셨을 것이니, 이런저런 번거로운 말을 더 한들 욱되기만 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천 길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의 지난한 곤경을 생각해 주십시오! 烏獲의 여력을 베푸시어 천 길 낭떠러지에 천 길 밧줄을 내려, 도저히 만날 수 없을듯 하던 호기를 만나게 해주셔서, 끝내 저의 바람을 이루고, 소리치며 바라보는 사람의 정성을 다하게 하고, 원망과 憤怒로 스스로 쓰러져 죽어서 여한을 남기지 않게 해 주신다면, 귀하의 문하에서 죽고자 하는 인물들이 앞을 다투어 모여들 것입니다. 일생의 통함과 막힘이 바로 이 서찰 하나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니, 혹시 성사되지 못할까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 것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⁸⁷⁾

이 간절한 부탁이 성사되지 않으면 “원망과 분노로 스스로 쓰러져 죽어서 여한을 남기게” 되리라고 하였지만, 그는 끝내 사면을 받지 못하고 죽어갔다. 갓 40을 넘긴 나이에 백발이 성성하던 그는 기다림과 煩悶 속에서 심신을 소진한 끝에 47 세의 젊은 나이로 삶을 마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5. 결론

유종원이 柳州로 再貶謫되어 가는 길은 비탄의 정점을 향해 가는 운

87) 《柳宗元集》卷34 〈上門下李夷簡相公陳情書〉：“宗元曩者齒少心銳，徑行高步，不知道之艱，而陷於大阨，窮躓殞墜，廢爲孤囚，日號而望者十四年矣。其不顧而去與顧而深躓者，俱不乏焉。然猶仰首伸吭，張目而視曰，‘庶幾乎其有異俗之心非常之力當路而垂仁者也。’及今閣下以仁義正直，入居相位，宗元實撫心自慶，以爲獲其所望。故敢致其辭以聲其哀。若又捨而不顧，則知沈埋踏斃無復振矣。伏惟動心焉。宗元得罪之由，致謗之自，以閣下之明，其知之久矣，繁言蔓辭，祇益爲黷。伏惟念墜者之至窮，錫烏獲之餘力，舒千尋之綆，垂千仞之艱，致其不可遇之遇，以卒成其行，庶號而望者得畢其誠，無使呼憤自斃，沒有餘恨，則士之死於門下者宜無先焉。生之通塞，決在此舉，無任戰汗隕越之至。”

명의 비극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내면세계의 극적인 전환은 비극적인 상황의 수용으로 말미암는다. 자신에 대한 관조를 통하여 절망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그의 시는 비탄이 침전된 자리에 경물을 끌어들이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침전된 비탄과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정서의 평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어쨌거나 유종원이 겪어야 했던 운명의 장난과 같은 재 꺾은 유가적인 이상이나 현실개혁에의 집착이 아니라 자신의 비탄과 절망을 관조하여 시의 형상으로 빚어내는 계기였다. 그렇다고 해서 유종원이 兼濟에서 獨善으로 삶의 태도를 바꾼 것은 아니었다. 그저 유가적인 이상의 현실에 대한 실천이 불가능한 것임을 자인하고, 자신의 비탄과 절망 쪽에 더 관심을 두었을 뿐이다. 바로 이 비탄과 관조의 이중구조가 유가적인 이상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궁함으로써 스스로가 받아들이게 된 경물들이 자아에 침전된 비탄과 절망의 색채를 띠게 하였던 것이다.

잡문의 창작이 많은 편이었던 柳州 시기의 적막을 견디게 한 것은 시뿐이었다. 이 시기 유종원의 시적인 성과는 경제의 실천 보다는 지인과 산수에 의하여 매개된 향수에서 더 절실하게 드러났다.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예감이라도 하듯 고향에 대한 그의 그리움은 절박하여 절규에 가깝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의 작품은 그 정조가 애상과 회한으로 흐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조가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애써 초연해 하려는 노력 속에 이러한 정조가 묻어날 뿐이다. 이 시기 유종원의 비극적인 삶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의 이상은 과거 속의 長安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의 육신은 柳州의 정들 수 없는 현실에 붙들려 있었다. 따라서 柳宗元은 현실과 기억의 이중구조가 강제하는 이 모든 갈등을 시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의 시는 그 뜻을 가졌으며 겸허하였고, 실의하였을 때조차도 결코 방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러한 갈등의 과정을 정련하고 제련하여 조탁된 언어의 미로 심화시켰다. 그리하여 그의 비애나 절규조차도 결코 천박하지 않을 수 있었고, 뜻을 발하되 경박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參考文獻]

- 柳宗元,《柳宗元集》(北京:中華書局,1979).
- 王國安 箋釋,《柳宗元詩箋釋》(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3).
- 梁超然·謝漢強 主編,《國際柳宗元研究叢英》(南寧:廣西人民出版社,1994).
- 何淑貞,《柳宗元詩研究》(臺北:福記文化圖書有限公司,民國78).
- 劉光裕·楊慧文,《柳宗元新傳》(上海:上海人民出版社,1989).
- 吳文治,《柳宗元評傳》(中華書局,1962,第1版).
- 顧易生,《柳宗元》(中華書局,1965.8).
- 洪寅杓,《柳河東詩研究》(서린문화사,1981).
- 馬茂元,〈柳宗元的詩〉,《光明日報》1959.3.1.
- 中流 舟萍,〈柳詩隅談〉,《返河》8(1961).
- 陳友琴,〈關於柳宗元的詩及其評價問題〉,《光明日報》1961.9.17.
- 梁超然,〈論略柳柳州的激憤與憂傷〉,《唐代文學論叢》4(1983).
- 梁超然,〈論略柳詩風格〉,《文學遺產》2(1994).
- 林繼中,〈燃燒的寂寞—柳宗元山水詩風格特徵之形成〉,《文學遺產》2(1994).
- 呂集義,〈柳宗元在柳州〉,《中國藝林論叢》7(臺北:文馨出版社,民國65.2).

[中文摘要]

柳宗元的文学创作大致可以分为长安时期、龙兴寺·法华寺时期、冉溪时期和柳州时期等等,长安时期的柳宗元经纶满腹,才华横溢,一心向往着济世救民,名垂青史。这一时期,他的文学创作以“辅物及时”为坐标,诗作的数量不多,诗的风格也还称不上是自成一家,但是我们已经可以从中窥出诗人的悲剧性格。柳宗元梦想在黑暗的现实社会中高举道义的大旗,进行大刀阔斧的社会变革,即使经历了“永贞革新”失败的挫折,他仍然摈弃不了“新春秋学派”及“天人相分说”的思想,其作品的悲剧意味也日渐浓厚。

柳宗元再一次遭贬来到柳州后,柳宗元走上的是—条预示着悲剧命运的不归路。但是,身陷绝境的柳宗元坦然地接受了令人绝望的现实,他没有自暴自弃,寻找着心绪的平衡。这并不意味着他的人生观已经由“兼济天下”转

变为“独善其身”，他只是秉承儒家思想，承认改造现实的不可能，将创作的重点转移到自身的不幸与悲叹中来。这种双重性正是理想不能改变现实的儒家方式的自嘲与自省，物与我相互沉淀，对悲叹绝望的书写也越发的浓墨重彩。这一时期，柳宗元在诗歌方面的成就，就是以“知人”和“山水”为媒介，表现内心切实的乡愁，好像感到自己已经不久于人世，柳宗元对故乡的思恋越发强烈。即使在这种哀绝的心境之下，柳宗元仍努力维持着超然的表象，这也同样缘于他身上流淌的儒家血脉。

주제어: 현실, 이상, 좌절, 관조, 초월, 애상, 회한, 향수, 기억.

중국의 天鵝 處女型 이야기와 한국의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비교 연구

정옥근*

〈目 次〉

1. 서론
2. 본론
 - (1)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의 기본 형태
 - (2)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의 발전
 1. 한국의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의 전형
 2. 한국의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종류의 전형 분석
 3.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의 모티프 이별과 만남
 4. 중국의 천아 처녀 형 이야기 종류의 전형 분석
3. 결론

1. 서론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는 시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여러 민족 사이에 폭 넓게 전승 되고 있는 백조 처녀 형 설화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사 보고되고 연구된 자료가 아주 많다. 특히 이 이야기는 신화학,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특별한 흥미를 갖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이런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에는 중국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 되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고 중국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전승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한 착오는 조사와 연구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연구와 조사도 우리나라의 것에 국한되어 있고 다른 나라의 것과 비교해서 연구한 것은 드물다고 알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이야기 유형의 전문 연구인 신화학, 인류학적인 연구가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이야기 연구의 초보적인 것으로 《나무꾼과 선녀》이야기의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중국과 한국 이야기의 발전 모습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2. 본론

(1)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의 기본 형태

干寶의 《授神記》 권 14에 보면 중국의 天鵝 處女 型 이야기가 나온다. 《수신기》에 전하는 이 이야기는 육조 괴담에 속하는데, 이 이야기는 신비하고도 환상적인 색채를 띤 이야기로 우리 지구상에 광범위하게 전해진 이야기라고 한다.¹⁾ 사실상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유형의 이야기는 간단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까지 여러 수 백 종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는 《수신기》에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 거의 원형이라고 본다. 그러면 干寶의 《수신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豫章이라는 新喻縣에 사는 남자가 있었는데, 밭 가운데에 6, 7명의 여자가 모두 털옷을 입고 있었는데 새인 줄 몰랐다. 포복으로 가서 한 여자가 벗어 놓은 옷을 가지고 가서 숨겨 놓았다. 그리고는 곧 여러 새들에게로 가니 새들이 모두 날아가는데 오직 한 새만이 갈 수가 없었다. 남자가 그

1) 종경문, 《종경문만간문학논집(하)》(상해문예출판사, 1985), 36쪽.

것을 취해서 부인으로 삼았다. 세 딸을 낳고 그 엄마가 딸을 시켜 아버지한테 물어서 날개옷이 짚을 쌓아 놓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얻자 입고서 날아 가버렸다. 그 후에 다시 세 딸을 찾으러 와서 딸들을 데리고 날아가 버렸다.²⁾

육조 시대는 이야기가 막 쓰이기 시작한 시기로 사람들이 무슨 주의나 사상보다는 그저 자연 현상이나 인간 세상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호기심과 재미로 순박하게 서술하던 시기로 그 특징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로 믿게 하려는데 있었으므로 허구적인 요소는 극히 제한되고 그저 들은 대로 기술하였던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인물의 이름이나 그 이야기가 발생한 장소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사실 郭氏의 《玄中記》중에 이와 대략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이야기 앞에 “털옷을 입으면 비조가 되고, 털옷을 벗으면 여인이 된다.”는 모의녀의 신분에 대한 원형이 이미 제공되어 있다. 그것을 보면 아래와 같다.

姑獲鳥는 밤에 날고 낮에는 숨어버리는 귀신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털옷을 입으면 비조가 되고, 털옷을 벗으면 여인이 된다. 그 이름을 帝少女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는 夜行遊女라고 하며, 鉤星, 隱飛鳥라고도 한다. 아들이 없어서 남의 자식을 길러서 자식으로 삼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이 아이를 기를 때 그 옷을 노출시키면, 이 새가 지나가다가 아이를 취하게 되는데 옷에다 혈점을 남겨 놓아 표시로 삼는다. 고로 세인들이 그것을 鬼鳥라 했다.³⁾

위의 《수신기》에 쓰여진 이야기가 이런 유형의 이야기 중에 최초

2) 豫章新喻县男子, 见田中有六七女, 皆衣毛衣, 不知是鸟. 匍匐往, 得其一女所解毛衣, 取藏之. 既往就诸鸟, 诸鸟各飞去. 一鸟独不得去, 男子取以为妇. 生三女, 其母后使女问父, 知衣在积稻下. 得之, 衣而飞去. 后复以迎三女, 女亦得飞去.

3) 姑获鸟, 夜飞昼藏, 盖鬼神类. 衣毛为飞鸟, 脱毛为女人. 名曰帝少女, 一名夜行游女, 一名钩星, 一名隐飞鸟. 无子, 喜取人子养子以为子. 人养小儿, 不可露其衣, 此鸟度即取儿也. 以血点其衣为志. 故世人名为鬼鸟.

의 형태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이야기 틀을 갖춘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만하다.

이 이야기의 기본 형태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새(선녀)가 날개옷을 벗고 여자가 되어서 목욕한다.
2. 남자가 그것을 숨어 보다가 옷을 훔친다. 그리고 여자를 뒤통하여 혼인한다.
3. 혼인 후에 아이를 몇 명 낳는다.
4. 어느 날 하루, 여자가 딸을 시켜 아버지에게 물어 날개옷을 발견하게 되고 여자가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5. 남자가 아이들과 울면서 지내는데 그 새가 다시 날아와서 아이들만 데리고 떠나고 남자 혼자만 남게 된다. 4)

이러한 이야기는 종전의 사회가 남존여비 사상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부녀자는 일정한 지위가 없고, 남자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버릴 수 있으며, 혼인 생활이 원만치 못한 부녀자들은 일말의 자유도 없이 남자에게 매여 사는 처지인지라, 만약 날개옷이 있다면 그것을 입고서 하늘을 마음대로 날 수 있었으면 하는 많은 혼인 생활이 불행한 여인들의 환상을 그린 이야기라고 한다.⁵⁾

(2)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의 발전

1. 한국의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의 전형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형태를 대략 종합해보면

1. 기본형(선녀 승천 형) 2. 나무꾼 승천 형 3. 나무꾼 천상시련 극복 형
4. 나무꾼 지상 회귀 형 5. 나무꾼 시신 승천 형 6. 나무꾼 동반하강 형이

4) 종경문, 《종경문만간문학논집(하)》(상해문예출판사, 1985), 39쪽.

5) 《六朝怪谈》三联书店, 1991, 04, 128쪽: 从前的社会, 男尊女卑, 一般妇女没地位, 男人可随意休妻, 而婚姻不幸福的妇女可没这个自由. 能有一件穿了可飞上天的羽衣, 大概是成千上万处在不幸婚姻中的妇女们的幻想吧.

다. 그리고 설화의 각 편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서사 단락을 제시 하면 아래와 같다.

1. 선녀 승천 형(기본형)

가. 나무꾼의 지상생활

- A. 어느 가난한 나무꾼 총각이 홀어머니와 함께 살아간다.
- B. 나무꾼이 포수를 속여 사슴의 목숨을 구해 준다.
- C. 사슴은 구명의 보답으로 선녀와 혼인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나. 선녀의 하강

- D. 나무꾼이 막내 선녀의 날개옷을 숨긴다.
- E. 언니들은 승천하고 막내는 남는다.
- F. 나무꾼은 선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행복하게 산다.

다. 선녀의 승천

- G. 사슴은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날개옷을 돌려주지 말라고 한다.
- H. 나무꾼은 아이 둘을 낳았을 때 날개옷을 돌려준다.
- I. 선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승천하고, 나무꾼은 좌절에 빠진다.

2. 나무꾼 승천 형

라. 나무꾼의 승천

- J. 나무꾼은 사슴의 보은(2차)에 힘입어 두레박을 타고 승천하여 처자를 만난다.

3. 나무꾼 천상 시련 극복 형

마. 나무꾼의 천상 생활

- K. 나무꾼은 장인 장모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 L. 선녀와 쥐의 도움으로 과제를 성취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산다.

4. 나무꾼 지상 회귀 형

바. 나무꾼의 지상회귀

- M. 나무꾼은 지상의 가족이 그리워 병이 날 지경이다.
- N. 나무꾼은 천마를 타고 하강하여 어머니를 만난다.
- O. 선녀는 나무꾼에게 말에서 내리지 말라고 한다.
- P. 나무꾼이 실수하여 말에서 떨어진다.
- Q. 천마는 천상으로 승천하고, 나무꾼은 죽거나 수탉으로 변신한다.

5. 나무꾼 시신 승천 형

사. 나무꾼 시신 승천

- R. 선녀는 아들을 시켜 남편의 시신을 천상으로 옮겨 장사 지낸다.

6. 나무꾼과 선녀 동반 하강 형

아. 나무꾼과 선녀의 동반 하강

M. 옥황상제가 지상에 내려가 살라고 한다.

N. 나무꾼은 선녀와 함께 동반 하강하여 행복하게 산다.⁶⁾

이러한, 여러 이야기를 모아 보면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전래되어온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의 종합적인 서사구조를 통하여 기본형에서부터 이야기가 발전 되어온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었는데 세대가 흘러 갈수록 이야기가 위에서 열거한 순서대로 길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가 발달하는 과정 중에서 나무꾼의 지상 회귀 형이나 나무꾼과 선녀 동반 하강 형 중에는 그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나무꾼 천상시련 극복 담이 빠진 것이 많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 유행이 점점 후대로 갈수록 신화 전설 등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흡수 혼합하여 견우직녀 이야기 등으로 변해간 것은 고대 중국의 경우이고, 고대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전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 전형적이 되는 이야기 분석을 위하여 그 이야기 전문을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

옛날 어느 산골에 나무꾼이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장가갈 나이가 되었지만 색시 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걱정이었죠. ‘어머니가 더 늙기 전에 어서 손자를 안겨드려야 할텐데.....’ 나무꾼이 어머니 생각을 하며 나무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슴 한 마리가 혈레벌떡 달려와 말했어요. “살려주세요! 저를 좀 숨겨주세요!” 나무꾼은 사슴을 나무 짐 뒤에 얼른 숨겨주었어요. 잠시 후 사냥꾼이 달려와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혹시 사슴 한 마리를 못 보았소?” “저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사냥꾼은 나무꾼이 가리켜 준 쪽으로 갔어요. “고맙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은데 소원을 말씀해 보세요.” “소원? 나야 장가를 가는 것이지. 어머니께 손자를 안겨드리고 싶거든.” “그러면 보름달이 뜨는 날 산꼭대기에 있는 연못으로 가 보세요.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날개옷 한 벌을 숨기세요.” “선녀의 날개옷을?” “그 선녀를 아내로 삼으

6)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집문당, 1993), 27~28쪽.

시고,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 날개옷을 주면 안돼요.”

보름달이 뜬 저녁 나무꾼은 연못가에 숨어서 지켜보았어요. “와아! 정말 선녀들이 목욕을 하네.” 나무꾼은 살금살금 다가가 날개옷을 숨겼어요. 잠시 후 목욕을 다한 선녀들이 옷을 입으려 나왔어요. “애들아 정말 기분이 좋지?” “그래, 매일 왔으면 좋겠어.” 그 때 한 선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애들아! 내 날개옷이 없어졌어.” “아니 뭐야? 그럴 리가 없잖아 잘 찾아 보자.” 선녀들이 모두 찾아보았지만 한 선녀의 날개옷은 보이지 않았어요. “애들아 가야 할 시간이야.” “너희들 먼저 올라가.” 다른 선녀들은 모두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옷을 잃어버린 선녀는 울고 있었어요. “저어, 이 옷을 입으세요.” 어머니! 당신은 누구세요? “선녀님 용서하세요. 사실은 제가 선녀님의 날개옷을 숨겼어요.” “그게 정말이세요? 그럼 열른 주세요.”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드리겠어요.” “소원을 말씀해 보세요.” “제 아내가 되어 아이들 셋만 낳아 주세요.” “네?” 나무꾼이 사정 이야기를 하자 선녀는 그렇게 하기로 하였어요.

나무꾼이 선녀를 집으로 데리고 가자 어머니가 매우 좋아하셨어요. “하늘이 도우셨구나! 어디서 저렇게 예쁜 며느리를 구했을까.” 그렇게 하여 선녀는 나무꾼의 아내가 되어 아들 딸 둘을 낳고 어머니도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날개옷이 생각날 때면 선녀는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울곤 하였어요. 하루는 선녀가 너무나 슬피 울며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여보! 꼭 한 번만 입어 보게 해 주세요.” “안돼요, 아이를 하나만 더 낳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요.” “딱 한 번만 입어보고 드릴게요.” 마음이 약한 나무꾼은 그만 날개옷을 내 주었어요. 날개옷을 입자 선녀의 몸은 점점 가벼워지며 하늘로 날아오르고 싶어졌어요. 참지 못한 선녀는 아이들을 안고 하늘로 올라가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안 돼요! 내려와요!” 나무꾼과 어머니가 소리쳐 불렀지만 선녀는 하늘나라로 가 버렸어요.

나무꾼은 혹시나 보일까 하여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았지만 선녀와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나무꾼이 울고 있을 때 사슴이 나타나 말했어요. “아저씨! 왜 그렇게 울고 계세요?” “우는 아내가 가여워서 그만 흑흑 흑.....” “약속을 잊어 버리셨군요.” 사슴은 나무꾼이 불쌍해 보여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 주었어요. “보름달이 뜨는 날 밤이 되면 그 연못으로 가 보세요. 그 일 이후로 선녀들은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려 목욕을 해요. 두레박이 내려오면 그 두레박에 올라타세요.” “사슴아! 고마워.”

나무꾼은 보름달이 뜨는 날 밤 연못가에서 두레박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달이 환하게 비칠 때 두레박이 스르륵 내려왔어요. 나무꾼은 얼른 두레박에 올라탔어요. 그 사실도 모른 채 물을 길어 올리던 선녀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 당신은?” 나무꾼의 아내는 반가워하며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아버지!” “애들아!” “여보! 이곳에서 우리 함께 살아요.” 나무꾼은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나무꾼은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를 꼭 한번 만이라도 뵙고 올 순 없겠소?” “저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할 수 없잖아요.” 나무꾼은 산골 오두막에서 외롭게 아들만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다 그만 병이 나고 말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선녀는 옥황상제께 부탁을 드려 용마를 한 마리 몰고 왔어요. “여보! 이 말을 타고 어머니를 뵙고 오세요.” “여보! 고마워요. 얼른 다녀오리다.” “잠깐! 꼭 명심할 것이 있어요. 그 용마에서 절대 내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는 이곳에 돌아 올 수가 없어요.” “알겠소, 명심하리다.”

나무꾼은 용마를 타고 어머니가 계신 오두막에 도착하였어요. “어머니! 어머니! 제가 왔어요.” “콜록 콜록, 누구신가?” “어머니 저예요! 아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머니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그 동안 어머니는 아들 걱정에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여 더욱 야위어 보였어요. “애야 얼른 방으로 가서 어디서 뭘 했는지 얘기나 좀 해 보거라.” “어머니, 저는 이 용마에서 내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나무꾼은 그 간의 얘기를 하고 어머니의 손만 잡아 보고 가려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네가 좋아하는 호박죽 한 그릇이라도 먹고 가거라.” 어머니는 부엌에서 갓 쏘 호박죽 한 그릇을 가져왔어요. 나무꾼은 말에 탄 채로 호박죽을 먹다가 손에 호박죽을 떨어뜨렸어요. “앗 뜨거워!” 나무꾼은 놀라서 그만 호박죽 그릇을 용마의 등에 엮질러 버렸어요. “히-잉! 히-잉!” 용마가 놀라서 뛰는 바람에 나무꾼은 땅에 떨어지고 용마는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안 돼! 용마야 돌아와!” 용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무꾼은 산꼭대기에 있는 연못으로 가 보았지만 두레박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나무꾼은 며칠이 지나도록 그 연못을 떠나지 않고 두레박을 기다리다 그만 죽고 말았어요. 나무꾼의 그 애달픈 님은 수탉이 되어 지금도 높은 곳에만 올라가면 하늘로 바라보며 목을 길게 빼고 운다고 합니다.⁷⁾

7) 《선녀와 나무꾼》(세계 명작 동화1)(새샘, 2003.1).

2. 한국의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종류의 전형 분석

이 이야기 속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기본 형태의 다섯 가지 기본 틀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더 첨가되거나 약간 변형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이야기 내용을 다시 다섯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단락은 이야기 첫 머리에 산골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사는 나무꾼이 장가도 가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보다는 어머니에게 손자를 안겨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조급한 착한 나무꾼이 갑자기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을 숨겨준 덕분에 선녀를 아내로 맞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기본 형태의 세 번째 단락까지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같지만 약간 각색되어진 부분이 있음)

두 번째 단락은, 착한 나무꾼은 아내의 가련함에 못 이겨 아이를 셋 낳기 전에는 절대로 내 주면 안 된다는 사슴의 경고를 어기고 날개옷을 내어 주게 되고 선녀는 그만 날개옷을 입고 두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 가버렸다. (기본 형태의 다섯 번째 단락인 마지막까지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같지만 기본 틀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약간 변형된 부분이 있음)

세 번째 단락은, 아내와 아이들을 잃고 상심에 빠져 있을 때, 사슴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사슴의 이야기를 듣고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아내와 아이들을 기쁘게 재회하게 된다. (기본 형태에는 없으나 첨가된 부분)

네 번째는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어머니가 보고 싶고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어 병이 나게 된 나무꾼은 아내의 주선으로 옥황상제에게 용마를 얻어 타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잠시 어머니를 뵈게 될 기회를 갖게 된다. (기본 형태에는 없으나 첨가된 부분)

다섯 번째는 아내가 얻어 준 용마를 타고 지상에 내려 와서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잠시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하고 다시 용마를 타고 하늘로 돌아 가려던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말 위에서 어머니가 끌어준 호박죽을 먹다가, 호박죽을 용마의 잔등에 얹질러 용마가 놀라 뛰는

바람에 그만 용마에서 떨어져서, 용마에서 내리면 다시는 하늘나라로 올라올 수 없다는 약속을 어기게 되어, 그만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고 아내와 아이들과 떨어져서 어머니를 모시고 지상에서 살게 되었는데 나무꾼이 선녀를 잊지 못하고 우물가에서 기다리다가 죽어서 수탉이 되었다는 것이다.(기본 형태에는 없으나 첨가된 부분)

이렇게 이 이야기가 세월이 지나고 장소가 바뀔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이야기는 일견, 유교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것처럼 보인다. 물론 선녀라든지 천상과 연결된 도교적인 요소나, 또 사슴을 살려 주고 그 대가로 아내를 얻게 되는 방법을 얻는 다든지 하는 인과응보적인 불교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긴 하지만 이 이야기가 발전하는 단계에서의 주요한 모티프는 유교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변형된 형태에서 예를 들어, 선녀를 아내로 맞게 되는 첫 번째 단락까지 보면 필자가 이이야기의 원형으로 삼는 《수신기》 속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나무꾼의 사람됨이나 신세나 형편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또 나무꾼이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을 구해주고 선녀 아내를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소위 원형에 비해서 많이 발전한 모습이다.

이 첫 번째 모티프에는 유, 불, 선적인 요소가 모두 존재한다. 약자를 도우는 것의 모든 종교적인 이념의 공통 요소라 하겠다. 그리고 위에서 이야기한 선녀가 하강하여 날개옷을 벗고 목욕을 한다든지, 말하는 사슴 이라든지 하는 것은 도교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도입부에 깔아준다. 그리고 쫓기는 사슴을 구하고 자기도 자기의 딱한 신세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불교의 인과 응보적인 요소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유, 불, 선적인 모습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시 이야기가 민중에 전해질 무렵에 이미 그 사회는 유, 불, 선이 어우러져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조선 중기 이후 조선 문화의 특질이라고 받아드려진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기본 틀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약간 변형된 부분이 있다. 《수신기》의 羽衣女는 기본 틀에서는 여자가 딸아이를 시켜 아버지에게서 옷 있는 곳을 알아내고 그 옷을 입고 하늘나라로 날

아가 버리고는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날아와서 딸들을 모두 데리고 가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데 반하여, 한국의 《나무꾼과 선녀》에서는 그 부인의 직접 간청에 못 이겨 날개옷을 내주고 마는데, 그 부인이 날개옷을 입게 되자 하늘로 날아오르게 되고 하늘로 날아 오른 김에 그대로 친정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안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된다. 이것을 보면 《수신기》에서의 천녀는 나무꾼에게 직접 간청하여 옷을 찾는 것이 아니라 딸을 통하여 옷을 찾게 되고 하늘로 올라갈 때 나무꾼에게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올라가 버리고는 얼마 안 있어 다시 날아와서는 아이들만 데리고 다시 하늘나라로 가 버린다. 남자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의 신세가 되어 버린다. 고대 판 기러기 아빠라고나 할까? 《수신기》에서는 천녀의 예장에 대한 정에 관한 것이 한마디도 없다. 천녀와 예장은 오히려 갈등을 격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선녀와 나무꾼》에서는 첫 번째 단락에서 “그렇게 하여 선녀는 나무꾼의 아내가 되어 아들 딸 둘을 낳고 어머니도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라고 되어 있다. 선녀와 나무꾼 사이에서는 어떠한 갈등이나 다툼 같은 것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옷을 찾을 때도 선녀와 나무꾼의 직접적인 대화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것이 옛날부터 있어온 한국인의 정서와 중국인의 정서가 다른 한 면을 엿보게 해준다. 또 《선녀와 나무꾼》에는 없으나 다른 판본에서는 사슴이 아이를 세 낳을 때까지 옷을 주지마라고 한 것은 아이를 셋 낳으면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도 세 명을 두 팔로 다 안을 수 없기 때문에 가려고 해도 아이를 떼어 놓고 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고 《수신기》에서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으로 되었다. 어찌 되었든 이야기가 이렇게 잔 설명을 많이 넣어 중국 작품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띄는 것은 바로 고대 한국인의 잔정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것이 고대의 이야기 속이나 문학 작품 같은 곳에 잘 나타나 있다.

구한 말 프랑스의 어느 한국의 민속을 연구하기 위하여 한국에 와서 머물면서 한국의 민속을 연구하고, 그것에 관한 책을 저술하여 세상에 내어 놓았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수 십 차례 연구를 위해서 지방을 방

문했는데 어려운 살림 가운데서도 매번 한 번도 빠짐없이 침소와 식사를 아무 대가 없이 제공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인의 손님에 대한 인정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다. 이러한 것이 한국의 정서이다 널리 선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를 이제껏 논문이나 서적에서 부부 간의 갈등이라는 차원에서 다루는 것을 많이 보아 왔는데 필자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부간의 갈등과 조화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싶다.

이 이야기속의 화자의 시각은 모두 나무꾼에게 집중되어 있고 선녀는 보조 역할이다. 산골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나무꾼이 장가갈 처지도 되지 못하고 전전궁궁하고 있는 터에 착하고 아름다운 선녀나 선녀와 같은 귀한 집 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나무꾼의 환상으로 꿈의 여행이다. 그냥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끝내면 재미가 없으므로 이런 저런 곡절과 반전을 통하여 당시의 인정세태를 이야기 속에 반영한 것으로 마지막에는 모종의 자연현상(수탉이 아침에 높은 곳을 올라다보며 우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런 자연 현상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이야기는 중국에도 있다. 고대 한국의 것 보다는 좀 더 거창하게 견우성과 직녀성 같은 별자리 이야기이다. 결국은 모두 남녀의 만남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이다.

세 번째 단락부터는 《수신기》의 羽衣女라는 기본 틀에는 아예 없는 부분으로, 나무꾼이 다시 사슴의 도움으로 두레박을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아내와 아이들을 기쁘게 재회하고 행복하게 같이 산다는 이야기로 선녀와 나무꾼 사이에는 애정 전선에는 아무 갈등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잠시 헤어짐의 아픔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결코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네 번째 단락은 하늘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어머니가 보고 싶고 걱정이 되어서 병이 나게 된 나무꾼은 선녀의 주선으로 용마를 얻어 타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어머니를 만나보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행복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 현대적인 이기적인 행위에서 벗어나 부모를 모셔야 하는 그 당시 한 남자로서의 가부장적인 입장을 잘 나타낸 것이

라고 본다. 옛날 농경 사회에서 자기와 처자식만 잘 살게 하겠다고 놓고 노동력이 없는 부모를 내 쫓고 어디론가 떠나서 사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가정이나 사회적인 규범에 위반되는 것이었고 그가 지상에 남게 되는 것은 그러한 당시의 관념이 만들어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다섯 번째 단락은 용마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어머니를 만나게 된 나무꾼은 잘못하여 낙마를 해서 용마는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자기는 다시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게 되어 지상에 남아 어머니를 모시고 처자식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결국 처자식을 떠나서 부모 곁에 남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우리에게 이것은 극단적인 유교적인 모형을 시사한다.

이 이야기의 내용이나 이야기 내용 속에 깃들어 있는 한국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겠다.

이 이야기 속에는 중국의 것과는 좀 다르게 유, 불, 선적인 가치관을 조화시키려는 흔적이 보인다. 또 작품의 체계로 볼 때 구성의 긴밀함, 이야기 발전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한국인의 조화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종 중국의 작품 속에는 이야기 줄거리만 있고 바탕에 구성의 합리성이나, 전개와 합리성 같은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은 이야기나 작품을 보고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육조의 지인 소설인 《세설신어》중 任誕 제 23조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王子猶가 山陰에 살고 있을 때, 눈 오는 밤에 잠이 깨어서 방문을 열고 술을 가져오라 하여 마시고는 사방이 고요한데 이리 저리 돌아다니면서 左思의 招隱詩를 읊다가, 갑자기 戴安道를 떠올렸는데, 그때 대안도는 剡州에 있었다. 그는 그날 밤 작은 배를 타고 그에게로 갔다. 밤을 새워 그의 집 앞에 왔을 때 문 앞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돌아와 버렸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으니, 왕자유가 말하길 “나는 처음에는 흥이 나서 왔는데, 흥이 다하였으므로 돌아간다. 꼭 하필 대안도를 만나볼 필요가 있겠는가?”⁸⁾

이러한 것이 그 당시 현학하는 일부 문인들의 도도한 기풍이 아닌가 한다. 또, 예를 들면 당대 전기 소설의 백미라고 하는 원진의 《鶯鶯傳》을 보자. 《앵앵전》은 《會真記》라고도 하며 당대 전기 소설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걸작이다. 특히 남녀의 사랑을 그린 염정류의 대표적으로 후세의 연극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일찍이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元代의 王實實의 《西廂記》등으로 발전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앵앵전》을 읽어 보면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장생과 최앵앵이 서로 정분이 나서 서로를 잊지 못하고 죽을 동 살 동 하면서도 결국은 맺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이 장생의 그런 의지 때문인 것으로 쓰여 있다. 즉 장생이 친구들에게 그것에 대하여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는데, 골자를 이야기 하면 ‘옛날 殷나라의 紂王이나 周나라의 幽王은 모두 백만의 대군을 가진 나라로서 그 세력이 아주 강하였지만 한 여자가 그들을 멸망시키고 말았지. 그래서 그들의 군대는 허물어지고 자기들은 살해당함으로써 지금까지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비웃음을 받고 있는 것이야.’ 그의 논리는 간단하다.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것이다. 그래서 헤어졌다는 것인데, 물론 현실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의 작품으로 보기에선 끝에 가서 절정도 없이 그냥 맥이 빠져 버린 느낌이다. 그래서 이 작품이 또 다른 장르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진 것이 아닌가 한다.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 속에는 인간으로서의 정리 같은 것이 작품의 중간 중간에 묻어 있어 독자들의 마음이 편안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것을 한국인의 잔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잔정이라는 것은 남에 대한 배려와 같은 것으로 인간이 생활하고 혹은 사회가 이끌어져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음식으로 치면

8) 王子犹居山荫，夜大雪，眠觉，命酌酒，四望皎然，因起彷徨，咏左思超隐诗，忽臆戴安道，时戴在剡，即便夜乘小船就之，经宿方至，造门不前而返，人问其故，王曰：吾本乘兴而行，兴尽而返，何必见戴？

양념이나 조미료 같은 것일 것이다. 그것은 문화 혹은 문학에서도 꼭 필요한 하나의 표현양식이라고 본다.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살다가 승천하기 전에는 지상에서 행복하게 살았고, 승천한 후에 나무꾼이 두레박을 타고 천상에 올라오자 선녀는 아이들과 함께 반갑게 맞이하는 장면이 나온다. 선녀와 나무꾼 부부가 함께하는 동안에는 부부의 갈등이 없고 행복이라는 무드만 조성되어 있다.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지상에 계신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자 다녀오라고 용마까지 주선했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었다. 말에서 내리면 다시는 하늘나라로 올라 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꿰어준 뜨거운 호박죽 때문에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지상에 남게 된다. 그 뜨거운 호박죽은 사실은 자식 부부와 손자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는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로 대변 된다. 어머니가 어찌 가지 말라고 자식의 행복을 가로 막는 눈물을 보이는 것으로 표현 될 수 있겠는가? 나무꾼도 애초에는 어머니를 만나보고 처자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어머니의 이 뜨거운 눈물 앞에 어찌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뜨거운 호박죽을 얹은 실수, 이 실수로 지상에 남게 되어 날마다 하늘나라에 있는 처자를 그리워하며 하늘을 쳐다 보고 우는 수탉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유, 불, 선을 어우르려고 하면서도 강한 유교적 성향을 띠다든지 고대 한국인의 정서인 잔정 같은 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한국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런 자연 현상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이야기는 중국에도 있다. 고대 한국의 것 보다는 좀 더 거창하게 견우성과 직녀성과 같은 별자리 이야기이다.

어쨌든 필자는 고대 중국의 문학 형태와 고대 한국의 문학 형태는 내용이나 표현에 있어 같은 동양권이면서도 서로 이런 다른 점이 있었다고 본다. 이것은 중국어의 표현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언어가 곧 사변이라고 한다. 중국어의 표현 방식과 우리말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비가 오기 때문에 나는 학교에 안 간다.”는 말을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비가 온다. 나는 학교에 안 간다.”로 표현할 수

있다. 아주 간결하게 두 단문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앞의 단문은 원인이고 뒤의 단문은 결과이다. 그래서 중국어의 가장 큰 특징은 생략적이라는 것인데 반하여 한국어는 특히 접속사가 발전하여 구절구절 넘어가고 이어가는 부분을 잘 안내해준다.

그것은 중국어가 상형문자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함축미를 갖추고 있고 풍부한 상상력을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장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은 외국인으로서 중국 문학에 접할 때 느끼는 생소함과 난해함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고대 중국 소설은 신화와 전설이나 역사의 기록에서 부터 출발하여 육조 지인 지괴 소설로 발달하는데, 육조 지괴 소설이나 지인 소설의 특징이 엽기적인 일이나 좀 특이한 인물을 기록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것에서부터 중국 고대 문학 작품이 발달하였다고 하니, 후대에 소설이 발달해서도 구성적인 면에서 부족한 전통을 많이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중국 소설의 전통은 중국 이야기나 소설에 감정의 고조 클라이맥스의 약함 혹은 부재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중국 고전 소설의 정수라고 일컬어지고 중국 문화의 보고라고 일컬어지는 紅樓夢 같은 것도 서양 문학의 관점에서는 그리 크게 치지 않는 것도 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라고 보인다.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후반에 기본 틀에서 보태어진 부분은 전반적으로 유교적인 것에서 동기가 유발된 것이라고 본다. 이 이야기는 옛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이야기로 만들어 진 것은 처자 보다는 부모를 중시하는 유교적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의 산물이라고 본다. 우리 고대 한국소설 중에서 제일 유명한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홍부전》 같은 것의 주제는 무엇인가? 《홍길동전》은 국가에 대한 충성일 것이고, 《춘향전》은 부부가 상대방에게 할 도리를 다 지키는 것, 《심청전》은 부모에 대한 효도. 《홍부전》은 형제간에 대한 우애일 것이다. 유교에서 가장 훌륭한 덕목인 이 네 가지가 우리나라 고전 소설 중의 제일 유명한 작품의 주제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혹자는 《춘향전》은 주제가 청춘 남녀의 자유연애를 구가한 것이라고 하는데 필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춘향전》 중의 클라이맥스인 춘향이 가 변 사또에 의해서 매를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 춘향이 매를 열 대까지 맞으면서 외는 것이 구구절절 유가 경전에 나오는 부인네의 절개에 관한 덕목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이 작품의 주제를 여인의 정절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 이후에 이러한 작품들이 공연 예술로 발달하여 《춘향가》, 《흥부가》, 《적벽가》, 《심청가》 등의 판소리로 되는데 《홍길동전》 대신에 《적벽가》가 들어앉은 것은, 《홍길동전》은 다른 한 방면으로 보면 의적소설로 말이 많은 작품이어서 특히 작품 중에 홍길동이 의적활동을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조정에 귀순하여 별도로 청을 해서 울도에 무리들을 데리고 가서 울도국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 끝 부분이므로, 그 내용이 많은 민중 앞에서 공연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자연 도태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국의 《수호전》 같은 작품은 우리나라의 《홍길동전》과 작품 내용이 비슷하지만 중국에서는 清代에 金聖嘆이 조정에 귀순하기 전까지의 宋江이 무리를 이끌고 탐관오리를 물리치고 백성을 구제하는 부분의 것만 살리고 귀순한 후의 이야기는 싹둑 잘라 버리고 천하의 《第一奇書》하여 민간에 더욱 더 유행시켰다. 이러한 점이 고대 한국과 중국의 문학 정서가 크게 다른 점이라 하겠다. 필자가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나무꾼과 선녀》라는 이야기는 이런 고대 한국적 문화 토양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고대 한국의 이야기나 소설 작품은 특성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형식이 위로 향하여 점점 고조되는 상승적인 기류 형식이라고 하면, 고대 중국의 것은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이야기의 긴밀함이 농축되어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지는 평면적인 기류를 타는 형식이라 보인다.

3.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의 모티프 이별과 만남

이 이야기속의 화자의 시각은 모두 나무꾼에게 집중되어 있고 선녀

는 보조 역할이다. 산골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나무꾼이 장가갈 처지도 되지 못하고 전전공공하고 있는 터에 착하고 아름다운 선녀나 선녀와 같은 귀한 집 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나무꾼의 환상으로의 꿈의 여행이다. 그냥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면 재미가 없으므로 모종의 사건 때문에 다시 헤어지게 되고 나무꾼이 다시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처자를 만나게 되고, 또 행복하게 살다가 어머니를 만나러 가고 결국은 지상에 남게 된다는 이런 저런 곡절과 반전을 통하여 당시의 인정세태를 이야기 속에 반영한 것으로 마지막에는 모종의 자연현상(수탉이 아침에 높은 곳을 올라다보며 우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런 한국이야기의 특징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고비 고비 갈림길에서의 선택과 행동은 결국 나무꾼이었고, 선녀는 기다리거나 나무꾼의 그런 행동하는데 도와주는 존재로만 존재 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살펴보면 역시 남편은 집안에서 가장역할을 하여 대소사를 결정 짓고 아내는 맡겨진 일의 한계 내에서만 움직이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이 당시 고대 한국인의 사고의 한계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결국은 모두 남녀의 만남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부부의 결합과 이별을 묘사한 것이라 본다. 현대적으로 부부 중의 이상적인 남성상을 보면

남성상과 여성상이 공존하는 지향점을 지향하는 사회를 양성 평등 사회라 하고 파트너 십 사회라고도 한다. 이를 위해 여성성에 대한 이해와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성성이 발달한 성숙한 남성이란 강함과 부드러움, 단호함과 포근함을 함께 지니되 절대 큰소리나 강압이나 아집이나 독선으로 가족위에 군림하지 않는 아버지, 섬세함과 여유로움과 자애로움으로 굳건히 가족의 중심점이 되는 남성, 지나치게 여성화 되어 유약한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강건하여 메마른 것도 아닌 중용의 미를 보여 주는 사람을 아름다운 남성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⁹⁾

9) 고혜경, 《선녀는 왜 나무꾼을 떠났을까?》(2006.9), 137쪽 중의 내용을 발췌 편집했음.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남성이 남성다운 강함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어느 정도 여성다움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남성다운 남성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여성상이란 반대로 여성의 부드러움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남성다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여성다운 여성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개인에 따라서 남성이면서도 여성성이 보통보다도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여성이면서도 남성성이 보통보다도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서로의 본질적인 이상형이란 외모보다도 이런 성격적인 조화라 본다. 그리고 서로 성격상으로 맞는 상대적 만나서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들 자신의 일이나 일반적인 가정사나 세상사를 만날 때 매번 서로 상대방의 요구와 나의 요구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상대방의 요구가 나의 요구에 어떻게 절충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만 서로 사랑이 새록새록 가꾸어 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고 해도 될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선녀는 왜 나무꾼을 떠났을까?》에서 다시 한 번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프랑스 영화의 한 장면을 예로 들어 이야기한 것을 인용해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중 파리의 한 기차역이다. 전장으로 나가는 군인들을 전송하기 위해 나온 가족들로 붐빈다. 기차에서 가까운 맨 앞줄에 선 흰 살가랑 되어 보이는 여인이 남편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초조해 하며 서 있다. 바로 뒤에 있던 젊은 여인이 자기에게 양보해 달라고 청한다. “당신은 결혼 생활을 한지 오래되었지만 저는 지난주에 결혼했어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야 하니 나에게 앞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오십대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결혼에 관한한 나도 초년생이요. 결혼이란 넘고 넘어야 할 수 많은 계단이 있는데 매 계단마다 나는 초년생이 되고 새댁은 단지 그 첫 계단에 서 있을 뿐이래요.”¹⁰⁾

이이야기가 우리에게 결혼에 대하여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어차피

10) 고희경, 앞의 글, 138쪽 인용.

한 눈에 반해서, 혹은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 주겠다고 들이대는 감언이설에 속아서 결혼 했던지 간에 결혼이란 어차피 통과의례이다. 누구나 전 세계의 그 당시 결혼 적령기에 있는 모든 상대의 차트 같은 것을 관리 하면서 자기의 이상에 맞는 상대를 고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눈에 반했던 어찌했던 결국 상대방에 대한 선택은 어느 순간 어느 특정한 위치에서 서로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에게 진정하게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알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보통 우리가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에서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할, 또는 선녀 쪽에서는 원하지 않은 결혼 이었다 라든지 혹은 잘못 된 결혼이라고 말하기는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기에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어느새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결혼 생활에서 아파트니 자동차니 하는 것들로 대변되는 금전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러한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환경의 문제여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차치해 두기로 하고 부부생활의 터전이고 상징인 심리 혹은 영혼적인 공간을 가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의 서로 상반되는 모델을 우선 제시해 보기로 한다.

첫 번째로 부부가 서로 수 십 년의 세월을 함께하면서 꿈의 해석을 통해 서로의 무의식이 나타내는 반응까지 존중하는 커플, 서로의 무의식의 반응을 들을 수 있는 커플, 이러한 결혼 생활은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영혼의 깊이에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둘이면서도 완전히 하나가 된 것 같은 경우이다.

또 다른 하나의 도식은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가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결국은 선녀와 나무꾼의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것으로 어떤 것은 만나는 것으로 끝나고 어떤 것은 헤어지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결국 인생도 혹은 결혼 생활도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 아닐까? 어찌됐던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하루 스물 네 시간 내내 붙어살 수만은 없는 사실이고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고 헤어지게 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서로의 헤어짐의 영역을 크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결혼

생활을 말한다. 그래서 이 헤어짐의 영역에서는 부부 각자 스스로가 상대방의 요구만을 살피는 것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요구를 살피고 채울 수 있는 상상과 꿈과 환상을 허용하는, 꿈꿀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넓은 공간을 창조하여 헤어짐과 만남을 더욱 완전하게 하는 것이 참다운 부부 생활이라는 생각도 든다.

4. 중국의 천아 처녀 형 이야기 종류의 전형 분석

중국의 천아 처녀 형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로 종합되어지는데 아래와 같다.

- a. 두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이 형의 확대를 받는다. 분가 할 때 형이 모든 재산을 차지하고 동생에게는 늪은 소 한 마리만 주게 된다. 동생에게 이 소가 부인을 얻는 방법을 알려 준다. 그는 소의 말대로 하여 선녀를 처로 얻는다. 선녀는 몇 명의 자녀를 낳고 나서 옷을 찾게 되고 하늘로 떠나 버린다. 그도 뒤따라 하늘나라로 올라 가다가 저지를 받게 되고 이로부터 일 년에 한 번씩 만나게 된다.
- b. 선녀가 천제의 명령이나 혹은 자기의 연분에 의해서 지상에 내려 와서 사람과 결혼한다. 선녀가 아들을 낳고는 어떤 원인으로 하늘로 떠나가 버린다. 그 아들이 엄마를 그리워하게 되는데 술사나 혹은 부친의 도움으로 엄마를 찾게 되고 아들은 하늘나라에서 천제의 외손이라 하여 대단한 신통을 배워서 지상에 내려오는데 술사는 천기 누설죄로 벌을 받게 된다. 지상에 내려온 아이는 조정에 발탁되어 큰 벼슬을 하게 되고, 조정이 이상하고 희귀한 문제에 부딪치는데 그 문제를 그 아이가 하나하나 풀어 나간다.
- c. 한 착한 남자가 있었는데 동물이나 신선의 도움으로 초자연적인 여자를 처로 맞게 되고, 여자는 아이를 낳은 후에 하늘나라로 떠나 버린다. 그도 처를 찾아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 여자의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시달림과 고난을 받게 되는데 처의 도움으로 고난을 면하게 되고 여자의 부모가 그들을 용서하게 되어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이야기 내용이 발달하는 과정을 보면, c 종류의 이야기처럼 고대 한국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고, a, b처럼 고대 한국과는 많은 다른 부분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다. 그 만큼 이야기 내용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역적으로 넓어서 지역 간에 문화의 편차가 심하다 보니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것은 일반적으로 온건하게 기본의 틀을 유지 하면서 조금씩 이야기가 연역되어 간 것에 반하여 중국의 것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이야기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a와 같은 종류의 이야기는 거의 《견우와 직녀》 이야기의 전 단계로 보인다.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로 일관되는데, 이러한 이야기 종류의 기본 형태인 《우의녀》 이야기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고대 한국에서는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와 《견우와 직녀》 이야기는 따로따로의 이야기이지 두 이야기가 함께 붙여 있는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b와 같은 종류의 이야기는 선녀가 날개옷을 입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 까지는 기본 틀이 비슷하나 그 다음의 이야기는 한국에는 전혀 없는 완전한 다른 이야기인 田昆崙의 아들인 田章의 이야기로 “세상에 아주 큰 사람이 있는가? 세상에 아주 작은 사람이 있는가? 세상에 아주 큰 소리가 있는가? 세상에 아주 작은 소리가 있는가? 세상에 아주 큰 새가 있는가? 세상에 아주 작은 새가 있는가?” 하는 기기묘묘한 문제를 하나하나 대답하여 사람들의 의문을 풀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이야기에는 水鏡선생이나 董仲舒와 같은 유명한 인물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런 유형의 이야기에는 순수한 민간 이야기에 지식인의 손길이 가미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종합하면 한국의 것은 이야기가 원형을 잘 보존하면서 온건한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의 것은 그들의 문학 전통인 기괴한 사건을 기록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변칙적인 방법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3. 결론

《나무꾼과 선녀》 고대 한국형의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질이 있다. 그러한 이야기에는 유, 불, 선적인 요소가 모두 존재한다. 중국의 것과는 좀 다르게 유, 불, 선적인 가치관을 조화시키려는 흔적이 보인다. 유, 불, 선적인 모습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시 이야기가 민중에 전해질 무렵에 이미 그 사회는 유, 불, 선이 어우러져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조선 중기 이후 조선 문화의 특질이라고 받아드려진다.

고대 한국형 이야기에는 우리에게 극단적인 유교적인 모형을 시사한다.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후반은 전반으로 유교적인 것에 모티프가 있다.

고대 한국형 이야기에는 유, 불, 선을 아우르려고 하면서도 강한 유교적 성향을 띄고, 또 고대 한국인의 정서인 잔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 형식이나 체재 면에서 살펴보면 고대 한국형 이야기에는 이야기 속의 화자의 시각은 모두 나무꾼에게 집중되어 있고 선녀는 보조 역할이다.

고대 한국형 이야기에는 이야기의 기본 틀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약간씩 변형되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작품의 체계로 볼 때 그 구성의 긴밀함, 이야기 발전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

중국의 천아 처녀 형 이야기 종류의 전형 분석을 통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이야기 내용이 발달하는 과정을 보면, 고대 한국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고, 고대 한국과는 많은 다른 부분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다. 그 만큼 이야기 내용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것은 일반적으로 온건하게 기본의 틀을 유지 하면서 조금씩 이야기가 연역되어 간 것에 반하여 중국의 것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이야기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중국의 어떤 이야기는 한국에는 전혀 없는 완전한 다른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다.

종합하면 한국의 것은 이야기가 원형을 잘 보존하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의 것은 다양한 변칙적인 방법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고대 중국 소설은 신화와 전설이나 역사의 기록에서 부터 출발하여 육조 지인 지괴 소설로 발달하는데, 육조 지괴 소설이나 지인 소설의 특징이 엽기적인 일이나 좀 특이한 인물을 기록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록 문화에서 중국 고대 문학 작품이 발달하였다고 하니, 후대에 소설이 발달해서도 구성적인 면에서 부족한 전통을 많이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중국 소설의 전통은 중국 이야기나 소설에 감정의 고조 클라이맥스의 약함 혹은 부재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參考文獻]

1. 배원용,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집문당, 1993.5).
2. 서은아, 《나무꾼과 선녀에 나타난 부부 갈등 연구》(제이앤씨, 2005.3).
3. 고희경, 《선녀는 왜 나무꾼을 떠났을까》(한겨레출판, 2006.9).
4. 신예영, 《선녀와 나무꾼》(도서출판 새샘, 2003.1).
5. 조현설,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한겨레출판, 2006.2).
6. 채지충, 《육조괴담》(삼련서점, 1991.4).
7. 채지충, 《육조의 청담 세설신어》(시보문화출판기업, 1987.10).
8. 종경문, 《중국의 천녀처녀형 고사》(종경문 민간 문학 논집-하)(상해문예출판사, 1985).

[中文摘要]

古代韩国的《樵夫与仙女》故事，如这个标题所昭示，在许多民间故事中，它是特别地富有所谓“诗之美丽”的浪漫的故事，相似全世界民族之间有着极广泛地流布区域的《天鹅处女》型故事。因此一般的故事阅读者、收集者不必说，便是神话学、人类学的研究家们，也对它怀抱着特别的兴味。

本文不是神话学、人类学方面的专门研究，而只是有关古代中国的《天鵝处女》型故事和古代韩国的《樵夫与仙女》故事的发展互相比较的。本文指出：古代韩国型故事保持着儒、佛、道教的色彩，这可以说明该故事发展的过程中受到儒、佛、道教的影响，也可以说古代韩国的该故事典型是朝鲜中、后期落实的。古代韩国的这类故事围绕原型而发展相比，古代中国的故事变化多端，如与《牵牛与织女》、田章等故事结合起来。

關鍵語：古代中国，《天鵝处女》型故事，古代韩国，《樵夫与仙女》故事

高行健 소설의 소통, 우정, 그리고 소설형식**

姜鯨求*

〈목 차〉

1. 시적 소설, 소설적 시
2. 우정의 부활
3. 高行健식 공간분할과 소통
4. 감춤과 내보임의 곡예
5. 과거형 우정, 혹은 예정
6. 결 론

1. 시적 소설, 소설적 시

한 작가가 글쓰기를 계속하면서 한편으로 그 글쓰기의 의미를 간과 당하기를 거부할 때 그는 여러 가지 난해한 장치¹⁾들을 고안하게 된다. 그 장치들은 은연중 의식형태에 대한 도전과, 권력에 대한 항거의 자세를 취하게 된다. 문화대혁명의 한복판을 가로질러 온 高行健의 문학창

* 동의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이 논문은 2005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005AA011).

1) 高行健의 〈現代小說技巧初探〉은 바로 이러한 장치들에 대한 고민의 결과였던 것으로 보인다.

작은 바로 이러한 장치들에 대한 실험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주로 자기를 위해 쓴 작품, 개인의 목소리, 獨言獨語, 自言自語 등으로 불리워진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高行健의 주장을 들어보자.

혼잣말(自言自語)은 문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언어를 통해 교류하는 일은 2차적인 일이다. 사람들은 그 느낌과 생각을 언어 속에 주입하고 글쓰기를 통해, 그리고 문자에 기대어 문학을 만든다. 이러한 때 어떠한 공리적 고려도 없고, 심지어 어느 날인가 발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계속 쓰고자 하는데 그러한 글쓰기를 통해 이미 쾌감을 얻고, 보상을 받게 되며, 위로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²⁾

이렇게 소통, 혹은 교류를 2차적인 것으로 미루어 놓고, 언어와 문자에 주로 기대할 때 소설은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는가? 그것은 시와 유사한 형태를 띄게 되지 않을까? 그러한 시도의 하나가 바로 高行健의 《靈山》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서사적 글쓰기는 별 수 없이 해석되고 의미화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 바 있다.

글쓰기에 있어서 의미화의 유혹과 살아남기. 어쩌면 샤라자드의 이야기하기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것은 모든 이야기와 이야기꾼의 운명인지도 모른다. ……이야기는 진달래꽃과 같은 사물도 아니고, 종교적 주문도 아니며, 사원의 종소리도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것은 노래, 혹은 시와도 다르다. 요컨대 순수한 존재가 아닌 것이다.³⁾

그러므로 작가가 비록 해석을 거부하는 글을 내놓았다 할지라도 우

2) 自言自語可以說是文學的起點, 藉語言而交流則在其次. 人把感受與思考注入到語言中, 通過書寫而訴諸文字, 成爲文學. 當其時, 沒有任何功利的考慮, 甚至想不到有朝一日能得以發表, 却還要寫, 也因為從這書寫中就已經得到快感, 獲得補償, 有所慰藉. 高行健, 〈文學的理由〉, 《高行健短篇小說集》(臺北: 聯合文學, 2001), 11쪽.

3) 강경구, 《高行健과 중국당대소설》(부산: 세종출판사, 2005), 14~15쪽.

리는 그 의미를 추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高行健의 문학실험실 노릇을 했던 단편소설에는 어떠한 주제와 기교, 그리고 어떠한 장치가 시도되고 있으며, 거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었던가?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탐색의 노트이다.

2. 우정의 부활

高行健은 1980년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 문학창작 과정에서 현실을 본뜨고 묘사한다는 소설의 전통을 버리는 대신 그 언어적 특징에 주목하였다. 이에 대해 그 자신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언명한 바가 있다.

내 생각에 이 소설이라는 언어예술은 현실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결국 언어의 실현으로 귀결된다. 소설이 흥미를 끄는 이유는 그것 또한 언어를 통해 독자의 진실하고 절박한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⁴⁾

그렇다면 高行健은 시를 쓰려 하는 것일까? 일찍이 劉再福이 그의 시문학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던 것도 이러한 그의 소설에 대한 탐색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적어도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그는 소설 속에서 이러한 시적 언어를 구현하려는 지향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단편소설 〈海上〉에 보이는 다음의 心心相印적 교류에 대한 시도와 언어에 대한 태도를 보라.

“어이! 어이……” 그대가 그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친다.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였을까? 그를 격분시키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그대 스스로 격분되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대도 분명히 말할 수 없다. 그는 그제서야 고개를 돌린다. 입가에 분명 미소를 달고 있다. 의기양양한 것이 아니라 우호적이

4) 我以為小說這門語言的藝術歸根結底是語言的實現，而非對現實的模寫。小說之所以有趣，因為用語言居然也能喚起讀者真切的感受。高行健，《高行健短篇小說集》(臺北：聯合文學，2001)，339쪽.

다. 그대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대도 웃는다. 완전히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마치 바다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파도처럼. 정말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에게 응답하였다. “아아! 아!” 그의 고함소리가 다시 바닷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마치 이에 호응하듯 바닷물이 철썩이는 맑은 소리를 내며 뱃전에 부딪혔다. “어이! 어이!” 그대도 고향을 친다. 이제 그대는 결코 그를 향해 고향치지 않는다.⁵⁾

〈海上〉은 1인칭 ‘나(我)’가 바로 2인칭 ‘그대(你)’로 넘어가는 문학적 장치를 효과적으로 실험한 高行健 초기의 작품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나(혹은 그대)는 혁명 노간부들의 여름휴양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北戴河에 간다. 王紹平도 똑같은 임무를 띤 부서의 동료였다. 그는 고립적 인물이었다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생각을 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먼 곳까지 헤엄친 당신--바로 여기에서 我가 你로 바뀐다--은 작은 배위에 누워서 소리치는 그를 만난다. 위의 예문과 같이 들은 웃음을 나누고, 고향을 나누고, 마음을 나눈다. 그것은 부처와 가섭의 말없는 대화와 유사한 心心相印적 교류의 현상이다. 특히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는 시대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나누는 일. 우정(友善), 혹은 우호적 관계를 여는 일, 거기에 어떠한 의미도 담길 수 없는 고향소리, “어이!”와 “아아!”가 반복적으로 교환된다. 두 사람이 외치는 고향소리는 누구를 부르는 것이며 어디를 향한 것인가? 규범화된 관계, 규정된 사상, 틀에 갇힌 인간관계, 도덕 같은 것을 향한 도전이 아니겠는가?

사실 진정한 마음의 교류라는 것이 가능하거나 한 것일까? 돈이 전제되면 돈에 의해 관계가 규정되고, 사회적 가치, 혹은 정치적 기준이 전제되면 그것에 의해 평가되고 왜곡된다.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의 이

5) 「喂-, 喂-!」你大聲朝他喊, 是爲了出氣? 爲了激怒他? 還是你自己被激怒了? 你也說不清楚. 他這才回過頭來, 嘴腳分明掛着微笑, 並不是得意, 却是友善的, 讓你不容置疑. 你便也笑了, 全然發自內心, 就像從海的深處湧起的浪花, 真的, 就那麼自然, 不加思索回報了他. 「啊-, 啊-!」他的吆喝聲又飄散在海風中, 彷彿呼應似的, 噼哩叭拉, 海水在船幫子上清脆的拍擊聲. 高行健, 〈海上〉, 《高行健短篇小說集》(臺北: 聯合文學, 2001), 127~128쪽.

해와 교류는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다면 管仲과 鮑叔牙 간의 ‘낳아준 부모를 능가하는 믿음(生我者父母, 知我者鮑叔牙也)’, 그 불가사의한 믿음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그것은 본능적인 것인가? 도덕적으로 요구된 것인가? 물론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대답이 정답이겠지만 적어도 管鮑의 믿음과 우정은 본능적인 것에 더 가까워 보이고 그래서 신비로운 힘을 발휘한다.

高行健의 〈朋友〉는 친구간의 우정이 도덕적 수사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하는 이 오래된 주제를 더듬는다. 사실 高行健의 작품을 살펴보면 이 뿐만 아니라 애정, 가족애 등과 같은 인류의 오래된 감정에 대한 탐구의 흔적이 역력하다. 그리고 그 탐구의 끝에는 대체로 그 본능성과 자연성에 대한 긍정이 발견된다.

〈朋友〉의 너는 문혁시기 가짜 충살을 당하는 순간 친구인 나와 멘델스존을 함께 들던 시절을 그리워한다.

내가 총에 맞아 죽는구나 했을 때 무엇을 생각했는지 아는가? 담 너머 자네 집에 틀어놓은 유성기를 마당으로 옮기라 소리쳐서 들곤 하던 멘델스존의 이 음악을 다시는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이었네.⁶⁾

친구가 들고 있는 유성기를 마당으로 옮기라는 무례함에 가까운 친근함은 사회관계에서는 찾기 어려운 것이며 그래서 귀한 것⁷⁾이다. 그것은 행동의 결과에 책임이 없는 자유스러움을 만끽하는 현상이고 지복을 누리는 순간이다. 또한 그것은 타인이 투입할 수 없는 극도로 내밀한 공간이다. 내밀함과 자연성, 그리고 지복은 적어도 高行健에게 있어서 동일물--우정--의 세 측면이다.

그것이 내밀하다는 것은 우정에 아닌 타인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

6) 我以為被打中了死了的那時候, 我心想的是在也不能在你家放唱片的時候, 隔着院牆叫你把唱機搬到院子裏來, 再也聽不到門德爾遜的這個曲子了. 高行健, 〈朋友〉, 《高行健短篇小說集》(臺北: 聯合文學, 2001), 29쪽.

7) 후한의 光武帝가 무례한 학우를 극진히 대접한 것도 이것이 사회속에서는 다시 찾기 어려운 귀중한 안식처임을 알았기 때문이리라.

의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정의 대상이 되는 친구인 ‘너’는 高行健적 사유방식에 의하면 ‘나’의 분신⁸⁾이다. 그러므로 친구는 내가 세상과 분리되기 전의 행복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친구인 ‘너’는 ‘나’이므로 변명이나 사과나 설명이 필요 없다.⁹⁾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 친구간의 우정은 불온하고 위험하다. 그것은 사회적 논리를 무력화시키고 역사적 필연성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주체들은 우정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흘깃거리게 된다. 그것은 도처에 깔려있는 감시의 눈길이 된다. 다음의 문장을 보라.

73년 가을 한번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여러 번 자네 집 앞을 지나가면서도 들어올 용기를 내지 못했지. 자네 집이 이사를 갔을지 몰라서였기도 했고, 또 누가 알아보고 자네에게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조심스러워했던 거지.¹⁰⁾

감시의 눈길은 명확한 정치적 압력보다 더 실재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국가조직은 우정에 대해 감시의 눈길을 보냈던 것인가? 그 불온성 때문이다. 高行健은 우정의 이러한 불온성과 파괴력, 그리고 그 초월적 힘에 주목한 듯하다. 그렇다면 高行健은 구체적으로 우정의 어떠한 측면을 그리고 있는가? 왜 친구인 너는 죽음을 앞에 둔 순간 친구인 나와 함께 했던 시간과 공간을 그리워하는가?

우리는 자신과 관련해서는 미래형의 가능성을 중시하고, 타인과 관

8) 뿐만 아니라 ‘그녀’, ‘그’, ‘그들’도 모두 나의 분신이다.

9) 물론 유성기를 마당으로 옮겨 같이 듣거나 함께 귀뚜라미를 잡던 진정한 친구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그 흔적을 가진 백발의 초췌한 중년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정의 오아시스의 존재를 증명하는 흔적이다.

10) 七三年秋天, 我回來過一次, 好機會從你家門口經過, 沒敢進來, 一是怕你門家也搬了, 再是怕有人認出我來, 給你們加添麻煩。〈朋友〉, 《高行健短篇小說集》(臺北: 聯合文學, 2001), 32쪽.

런해서는 과거형의 행위와 결과를 주목한다. 이 상이한 두 차원의 괴리는 개인의 불행감과 정비례한다. 그런데 진정한 친구는 포숙이 그랬던 것처럼 상대의 가능성을 중시한다. 〈朋友〉의 나와 친구가 바로 그러한데 우선 ‘나’는 ‘너’의 낙천성을 다음과 같이 찬양한다.

나는 정말 자네에게 고개를 숙였네. 그런 일을 겪고도 여전히 이렇게 낙천적일 수 있다니.¹¹⁾

이 낙천성은 바로 친구의 인격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친구는 장난스럽게 일상을 살아간다. 그런데 문혁시기와 같은 권위주의의 시대에 가벼움과 웃음은 곧 그 엄숙성을 깨뜨리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더구나 그 가벼움과 웃음은 정서적 감염력이 있어 만나는 사람들을 구속으로부터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낙천성, 혹은 장난스러움은 다음과 같이 파괴적이고 불온하다.

사람들은 채소를 팔던 경험을 마르크스의 철학으로 삼지. 그가 이것을 본다면 틀림없이 치를 떨거야.¹²⁾

그렇다면 작가는, 혹은 나는 친구의 이러한 낙천성 때문에 그를 좋아했던 것일까? 오히려 그 자신은 조심스러우며 진지하고, 심지어 가치관까지 다르다. 친구가 대혁명이 완성된 사회에서는 창조적 노동만이 필요하다고 할 때¹³⁾, ‘나’는 문학의 고민을 심화시켰으며, 또 현실을 비꼬는 친구의 ‘장난스러움’에 대해서 ‘나’는 걱정이 되어 조심하라는 편지를 쓰려고까지 한다.

11) 我真服你，你有過這樣的經歷，居然還這樣樂天。〈朋友〉，《高行健短篇小說集》(臺北：聯合文學，2001)，26쪽.

12) 馬克思要是看到人們把賣菜的經驗當成他的哲學，準會氣得發抖。〈朋友〉，《高行健短篇小說集》(臺北：聯合文學，2001)，28쪽.

13) 大革命的時代完成了，沒有巨大的社會變革就不會有深刻的文學，我們面前的路太平坦了，時代留給我們的只剩下創造性的勞動。〈朋友〉，《高行健短篇小說集》(臺北：聯合文學，2001)，32~33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친구의 이러한 낙천성과 그에서 비롯되는 단순성을 사랑한다. 이처럼 친구는 가능성으로 빛나는 자기 존재를 재 발견하게 해주는 힘을 갖는다. 친구의 그 존재 자체가 그러하거나와 다음과 같은 구체적 긍정에 의해서도 그러하다.

“너무 멋지다. 상상이 돼. 정말 너무 멋져. 자네는 그것을 꼭 다시 써야 해!”¹⁴⁾

‘나’의 태워버린 원고에 대한 긍정과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격려가 담겨있는 칭찬이다. 그것은 개인에 속한 것을 끝없이 부정하기만 하던 사회와 정반대의 힘이다. 사회는 원고를 불태우게 하였지만 친구는 그것을 되살리도록 응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실현되지 않은 개인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이야말로 친구의 한 특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친구는 사회적 이해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있다. 〈朋友〉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나의 현재형이 아니라 일찍이 잃어버린 가능성을 기억해주고 인정해준다. 친구와 나누는 대화는 언어 이전의 것으로 남을 수 있으며 사회적 해석의 위험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특히 목적이나 전제조건이 없이 그 자체로 충족적인 것이므로 통제받거나 왜곡되지 않는다. 친구 간에 나누는 대화는 그저 목적 없는 어린아이의 유희처럼 의미 없이 즐겁게 오갈 뿐이다.

3. 高行健식 공간분할과 소통

〈朋友〉에서 高行健은 그 자신의 독특한 공간분할 방식을 보여준다. 그것은 밀폐된 공간과 열려진 공간, 혹은 동굴과 광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당연히 高行健의 인물들은 우선적으로 밀폐된 동굴의 공간을 지향한다.

14) 妙極了, 想像得出來, 這是很美的. 你應該把他重新寫出來! 〈朋友〉, 《高行健短篇小說集》(臺北: 聯合文學, 2001), 35쪽.

방안이 따뜻해지자 유리창에 뽀얀 김이 맺힌다. 밖은 틀림없이 아주 추울 것이다.¹⁵⁾

이처럼 밀폐된 공간은 따뜻하지만 그 밖은 춥다. 또한 이 가려진 공간에는 우정과 웃음과 희망이 있다. 이 편안함과 자유는 타인의 눈길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장막은 성애와 같이 불완전한 것이다.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도 언제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다. 자신이 속한 사회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처럼 이곳은 바깥의 열린 광장과 완전히 격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도연명의 '桃花源'과 다르다. 최소한의 온기에 의해 유리창의 서리는 김 같은 것이 두 공간을 가르는 장막이 되는데 이것은 언제라도 열릴 수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감정에 겨워 방안을 오가다가 창문 앞에 서서 손으로 유리창의 김을 닦아내고 창밖을 응시하였다.¹⁶⁾

말하자면 高行健의 인물은 밀폐된 동굴 속에서의 고립적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광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로서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高行健의 인물이 숨고자 하는 밀폐된 공간에는 항상 그와 함께 하는 이(친구, 애인)가 있다. 혼자 숨어드는 밀폐된 공간이 종교적이라면 함께 숨는 공간은 사회비판적이다. 그러므로 그의 우정에 대한 재발견, 혹은 사랑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불온하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를 부정하는 개인주의적 고립도 아니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제시하는 사회적 대안도 아니다. 임시적 장막으로 두 공간을 나누고, 다시 그 경계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넘나든다는 점에서

15) 房裏暖和起來了，窗玻璃蒙上了一層迷濛的水氣。屋外肯定挺冷。〈朋友〉，《高行健短篇小說集》(臺北：聯合文學，2001)，33쪽.

16) 你激動得在屋裏走來走去，隨後在窗前站住，用手擦去玻璃窗上的水氣，凝望着窗外。〈朋友〉，《高行健短篇小說集》(臺北：聯合文學，2001)，35쪽.

그것은 차라리 개인적 결단에 가깝다.

그렇다면 高行健의 인물은 언제 밀폐된 공간에 숨어들고, 언제 열린 공간으로 나서는가? 우선 高行健의 인물이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집에 주목하자. 예컨대 〈朋友〉에서 高行健의 인물은 친구와 함께 밀폐된 공간으로 숨어든다. 그곳은 유리창의 김에 의해 바깥과 차단된 공간이며, 들만의 옛 기억에 의해 이루어진 내밀한 세계이며, 서로간의 호의가 왜곡되어 해석되지 않는 선의의 공간이다. 그러나 그 공간은 유리창에 서린 김만큼이나 임시적이라는 점에서, 또 완전한 혼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또 사회적 주제가 얘기된다는 점에서, 이미 반쯤 열려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바로 그 반개반폐성이야말로 高行健이 작품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공간의 특징이다. 예컨대 자신이 꾸었던 꿈을 친구와 공유하고자 하였던 〈朋友〉의 나를 보자.

깨어나서 나는 눈을 뜨고 꿈속의 인상을 거둬 떠올렸네. 심지어 펜을 찾아 그 선율과 리듬을 대강 써두려고까지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그 음표들을 붙잡을 수가 없었지. 그렇지만 그 인상만은 분명했네. 만약 차네를 다시 만나게 되면 이 꿈 얘기를 꼭 해야지 하고 생각해왔다네.¹⁷⁾

꿈은 내밀한 공간이지만 그것이 기록되거나 타인에게 얘기되는 순간 밖으로 열리게 된다. 자기를 감추어야 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되어 갈수록 자기 세계를 열고자 하는 욕망 또한 커져갔던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방식으로 사회성이 개인성을 몰각시키는 상황이 되면 내밀한 공간에 대한 지향이 커진다. 〈朋友〉의 친구가 집체적 폭력에 의해 사형을 당한다고 생각한 순간, 나와 내밀한 감정교류를 생각했던 것이 그 예가 되겠다. 그래서 高行健이 구성한 그 半開의 공간은 항상 半開의 눈빛이 조명하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의 예문에서 알 수 있는 것

17) 醒來的時候，我睜眼反覆追憶了夢中的印象，甚至找了個筆，企圖把旋律和節奏都大致記下來。可惜，沒法把這些音符捉摸住，倒是留下了鮮明的印象。如果能再見到你，一定要把這個夢境告訴你。〈朋友〉，《高行健短篇小說集》（臺北：聯合文學，2001），31쪽.

처럼 밀폐된 공간은 열린 공간을 지향하고, 열린 광장에서는 밀폐된 동굴을 꿈꾸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高行健이 지향하는 공간은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상이한 두 공간의 원활한 소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高行健의 소설에는 이와 전혀 다르게 완전히 개방된 공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예를 〈海上〉에서 찾아볼 수 있다. 〈海上〉의 공간은 그야말로 사방으로 개방된 바다 한 가운데 작은 배 위에 마련되어 있다. 이 개방된 공간에서 그대(나)와 그(王紹平)는 의미화할 수 없는 단말마적 외침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주장한다. 인간 존재와 그 의미화할 수 없는 외침은 존재 그 자체를 지향한다는 점에 있어서 서로 닮아 있다. 이렇게 존재만을 드러내는 경우 공간은 엄폐물이 없이 완전히 개방된다. 이것은 나중에 《一個人的聖經》에서 사망이 유리창으로 된 빌딩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곳에서 그는 마가렛과 오직 섹스만을 한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없는 동물적 차원의 움직임일 뿐이다. 심지어 상호간의 사랑이 있는지조차 언급되지 않는다. 사랑조차 의식형태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朋友〉의 반개반폐적 공간은 《靈山》에서 반복된다. 《靈山》의 “나”가 사랑하는 여인과 섹스를 나누는 공간은 언제나 깊은 계곡, 계단 밑 밑실, 검은 커튼이 쳐진 작은 방 등이다. 이곳에서 섹스는 ‘사상적 소통’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高行健의 작품은 항상 감춤과 내보임의 극단적 곡예를 보여준다.

4. 감춤과 내보임의 곡예

그 등불은 숲 사이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곤(時隱時現) 하였다. 발길을 걷는 사람에게 그 등불 빛은 많은 생각과 희망을 불러 일으킬만했다. 이 때 산길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대는 따뜻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 등불 빛을 향해 뛰어갔다.¹⁸⁾

18) 那燈光就在林木的縫隙間時隱時顯。對走夜路的人，這燈光總喚起許多遐想和希望。這時候，山路再黑，你也覺得是溫暖的，你就朝那燈光奔去。〈河那邊〉，《高

〈河那邊〉은 우정에 대한 감춤과 내보임의 곡예가 여실히 드러난 작품이다. 그대(你)는 문혁시기 그대를 감싸주고 지지해주던 변방 현(縣)의 지도자였던 방(方) 서기를 찾아간다. 방서기는 정부에서 제안하는 직위를 거절하고 퇴직하여 산골에 은거하는 현자이다. 그대는 일찍이 그와 막역한 우정을 교류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비밀스런 일이기도 하였다. 두 사람의 우정은 비밀인 동시에 자랑인, 감춤과 내보임의 경계를 오가는 것이었다. 이것은 高行健이 중국의 사회를 비판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삶의 방식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高行健의 인물은 개인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열린사회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그러니까 절반쯤 닫힌 사회를 갖고 싶은 것이다. 이 닫힌 공간은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역시 그와 유사한 닫힌 공간에 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그 공간에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서양의 개인주의와 다른 점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高行健의 인물을 통해 표현된 우정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것은 방서기의 집구조와 너무나 닮아있다.

그대는 그제야 이 방에 창문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그대의 마음을 뻔히 알아채고 한 장의 산수화 옆의 끈을 당겼다. 그러자 산수화가 말려 올라가며 뒤편에 쇠창살이 쳐진 창문이 하나 나타났다.¹⁹⁾

방서기는 이 반지하의 방을 사용할 권한을 그대에게 무기한 약속한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오로지 그대의 선택과 결정을 따르는 것일 뿐, 자신의 호의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縣의 간부들로 대변되는 외부세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격리되고자 하면서 산골 주민들이나 그대(你)에게는 자기의 세계를 열어두고 언제나 출입이 가능하게 하는

行健短篇小說集》(臺北: 聯合文學, 2001), 225쪽.

19) 你這才發現, 這房裏竟沒有一扇窗戶. 他顯然明白了你的意思, 把一張山水畫軸旁的繩子一拉, 那軸畫便捲了上去, 後面竟是個單扇的窗戶, 安着鐵條. 〈河那邊〉, 《高行健短篇小說集》(臺北: 聯合文學, 2001), 232쪽.

方서기의 마음! 그 마음이 주는 편안함! 이것은 하나의 가치관과 하나의 조직으로 모든 구성원을 목고자 했던 중국의 극좌적 정치풍토에서는 얻기 어려운 것이었다. 사실 정치라 하는 것도 보다 더 인간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는 법이다. 모든 것을 정치로 해석하였던 정치제일주의에 대한 方서기의 다음과 같은 도전을 보라.

나는 전쟁도 해봤고, 사람도 죽여봤네. 또 머슴 출신이라 남의 집에서 소도 먹여봤네. 15살에 칼을 메고 산에 들어가 유격대 노릇을 했지만 역사라든가 출신이라든가 하는 것(밀줄 필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네.²⁰⁾

그러니까 方서기가 살아온 삶은 주어진 상황에 대응하는 실존적 결단의 연속이었을 뿐, 어떠한 정치적 가치관과 역사적 비전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가치관과 역사주의적 관점을 거부하게 되면 명확해보이던 모든 것은 다시 혼돈 속으로 침몰되어 간다. 이러한 관계의 해체, 논리의 해체 뒤에 드디어 삶 그 자체가 남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정, 혹은 보다 추상화된 우정조차도 이 삶 속에 기초하게 된다. 方서기가 그대에 대한 우정을 실천하는 방법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 산골의 은거처에 찾아온 그대에게 方서기는 우선 자기 방을 내어준다. 그것은 사실 자기 생활공간으로의 초대이다. 거실→부엌→침실 겸 서재로 이어지는 공간의 심화가 그렇고, 산골 주민의 상가 집에 동행하는 일이 그렇고, 결국 자신의 집을 통째로 내어주고 자기는 이웃에 가서 자고 오는 행동이 그렇다. 그리고 아침 일찍 그대를 위해 산행과 사냥여행을 구상하는 것에서 이러한 우정의 실천은 극에 달한다. 그 사이 方서기는 우정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저 계속 얼마나 목을 것인지 만을 물을 뿐! 그대가 목는 시간 동안 자신의 생활로 그대에 대한 우정을 표현할 생각인 것이다. 그대 또한 이것에

20) 我打過仗，殺過人，又是雇工出身，替人放過牛。我十五歲就背把刀上山打遊擊，歷史和出身都挖不出問題來。〈河那邊〉，《高行健短篇小說集》(臺北：聯合文學，2001)，227쪽.

동화되어 바로 말없이 이해되는 우정의 현장을 회복하게 된다.

그대가 웃었다. 이 웃음을 그는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었다. 등불에서 칙 칙 소리가 났다. 기름에 섞인 수분 때문이다. 그대가 등불 심지를 틀어 올린다. 그대는 이전에 그의 집에서 지도자와 피지도자의 구분, 장유의 구분, 주객의 구분이 없었다. 그대는 과거의 그러한 관계로 돌아가려 한다.²¹⁾

그래서 그대와 方서기는 사냥에 나가 함께 총을 쏘고, 함께 미소를 짓고, 말없이 손을 흔든다. 사실 이것은 우정의 회복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단지 일과성인 것이다. 그대는 다시 이곳에 올 일이 없을 것²²⁾이고, 그대는 강의 이쪽에 方서기는 강의 저쪽에서 과거의 우정을 회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高行健의 작품에서 현재진행형의 우정, 혹은 인간관계 보다 과거형 관계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도 이해가 된다.

5. 과거형 우정, 혹은 애정

高行健의 단편작품에서 과거형 우정, 혹은 어린 시절의 애정에 대한 얘기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특히 유년기를 함께 했던 이성(여자) 소꿉친구와의 퇴색한 재회의 장면은 高行健의 단편에서 가장 단골적인 모티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유년, 소년시절 함께 했던 花豆와의 40년 만의 재회를 그린 〈花豆〉, 어린 시절 꽃을 꺾어주던 여인 春蘭을 만나게 된 상황을 그린 〈花環〉, 대학생 시절 사랑의 감정을 느

21) 你笑了, 這笑容他是看得分明的. 燈光撲撲跳着, 油裏有水分. 你去捻燈捻子, 你以前在他家無領導與被領導之分, 無長幼之分, 無主客之分. 你要回到過去同他的那種關係中去. 〈河那邊〉, 《高行健短篇小說集》(臺北: 聯合文學, 2001), 227쪽.

22) ‘下回一定再來看你.’ 你說. 可同時你又明白你未必再能回到這山裏來了. 你生活在河的另一邊, 那滿是燈光, 人聲嘈雜, 繁忙而飄忽的世界裏. 〈河那邊〉, 《高行健短篇小說集》(臺北: 聯合文學, 2001), 253쪽.

졌으나 문혁의 소용돌이로 인해 맺어지지 못하고 25년 만에 재회하는 장면을 그린 〈二十五年後〉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들 작품에서 과거의 우정, 혹은 애정은 퇴색하여 현재에 되살아날 수 없다. 그것은 슬픔과 불편함의 원인이 된다. 과거의 삶과 현재의 생활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강²³⁾이 존재한다. 〈二十五年後〉의 경우를 보자. 그는 25년 만에 대학시기 연모의 대상이었던 馮亦萍을 만난다. 그들은 학교생활, 문혁시기의 고통, 현재의 삶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과거의 아쉬움을 채우고자 한다. 그러나 25년의 세월은 서로에게 가장 중요했던 사람의 성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만든다.

“벌써 가려구? 뭐가 그리 급해서?李형! 다음에 또 와. 꼭 우리 집을 방문 해줘.”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는가 했다. 그렇지만 아니었다. 아무리 그가 이 두 글자를 잘못 들을 리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성이李가 아니고張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을 탓할 수는 없었다. 여러분들이라고 25년전 모든 학우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겠는가?²⁴⁾

과거의 아름다웠던 감정은 이 순간 까마득한 색채로 퇴색하고, 그 무의미의 강은 넘을 수 없는 심연이 되어 버린다. 이 강을 사이에 둔 두 사람은 대화를 계속하지 못하고 과거와 현재, 나와 너, 사회와 가정을 넘나들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대화를 완성하지 못한다. 예컨대 〈公園裏〉의 공원에서 만난 두 중년 남녀는 자신의 현재 삶을 상대에게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 가정적인 남편과 총명한 딸을 둔 여인에게 남자는 행복한 가정을 가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인은 과연 농촌 출신의 남성과 꾸린 이 가정이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불행한 것인지 설명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남성은 지금의 애인을 사랑하느냐는 여인

23) 〈河那邊〉의 경우처럼 넘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일과성 에피소드일뿐 진정한 회귀는 불가능하다.

24) “怎麼走得這樣急? 老李, 下回再來, 可得到我們家去作客呀。”他說他也許聽錯了, 不, 他又說這兩個字他不會聽錯的, 因為他並不姓李, 他姓張。……可這能怪人家嗎? 你難道記得你二十五年前同班同學每一個人的姓名嗎? 〈二十五年後〉, 《高行健短篇小說集》(臺北: 聯合文學, 2001), 106쪽.

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 그는 자기의 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가련하다’는 감정을 설명할 길이 없다. 서로 공감할 언어, 서로 공감할 경험, 서로 공감할 감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두 남녀간의 대화는 수시로 끊어져 의미를 형성하지 못한다. 두 사람의 대화를 연결하는 고리는 ‘우리 다른 얘기 하자’이다. 그것은 전체 소설을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그 무리한 반복과 안쓰러운 노력의 반복을 보라.

- (남) 우리 다른 얘기 하자.(我們談別的吧)-- 〈公園裏〉, 257쪽.
(남) 우리 이런 얘기는 그만하자.(我們不談這些)-- 〈公園裏〉, 261쪽.
(여) 너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듣고 싶지 않아.(你不要說這種話, 我不願意聽)-- 〈公園裏〉, 262쪽.
(여)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我不願這麼談下去)-- 〈公園裏〉, 263쪽.
(남) 그럼 좋아. 우리 딴 얘기 하자.(那麼好吧, 我們談點別的.)-- 〈公園裏〉, 263쪽.
(여) 너 그렇게 말할 것까지는 없잖아.(你用不着來這一套)-- 〈公園裏〉, 265쪽.
(남) 아무래도 우리 다른 거 얘기 합시다.(我們還是談點別的吧)-- 〈公園裏〉, 265쪽.
(여) 우리 다른 얘기 하면 안될까?(我們就不能談別的嗎?)-- 〈公園裏〉, 267쪽.

그러니까 짧은 대화체 문장으로 이루어진 전체 15쪽의 소설에서 대부분의 페이지에 이상과 같은 대화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애인을 기다리고 있는 젊은 여성에 대한 제3자적 관찰을 대화로 끌고 들어오고 있으므로 이 재회한 두 친구(애인)들은 거의 대화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 된다.

재현될 수 없는 지나간 과거, 그 상실의 아픔은 사실 高行健이 감추고자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토록 정치적 발언을 피하고자 하면서도 ‘시대의 잘못’²⁵⁾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점

25) 你我都沒有責任, 是那個年代的錯誤. 而這都已經過去了的, 得學會遺忘. 〈公園

에 있어서 高行健 소설의 과거형 우정, 혹은 애정은 그것이 현실 속에 부활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특유의 냉정한 문학세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또 서정에도 여러 층차가 있는데 더욱 높은 경계로는 차가운 시선으로 조용히 바라보기(冷眼靜觀) 만한 게 없다. 시적 세계는 이렇게 거리를 둔 응시에 숨어 있다.²⁶⁾

재미있는 것은 高行健 작품의 인물들이 맺는 우정관계, 애정관계, 혹은 친교관계에 항상 이러한 거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작품속의 사건들은 인물의 회노애락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비켜지나가기를 반복한다. 그것은 高行健이 연극활동을 통해 익숙해진 브레히트적 ‘거리두기(distancing)’에 대한 소설적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이 高行健의 냉정한 시선 아래에서도 우정은 해체되지 않고 비교적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심대하다.

6. 결론

이 글은 高行健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언어소통, 우정, 그리고 그 형식적 반영의 양상과 특징에 대한 고찰이다. 高行健의 문학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우정의 애매성은 대단히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그것은 소설창작이 추구하는 해석의 거부, 혹은 애매성의 내용을 구성하는 유력한 요소이다. 생각해 보라. 高行健 문학의 시적 애매성은 의미화를 거부하는 데서 생긴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군신관계에서 부자관계에 이르기까지 일반적 인간관계는 정치적 의미화의 그물을 벗어나기 어렵다. 부부관계 또한 그러하다. 물론 사회적 계약(부부관계)의 의

裏), 《高行健短篇小說集》(臺北: 聯合文學, 2001), 269쪽.

26) 再說, 抒情也有許許多多的層次, 更高的境界不如冷眼靜觀. 詩意便隱藏在這有距離的觀注中. 〈文學的理由〉, 《高行健短篇小說集》(臺北: 聯合文學, 2001), 13쪽.

부에서 행해지는 사랑의 행위는 예외가 되겠지만 적어도 중국에서 그것은 일종의 준사회계약이라 할 수 있다. 〈你一定要活着〉의 淑娟처럼 애정관계는 바로 未婚妻로 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식적 사회관계에서 우리의 언어 역시 일정한 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高行健은 그 때마다 그 대화를 가로막는 장치들은 고안한다. 〈你一定要活着〉의 그(他)가 淑娟에게 전화도 할 수 없고, 전보도 칠 수 없는 상황만 해도 그렇다. 그것은 문혁시기의 정치 분위기를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설정이라 하겠지만 高行健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교묘하게 설정된 소설적 장치라 보아야 옳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친구간의 우정에 이르면? 그것은 어떠한 가치관의 구현이라기보다는 외로움, 고독을 물리치려는 어떤 본능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봉건적 가치관에서 그것을 하나의 윤리 항목으로 규정하면서도 쉽게 이데올로기화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듯 우정의 애매성과 高行健식 소설형식의 해체 간에 구조적으로 상통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 이것이 이 고찰의 출발점인 동시에 도착점이 되는 셈이다. 2장에서는 ‘어이(喂)’와 ‘아아(啊)’의 무의미한 고함으로 소통하는 친구의 얘기를 분석하였다. 어떠한 의미도 담길 수 없는 고함소리, “어이!”와 “아아!”가 반복적으로 교환되는데 이 고함소리는 규범화된 관계, 규정된 사상, 틀에 갇힌 인간관계, 도덕 같은 것을 향한 도전이라고 보았다. 3장에서는 동굴과 광장을 한곳에 구현하고자 하는 高行健의 공간구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高行健은 일찍이 《靈山》에서 ‘모두들 손에 손을 잡고 들어가는 동굴’²⁷⁾의 이미지를 소개한 바 있다. 결국 高行健이 지향하는 공간은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상이한 두 공간의 원활한 소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장에서는 우정의 감춤과 내보임, 그리고 그것의 문학적 적용에 관한 고찰이다. 5장에서는 이어지지 못하는 대화에 대한 분석이다.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남녀)는 대화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우리 다른 얘기 하자.(我們談別的吧)’, ‘우리 이런 얘기는 그만하

27) 大家手拉着手鑽進了一個山洞，領頭的怪叫一聲，碰了腦袋，惹得大家又哈哈直樂，洞裏漆黑，怕碰頭總得彎腰，又碰上前人的屁股，這山洞裏接吻最好。《靈山》，339쪽.

자.(我們不談這些)’는 방식의 단절어 만이 작품을 지배한다. 그것은 생각 하기에 따라 친구간의 소통구조, 남녀간의 단절구조로 이해할 수도 있 겠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일종의 실험적 탐색의 기록일 뿐이다. 보다 광범위한 상관관계, 즉 각종 인간관계에 따라 소설의 구조가 어떻게 호 응하는지--혹은 소설의 구조에 따라 어떤 인간관계를 다루어지는지-- 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參考文獻]

- 高行健, 《高行健短篇小說集》(臺北: 聯合文學, 2001)
高行健, 《一個人的聖經》(臺北: 聯經出版社, 1999)
가오싱젠/박하정 옮김, 《나 혼자만의 성경》 1, 2(서울: 현대문학북스, 2002)
高行健, 《靈山》(臺北: 聯經出版社, 1990)
가오싱젠/이상해 옮김, 《영혼의 산》 1, 2(서울: 현대문학북스, 2001)
가오싱젠/오수경 옮김, 《머스정류장》(서울: 민음사, 2002)
高行健, 《沒有主義》(臺北: 聯經出版社, 2001)
高行健, 《八月雪》(臺北: 聯經出版社, 2000)
高行健, 《週末四重奏》(臺北: 聯經出版社, 2001)
高行健, 《高行健短篇小說集》(臺北: 聯合文學, 2001)
高行健, 《彼岸》(臺北: 聯合文學, 2001)
高行健, 《冥城》(臺北: 聯合文學, 2001)
高行健, 《對話與反詰》(臺北: 聯合文學, 2001)
高行健, 《夜遊身》(臺北: 聯合文學, 2001)
高行健, 《逃亡》(臺北: 聯合文學, 2001)
高行健, 《生死界》(臺北: 聯合文學, 2001)
高行健, 《山海經傳》(臺北: 聯合文學, 2001)

[中文摘要]

此文考察高行健小說裏的語言，溝通，朋友，與其文學形式上的表現。友情與其他人倫關係，有區別性的差別，那就是友情具有一種曖昧性或者模糊性。因為這模糊性友情不能產生一定的社會政治的意義來。友情只是友情，不能用其他的關係來解釋。那麼愛情呢？毋論夫婦關係，甚至在純粹愛情的表現中，也可以發現其社會契約的關係。比如高行健〈你一定要活着〉裏的他和淑娟，雖然還沒結婚，但是他的心情上淑娟已經是未婚妻。這種關係如果沒有另一種障礙，順通的進行發展，這對於高行健的小說追求會產生莫大的危險。因此高行健在小說情結上設置一種特殊條件，將這一對男女不能繼續發展其愛情關係。語言的曖昧性也非常重要的一個條件。作家用一種不能擔負意味的叫喊來構成人與人之間的對話，以此追求完成解脫意識形態的小說文章。

關鍵詞：高行健，短篇小說，語言，溝通，友情，小說形式，曖昧性

북경의 기억, 그리고 서사된 북경

趙誠煥*

〈목 차〉

1. 들어가며
2. 탈피의 길, 비약의 길
3. 사랑의 도피처, 보금자리
4. 배움터
5. 차이나 드림, 기회의 땅
6. 囹圄, 생의 마감, 죽음의 땅
7. 아나운트의 집합점, 보금자리
8. 연안을 향한 탈출구
9. 관극, 댄싱 공연 무대
10. 구미유학을 향한 경유지

1. 들어가며

1990년대에 들어서 우리 문단에 욕망 담론이 성행하더니, 21세기에 접어들면서는 기억(Memory) 담론이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다. 기억, 서사와 그리고 이미지의 만남! 잊혀진 기억과 소멸된 과거 역사의 편린들이 기억 추구자(Memory Seekers)들의 조각 맞추기 작업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보이고 있다. 특히 영화·문학·음악·무용 등등 방면에서...

중국이나 우리에게나 2005년도는 아주 특별한 해였다. 중국 항전 승

* 경북대학교 문학박사(62chosh@hanmail.net)

리 및 한국 광복 60주년이 되는 2005년! 영화관과 안방극장에서 ‘紅色電影’, 관광업계에서는 ‘紅色旅行’, 출판계에서도 ‘紅色讀物’, 음악계에서도 각종 “紅色音樂” 콘서트!

필자는 기억 담론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던 2005년 3월 5일 북경 땅을 밟았다. 그곳에서 세 학기동안 거주하면서 중국 땅을 밟았던 한국 근대 지식인들의 흔적을 찾아 그들의 중국 담론을 담은 글(주로 기행문, 수필, 시, 소설 등)들을 모아 편집하였다.²⁾ 일제 강점기 및 해방 공간 속에서 이들의 행간 속에 담긴 중국 담론들을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이 글은 이러한 담론들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인 셈이다. 이러한 글들 속에서 우리 한국인/Other에게 북경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북경 드림으로? 탈출구로? 비약의 땅으로? 배움의 터전으로? 이것이 이 글을 쓰는 근본 목적이다.

본고는 일제 강점기 조국을 떠나 북경에 이주한 근대 한국인의 북경 지향도를 그리는데 초점을 맞추어 서술할 것이다.

2. 탈피의 길, 비약의 길

申采浩(1880~1936)는 <대한의 희망>에서 나라 잃은 설움을 다음과 같이 포효하고 있다.

오호라, 오늘 우리 대한에 무엇이 있는가? 국가는 있건마는 국권이 없는 나라이며, 인민은 있건마는 자유가 없는 백성이며, 화폐는 있건마는 주조권(鑄造權)이 없으며, 법률은 있건마는 사법권이 없으며, 삼림이 있건마는 우리 것이 아니며, 광산이 있건마는 우리 것이 아니며, 우전(郵電)이 있건마는 우리 것이 아니며, 철도가 있건마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니, 그렇다면 교육에 열심하여 미래인물을 제조할 대교육가가 있는가? 이것도 없으며, 그렇다면 식견이 우월하여 전국 민지(民智)를 계발할 대신문가가 있는가? 이것도 없으며, 대철학자·대문학자도 없으며, 대이상가·대모험가도 없는지라. 비고 빈 나라에 갈광질광 허둥대는 사람들이 되어 그 참담한 광경은

2) 조성환 편주, 《북경과의 대화: 한국 근대 지식인의 북경 체험》(미간).

배고파 우는 아이에 양식마저 깨끗이 치운 가난한 집의 궁상이며, 그 처참한 정상은 남편을 전장에 떠나보내고 외로이 잠자리에 든 여편네의 긴 밤이요, 그 생활은 도탄의 물불이 바야흐로 깊은 날이며, 그 산업은 지리과멸됨이 이미 극심한 후이니, 오늘 우리 한국민의 소유가 무엇이랴 말할꼬!³⁾

이처럼 나라를 잃은 한국 근대 지식인에게, 김달수가 《현해탄》에서 말했듯이 “세 갈래 길이 주어져 있다. 고개를 쳐들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눈을 감고 절망에 빠져버릴 것인가, 굶신거리며 타협하고 항복하고 배반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그것이다.”

경술국치를 전후하여 중국에 건너온 사람들은 대부분 암울한 국내 현실을 참다못해 중국 대륙을 독립운동의 터전으로 삼고 망명한 애국지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북만·남만·북경·천진·상해 등지로 흩어져 각자의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 중 曹成煥(1875~1948)·신채호·이회영·김창숙·김성숙·장지락(김산: 《아리랑》의 주인공) 등에게 북경은 항일 독립운동을 위한 망명지였다.

신채호에겐 무수한 호칭이 뒤따른다. 언론가, 독립운동가, 사학자, 아나키스트, 작가…….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관방의 동북공정 프로젝트 실체가 노출되면서 그가 연구와 고대사 유적지 답사를 거듭하면서 수립한 고대사 체계, 즉 기존의 삼한과 신라 라인에서 탈피하여 단군-부여-고구려-발해 라인 중심의 고대사 체계는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신채호는 1910년 중국에 망명한 후 블라디보스톡에서 上海, 그리고 滿洲, 北京, 上海 다시 滿洲, 北京 등지로 오가며 독립운동에 종사하다가 1936년 2월 18일 旅順감옥에서 옥사한 근대의 선각자였다. 신채호는 북경에서 학술 방면으로 유적지 답사⁴⁾ 및 조선고대사 연구, 언론 활동, 그리고 정치 활동에 종사하였는데, 정치 활동으로는 北京에서 趙素昫(1887~1958)·朴殷植(1859~1925) 등 39인의 독립운동가 명의로 발

3) 《대한협회월보》 제1호(1908년 4월).

4)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이 땅에 와서 집안현을 한 번 봄이 김부식의 고구려사를 만 번 읽는 것보다 낫다.”고 말할 정도로 현장 답사를 중시하였다.

표된 〈대한독립선언서〉(일명 무오독립선언)에 서명하였고 또 大韓獨立青年團을 조직하여 단장을 맡기도 하였다. 1920년 9월에는 이회영·申肅(1885~1967)·朴容萬(1877~1928) 등과 함께 군사통일촉진회를 결성하였다. 이 단체를 포함한 국내외 10여 단체가 이듬해 4월 24일 北京 西直門外 三牌子花園⁵⁾에 모여 군사통일주비회를 열고 임정 불신임안과 임시의정원 해산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아울러 국민대표회의 주비를 결정하여 국민대표회의 주비위원을 선출하였다.

1923년 1월에 의열단원 金元鳳(1898~1958)의 요청으로 〈조선혁명선언〉을 집필, 발표하였고, 1924년에 이회영의 조카 李圭駿(1899~1927)이 창단한 多勿團의 선언문을 작성했으며, 1926년에는 ‘在中國朝鮮無政府主義者聯盟’에 정식 가입하여 아나키스트의 국제적 연대를 위해, 그리고 자금을 확보하려 대만에 들렀다가 일경에 잡히고 만다.

3. 사랑의 도피처, 보금자리

1910년대 일본 지식계에선 스웨덴의 여성사상가 엘렌 케이(1849~1926)의 연애도덕론과 자유이혼론이 풍미했었다. 요점은 이렇다. “어떠한 결혼이든지 거기 연애가 있으면 그것은 도덕이다. 가령 어떠한 법률상의 수속을 거친 결혼이라도 거기 연애가 없으면 그것은 부도덕이다.”, “어떤 법률이나 관습이 나를 막론하고 한쪽의 의지를 억제하면서까지 그 결혼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참말로 무리 불법이다.” 즉 연애(애정)가 사라졌을 때는 이혼을 하는 것이 더 도덕적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조기 결혼하고 일본으로 뺑소니 친 유학생들은 대부분 신여성들 동반, 귀국하였고(최승구 사망 후/김우영-나혜석, 백혜순/이광수-허정숙), 그래서 일본 유학생들이 귀국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조혼한 아내와의 이혼 수속이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李光洙(1892~1950)에게 복경은 사랑의 도피처였다. 1918년 가을,

5) 지금의 西直門外大街 137號 北京動物園 정문 서쪽.

이광수는 일본 유학중 19세 때 결혼한 아내 白惠順과 이혼한 후, 東京女子醫學專門學校 졸업생(1917년 졸업) 許英肅과 북경으로 사랑의 도피 여행을 떠나 3개월 가량 묵었던 적이 있다. 이광수가 1917년 4월 결핵이 발병했을 즈음에 의학도였던 허영숙이 간호를 맡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전되었고, 허영숙이 이광수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허영숙의 모친이 기혼남인데다가 문벌도 없고 재산도 없는 고아라는 이유로 한사코 반대하는 바람에 두 사람은 10월에 북경으로 사랑의 도피행각을 벌여야만 했다.

신채호에게 북경은 사랑의 보금자리이기도 하였다. 1920년 4월 상해에서 임시정부 반대 활동에 앞장섰던 신채호는 《新大韓》의 발행이 중단되자, 아예 북경으로 이주해버렸다. 이어 李會榮(1867~1932)의 부인 李恩淑의 중매로 朴慈惠(1895~1944)와 결혼에 골인! 이후 3년간 “활기에 넘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 박자혜는 서울에서 간호원으로 활동하던 중 3·1운동에 참가하였다가, ‘看友會 사건’으로 북경에 망명하여 燕京大學⁶⁾에 유학 중이던 신여성이었다. 이듬해 신채호

6) 당시 한국 유학생들도 축구에 남다른 실력이나 관심을 가진 것 같다. 박자혜는 당시 연경대학 여대생 축구팀 주장을 맡았고, 청강 김영기가 재학하던 보인대학에서는 安原生(안중근 동생 안정근의 아들)이 당시 축구 코치를 맡고 있었으며, 북경시 대표로 출전하였다고 전한다. 그리고 김사량의 북경 탈출을 도왔던 연안 조선독립동맹의 북중국 지하 연락책 이영선(월북)도 연희전문학교 축구선수 출신이었다. 한편 ‘한국의 간디’라고 불렸던 여운형은 복단대학 교수시절 영문학 외에도 체육을 가르쳤고, 교민들의 친선 시합이 있을 때마다 심판을 보곤 했으며, 복단대학 남양원정 축구단을 발족시켜 필리핀 원정 경기를 벌이기도 하였다. 심지어 독립운동가 孫貞道(1882~1931) 목사의 둘째 사위 申國權(당시 동북대학 교수)은 1932년 제10회 로스안젤레스 올림픽(7월 30일~8월 14일)에 중국대표단의 대표로 파견되었다. 중국 대표단은 정부의 아무런 지원이 처음 출전하였다. 대표단은 6명, 즉 劉長春·沈嗣良·宋君復·劉雪松·申國權·托平! 그러나 선수라곤 劉長春 고작 한 명뿐! 개막식 당일 날 중국대표팀은 임시로 팀을 꾸려 유장춘이 국기를 들고 선두에 서고, 이어서 단장 沈嗣良, 대표 宋君復·劉雪松·申國權·托平이 입장하였다. 대표단 중에 劉雪松·申國權·托平 등 세 명은 로스안젤레스 현장에서 급히 임시로 꾸린 대표이다. “중국 4억 인의 유일한 대표” 유장춘은 원래 3개의 단거리 종목에 참가하려 하였으나 여독이 풀리지 않는 바람에 400미터는 기권하고, 100미터와 200미터 예선에서 각기 5위(11초)와 6위를 하는 바람에 예선에

는 북경에서 아들 申秀凡을 얻었으나, 1922년 말에는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를 귀국시키고 자신은 계속 독립운동에 헌신하다가 1936년 旅順의 차디찬 감방에서 옥사했다.

《매일신보》 북경지사장으로 나가 있던 백철은 1942년 5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재혼 문제로 국내에 들어온 일이 있다. 국내에서 처녀 새장가를 든 백철은 북행 도중 평양에 거주하던 김사랑의 집에 잠시 들러 신혼여행 기분을 내기도 하면서 북경에다 보금자리를 틀었다.⁷⁾

4. 배움터

김성숙·도유호·이운재·장지락·이상은·정래동·김영기에게 북경은 배움터였다. 이운재는 1921년 북경대학 사학과로, 장지락은 1921년 협화외과대학으로, 김성숙은 1923년 민국대학으로, 李相殷(1905~1976)은 1925년에 북경대학으로, 都宥浩(1905년생)는 1929년 9월 연경대학으로, 김영기는 1932년 보인대학으로 배움터를 정하여 실력을 연마하였다. ‘大正테모크라시 號’에 승선하고자 아시아 근대화의 중심지였던 동경으로 가려던, 특히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일본으로 가려던 유학생들은 일본의 조선인 박해를 피해 상당수가 중국으로 발걸음을 되돌림으로써 그 유학생 숫자가 더 증가하였다.

내가 북경대학을 다니던 그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3년 前事이며 우리 동포가 그 당시는 일본 大震災로 인하여 지진을 피하여 매일 북경 유학생이 수십 명씩 오든 시대의 전후이다.⁸⁾

서 탈락했다. 여기에서 신국권은 유장춘과 상해에서 함께 출발한 것 같지는 않고, 마침 무슨 일로 로스안젤레스에 왔다가 중국 대표단에 합류한 것 같다.

7) 김윤식, 〈한국문학 속의 북경반점〉, 《우리 시대의 중국문학 기행》(현대문학, 1994).

8) 김덕봉, 〈북경대학 정문과 ‘나’〉, 《四海公論》 2:10, 1936.10).

1924년경 북경의 경우 그 유학생의 숫자는 300여 명에 달했다.⁹⁾ 이에 부수적으로 중국 유학을 알선하는 중국 각지의 교민단체나 유학생회¹⁰⁾, 중국 유학이나 정착을 위한 예비 학교¹¹⁾도 생겨나게 되고, 국내 잡지나 신문에 중국유학 안내문¹²⁾도 간간히 발표되기에 이른다.

구미로 가려던 유학생들도 미국의 이민금지법¹³⁾ 제정이나, 소비에트 러시아 내의 내전¹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負芘의 발길을 중국으로 돌

9) 孫艷紅, <1920년대 전반기 북경지역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 (국민대 사학과 석사논문, 2003.6), 54쪽.

10) 북경의 경우, 1921년 말 朴健秉(1892~?)·申八均(1882~1924)·金正默 등이 조직한 한인 교민단체 北京韓僑俱樂部(1924년에 韓僑自治會로 개편), 1923년 金星淑(1898~1969)이 일본의 탄압을 피해 젊은 승려 5명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하여 민국대학에 적을 두고 조직한 高麗留學生會 등을 들 수가 있다. 1930년 2월 16일 오후 1시에는 北平의 조선인 유학생회 주최로 華北大學 대강당에서 北平韓僑大會를 개최하고 국내 학생사건에 대한 진상 보고와 결의가 있었다(500여 명 참가). 徐曰甫가 북경항공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을 때에도 유학생회 주최로 북경대학 제2원에서, 북경천도교傳教室(法通寺 72號 소재) 주최로 축하회를 가진 바 있다.

11) 상해의 인성학교나 1925년 3월 10일 北京종리원(천도교)에서 국내학생들의 북경유학을 장려차 세운 萬化補習學校가 그것이다.

12) 상해 복단대학에 재학 중이던 姜斌의 <고려화동유학생연합회의 출생과 그 유래> (《개벽》 3:24(1922.6)), 상해 同濟대학생 劉振東의 <중국유학 고찰> (1931년 4월 26일, 28일, 29일, 5월 1일, 3일 5회 연재), 廣州 中山大學 法學院 研究室 具益均의 <중국유학의 안내> (《조선일보》 1933년 6월 16일, 6월 17일, 6월 20일, 6월 21일, 6월 22일 5회 연재), 정래동의 <해외유학 안내: 중국편> (《四海公論》 2:4(1936.4)) 따위가 그것이다.

13) 20세기 초에 이미 미국에는 7,000여 명의 한국계 이주민이 상인, 단순 노동자 등으로 건너가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에서의 한국 이주민 수는 다른 아시아 이주민들과 같이 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1924년 <이민금지법(Immigration Exclusion Act)> 이 발표되면서 그마저 중단되었다. 최윤영, 《한국문화를 읽는다: 강용홀의 '초당'과 이미륵의 '암록강은 흐른다'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30쪽. 예를 들어 정현섭(정화암)은 원래 미국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새로 개정된 이민법으로 힘든 줄 알고 방향을 바꿔 새로 생겼다는 치타의 원동대학에 들어가고자, 일단은 이정규·이을규와 伴하여 북경에 와서 유자명과 접촉하였다. 그 당시 러시아는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싸움 때문에 상황이 악렬했다. 그래서 그는 소련행도 포기하고 북경에 눌러앉는다. 《혁명가들의 항일희상: 화암 정현섭》 편 참조.

14) 아나키스트 이정규가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를 실험하고 있던 러시아로 향

리게 되었다.¹⁵⁾ 북경 지역에서 학적을 둔 한국 유학생은 다음과 같다.

북경대학

성명	생졸년	유학기간	전공	비고
康基鳳		1923년경	제1원	오산고보 교사
權五勳		1925~1929		강릉농고1기
金家鳳		1920년경		
金德峰		1923년경	제2원	
金鏞化	1902~?		정 치 과 수료	신경외국어전문학교 교수, 국회의원
金容煥		1920년대 전반		
金浩永(李泮)		1920년대 전반		
金勳	1909~사망		사학과 2 년 수료	4·5대 국회의원
羅弘錫 ¹⁶⁾				1909년 3월 와세다 대 학 정치과 졸업
朴來弘 ¹⁷⁾	1894~1928	1년 수학		천주교도
白南採	1888~1950	1910년경		대구 계성학교 교감 및 이사장
徐範錫 ¹⁸⁾	1902~1986	1921년 중퇴	정경학과	조선일보·시대일보· 동아일보 봉천 특파원 기자(1924~1931)
蘇完奎 ¹⁹⁾	1902~1950 년 6월 남	1923년경-1925 년 7월 수료	제3원 文 豫科	변호사

하던 중 중도에 포기했던 것은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위주의적 실상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오장환, 《한국 아나키즘운동사 연구》(국학자료원, 1998) 184쪽 참조.

- 15) 문정일 같은 경우는 북평도서관에 갔다가 일본의 간섭을 받지 않는 몽골의 대학에서 학비를 받지 않고 공부시켜준다는 소식을 듣고 내몽고 王爺廟(지금의 흑호트)까지 갔으나, 당시에 후분(지금의 올랑바트르) 가는 기차가 없어 낙타를 타고 가야하며 위험하다는 조선 현지인의 말을 듣고 몽골 유학행을 포기하였다. 문정일, 《격정세월: 문정일 일대기》 42쪽.

	북			
宋宇範	1915~2002		사학과	육군 소장
申珥休	1896~1976	2년 수료		국회의원
沈容海 (沈龍海 · 沈茹秋) ²⁰⁾	1904~1930	1926년 입학	제3원 정치학부	
梁明 ²¹⁾	1902~?	1920년경	문과	1931년 소련 망명, 숙청
延秉昊	1904~사망			제헌국회의원
元世勳 ²²⁾	1887~1959		노문과	제2대 국회의원
李大偉 ²³⁾	1896~?	1920년경		기독교 사회주의자
李相殷 ²⁴⁾	1905~1976		예과 1927~1931 철학과	고대 철학과 교수
李淑鍾 ²⁵⁾	1904~1985	1927~1928	미술	
李允宰 ²⁶⁾	1888~1943	1921~1924	사학과	
李丁奎 ²⁷⁾		1922년 편입	경제학부	성균관대 총장
張子一		1920년대 전반	영문과	1923년 3월 북경조선 유학생회 조직, 倣新學校 교사
張洪琰	1910~1990	3년 수료	경제과	제헌국회의원
鄭雄		1923년경	제3원	실업가
鄭寅普 ²⁸⁾	1893~납북	1910년경	사학	
趙奎甲	1904~1994		동양철학과 중퇴	제헌국회의원
曹泳珪	1913~1986	2년 수료	경제학과	국회의원
韓何雲 ²⁹⁾	1919~1976	1941~1943	농학원 축목학과	졸업논문 〈朝鮮畜産史〉
海眼禪師	1901~1974	1922~1924 3년 수료	불교학	
黃世淳	1919~1979	북경대학 재학 시절 金始顯의 독립의열단 사건에 연루되어		마산대학 전임강사

		11개월 2월 동안 옥고		
--	--	------------------	--	--

- 16) 羅弘錫, 〈燕京趣話〉, 《新民公論》 신년호(1922.1).
- 17) 朴來弘, 〈건설록 제1집 작성에 際하야〉, 《천도교회월보》 19(1928.1).
- 18) 徐範錫, 〈余의非常時觀〉(《在滿朝鮮人通信》 제1호, 1936년 4월), 〈趙悅 씨를 弔함〉(《在滿朝鮮人通信》 제1호, 1936년 4월), 〈오지 동포에게〉(《재만조선인통신》 제2호, 1936년 4월), 〈조선과 조선인 문제: 최린 씨와 문답〉(《재만조선인통신》 제22·23호, 1937년 3월), 〈만주국의 조선인 이민 통제 내용?: 尹相弼[만주국민정부 拓政司 第二科長] 씨와 문답〉(《재만조선인통신》 제27호, 1937년 5월), 〈지나사변의 역사성과 아세아적 양심을 논함〉(《재만조선인통신》 제36호, 1937년 9월), 〈연해주 조선 동포의 慘情〉(《재만조선인통신》 제39호, 1937년 11월), 〈신흥 이태리의 방공 실력〉(《재만조선인통신》 제41호, 1937년 12월), 〈金東漢同志의 死를 悲しむ 各界名士의 弔辭: 同志ハ死シテ又教ヘタリ〉(《재만조선인통신》 제43호, 1938년 1월), 〈고 白山 金東漢씨 年행록·2〉(《재만조선인통신》 제44·45호, 1938년 2월), 〈제3단계에 入한 지나사변: 背面 세력의 격퇴가 사변의 最終期〉(《在滿朝鮮人通信》 제69호, 1939년 8월), 〈協和운동과 우리의 자각〉(《在滿朝鮮人通信》 제70호, 1939년 9월)
- 19) 蘇完奎, 〈證古史而知今之聖人已出〉(《천도교회월보》 제15호, 1922년 1월), 〈여성과 오늘의 법률〉(《중양》 제4권 제2호, 1936년 2월), 〈법률의 비극〉(《중양》 제4권 제7호, 1936년 7월), 〈정조 유린이란 무엇인가: 문화강좌〉(《朝光》 제4권 제9호, 1938년 9월), 〈여백 문답〉(《조광》 제6권 제4호, 1940년 4월), 〈법률상식: 인사조정령에 대하야〉(《家庭之友》 제40호, 1941년 2월)
- 20) 그의 회고록과 평전이 출간되었다. 심여추, 《연변조사실록》(연변대학출판사, 1987), 류연산·리옥화, 《심여추평전》(연변인민출판사, 2002)
- 21) 梁明, 〈신문학 건설과 한글 정리〉(《개벽》 제4권 제18호, 1923년 8월), 〈만리장성 어구에서〉(《개벽》 제4권 제40호, 1923년 10월), 〈우리의 사상혁명과 과학적 태도〉(《개벽》 제43호), 〈국민당 좌우파와 중국혁명〉(《朝鮮之光》 제69호, 1927년 7월)
- 22) 元世勳, 〈중국 陳興兒의 奉天 탈주의 報를 듣고: 그와 나와의 사이에 얼기 인쪽의 인연〉(《비관》 제1권 제7호, 1931년 11월), 〈새해를 마지니 추억되는 고인과 금인〉(《비관》 제2권 제1호, 1932년 1월), 〈국제 정세가 불허: 경제봉쇄는 실현될까〉(《東光》 제4권 제3호, 1932년 3월), 〈국가 관념이 益鞏固: 수난의 중국은 어디로〉(《동광》 제4권 제4호, 1932년 4월), 〈變態靜觀〉(《비관》 제2권 제4호, 1932년 4월), 〈伊에 전쟁의 壁上觀〉(《비관》 제3권 제6호, 1933년 12월), 〈名流談客의 무케도 좌담회〉(《조광》 제2권 제2호, 1936년 2월), 〈打診 중국의 전도〉(《비관》 제4권 제3

호, 1936년 4월)

- 23)李大偉, <노동 문제에 就하야> (《新民公論》 제2권 제7호, 1921년 7월), <여자의 경제적 지위> (《청년》 제2권 제1호, 1922년 1월), <만국기독교학생동맹 25주년 약사> (《청년》 제2권 제4호, 1922년 4월), <제11차 만국기독교학생동맹 대회 경과 사항> (《청년》 제2권 제5호, 1922년 5월), <제9회 조선기독교 학생 夏令會記> (《청년》 제2권 제8호, 1922년 8월), <나의 理想하는 바 민족적 교회> (《청년》 제3권 제6호, 1923년 6월), <사회혁명의 예수> (《청년》 제8권 제5호, 1928년 4월), <금일 조선 청년의 혼란 문제> (《청년》 제8권 제8호, 1928년 8월), <금일 조선의 기독교 문제> (《眞生》 제4권 제6호, 1928년 10월), <금일 조선의 기독교회와 協作운동> (《眞生》 제4권 제8호, 1928년 12월), <勉勵會의 사업과 조선교회> (《진생》 제4권 제9호, 1929년 1월), <오호! 金貞植의 별세> (《朝光》 제3권 제3호, 1937년 3월)
- 24)李相殷, <九曲明珠: 지나 동화> (《正音》 제22호, 1938년 1월), <스타-린과 진시황> (《大潮》 제4권 제1호, 1949년 4월), <이상은선생 전집> (예문서원, 1998)
- 25)李淑鍾, <내가 가진 골동품, 내가 앓기는 가보 공개: 탈바가지 기타> (《조광》 제2권 제3호, 1936년 3월), <여성 時評: 부인과 의상-최근 유행의 화려한 의상을 논함> (《여성》 제3권 제3호, 1938년 3월), <宋今璇> (《여성》 제3권 제10호, 1938년 10월), <생활개선의 이론과 실제: 色服과 주력 문제> (《조광》 제5권 제1호, 1939년 제1호), <우리들 나라의 안해는> (《여성》 제4권 제7호, 1939년 7월), <부害地 부인에게> (《家庭之友》 제26호, 1939년 11월), <내선일체와 부인> (《여성》 제5권 제4호, 1940년 4월), <고 러-취 군정장관 추억: 고 러-취 장관을 추도함> (《새살림》 제1권 제7호), <요리: 특집 명사들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 (《婦人京鄉》 제1권 제4호, 1950년 4월)
- 26)李允宰, <中國民意測量> (《시대일보》 1924년 4월 8~9일, 11~12일 4회 연재; 《서울대동양사학과논집》 제11집, 1987년 재수록), <신해혁명과 신미양요(1~2)> (《동광》 제17~18호, 1931년 1~2월), <변격 활용의 예> (《한글》 제1권 제3호, 1932년 1월), <훈민정음의 創定> (《한글》 제1권 제5호, 1932년 1월), <대답할 나위도 없다: 한글 新異論 검토> (《동광》 제4권 제4호, 1932년 4월), <羅津灣의 황금비> (《東光》 제4권 제10호, 1932년 11월), <필경 학생까지 선동하느냐: 正音誌의 경망을 戒함> (《한글》 제3권 제3호, 1935년 3월), <한글날에 대하여: 훈민정음 반포 기념일> (《한글》 제3권 제9호, 1935년 11월), <한글 창제의 고심> (《한글》 제3권 제10호, 1935년 12월), <조선어사전 편찬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글》 제4권 제2호, 1936년 2월), <조선의 이름난 임금들> (《중앙》 제4권 제5호, 1936년 5월), <성경 철자를 개정하라> (《한글》 제4권 제8호, 1936년 9월), <‘사정 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의 내용: 표준어 발포식 석상에서 말한 것> (《한글》

연경대학

성명	생졸년	유학기간	전공	비고
金允澤				졸업
都有浩 ³⁰⁾	1905~?	1929년 9월~1930년 9월	문학원	1년 수료
朴慈惠	1895~1944	1920년경	여대생 축구 팀 주장	신채호 부인
趙玉鉉	1903~남북	수료		제헌국회의원
崔相鉉 ³¹⁾	1891~1950년 남북	잠시 수학		
韓元錫				한홍교 아들

북평 평민대학

성명	생졸년	유학기간	전공	비고
金天友	?~1928	1920년대 전반		유학생회 위원으로 참여, 그 동향을 일제에 수시로 보고, 의열단원이 1928년 4월 11일 친진 白河부

제4권 제11호, 1936년 12월), <<알기 쉬운>신철자법(1~4)> (《時兆》 제27권 제7~10호, 1937년 7~10월)

27) 李丁奎, 《又觀文存》(삼화인쇄출판부, 1974)

28) 鄭寅普, <졸업하시는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청년》 제8권 제2호, 1928년 2월), <支那文學論叢(1~2)> (《청년》 제8권 제8~9호, 1928년 8~9월), <呂夢陽 형제> (《중앙》 제1권 제1호, 1933년 1월), <훈민정음운해 해제> (《한글》 제5권 제4호, 1937년 1월)

29) 韓何雲, 《나의 슬픈 半生記》(人間社, 1959)

30) 都有浩, <고민의 독일에서> (《東光》 제21호, 1931년 5월), <東光 원탁회의: 긴급 항의문> (《동광》 제4권 제5호, 1932년 5월), <요제프 헵켈 씨의 '토템'주의론> (《震壇學報》 제12호, 1940년 9월)

31) 崔相鉉, <청년과 冬季> (《청년》 제2권 제2호, 1922년 2월), <종교는 果是迷信일까?> (《신생활》 제8호, 1922년 8월), <신앙의 표준: 실용신학> (《신학세계》 제7권 제6호, 1922년 12월), <요한 칼빈의 생애와 사업·1: 歷史及傳記> (《신학세계》 제15권 제4호, 1930년 7월)

				근으로 유인, 처단
金學武 ³²⁾	1911~1943			태항산에서 전사
尹宗默		1920년대 전반		
李達 ³³⁾	1915~?			제만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가입 (1929.7)
李相道(相 度·相應)		1921년 입 학		
張準錫 ³⁴⁾	1903~1962		정경과	獨立新聞 北京支局長

화북대학

성명	생졸년	유학기간	전공	비고
朴文夏	1918~1975	1941년 졸업		수필가·의사
朴次貞(녀)	1909~1944	1930년대 중 반		金元鳳 부인. 昆崙山 전투 에서 사망
楊民山(楊振崑)				

민국대학

성명	생졸년	유학기간	전공	비고
韓淳燿				광주교보, 아나키스트
金星淑	1898~1969	1923년 입 학	정치경제 학	고려유학생회 회장 역임. 1927 년 광동 중산대학 정치과 졸업
吳南基 ³⁵⁾				아나키스트
丁來東 ³⁶⁾	1903~1983	1930년 졸	영문과	보성전문학교 중국어 강사

32) 김학무·김태준, 《조선혁명운동사》(평양: 해방신문사, 1947)

33) 李達, 〈文學漫筆〉(《新人文學》 제3권 제2호, 1936년 3월), 〈중국 작가 바
金的 창작태도의 고찰〉(《新人文學》 제3권 제2호, 1936년 3월)

34) 張準錫, 〈문예운동의 이론과 실재는 如何히 귀결되었는가: 문예평론〉(《朝
鮮之光》 제76호, 1928년 2월)

	업	(1941~1945)
--	---	-------------

협화의학원

성명	생졸년	유학기간	전공	비고
金山(張志樂)	1905~1938	1921년 입학		
李重徹	1904~1945	1930년	腦系科教室 연구생	규슈대학 의학박사 (1935)
崔棟 ³⁷⁾		1923년(1년)	기생중학	

통주 협화대학

성명	생졸년	유학기간	전공	비고
卞榮泰 ³⁸⁾	1892~1969?	1916년(1년)		
宋銓度				반민특위 경북위원장

조양대학

- 35) 吳南基, 〈중국의 할거와 통일: 그 사회적 원인을 추구함〉(北平大學 法學院 교수 陶希聖이 쓴 〈社會經濟之過去與現在〉의 제4장 抄譯, 《第一線》 제2권 제7~8호, 1932년 8~9월), 〈현금의 중국사회 형태〉(《第一線》 제2권 제9호, 1932년 10월)
- 36) 丁來東, 〈과거를 청산하자〉(《조선일보》 1932년 1.17~23일 연재), 〈이광수 씨의 꿈〉(《第一線》 제2권 제9호, 1932년 10월), 〈中國新詩選譯〉(《중앙》 제1권 제2호, 1933년 2월), 〈중국문학 작품에 나타난 농촌의 변천〉(《중앙》 제2권 제3호, 1934년 3월), 〈최근 중국의 신문학 전망〉(《四海公論》 제2권 제5호, 1936년 5월), 〈北京의 인상〉(《四海公論》 제2권 제9호, 1936년 9월), 〈중국문학상의 魯迅과 巴金〉(《건설》 예술제1권 제2호, 1945년 12월), 〈전후의 중국문단〉(《大潮》 제3권 제4호, 1948년 12월), 《朝鮮武士英雄傳》(東京: 明星出版社, 1940), 수필집 《北京時代》(平文社, 1949), 《정래동전집(1~3)》(금강출판사, 1971)
- 37) 崔棟, 〈朝鮮問題を通じて見たる滿蒙問題(1~3)〉(《재만조선인통신》 제2~4호, 1936년 4~6월), 〈조선인의 血型〉(《朝光》 제2권 제10호, 1936년 10월), 〈파리의 번식과 驅除策〉(《건강생활》 제31권 제6호, 1941년 7월)
- 38) 卞榮泰, 《기독교의 세계적 사명: 에루살렘대회의 報告及決意》(京城: 조선야소교 聯合公議會, 1929)

성명	생졸년	유학기간	전공	비고
柳樹人(柳絮·柳基石)	1905~1980	1926년 졸업	경제과	1916년 중국 국적 취득 · 하남대학 · 강소교육학원 · 남통농학원 교수 역임.

중국대학

성명	생졸년	유학기간	전공	비고
卞德出				
李陸史(李源緯)	1904~1944	1928년 8월 이후	사회학과 2년 수료	

보인대학

성명	생졸년	유학기간	전공	비고
金永基	1911~2003		서화 동양미술사	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역임
金聖夔	1912~		문과 수료	여류 시인
安偶生	1907~1991			안중근 조카
安原生				안중근 동생 안정근 아들, 보인대 축구 코치
안진생				졸업 후 이태리 유학 (조선학 전공)

북경사범대학

성명	생졸년	유학기간	전공	비고
林有棟		1924년 여름 입학		유학생회 중심인물

북경법정대학

성명	생졸년	유학기간	전공	비고
----	-----	------	----	----

沈容海(沈龍海·沈茹秋) ³⁹⁾	1904~1930	1925년 입학	정치경제학	기자
-----------------------------	-----------	----------	-------	----

북경 동북대학

성명	생졸년	유학기간	전공	비고
柳原植 ⁴⁰⁾		대학원 정경과졸 (36년)		단주 柳林 아들, 北京大 農村社會學 講師(1936~1945)

馮庸대학

성명	생졸년	유학기간	전공	비고
黃貴浩	1907~1988			마산대학 중국어 교수 및 학생처장 역임

북경 육군항공학교(南苑)

성명	생졸년	유학기간	전공	비고
徐曰甫 ⁴¹⁾	1887~1926			1926년 5월 6일 張家口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
安昌男 ⁴²⁾	1900~1930	1922년 겨울		1930년 4월 5일 고장난 비행기를 수리, 시험운행 중 사망
崔用德		1923년 졸업		중국 공군 대령, 광복군 총사령부 참모처장

북경외국어전문학교

성명	생졸년	유학기간	전공	비고
----	-----	------	----	----

39) <가추 심용해 동지를 애도함> (《탈환》 제9호, 1930년 4월 20일)

40) 柳原植, 《(5·16비록)혁명은 어디로 갔나》(인물연구소, 1987)

41) 이영신, 《徐曰甫 이야기》(금산기획, 2001)

42) 安昌男, <오구리 비행장에서> (《개벽》 1923년 1월)

鄭寅笑 ⁴³⁾	1907~1977		세계어과	제5대 국회의원
--------------------	-----------	--	------	----------

북경 益智英文學校

성명	생졸년	유학기간	전공	비고
韓雪野 ⁴⁴⁾	1900~?	1920년	사회과학	

北京東方文化學會

성명	생졸년	유학기간	전공	비고
柳熙綱	1911~1976	1939년부터	서양화	1943년부터 上海美術研究所에서 서양화 수학(1946년 귀국)

이들 유학생들은 수료 혹은 졸업 후 귀국하기도 하였으나, 일부는 계속 중국에 남아 정래동처럼 학업에 더 정진하거나, 중국에서 계속 항일 독립운동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북경에서 民國大學을 졸업하고 나니, 느낀 것은 허무한 것뿐이었다.

귀국하여 일본인 밑에서 취직을 할 수도 없고 중국에서는 생활난에 건달 수도 없고 佛蘭西로 가려 하였으나 여권 등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다.

처음에 대학에 들어갈 때에는 영문학을 하면 중국문학은 환경 관계로 자연히 습득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도 하고 또 다른 학생보다 배의 노력을 하면 영문학·중국문학 두 가지를 다 마스터할 수 있으리라 해서 영문학과

43) 鄭寅笑, 〈문명국가의 금주 정책〉(《時兆》 제379호, 1948년 9월), 《세계어 회화》(서울: 세계평화연맹, 1948)

44) 韓雪野, 〈고난기: 나의 이력서〉(《朝光》 제4권 제10호, 1938년 10월), 〈나의 영화광 시대: 나의 학생 시대 행장기〉(《朝光》 제4권 제11호, 1938년 11월), 〈나의 생명의 연소: 나의 문학 10년기〉(《문장》 제2권 제2호, 1940년 2월), 〈燕京의 여름〉(《朝光》 제6권 제8호, 1940년 8월), 〈天壇: 北京通信〉(《人文評論》 제2권 제9호, 1940년 9월), 〈萬壽山紀行〉(《문장》 제2권 제7호, 1940년 9월)

에 적을 두었다.

그랬으나 졸업을 하고 나니 영문학도 시원찮고 중국문학도 신문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백지나 다름없었다.

귀국도 못하고 구미도 못가고 하는 수 없이 중국에 남아 있게 되었다.

중국에 있게 된 이상 목표가 없어선 안 될 것이어서 중국에 있는 동안은 영문학을 집어치우고 중국문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하였다.⁴⁵⁾

《상록수》의 작가 심훈도 원래는 북경대학 문과에 들어가 극문학을 전공하고자 하였다. 그는 당시 북대 학생들의 활달치 못한 기상, 그가 배우고자 했던 극문학 커리큘럼의 문제점에 낙심하던 찰나에 불란서 정부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조선 학생도 입적만하면 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1921년 2월 북경의 정양문역을 출발하여 프랑스행 기선을 타고자 상해로 향했던 것이다.⁴⁶⁾

5. 차이나 드림, 기회의 땅

湖巖 李秉喆(1910~1987)에게 북경은 차이나 드림을 꿈꾸었던 기회의 땅이었다. 1938년 이병철이 대구시 인교동에 자본금 3만원으로 三星商會를 설립하면서 사업에 첫 발을 내디디, 만주와 북경 등에 청과물과 건어물 등을 수출하면서 한중 무역의 물꼬를 터놓았다. 당시는 중일전쟁기로 만주와 북중국 일대가 북방 '엔블록' 새로운 시장으로 편입되면서, 이병철은 바로 이 거대한 시장에 주목하여 삼성상회를 설립한 것이다.

6. 囹圄, 생의 마감, 죽음의 땅

河蘭史(1875~1919)·朴容萬(1881~1928)·李元大(1911~1943)·李陸史(1904~1944)에게 북경은 죽음의 땅이었다.

45) 정래동, <내가 대학을 졸업하던 때> (수필집 《북경시대》 수록)

46) 심훈, <무진 여행기: 북경서 상해까지>.

1919년 1월 하란사는 高宗이 승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북경으로 간 후, 그곳 교포들이 마련한 만찬회에 참석하여 먹은 음식이 잘못되어 북경 協和醫院에서 사망하였다. 장례식에 참석했던 선교사 베커(A.L. Becker)가 그녀의 시체가 검게 변해 있었다고 말한 데 미루어보아, 그녀의 죽음 직후에 세간에 일본 스파이로 활약한 裴貞子(1870~1951)가 미행했다는 소문이 나돈 것과 연관되어,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나 자연사가 아니라 타의에 의한 독살설이 나 돌았다. 하란사는 1906년에 미국 웨슬리안대학에서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최초로 문학사 학위를 받은 여성으로, 이화학당 대학부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⁴⁷⁾ 밀정 金達河의 처제 김활란도 웨슬리안대학에 다닌 바 있다.

또 근세 독립운동가 박용만의 피살 사건은 정말 아이러니하다. 미국에서 10년, 중국에서 10년, 근 20년 동안 군사 활동으로 독립운동을 지속해왔던 독립 운동가를 왜 암살했을까? 주인공은 의열단원으로 활약했다는 이해명! 국내에서도 의론이 분분한 것 같다. 다행스럽게도 당시 중국 법정에서 공판한 피살 관련 자료가 2002년 2월에 발굴되었다.⁴⁸⁾ 이를 계기로 새로운 평가가 시도될지도 모르겠다.

1943년 3월 독립운동가 이원대가 山西省 부곡에서 조선의용군 중대장으로 소속 부대원을 진두지휘하면서 일군과 격전을 벌이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북경 소재 石文憲兵隊로 압송되어 그곳에서 악랄한 고문으로 6월 17일, 32살이라는 새파란 젊은 나이로 순국하였다.

이육사는 1943년 중국에 갔다가 다시 귀국했으나 체포되어 북경으로 압송되었다. 1944년 1월 16일 새벽 북경 일본총영사관 감옥에서 40세의 나이로 옥사하였다.

김희곤은 《새로 쓰는 이육사 평전》에서 이육사가 수감된 감옥은 중국의 감옥이 아니라, “북경 주재 일본총영사관의 감옥”(214쪽)이라고 추정하였다. 따라서 당시 일본총영사관 감옥의 위치를 파악해야 할 것

47) 그녀의 전기에 대해서는 최은희, 《여성을 넘어 아낙의 너울을 벗어: 한국 최초의 여기자 추계 최은희의 개화여성 열전》(문이재, 2003), 146~153쪽 참조.

48) 北京檔案館 편, 《北京檔案史料》2002·1(新華出版社, 2002.2).

이며, 아울러 당시 북경 시내의 다른 감옥, 예를 들면 宣武區 半步橋 감옥, 東城 北新橋 炮局胡同의 外寄人收容所 감옥, 東城 煤渣胡同의 일본 헌병대 감옥과도 연계하여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경에서 수감된 중국 및 한국 인사들의 자료를 검토하는 것도 이육사의 수감 부분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한국의 金始顯(1883~1966)은 1931년 북경에서 활동하던 중 잡혀 일본 나가사키(長崎)로 압송되어 5년간 복역하고 출옥 후 다시 북경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계속하던 중 1942년 북경의 日本總領事館 警察에 잡혀 투옥된 바 있다. 그러면 김시현도 일본총영사관 관할의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말인지? 영사관(1938년에 ‘朝鮮課’ 신설) 내에는 감옥과 경찰서가 있었다 하고, 일본헌병대 본부(紅樓)에도 감옥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일제 북경 점령 시 북경대 紅樓의 지하실이 감옥으로 둔갑한 것이다.

장건상도 북경에서 감옥살이를 하였다. “1926년 중국혁명기념일인 쌍십절에 북경대학의 초청으로 북경대학 대강당에서 1만여 명의 학생들이 몰려든 자리에서 중국말이 서툴러 영어로 강연했다. 중국인의 통역은 잘 전달되었다. 중국에서도 일본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던 때이라 나의 배일사상과 약소민족의 설움이 섞인 울분의 강연은 열광적인 갈채를 받았다. 나는 이로 말미암아 일본인들의 사주를 받는 중국 경찰에 구속되었다. 나의 죄목은 중국 인민을 선동하여 국헌을 혼란시켰다는 구실이었다.”⁴⁹⁾ 결국 중국법의 집행으로 2년 징역형을 받고 북경 제1감옥에서 고생하다가 만기를 몇 달 앞두고 출소하였다고 한다.

7. 아나운드의 접합점, 보금자리

李會榮·柳自明·李丁奎·李乙奎·白貞基(1895~1934)·鄭賢燮(이명 鄭華岩, 1896~1981) 등에게 북경은 아나키스트들의 보금자리였다. 1924년 4월 이회영·유자명·이정규·이을규·백정기·정화암 등 6명⁵⁰⁾의 아나키스트들

49)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241쪽.

은 북경에서 〈在中國朝鮮無政府主義者聯盟〉을 조직하고 기관지로 〈正義公報〉(순간)를 발행하였다.

1924년 4월 우리 여섯 사람은 재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창립하기로 합의했다. 우리의 독립운동을 당시 이론적 기반을 가진 사상적 토대 위에서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인 호응을 얻기 위함이요, 관동대지진(1923.9.1)에서의 일제 만행에 대한 보복적 심리에서이다.⁵¹⁾

1924년 북경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북경에 온 柳華英(이명 高自性·柳林, 1894~1961)은 《國風日報》 사장 景梅九를 찾아 국풍일보사에서 北京法政大學 출신의 한국인 기자 沈容海(이명 沈龍海·沈茹秋, 1904~1930)를 만나서 교유하고, 또 당시 북경 朝陽大學 학생인 그의 친구 柳絮(이명 柳基石, 호 柳樹人)를 소개받아 교유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당시 아나키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곧 의기투합하였다. 이들은 당시 북경 民國大學이 아나키스트 청년들의 중심지라는 것을 알고 학생들의 아나키스트 단체인 “黑旗聯盟”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바 있다.

재중 한인 아나운들은 그 기지를 북경, 만주 등지로 옮겨 활동하면서 그 실천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만주에서의 아나운들은 직접적 대일 투쟁활동이라기 보다는 한인에게 실제적인 경제적 원조를 주고자 하는 형태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의 마프노운동이나 일본의 농촌운동과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다.⁵²⁾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도 일본경찰에의 자금 압수와 아나키스트들의 연속적인 체포로 인하여 그 계획을 완수하질 못했다. 신채호는 활동 자금을 만들다가 1928년 5월에, 이정규는 1928년 10월에, 이을규는

50) 신채호는 북경 순치문 내 석등암에서 역사서 편찬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고, 유림은 성도대학 재학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장환, 《한국 아나키즘운동사 연구》(국학자료원, 1998), 139쪽.

51) 창립 취지.

52) 오장환, 《한국 아나키즘운동사 연구》, 208쪽.

1930년 9월에 체포되었다. 이후 남은 아나키스트 이회영, 정화암, 유자명 등 원로들과 1928년 3월부터 무한경비사령부에서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후 풀려난 유기석 등 젊은 아나들이 재결합하여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한 것이 남화한인청년연맹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8. 연안을 향한 탈출구

金台俊(1905~1949)·金史良(1914~1950)·安漢 등에게 북경은 중국 혁명의 메카, “동방 공산주의자들의 예루살렘”⁵³⁾이라 불리는 ‘延安’을 향한 탈출구였다.

김태준은 경성제국대학 졸업을 앞두고 논문자료를 수집하고자 1930년에 북경 유리창을 찾을 정도로 학구파로 알려졌고, 그 결과물이 졸업논문 《조선한문학사》(1931)와 《조선소설사》(1932)이다. 김태준은 이리농림학교⁵⁴⁾, 경성제국대학 예과(1926년 입학), 북경 여행(1930),

53) Y. M. 生 역, <오컨너 신부의 延安 답사기>, 《가톨릭청년》 5:6(1947.6).

54) 이리농림학교는 1922년 5월 5일 개교한 5년제 관립학교(지금의 국립익산대학)이다. 보통 이곳을 졸업하고 수원농림으로 진학하거나 혹은 일본으로 유학 가서 고등학교 과정에 진학하곤 하였다. 임영태나 박희병은 어떠한 계기로 평북 출신의 김태준이 이리농림학교에 진학했는지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함남 출신의 ‘보리피리’ 시인 韓何雲의 경우를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부친 韓鍾奎는 장남을 獸醫畜産學을 전공시킬 의향으로 당시 한국인으로서 입학하기 힘들었던 이리농림학교의 축산학과를 지원케 하였다. 이때 함경남도에서 이 학교에 지원한 학생이 19명이었는데 한하운만이 유일하게 합격하였다(성기조, <한국문단, 남기고 싶은 이야기·6: 문둥이가 아니라 한하운의 절규>, 《수필시대》 2006년 9·10월호, 114~115쪽). 김태준은 이리농림 시절 “잡지 한 권, 신문 한 장”을 읽어보지 못했고, 문학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했으나, 15살의 나이에 이리농림학교에 입학한 한하운에게 이후 창작의 모태가 되었다. 입학식날 보리가 파아랗게 우거지고 매화꽃이 피어 있는 교정의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잃었으며, 그림으로만 볼 수 있었던 대나무 숲을 보고 따뜻한 남도의 풍광을 글로 적었으며, 일본말로 된 《시론》과 《시학》, 또는 《詩作講座》를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알만 한 곳만 공부하면서 시를 썼다고 한다. 일어 시간이나 한문 시간에는 일본인 교사가 일본의 短歌와 和歌, 그리고 俳句 한시 등의 작법을 가르쳤는데 동양의 ‘寂’이나 ‘幽玄’이 근본 사상이 된다는 말에는 수긍하기

지나문학과(1931년 3회 졸업), 명륜전문학원 강사(荀子와 일본어), 경성제대 조선문학 강좌 강사(高橋 亨 대타), 경성콤그룹 사건으로 검거 및 석방, 재혼(1944년 11월 27일 박진홍)을 거쳐 연안을 향하여 경성을 탈출하게 된다. 그의 여비는 어렵사리 모은 소장도서를 팔아넘긴 2만원으로 충당되었다.⁵⁵⁾ 김형직 주필의 《격정세월: 문정일 일대기》에서는 김태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조선공산당의 주요 책임자의 한 사람인 김태준이 연안으로 가려고 우리를 찾아왔다. 경성제대에서 부교수로 있던 김태준은 반일투쟁에 가담한 죄로 경성감옥에서 징역을 살다가 만기 석방된 후 중국으로 건너와 천진을 거쳐 우리에게로 찾아왔다. 1930년대에 중국에서 반일투쟁을 하던 심훈이 석가장에서 체포되어 경성감옥으로 이송되어 가 김태준과 함께 감옥생활을 하게 되었다. 심훈은 중국의 정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김태준에게 조선의용군을 찾아가는 길과 연락할 사람들을 알려주어 우리를 찾아왔던 것이다. 김태준은 역사학 교수로 조선역사를 정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어느 조대 어느 임금은 계보가 어떻게 되고 생년월일이 언제고 재위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환히 알고 있었다. 또 맑스주의 이론과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에서도 일가견을 갖고 있었다. 그의 부인도 지식자였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판단력이 명철한 인텔리였는데, 해방 후 조선에 나가 중앙여성동맹 부위원장을 지냈다.⁵⁶⁾

문정일의 말대로라면 김태준은 1944년 12월에 심훈의 소개로 북경 소재 조선의용군 연락책을 찾았다고 했으나, 김태준의 글에는 일언반구도 보이지 않는다.

어려워 불만이었다고 했고, 바이런이나 하이네, 릴케, 타고르의 시를 읽고 워즈워드나 베를렌스의 목가적인 서정시에 심취했으며, 일본 시인으로 北原白秋, 石川啄木の 시를 애송했다(앞의 책). 이는 한하운의 정서와 남도 풍광이 잘 맞아 떨어진 경우라 하겠고, 어린 시절 서당교육에서 형성된 관념, 즉 사서삼경만을 문학으로 알고 있던 김태준에게는 이리농림 시절이나 경성제대 커리에 그리 탐탁치 않았을 것이다.

55) 김태준, 〈연안행〉.

56) 김형직 주필, 《격정세월: 문정일 일대기》(민족출판사, 2004), 111쪽.

이튿날 밤에 북경에 도착. 친구의 집을 몇 곳 찾으니 모두 불행하게도 주인 부재중이었다. 여관 주인은 모두 스파이라 믿을 수 없다고는 하나 하는 수 없이 前門 밖의 東方飯店에 투숙했다.

일부러 밤 11시에 들어서 아침 7시에 나오니 숙박인 명부에 가성명이야 기록했지만 놈들에게 보고할 겨를이 없었을 것이고 여관 客主가 밀정이라 할지라도 조사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아침 7시에 여관을 나온 부부는 종일 東安시장·北海공원·景山·中山公園으로 인력거 타고 오락가락해서 하루해를 보냈다.

북경서 밤차를 타야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望都驛에 밤이나 새벽 미명에 도착하기 때문이다. 石家莊 가는 표를 타고 망도서 내렸다. 망도에는 조선 사람이 전혀 살지 않기 때문에 망도 간다고 하면 이상히 여길까 생각했기 때문이다.⁵⁷⁾

김태준의 〈연안행〉을 읽어보면 생존 인명을 조심스럽게, 혹은 영문의 이니셜로 표기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닥칠 위험을 염두에 두고 쓴 일기이기에 그랬을 것이다. 설사 이국땅 북경일지라도 안전한 곳이 못되었다. 총독부 조선출장소, 경성서부터 미행하며 하이에나처럼 끈질기게 따라붙는 경찰들⁵⁸⁾, 일제의 프락치들, 게다가 중국인들이 조선인을

57) 김태준, 〈연안행〉.

58) 자의든 타의든 일제의 '황국 신민'으로 중국을 드나들었던 한인들은 비교적 무난하게 국경을 넘나들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형사 콜롬보를 연상할 정도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했다. 1928년 10월에 조선일보 특파원으로 북경에 왔던 이관용의 말을 들으면 실감이 날 것이다. "경성에서 북경까지 조금도 쉬일 새 없이 경찰이 미행한 세움이다. 신의주까지는 이동경찰이, 안봉선에는 관동청 정복순사가, 봉천에서는 관동청 고등계원, 영사경찰관 고등계원이 따라다니었다. 봉천에서 대련으로 갈 때도 관동청 고등계원 한 사람이 일부러 따라왔었고 대련에서도 양일간 大連署 고등계원이 따라다니었다. 대련을 떠날 때는 수상경찰 관리 1인이 당고까지 같이 왔고, 당고에서는 친진 일본총영사관 경찰 고등계원이 따라다니었으며, 당고-친진간 차중에도 該 경찰 고등계원이 따라왔다. 기차가 친진역에 도착하자, 영사관경찰 고등계원 2인이 나와서 조사하였고, 또 한 사람이 북경까지 따라오는 것 같았다. 이 사람들이 다 나 한 사람 까닭에 출동한 것이 아닌 것을 알건만, 하여간 경성으로부터 북경에 이르기까지 끊어지지 않게 설치된 경계망이 얼마나 엄중함을 알겠다." (李灌鎔, 〈북경에 와서〉, 《조선일보》 1928년 11월 7~10일 4회 연재)

‘제2의 일본인’, ‘작은 일본인’⁵⁹⁾으로 여기는 바람에, 특히 일제 말기에 와서는 자신의 신분을 감히 노출시킬 수 없었고 가명에 변장으로 돌아다녀야 했고 북경에서 거주하던 한인들도 남에게 주소를 노출시키지 않았다.⁶⁰⁾ 이는 아마도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서 김태준이 고의적으로 생략한 것 같다. 김태준-박진홍 부부는 결국 거미줄 같은 일제의 감시망을 뚫고 연안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한다. 당시 사람들은 김태준 부부의 연안행을 두고 일제하 운동사상 최고의 낭만적인 연애 사건이라고 말하곤 했다.⁶¹⁾(347쪽)

1945년 5월 9일 B여사를 단장으로 한 김사랑, ‘사슴의 시인’ 盧天命(1912~1957) 등 6명(남자 2명, 여자 4명)은 국민총력조선연맹 병사후원부 파견으로 반도 출신 학병을 위문하기 위해 북경행에 올랐다.⁶²⁾ 이들의 북경행 목적은 모두 다른 동상이몽격이었다. 노천명은 순전히 “北京 春光도 시방이 한창이라는데……”⁶³⁾라고 읊조리면서 이 기회를 빌

59) 이강훈의 경우도 북경의 호텔이나 여관을 찾을 때마다 거절당한다. “1932년 선달 그믐날 북경에 닿았습니다. 정양문 앞에 제1빈관이라는 큰 호텔이 있습니다. 들어갔지요. 그때 주머니에 돈이 좀 있었고 옷도 중국옷으로 바뀌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 손님명부에 마음 툭 놓고 ‘한인 이강훈’이라 썼더니 조선인에게는 방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고약한 놈들, 그만두라.’고 나와 다른 여관에 갔더니 이미 사발통문이 돌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가 알아보았더니, 이때 북경의 분위기는 한인을 모두 작은 일본인으로 보는 겁니다. 일본놈의 앞잡이라는 겁니다. 북경도 나중에 왜놈에게 먹힙니다만 중국인들이 항일의식은 강했지 않아요? 더구나 만주사변으로 그 항일의식이 크게 자극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조선인인 나를 의심한 겁니다. 이러한 형편이니 밤새도록 여관을 찾아가는 데 가는 곳마다 쫓겨납니다.” 《혁명가들의 항일희상: 청뢰 이강훈》 편.

60) 상해에서 7년간 수학, 1927년에 호강대학을 졸업하고 1934년부터 10년간 북경 보인대학 영문과에서 교편을 잡았던 주요섭은 학교 직원에게조차도 자신의 주소를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고직이한테까지도 내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야 하는 이 고충은 해외에 오래 산 경험이 없는 이로써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주요섭, 〈北平雜感: 異國隨想〉, 《白光》 제6집, 1937년 6월)

61) 이재성 지음, 《경성 트로이카》(사회평론, 2004), 347쪽.

62) 《매일신보》 1945년 5월 15일자 참조.

63) 김사랑, 《노마만리》.

어 북경이나 다시 한 번 보고가자는 가벼운 마음이었고, 김사랑은 몰래 연안으로 탈출, 다른 사람들은 학도병으로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남편이나 아들을 만나 회포를 푸는 것이었다.

여하튼 이들이 경성, 평양을 거쳐 5월 10일 아침에 山海關에 도착, 세관과 헌병들의 검문이 있었으나, 이들에게 단체 여행권이 있었기에 무사히 통과하여 11시발차로 북상하였다. 김사랑의 중국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이들은 북경에 도착하자 마중 나오기로 했던 사람이 안 나오는 바람에 난감해했다. 그리고 학병 부인들이 그리운 남편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어 곧장 徐州와 南京으로 가자고 재촉하자, 곤경에 처했던 단장 B 여사는 일이 기왕 이렇게 된 거 한 번 더 속는 셈치고 남경에 가자고 매달린다. 공주병의 소유자 노천명은 원래 북경 유람이 목적이었던지라 여자들끼리의 언쟁이 다시 시작된다. 이들은 남경에 도착한 날부터 밤마다 새벽마다 공습경보 소리에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였다. 그러나 B여사가 잘 안다는 일군 보도부장이 경질되는 바람에 남경 관광에 나섰으며, B여사가 잘 알고 있는 造兵廠장의 주선으로 돌아갈 승차 패스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조병창의 조선 소년 군속들을 면담하고 中山陵 뒤에 자리한 금룡부대의 학도병들을 만나보았다.

김사랑은 남경에서 만나기로 한 P군과 서주에서 만나기로 한 S군까지 행방이 묘연해진 이상, 막연한 희망에 上海로 갈 생각을 굳혔다. 그런데 문제는 또 노천명에게 벌어졌다. 매일 공습경보에 시달리던 노천명이 북경에 데려다달라고 강경하게 요청하였다. 또 서주로 학병 낭군들을 찾아 만날 부인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하여 서주로 올라와 두 부인의 낭군이 배속되어 있는 부대를 찾아가 외박 허가를 받은 그들과 함께 호텔로 돌아왔다.

북상은 김사랑, 노천명, 학병의 아버지 H씨 세 사람이 동해하였다. 다음날 새벽에 김사랑은 혼자 天津에 하차하여 일본 조계에 있는 그의 중학 동창 이 박사의 병원을 찾아갔다. 이 박사는 여가에 조선학 연구에 종사하고 있었다. 도착한 날부터 그와 탈출 행로를 놓고 연구하다가 친구가 건네준 7천원을 받아 북경으로 상경하여 北京飯店에 투숙하였

다. 이날이 5월 30일!

과소 일본의 해가 저물어가는 1945년 5월의 북경. 동양 사람으로는, 더구나 조선 사람의 처지로는 발을 들여놓기조차 어렵다는 호사한 북경 반점이 마치 조선의 대합소처럼 되어 있었다. 아편장수, 갈보장수. 사업가, 송금 브로커. 험잡꾼, 헌병대 사령부의 특무, 신문기자, 무슨 극단, 무용단 등 일행이 이곳에서 묵고 있는 중이었다. 김사량은 바로 이곳 236호에 묵었다.

이튿날 지하공작을 하던 Y거인과 연락이 되어 東安市場 안 조그만 중국 식당에서 곶양주 닷 냥을 나누어 마시며 앞으로의 탈출 일정 및 장소를 의논한다.

다시 북경반점에 돌아왔으나 延安으로 출발하는데 양복이 불편할 것 같아 카키색 한 벌을 6천원 주고 사고 내친 김에 노천명 편에 보낼 양으로 아이들 선물 구입한다. 당시의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 1년 전보다 열배 이상 뛰는 바람에 만 원 정도를 후딱 써버렸다.

다음날 오후 1시 그 집에서 Y거인이 화북교통에 근무한다는 H와 동행하여 내일 오전 9시 반, 1·2등 대합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헤어지는데, 두 사람이 모은 돈 5천 여원을 건네주었다. 감격하여 눈물이 핑 돌았고 거나한 술기운으로 동안시장 안을 다시 돌아다니며 아이에게 줄 선물로 가죽구두 두 켤레를 구입한다.

당시 노천명은 六國飯店에 묵고 있었다. 魯迅 선생도 잠시 피신한 적이 있는 이 육국반점은 東交民巷에 있었다.

다음날 아침 7시 반차로 귀국하는 노천명 일행에게 아이들 선물과 모친과 아내에게 주는 편지를 부친다.

6월 3일 아침 10시 반차로 탈출을 결심, 대합실에서 H씨를 만나 차표(창덕행: 지금의 안양시)를 받고 그의 안내로 京漢線 開封行 열차에 몸을 싣는다. 나무 도시락 두 개에 ‘前門’ 표 담배 다섯 껍과 함께. 이렇게 그의 고단한 혁명 역정은 이렇게 시작된다.

〈바다가 보인다〉의 김사량에 대해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물론 바다를 본 그를 내가 알 리가 없다. 그곳은 바다가 아니라 대륙 깊은 곳에 있는

연안이었는데, 그 연안으로의 탈출행 전야에 나는 그를 만났다. 북경반점의 바에서. 전술할 바와 같이 세 사람이었다. 그는 반도인 지원병 보도반원이었으며, 조선어지의 《매일신보》 북경 지국장으로 당시 朝鮮私設大使 등으로 불리고 있었던 백철이 합석했던 것이다. 나는 현지 일본어 신문의 학예부에 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써 달라.”고 했다. 김사량은 장발을 쓸어 올리면서 그 근육질의 큰 키를 흔들흔들하면서 “저는 이제 일본말로 쓰는 건 질색입니다.”하고 빈정거리듯 웃었다. (중략)우리는 북경반점을 나와 목단 자동차로 前門 밖에 있는 식당에 가서 마셨다. 그 자동차 안에 웬일인지 조선의 여류 시인이라 불리는 여성이 타고 있었던 기억이 막연히 떠오른다. 식당에 자리를 잡자마자, 바에 있었던 때와는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태풍처럼 마시고 씹어댔다. 그는 물론 탈출행과 관련된 이야기는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런데 팔로군과 팔로군 소속의 조선의용군 쪽으로 탈출하는 반도인 지원병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다. 김사량과 백철은 때때로 뭔가 터지기라도 한 것처럼 격렬하게 조선어로 토론을 벌였다. 동시에 白干兒酒를 뒤집어쓰듯 털어 넣기를 계속했다. 나는 어떤 예감이 들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예감한 그것에 격렬하게 응사해가는, 그 무엇도 나는 당시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날로부터 얼마나 지났던가. 김사량은 아직도 王府井大街를 천천히 걷고 있었다. 황토색의 반소매 셔츠에 반바지. 당시 가는 곳마다 눈에 띄던 보도반원 행색이었다. 장발을 쓸어 올리며 그 긴 정강이를 내차듯이 걷고 있었다. 그 정강이는 ‘한때 무용가가 되려는 생각으로 창작 무용을 시도했던’ 미나미 선생(〈빛 속으로〉)을 연상케 했다. 1944년 초여름의 일이다.⁶⁴⁾

위의 글에서 나카조노는 김사량, 백철, 노천명을 언급하고 있다. 백철은 잘 알려진 대로 민간 신문이 모조리 사라진 조선 언론계에서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문화부장을 맡아 무소불위의 역량을 과시하였다. 그는 1939년에 잠시 중국을 시찰한 데 이어 1942년 3월 《매일신보》 북경지사장 겸 특파원으로 부임하여 1945년 8월 2일 귀국할 때까지 2년 반 동안 북경에 거주하였다. 백철은 1944년에 북경에 온 여류시인 노천명, 유행가수 남인수, 장세정 등을 만났다. 노천명은 당시

64) 나카조노 에이스케(中藺英助), 〈김사량 작품 집평〉(《근대문학》 1954년 10월호)

매일신보 문화부에 근무하던 기자 자격으로 휴가를 받아 놀러왔다가 3주간의 휴가 기간이 지나고서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바람에 3개월이 지나서 백철이 여비까지 마련해주어 보냈다고 전해진다.⁶⁵⁾

김사량도 북경을 탈출하기 한 해전에 1944년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가량 중국에 머문 바 있는데, 1944년 초여름의 김사량에 대한 나카 조노의 기억은 1945년 초여름의 착오이다.

김사량은 마침내 북경을 탈출, 태항산 기지로 접어들면서 먼저 들어온 김태준의 정보를 듣는다.⁶⁶⁾

1944년 늦가을에는 ‘반도의 무회’ 최승희가 일본을 탈출하여 북경 北海公園 부근 삼좌대로 21호에 자택을 구입하여 ‘최승희동방무용연구소’라는 간판을 달았다. 일본 군경의 눈을 속이고자 구입한 집을 세든 집이라 속이기 위해서 집 명의를 중국 목수 이름으로 해두었다. 최승희는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 창작 무용을 안무하는 한편, 중국 주둔 일본군을 위한 위문 공연을 했다. 또 梅蘭芳·馬連良·尙小雲 등과 교류하면서 중국고전을 바탕으로 《향비》·《패왕별비》 등 10여 작품을 발표하였으나, 그리 옛날만큼 인기를 끌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던 차 1944년 말 북경에 나타난 남편 안막은 잠시 최승희의 일을 도와 연구소를 관리하는 한편, 북경생활을 하는 동안에 날마다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생활을 하는 듯했다. 그러다가 자주 드나들던 북경반점 등지에서 연안에서 파견된 조선독립동맹 지하조직을 만나게 되었다. 이것을 눈치 챈 최승희는 안막에게 정치를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안막은 최승희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조선독립동맹의 일을 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1945년 봄(혹은 여름)에 연안으로 탈출하였다. 최승희는 할 수 없이 남편의 빈자리를, 오빠 최승일을 불러와 남편 대신에 연구소 일을 보게 했다.

안막은 연안에 도착하자 당시 조선독립동맹의 간부들이었던 金科奉 ·

65) 백철, 《문학자서전·후편》(박영사, 1975), 217쪽.

66) “국내에서 행방이 주목되던 김태준 씨도 애인과 같이 바로 몇 달 전에 무사히 들어왔다고 한다.” 《노마만리》, 159쪽.

武亭(1905~1951)·崔昌益(1896~?)·金昌滿·許貞淑(1908~1991: 변호사 許憲의 딸이자 최창익의 부인)·韓斌(1904~?) 등과 친분을 쌓았는데, 이들은 나중에 북한 정권 내부에서 연안파로 불려지는 핵심 멤버들이다.

9. 관극, 댄싱 공연 무대

요즘 김탁환 원작의 《황진이》가 안방극장에서 뜨고 있다. 그 덕택에 시중에서도 ‘황진이’를 모델로 쓴, 목은 서사물도 서점에 쏟아져 나오고...

1929년 여름 以堂 金殷鎬(1892~1979)가 毅齋 許百鍊(1891~1977)과 함께 북경을 여행한다. 칠월 칠석 날을 택하여 무대에 오른 매란방과 그의 가무를 보면서 맨 앞자리에 앉아 스케치를 그렸다. 그때 스케치한 그림이 <매란방> (1930년작)이다.

김은호는 생전에 매란방에 대하여 “그 표정이며 몸 움직임이 절색 미녀 이상이었고 몸맵시도 날렵했다. 살결 또한 화장을 했겠으나 너무나 희고 보드라워 보였다. 미녀인들 그럴 수가 있을까 싶게 매혹적인 사내였다.”⁶⁷⁾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여성성 이미지는 김은호에게 <매란방> (1930), <춘향 초상> (1938), <미인도 논개> (1960년대 초), <궁녀도> 로 이어지는 듯하다.

한국인 중에 매란방과 접촉했던 인물은 최승희 말고도 매란방 학원에서 직접 배운 이매방이 있다. 그를 추앙하여 예명도 이매방으로 바꾸었을 정도이다.

북경에 누님이 살았는데, 폭이 크고 활달한 사람이예요. 3, 4 학년 방학 때 누님의 소개로 북경에 가서 매란방 학원에서 배웠죠, 매란방의 조교가 가르치고 매란방은 가끔 코치만 했지. 춤은 여성기가 좀 있어야 하는 데, 애가 여성기가 있어 싸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 매란방이 어떤 사람입니까. 중국에서 애들이 울다가도 매란방이 온다하면 울음을 그치는 경극 배우로 전무후무한 사람이었죠. 일본 천왕이 오라해도 네가 데리러 와도

67) 이규일, 《뒤집어 본 한국미술》(시공사, 1993), 306쪽 재인용.

내가 갈까 말까하다고 할 정도로 자존심이 강했죠. 매란방의 거처를 매란방궁이라고 했죠. 수많은 제자들이 모시고 보필하는 성, 화려한 무대를 내려오면 곧바로 애라상을 타고 자기 궁으로 들어가 버렸지.

지금 내게 춤을 가르친 매란방의 조교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해요. 그때 장검무를 배우고, 등불을 물지게처럼 어깨에 매고 추는 춤, 평털을 가지고 통기면서 추는 춤 등을 배웠는데, 다 잊어버리고 장검무만 기억해냈지. 그래서 우리 음악을 쓰고 의상은 매란방의 의상과 비슷한데 중국 냄새 안 나게 고쳤지. 내 이름은 매란방이 이름 중에서 란초 란(蘭)자를 빼고 예명으로 썼지. 매란방은 이름은 예쁘잖아. 23살에 작명가에게 갔더니 좋다고. 연극이나 배우는 안 어울려도 무용가로서는 격이 맞고 좋다고 하더구만, 이(李), 매(梅), 방(芳), 셋 다 꽃이기에 무용으로는 적격이라고 말야.⁶⁸⁾

‘동양의 이사도라 던킨’ 최승희에게 북경은 화려한 춤사위를 마음껏 펼쳐보였던 댄싱 무대였다. 태평양전쟁 기간인 1942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에 걸친 긴 ‘전선 위문 공연’이 실시되는 동안에 조선·만주·화북(6월) 등 각지에서 130여 회가 넘는 공연을 마치고 1942년 여름에 북경에 입성하였다.

최승희는 북경반점에서 7일간 머물면서 천진에서 나흘간 공연을 예정하고 있었다. 공연 전날 그녀를 위해 중국의 유명한 극단 배우들이 북경의 유명한 요정 東興樓⁶⁹⁾에서 환영 만찬회를 열어주었으나,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매란방은 보지 못했다. 당시 매란방은 북경에 있길 않았다.

최승희는 지친 몸을 이끌고 공연하는 한편, 중국 무용 습득을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중국 연극을 보러 다녔으며, 몇 군데 예술학교도 방문하였다. 중국의 명배우 李萬春의 초대를 받아 그가 경영하던 예술학

68) 진옥섭 인터뷰·정리, <도공의 수공으로 춤을 새긴, 宇峰 이매방> .

69) 1902년 개업. 당시에는 東華門大街(지금의 華潤大廈 자리)에 있었으나 1983년 東直門大街 47號에 중건하였다. 북경의 유명한 山東飯館 八大樓 중의 첫 번째 식당이다. 팔대루는 동흥루·致美樓·泰豐樓·鴻慶樓·萃華樓·新豐樓·安福樓·鴻興樓를 말하는데, 魯迅도 생전에 이곳을 세 번이나 찾았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공간에 명성이 경성바다에 자자했던 동양루(종로3가)와 같은 고급 요정이다.

교 鳴春社 연습장을 구경하러 갔을 때 2백 명이나 되는 소년들이 굶지 않을 정도의 조출한 식사 정도밖에 보장되지 않는 힘든 연수 생활을 견디는 것을 보고 최승희는 자신의 경성 시절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였다.

이번엔 북경·천진 등의 도시를 순회하고 마지막으로 大同 공연으로 끝이 났다. 대동에서 최승희는 북위 시대의 雲岡석불을 보고 영감을 받아, 그것을 소재로 얻은 춤이 바로 <석굴암의 벽조> 라는 무용이다. 이후의 중국 공연에서 얻는 견문은 그녀에게 일종의 창작의 영감을 발동케 하였다.⁷⁰⁾

1944년 늦가을에 다시 북경에 도착한 최승희는 北海公園 근처에 자택을 구입하여 동방무용연구소를 설립하였다. 1945년 3월 21일 최승희는 연구소를 추진하기 위하여 북경 화무반점 5층 비자형 3호실에서 매란방과 무용에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1945년에 접어들고 나서 더욱 패색이 짙어진 일본의 행동은 말 그대로 최후의 발악이었다. 최승희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실제로 감시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 창작 무용을 안무하는 한편, 북경 주변과 상해 주변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군인 위문공연을 가졌다.⁷¹⁾

1945년 8월 15일, 최승희는 상해에서 일본군 위문 공연을 하고 있을 때 일본군의 패전 소식을 들었다. 이에 서둘러 북경 자택에 도착하여 보니 대부분 단원들은 모두 떠나가고 제자 김백봉(1927년 생)만 남아 있었다.

9월 말경에는 조선의용군과 함께 평양으로 간다는 소식을 전하는, 연안에 있던 안막에게서 편지가 왔다. 12월 말에는 안막의 동생이자 김백봉의 남편인 안재승이 지친 모습으로 북경에 나타났다. 안재승은 산동성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육군 제5혼성독립여단의 병영에서 일본의 패전을 맞이하여 두 달이나 굶어가면서 간신히 북경에 도착한 것이다.

70) 정래동은 <북경의 인상> (《사해공론》 1936년 9월호)에서 북경을 두고 “창작욕 발동을 일으키는 도시”라고 말한 바 있다.

71) 정병호, 《춤 추는 최승희》(현대미술사, 2004), 251~253쪽

치안이 어수선한 북경에서 최승희는 미국의 북경주재 화북 지역 총사령관 순 레전 대장과 남한을 집령한 미군의 군정청에서 파견된 칸 티모크의 도움을 받았다.

해방 이후 내가 군정청에서 파견관으로 북경으로 가보니 한국인에 대한 학대가 매우 심각했다. 내가 귀국 희망자 명부를 만들고 있을 때 최승희를 만났다. 그때 《漢奸》이라는 잡지에서 만주영화사의 李香蘭과 최승희는 일본의 스파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어 있었는데, 순 레전 사령관의 도움으로 그 오해가 풀려 1946년 봄에 중국에 체류 중인 조선인의 조중 친선 무용 공연을 개최했다. 이때 최승희는 임신 8개월의 무거운 몸이어서 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장구를 쳤고 김백봉이 《초립동》을 추었다. 그 후 최승희는 미군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 가톨릭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安秉健이다.⁷²⁾

아들을 출산한 최승희는 산후 조리를 하며 애를 키우다가 드디어 1946년 5월에 천진에서 조선으로 향하는 미군 귀국선(LST)을 탈 수 있었다. 최승희의 귀국을 도와준 것도 순 레전 대장의 배려였는데, 칸 티모크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순 레전 사령관은 최승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최승희의 미국 공연을 관람한 사람이었다. 순 레전 사령관도 예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승희의 무대 의상을 모두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강구해주었다. 귀국선은 모두 미군의 제공한 배로 세 척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한 척은 인천, 또 한 척은 군산, 그리고 또 한 척은 부산으로 갈 예정이었다. 나와 최승희 일행은 인천으로 가는 배에 올라탔고, 나중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박정희는 부산으로 가는 배에 올라탔다.⁷³⁾

마침내 최승희는 1946년 5월 29일, 동포 1,500명과 함께 인천에 상륙했다. 이때 남편 안막은 중국내 조선인 공산군과 함께 이미 평양으로

72) 정병호, 《춤추는 최승희》.

73) 정병호, 《춤추는 최승희》.

진주해있었다. 해방 후 서울에서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친일파로 몰리는 바람에 북한의 안막으로부터 강력한 요청을 받고 1946년 7월 38선을 넘어 북으로 갔다.

최승희는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김백봉과 함께 김일성을 만나러 갔고, 김일성은 대동강변 요정인 통일관 자리에 최승희무용연구소를 설립해 주었다.

1949년 12월, 북경에서 열린 아시아여성회의의 북한대표로 딸 안성희를 동반하고 이 회의에 참가하여 최승희 무용단 공연이 있었고, 회의 개막 이후 북경·상해·천진·남경 등 각지에서 공연이 펼쳐졌다. 이때 북경에서 최승희의 무용 공연을 보고 매료된 周恩來는 〈身老心不老〉를 특히 좋아했다고 한다.

6.25 전쟁 발발! 평양이 유엔군에 점령되면서 최승희 무용연구소 건물도 폭격으로 파괴되었고, 최승희 일행 15명은 1950년 11월 말, 김일성과 주은래의 배려로 다시 북경에 오게 되었다. 최승희는 중국 정부의 호의로 北京戲劇學院 무용과 교수로 무용을 가르치는 한편, 최승희 무용연구소를 설립하고 신작 무용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한 일 년 정도 맹훈련을 거듭하여 1952년 3월부터 연구생들과 함께 대학 전용극장에서 한 달 가량 장기 공연을 열었으며, 여기에서 호평을 얻어 북경의 청년예술회관 등지에서 일반 공연도 했다고 한다. 1953년 7월 한국전쟁이 끝나자 최승희는 11월에 중국 정부의 요청으로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다.

1944년 가을에는 만주에서 활동하던 가수 李寅權이 북경에 정착하게 된다. 그는 때마침 天津에서 공연을 하던 가수 玄人(본명 현동주: 1919~2002), 연기자 黃海(본명 진홍구: 1921~2005)·全邦一, 여가수 白一姬, 연기자 沈演, 여가수 李海燕(1924~), 연출가 白恩善, 여가수 尹蘭星 등으로 구성된 樂劇團 新太陽(天津클럽)에 합류하여 가수로 활동하다가 해방을 맞는다. 해방 후 한국 연예인들이 일본군에 협력했다는 죄 때문에 천진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근 1년 만에 석방되어 天津港에서 미군 귀국선을 타고 서울로 돌아오게 된다.

최승희 이외에도 북경을 찾은 문화계 인사들로는 김팔봉, 박진, 조택

원, 현제명, 이인범, 김천애 등이 있다.

10. 구미유학을 향한 경유지

중국을 배움의 터전으로 삼은 일부 한국 유학생들 중에는 중국을 거쳤다가 서구의 근대적 학문을 체험하기 위하여 다시 구미로 유학하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1912년에 <중화민국국적법>이 반포되어 외국인으로 “계속하여 5년 이상 중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중국 국적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적지 않은 한인들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취직하거나, 구미로 유학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들은 모두 중국 여권을 가지고 구미유학의 기선에 오르게 되었다.

조선인으로 외국 유학 가는 사람이 조선에서 여행권을 받지 못하면 상하이로 가서 중국에 入籍하여가지고 중국인이 되어 구미 유학을 가는 일이 종종 있어 상하이는 우리에게 퍽 친한 이름이 되었고 또 현재 유학하는 청년도 많다.⁷⁴⁾

어머니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국경을 넘는데 성공하였고, 또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나 역시 그렇게 하여 국경을 넘고, 어디에선가 여권을 만들어 내 학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럽으로 가려고 애써야 한다고 하셨다.⁷⁵⁾

해외 이민문학의 대표 작가였던 《압록강은 흐른다》의 이미륵과 《초당》의 강용홀도 국내에서 각기 삼일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일제 경찰의 추격을 받아 상해로 도피했으며, 이곳에서 각자 수속을 밟아 독일과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된다.⁷⁶⁾ 이미륵도 역시 중국 여권을 지니고

74) 유광열, <상해와 조선인> (《朝光》 4권 3호, 1930년 3월).

75) 이미륵, 《압록강은 흐른다》.

76) 이에 대해서는 최윤영, 《한국문화를 쓴다: 강용홀의 ‘초당’과 이미륵의 ‘압

독일에 유학하였다.⁷⁷⁾

정치가이자 국어 운동가였던 金法麟(1899~1964)은 1920년 4월 남경 金陵大學에 입학하게 되는데, 그는 대학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배우면서 미국 유학을 생각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단념하였다. 그런데 당시 중국에는 국민당 지도자였던 汪兆銘이 주도한 留法儉學會라는 장학단체가 있었다. 이 단체는 유능한 중국 청년들을 선발하여 프랑스로 유학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에 김법린은 그 유법검학회의 후원을 받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파리대학 철학과를 졸업할 수 있었다.

독립투사이자 한글학자인 李克魯(1893~1978)도 1921년에 同濟大學 예과를 졸업하고, 1922년 베를린 대학 철학부에 입학하여, 1927년에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민족사학자 安浩相(1902~1999)도 1924년 동계대학 예과를 졸업한 뒤, 독일에 유학하여 1929년 독일 예나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도유호는 1929년 9월 북경의 연경대학 문학원에 입학하여 1년간 공부하고는 1930년 9월에 유럽으로 건너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및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을 거쳐 1935년 오스트리아 대학에서 <문화사적 견지에서 본 한국사> 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김사량은 1939년 3월 졸업논문 <하이네: 최후의 낭만주의자> 를 제출하고 동경제국대학 졸업식도 참석하지 않고 혼자서 북경을 여행하였다. 그는 북경 연경대학에 재학 중인 종형을 만나서 미션계인 연경대학을 통하여 미국 유학을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⁷⁸⁾.

11. 나오면서

이상은 주로 북경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잊혀졌거나 아직도 희미하게

록강은 흐른다'의 비교 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13쪽.

77) 최윤영, 41쪽.

78) 안우식 저/최하림 역, 《아리랑의 비가》(열음사, 1987), 79쪽.

기억되고 있는 우리 근대 지식인들의 편린들이다.

이외에도 북경은 무수한 친일 밀정들이 안테나를 곤두세우고 정보 수집에 여념이 없었던 활동 무대였고, 이곳저곳을 기웃이며 돈벌이 감을 사냥했던 윤락된 보헤미안들의 은거지였으며, 한인 종교 활동가들의 포교지, 그리고 몇 안 되기는 하지만 한인 교수들이 중국 인재 양성에 종사하던 교수의 장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이 촘촘히 보강된다면 북경 거주 한인 동태를 파악하는데 더 실감이 날 것이다. 다만 자료의 부족으로 보완하지 못한 점, 또한 유감이다. 그리고 당시 중국 지식인들과의 멋진 만남도 후일을 기약해야겠다.

이러한 조각을 짜 맞추는 것도 역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자 이국의 땅에서 잠들지 못하고 떠도는 선조들의 영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지금 우리 근대 지식인에게 북경은 과연 무엇으로 다가오는가?

[參考文獻]

- 이극로, 《고투 40년》(을유문화사, 1947).
 이정규, 《又觀文存》(삼화인쇄출판부, 1974).
 이은숙,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정음사, 1978년 중판).
 김영기, 《중국대륙예술기행》(예경산업사, 1990).
 편집부 편, 《한국문예사전》(어문각, 1991년 5월).
 강대길·성대경 엮음, 《한국 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창작과 비평사, 1996).
 서경석, 《한설야: 정치적 죽음과 문학적 삶》(건국대학교 출판부, 1996).
 신일철, 《현대 사회철학과 한국사상》(문예출판사, 1997).
 오장환 지음, 《한국 아나키즘운동사 연구》(국학자료원, 1998).
 임중빈, 《단재 신채호: 그 생애와 사상》(명지사, 1999년 중판).
 김사랑 지음/김재용 편주, 《노마만리》(실천문학사, 2002).
 안우식 지음/심원섭 옮김, 《김사랑 평전》(문학과 지성사, 2000).
 김희곤, 《새로 쓰는 이육사 평전》(지영사, 2000).
 鄭春, 《留學背景與中國現代文學》(山東教育出版社, 2002).

- 潘君明 편저, 《中國歷代監獄大觀》(法律出版社, 2003).
- 최은희, 《여성을 넘어 아낙의 너울을 벗고: 한국 최초의 여기자 추계 최은희의 개화여성 열전》(문이재, 2003).
- 안재성 지음, 《경성 트로이카》(사회평론, 2004).
- 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 지음, 《조선일보 사람들: 일제시대 편》(랜덤하우스중앙, 2004).
- 김형직 주필, 《격정세월: 문정일 일대기》(북경 민족출판사, 2004).
- 정병호 지음, 《춤추는 최승희》(현대미학사, 2004).
- 박용규 지음, 《북으로 간 한글운동가: 이극로》(도서출판 차승, 2005).
- 이기형, 《여운형 평전》(실천문학사, 2005).
- 이원규 지음, 《약산 김원봉》(실천문학사, 2005).
- 면담 이정식/편집해설 김학준/수정증보 김용호, 《혁명가들의 항일회상》(민음사, 2005).
- 아사노 도요미 감수·해설/이길진 번역, 《살아서 돌아오다: 해방공간에서의 귀환》(술, 2005).
- 이원규 지음, 《김산 평전》(실천문학사, 2006).
- 최윤영, 《한국문화를 쓴다: 강용홀의 '초당'과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 비교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 조성환 편주, 《북경과의 대화: 한국 근대 지식인의 북경 체험》(미간).
- 孫豔紅, 〈1920년대 전반 북경지역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국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년 6월).
- 김윤식, 〈한국문학 속의 북경반점〉, 《우리 시대의 중국문학 기행》(현대문학, 1994).
- 민두기, 〈李允宰(1888~1942)의 중국 경험과 한국: 1920년대 한국에 있어서 하나의 指南으로서〉, 《시간과의 경쟁: 동아시아근현대사논집》(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2).
- 서경석, 〈한설야의 '열풍'과 북경 체험의 의미〉, 《국어국문학》 131.
- 김윤식, 〈베이징, 1938년 5월에서 1945년 5월까지: 김사랑의 '향수'와 '노마만리'〉
- 성기조, 〈한국문단, 남기고 싶은 이야기·6: 문둥이가 아니란 韓何雲의 절규〉, 《수필시대》 2006:9-10.

[中文摘要]

這篇文章是從記憶追求者(Memory Seekers)角度來分析日帝強占時期在北京韓人知識分子的各種活動的。日本合併韓國前後，很多韓國愛國分子來到中國從事抗日獨立運動，其中，對於定住北京的韓人，比如李會榮(1867~1932)、曹成煥(1875~1948)、金昌淑(1879~1962)、申采浩(1880~1936)、金星淑(1898~1969)、張志樂(又名金山; 1905~1938: 《Song of Ariran: The Life Story of a Korean Rebel》(by Kim San & Nym Wales)》的主人公)等來說，北京是實現抗日獨立運動的流亡地。對於作家李光洙(1892~?)來說，北京是愛情的逃避處，對於申采浩、評論家白鐵(1908~1985)來說，北京是新婚的樂園。

日本關東大震災以後，年輕的韓國學生煥然到北京來留學，對於金星淑、考古學家都宥浩(1905年生)、韓文學者李允宰(1888~1943)、張志樂、東洋哲學家李相殷(1905~1976)、中文學者丁來東(1903~1983)、書法家金永基(1911~2003)來說，北京是學習園地。1921年，李允宰考入北京大學歷史系，同年，張志樂是考入協和醫學院，1923年，金星淑入民國大學留學，1925年，李相殷考中北京大學，1929年9月，都宥浩考入燕京大學，1932年，金永基考入輔仁大學學習。這些人回國以後，努力培養人才，起了韓國近代化的作用。

對於湖巖李秉喆(1910~1987)來說，北京是掌握可以掙錢的時機之貿易場。1938年，李秉喆在韓國大邱設立‘三星商會’，開始跟滿洲、北京等地做貿易。

對於河蘭史(1875~1919)、朴容萬(1881~1928)、李陸史(1904~1944)、李元大(1911~1943)來說，北京是死亡之處。他們都是在北京死的。

對於李會榮、柳自明(1891~1985)、李丁奎、李乙奎、白貞基(1895~1934)、鄭賢燮(又名鄭華岩, 1896~1981)等來說，北京是無政府主義者的活動舞臺。1924年4月，李會榮、柳自明、李丁奎、李乙奎、白貞基、鄭賢燮等六個無政府主義者在北京組織〈在中國朝鮮無政府主義者聯盟〉，出版了自己刊物《正義公報》(旬刊)。

對於金台俊(1905~1949)、安漠(1910~?)、金史良(1914~1950)等來說，北京是走向叫做‘中國革命的聖地’，‘東方共產主義者的耶路撒冷’的‘延安’之逃脫口。

北京是韓人觀劇的主要舞臺，也是韓國藝人常常來表演的舞臺。有的韓人首先到北京，一邊學習漢語、外語，一邊辦中國國籍或歐美留學的手續，最後到歐美繼續進修學業。

關鍵詞：日帝強占時期，北京韓人知識分子，定住北京的韓人，留學北京的韓人，貿易在北京的韓人，政治在北京的韓人

沈從文的 향토소설과 자연

— 《邊城》의 강과 《鳳子》의 산을 중심으로 —

안승웅*

〈목 차〉

1. 들어가며
2. 《邊城》과 강
3. 《鳳子》와 산
4. 강과 산, 그리고 인간
5. 맺으며

1. 들어가며

30년대에 성숙기를 맞이한 沈從文의 향토소설은 작가의 특이한 군대 경험과 농민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생명력 가득한 湘西지역의 아름다운 풍속과 인정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서구사상과 계몽정신의 영향을 받은 청년 지식인들이 도시 문명인의 관점으로 다소 천편일률적으로 농촌을 비판하고 회고하였던 20년대 향토소설과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주지하듯, 沈從文 향토소설의 향토성과 서정성은 작품 속 자연에 대한 묘사와 이것이 제공한 문학적 상상력의 공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从边城走向世界》, 《沈从文-建筑人性的神庙》 등의 연구 성과에서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강사

제시된 ‘도시문명 비판’, ‘인성의 치료’, ‘생명미학의 추구’ 등등은 모두 작품 속 자연의 의미와 이것의 해석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의미에서 沈從文 향토소설을 한 층 깊이 이해하는 핵심관건은 바로 작품 속 자연에 대한 심화된 인식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 속 자연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에 비해 자연자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沈從文 향토소설 속 자연의 특징을 언급하면서도 이것이 작품 속에서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는 중국 전통적인 자연관의 입장이나 혹은 湘西지역적 특색에 귀결시켜버림으로써, 沈從文 향토소설만이 지니는 자연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의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沈從文 향토소설에 나타나는 자연의 의미를 고찰함에 있어 《邊城》과 《鳳子》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우선, 《邊城》과 《鳳子》는 沈從文의 자연관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邊城》은 沈從文의 대표작으로서 자연풍광과 인물들의 묘사가 아름다워 일찍이 “21폭의 채색화로 연결되어진 두루마리”¹⁾라 극찬을 받은 작품이다. 《鳳子》는 비록 미완성 장편으로서 예술성이 떨어지고 작가의 주관이 쉽게 드러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자연에 대한 작가의 사색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즉, 이 두 작품은 하나는 예술적 성취로써 또 하나는 작가의 화려하고 사변적인 연변으로써 자연의 의미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그리고 《邊城》과 《鳳子》는 동양적 자연관을 대표하는 자연물인 강과 산을 각각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沈從文은 일찍이 산이 높고 물이 거센 湘西지형이 고향사람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두 작품의 배경은 ‘산수화’로 대표되듯 동양적 자연관을 대표하며 동시에 沈從文 향토소설에 있어서도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그리고 실제로 작품 속의 산과 강은 단순한 배경에 머물고 있지 않고 이야기의 전개와 주제 형성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

1) 又象是二十一幅彩画连成的画卷。司馬長風,〈論沈從文創作〉,《沈從文研究資料》(邵華強編,廣東:花城出版社,1991),上集,574쪽.

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邊城》과 《鳳子》 두 작품 속의 주요 자연배경인 산과 강의 상징적 의미와 작중 역할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면 沈從文 향토소설에 일관되게 관통하는 자연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작업은 沈從文 향토소설에 나타나는 자연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또한 생태주의 문학이라는 각도에서 沈從文 향토소설의 현대적 의미를 고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 《邊城》과 강

《邊城》은 1934년 1월 신문의 연재소설로 발표되어 이 해 말에 완성되었다. 작품은 茶峒마을 강가를 지키는 늙은 뱃사공의 외손녀 翠翠와 이 마을의 유지인 順順의 두 아들 - 天保와 儼送 사이에 일어난 사랑이야기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翠翠를 동시에 사랑하게 된 형제는 사랑의 대결을 펼치게 되고, 형인 天保가 패배를 하게 된다. 그런데, 사랑의 대결에 져서 화감에 길을 나섰던 天保가 사고로 죽게 되자, 뱃사공을 중심으로 각종 오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 때문에 儼送은 順順과 다툰 뒤 마을 떠나버리고 뱃사공마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결국 홀로 남게 된 翠翠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儼送을 나룻터를 지키면서 기다린다. 소설의 전개와 결말을 볼 때 이 소설은 애정비극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邊城》의 비극은 일반적 애정비극의 모습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인 애정비극들처럼 애정당사자들, 혹은 그들 대리인인 부모간의 모순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등장인물들 사이의 계층, 빈부, 혹은 이념 등의 갈등과 모순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에 《邊城》의 비극은 단순한 몇몇 오해와 뜻밖의 몇몇 죽음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애정이야기가 오해와 죽음이라는 우연한 사건으로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연의 남발에 따른 이야기 진실성의

훼손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다면 오해와 죽음이 소설의 진실성을 떨어뜨리는 우연한 사건들로 그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 이는 바로 이 애정 이야기 뒤에는 오해와 죽음이라는 우연한 사건들의 긴장을 조성하기도 하며 또 이것을 해결해 주기도 하는 숨어있는 제3의 주인공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작품의 주요 배경인 강이라 할 수 있다. 이 강은 다동 마을을 감싸고 흐르면서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강은 일찍이 인간의 상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작가는 일찍이 자신의 이야기가 강물이 알려준 것이라 하고 자신의 세계관 형성에 강이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²⁾ 그리고 《邊城》에서 강은 서로 상반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작품의 주제 형성에 풍부함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강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는 무엇이며 또 이것의 작중 역할은 무엇인가를 고찰하면 《邊城》에 숨어있는 자연의 한 의미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邊城》에서 강은 먼저 풍요, 사랑, 생명을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존재로 나타난다. 《邊城》의 앞부분에는 다동 마을의 강물에 대한 묘사가 많이 등장한다. 이 강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맑은 생명수처럼 묘사되기도 하는데, 작품은 이 강물에 의해 물가 마을이 형성되어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강물의 인간에 대한 혜택은 주인공 傩送과 天保의 아버지인 順順의 지난 경력에서 잘 드러난다.

고향에 돌아와서 그는 모아 두었던 약간의 돈으로 여섯 개의 노가 달린 한약 목선을 사서 가난한 선주에게 세를 주었는데, 사람들을 대신하여 물건을 싣고 다동과 진주 사이를 왕래하였다. 운이 좋았던지 반 년 동안 별

2) 沈從文은 물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자전적 단편소설 〈來客〉와 산문 〈我寫作與水的關係〉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写小说是水告他的”, “我学会用小小脑子去思索一切, 全亏得是水”。沈從文, 《沈從文文集》(凌宇, 邵華強 編, 廣東: 花城出版社, 1991) 제6권 197쪽, 제11권 323쪽.

탈이 생기지 않아 그는 돈도 모았고, 게다가 약간의 재산이 있는 흰 얼굴에 까만 머리의 젊은 과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다. 수 년 후 이 강물 위에서 그는 크고 작은 네 척의 배와 더불어 아내와 두 아들을 거느리게 되었다.³⁾

順順이 부둣가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을 정도로 다동 마을에서 유지로 자리를 잡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강물의 풍요로운 혜택 때문이었다. 이는 강물 위에서 네 척의 배와 아내 두 아들을 거느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이 강물은 順順에게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그리고 자신의 자식까지 보내주었다는데서 드러나듯, 강물은 풍요뿐만 아니라 사랑, 그리고 새로운 생명까지 가져다주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다동 마을의 강물이 사랑과 새로운 생명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는 점이기도 하다.

할아버지는 밤이 깊어갈수록 흥이 더해서 翠翠를 위해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다. 그러다가 20년 전 이 지방 사람들의 노래 부르던 풍조가 어떻게 사천성과 귀주성의 변경지방까지 이름을 날렸는지 하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중략--. 翠翠가 물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뱃사공이 말하였다. “그 뒷이야기는 매우 길단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노래가 너를 낳았다는 거지.”⁴⁾

뱃사공은 翠翠 부모의 사랑의 노래가 翠翠를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3) 回到了家乡, 把所积蓄的一点钱, 买了一条六桨白木船, 租给一个穷船主, 代人装货在茶峒与辰州之间往来。运气好, 半年之内船不坏事, 于是他从所赚的钱上, 又讨了一个略有产业的白脸黑发小寡妇。数年后, 在这条河上, 他就有了大小四只船, 一个妻子, 两个儿子了。沈從文, 《邊城》《沈從文文集》(凌宇, 邵華强 編, 廣東: 花城出版社, 1991), 제6권 82쪽.

4) 祖父夜来兴致很好, 为翠翠把故事说下去, 就提到了本城人二十年前唱歌的风气, 如何驰名于川黔边地…(略)…翠翠问: “后来怎么样?” 祖父说: “后来的事长得很, 重要的事情, 就是这种歌唱出了你。” 沈從文, 《邊城》《沈從文文集》(凌宇, 邵華强 編, 廣東: 花城出版社, 1991), 제6권 132-133쪽.

있는데, 翠翠를 낳게 한 이 사랑의 노래는 바로 강물과 관련이 있다. 강물은 대지의 젖줄로서 대지를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대지의 가장 훌륭한 발성기관이기도 하다. 강물의 흐르는 소리는 대지에서 소생하는 모든 생물들이 내는 소리의 始原이 되며, 생명력이 넘치는 자기 표현이 될 수 있다.⁵⁾ 이러한 강물의 소리는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는 사랑의 노래와 관련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翠翠 부모가 강물 사이에서 두고 노래로써 사랑을 속삭였다는 것은 翠翠의 탄생이 강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翠翠 또한 儼送와 함께 강물 사이에서 두고 사랑의 노래를 하는 것이다. 이렇듯 끊임없이 생성되고 마을을 풍요롭게 하는 강물은 생명의 원천으로서 다동 마을의 젊은 세대인 翠翠, 天保, 儼送의 탄생과 관련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강은 풍요, 생명, 사랑과 상반되는 파괴, 죽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강에 봄물이 넘쳐 물이 점점 거리로 들어오게 되면, 물가의 사람들은 저마다 긴 사다리를 이용하여 한쪽 끝은 자기 집 처마 위에, 또 한쪽 끝은 성벽 위에 걸치고서 아우성을 치면서 보따리, 이불, 쌀독 등을 든 채로 사다리를 타고 성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물이 다 빠져나가면 성문을 통해 성을 나선다. 어떤 해에 물살이 특히 더 거세게 몰아칠 때면 강가의 적루는 반드시 한 두 곳씩은 홍수에 휩쓸려 내려가는데 모두들 그저 성벽 위에서 멍청히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다. 직접 손해를 입은 사람들도 마치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멍청히 바라볼 뿐이었는데, 이는 대자연의 안배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여러 불행들이 오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였다.⁶⁾

5) 가스똥 바술라르, 《물과 꿈》(서울: 문예출판사, 1987), 266-278쪽 참고.

6) 河中涨了春水，到水逐渐进街后，河街上人家，便各用长长的梯子，一端搭在屋檐口，一端搭在城墙上，人人皆骂着嚷着，带了包袱，铺盖，米缸，从梯子上进城里去，水退是方又从城门口出城。某一年水若来得特别猛一些，沿河吊脚楼必有一处两处为大水冲去，大家皆在城上头呆望。受损失的也同样呆望着，对于所受的损失仿佛无话可说，与在自然安排下，眼见其他无可挽救的不幸来时相似。沈從文，《邊城》《沈從文文集》(凌宇，邵華強編，廣東：花城出版社，1991)。

위 장면은 강물의 범람으로 속수무책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강물은 이처럼 인간이 이루어 놓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삼시간에 남김없이 거두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자연의 힘을 지닌 강물은 인간의 생명까지 거두어 가는 것으로 묘사된다. 즉, 죽음 그 자체는 인간이 그것에 투쟁하려 하나 어쩔 수 없이 굴복해야만 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자연의 힘인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의 상징으로서의 강물은 작중인물들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翠翠를 낳고 찬 강물을 마시며 죽어간 翠翠 모친의 죽음과 물에 빠져 죽은 天保의 죽음은 모두 강물이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간 것이다. 죽음의 상징으로서의 강물은 뱃사공에 의해 다음과 같이 상징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

뱃사공은 손으로 밧줄을 끌어당기면서 강의 표면에서 올라오는 얇은 안개를 바라보다가, 마치 그 속에서 무언가를 본 것처럼 가벼운 한숨을 내뿔었다.⁷⁾

뱃사공은 마을에서 나룻터가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해질 무렵 물안개가 피어나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다. 작품에서는 뱃사공이 강에서 무엇을 바라보았고 무슨 생각으로 한숨을 내쉬었는지 별도로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강물의 파괴와 죽음이라는 속성을 생각한다면 그 의미는 곧 드러난다. 뱃사공은 강물을 바라보면서 십 수 년 전 물가에서 죽어간 자신의 외동딸을 떠올리게 되고 자신 또한 강물의 흐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예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뱃사공의 죽음 또한 그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나룻배가 강물에 떠내려간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⁸⁾

제6권 77쪽.

7) 祖父把手攀引着横缆，注目溪面的薄雾，仿佛看到了什么东西，轻轻的吁了一口气。沈從文，《邊城》《沈從文文集》(凌宇，邵華強 編，廣東：花城出版社，1991)，제6권 95쪽.

이상에서 강의 이중적 속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작품의 전개를 통해 강물의 이중적 상징으로 나타나는 풍요와 파괴,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들은 인간의 의지 혹은 이성으로써 주재할 수 없는-다시 말해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필연의 차원이 아닌 -우연적인 사건들로서, 작중인물들의 오해와 죽음이라는 우연적 사건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이 마음대로 비켜갈 수 없는 운명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우연의 힘은 《邊城》에서는 위에서 살핀 바대로 강물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풍요 파괴 생명, 죽음이라는 우연의 초월적 힘을 상징하는 강은 《邊城》의 다동 마을을 감싸고 흐르면서 작중인물들의 오해와 죽음이라는 우연적 사건들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작중인물들의 사랑을 발생시키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邊城》에서의 강은 우연과 정감이 착종된 인간 삶의 숨은 주재자인 운명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邊城》에 나타나는 강은 운명의 상징으로서 작품 속 오해와 죽음이라는 우연적인 사건들의 개연성을 확보하게 하고, 또한 《邊城》으로 하여금 단순한 애정이야기에 머물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鳳子》와 산

1933년에서 1937년까지 5년 동안의 창작기간 동안에도 끝 내 완성되지 못한 《鳳子》는 沈從文이 오랜 기간동안 욕심을 가졌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독특한 형식을 지닌 작품이기도 하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작가가 직접 등장하는가 하면 이것도 모자라 작가의 대리인이 등장하여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액자소설 형식을 띠고 있다. 이야기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8) 필자, 《변방의 어느 마을(邊城) 주제연구》(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93쪽 참고.

도시에서 실연의 아픔을 겪은 작가는 아픔을 잊고자 靑島에 은거를 하게 된다. 그리고 해변에서 우연히 신원이 확실치 않는 노신사와 아름다운 여인 鳳子를 만나게 된다. 작가는 봉자라는 여인에 대해 알고 싶었으나 결국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된다. 다음해에 작가는 별장에서 은둔 생활하는 노신사를 만나게 되고, 그가 20년 전 작가의 고향을 한 마리 물고기처럼 떠돌아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둘은 곧, 작가의 고향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소설은 여기서 20년 전 노신사가 젊은 광산 기술자로 등장하는 액자소설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도시의 젊은 광산기술자는 촌장의 안내로 산골마을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곳은 사람들 모두가 신의 안배대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곳이다. 촌장은 그곳 산골 여인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광산기술자는 마침내 밤나무 숲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잠깐 동안의 만남이었지만 그녀를 잊지 못한 광산기술자는 자신도 모르게 여인을 다시 찾아 나서게 된다. 그러나 모든 마을 사람이 모이는 마을 축제에서도 그녀를 만나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소설의 이야기는 끝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액자 밖의 이야기 주인공인 작가가 사라진 여인 鳳子에 대해 궁금해 하고, 액자 속의 이야기 주인공인 광산기술자가 밤나무 숲에서 만난 여자를 궁금해 하는 것을 통해, 이 작품의 결말은 결국 액자 밖으로 나와 鳳子의 정체 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鳳子라는 신비한 여성의 정체는 작가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액자 속 과거의 주인공인 광산기술자가 찾아 나서는 밤나무 숲의 여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즉, 이 鳳子라는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리고 이 여성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작품 《鳳子》는 미완성 장편으로서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鳳子和 밤나무 숲의 여인이 잠깐 등장하고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작품의 전개양상 및,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여인의 정체와 의미를 유추해 낼 수밖에 없다.

《鳳子》에서 본격적인 이야기는 광산기술자가 촌장의 안내로 산골

마을을 찾아 산길을 가는 것에서 시작되고 작품의 대부분이 산에 대한 묘사와 산의 아름다움에 관한 찬장과 광산기술자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작품의 배경에 등장하는 산은 작품의 주제인 여성의 정체 그리고 이것의 의미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 《邊城》의 강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자연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은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 혹은 올림포스처럼 신이 거주하는 곳 등의 의미와 함께 신비의 대상으로서 다양한 상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산의 상징적 의미가 다양하다는 것은 강물처럼 상반되는 이중적 속성을 자체 내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산을 구성하는 요소들, 곧, 높이, 수직성, 질량, 형태 등이 환기하는 다양한 암시성 때문이다.⁹⁾ 따라서 《鳳子》 속에 나타나는 산의 의미는 산에 대한 그 구체적 묘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鳳子》의 액자 안 내용은 산에 대한 묘사에서 시작되고 있다.

변경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이의 성루는 변경의 산 봉우리 북쪽 지맥에 위치하고 있었고, 변경의 산에서 발원한 한 줄기 강이 이 돌로 축성된 조그만 성을 굽이굽이 감싸 안고 있었다. 성루 앞쪽에는 그리 힘들지 않을 것 같은 경사지가 펼쳐져 있는데, 지형은 점차 넓어져 마치 부채 하나를 펼쳐놓은 듯한 평원을 이루고 있었다. 가을철 이 평원이 아름답게 물들기 시작하면 농사와 가을걷이가 비로소 끝을 맺게 되는데, 밭 가운데 곳곳은 모두 황금색 짙단 더미와 흰 나무로 만든 임시 창고들이 들어선다. 이 평원은 햇빛아래 한 폭의 동양자수와 같았다.

성루 뒤편이 의지하고 있는 한 줄기 산맥에는 큰 나무들 천지였다. 질푸르고 무성한 왕 삼목 나무들은 하늘로 치솟아 있어 멀리서 보면 진한 녹색의 지역을 이루고 있었다. 큰 소나무들은 하늘로 구불구불 자라 마치 이무기가 머리를 쳐들고 뛰어 오르는 것 같았다. 오래된 은행나무의 잎은 이미 황금색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못 나무들 가운데 누른 색 두루마기를 입은 귀인과 같았다.¹⁰⁾

9) 이승훈 편저, 《문학상징사전》(서울: 고려원, 1995), 270-272쪽 참고.

10) 邊境地方一地之主的城堡, 位置在邊境山嶺的北方支脈上, 由發源于邊境山中

위의 산에 대한 묘사는 광산기술자가 작가의 고향인湘西지역을 방문했을 그가 보고 느낀 것을 적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묘사를 통해서 우리는 산이 두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곳은 산 중턱 성루를 경계로 경사가 완만한 지역으로서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다. 또 다른 한 곳은 성루 뒤쪽 자연의 원시림으로서 남아 있는 지역이다. 완만한 지형의 산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으며, 동시에 강물을 발원시키고 곡식도 심을 수 있게 하여 인간에게 물질적인 혜택도 주는 지역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인간에게 혜택을 주는 산은 귀중한 광물인 수은, 주사를 생산해내기도 하는데, 주인공은 이러한 광물들이 옛날 불로장생을 꿈꾸는 도사들의 식량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산이 인간의 꿈까지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한 지역인 성루 뒤쪽 산등성이는 오래된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자라고 자연의 원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원시림 지역 또한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험악한 산으로 묘사되지는 않고 있다. 단지 오래된 나무들이 아름답게 자태를 뽐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산에 대한 묘사에는 특별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있다면 산이라는 자연에 의지한 채, 공간적 물질적 혜택을 받으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있는 평화로운 산골마을을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산은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새벽의 아름다움은 당연히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사람의 문

那一道溪流，弯弯的环抱了这个石头小城。城堡前面一点，下了一个并不费力的斜坡，地形渐次扩张，便如一把扇子展开了一片平田。秋天节候华丽了这一片大坪，农事收获才告终结，田中各处皆金黄色的草积，同用白木作成的临时仓库，这田坪在阳光下便如一块东方刺绣。城堡后面所依据的一支山脉，大树千章，葱茏郁合，王杉向天空矗去，远看成一片墨绿。巨松盘旋空际，如龙蛇昂首奔起。古银杏树木叶，已开始变成黄色，艳冶动人，于众树中如穿黄袍之贵人。沈從文，《鳳子》《沈從文文集》(凌宇，邵華強 編，廣東：花城出版社，1991)，제4권，340쪽.

자로서는 아직까지는 새벽 햇살 아래의 모든 것을 묘사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오솔길 옆 풀 끝 위 거미줄 위에 아침이슬이 구슬처럼 맺혀 있어 새벽 햇살 속에서 오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긋나긋한 듯, 사뭇 사뭇한 듯, 미소를 짓는 듯, 부끄러워하는 듯,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또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¹¹⁾

위 장면은 광산으로 가기 위해 새벽에 길을 나선 광산기술자와 촌장이 바라본 새벽의 산 속 경치에 대한 묘사이다. 주인공은 새벽 햇살 아래 비추어지는 이러한 아름다운 풍경은 인간의 문자로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다고 까지 단언하고 있다. 《鳳子》에는 이러한 산 속의 풍경을 예찬하는 글들이 많이 나온다. 돌 한 조각, 산새, 들풀, 야생화, 오래된 나무 그 어느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심지어는 손을 대기만 하여도 증독되어 손을 잘라야 되는 독초까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곳 산이 지니는 자연의 절대적인 아름다움 속에서 주인공은 문득 아름다운 자연은 누가 만들었고 또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가라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

이러한 주인공의 속마음을 알기나 한 듯 촌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신은 정말 총명합니다. 모든 것을 이토록 아름답게 창조하고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찬미하는 말을 만들게 하니 말입니다.”¹²⁾ 즉, 촌장은 산의 아름다움은 신이 창조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작품은 도입부분에서 “이 지역 통치자는 몇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신이 제일 먼저이고 그 다음이 관이다, 또 그 다음은 촌장과 종교행사를 집행하는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다.”¹³⁾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지역 사람들이 얼

11) 早晨的美丽照例不许形容的因为人世的文字，还缺少描写清晨阳光下一切的能力。单只路旁草尖上，蛛网上露水所结成的珠子，在晨光中闪耀的五色，那种轻盈与灵活，是微笑，是羞怯，是谁作成又为谁作？沈從文，《鳳子》，《沈從文文集》（凌宇，邵華強 編，廣東：花城出版社，1991），제4권 345쪽.

12) 神是聰明的，他把一切創造得那麼美麗，却要人自己去創造讚美語言。沈從文，《鳳子》，《沈從文文集》（凌宇，邵華強 編，廣東：花城出版社，1991），제4권 345쪽.

13) 地方統治者分數種：最上為天神，其次為官，又其次才為村長同執行巫術的神的侍奉者。沈從文，《鳳子》，《沈從文文集》（凌宇，邵華強 編，廣東：花城出版

마나 신을 믿으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촌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곳 湘西지역의 신은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 이 지역의 신은 기독교의 하느님처럼 그렇게 완고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신의 의미는 단지 자연일 뿐입니다. 생성되는 모든 현상들은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합리적이고 관용적이고 아름답습니다.¹⁴⁾

촌장은 이곳 湘西 지역과 아름다운 산을 창조한 신은 다른 아닌 자연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신의 의미는 범신론적 원시종교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어, 광산기술자이자 도시인인 주인공은 처음에는 촌장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인공은 이곳의 생활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산이 가져다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점차 완전히 수긍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것은 이 鎮筵지역 天神의 지배하에 이루어졌고, 이러한 신의 행하심은 먼 곳에서 온 어떠한 손님일지라도 단지 찬미하고 감사의 말을 하게 할 뿐이다.”¹⁵⁾라고 말하게 된다.

이상의 산에 대한 묘사와 산이 지닌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촌장과 의 대화에서 우리는 산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작중 주인공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은 바로 자연이며 관용적이고 아름답다’는 말을 통해서 《鳳子》의 배경이 되는 산의 의미는 이 지역의 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위의 예문에서 살펴보았듯

社, 1991), 제4권 330쪽.

14) 我们这地方的神不象基督教那个上帝那么顽固的。神的意义在我们这里只是‘自然’，一切生成的现象，不是人为的，由于他来处置。他常常是合理的，宽容的，美的。沈從文，《鳳子》，《沈從文文集》(凌宇，邵華強編，廣東：花城出版社，1991)，제4권 346-347쪽.

15) 一切皆为镇筵地方天神所支配，则这种神的位置，是使任何远方来客皆只有赞美和感谢语言的。沈從文，《鳳子》，《沈從文文集》(凌宇，邵華強編，廣東：花城出版社，1991)，제4권 350쪽.

이 산은 인간에게 공간적 물질적 심지어는 꿈까지 제공하는 관용적인 존재이며 또 아름다운 존재로 나타나는데 이는 촌장이 말하는 신의 의미와 일치한다. 따라서 《鳳子》에서 나타나는 산의 의미는 신의 관용적인 속성 그리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대표적인 자연 물이자 신성을 지닌 존재인 것이다.

그렇다면 광산기술자가 여인을 만난 곳이 산 속 밤나무 숲이었다는 것은, 그리고 그가 한 눈에 반했다는 것은, 여인의 정체와 의미-작품의 주제라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여성의 의미-는 산이 지니고 있는 신성함과 관련이 깊은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작품에서는 여인과의 첫 만남과 헤어짐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면서 그녀의 신비감을 강조하고 있다.

갑자기 근처에서 한 여자의 노래 소리가 들렸는데, 마치 노래를 아는 새가 그 맑고 아름다운 목으로 지저귀는 것 같았다. --중략-- 그는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방향으로 바라보았다. 얼마 안 되어 과연 남색 치마와 매끈한 긴 다리가 밤나무 숲 끝 관목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시 얼마 안 되어 전신이 드러난 후에 도시 사람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 또한 도시 사람을 바라보게 되자, 곧 노래를 멈추고는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 천신의 딸, 정령, 미의 화신.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은 노루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 반인반수의 그녀는 오히려 도망갈 생각은 않고 잠시 주저하다가 입을 약간 오므리고는 계속 걸어왔다.--중략-- 낯선 사람이 고개 숙여 대답할 말을 궁리하고 있는 때를 틈타, 이 여자는 일어나서 바구니를 팔에 차고서 마치 화살마냥 가볍고 빠르게 밤나무 숲으로 금방 사라져 버렸다.¹⁶⁾

16) 忽然近处一个女子的歌声，如一只会唱的鸟，啾动了它清丽的喉咙。…(略)…他便望到歌声泛滥的那一方，不过一刻，果然就见到一条蓝色的裙同一双裸露着长长的腿子，在栗林盡头灌木丛中出现了。再一会儿全身出现后，城市中人望到了她，她也望到了城市中人，就陡然把歌声止住，站定不动了。一个 ++ 天神的女儿，一个精怪，一个模型！那种略感惊讶的神情，仍然同一獐鹿见了生人神情一样。但这个半人半兽的她并不打量逃跑，略迟疑了一下，就抿了嘴仍然走过来了。…(略)…乘到陌生人低下头去思索那种回答的言语时，这女孩子站了起来，把篮子挂在手腕上，好象一枝箭一样，轻便的，迅速的，向栗林射去，一会儿便消灭了。沈從文，《鳳子》，《沈從文文集》(凌宇，邵華強編，廣東：花城出版社，1991)，제4권 356-361쪽.

위 장면은 노래 소리와 함께 나타났다가 화살처럼 홀연히 사라져 버린 여인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그녀가 평범한 여인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여인의 새 소리 같은 노래 소리, 숲에서의 신비한 출몰, 숲 속의 작은 동물과 같은 자태, 천진함 표정 등등은 숲의 아름다움과 어울려 인위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 이러한 여성은 도시에서 실연을 경험한 액자 밖의 작가와 문명의 세례를 받은 도시 지식인 광산기술자가 이전에 겪었던 도시의 여성이 아니다. 광산기술자는 그녀를 처음 보자마자 천신의 딸, 정령, 미의 화신이라고 경탄하는 것이다. 여인에 대한 이러한 경탄은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단순한 과찬이 아니다. 그는 실제로 그녀가 산의 정령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녀와의 만남 이전에 산이 지니고 있는 관용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것의 신적인 의미에 대해 완전히 동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액자소설 속 광산기술자가 밤나무 숲 여인에게 느끼는 경외감이 액자 밖 작가가 봉자라는 여인에게 느끼는 경외감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봉자라는 여인 또한 산의 정령처럼 자연의 관용과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鳳子》에서의 산은 봉자라는 여인의 정체와 의미를 유추하게 하고 부각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작품의 주제의 형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4. 강과 산, 그리고 인간

이상에서 운명의 상징 혹은 신성의 근원으로서 강과 산의 작중역할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과 산이라는 자연은 작가의 내면 혹은 창작세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우리는 고전의 명구 “知者樂水, 仁者樂山”¹⁷⁾을 떠

올릴 수 있다.

물과 같이 항상 유동적이면 세상과 사물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 또한 물과 같이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면 세상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본받고 좋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산과 같이 중후하면 세상과 사물의 변화에 흔들리지 항심을 지닐 수 있다. 그리고 산과 같이 고요함을 유지하면 인간사의 이해득실을 초탈한 본질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어진 자는 산을 본받고 좋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혜로운 자로서 沈從文은 물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 그는 일찍이 물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의 감정은 유동적이며 응고되지 않아서 한 조각의 푸른 파도라도, 나에게 준 영향은 실제로 적지 않다. 나의 학교는 물가에 있었다. 내가 미를 알고 사색을 하는데 물은 나와 극히 큰 관계를 가지고 있다.¹⁸⁾

작가의 이러한 말은, 곧 그가 물을 통해 인생의 본질을 형상적이며 거시적으로 탐색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형상적이며 거시적인 탐색은 곧 인생형식의 탐색으로 구체화 되었다.

내가 표현하고자 한 것은 본래 일종의 인생형식이다. 아름답고 건강하며 자연스럽고 또 인성에 어긋나지 않는 인생형식인 것이다. 나의 생각은 독자를 인도하여 도원 여행을 하게 하는데 있지 않고, 오히려 도원 상류 칠백 리 길 유수 유역의 소도시 속의 몇몇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의 보통 사건에 의해 한 곳에 연루되었을 때 각자가 갖게 되는 애락을 빌어 인류의 사랑이란 말에 꼭 알맞은 설명을 한 번 하고자 한 것이다.¹⁹⁾

17) 《論語》〈雍也篇〉.

18) 我感情流动而不凝固, 一波清波给予我的影响实在不少。我幼小时较美丽的生活, 大部分都同水不能分离。我的学校可以说是在水边的, 我认识美, 学会思索, 水对我有极大的关系。沈從文, 《從文自傳》, 《沈從文文集》(凌宇, 邵華強編, 廣東: 花城出版社, 1991), 제9권 109쪽.

19) 我要表现的本是一种人生形式, 一种优美、健康、自然而又不悖乎人性的人生

沈從文은 평범한 마을 사람들, 그리고 보통 사건을 빌어 인생 본연의 모습과 나아가 인류의 사랑까지도 보여주려 한다.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작가의 시도는 강이라는 매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작가가 강과 함께 바라본 인생형식은 아름답고 건강하고 자연스럽고 인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 찬 것이기도 했다. 이는 작가의 아래의 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당신들은 내 이야기의 깨끗하고 새로운 면을 즐길 수 있겠지만, 여전히 작품의 배후에 담겨 있는 열정은 지나쳐 버릴 것이다. 당신들은 내 문장의 질박한 면을 즐길 수 있겠지만 작품의 배후에 숨어 있는 비애 또한 지나쳐 버릴 것이다.²⁰⁾

작가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인생과 삶에 대한 열정과 비애를 보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沈從文의 향토소설 대부분이 암담한 농촌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湘西의 아름다운 풍광과 인성을 노래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열정과 비애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지니는 열정과 비애가 아님을 알 수 있게 한다. 그것은 자연적 존재로서 인간이 지니는 슬픔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대자연으로서 강의 속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인간은 자연의 조그만 한 줄기 지류에 불과하다는 것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즉, 沈從文이 강을 통해 바라본 인생형식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생형

形式。我注意不在领导读者去桃源旅行，却想借种桃源上行七百里路西水流域一个小城小市中几个愚夫俗子，被一件普通人事牵连在一处时，各人应有的一分哀乐，为人类爱字作一度恰如其分的说明。沈從文，《從文小說習作選》(上海：良友教學叢書，民國34年)，5쪽.

20) 我的作品能够在市场上流行，实际上近于买椟环还珠，你们能欣赏我故事的清新，照例那作品背后蕴藏的热情却忽略了，你们能欣赏我文字的朴实，照例那作品背后隐伏的悲痛也忽略了。沈從文，〈阿金〉，《沈從文研究資料》(廣州：花城出版社，1989)，554쪽에서 재인용.

식이기 보다 자연적 존재로서 인생형식인 것이다.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연히 천지의 불인한 안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인간이란 생노병사와 같은 대자연의 섭리에 벗어날 수 없는 유한적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의미한다. 이러한 자연의 냉엄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의 비애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유한이라는 운명에 맞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때 삶에 대한 열정 또한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沈從文이 강을 통해 드러내려 했던 아름답고 건강하며 자연스럽고 또 인성에 어긋나지 않는 인생형식은 대자연의 섭리에 맞추어 살아가는 농촌사람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이며, 그 속에 담겨있는 삶의 희노애락인 것이다.

따라서 강이라는 자연은 인간을 사회적 존재이기 이전 자연적 존재의 하나로 부각한다. 자연의 운명 속에서 한 지류, 현상으로 자연의 순환과정을 벗어날 수 없는 비극적 존재를 사색하게 한다.

그렇다면, 인자로서의 沈從文이 산을 통해 추구한 것은 무엇이였을까? 유가에서는 인자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덕에 있다. 이 덕은 三不朽의 으뜸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볼 만한 것은, 이 덕이라는 것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적 인간이 찾아낸 영원의 추구의 한 방법이자 동시에 인간 자신에 대한 절대적 가치긍정이라는 점이다. 沈從文 또한 산을 통해 영원과 인간에 대한 절대긍정을 찾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沈從文이 산을 통해 찾아낸 불후한 것 가치는 밤나무 숲의 정령을 탄생하게 한 자연의 신성이었다.

모든 것이 시이고 그림과 같고 선명하게 부각된다. 그러나 보면 또 얼마나 황당한가! 정말로 신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인가 아니면 이곳 사람들이 신을 창조한 것인가?²¹⁾

21) 一切是詩，一切如畫，一切鮮明凸出，然而看來又如何絕頂荒謬！是真有個神造就這一切，還是這里一群人造就了一個神？沈從文，《鳳子》，《沈從文文集》（凌宇，邵華強編，廣東：花城出版社，1991），第4輯 374-375쪽.

광산 기술자는 산의 아름다움을 두고 신이 창조했는가 아니면 단순히 인간 관념의 소산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 삶의 소박함을 통해 신의 존재를 긍정하게 된다.

나는 비로소 신의 존재가 역시 예전 그대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은 모종의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조건은 곧 사람들의 감정이 소박하고, 관념이 단순하여야 하며 환경이 목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은 이러한 조건 속에서 드러나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비로소 증가시켜 준다. 이러한 조건이 없으면 신은 곧 사라져 버린다.²²⁾

신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신은 존재하기에 조건이 필요하다. 목가적 환경과 인간의 소박함이다. 이러한 말은 결국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간자체가 자연과 하나 되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있어서 산은 자연과 하나 되는 과정에서 인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종착점인 것이다. 마치 산에서 발원한 강이 다양한 인생형식을 만들었다면, 인간은 물을 발원시킨 산으로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 인간과 자연의 소박한 관계를 회복하고 - 자연과 자연을 창조한 신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沈從文은 산이 주는 자연의 절대적 아름다움 속에서 동화되어가면서 인간에게도 자연의 신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산은 밤나무 숲의 여인이 지녔을 자연의 신성을 자연과 가까이 하고자하는 모든 인간에게도 자신의 내면의 신성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沈從文의 인간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인 것임을 알게 한다. 즉, 유가가 덕을 전제로 한 인간에 대한 조건적 가치긍정이었던 것이었다면, 자연의 신성에 기반한 인간에 대한 믿음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이다.

22) 我才明白神之存在，依然如故。不过它的庄严和美丽，是需要某种条件的，这条件就是人生情感的素朴，观念的单纯，以及环境的牧歌性。神仰赖这种条件方能产生，方能增加人生的美丽。缺少了这些条件，神就灭亡。沈從文，《鳳子》，《沈從文文集》（凌宇，邵華強 編，廣東：花城出版社，1991），제4권 387쪽.

따라서 이러한 산을 통해 드러나는 자연의 의미는 《邊城》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자연의 피동적 존재로서의 자연적 존재 인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연에 다가서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邊城》에서 자연적 존재의 한 갈래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였다면 《鳳子》에서는 인간 내면의 자연적 속성을 이야기한 것이 된다. 이는 창작의 시기에 따른 혹은 작가의 끊임없는 창작을 통해 -그것은 《邊城》의 예술성을 포기하고 얻게 된- 《鳳子》의 철리성이기도 하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인식의 심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5. 맺으며

이상에서 《邊城》과 《鳳子》에 나타나는 강과 산이라는 자연물의 작중역할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沈從文 향토소설 속 자연은 단순한 공간적 배경에 머물지 않고 작품의 주제는 물론 작가의 문학적 추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邊城》에서 등장하는 강은 운명의 상징으로서 등장인물들의喜怒哀樂을 조정하는 숨은 주인공이다. 이로써,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인생형식이란 결국,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의 삶 자체였음을 유추해낼 수 있다. 즉, 강이라는 대자연은 사회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상실되었던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상기시키고 삶의 비애와 열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鳳子》에서 등장하는 산은 주인공 여성이 지닌 神性的 원천으로 묘사되고 있다. 산은 아름다움과 관용으로 인간을 포용하는데, 인간은 이로써 자연과 하나가 된다. 그리고 자연과 하나 되는 과정에서 자연이 지닌 신성을 인간 또한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산이라는 대자연은 인간에게도 신성이 있음을 일깨우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인성의 치료’라는 작가 특유의 공리적 문학관은 단순히 5·4시기 계몽주의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강과 산을 통해 볼 때, 沈從文 향토소설 속 자연은 작가로 하여금 인생형식이라는 거시적 안목으로 인생을 사색하게 하였고, 인성의 치료를 통한 신성의 회복이 문학적 추구의 목표임을 확신하게 하였던 것이다.

[參考文獻]

- 沈從文, 《邊城》, 《沈從文文集》 제6권(廣東: 花城出版社, 1991).
- 沈從文, 《鳳子》, 《沈從文文集》 제4권(廣東: 花城出版社, 1991).
- 沈從文, 〈來客〉, 《沈從文文集》 제6권(廣東: 花城出版社, 1991).
- 沈從文, 〈我寫作與水的關係〉, 《沈從文文集》 제11권(廣東: 花城出版社, 1991).
- 沈從文, 《從文自傳》, 《沈從文文集》 제9권(廣東: 花城出版社, 1991).
- 沈從文, 《從文小說習作選》(上海: 良友教學叢書, 民國34년).
- 邵華強 編, 《沈從文研究資料》(廣州: 花城出版社, 1989).
- 가스뽁 바솔라르, 《물과 꿈》(서울: 문예출판사, 1987).
- 이승훈 편저, 《문학상징사전》(서울: 고려원, 1995).
- 인승웅, 《《변방의 어느 마을(邊城)》 주제연구》(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中文摘要]

沈从文的两部小说《边城》、《凤子》是代表的乡土小说。而且这两部小说里的一条河水和一座山是作中代表的自然背景。作为大自然的代词的山水, 自然含有丰富的象征意义。在《边城》里描写的河水是一边绕着茶峒流, 一边主持村庄里人们命运的存在。这种河水的象征意义突出了人类多样的生存方式只不过是自然循环的一个现象。在《凤子》里描写的山是一边

突出山的美丽和神性，一边证明作中女主角凤子是自然的精灵的存在。这种山的象征意义突出了作家所提倡的人性归因于大自然的神性。总之，通过《边城》的河水和《凤子》的山的象征意义，我们可以发现如下：沈从文乡土小说里的自然有很丰富的含义，首先是它让作家用远景的视野观察并思索人生问题-人生形式，其次是它让作家肯定他在文学活动中所追求的目标人性的价值。

주제어: 자연, 강, 산, 인생형식, 인성, 신성.

연극 〈暗戀桃花源〉을 통해 본 《桃花源記》 패러디 양상

박노중*

〈목 차〉

1. 序論
2. 本論
 - (1) 균제의 武陵, 그리고 절제와 순종
 - (2) 夢想的 武陵, 그리고 포위와 감옥
 - (3) 慾望의 武陵, 그리고 감시와 처벌
 - (4) 倒錯의 武陵, 그리고 참회와 반성
3. 結論

0. 열림(開場): 포스트, 팜플렛 그리고 사인회

*賴聲川

-“타이완의 현대적 극장예술의 창시자” 賴聲川

-‘집단지행’ 창작과 ‘콜라주(collage)’ 기법¹⁾: 《賴聲川의 創意學》

*表演工作坊

-“타이완의 최고 전문극단, 최고 인기극단”²⁾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강사

1) 鍾明德, 《台灣小劇場運動史》(揚智), pp.97-98.

2) 같은 책, p.94.

- 1985년 창단작품 〈那一夜, 我們說相聲〉은 “소극장운동의 미학과 이데올로기를 대변”.
- 밀레니엄에도 相聲은 계속된다: 〈千禧夜, 我們說相聲〉

* 〈暗戀桃花源〉:1986; 1991; 1992; 1999; 2006

*名優之演

- ‘金寶’金士傑: 타이완 마임극의 1세대. 소극장연극의 시원 〈荷珠新配〉의 작가.
- 李立群: ‘相聲’ 붐의 점화.
- 林青霞: “한 떨기 밤에 핀 흰 山茶花.”

[줄거리]

이 작품은 〈暗戀〉을 연출하는 극단과 〈桃花源〉을 연기하는 두 극단이 무대사정으로 같은 무대에서 연기를 펼치며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다룬 이야기로, 엄밀하게 두 가지 소재의 각기 다른 이야기가 동시에 한 무대에서 진행되는 독특한 형식의 작품이다.

제1막

- 〈暗戀〉組 주연 두 사람이 上海에서의 이별장면을 연기한다.
- 감독, 조감독 등장. 연기에 대한 이견 표출한다.
- 연기 재연. 〈桃花源〉組 배우 등장.
- 두 극단은 무대사용 문제로 설왕설래한다.

제2막

- 老陶의 집. 그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고 집주인 袁老板이 등장하여 春花와 밀회를 한다.
- 老陶 아내에 퓌박에 괴로워하며 고기잡이를 나간다.
- 女人이 劉子驥를 찾아 무대를 헤집고 다닌다.

제3막

- 타이베이 병원. 江濱柳가 병상에 누워 간호원과 자신이 낸 신문광고의 인물에 대해 이야기 하며 40년 만에 만남에 젖어있다.
- 〈暗戀〉組 감독, 조감독 등장 연기에 이견을 표출 배우들과 언쟁을 벌인다.

- 두 극단 간에 무대를 두고 다시 언쟁을 벌인다.
- 女人이 등장하여 江濱柳를 劉子驥로 알고 함께 퇴장한다.

제4막

- 老陶가 《桃花源記》를 읊으며 도화원으로 간다.
- 도화원에 도착해 어느 집의 부부를 그의 아내 春花와 집주인 袁老板으로 착각하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데려 오기로 결심한다.
- 〈暗戀〉組 감독, 조감독 등장하여 다시 배우와 연기에 이견을 노출하고 두 극단 간에 상대방 작품을 힐난한다.
- 무대를 반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제5막

- 두 극단 간에 인물들이 혼재되어 무대에서연기가 펼쳐진다.

제6막

- 老陶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春花와 집주인 袁老板이 이미 아들까지 낳아 살고 있는 사실을 알고는 열이 빠진 채 桃花源을 나올 때 표기한 부호를 찾아 등퇴장을 반복한다.
- 관리원이 등장 무대사용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고 재촉한다.
- 〈暗戀〉組 등장하여 무대사용을 애원한다.
- 女人이 등장하여 관리원을 劉子驥로 착각하여 이끌고 퇴장한다.
- 두 주인공이 해후한다. 그들은 타이베이의 가까운 같은 구역에 살면서 40년간 서로를 모른 채 살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의 가족의 소중함을 밝히며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떠난다.
- 女人이 등장하여 무대를 쏘다니며 여전히 劉子驥를 찾고 있다.

1. 序論

패러디는 심각한 문제를 기피하는 시대적 풍조를 반영하는 추세를 따라서인지 하나의 유행어처럼 난무한다. 좁게는 손쉽게 풍자하고 따라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하여 대상을 희화화하기도 하며, 또한 텍스트를 폭넓게 열거하거나 주석을 다는 방식으로 확장해 전혀 생경한 모습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분명 패러디는 단순히 용어의 정의를 넘어서 현대의 문학예술의 영역에서 다양한 매체의 복합적 작용과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예술 양태임을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쩌면 중국의 전통적 글쓰기의 한 유형인 “述而不作”의 확장코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예술창작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명하거나 위대한 개인의 유산으로 치부되는 순수 창작이 종말을 고하는 전자정보중심의 지식사회에서 패러디는 당연한 예술생산의 주요한 출로가 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매체의 이합집산이 특징인 오늘날 문학예술의 흐름에서 어쩌면 극적 상상력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촉진시켜줄 촉매제로 가정해도 무방할 것 것이다. 이러 측면에서 台灣을 중심으로 20년 이상 무대화되고 있는 賴聲川과 表演工作坊이 연출한 연극 〈暗戀桃花源〉의 성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桃花源記》의 고전적 텍스트를 출발점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담보한 이 연극은 패러디의 성공적 사례로 거명하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도 話劇의 형식으로 이처럼 극장의 생명력을 이어간 80년대 후반의 작품은 중국대륙을 막론하고 高行健의 등장과 함께 일시적 붐을 일으킨 몇몇 실험극을 제외하고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의 출현은 특별한 의의를 지님과 동시에 창작과 연출 기법에서도 독특한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중국의 고전에서 재료를 찾아 “溫故知新”의 기틀을 잡고, 집단창작과 즉흥창작이라는 “和而不同”의 방법론으로 배우들의 참여를 독려해 대중적 내용과 사실적 연기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작가주의의 심오한 주제성을 배제하여 대중성을 얻고 현대적인 무대기술을 연출력으로 활용하여 탄력적인 무대를 선보인 것이다. 이러한 창작과 무대연출의 능동성은 분명 패러디 기법의 자유로운 소통의 기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보편적이며 고답적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의 유토피아인 ‘무릉도원’에 대한 주제 또한 무대의 전략과 매우 적절하게 결합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작품의 특성에 입각하여 중국적 유토피아가 갖는 피상과 현실을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제기하는 방식 또한 패러디에 짐을 지우고자 한다.

2. 本論

(1) 均제의 武陵, 그리고 질제와 순종

土地平曠, 屋舍儼然. 有良田美池桑竹之屬, 阡陌交通, 雞犬相聞. 其中往來種作, 男女衣著, 悉如外人, 黃髮垂髮, 並怡然自樂. 見漁人, 乃大驚, 問所從來, 具答之. 便要還家, 設酒殺雞作食. 村中聞有此人, 咸來問訊. 《桃花源記》

균등한 질의 삶을 추구하고자하는 인간의 이상은 특히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동양사회에서는 반듯한 토지를 염원하는 집착과 다름없다. 이러한 이상은 생활터전과 공간은 가지런하고 균형 있게 설계되고, 공동체 성원들 사이의 질서가 예외 없이 강조되는 법이다. 닭과 개가 번갈아 울어대며 소리를 주고받는 서정이 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³⁾ 이처럼 시원한 직선과 직선이 교직하는 토지를 따르는 농부의 시선은 어느덧 아지랑이 속에 흔들리며 신농씨의 전설을 떠올리는 슬픈 땅의 노래로 메아리친다. 그러나 대지는 언제나 산모처럼 풍요와 기쁨으로 각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닭과 개의 정연한 울음은 마치 공동체간의 소통과 사고의 일체화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그들은 절제된 삶의 표제 속에 언제나 넉넉한 마음과 남에 대한 충실한 배려를 통해 자신들의 희락으로 삼는다. 화해의 사회를 위한 개인의 미덕은 양보와 순종이며 이는 그들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정신이 된다.⁴⁾ 남을 향한 지극한 공손은 자신의 물질을 과시하는 엄청난 물량공

3) 《老子》, 《孟子》, 《桃花源記》 등에 상투어처럼 등장한다.

4) “讓”이라는 말로 표현된 남성적인 소유에 대하여 여성적인 順從이라는 말로 나타내진다. 사전 안에서 보이는 이 말의 의미는 明渡割讓, 보다 나은 지위

세로 시작되는 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위한 이데올로기가 된다. 그래서 어부는 극진한 대접과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 따라서 어부는 손님으로서 행세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베풀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에 어부는 기꺼이 거짓을 위장한다.

1. 기다림에 지쳐 말을 잊지 못하다

〈暗戀〉의 부분에 해당하는 극중 분위기를 이끄는 대사는 매우 정적이고 차분하다. 그리고 인물 상호간의 대화 역시 매우 절제력 있게 진행된다. 멜로드라마에서 느낄 수 있는 짧고 함축적인 대사와 시적 이미지가 단어들만 무대를 수놓게 되는 것이다. 냉정이 소름끼치리만치 우수적 분위기를 언어를 통해 형상적으로 연출 할 것을 역시 작품내용 속에서 요구받고 있다. 아래의 대화를 통해서도 배우들은 대사를 통한 전달이 목표가 아니라 절도 있는 극적 표현이 이루어지도록 연출에 하는 오브제에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대사의 기법은 〈暗戀桃花源〉이 입각하고 있는 주요한 연술의 하나이며 주제에 다가가기 위한 포석이 되기도 한다.

江濱柳 : 꼭 꿈속의 풍경같군.

云之凡 : 마치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아요.

江濱柳 : 모든 것이 정지 되어버렸어. 이 밤도 정지 되었고, 저 달빛도 정지되었군, 저 등불도, 이 그네 마저, 너와 나 모두, 모든 것이 정지되었어. (云之凡을 보고, 그녀에게로 걸어간다)

云之凡 : 날씨가 정말 서늘해졌군. 당신 왜 그래요? 내가 당신에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의 포기 등이 주요하고, 파생적으로 부른다는 뜻도 된다. ……‘포틀래치’(potlatch)의 습관이 극히 중대 했었다고 말한다. 약간의 部族的 共同體 안에 오히려 존재하는 이 풍속에 의하면 지도적인 남자의 위신은 정기적인 또는 계절적인 축하연 때 공동체 전체에게 분배하는 식량 또는 다른 물질의 양에 의존한다. 중국에서는 할양과 순종으로부터 파생된 주술적 德과, 사회적 위신과, 궁극적으로는 ‘체면’이 문화 속의 지배적 요소가 되었다. 조셉 니담/이석호 외역, 《중국의 科學과 文明 I》(을유문화사), p.88.

江滨柳 : 나는 이미 당신에게 줄 편지를 한 묶음이나 썼지.

云之凡 : 당신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江滨柳 :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썼어, 오랜 세월 동안.

云之凡 :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어디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이것 들까지?

江滨柳 : 이 속에는 우리들의 수많은 이상과 생각들이 담겨 있어.

云之凡 : 생각이라고? 생각이 있으면 용기를 가지고 시도해 보죠. 생각만 말고, 滨柳, 당신은 알아야 해요. 신중국이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망친거라구요. 당신도 설마 부정하지 않겠죠. 그걸 전 받을 수 없어요. 전 받을 수 없어요. (편지를 흩어버린다) 5)

정형화된 연기와 틀에 박힌 표현을 쉽게 떠올리는 이러한 언어의 사용은 당연히 회화화의 출발점으로 작용한다. 작품에서 심각한 무대 감독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늘 연기에 대한 의견을 드러내고 서로를 부정하는 장면들의 출현은 곧 연극 내용을 통해 이러한 통속이 허위적이고 인물들의 행동양식이 사회적으로 무의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비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지순한 사랑은 목을수록 아름답다

〈暗戀桃花源〉의 연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상호간의 심리를 적절

5) 江滨柳 : 好像梦中的景象。

云之凡 : 好像一切都停止了。

江滨柳 : 一切是都停止了. 这夜晚停止了, 那月亮停止了, 那街灯, 这个秋千, 你和我, 一切都停止了. (看见江太太, 朝她走去)

云之凡 : 天气真的变凉了. 你怎么了? 我在跟你说话. 你有心事?

江滨柳 : 我已经些了一叠信给你.

云之凡 : 你怎么了? 怎么这么多?

江滨柳 : 我写了很多年, 很多年.

云之凡 : 你这个是到底是怎么回事? 你哪来这么多时间些这些东西呀?

江滨柳 : 可是这里面, 有我们很多的理想, 很多的想法.

云之凡 : 想法? 你要有想法就拿出勇气来做, 你别老是想. 滨柳, 你要知道, 新中国就是被你这种人给拖垮的. 你难道还不清楚吗? 这我不能接受, 我不能接受. (将信散落)

히 다스리는 겸양의 미덕이 양식화되어 나타난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경외이자 자신의 사회적 존재감을 표현하는 기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유가의 도덕적 인간이 일반화된 경우에 해당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고통스럽더라도 이러한 목표를 끝까지 견지해야 하는 것이다. 절망의 나락에 서있거나 환희의 행복의 가운데 있다할지라도 배우의 몸짓은 신중하고 중량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 〈暗戀桃花源〉이 지향하는 배우의 부조화된 형상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주제가 은닉하고 있다. 몸짓의 부조화는 자신의 형상에 대한 신랄하고 통렬한 웃음거리이자 사회적 기만에 대한 반추인 것이다.

導 演 : 좋아, 젊은 양반! 네가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 그러지! 너희들의 희극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파! 나는 도연명을 가장 존경한다고!

袁老板 : 좋아, 좋아요. 상관없어요. 당신이 싫다면 관두세요. 나도 그렇게 할테니. 네가 보기에는 당신들 비극이 정말 웃긴데요!

導 演 : 뭐라고 하는 거야.

袁老板 : 무슨 말이긴, 잘 좀 보세요. 곧 죽을 사람이 침대에서 기어 내려와 입으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그네를 타지 않나. 그걸 무슨 연극이라고 하는 거요? 또 동백꽃이 있는데 동백꽃은 어떻게 연기하는 하죠. 연기해서 나에게 한번 보여줘 봐요.

導 演 : 당신 연극 본적도 없어!⁶⁾

두 극단의 감독들이 서로의 연극을 비난하는 장면은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환상에 사로잡혀 현실에 이반되어 있는 인물들의 조롱과 다

6) 導 演 : 好, 老弟! 你不说我还不好意思说. 我看你的喜剧, 我好痛心哪! 我最崇拜陶渊明了!

袁老板 : 好好好, 没有关系, 没有关系. 你不讲我也不讲. 我看你的悲剧我很想笑!

導 演 : 什么话?

袁老板 : 什么话! 你自己看看, 一个快要死的病人, 从床上爬起来, 嘴里哼着歌去荡秋千啊! 这叫什么玩意儿? 还有山茶花, 山茶花怎么演? 你演给我看, 你演, 你演!

導 演 : 他看过戏没有啊?

름없다.

지순한 그리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는 인물 江과 기다림을 현실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雲之凡이라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절제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가를 비웃음과 동시에 또 다른 순종의 사랑을 꿈꾸는 이율배반을 경험하게 된다.

3. 마음의 과실을 다 따지 말라

여백의 아름다움은 동양 예술의 정수로 여겨지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를 환원하면 일종의 사회적 배려인 나눔으로 여겨질 수 있다. 공자가 언급한 繪事後素⁷⁾에서 우리는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양껏 채우지 않고 남겨두는 ‘留白’은 일종의 의지이자 사회적 존재를 확인받는 일이다. 그러나 절제는 개인적인 양심과 사회적 체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실천하는 일은 일견 통증에 가까운 인내가 따르기 마련이다.

小 林 : 며칠 전 순자에게 들으니 당신이 이런 종류의 공백을 좋아한다는 데요.

袁老板 : 공백이라고!

小 林 : 그가 이러한 공백이 분위기가 있다고요.

袁老板 : 분위기라고? (顺子が 복숭아나무를 밀고 등장) 분위기라? 아 이구, 저기에 무슨 나무가 있어?

老 陶 : 이 나무가 우리 것입니까?

小 林 : 이거 당신들이 요구한거 아닙니까?

袁老板 :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거라고?

小 林 : 顺子 말로는 당신이 형태를 좋아한다던데.

袁老板 : 내가 무슨 이런 형태를 좋아한다고.

小 林 : 바로 이같이 복숭아나무가 불거져 나온 형태를요.⁸⁾

7) 《論語·八佾》.

8) 小 林 : 前几天听顺子说你喜欢这种留白.

袁老板 : 留白?

小 林 : 他说这种留白很有意境.

袁老板 : 意境? (顺子推一桃树上) 意境? 嗨哟, 那边怎么会有一棵树呢?

그러나 이러한 절제의 미학은 또한 台灣이 위치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대륙과의 힘겨운 오랜 대치 속에 존재를 확인하는 일은 분명 많은 인내와 공동체의 순종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연극에서 〈暗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장래를 약속한 연인들이 전란으로 이산의 아픔을 겪고서 40년 가까운 세월을 자신이 살고 있는 근처에서 같은 시민으로 살아 왔다는 어찌면 해프닝에 기반하고 있다. 그것은 분명 슬픔 비극의 역사임에 틀림없지만 연극은 오히려 이를 냉소적인 喜劇으로 연출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싸늘한 조소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기다림 뒤에 남은 것은 이 순종, 얻기 위하여 버리고, 잃지 않기 위하여 버리는, 이같은 無欲⁹⁾의 지난한 세월을 앞으로도 순종하는 계속될지 모르는 일이다.

〈i〉 그리고, 유토피아 I - “小國寡民”

小國寡民，使有什伯之器而不用，使民重死而不遠徙。雖有舟輿，無所乘之，雖有甲兵，無所陳之。使民復結繩而用之。甘其食，美其服，安其居，樂其俗。鄰國相望，雞犬之聲相聞，民至老死不相往來。¹⁰⁾

*快樂과 無知는 불과분의 관계에 있다.

*暴力과 順從을 떼어 놓을 수가 있을까?

(2) 夢想的 武陵, 그리고 포위와 감옥

老 陶：那棵树是我们的吗？

小 林：这不是你们要的吗？

袁老板：这又是我要的？

小 林：顺子说，您会喜欢这种关系。

袁老板：我喜欢什么关系呀？

小 林：就是这棵桃树逃出来的关系嘛！

9) 앞의 책, p.89.

10) 《老子·第八十章》.

自先世避秦時亂，率妻子邑人來絕境，不復出焉，遂與外人間隔。問今是何世？乃不知有漢無論魏晉。此人一一為具言所聞，皆歎惋。餘人各復延至其家，皆出酒食。停數日，辭去。此中人語云不足為外人道也。《桃花源記》

도망은 여행의 또 다른 하나의 유형이다. 기존에 살던 세상을 등지고 새로운 고향을 찾아 나서는 나그네의 행로와 같다. 그 여행은 질기고 시큰하며 자신의 몰입에 의지해서만 견뎌낼 수 있다. 현대의 사라지거나 무의해진 고향을 실향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들은 오늘도 도망을 꿈꾼다.

특별한 도망에 성공한 무리들은 자기들만의 공동체와 세계를 꾸리고 자신들의 시간 속에 안주한다. 이러한 평화는 자기결속을 강화하는 장치에 의지하게 되고 그들은 스스로의 고립을 위안으로 삼는다.

단조로운 생활과 문명의 거부는 놀라움을 던져주지만 그럴수록 외부세계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단호한 자신의 세상을 옹호하게 만든다. 그들은 꿈꾸는 자들의 후손이다. 마지막으로 힘겨운 당부를 한다. 제발 나의 꿈의 깨우지 말 것을!

1. 언어는 죽은 지 오래! 그래도 말은 많다.

연극극장에서 말은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지만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상황은 많이 변했다. 표현주의에서 아방가르드에 접어들며 연극의 언어적 기능은 변모를 계속하여 언어가 극장의 대세를 결정짓지 못하였으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연극 무대의 전반에 걸쳐 언어적 요소보다 퍼포먼스 등 다양한 형식들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그러한 사정은 언어가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일 터인데, 〈암련도화원〉도 예외는 아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재현되는 상황의 설정은 곧 현대의 언어가 인간 행위에서 이율배반적인가를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암련도화원〉에서 무대 언어는 인간의 언어와 행위의 불균형만큼이나 교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은연중에 사회적 왜곡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대화의 주체와 객체의 상관성은 무의미해 진다. 주체는 자

신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모르며 결국에는 대상을 착각하게 된다. 뒤죽박죽 혼재된 언어적 상황이 오히려 현실의 주체에게는 안도를 느끼고, 관중의 입장인 제3자에게서도 말의 책임에서 벗어나 홀가분해지는 것이다.

老 陶 : 이곳은 정말 좋은데! (넘는 걸 두려워한다. 江濱柳 침대를 내려와 휠체어 탄다)

江太太 : 내려오고 싶으면 말을 하지요!

江濱柳 : 당신 먼저 돌아가.

老 陶 : 芳草鮮美……

江太太 : 먼저 간다고 뭐하겠어요? (휠체어를 밀고, 春花 가 앉아 있는 바위 배경에 부딪쳐, 江濱柳 뛰어내린다)

春 花 : 뭐 하는거요?

江濱柳 : (江太太에게) 뭐해 당신?

老 陶 : 落英繽紛! 아이고!

江濱柳 : 아이고!

春 花 : 왜 한숨이예요? 여기가 좋지 않아요?

老 陶 : 여기도 좋지만, 그러나 내 마음 속에 아직도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많아서.

护 士 :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导 演 : 녹음기 끄는 데서 시작해.

春 花 : 뭐라고 여기에 온지 한참 됐는데 즐거운 일 못 봤다고.

护 士 : 매번 이 노래를 듣고 나면 이런다니까.

江濱柳 : 방법이 없잖아.

老 陶 : 나는 집이 그리워.¹¹⁾

11) 老 陶 : 这个地方真好! (怕越界.江濱柳下床, 上轮椅)

江太太 : 你要下来你就说嘛!

江濱柳 : 你先回去吧.

老 陶 : 芳草鮮美……

江太太 : 我回去干什么呢? (推轮椅, 撞到春花坐的岩石布景, 江濱柳跳下来)

春 花 : 干什么呀?

江濱柳 : (对江太太) 干什么你?

老 陶 : 落英繽紛! 噯!

江濱柳 : 噯!

春 花 : 干吗叹气呢? 这儿不是很好吗?

2. 몽유병자는 힘이 세다

〈暗戀桃花源〉에서 매우 극적 전개에서 일탈해 있는 독특한 캐릭터로 女人의 설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인물들의 난립과 어수선해진 막의 말미에 몇 차례 짧게 등장해 엉뚱하고 우스꽝스런 행위로 한껏 긴장에 빠져있는 극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소외효과를 가져다준다고 할 수 있다. 매우 의도된 연출로 연극 속 인물들이 주관적 작의에 함몰되어 있는가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녀는 오직 환상을 좇아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인 《桃花源記》의 劉子驥를 쫓아다니는 현실에서 일탈된 그녀의 존재는 어김없이 무대의 인물들에게 소통의 기제가 마련되지 않는 곤혹스런 존재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현실적 삶의 테두리에 묶어 있는 인물들은 그녀의 존재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며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에 현실 인물들의 허점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폭로되는 것이다.

女人：그해 남양의 거리에는 복숭아나무가 한그루 있었지. 복숭아나무에 꽃이 피면 劉子驥 꽃잎마다 너의 이름이, 꽃잎마다 너의 이야기가 새겨 있지.

女人：劉子驥, 당신 왜 이렇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변해 버린 거지요! 왜 이렇게요!

(꽃을 뿌리고, 管理员은 퇴장)

[무대에는 여인만이 남아, 女人은 무대를 빙빙 돌며, 머리를 들고, 팔을 올린다.]

老 陶：这儿虽然好，可是我心里面仍然有许多跨越不过的障碍。

护 士：从哪里开始啊？

导 演：从关录音机开始。

春 花：怎么了，来这里这么久，没看见你高兴过啊。

护 士：每次听完这首歌都这样。

江滨柳：没有办法啊。

老 陶：我想家。

女人：刘子驥——刘子驥——刘子驥——啊——啊——
[등불이 끄진다. 등불이 켜지고, 막이 내린다.] 12)

3. 隱者는 숨어 있어야 제격이다

《桃花源記》에 설정된 인물들 중 劉子驥라는 고상한 선비는 〈桃花源〉에 해당하는 연극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다. 광적으로 그를 찾는 여인을 통해 그의 형상이 구축된다. 다른 아닌 연인이 쫓고 있는 환상만큼이나 그 역시 도화원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도화원’의 사실을 전해 듣고 그날로 그곳을 찾아 해낸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도화원은 나타나지 않는다. 찾으면 찾을수록 그 염원은 이제 병적으로 옮겨간다. 그는 전염병에 걸린 것이다. 그는 실제 현실에서 유토피아를 찾아 나서는 인물의 전형이자 전말이 되었다. 결국 자신의 희생으로 막을 내리고 그는 꿈속에 자신을 산화시켜 나갔다. 그리고 전설이 되어 기억으로 남는 것이다. 隱者의 삶은 역사보다는 기억으로 전해지고 또 다른 隱者의 등장을 알리는 서곡이 된다. 그래서 고립되고 고독해 보이기까지 한 은자의 모습은 현실에서 행복은 환상의 나라에서나 가능한 법이라는 명징한 법칙 때문일까 劉子驥는 여전히 숨어 있으며 무대에 설 자리가 없다.

〈ii〉 그리고, 유토피아II-“러투”樂土(樂國, 樂郊)

碩鼠碩鼠! 無食我黍. 三歲貫女, 莫我肯顧. 逝將去女, 適彼樂土. 樂土樂土, 爰得我所!¹³⁾

12) 女人：那一年，在南阳街，有一棵桃树.桃树上面开花了，刘子驥，每一片都是你的名字，每一片都是你的故事.
女人：刘子驥，你怎么变成了这个样子？你怎么变成了这个样子！你怎么会变成这个样子！（撒花，管理员下）
[台上只剩下这个女人.女人旋转着，抬头，仰臂.]
女人：刘子驥——刘子驥——刘子驥——啊——啊——
[灯光暗下.灯光亮起，谢幕.]

- * 喪失은 快感을 불러일으키는 전주곡이지 않는가?
- * 환상적 에너지는 정지된 시간을 전제로 한다.

(3) 慾望의 武陵, 그리고 감시와 처벌

既出, 得其船, 便扶向路, 處處誌之. 及郡下, 詣太守, 說如此, 太守即遣人隨其往, 尋向所誌, 遂迷不復得路. 南陽劉子驥, 高尚士也. 聞之, 欣然規往, 未果, 尋病終. 後遂無問津者. 《桃花源記》

거짓과 위선은 꼭 의지에서 출현하는 것은 아니다. 행운은 오히려 운명의 희생자로 전락시키고 만다. 폭식과 탐닉은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며 그것에 대한 희생의 대가가 따르게 되는 것이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축복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동양적 순환론의 진리이지 않은가? 이러한 준엄한 경고는 달콤함에 혀를 닿는 순간 망각으로 일신하고 다시 욕망의 씨앗에 불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 욕망은 나의 짐차 외연을 확대하며 전염병처럼 퍼져간다. 누구 이 세상에 최상승의 희열을 맛보았던 말인가? 상실의 아련함에 젖어 사는 숭고한 이도 이제 열락의 땅을 쫓아 맹종하게 된다. 그는 천부적 사명감에 못 이겨 뒤돌아보지 경주에 매달린다. 그리고 그 갈증의 종착역은 지팡이로 남는 일이다.

인간의 사회적 욕망에는 감시와 처벌에 따르기 마련이다. 욕망의 아둔한 기표는 철저하게 삭제되거나 지워진다. 복제된 달콤함은 없는 법이다.

1. 말보다 노래가 좋아

현실을 몸으로 부딪치며 살아가는 인간적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春花, 老陶, 袁老板 이 세 인물은 진저리칠 정도로 밀착되어 있다. 그들

13) 《詩經·魏風·碩鼠》.

은 가까운 거리에서 깊은 숨결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체취를 느낀다. 그들의 끈끈한 밀착은 너무 일체화되어 있어 항상 희극적으로 연출된다. 서로간의 소통은 언어가 불필요하다. 언어 이전에 행동이 이들을 움직이게 만들며 갈등관계도 서로를 적대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언어는 그들을 간섭하지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 속에서 언어가 이미 그들에게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영해 준다. 따라서 그들은 한결같이 말을 더듬는다.

春花 : 당신이 이라는 사람은 대체, 당신더러 그 뭐에 가라고 했는데, 당신은 앉아서 그 뭐를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 한참을 말해봤자 도대체 거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老陶 : 내말은 아직 그 뭐가 덜 됐다는 거지?

春花 : 어떻게 그 뭐가 충분할 수 있겠어요?

袁老板 : 네가 이거, 저거, 저거, 이거라는 것이 뭐와 뭐를 말하는 거지? 너 할 말이 있으면 솔직히 말해!

老陶 : 이 말은 직접 하면 너무 그 뭐해!

春花 : 당신이 만약 말하지 않으면 더욱 그 뭐하지 않아요?

老陶 : 어디 뭐더러, 뭐더러……

袁老板 : 좋아! 네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모르는 거야. 그럼 내가 말하지! 来说! (일어나 가슴을 치며)

老陶 : (일어나) 네가 말해봐?

袁老板 : 네가 보기엔 너가 그 뭐고, 그렇고 그런거야……

老陶 : 내가 어디, 어디, 어디에……

袁老板 : (春花를 가리키며) 저 여자가 맞지!

老陶 : 오, 저 여자라고!

袁老板 : 그녀에게 너무 그렇고 그런 그 뭐란거지!

老陶 : 좋아, 내가 그녀에 그 뭐 쯤 그렇다고 쳐. 그러나 내가 그녀에게 더 그렇고 그런 뭐 그렇지, 그건 우리들 사이에 그렇고 그런 그 뭐가…… 그렇지. 그런데 너는? 너는 그렇고 그렇고 그렇지…

袁老板 : 내가 어디, 어디, 어디에……

老陶 : 네가 그렇고 그런 것은 또 뭐가 그런 거란 거지?

袁老板 : 좋아, 내가 그렇고 그런 것은 것을 그렇다고 쳐, 그런데 네가 그렇고 그렇고 그렇다고……

老陶 : 내가 어디, 어디, 어쨌다고……

袁老板：너는 그래 그렇고 그렇지 애당초!
老 陶：애당초? 어디가 애당초?
袁老板：애시당초 말야!
老 陶：애시당초? 우리들 모두 뭐는 아니야. (두 사람 말을 내뱉고는 풀이 죽은 표정으로 앉는다. 정적) 그렇게 되지 못하면, 나는 나가 죽어야 싸?
袁老板：(멍하니 앞을 바라보다, 트림 같은 소리를 내며) 꺼억!
老 陶：너는 네 말 귀를 몰라. 내 말이 틀리다면, 나는 나가 죽어야 되지 않겠어?
袁老板：꺼억
老 陶：(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탁자 뒷면에서 앞으로 자신의 배꼽을 꼬집으며) 주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春 花：(뒤쪽 탁자에서) 내가 못살아, 못 살아, 못 살아……
袁老板：(두사람의 영향을 받아) 좋아! 내가 죽지, 죽어, 죽어……14)

- 14) 春 花：看你这个人，叫你去那个什么，结果你坐在那儿说了那个什么，说了半天你到底说哪个什么了?
老 陶：我说的还不够那个什么的吗?
春 花：怎么可能那个什么了?
袁老板：你看你这个那个那个这个你说了什么跟什么嘛你？你有话干脆直接说出来。
老 陶：这话要是直接说出来不就更那个什么了嘛！
春 花：你要是不说出来不就更那个什么了吗？
老 陶：哪个什么什么……
袁老板：好了！我看你呀，根本说不清.还是我来说！（站起来，拍胸脯）
老 陶：（站起来）你来说？
袁老板：我说你呀，你那个那个那个……
老 陶：我哪个哪个哪个……
袁老板：（指春花）对她！
老 陶：哦，对她！
袁老板：对她也太那个那个那个什么了。
老 陶：好，就算是我对她是那个什么了点儿，可是我对她再那个那个那个什么，那是我们之间的那个那个那个——什么.可是你呢？你那个那个那个……
袁老板：我哪个哪个哪个……
老 陶：你那个那个那个又算是什么呢？
袁老板：好，就算我那个那个那个不算什么，可是你那个那个那个……
老 陶：我哪个哪个哪个……
袁老板：你那个那个那个当初！
老 陶：当初？哪个当初？

전염으로 일관된 지루한 반복의 화법은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다. 그것은 마치 노래처럼 가락을 이루고 아주 오래된 익숙한 리듬 속으로 행복한 언어의 유희에 잠긴다. 그것은 전통적 언어 연행예술의 한 형태인 相聲이나 유사한 연희의 형태에 가까운 운율의 리듬이 되어 인물 상호간의 갈등을 해소시켜 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세 인물에 대한 성격적 구분이나 차이는 실로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2. 누군가 나를 훔쳐보고 있다

〈桃花源〉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처럼 이미 자신을 들켜버린 인물들은 그 무엇도 생산할 수 없다. 그들은 사회적 통제나 사적 비밀을 준수하지 못했거나 자신의 책임을 파기한 인물들이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가혹한 제약이 따른다.

老陶는 모든 것이 읽혀지는 인물이다. 그에게는 어떠한 자유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의 욕망은 오히려 성적 불임을 낳는다. 그는 가지고 있는 술을 따르지 못한다. 그는 마개를 뺏을 도리가 없다. 빵도 먹지 못한다. 전병이 잘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욕망에 대한 철저한 감시는 그를 비관적 불평분자로 만들어 사회에 동화되지 못한다. 자기 부정이 낳은 결과는 곧 자신의 파멸로 연결된다.

老陶 : 술이 왜 이래? (걸으로 가 부엌칼을 집는다. 부엌칼로 술병을 떠다.) 이런 집구석 하곤? 약 지으러 가는데 하루가 걸려, 아직도 오지 않으

袁老板 : 最当初!

老陶 : 最当初? 我们都不是什么。(两人说着, 不禁黯然坐下.停顿) 要不这样好了, 我去死, 可以吧?

袁老板 : (呆呆望着前方, 发出类似饱嗝的声音) 嗝.

老陶 : 我想你是没听懂我意思.我是说, 要不我去死, 可以了吧?

袁老板 : 嗝.

老陶 : (突然起身, 从桌子后面到前台, 掐自己的脖子) 我死! 我死! 我死! ……

春花 : (在后台) 我死! 我死! 我死! 我死! ……

袁老板 : (在二人影响下) 好! 我死! 我死! 我死! ……

니, 이걸 집구석이라고? (따지질 않자) 그래 안 먹으면 될 것 아 (부엌칼과 술병을 내려놓고, 전병을 집으며) 전병이나 먹자! (마치 생각한 바가 많은 것처럼) 무릉이라니 애당초 말도 안 되는 곳이지. 황폐한 땅에 무지막지한 여자가 사람을 못살게 굴고, 새도 짓지 않고, 꽃에는 향기도 없는 데 말이야! 이 老陶가 고기를 잡아도, 정말이지, 그 고기란 것이 내통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물에 안 걸린단 말이야! 마누라는 온대를 쏘다니며 남들은 아랑곳 하지도 않으니! 어디 좋아하지! (전병을 깨물어도 그러나 뜯어지질 않는다) 응…… (전병을 탁자에 내리치며, 칼로 썬다) 타닥타닥, 타닥타닥. 무슨 칼이 이래? (칼을 내던진다) 전병이 이 모양이야? (전병을 땅에 집어던진다. 전병 두 장을 발로 짓이긴다. 세 번째 전병을 내던진다) 모두 전병이 아니야! 모두 전병이 아니야! 내가 밟아버릴 거야! 내가 밟아버릴 거야! (갑자기 멈추더니, 세 번째 전병을 가리키며) 두려워하지 마, 너는 잘못이 없어. 너는 억울하지. (밟고 있는 전병 두 장을 가리키며) 너희 둘은 여기서 뭐하니? (걸음을 교차하고 다리를 걸며 머리를 지면에 대고 물구나무서려 한다) 뭉개 놓을 테야! 뭉개 놓을 테야!¹⁵⁾

3. 금지된 장난

사회적 금지에 대한 도전은 철저하게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것은 완전한 파괴로 결말에 달한다.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진 그의 모험은 현실로 재현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는 욕망에서 이루어진 의도적 흔적의 기표는 철저하게 지워져버린다. 그리고 그의 맹목적 선동은 자신의 처벌뿐만 아니라 술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중국에 어부는 자신의 현실세계를 무슨 말로 형언하지 못하고 그려

15) 老陶：这是什么酒哇？（到旁边去拿菜刀.边用菜刀弄酒瓶）这叫什么家？买个药买一天了还没买回来，这还叫家吗？（打不开）我不喝可以了吧！（将菜刀与酒瓶放下，拿起饼）我吃饼！（仿佛感想颇多）武陵这个地方呀，根本就不是个地方.穷山恶水，泼妇刁民.鸟不语，花还不香呢！我老陶打个鱼嘛，呵，那鱼好像串通好了一块不上网！老婆满街跑没人管！什么地方！（咬饼，但就是咬不动）嗯……（把饼拍在桌子上，操刀）康里康朗，康里康朗.这叫什么刀？（扔刀）这叫什么饼？（把饼摔在地上，踩在两张饼上，扔第三张饼）大家都不是饼！大家都不是饼！我踩！我踩！（突然停下，指着第三张饼）你别怕，你没错，你冤枉。（指脚下两张饼）你们两个这是干什么？（交叉步，扫堂腿，头顶地面欲倒立）压死你，压死你！

내지도 못하는 말더듬이로 전락하고 만다.

春花 : 어르신, 어디에서 오셨나요?
 老陶 : 무릉에서요.
 春花 : 무릉이라, 무릉이라고……
 老陶 : 무릉이라고 당신은 들어 본적도 없소?
 春花 : 나는 어려서부터 여기에서 자라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老陶 : 떠난 적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들었을 텐데!
 春花 : 다른 사람들도 떠난 적이 없거든요.
 老陶 : 그럼 당신들 여기 사람들 하나같이 나간 적이 없단 말이요.
 春花 : 어디를 가요?
 老陶 : 무릉이지!
 春花 : 무릉에 가서 뭘 하죠?
 老陶 : 무릉에 가서 뭘 한다고, 뭘 한다고…… (초조해하며, 풀이 죽은 모습으로)
 春花 : 무릉은 대체 어떤 곳이지요?
 老陶 : 무릉이 무릉이지 뭐! 무릉은 말이야. (그려 보려하지만 그려지지 않아, 기가 죽는다)¹⁶⁾

〈iii〉 그리고, 유토피아Ⅲ-“황금연못”(靈沼)

16) 春花 : 这位大哥, 您打哪儿来呀?
 老陶 : 武陵.
 春花 : 武陵——武陵——
 老陶 : 武陵都没有听说过吗你?
 春花 : 我打小就生长在这里, 没有离开过嘛.
 老陶 : 你没离开过, 总听别人说过吧!
 春花 : 别人也没有离开过啊.
 老陶 : 那你们里边的人统统都没有出去过?
 春花 : 去哪儿啊?
 老陶 : 武陵啊!
 春花 : 去武陵干什么?
 老陶 : 去武陵干什么, 干什么…… (焦躁, 颓丧)
 春花 : 武陵到底是个什么地方?
 老陶 : 武陵就是武陵嘛! 啊, 武陵就是 (比划, 比划不出来, 颓丧)

文王以民力爲臺爲沼，而民歡樂之，謂其臺曰靈臺，謂其沼曰靈沼，樂其有麋鹿魚鼈。古之人與民偕樂，故能樂也。湯誓曰“時日解喪，予及女偕亡！”民欲與之偕亡，雖有臺池鳥獸，豈能獨樂哉！¹⁷⁾

*동질성은 남을 배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革命은 계속된다.

(4) 倒錯의 武陵, 그리고 參회와 反省

晉太元中，武陵人，捕魚爲業，緣溪行，忘路之遠近。忽逢桃花林，夾岸數百步，中無雜樹，芳草鮮美，落英繽紛，漁人甚異之。復前行，欲窮其林。林盡水窮，便得一山。山有小口，髣髴若有光，便捨船，從口入。《桃花源記》

어찌 보면 망각은 지루하고 단조로운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는 가장 쉬운 탈출구일 것이다. 그리고 점차 망각 속으로 빠져들다 보면 삶의 전도와 착각이 가져다주는 짜릿함에 자신을 만끽하게 된다. 길을 잃고 헤메이는 것은 무엇보다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시험에 해당된다. 그것은 주로 잠재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현실의 문법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무궁한 힘과 의지가 자유롭게 찰나의 순간순간 자신을 추동해 가는 것이다.

술한 시행착오와 몰아의 경지에서 어부는 새로운 길을 찾아냈고 그 동굴을 지나 그것이 자유였음을 확인하였다. 마침내 자신의 붙들어 매고 있는 거주장스러운 짐을 놓고 환희 빛 속으로 들어간다.

1. 신음은 솔깃하다

가장 완결된 짧은 문장, 가장 의미가 함축된 소리, 감탄사는 간결한 서사를 요구하는 무대의 언어로 자주 활용된다. 작은 심음, 거친 숨결, 흐느낌, 울부짖음 등 이 하나의 소리에 무대는 쉽게 전화된다. 긴장과

17) 《孟子·梁惠王上》.

전율의 충격이 넘치는 생동을 경험하게 된다. 어쩌면 무대라는 가장 인상적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언어일지 모른다.

〈暗戀桃花源〉의 인물들도 잦은 신음에 몸부림치고 있다. 탄사의 정도와 형태는 달라도 무대에서 깊이 숨 쉬고 있다.

春花: 아.

袁老板: 난 보았지. 그들은 왼손에는 맛있는 술을 들고, 오른손에는 포도를 들고, 입에는 파인애플을 머금고 있어.

春花: 아! (의문스러운 듯) 그럼 돼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袁老板: (호리며) 내말은 그들은 다 못을 만치 과일이 있다는 거지.

春花: 오. 과일!

袁老板: 과일말야.

春花: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요?

袁老板: 당연하지! 너와나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两人: 아! (껴안는다. 老陶 등장, 두 사람 떨어지며)

老陶: 袁老板, 괜한 일로 오진 않았을 테고, 오늘 이불 건 말고 무슨 일인지, 앉아 직설적으로 말하세요!¹⁸⁾

잦은 신음이 무대에 올려 퍼지는 점은 〈暗戀桃花源〉 연극이 현실 생활의 통속적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로 대변된다. 이 연극이 지향하고 있는 명백한 희극과 비극의 교차를 통해 현실과 교통하고자 하는 수월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관객에게 쉽게 다가갈 수 극

18) 春花: 啊.

袁老板: 我看见了, 他们左手捧着美酒, 右手捧着葡萄, 嘴里还含着凤梨.

春花: 啊! (又疑惑地) 那不是成了猪公了吗?

袁老板: (搞不清楚) 我是说, 他们有吃不完的水果.

春花: 啊! 水果!

袁老板: 水果!

春花: 真有这样的地方吗?

袁老板: 当然! 只要你我都相信.

两人: 啊! (拥抱. 老陶上, 两人分开)

老陶: 袁老板, 无事不登三宝殿. 今儿除了送咱们一床棉被之外, 还有什么事儿, 你就坐下来直说吧!

적 장치가 된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언어의 논리적 전개를 피하고 행동과 간결한 소리의 전파로 의미전달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작은 신음 하나에 쉽게 공감하고 간파하는 현실의 문맥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욕설 등 원초적 말단의 언어들이 무대에 빈발하지만 무대에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이 작품의 현실의 공간을 포용적으로 활용하고 논리적으로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상처는 감동과 구원의 전제이다

신음하는 인물 군상들은 자아와 세계의 부조화로 비롯된다. 내부로부터 발단이 되었건, 외부로부터 충격이 가해졌건 막론하고 그것은 원초적 욕망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곳에는 상호 대립되는 물질과의 형형한 싸움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날카로운 대립과 날 선 대결은 탄사의 가장 빈번한 출로다. 긴장으로 막혀 있고 충격으로 인한 통증이 그곳에 내재한다.

老 陶：(사납게) 아-- 잔인해, 너무 잔인해! (又또 보고는) 啊--
 袁老板：오세요! 만약 진짜 힘든 일이 있으면, 여기에 내려놓으세요.
 春 花：오세요!
 老 陶：袁老板,春花, 내가 너희들 두 사람이 사는 집에서 어떻게 편안
 할 수 있겠어?
 两 人：(老陶를 다그치며) 가요!
 老 陶：袁老板!
 两 人：袁老板을 잊어버려요!
 老 陶：春花!
 两 人：春花도 잊어버려요!
 老 陶：여기가 어디요? 19)

19) 两 人：桃花源!

老 陶：桃花源--

老 陶：(暴躁) 啊--太残忍, 太残忍了! (又看见) 啊--

袁老板：来呀! 要是你真有什么问题, 就在这儿轻松一下吧!

春 花：来呀!

〈桃花源〉의 춘화는 신음의 발단이자 맺음이다. 武陵에서의 춘화는 도화원에도 그대로 있다. 무릉의 춘화가 발정한 아낙이라면 도화원의 춘화는 하얀 옷을 입은 보살²⁰인 것이다. 그러나 兜率天에서 즐겁게 노닐던 老陶는 오히려 현실의 춘화를 찾아 떠나게 된다. 어쩌면 그로서는 신경의 무욕의 즐거움보다 항상 거부당하고 냉대 받는 현실의 욕망인 춘화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3. 요조숙녀는 외로워“窈窕淑女, 君子好逑”

그러나 욕망의 싸움이 남겨둔 상처는 잔혹하다. 〈暗戀〉에서의 江濱柳과 〈桃花源〉의 老陶, 袁老板 모두 치절한 패배로 끝을 맺는다. 그들은 그 무엇도 잉태시킬 수 없었으며 완전한 고독으로 남게 된다. 이미 절망의 상태에 직면한 두 인물은 자신의 연극을 상대방에게 강요한다. 그들은 이미 성적으로 도착상태에 빠져 있다. 인물들은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방어에 일관하여 외치고 절규한다. 그들은 논리적 상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老 陶：袁老板，春花，我住在你们两个家里我怎么轻松得了？

两 人：（架起老陶）走吧！

老 陶：袁老板！

两 人：忘掉袁老板！

老 陶：春花！

两 人：忘掉春花！

老 陶：这是什么地方？

两 人：桃花源！

老 陶：桃花源——

20) “흰옷을 숭상하는 것은 관음보살신앙과 관련이 있다. 남북조에는 미륵신앙과 관음보살신앙이 적지 융합되었다. …… “흰옷의 관음보살이 연꽃을 손에 잡고”…… 관세음, 미륵의 형상은 密宗의 영향을 받아서 여성적 경향이 나타났으며, 시대도 자비로움을 품은 여성신이 난세를 위로하기를 요구되어 관세음이 여성신의 형상이 되었다.”馬西沙/韓秉方, 《中國民間宗教史》(上海人民出版社), pp.53-54.

江濱柳：(对袁老板) 너는 빨리 가!
袁老板：(对江濱柳) 너는 가면 안돼!
江濱柳：너는 빨리 가야해!
袁老板：가면 안 돼 다고 내가 경고했지!
江濱柳：빨리 가라고 명령했잖아.
袁老板：때려 죽여도 안갈 테야!
江濱柳：이 나쁜 놈, 너희들 모두 떠나란 말이야. 너희들 모두.
袁老板：누가 감히 뭐라 지랄이야!
[감독, 부감독 등장. 女인이 등장 관중을 향해 꽃을 뿌린다.]
导 演 그만--
袁老板：더 이상 멈추지 말아요! (고통스러워하며) 21)

이 두 인물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개하지만 그들은 대화는 심각하다. 그것은 분명 허위와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위의 장면은 교착되어 있는 현실을 극적 장치로 전환하여 이성적 회복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연극의 기능에 의해서 전망을 수립된다. 대립적 상관물들의 화해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참회에 따른 용서와 반성은 새로운 환골탈태의 재생으로 각인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연극의 의식을 끝낸 뒤에 성취되는 무대 밖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연극의 정화작용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형태도 없고 틀도 지워지지 않은 무량의 큰 세계²²⁾가 그 속에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다시

21) 江濱柳：(对袁老板) 你快回去吧!
袁老板：(对江濱柳) 我不许你回去。
江濱柳：你快点回去吧!
袁老板：我警告你不要回去。
江濱柳：我命令你快点回去!
袁老板：打死我我也不会走。
江濱柳：你混帐啊，你们都给我走啊你们!
袁老板：我看他妈的谁敢动!
[导演上，副导演上. 女人上，朝众人洒花.]
导 演 停--
袁老板：不要再停了！（痛苦）

22) 天道玄默. 無容無則. 大不可極. 〈淮南子, 主術訓〉

도화원을 꿈꾼다.

〈iv〉 그리고, 유토피아Ⅳ-“하늘 궁전”(崑崙)

別日升于崑崙之丘, 以觀黃帝之宮, 而封之諡後世. 遂賓于西王母, 觴于瑤池之上. 西王母爲王謠, 王和之, 其辭哀焉. 西觀日之所入, 一日行萬里. 王乃嘆曰“於乎! 予一人不盈于德而諧于樂, 後世其追數吾過乎!”²³⁾

- * 왕의 탄식과 환락의 기만
- * 사랑은 보시이다.

3. 結論

이상으로 《桃花源記》을 통해 일반화 된 중국적 이상향인 유토피아에 대한 관념을 패러디라는 기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중국적 이상향에 대한 전통적 해석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의 고전을 바탕으로 이상적 삶에 대한 의미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탐색해 볼 수 있었다.

1. 〈暗戀桃花源〉에서 보듯 중국 고전 작품에 대한 패러디가 현대 예술창작의 유효한 기법으로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2. 고전 경전에 대한 재해석은 현대적 사유 기제와 물질 토대를 총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주체의 자유로움에서 출발하며 이것을 능동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충족될 때 재창작의 생명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
3. 중국의 유토피아인 ‘武陵桃源’과 《桃花源記》를 비판적 검토를 통해 중국적 전통적 사유방식이 미치고 있는 반지성적 이데올로기를 규명해보자 하였다.
4. 그리고 어떤 시대적 담화나 집단적 이념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중국적’ 유토피아를 찾아 배를 젓는 사명은 계속될 것이란 신화이다.

23) 《列子·周穆王》.

끝으로 〈暗戀桃花源〉은 예술적 생명력을 갖추고 있는 작가의식이 응축된 작품일 뿐만 아니라 당대의 연희의 관점에서 볼 때 충분한 흥행을 담보함으로써 중국 연극의 하나의 지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參考文獻]

- 賴聲川, 《賴聲川: 劇場》(四冊)(台北: 元尊, 1999).
鍾明德, 《台灣小劇場運動史》(台北: 揚智, 1999).
黃仁, 《台北市話劇史九十年大事記》(台北: 亞太圖書出版社, 2002).
馬西沙, 韓秉方, 《中國民間宗教史》(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0).
嚴北溟/嚴捷 撰, 《列子譯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6).
程俊英, 《詩經譯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
《新譯古文觀止》(台北: 三民書局, 1990).
余培林, 《新譯老子讀本》(台北: 三民書局, 1983).
李澤厚, 《論語今讀》(合肥: 安徽文藝出版社, 1998).
조셉 니담/이석호 외역, 《중국의 科學과 文明》(서울: 을유문화사, 1989).

<Abstract>

《Hidden love and T'ao huayan》 is a theatrical performance, it is a parody of the Chinese classical piece 《T'ao huayanji》. This work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representative Contemporary play of Lai Sheng Chun(賴聲川) who is a well-known Taiwanese director.

Through this work, we can see that a parody of the Chinese classical pieces can be used to practice the technique of creating contemp. art.

Reinterpretation about classical pieces can ensure the vitality of recreating only when an abjective condition is satisfied, that it is a

kind of freedom, being able to use the modern thinking faculties and a material foundation on the whole.

Through a critical analyzation of Wulingt'aoyuan(The peach blossom land in Wuling; 武陵桃源) and 《T'aohuayanji; 桃花源記》 (《A record of the peach blossom land》 which are regarded as Oriental Utopia, I tried to look into anti-intellect influenced by the Chinese traditional thinking.

Key word : the peach blossom land, parody, Contemporary play, Oriental Utopia

교과서 식의 문학사 — 唐弢 주편의 《中國現代文學史》 —

朴貞姬*

〈목 차〉

1. 머리말
2. 사회주의 시기 중국현대문학사의 완성본
3. 중국 현대 작가와 작품에 대한 평가
4. 결론

1. 머리말

1961년 문과교재 회의 이후, 편찬 작업을 시작한 탕타오(唐弢)주편의 《中國現代文學史》(이하의 글에서는 탕타오 주편의 문학사로 대체함)는 1979년에서야 비로소 출판되었다. 이 교재를 편집하기 위해서 중국정부는 많은 인력을 투입하였다. 당시의 중국현대문학 학과의 가장 권위적인 학자, 唐弢·王瑤·刘受松·严家炎·樊駿과 陈涌등이 참여하였다.

이 책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후 두 단계를 거쳤는데, 첫 단계는 1961년 초여름부터 학자들을 동원하여 편찬위원회를 조직하고, 1964년에는 3년이 걸려 60만자에 가까운 초고를 완성하였고, 제 2단계는 1978년 9월부터 편찬조를 다시 회복하여 첫 권의 수정과 하권의 편찬에 착수하였다. 하권의 초고 25만자는 ‘문혁’ 기간 중에 소실되어서 다시 쓰기 시작하였고, 이 때 참가한 사람은 嚴家炎, 樊駿등 이었고,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강사

1978년에는 다시 陳湧이 합세하였다.¹⁾

탕타오 주편의 문학사, 머리말의 제일 첫 구는 이 책은 교육부가 통괄하여 쓴 고등학부의 중문과 교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종의 교과서식의 중국현대문학사는, 한편으로는 교육대강 총 방침의 제약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전체 중국현대사 인식의 제약을 받았다. 이 책의 지도사상은 ‘문예투쟁은 정치투쟁에 종속된다. 정치의 분야가 문예의 분야를 결정한다’이다. 이것은 문학사 편찬자가 확립한 문학사의 이념이다. 이로서 역사 서술 면에서 대량의 편폭으로 문학계의 투쟁을 묘사하였고, 예를 들어 ‘五四’ 문학혁명·30년대 좌익문예운동·40년대 문예정풍운동 등, 그리고 이러한 투쟁의 역사를 서술할 때 편찬자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였고, 이것은 장절의 제목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복고파의 투쟁과 신문학 통일전선의 분화·신월파와 파시스트 민족주의 문예운동의 투쟁·자유인과 제 3종인에 대한 비판·문예운동과 사상투쟁 등 모두 이른바 정치의 분야가 문예의 분야를 결정한다 이다. 이것은 작가와 작품을 평가할 때, 중요한 평가기준이었다. 작가가 차지하는 편폭의 비중으로도 이러한 평가기준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이 출판되기 까지 걸린 시간은 19년이지만, 그 중 실제적인 시간은 주편과 편집위원회의 원고의 수정을 포함해서 대략 6년의 시간이다. 만약에 객관적인 상황이 좋았다면, 아마도 ‘문학’ 전에 출판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때 출판되었든, ‘문학’ 이 끝나고 출판되었든 이 책은 종합적인 책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탕타오의 기억에 의하면, 당시에 확립된 편찬의 원칙에는 “1. 최초의 텍스트를 사용하고, 남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반대한다. 작품은 최초에 발표한 간행물을 사용하고, 적어도 최초의 판본이나 출판물을 근거로 한다. 2. 간행물의 동일한 문제에 대해 실린 다른 글을 충분히 활용한다. 문학사 저술은 역사 변화발전의 맥락이고 시대의 횡적인

1) 1979년 6월, 唐弢주편의 《中國現代文學史》 제1권이 출판되었다. 문화대혁명 이후 정식으로 출판된 신문학사저서이다. 이어 1979년11월과 1980년 12월에 唐弢주편의 2권과 唐弢嚴家炎과 3권이 모두 人民文學出版社에서 출판되었다. 모두 72만 자의 편폭이다.

면모를 장악해야 비로소 역사의 종적인 발전을 써낼 수 있다. 3. 학계의 기존의 연구 성과를 충분히 활용한다. 그러나 개인의 견해가 예리할 지라도 대중의 승인의 얻기 전까지는 책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4. 작품의 내용 요약은 간단명료함을 추구하고 원래의 내용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말이 번잡하고 요지가 없어서는 안 된다. 문학사 저술은 예술의 재창조라고 할 수 있다. 5. 문학사는 춘추필법을 사용하여 서술 중에 좋고 나쁨의 평가가 표현되어야 한다.”²⁾

이러한 원칙은 역사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실적인 유물주의 정신을 보여준다. 그러나 당시의 이러한 조정은 특정한 역사조건 하에서 진행되어 졌는데 탕타오 주편의 문학사 편찬자들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초월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胡适의 문학혁명 중의 역사적인 작용을 충분히 긍정할 수 없었고, 胡适은 여전히 정치적인 반혁명분자로 서술되어지고 그 학술사상은 완전히 부정된다. 당시 객관적으로 胡适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당연히 胡适에 대한 억울한 비판도 재평가 될 수 없었고, 우파분자로 비판받은 작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당시 누가 객관적으로 이들을 평가하였다면 아마 그자신이 우파로 몰렸을 것이다. 당시에 반우파 운동, 대약진 운동에 참가한 문학사 편찬자의 사상은 당시 사회사상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이로서 당시의 ‘좌익’ 사상에 대한 조정 작업은 어느 범위 내에서 제한되었다.

이 글에서는 사회주의 시기의 중국현대문학을 총괄하는 탕타오 주편의 《중국현대문학사》 3권을 가지고서 이 책의 장점과 한계, 당시의 문학작품과 작가에 대한 평가의 척도가 어떻게 확립되고 어떻게 실현되는

2) 唐弢, 《求实集·序》(北京大学出版社, 1983), 1쪽. “一、采用第一手材料, 反对人云亦云。作品要查最初发表的期刊, 至少也应依据初版或者早期的印本。二、期刊往往登有关于同一问题的其他文章, 自应充分利用。文学史写的是历史衍变的脉络, 只有掌握时代的横的面貌, 才能写出历史的纵的发展。三、尽量吸收学术界已有的研究成果。个人见解即使精辟, 没有得到公众承认之前, 暂时不写入书内。四、复述作品内容, 力求简明扼要, 既不违背愿意, 又忌冗长拖沓, 这在文学史工作者是一种艺术的再创造。五、文学史采取‘春秋笔法’褒贬从叙述中流露出来。”

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사회주의 시기 중국현대문학사의 완성본

1978년 고등교육부는 무한에서 열린 교재회의에서 고등학부 교재로 사용하기위해 탕타오 주편의 문학사를 빨리 완성하여 출판하기로 결정한다. 당시의 새로운 문학관점이 반영되지 않은 채 원래의 초고에다 수정을 가하여 출판된다. 그래서 이 책의 주요내용은 ‘문혁’ 이전의 것이다. 제 3권은 초고가 ‘문혁’ 중에 소실되어 새롭게 저술 작업을 하였으나 기본적인 상황은 동일하였다. 이 작업은 비교적 급박하여 그 질적인 면에서는 제1, 2권에 못 미친다.

그러나 빠른 시간 내에 편집되는 교재와는 달리 탕타오 주편의 문학사는 십여 년의 세월이 걸려 완성되어, 각기 다른 시기의 학술상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당시 이것은 신문학사 저서 중 가장 수준 높은 저서였다. 《中國現代文學史》는 비록 문혁 후에 정식으로 출판되었지만, 저서에 반영된 학술적인 관점은 문혁 이전의 관점이었다. 이것은 중국 사회주의 시기 30년을 총괄하는 저서로서 그 30년의 수준을 대표하기도 하고, 그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총괄성은 아래의 몇 부분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첫째, 중국사회주의 시기 30년 동안의 중국 현대문학에 대한 인식을 총괄하였다. 중국현대문학과 신민주주의 정치의 긴밀한 관계를 비교적 전면적으로 논술했다. 계급적인 관점으로 중국현대문학 작가군을 분석하고 정치적 기준으로 중국현대문학 작품을 평가하는 것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고수하였는데, 이런 점에서 이전의 중국현대문학 저서보다 더욱 세밀하고 엄밀해졌다.

중국현대문학 중의 사회주의 요소가 과장된 것을 수정하고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창작방법이 유일한 평가척도로서 모든 작품을 비평하는 경향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수정은 그다지 완전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 여전히 좌익적인 사상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탕타오 주편의 문학사는 계급분석의 방법으로 중국현대문학의 복잡한 계급성분을 서술하였다. “현대문학은 현대중국의 복잡한 계급관계가 문학에 반영된 것으로서, 포괄하는 구성요소 역시 복잡하고 다양하다. 새로 만들어진 白話문학 그 자체는 결코 단일한 발생물이 아니다. 그것은 문학상의 무산계급, 혁명적 소자산계급과 자산계급 세 종류의 각기 다른 힘이 새로운 시기에 연합한 결과이고 그 각각의 조성부분 간에는 원칙적인 구분이 되어 있다.”³⁾

“이러한 복잡한 문학성분 중에 주도적인 위치에 속하고, 절대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거대한 성취를 획득한 것은 즉 무산계급이 영도하는 인민대중의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문학이자 신민주주의 성질을 가진 문학이다.”⁴⁾라고 서술하였다.

五·四 시기에서 제 1차 국내혁명전쟁 시기의 창작에 대해서 “이 시기의 대부분의 작품은 예술적인 면에서 치기가 가득하고, 창작방법과 사상적인 경향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다”⁵⁾고 서술하고 있다. 중국현대문학의 신민주주의 성질을 강조하고, 그의 복잡성과 비단일성을 인정함으로써 이것은 일찍이 신문학을 무산계급문학 또는 사회주의 현실주의 발전사로만 보는 단편적인 관점을 수정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여러 복잡한 요소 중에서 탕타오 주편의 문학사는 무산계급의 지도적 작용을 강조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영도하는 영향 하의 혁명문학, 각기 다른 역사단계 속에서 혁명운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일으킨 작품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였다. 혁명문학과 인민혁명사업의 관계에 대해

3) 唐弢主編, 《中國現代文學史》(第一卷)(人民文學出版社, 1979), 7쪽. “现代文学, 作为中国现代复杂的阶级关系在文学上的反映, 所包含的成分也是复杂多样的。新起的白话文学本身, 并不是单一的产物; 它是文学上无产阶级、革命小资产阶级和资产阶级三种不同力量在新时期实行联合的结果, 其各个组成部分之间有着原则的区分。”

4) 唐弢主編, 《中國現代文學史》(第一卷)(人民文學出版社, 1979), 8쪽. “在这多种复杂的文学成分中, 居于主导地位、占有绝对优势并获得了巨大成就的, 则是无产阶级领导的人民大众的反帝反封建的文学, 亦即新民主主义性质的文学。”

5) 唐弢主編, 《中國現代文學史》(第一卷)(人民文學出版社, 1979), 15쪽. “就这个时期的一般作品来说, 除在艺术上表现出稚气外, 创作方法和思想倾向也极为复杂紊乱。”

서 “이것은 무산계급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새로운 시대가 혁명문학에 부여한 선명한 사상의 기록이자 현대문학이 근대문학과 구별되는 근본적인 표시이다”⁶⁾이라고 언급하였다. 동시에 무산계급문학 발전사의 맥락을 중시하여 이 책을 통하여 관찰하여 서술되고 있다. 자산계급 문학에 대해서도 전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나,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극적으로 비판하였다. 이것은 혁명문학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와는 구별되었다.

탕타오 주편의 문학사에서는 “문예투쟁은 정치투쟁에 종속된다. 정치의 분야는 문예 분야를 결정한다”⁷⁾고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문예전선의 투쟁은 어떤 때는 정치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뚜렷하게 정치적 관점을 반영하였다. 동시에 문예투쟁도 “더욱더 문예사상의 영역 내에서 진행”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문예계에서 정치투쟁은 대부분이 문예논쟁을 통해 표현되어진다.

“문예사상 영역 내에서, 반봉건 문학에서 반자산계급 사상까지, 다시 반수정주의 까지, 그리고 白話문학의 논쟁에서 문학의 계급성 유무, 문학은 무산계급 정치에 복무해야하느냐, 공농병 방향을 고수해야하느냐의 논쟁은 갈수록 전진하고 깊이가 있어졌다. 혁명운동은 점차로 문학에 깊이있게 반영되어졌다.”⁸⁾

이로서 알 수 있듯이, 문예투쟁과 정치투쟁을 직접적으로 동일시하여 서로 혼동하는 결점을 수정하기 위해 탕타오 주편의 문학사는 정치투쟁은 문예사상 투쟁과 통하는 것을 강조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6) 唐弢主編,《中國現代文學史》(第一卷)(人民文學出版社, 1979), 10쪽. “这就是无产阶级登上历史舞台的新时代所赋予革命文学的鲜明思想印记, 也是现代文学之所以有别于近代文学的根本标志。”

7) 唐弢主編,《中國現代文學史》(第一卷)(人民文學出版社, 1979), 13쪽. “文艺斗争是从属于政治斗争的。政治的分野决定着文艺的分野。”

8) 唐弢主編,《中國現代文學史》(第一卷)(人民文學出版社, 1979), 13쪽. “在文艺思想领域内, 由反封建文学到反资产阶级思想, 再到反修正主义, 由白话文学的争论到文学有无阶级性、再到文学要不要为无产阶级政治服务、要不要坚持工农兵方向的争论, 其发展趋向是步步前进, 层层深入的。这是整个革命运动逐步深入在文学上的反映。”

이것은 당시의 비교적 높은 인식수준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치적 판단이 정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예투쟁의 성질, 내용의 판단이 그다지 정확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둘째, 이 책의 체제이다. 이전 30년 동안의 중국현대문학사 저서는 신중국 건국 초에 교육부에서 제정한 〈大綱〉에 기초하였는데, 王瑤, 劉綏宋 문학사 저서처럼 장르로서 분류하는 체제를 택하였는데, 1956년 교육부가 제정한 〈大綱〉 및 그 후의 신문학저서의 체제는 점차 작가로서 분류하는 체제를 택하게 된다. 탕타오 주편의 문학사는 이체제의 대표작으로서 이체제의 결점, 장점 모두가 이 책에 뚜렷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 체제의 장점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인데, 작가의 소개가 집중되어 있어서 작가의 형상이 비교적 완전하게 소개되어진다. 이런 점은 교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교적 활용하기 편리하다. 만약 어느 한 시기의 작가에 대해 분류하는 것이 비교적 쉽다면 책의 체제도 비교적 간단명료할 것이다. 예를 들어 탕타오 주편의 문학사의 제1권은 ‘五四’에서 제1차 국내혁명전쟁시기의 문학은 서론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5장으로 나누어진다. 제 1장은 이 시기의 문학운동, 문예사상 투쟁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런 후 魯迅(上), 郭沫若을 각 한 장에 나누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런 후 2장에 분배하여 기타 작가의 창작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한 장은 문학연구회 작가를 위주로 하고, 다른 한 장은 창조사 작가를 위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각 문학단체와 독립작가를 분배하여 이 두 장에 서술하고 있다.

제2권은 6장으로 안배하였는데, 문예운동에 대해 논술한 하나의 章, 그리고 魯迅(下)와 茅盾이 각기 하나의 장을 차지한다. 巴金, 老舍, 曹禺 등이 모두 하나의 장에 집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 세 작가는 魯迅(下)과 茅盾의 뒤에 배치되는데, 이것은 정치적 태도로 선후를 나누는 것이 아닌, 문학적 성과의 높낮음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그 나머지 장은 기타작가에 대한 소개인데, 2장 9절에는 좌익 작가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였고, 단지 한 절만이 좌익 이외의 작가를 소개하였는데, 王統照, 魯彥, 李劫人, 鄭振鐸, 許杰, 沈從文, 李健吾, 芦焚 등의 작가였다. 그들을 소개하는 편폭은 아주 적게 할애되었다. 이

것은 책의 체제 문제가 아니다.

문학사는 문학발전의 과정을 기술하는 것 외에 중요한 것은 창작의 성과를 소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의 주체는 작가를 기본단위로 하여 각자의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작가를 배열하는 체제는 문학역사 발전의 맥락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다. 그러나 이 체제의 모순은 그 내재적인 국한성 때문에 이러한 모순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함은 탕타오 주편의 문학사에 존재한다. 탕타오 주편의 문학사는 문예운동을 부각한 것이 그의 특성이다. 예를 들면, ‘五四’ 문학혁명, 1930년대 좌익문예운동, 1940년대 연안문예 정풍운동이다. 가장 중요한 작가로는 魯迅, 郭沫若, 茅盾 이고, 이 책에서 아주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고 할애하여 서술하는 그 편폭도 아주 길다.

탕타오 주편의 문학사는 沈从文 같은 작가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제 1권과 2권의 언급된 작가 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제3권에 수록된 작가는 많지만 어떤 작가에 대해서는 너무 간단히 언급되고 있다.

탕타오 주편의 문학사는 사료를 풍부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데, 이것은 책의 편집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부분이다. 이점은 문학운동의 기술부분에 더욱 특출하게 표현되었으나, 작가의 소개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五四’ 문학혁명 및 그 발전”이라는 장을 예로 들면, 모두 5개의 절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제1절은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고, 문학혁명의 사상문화 배경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제2절은 문학혁명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제3절의 “신문학 단체의 붕괴와 유파의 탄생 新文學社團的蜂起和流派的產生”의 실제내용은 문학혁명의 성과인데, 즉 신문학 작품의 출현인데 이 배치는 아주 필요하다. 어떤 신문학사 저서는 문예운동만 서술하고 그것의 창작에 대한 영향을 경시하거나 양자 간의 관계를 언급을 하지 않아 이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알지 못하는 결점이 있다. 그러나 제3절은 이점을 보완하여 ‘五四’ 문학혁명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다. 제4절과 제5절은 혁명문학 주장의 제창 및 ‘學衡’ 과 ‘甲寅’ 등과의 논쟁을 통해 문학혁명의 발전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5절의 내용은 문학혁명의 전후의 상황과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별히 기술의 과정에서 많은 사료를 사용하였고, 인용한 신문과 간행물 및 자료의 양은 기존의 문학사 저서를 초월한다. 이것은 문학사 저술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의식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서술한다는 편찬원칙을 관철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당시의 학술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 책은 사료를 중시하였고 주석 작업에도 이것이 반영되어져 있다.

셋째, 문학사 저서의 풍격을 확립했다. 한편으로는 당시의 학술연구의 성과를 참고하였는데 있어서 이미 대중에게 검증된 자료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역사를 서술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점은 비교적 성공적이었으나 작품의 평가에서는 당시의 좌익 사상의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문학’ 이후에 출판된 중국현대문학사 저서 탕타오 주편의 문학사는 당시의 새로운 성과를 받아들였는데 예를 들면, 기존의 문학사 저서에서 격찬을 아끼지 않았던 해방구 문학에 대해서는 그 부족함과 오류를 개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문예가 혁명을 위한 정치에 복무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어떤 때는 정치에 대한 이해가 과도하게 기계적이고 편협하거나 또는 문예특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문예는 각종의 중심작업에 배합해야한다고 제기한 적이 있다. 정치선전에 복무하는 등 간단화의 요구를 위하여 작가의 구체적인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필요에 의해 창작임무 등을 분배하는 부적합한 방법 등이 출현한 적도 있다.”⁹⁾

신중국 건립이전, ‘민주개인주의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지적하길, “비판자는 사상문제와 정치문제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익’이라는 간단화로……자산계급 자유주의 문예사상 및 창작

9) 嚴家炎主編, 《中國現代文學史》(第三卷)(人民文學出版社, 1980), 206쪽. “在强调文艺为革命的政治服务的同时, 有时由于对政治理解得过于机械、过于狭窄, 或者对文艺特征认识不足, 因而曾经提出过要文艺配合各项中心工作, 为宣传政治服务等简单化的要求, 也出现过不顾作者具体条件只按需要分配创作任务等不尽恰当的做法。”

을 비판할 때 사상문제를 간단하게 정치문제와 연결 지어 언급하는 현상이 존재했었다”¹⁰⁾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비평은 이전에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것은 중국현대문학사 연구에서 역사에 대한 성찰이 시작되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탕타오 주변의 문학사에는 중국사회주의 17년 시기(1949-1966)의 관점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작가와 작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정치적 평가가 우선이었다는 것이다. 이로서 어떤 작품의 의미를 충분히 발굴하거나 그에 합당한 평가를 줄 수가 없었다.

3. 중국현대 작가와 작품에 대한 평가

《中國現代文學史》3권 중에서 루쉰(魯迅)이 두장을 차지하고, 궈뉘뤄(郭沫若) 및 마오뉘(茅盾)은 각기 하나의 장을 차지하고, 이 세 작가의 각장의 제1절의 제목은 모두 ‘사상적 발전’이다. 바진·老舍·曹禺 세 사람은 한 장에 합해져 논술된다. 기타의 좌익작가는 모두 2장9절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른바 기타 작가작품이라는 한절에서 王統照·魯彥·鄭振鐸·許傑·沈從文·李健吾·蕭乾·蘆焚 등을 모두 언급하는데, 한사람이 차지하는 편폭이 한 페이지에도 미치지 않는다. 정치적인 면에서 좌익과 대립되는 입장이면, 모든 그에 관한 논술은 적대적인 위치에 놓았고, 그 작품의 사상문제가 서술의 중점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학사 이념과 서술의 원칙은, 작가와 작품의 서술에까지 관철되어졌다. 루쉰(魯迅)·궈뉘뤄(郭沫若)·마오뉘(茅盾)과 기타 좌익 작가 및 해방구 문학은 이러한 문학사에서 중국현대문학사의 가장 중요한 작가로 긍정되는 주류들이다. 예를 들어 루쉰의 평가에 있어, 그의 《吶喊》·《彷徨》을 이야기할 때, 전형적인 형상의 성공적인 창조를 통하여 더욱 넓은 시대와 역사의 내용을 개괄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무산계급이 권력을 획득하

10) 嚴家炎主編, 《中國現代文學史》(第三卷)(人民文學出版社, 1980), 421-422 쪽. “批判者未能很好划清思想问题与政治问题的界限, 帶有‘左’的简单化, ……在批判资产阶级自由主义文艺思想及创作的时候, 存在着把思想问题简单提升为政治问题的现象。”

기 전야의 중국인민 특히 농민의 극도의 고통을 진실하게 재현하였고, 미래에 대한 신념이 혁명에의 전도를 탐색하게 하는, 혁명적 현실주의 특색을 심도 있게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산주의자 루쉰은 잡문을 주요 무기로 하여, 그의 전투를 진행하였다고 하였다.

마오뚱의 《子夜》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였는데, 이 작품이 비교적 거대한 규모로 1930년대의 중국사회면모를 진실하게 묘사했고, 그 미래의 동향을 제시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작자가 마르크스주의 관점과 이에 상응하는 예술방법적 관찰과 생활을 재현하려는 결과로 여겼다. 중국현대문학사에서의 좌련의 지위와 그 의의를 충분히 긍정하였고, 해방구 시기의 창작, 자오수리(趙樹理)의 소설, 《白毛女》, 《王貴與李香香》, 《太陽照在桑幹河上》, 《暴風聚雨》 등은 그 방향성제시에 의의를 두고 높은 평가를 하였다. 특히 《백모녀》는 해방구 창작의 뛰어난 대표작으로 평가되어졌다.

탕타오 주편의 문학사는 중국현대문학의 풍부한 면모를 충분히 묘사할 수가 없었다. 예술적인 면에서 독특한 유파와 작가는 적합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간단히 부정되었다. 新月派의 경우 모호하게 “아름답게 다듬고 화려한 형식으로 그 공허하고 타락된 내용”¹¹⁾이라고 평가하였다. 李金發의 象徵詩에 대해서 “당시 시가발전의 역류를 형성하였”고, “우리나라 신시가 발전과정에서 상징파가 일으킨 작용은 반동적인 것이다”고 언급하였다.¹²⁾ 그 당시 七月派의 문학사에서의 위치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었다.

정치적 입장에서 자유주의 작가는 창작의 성과는 아주 높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아주 간략하였다. 沈從文, 徐志摩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부여된 편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역사적 공헌은 인정하지 않았다. 잘못 평가된 작가들은 비록 어떤 이는 이미 그들의 위치를 회복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작품의 가치는 충분히 서술되지 못했

11) 唐弢主編, 《中國現代文學史》(第一卷)(人民文學出版社, 1979), 160쪽. “以彫琢華麗的形式掩蓋, 其空虛腐朽的內容.”

12) 唐弢主編, 《中國現代文學史》(第一卷)(人民文學出版社, 1979), 217쪽. “構成當時詩歌發展中逆流”, “在我國新詩發展過程中, 象徵派所起的作用是反動的.”

다. 많은 작가들에 대한 평가는 양면의 성질이나 상태가 병존함을 나타내는 서술방식을 택하였다. 이것은 평가의 척도가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긍정하였지만 또 그렇게 철저하게 좌적인 관점을 부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문혁’ 이전의 전체적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시기의 중국현대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보류하고 있었다. ‘五四’ 후의 문예사상의 투쟁은 여전히 과거의 맥락처럼 봉건복고파와의 논쟁이 자산계급 문예관과의 논쟁으로 변화되고, 다시 마르크스의 걸옷을 걸친 수정주의 문예관과의 투쟁으로 진화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전히 계급투쟁이 점차로 진화된다는 사상모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과거의 인식의 흔적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의 사상은 언제나 객관적 환경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탕타오 주편의 《중국현대문학사》와 다른 현대문학사 저서를 비교하여 중국사회주의 시기 중국현대문학에 대한 평가척도의 차별성을 읽어보고자 한다.

1950-60년대에 루쉰 《野草》는, 비록 연구자들이 이 산문집을 중시하긴 하였지만 평가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탕타오 주편의 문학사는 《野草》중의 《影的告別》, 《墓碣文》 등에 중점을 두었고, 이 두편의 산문을 작가사상 가운데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사상적 모순과 충돌의 반영으로 해석되어졌다. 그러나 《野草》중의 이러한 정서는 불건강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자아비판과 분석의 태도로 쓴 것이지만 사상적인 면에서의 거대한 도약을 품고 있다고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작품을 긍정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1980년대 중국문학연구에서 《野草》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해석 경향과 일종의 대비를 형성한다. 《中國現代文學30年》¹³⁾에서는 《野草》를 중국산문사의 기념비라 하였고, 《野草》는 루쉰의 모든 창작 가운데(심지어 전체 ‘五四’문학에서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가장 개성적인, 그리고 가장 풍부한 독창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두 방면에서

13) 錢理群等, 《中國現代文學三十年》(上海文藝出版社, 1987), 119-123쪽.

이미 충분히 ‘五四’의 주요정신인 인간과 문학의 발견 위대한 의의 및 중국문학사의 깊이 있는 변혁을 이끌어냈다고 하였다. 《野草》에 대한 이러한 찬미는 1980년대의 인간과 문학의 재발견이라는 담론 체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오뚱과 라오서는 중국현대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가들이다. 이들의 위치는 탕타오 주편의 문학사에서 비슷한 입장에서 다루어지거나 서로 비교되어지곤 하였다. 당시의 문학사에서는 마오뚱의 위치가 비교적 높다. 이것은 장절의 배춧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마오뚱만을 논술하는 전문적인 장이 배치되어 있는 반면 라오서는 빠진.차오위와 함께 하나의 장에 서술되어진다.

탕타오 주편의 문학사에서는 마오뚱은 시대적 변화와 사회운동의 변천에 주의하였고, 개인의 운명은 시대적·사회적 변천과 관계가 있을 때에만 비로소 중요시 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라오서는 개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졌고 개인의 문제를 통해 시대의 문제를 표현해내려고 한다고 했다. 그래서 마오뚱을 라오서보다 더욱 가치가 있다고 서술하였다. 탕타오 주편의 문학사는 마오뚱이 마르크스주의 관점과 이에 상응하는 예술기법으로 생활을 관찰, 재현하려 하였고, 신해혁명 이후 반세기 이내의 중국의 사회면모의 변화 및 각 계층의 생활동향 및 그들 사이의 충돌에 대해 생동적이고 선명한 반영을 하였다고 하였다. 그의 작품 《子夜》·《林家鋪子》과 《春蠶》 등은 작가가 대규모 중국사회현상을 묘사하려는 계획의 한 부분이고, 여명 전의 구중국 사회생활의 진실한 묘사라고 하였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사회생활을 광범하고 깊이 있게 반영했으나 문제의 면에서 마오뚱은 이러한 평가 척도의 요구에 아주 뚜렷하게 부합하였으나, 라오서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서술하였다.

라오서 작품이 시대배경의 묘사에 비교적 소홀하고, 그 시대의 중대한 사회변화와의 연결이 비교적 부족하며, 이야기의 결말이 비교적 무겁고, 음울한 절망의 분위기가 가득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작품은 그 시대의 비참한 분위기를 표현하여 당시의 사회에 대하여 비판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구사회 암흑세력의 강대함과 개인분투의 무력함을 인식

한 후 노동인민이 자아해방의 정확한 길을 찾지 못한 상황 하에 일어난 방황고민의 심정을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라오서의 창작 중에서는 《駱駝祥子》와 《月牙兒》 등을 중요시하였다. 《四世同堂》에 대해서도 긍정은 하였으나 《二馬》·《貓城記》·《老張的哲學》·《離婚》와 《牛天賜傳》 등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높지 않았고, 그 사상경향을 비판하거나 아예 언급하지를 않았다.

탕타오의 문학사에서 마오뚱의 창작 중에서 가장 평가가 높은 것은 물론 《子夜》였고, 《린씨네 상점》·《누에고치》 등이었다. 그리고 샤즈칭(夏志清)의 《中國現代小說史》¹⁴⁾ 마오뚱의 가장 우수한 소설로 여긴 《蝕》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마오뚱은 1950년대 초, 《蝕》에서는 혁명전도예의 적극적인 정서를 볼 수 없다고 자기를 검토한 적이 있다. 단편소설 《누에고치》는 탕타오와 샤즈칭 등이 모두 높이 평가하고 주목하였는데, 그러나 그들이 주목한 점은 각기 달랐다. 샤즈칭이 그것을 마오뚱의 가장 우수한 작품이라고 평가한 근거는 그 작품이 “유일하게 무산계급 문학전통의 속박에서 벗어난 소설이었기 때문이었다.”¹⁵⁾ 라고 언급하였다. 그가 중시한 것은 작품 속에 묘사된 전통적인 중국농민의 절대적인 성실함 때문이라고 하였고, 마오뚱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노동자의 존엄을 찬미하였다고 하였다. 애정, 인내와 성실함을 필요로 하는 중국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누에를 치고, 전체 과정은 마치 하나의 종교의식처럼 느껴지는데 마오뚱은 아주 교묘하게 이 성실함을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하늘과 신을 경외하는 관념에다 근면하고 의연한 정신은 바로 중국농민 고유의 미덕을 대표한다고 하였다. 비록 마오뚱의 원래 의도는 이러한 봉건심리를 배척하는 것이었지만, 그의 붓 아래 그려진 그러한 세대를 전해 내려오는 일에 만족하는 선량한 농민의 이러한 묘사는 정감어린 것이라는 것이다. 원래의 작가의 의도는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소설이었지만 오히려 인성의 존엄

14) 夏志清, 劉紹銘等譯, 《中國現代小說史》(台北: 傳記文學出版社, 民國68).

15) 夏志清, 《中國現代小說史》(台北: 傳記文學出版社, 民國68), 183쪽면. “唯一接近擺脫無產階級文學傳統束縛的短篇小說.”

을 찬미하는 시가 되었다고 하였다.

탕타오 주편의 문학사의 의견은 완전히 상반된다. 그는 마오쩌둥이 농민 通寶영감의 미신에 대해 극도의 풍자와 부정적 시각으로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마오쩌둥의 이 가정에 대한 묘사는 샤프칭이 논술하는 것처럼 이른바 감동을 준다든지, 후덕한 농민을 그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마오쩌둥은 이 가정이 빈곤의 잔인한 압력에 의해 빠르게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을 그리려고 하였고, 최후에 통바오가 힘들게 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때만이 농민의 출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였다고 하였다.

1940년대의 《腐蝕》과 1980, 90년대에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던 《腐蝕》·《雪葉紅似二月花》은 이 시기의 문학사에서는 다만 그들의 결점만이 언급되어졌다.

巴金에 대한 서술을 보면, 탕타오의 문학사에서는 《激流三部曲》, 특히 《家》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평가의 근거는 우선 작품이 봉건 암흑제도에 대한 폭로, 고발, 증오의 걱정과 광명을 추구하는 열정을 표현하였기 때문이었고, 한편으로는 작품이 일으킨 사회적 효과로 평가한 것이었다. 빠진의 작품이 청년들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혁명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상당한 작용을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십대 전후의 청년들은 거의 모두 覺慧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탕타오 주편의 문학사는 이 점에 주목하여 빠진 창작의 가치를 논술하였다. 작가는 봉건세력을 폭로하였고 청년지식인의 각성과 아울러 이러한 가정의 파괴를 노래하였다고 하였다. 청년들의 반봉건의 계몽교육적인 측면에 대해 《激流三部曲》, 특히 《家》는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고 하였다. 봉건가정과 봉건제도의 최악 고발을 주제로 한 《激流三部曲》은 강렬한 전투적 의의를 가지며, 그것은 몇 세대의 청년독자들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하였다. 그러나 1940년대 빠진의 예술적으로 더욱 성숙한 작품, 즉 《憩園》·《寒夜》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家》에 대한 평가에는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평가는 샤프칭이 문학성을 중시하는 평가기준과는 아주 달랐

다. 샤즈칭이 빠진의 작품에서 중시한 작품은 《秋》와 《寒夜》였다. 그는 《秋》는 빠진의 작품 중에서 분노를 가장 잘 그려내었고 《寒夜》는 그의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라고 하였다. 애정은 분노를 초월할 수 있다는 《寒夜》의 성공은 이러한 성숙함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寒夜》는 현대 중국소설 중에서 아주 드문 성과라고 하였다. 그 작품은 일상 생활에 근거를 둔 창작으로 그가 이해하는 진실을 세심하게 묘사하였다고 하였다. 이 작품은 절망적인 암흑시기의 하나의 우연인 동시에 평범한 사람이 자애의 길을 걸을 때, 반드시 마주치는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을 그린 것으로, 빠진을 뛰어난 심리 과 소설가라고 평가하였다.

차오위(曹禺)의 극작품에 대한 평가는 탕타오의 문학사에서는 《雷雨》, 《日出》과 《脫變》을 긍정하고, 《原野》와 《北京人》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입장이었다. 《雷雨》와 《日出》에 대하여 현실반영과 진실이라는 평가기준으로 높은 평가를 하였다. 《雷雨》는 자산계급의 죄악과 그들의 저속하고 비열한 정신적 면모를 심도 있게 폭로하였다고 강조하고, 관중과 독자들이 이러한 비극을 형성한 사회적인 원인을 추적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이다.

탕타오 주편의 문학사에서는 작가가 이러한 제재를 처리하려고 할 때, 시대를 탄식하는 심경으로, 우주 속의 잔인함과 냉혹, 비판적인 숙명론의 관점을 특별히 강조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차오위는 《머리말》에서 채삼 극중의 ‘序幕’과 ‘尾聲’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비극적인 정서를 강조하고 알 수 없는 힘을 강조함으로써 희랍 비극같은 효과를 얻기를 희망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당시 작가가 이러한 비극이 생산된 사회적 역사근원에 대하여 과학적 이해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비극적 원인을 자연의 법칙으로 해석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주는 마치 잔혹한 우물처럼, 그 속에 빠지면, 어떻게 고향 질러도 벗어나기 힘들다고 여기는 그러한 인식의 한계가 작품이 현실을 반영하는 깊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작품의 사상과 예술적인 면에 약점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雷雨》의 ‘서막’과 ‘미성’을 삭제하기 전에는,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하였다고 하였다. 차오위 작품 속의 性愛와 혈연의 각종의 교묘한 윤리도덕의 갈등과 비극이 작

품의 사회성을 약화시켰다고 하였다.

탕타오 주편의 문학사에서는 《日出》이 상층과 하층을 포함한 사회생활의 횡단면을 뛰어나게 표현하였다고 평가하였다. 《雷雨》의 이른바 자연의 법칙에서 《日出》에서의 사회생활을 실제로 조종하는 암흑세력의 묘사에 이르기까지는, 작가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뚜렷한 진화가 있다고 서술하였다. 차오위가 개편한 빠진 소설 《家》는 구가정의 불합리한 면을 고발하는 것은 긍정할 수 있으나, 《家》는 신세대의 반항을 쓰지 않고, 결말이 처량하여, 소설원작보다 그 어조가 침울하고 무겁다고 비판하였다.

1980년대, 희극 《家》에 대한 평가는 이전과는 다른 평가 척도를 보여주었다. 《中國現代文學三十年》에서는 소설 《家》와 희극 《家》는 다 각기 뛰어나다고 논술했다. 빠진의 소설 《家》는 覺慧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청년과 구질서와의 항쟁을 중점적으로 표현하였고, 개편된 《家》는 전체극의 내용이 覺新, 瑞珏, 梅芬 등의 불행한 혼인 및 그들 간의 감정 갈등을 주요한 구조로 설정하였는데, 이것은 극작가의 창작작의 예술적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中國現代文學三十年》에서는 사상성과 그 암흑의 폭로 정도가 작품의 평가기준이 아니었고, 장르의 특성에 주의하기 시작하여 소설과 희극은 각기 그 특수한 표현방식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1950, 60년대에 평가가 높지 않았던 《原野》는 1980년대에 그 지위가 상승된다. 1950, 60년대에 《原野》는 작가의 사상예술적 후퇴와 한계가 뚜렷한 창작의 예로 여겨졌으나,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상예술의 진보와 심화로 서술되어진다.

1950-70년대의 중국현대문학사 쓰기에 사용된 평가기준의 관건적인 문제는 문학에서의 주류와 비주류를 획분하는 것이었고, 문예상의 무산계급노선과 자산계급노선을 획분하고, 문학 중의 비주류를 배척함으로써 무산계급문학의 최고의 합법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이러한 문화 현실 질서의 진리 혹은 지식을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4. 결론

새로운 文學 관념의 발생은 문학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로써 문학 질서에 관한 상상적인 구조가 재구성된다. 문학교육은 사람들이 문학을 어떻게 상상할지를 규정하고, 사회에 공통된 인식, 즉 문학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기본적인 방법과 판단력을 제공해준다.

교육제도는 새로운 문학 관념을 확립함에 어떤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문학사 쓰기이다. 문학사 쓰기는 새로운 문학적 상상의 체현이고, 그 핵심문제는 객관적으로 문학발생, 발전과 변화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으로, 역사서술을 통하여 문학 기원의 합리성을 확립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문학 관념을 확립하는 데 그 자원을 제공해준다. 문학교육은 새로운 문학관념이 보편적 인식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문학사가 문학교육(특히 대학 문학교육)의 주요한 내용이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런 흐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의 전야인 1949년 7월에 北平에서 中華全國文學藝術工作者代表大會가 개최되었다. 이것은 하나의 종결적 의미를 지닌 회의였고 '五四' 이래의 중국현대문학에 대한 초보적인 총괄적 회고와 평가였다. 이때 쑤뉘러는 〈신중국의 인민문예를 건설하기 위한 분투(爲建設新中國的人民文藝而奮鬥)〉를, 마오뚱은 〈반동파의 압박 아래에서 투쟁하며 발전하는 혁명문예(在反動派壓迫下鬪爭和發展的革命文藝)〉를, 저우양(周揚)은 〈새로운 인민의 문예(新的人民的文藝)〉를 각기 발표하였다. 마오뚱과 저우양의 보고서는 항전 이래 국통구와 해방구의 문예의 발전상황을 각기 논술한 회고로서 이 시기의 문예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리하였다. 이 두 발언은 이후의 신문학사 쓰기의 중요한 관점과 자료가 되었다.

혁명이 전국적인 승리를 거둔 후 중국현대문학의 주도적 지위는 더욱 강화되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중국현대문학을 이해하기 위해, 또 중공이 영도하는 혁명문학운동의 경험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대학에 중국현대문학사에 관한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절실했다. 이

로써 중국현대문학사는 대학 중문과의 중점적인 교과목이 되었다.

1949년 이후의 중국현대문학사 쓰기와 강의는 국가정권을 건립하고 논술하려는 임무에 참여하게 된다. 중국현대문학사의 서술은 중공공산당 건설의 도정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정당 이데올로기 앞에 놓인 중요 임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중국혁명이 어떻게 승리에 도달했는지, 중화인민공화국이 어떻게 힘든 투쟁을 거쳐 건립되었는지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중국현대문학 교육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작업에 참여하였다.

1950년 5월 교육부가 소집한 전국고등교육회의는 고등학부 각 학과의 과정초안 〈高等學校文法兩學院各系課程草案〉을 통과시켰다. 그 중에서 중국현대문학사는 각 대학 중국문학 학과 주요 과정 중의 하나로 규정되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방법으로, 五四부터 현재까지의 중국현대문학 발전사를 논술하고, 각 단계의 문예사상 투쟁과 그 발전 상황에 주목하며 산문, 시가, 희극, 소설 등 저명한 작가와 작품을 논술한다.”¹⁶⁾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방법이 주로 가리키는 것은 마오쩌둥(毛澤東)이 〈新民主主義論〉 등 저술에서 피력한 관점들이다. 이로부터 중국현대문학사 연구와 교학은 현대 중국문학 학술과 교육체제 가운데 중요한 학문의 하나로 자리잡게 된다. 이것은 정당 이데올로기가 이 시대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문예사상 투쟁을 골간으로 선택하여 쓰여진 중국현대문학사는 이미 ‘中國新民主主義革命史’ 및 ‘中國共產黨黨史’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되었다.

1951년, 중앙교육부 주도 하의 각 학과과정 개혁소조인 中國語文小組는 老舍, 蔡儀, 王瑤, 李何林 등으로 하여금 〈《중국신문학사》 교학대강〉을 작성하도록 하여, 기본적인 틀을 확립하였다.¹⁷⁾ 1951년 9월, 王瑤의 《中國新文學史稿》가 출판되었고, 이후 5-6년 사이에 蔡儀《中

16) 王瑤, 《中國新文學史稿》(上卷)(北京: 開明書店, 1951), 1쪽. “運用新觀點, 新方法, 講述自五四時代到現在的中國新文學的發展史, 着重在各階段的文藝思想鬥爭化發展狀況, 以及散文, 詩歌, 戲劇, 小說等著名作家和作品的評述.”

17) 李何林, 蔡儀等, 〈中國新文學史教學大綱〉, 《新建設》(1951:4), 6쪽.

國新文學史講話》· 張畢來《新文學史綱》· 劉綏松 《中國新文學史初稿》 등의 중국현대문학사 저서가 출판되었다.¹⁸⁾ 이러한 교과서 식의 문학사 쓰기로 중국현대문학의 학과규범은 기본적으로 틀을 마련하게 된다.

각각의 문학사가의 문학역사에 대한 논술의 차이는 필연적인 것이고, 자기가 쓴 문학사 속에 어떤 자료를 선택해 쓰는지, 그 자료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그의 문학관과 역사관에 의해 정해진다. 이러한 관념은 문학사저서의 지도사상이고, 문학사가가 고려하고 자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문학사가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에는 복잡한 원인들이 있는데, 개인의 취향 이외에 이데올로기 문제도 언급할 수 있다. 다만, 위에 언급한 몇 권의 문학사를 읽고난 후의 필자의 생각은 그들 간에는 비록 여러 가지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나 기본적인 논술의 기준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었다.

1955년과 1956년은 중국사회주의 발전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신중국 건국초의 군사,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자 1956년 6월 中共中央宣傳部長 陸定一은 마오쩌둥의 ‘百花齊放, 百家爭鳴’ 을 사회주의 문학예술과 과학 분야의 발전의 방침으로 한다는 지시를 전달한다.

1957년 2월 마오쩌둥은 〈關於正確處理人民內部矛盾的問題〉의 발언에서 “혁명시기 대규모의 폭풍우식의 군중계급투쟁은 기본적으로 끝났다” 는 판단을 선포하였다. ‘反胡風’ 운동이 끝난 뒤의 이러한 새로운 정치 분위기 아래 문예계 학술계는 점차로 비교적 활발한 기운이 출현하였다. 문예계는 창작 중의 공식화, 개념화를 반대하고 다양화를 주장하고 문예이론과 비평영역 내에서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흐름이 조성되었다. 1957년 당시 사회정치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문예계의 사상은 비교적 활발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고등교육부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1956년에 전국통일교재의 편찬사업을 조직하게 된다. 참여한 사람은 모두 당시 국내의 저명한 학자였다. 당시 교학계획에 따

18) 王瑤, 《中國新文學史稿》(開明書店, 1951); 蔡儀, 《中國新文學史講話》(新文藝出版社, 1952); 張畢來, 《新文學史綱》(作家出版社, 1955); 劉綏松, 《中國新文學史初稿》(作家出版社, 1957).

라 중국현대문학사는 王瑤, 劉綏松이 편집 작업을 맡게 된다.

이 〈대강〉의 ‘導論’에서 “문학사연구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입장, 관점, 방법을 견지하는 것”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자료에서 구체적인 분석을 하여 정확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학술계의 중요한 사상동향을 반영하였다.¹⁹⁾

국가통일의 교학계획에 의하여 중국현대문학사는 대학 국문학과와 필수과목이 되었다. 중국현대문학사 교재는 특히 1958년 이후부터 집단창작 방법으로 쓰여 졌고, 조직적인 글쓰기 방법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건국 후 1956년까지 교육체제는 중국현대문학사 쓰기와 교학체제의 건립에 참여하였고 기본적으로 중국현대문학사의 기본적인 틀을 확립하였다.

1960년대 초, 조정기간에 문예계, 교육계에서는 좌익에 편도된 지도사상에 대해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1962년 中共八届十中全会에서 毛泽东은 계급투쟁을 ‘해마다 말하고, 매 달마다 말하고, 매일 말해야 年年讲, 月月讲, 天天讲’ 한다는 연설을 하고, 자본주의 부활 등의 위험문제를 내세우자 좌경의 지도사상은 이전보다 엄중해지기 시작하고, 결국 ‘문혁’이 시작된다.

이 책의 출판은 중화인민공화국 30년의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삼 십 년간 중국현대문학사의 편찬은 개창, 돌파, 종결의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개창의 공은 王瑤의 《中國新文學史稿》에 돌린다. 그 후의 문학사 저서는 개인의 저서이든, 집체편집이든 그 의도는 돌파에 있었다. 문제는 그 돌파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1961년에 이르러 3년 경제 곤란시기를 거쳐 중국사회주의 건설은 좌절을 거치면서 조정기간을 가지게 된다. 이와 동시에 사상 방면에서도 조정을 시도한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 시도되어진 1961년의 문과교재회의에서 周揚의 회의에서의 발언은 조정 정신을 관철하면서 反 ‘左’ 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唐弢 주편의 문학사는 이런 분위기에서 시작되었고 이로서 이 ‘돌

19) 《中国文学史教学大纲》(高等教育出版社, 1957), 5-6면. “一方面提出研究文学史要坚持马列主义的立场、观点、方法”, “分清主次, 鉴别材料”, “从具体材料中作具体分析, 作出正确的结论.” “对于庸俗社会学倾向的纠正.”

파' 시기의 과도한 좌적인 관점과 방법은 어느 정도 수정을 가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로써 唐弢 주편의 문학사는 시대의 낙인이 남지 않을 수 없었고 그의 결과는 당시 조건 하에서의 자연스런 결과였다. 책이 정식으로 출판될 때, 사회 환경은 이미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1979년 10월에 열린 中國文藝工作者的 제 4차 全國大會는 중국신시기 문예 발전의 이정표가 된다.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서는 작가의 역사적 공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唐弢 주편의 문학사는 1961년 문학조정기의 역사에 대한 태도에서 그 변화가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그러한 시대의 변화가 반영되지 못했다. '문예는 정치에 복무한다', '정치표준이 첫 번째이다' 등의 원칙 등이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졌다.

당시에 출판된 중국현대문학사의 서술의 특징을 종합하여 보면, 그들의 중국현대문학의 문학운동과 작가와 처리에 있어서 대략 항상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였다. 첫째 신월파와 현대파 등 문학유파의 작가는 그 정치경향과 예술경향에서 대체적으로 비판하고 부정하였다. 예를들면 신월파는 매관자산계급과 반동이익의 집단이다. 둘째,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작가로는 루쉰, 쑨원, 마오뚝, 葉聖陶, 卞之琳, 라오서, 차오위와 좌련의 오열사 등이었다. 셋째, 후스(胡适)에 대한 평가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혹은 간단히 부정하는 것으로 취급되어졌는데, 그의 시집인 《嘗試集》과 극작 《終身大事》는 중국현대문학에서 가장 먼저 출현된 작품인데도 이런 사실조차도 언급되지 않았다. 넷째 周作人대해서는, 말기에 매국노로 비판을 받음으로 인해 그의 문학사에서의 공적과 지위는 부정되었다. 다섯째, 중국현대문학의 성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중국혁명의 성질이 중국현대문학을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탕타오 주편한 《중국현대문학사》에서 중국현대문학은 복잡 다양하여, 자산계급문학, 소자산계급문학이 존재하는 반면에, 봉건문학, 파시스트의 민족주의문예, 전국책과 등의 문예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도적 세력으로 거대한 성과를 얻은 것은 무산계급이 영도하는 인민대중의 반

제 반봉건의 문학이고, 신민주주의 성질의 문학이었다고 논술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문학사 저서는 중국 사회주의 시기 30년의 중국현대문학에 대한 인식을 총괄하여 보여준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王瑤, 《中國新文學史稿》(上)(北京: 開明書店, 1951).
王瑤, 《中國新文學史稿》(下)(上海: 新文藝出版社, 1953).
王瑤, 《中國新文學史稿》(上,下)(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82).
丁易, 《中國現代文學史略》(北京: 作家出版社, 1955).
張畢來, 《新文學史綱》(北京: 作家出版社, 1955).
劉綬松, 《中國新文學史初稿》(北京: 作家出版社, 1956).
李何林 등, 《中國新文學史研究》(北京: 新建設雜誌社, 1951).
《中國文學史教學大綱》(北京: 高等教育出版社, 1957).
唐弢主編, 《中國現代文學史》(1,2卷)(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79).
唐弢, 嚴家炎主編, 《中國現代文學史》(3卷)(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0).
唐弢, 《求實集》(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3).
錢理群等, 《中國現代文學三十年》(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87).
夏志清, 劉紹銘等譯, 《中國現代小說史》(台北: 傳記文學出版社, 民國68).
普實克, 李燕喬等譯 《普實克中國現代文學論文集》(長沙: 湖南文藝出版社, 1987).
黃修己, 《中國新文學史編纂史》(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5).
王瑤, 《中國現代文學史論集》(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毛澤東, 《毛澤東選集》(1-5)(北京: 人民出版社, 1991).
周揚, 〈文藝戰線上的一場大辯論〉, 《文藝報》5(1958).
邵荃麟等, 〈偽文學藝術大躍進掃清道路—座談周揚同志的文章〈文藝戰線上的一場大辯論〉〉, 《文藝報》6(1958).
北大中文系魯迅文學史, 〈文藝界兩條路線的鬭爭不容否定—批判王瑤的《中國新文學史稿》〉, 《文藝報》17(1958).
邵荃麟, 〈關於五四文學的歷史評價問題〉, 《人民文學》5(1959).
洪子誠, 「當代文學概念」, 《文學評論》6(1998).

[中文摘要]

作为教材，1960年代上马而尚未完成的唐弢主编的《中国现代文学史》，也在1978年重新上马了。为了编好这部教材，中国政府投入的力量之大，是迄今为止无以超越，会不会也是绝后的，也难说。只就人员而言，编写组集中了当时这一学科最有权威的学者，如唐弢·王瑶·刘受松·严家炎·樊骏和陈涌等。这是一部总结性的新文学史著作。1961年文科教材会议之后，开始编写，至1979年上册第1分册付印，中间情况变易，停顿多年，……前后大致经历了这样两个阶段；第一阶段：自1961年初开始集中人力，组成编委会，到1964年完成全书讨论稿，近60万字，历时三年。第二阶段：自1978年9月起，重新恢复和建立了编写组。这样，到全书出齐，前后历时约19年。该书的出版正值中华人民共和国成立三十周年前后，仅就这三十年新文学史著的编撰而言，经历了“开创-突破-总结”的过程。1961年的文科教材会议，周扬在会上做的报告，都为了贯穿调整的精神，带着反“左”的特征。唐弢本在这样的背景下上马，因而对突破阶段许多过左的观点、方法，都程度不同地加以纠正。但这种调整，是在当时特定的历史条件下进行的，唐弢本的作者们无法超越这历史条件的。但无论如何，它的成就代表了三十年的水平，它的不足也反映了前三十年的局限。通过这部文学史考察社会主义时期对文学评价标准和中国现代文学历史的理解。

關鍵詞：教科書，文學史，中國現代文學史，評價尺度，文藝鬭爭與政治鬭爭

中國啓蒙思潮与文學

劉美景*

〈목 차〉

1. 序論
2. 中國的啓蒙思潮与文學
 - (1) 明末清初的啓蒙思潮与文學
 - (2) 近代啓蒙運動和文學
 - (3) 現代啓蒙運動与文學
3. 結語

1. 序論

“启蒙”一词，通常是指开导蒙昧，使之明白事理，“启蒙运动”是泛指通过宣传教育，使社会接受新事物而得到进步的运动。从一般意义上说，所谓启蒙运动是14世纪至16世纪欧洲的文艺复兴和以英、法为代表的贯穿于17、18世纪欧洲的理性主义批判运动。¹⁾在文艺复兴时期，先进的思想家针对欧洲历史上最黑暗的时代，提出反封建、反教会的口号，高高举起人文主义旗帜，主张以人为中心、发展人的个性。继文艺复兴之后，18世纪以法国为中心又开展了轰轰烈烈的启蒙运动。这时期的启蒙主义者认为以理性和近代自然科学知识来启发、照亮人们的头脑，就可以破除迷信，改良社会制度。他们以“天赋人权”为旗帜，在人文主义肯定和歌颂人的价值的基础上，强调人人生来自由、平等，打破了君权至上的迷信。²⁾

* 釜山大學校 中文系 講師

1) 张巨才等 主编《西方文学理论大辞典》(吉林文史出版), p.646。

2) 杨周翰,《欧洲文学史》(人民文学出版), p.295。

思想的革新必然伴随并且带动文学的革新，因此每一次启蒙主义的思潮必然带来一场文学的新思潮——“启蒙文学”。上述的两个时期培养了意大利的但丁，英国的爱迪生、杨格和菲尔丁，德国的高特摄特、莱辛和赫尔德，法国的伏尔泰、卢梭和狄德罗等。这些资产阶级文学家为适应战斗、宣传启蒙思想的需要，进行了新的探索与创造，创造了各种新的文学形式，诸如英国的现实主义小说，法国的哲理小说、严肃喜剧，德国的市民悲剧等，从而形成了从内容到形式都崭新的“启蒙文学”。³⁾

就中国来说，大规模的轰轰烈烈的文化启蒙运动无疑是始于近现代，因为，自近现代起，科学、民主、自由、平等之类的思想观念才真正从外国“拿来”，用于教育愚昧、落后、保守、没有人之所以为人的个性的民众。⁴⁾一般说来，事物总是由外因和内因合力而推动的，如果说上述条件是说中国近现代启蒙运动的外因，那么在中国早就存在的启蒙思想的萌芽就是它的内因。这些思想渊源不仅决定了中国近、现代思想家们对西方先进思想的选择和取舍，而且形成了一股不同于西方启蒙运动、中国特有的倾向。本考首先以论述中国早期启蒙主义思潮和其文学为开端，然后考察中国两大启蒙主义思潮和其影响之下展开的文学运动。

2. 中國的啓蒙思潮与文學

(1) 明末清初的启蒙思潮与文学

中国早期启蒙思潮是在中国封建社会晚期商品经济的空前发展，早期资本主义生产关系开始萌芽，新兴的市民阶层初步崛起，宋明理学走向自我否定的基础上逐渐勃兴起来的。李贽、王船山、顾炎武、黄宗羲、傅山、徐光启等一大批先进的、桀傲不驯的思想家，以一定的历史自觉，认识到了“天崩地解”、“破块启蒙”的新时代的到来，他们东西相招、南北呼应，从哲学、史学、文学、经学和自然科学等多方面，同时向中世纪封建社会的君

3) 张巨才等主编，《外国文学史简明问答》(新华出版)，p.85。

4) 何德，《中日启蒙文学》(东方出版)，p7。

主专制主义、蒙昧主义、禁欲主义、伦理意识和抑商思想等进行了猛烈的抨击，形成了一股前所未有的社会批判浪潮。⁵⁾

李贽(1527-1602)是启蒙思想的先驱。他的思想主要表现为：一、否定孔子，对儒家经典大胆质疑并蔑视。他实质上是以否定偶像的方式向封建伦理道德提出了挑战。不能“咸以孔子之是非为是非”，“尧舜与途人一，圣人与凡人一”，二、抨击封建等级制度，追求平等、自由。三、提出“童心说”。与李贽感情深厚的袁中郎，在文学观念上与李贽一脉相承，对“童心说”作了进一步的发展，主张“抒写性灵”，论定了文学真实地反映时代的重要性，对近现代启蒙文学有着深远影响。

清代的顾炎武、黄宗羲和戴东原等对理学进行了无情地抨击。顾炎武根本不承认理学，他说：“古近安得别有所谓理学者，而邪说以出。”⁶⁾黄宗羲否定等级制度中三纲之首的“君为臣纲”，体现了对封建政治制度的否定，他也对封建伦理道德作了深刻的反思，对理学进行了批判与否定。深受顾炎武影响的戴东原则进一步提出了“理学杀人”，他企图通过否定“理”而否定封建伦理纲常。

明末清初的启蒙主义思潮得以形成，是由于出现了一大批思想家，并达成某些共识。思想的革新必然带动文学的革新，因为，文学是文化的一部分，它所表现的内容必然随文化领域的思想变迁而改变。李贽、袁中郎掀起的思想革新运动也是如此。在文学形式的变化方面，主要表现在小说与戏曲的大量出现。戏曲小说之所以能在明清之际繁荣，是因为它适应市民阶级的需要，表现了诗词难以容纳的丰富的内容。从文学作品的内容看，新兴的市民阶层正在取代往日的帝王将相、英雄豪杰、才子佳人和妖魔鬼怪、而成为小说戏曲的主人翁。以汤显祖的“临川四梦”、兰陵笑笑生的《金瓶梅》、冯梦龙编的“三言”、凌蒙初编的“二拍”等为代表的一批世情文艺作品，已占据明代中后期中国文学的主要舞台。它们嘲讽并揭露了没落、腐朽、贪婪、残暴的封建统治阶级，颂扬了老百姓反抗黑暗势力，肯定了新兴市民阶层重利轻义的价值观念和排除门第、等级、追求爱情的新型婚姻模

5) 唐明，《中国近代启蒙思潮》(江西人民出版社)，pp.13-14。

6) 全祖望，《亭林先生神道表》，上揭书再引用。

式。明末清初也出现了“时事小说”和“时事戏”，及时、迅速地反映当代历史事件，抨击朝政，揭露奸佞，如《警世阴阳梦》、《魏忠贤斥奸书》、《桃儿闲评》等。⁷⁾这些都充分显示出冲破传统封建礼教束缚，已成为当时中国社会的一种不可忽视的新风尚。

明末清初的启蒙思潮和文学虽然给封建主义造成了猛烈的冲击，但并未继续高涨，而是逐渐走向低潮。其根本原因在于这次启蒙思潮本身存在着缺陷：一、没有同时代的众多呼应者，因而无法形成一种强有力的时代潮流，从而无法改变整个时代精神，推动社会快速发展；二、虽然会有见地的理论家，但缺乏实践，缺乏有一定规模的创作家；三、虽然他们抨击了封建制度、封建的伦理道德，但却没有真正地提出过取而代之的社会制度与伦理道德；四、缺乏启蒙意识，他们的启蒙思想传播范围大多停留在文人的圈子范围内而缺乏普遍性。

(2) 近代启蒙运动和文学

中国近、现代出现的启蒙运动是指晚清的文化革新和“五四”新文化运动。从1840年鸦片战争，特别是1894年甲午战争失败以后，整个中国社会急剧进入了半殖民地、半封建状况，遭受着封建主义和帝国主义的双重剥削与压迫，出现了空前的民族危机和社会危机。这个亘古未有的巨大冲击，引起了中国先觉的知识分子对传统文化的反省和对西方文明的正视。

处在鸦片战争前夕、并深切感悟到“风雨欲来”的地主阶级改革派思想家龚自珍，在对清朝封建“衰世”的揭露和批判中，率先提出了“众人之宰，自名曰我”的著名命题，⁸⁾这不仅是对明末清初李贽等人所开启的朦胧的个体自觉

7) 齐裕昆，《中国古代小说演变史》(敦煌文艺出版)，p.194。

8) 龚自珍认为，“天地，人所造，众人自造，非圣人所造”(《壬癸之际胎观第一》)。这里，多少包含有否定“圣人”创造天地的某些合理的思想因素。然而，他所谓的“众人”，并不是广大的人民群众，更不是广大人民群众改造自然和社会集体的力量，而是一个个孤立的“自我”。这一点，他自己就解释说：“众人之宰，非道非极，自名曰我。我光造日月，我力造山川，我变造毛羽肖翘，我理造文字言语，我气造天地，我天地又造人”(同上)。这就把个人的自我的力量夸大到创造天地万物的地步！不仅如此，这里一个个孤立的“自我”，也并不是指个人

与个性解放思想的继承和发扬，同时也揭开了近代中国人自我觉醒并社会启蒙的近代思想启蒙运动的序幕。他认为“从古到今，也没有不变之法、不易之风气”，积极主张“更法”“改图”“变功令”，从而开创了近代利用今文经学阐发变法思想的先河。林则徐积极主张打破“天朝中心”观念，学习国外先进技术，“师夷之长技以制夷”，从而成为近代中国睁眼看世界的第一人和向西方学习的先驱。魏源自觉推荐龚自珍、林则徐所开创的推崇自我、变法图存和学习西方的思想，认为“人定胜天，造化自我”，强调“天下无数百年不弊之法，无穷极不变之法，无不除弊而能兴之利，无不易简而能变通之法”，“变古愈尽，便民愈甚”，积极主张“师夷之长技以制夷”。他还认识到“西夷之所长，不徒船炮”，主张全面学习西方科学技术以发展民族资本主义工商业。在此之后，冯桂芬、马建忠、薛福成和王韬、郑观应等人也启发了洋务派的革新实践，推动了翻译西书、引进西学和出国留学、求知外域的文化输入热潮。

甲午战争的失败，宣告了李鸿章、张之洞等洋务派经营30余年的洋务运动的破产，中国近代思想启蒙的中心已注定要从前此的“技术救国”转移到目前的“政治救国”上来。以康有为、梁启超、谭嗣同、严复等为代表的资产阶级维新改良派思想家们，从1895年5月第一次“公车上书”，到1898年的“百日维新”再到20世纪初年的“新民”的呐喊，经过10多年的时间展开了维新运动，这就是“中国历史上第一次普遍而深刻的社会启蒙运动”。⁹⁾ 1898年“百日维新”之前，他们要推动一场自上而下的资产阶级改良主义的政治运动，依赖皇帝的诏书，变法维新，救国图强。“百日维新”之后，政治上的失败不得不使他们转头并热中于文化、思想运动而寄托自己的政治理想。以此形成了晚清的文化革新运动。具体表现在如下：他们把封建专制暴君称作“民贼”，认为“中国贫弱、至今日而已极。其误者，则数百年之暴君污吏”，提出并鼓吹“君由民择”、“民可废君”和“尊民叛君”的民主、民权思想，主张君主立宪制和议会民主制的实行。他们从天道变化和物竞天择的进化

的物质活动，而是指每个“自我”的“心”，即个人的精神活动。（《中华民族杰出人物传》三，中国青年出版社，1984年9月版）

9) 张大明等，《中国现代文学思潮》上册(北京十月文艺出版)，p.44。

观念出发,主张“发奋维新、变法图强”。其中,梁启超总结变法维新失败的原因,就说道“吾国言维新而效不睹”,在于“于新民之道未有留意焉者也”,“苟有新民,何患无新制度?无新政府?无新国家?”¹⁰⁾认识到国民文明程度的高低决定着国家政治的清浊。而且也认为“新民为今日中国第一急需”。

正是在这一历史的最初变革与觉醒的思想启蒙中,出现了文学变革的呼唤。在这个时期的文坛上最有影响的也是梁启超。从1899年开始,在不到三年时间里,梁启超先后发动了“诗界革命”、“文界革命”和“小说界革命”及“戏剧界革命”的口号,获得了维新派及革命派的普遍响应。“诗界革命”的要求是“第一要新意境,第二要新语句,而又须以古人之风格入之”¹¹⁾;“文界革命”的起点则应是“善以欧西文思”入文;而“小说界革命”的口号酝酿,更直接导源于欧美及日本的“政治小说”。这四种文学体裁¹²⁾的“革命”是对传统文学全面革新、以全面学习西方为文化指向的,由此引入的众多域外文学成份,融入中国文学中,并促成了清末民初中国文学的一系列变革。这是中国文学的一次全面改革,是近代文学思潮变迁的里程碑。¹³⁾

在这一时期的所有文学变革中,“小说界革命”影响最为深远,成效也最大,其与近代思想启蒙运动的关系也最密切。1902年,梁启超发表《论小说与群治之关系》,提出“欲新一国之民,不可不先新一国之小说。故欲新道德,必新小说;欲新宗教,必新小说;欲新政治,必新小说;欲新风俗,必新小说;欲新学艺,必新小说;乃至欲新人心,欲新人格,必新小说。”¹⁴⁾而把小说推到“文学之最上乘”,提倡“政治小说”的创作。其表达虽然夸大浮辞,而其背后包含着一个极其重要的基本思想,即将小说与民族道德、风俗、人心、人格的改造与更新联系起来,高度重视与强调小说的思想启蒙作用,要求小说成为“新民”即振奋民族精神、塑造民族新性格的有力武器。¹⁵⁾

10) 梁启超,〈新民说〉,《新民丛报》第一号。

11) 《夏威夷游记》,《饮冰室合集·专集》第五册。

12) 梁启超等人所理解的小说概念实际上包括戏,小说界革也包戏剧界革。陈平原《20世纪小说史》第一卷(北大出版社),p.3再引用。

13) 杨义,《中国现代小说史》第一卷(人民文学出版),pp.3-4。

14) 原载《新小说》第一号,参见《20世纪小说理论资料》第一卷,33p。

他的“启蒙主义小说理论”¹⁶⁾引起了广泛的呼应，既得到不少人的“理论的支持”，又影响了小说创作。在小说理论方面，有金松岑的《论写情小说于新社会之关系》、狄楚卿的《论文学上小说的位置》、陶佑曾的《论小说之势力及其影响》、夏蕙卿的《小说原理》等等。他们依照梁启超的观点广泛论述了小说的社会价值。楚卿称小说为“社会之X光线也”，陶佑曾认为“影响世界普通的好尚，变迁民族运动之方针者，亦唯此小说”，林纾也呼吁中国的小说家学习英国的狄更斯，“举社会中积弊，著为小说”，以推动社会改革。在创作方面，这时期不断地出版了专门刊载小说的报刊杂志，如《新小说》、《绣像小说》、《月月小说》、《新新小说》、《小说林》、《中华小说界》等等，启蒙小说作家们在这些杂志里纷纷发表了有倾向性的作品——鲁迅称为“谴责小说”，用来“揭发伏藏，显其弊恶，而于时政，严加纠弹，或更扩充，并及风俗”¹⁷⁾。仅1902年到1903年间出现的著名小说就有《新中国未来记》、《文明小史》、《官场现形记》、《活地狱》、《二十年目睹之怪现状》、《邻女语》、《负爆闲谈》，以及《东欧女豪杰》、《自由结婚》、《瓜分惨祸预言记》、《洗耻记》等，这些作品都是以思想启蒙作为主旨，批判封建君主专制、赞颂资产阶级民主自由和弘扬爱国主义、反对封建礼教、宣传妇女解放、主张兴办学堂、描写破除封建迷信、提倡科学和移风易俗的作品，均属于启蒙主义的思潮。在它们的影响下，大批小说像雨后春笋般破土而出，很快形成了一股气势磅礴的大流。这些具有浓厚的“文学救国”色彩的民族功利主义的文学观和创作倾向成为以后整个近、现代文学思想的基干。

总而言之，戊戌变法失败后的几年中，为了新民德、鼓民力、开民智而掀起的文化、文学革新运动，具有全面的社会启蒙性质。但是，这场文学革新运动的时间过程不长，并没有取得巨大的文学成果即艺术上的成就，也没有产生类似18世纪欧洲启蒙运动中卢梭、狄德罗那样的杰出的思想家、文学家。而且那些文学改良的先驱者后来大多数还很快改变初衷，走向传统，退

15) 钱理群等，《中国现代文30年》第一卷(上海文艺出版)，3p。

16) 杨义，上揭书，p.11。

17) 鲁迅，《中国小说史略》(人民出版社)，p.222。

出了革新的舞台(如梁启超、林纾等)。18) 无论如何, 它所表达的对文学观念、文学体式全面更新的价值追求, 它所表达的与世界文学和时代节拍相谐合的呼声, 都直接启发了“五四”新文化运动, 成为中国近代启蒙文学的一块丰碑。

(3) 现代启蒙运动与文学

中国启蒙运动的第二个高潮为“五四”新文化运动。运动的兴起可以上溯到陈独秀1915年9月在上海创刊的《青年杂志》(第二卷改为《新青年》)。以胡适、陈独秀、周作人、周树人、钱玄同、李大钊等为代表的新启蒙思想家们, 以唤醒国民灵魂、建构新型的民族精神民族性格为旨, 以广大下层人民为主要启蒙对象, 以反蒙昧、反守旧、反奴化、反迷信, 使被启蒙者真正意识到自己的“人”的资格为主要任务。要是这时期的启蒙运动与近代启蒙运动比较, 可以发现近代以救国为时代主题、五四时期以人的觉醒为时代主题、表现人生的特点。同时, 《新青年》1915年宣传法兰西革命所代表的近世文明, 1918年宣传俄国革命所开辟的人类新纪元, 这个飞跃意味着中国文学开始克服旧民主主义时代文学与时代使命的对抗性矛盾, 揭开了新民主主义文学的新篇章。19) 这短短三数年间中国思想领域的巨变, 超过了以往数十年。“五四”新文化运动的启蒙主义思潮在社会上掀起了十分广泛的反响。启蒙文学在相当长时间内成为具有支配性作用的创作主潮。

“五四”新文化运动带动了“文学革命”。胡适早在1917年发表了《文学改良刍议》, 随后, 陈独秀、刘半农、钱玄同等分别撰文展开讨论20), 推进“文学改良”, 到了1919年“文学革命”始得大规模展开, 喊出了“反对旧文学、提倡新文学”的口号。在这期间, 涌现了许多优秀作家, 使启蒙文学迅速发展并走向成熟, 这种发展和成熟的最基本的标志是鲁迅的小说和杂文。

18) 其实民国初年, 启蒙主义精神淡化并消失, 而且带来了小说风气恶化、小说趣味低劣的后果, 如鸳鸯蝴蝶派的小说、黑幕小说等。

19) 杨义, 上揭书, p.68。

20) 陈独秀的《文学革命论》、刘半农的《我之文学改良观》、胡适的《建设的文学革命论》等。

以魯迅為代表的現代文學第一代作家，他們關注的主題就是“改造國民靈魂”。其所特具的思想啓蒙性質，決定了現代文學開始時期的基本的、根本性的特徵，並且支配著整個現代文學史。由此形成了現代文學在文學題材、主題、創作方法、文學形式、文學風格上的基本特點。

(1) 作為改造民族靈魂的啓蒙文學，文學的表現對象必然是普通人的平凡的社会人生。林紓竭力贊賞英國作家狄更斯“掃蕩名士美人之局，專為下等社会寫照”，²¹⁾ 周作人在《平民文學》里熱烈主張“我們必記英雄豪傑的事業，才子佳人的幸福，只應記載世間普通男女的悲歡成敗。因為英雄豪傑才子佳人，是世上不常見的人；普通的男女是大多數，我們也便是其中的人，所以其事更為普遍，也更為切己”。由此發生了文學的題材和“主角”的革命性變化，除了知識分子題材以外，農民題材佔據重要地位。如魯迅《阿Q正傳》、《祝福》等。

(2) 現代文學“改造民族靈魂”的啓蒙性質，也決定了文學創作方法的選擇，“現實主義”文學超越了以後陸續介紹到中國來的“唯美主義”、“浪漫主義”、“象徵主義”、“現代主義”等的文藝思潮，在中國現代文學界上佔據了主導地位。現代文學家努力打破“瞞”與“騙”的文學，按照生活本來面目去反映現實生活，揭示現代中國社會真實和矛盾，以激發變革現實的熱情。因此，敢於正視現實的黑暗(社會的黑暗、人心的黑暗)，“敢於如實描寫，並無諱飾”的清醒現實主義，構成了中國現代文學的基本歷史特點，形成了強大的文學傳統。

(3) 現代文學“改造民族靈魂”的啓蒙性質，對文學內容與形式提出了兩個方面的要求：一方面，它要求文學的通俗性，啓蒙對象——文化程度很低的普通人民的可接受性；另一方面，它又要求文學的現代性，即表現現代意識，現代思維方式、情感方式，採用與之相適應的現代藝術形式，以便把無論是思想意識，還是思維方式、藝術欣賞能力都處於蒙昧狀態、低級階段的讀者提高到現代化水平。

(4) 現代文學“改造民族靈魂”的啓蒙性質，決定了現代文學對於作品的

21) 林紓，《孝女耐兒傳·序》1907年作，參見《20世紀小說理論資料》第一卷，p.273。

思想性(思想深度与广度),文学的认识价值、教化作用。近代时期的维新派和革命派及三十年代无产阶级文学运动家,要求文学具有鲜明的思想倾向性,有着明确目的性的自觉的、清醒的创作,构成了现代文学创作的主导倾向。上述历史特征与它所担负的思想启蒙的历史使命,很容易用“非艺术”的东西挤掉了艺术,造成了对艺术力量的直接损害,并降低了文学的审美价值。就总体而言,现代文学的认识价值高于审美价值。

3. 結語

纵观以上,可知,随着中国的启蒙主义思潮从古代走向近代走向现代,中国文化的革新也依此而行,文学作为文化的一部分,也随之发展变化。另一方面,启蒙文学反映了启蒙主义思潮的进行轨迹,启蒙主义思潮在很大程度上通过启蒙文学来推进、体现。如果光有“思潮”而缺乏“文学”,那么这“思潮”便难以形成强有力的时代潮流,从而容易走向低落,相反,如果在“思潮”的支配下有大规模的文学创作家及作品,则这股思潮容易形成强大的时代潮流,从而获得强有力的生命力。

同时,“改造民族灵魂”不仅仅是中国现代文学的主题而是近、现代文学的总主题²²⁾。梁启超提出的“新民”文学观,周树人、周作人兄弟提出的“改造民族灵魂”的文学观,都是强调文学思想启蒙作用,精神上一脉相通。之后直到三十年代,鲁迅还这样肯定说:“说到‘为什么’做小说罢,我仍抱着十多年前的‘启蒙主义’,以为必须是‘为人生’,而且要改良这人生。我深恶先前的视小说为‘闲书’,而且将‘为艺术而艺术,看作不过是‘消闲’的心事的别号。所以我的取材,多采自病态社会的不幸的人们中,意思是在揭出并哭,引起疗救的注意”。²³⁾

22) 钱理群、黄子平、陈平原,《论二十世纪中国文学》,《文学评论》1985:3, 3-13p。

23) 鲁迅《我怎么做其小说来》,原载1933年6月马书店版《创作的体验》,《二十世纪中国小说理论资料》第三卷,212p。

[參考文獻]

- 《漢語大辭典》。
- 楊蔭隆等編, 《西方文學理論大辭典》(吉林文史出版社, 1994年)。
- 楊周翰等, 《歐洲文學史》(上)(人民文學出版社, 1985年)。
- 張巨才等主編, 《外國文學史簡明問答》(新華出版社, 1991年)。
- 何德功, 《中日啓蒙文學》(東方出版社, 1995年)。
- 唐明邦, 《中國近代啓蒙思潮》(江西人民出版社, 1993年)。
- 齊裕昆等, 《中國古代小說演變史》(敦煌文藝出版社, 2000年)。
- 張大明等, 《中國現代文學思潮》上冊(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95年)。
- 陳平原, 《二十世紀小說史》第一卷(北大出版社, 1989年)。
- 楊義, 《中國現代小說史》第一卷(人民文學出版社, 1986年)。
- 錢理群等, 《中國現代文學30年》第一卷(上海文藝出版社, 1998年)。
- 魯迅, 《中國小說史略》(人民出版社, 1980年)。
- 劉再夏、林崗, 《傳統與中國人》(三聯出版社, 1999年)。
- 吳劍杰, 《中國近代思潮及其演進》(武漢大學出版社)。
- 錢理群、黃子平、陳平原, 〈論二十世紀中國文學〉, 《文學評論》1985:3。

[한글 요약]

'계몽'은 몽매함을 타개하여 사리를 밝힘을 의미한다. 중국에서 그것이 하나의 거대한 움직임으로 중국사에 적극적으로 간여하고 사회 흐름의 물꼬를 바꿔 놓은 것은 근대시기에 이르러서였다. 그러나 또한, 前代의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자국 문화에 대한 근원적 회의와 성찰이 이어져 왔으니, 이것이 내부 요인이 되고 근대적 충격이 외부 요인을 이루어 중국 특유의 계몽사상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의 변화와 혁신은 필경 문학의 변혁을 동반하기 마련이니 계몽의 흐름은 문학 저변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은 중국문학의 흐름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載道'적 성격 즉, '계몽'에 중점을 두어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계몽성'의 맥을 살피고자 한다.

關鍵詞 : 啓蒙, 啓蒙運動, 啓蒙思潮, 文學, 小說.

중국관광산업의 발전모델과 정책 분석

권세진*

〈목 차〉

1. 서론	
2. 중국관광산업의 구조와 정부 조직의 역할	3-2. 성장기(1992-현재)의 정책과 모델분석
2-1. 중국 관광 시장의 주요 업종별 특성	4. 중국관광산업의 발전모델
2-2. 중국국가여유국(CNTA)과 중국여유협회(CTA)의 역할	4-1. 중국관광산업의 발전과 역할
3. 중국관광정책과 발전모델의 상호관계	4-2. 비규율적 발전모델
3-1. 초기단계(1978-1991)의 정책과 모델분석	4-3. 국가독점적 정부주도형 발전 모델
	5. 결론

1. 서론

관광은 21세기 경제발전과정에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떠오르는 산업”, “굴뚝 없는 산업, 녹색 산업”등의 칭호를 받으며 거대한 경제발전 잠재력을 구비한 독특한 산업의 형태로 관심을 집중시켜왔으며, 국제경제가 끊임없이 일체화의 발전을 거듭하는 시대적 과정에서도 관광산업의 발전은 새로운 인류의 경제현상으로 나날이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관광은 이제 세계 모든 국가의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 동서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조교수

있고, 경제적 영향은 세계 각국정부의 경제 정책과 산업발전 정책에서 주목대상이 되었으며 사회경제발전의 주요 요소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관광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산업정책 내지는 산업경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치경제학적 연구범주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관광산업을 정치경제학적 연구대상으로 본다면 연구의 기본적 분석틀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관광경제의 경제적 영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관광활동의 산업구성, 관광경제의 총량의 구성, 관광 경제가 전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측량의 방법, 관광경제발전의 주기 파동과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산업 간의 관계 등이다.

둘째, 관광업의 시장구조의 그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이것은 산업경제의 시장구조, 기업행위와 시장효율의 관련 이론, 관광산업의 특수한 상황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분석하고자하는 방법과 수단을 제시하고 강조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 분야의 순수한 이론적 탐색은 산업경제학의 임무가 막중할 것으로 본다.

셋째, 관광정책의 경제적 기능과 평가 원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관광의 발전모델의 비교연구와 관광정책이 국가의 경제발전모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마땅히 포함해야한다. 따라서 현실적·실제적 분석의 기본원칙이 강조되어야 하고 관광산업발전의 내재적 규율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발전모델이 직면하고 있는 시기의 현실과 정책만의 연구 근거가 전부라는 시각에서 독립적인 시각을 갖추고 시기별 연속성의 관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평가는 반드시 국제경험에서 도출된 비교연구가 필요하고 통일된 기본원칙이 설립되어야 한다.

위의 세 가지 연구 분석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광이 “산업(Industry)”이라는 관점에 동의해야만 한다. 안타깝게도 관광업이 산업인가라는 관점에 대해서 여전히 논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관광업의 정의는 “여행객을 유인하여 운송하며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는 지극히 세밀하게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과학이고 예술이며 동시에 경영의 방법

이다.¹⁾”라는 다소 모호한 내용이다.

경제학적 정의에 따르면 산업은 주요업무 혹은 상품과 연관된 기업 군체의 총칭²⁾이다. 관광업은 일반적으로 관광자원에 의지하여 관광시설을 조건으로 하며, 여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취득하는 서비스산업의 일부분을 지칭한다. 세계 모든 국가에서 대다수의 국가 산업구분에서 관광산업을 독립적 산업으로 분류된 예는 없다. 그러므로 관광산업이 과연 하나의 산업인가 라는 논쟁은 끊임없는 생명력을 갖고 있다³⁾. 그러나 비록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산업구분에서 관광산업을 하나의 독립된 산업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민경제 계획에서 관광업을 주요산업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등의 국가는 가장 중요한 경제 수익을 창출하는 주도적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에서는 개혁개방이후 고속 경제발전이 가져온 시장의 팽창과 이들 시장과 함께 성장한 거주이전의 자유가 거대한 여행소비문화를 형성해 왔고, 오랜 역사와 동양문화의 대표자라는 브랜드적 가치 그리고 풍부한 문화적 유산들로 인해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국민경제의 핵심적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본 논문에서 중국의 관광업을 일종의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위에서 언급한 세 번째 연구 분석틀을 적용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중국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기본적 요인들을 업종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80년대 이후 중국관광산업의 발전과

1) 查尔斯·R·戈尔德耐, J.R.布伦特里奇, 罗伯特·W·麦金托什, 《旅游业教程:旅游业原理,方法和实践(第板)》(大连:大连理工大学出版社, 2003), p.1.

2) Derek French and Heather Saoard, *Dictionary of Management Pan Books*, London, 1983, p.1.

3) 미국의 학자 Thomas Lee Davidson은 산업은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 데 첫째, 단일한 경영기업이 조합되어야 하고, 둘째는 산업의 수입이 이러한 경제 단위에서 산출되어야 하며, 셋째는 이러한 경제단위는 동일한 상품을 생산 판매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관광은 산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威廉·琵厄波德, 《全球旅游新论》(北京:中国旅游出版社, 2001), pp.23-29 참고.

산업의 규모 그리고 경제구조의 변화특징에 따른 상관된 정부조직의 역할분석을 통해 체제적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관광산업이 개혁개방 정책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산출의 배경, 목적, 실시효과를 분석하고 관련 정책들을 평가하고, 4장에서는 개혁개방이후의 중국 관광경제의 규율과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정부 주도적 관광산업 발전 전략모델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관광산업에 관한 연구는 현재 한국의 학계에서 심도 있게 연구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중국관광객의 증가에 대비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관광객이 가장 많은 관광을 하고 있는 중국의 관광산업전반에 대한 파악을 통해 우리의 대안을 찾는다는 목적을 위해서도 기초적이고 전면적인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2. 중국관광산업의 구조와 정부조직의 역할

관광산업은 다양한 관련 산업들의 상호 연계에 의해 형성된 하나의 네트워크형 산업이다. 다시 말하자면 음식업·숙박업·여행업·쇼핑·레크리에이션 등의 종합적인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산업이며 기업의 집중정도·상품의 차별화·경제의 규모·시장진입의 장애 등이 모두 서로 다른 분야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필연적·현상적 시장요인 및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 중국의 관광산업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선 관광산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연구를 선행해야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중국관광산업의 발전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산업요소들인 숙박업(Hospitality), 여행업(Travel Agency Industry), 여객운송업(Transport Industries), 음식서비스업(Food Service Industries), 관광 명승지 및 레크리에이션(Attractions/Recreations/Theme Park)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러한 각각의 업종들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정부의 조직과 그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1. 중국 관광 시장의 주요 업종별 특성

호텔업(Hotel Industries). 중국에서 통상적으로 호텔업(饭店业, 酒店业:Lodging Industry)은 관광산업의 핵심적 지주 산업이다. 호텔업 시장은 일종의 차별성이 큰 시장이면 지리적 위치라는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로 지리적 위치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는데 도시의 중심지에 위치한 호텔(City Center or Urban Hotel), 휴양지 호텔(Resorts Hotel), 도시 교외호텔(Suburban Hotel), 고속도로 호텔(Highway Hotel or Motel), 공항호텔(Airport Hotel)등이다⁴⁾.

이러한 호텔의 분류는 시장구조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시장구조가 구체적이고 분층적이기 때문이며, 서로 다른 유형의 호텔은 소비자의 수요와 성향도 다를 뿐만 아니라 소비가격의 탄력성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호텔은 주로 성급(星级)으로 다섯 단계로 나눈다. 시장경제 체제가 성립되기 이전 시기 중국에서는 성급호텔의 최초의 기능이 주로 외국 여행자의 접대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호텔의 가격이나 숙박 고객의 신분 혹은 지위에 따라 호텔등급이 나누어져 있었다. 이러한 분류는 중국 국내의 여행객의 사회여관 혹은 사회호텔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분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행정기관이 편의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였다. 《中国旅游统计年鉴(2004)》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여행 숙박시설은 28만 3천9백 개이며, 성급호텔 9천8백 개, 모텔 8만여 개, 개별적 여관 19만 4천여 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숙박업이 가지고 있는 고정자산의 가치가 7013.53억 인민폐에 달하고 전국의 관광산업 전체 고정자산의 83.1%에 달했다⁵⁾.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아직 관광산업이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시기의 통계자료이다. 중국의 숙박업은 아직 전

4) 谷惠敏, 《世界著名饭店集团管理精要》(沈阳: 辽宁科学技术出版社, 2001), pp.3-5.

5) 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 《中国旅游统计年鉴2004》(北京: 中国旅游出版社 2004), p.94, p.128

국적인 대규모 연쇄적인 그룹성의 성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고, 시장은 지역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발전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⁶⁾.

중국의 지역성 호텔시장은 시장경제의 발전의 심화에 따라 개혁개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동남아시아의 금융위기가 발생한 시기(1997-2000년)에 전반적인 관광업의 침체 속에서도 중국 북경의 호텔업은 년 평균 18.15%씩 고속 성장을 거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텔의 수가 늘어남에 반비례하여 호텔업계의 경쟁은 심화되었고 이윤총액은 년 평균 18.26%의 감소를 초래했다⁷⁾. 북경의 호텔업 통계에 따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의 호텔시장은 진입은 용이하나 퇴출장애는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특성과 관련된 부동산의 성격상 청산이 용이하지 못한 제도적 특성과 전문 노동력에 대한 비용이 비교적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행업(Travel Agency Industries)은 여행활동의 판매과정에서 중개조직에 해당되며 여행 산업에서 차지하는 자산적 비중은 크지 않다. 《中国旅游统计年鉴(2004)》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여행사는 1336만 개이며 그 중에서 국외 여행사는 1360여개이고 중국 국내여행사는 11,997개에 달한다. 여행사가 소유한 고정자산은 387.86억 인민폐이면 전국 여행 산업의 총 고정자산의 4.6%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행업의 특성상 호텔업과의 차이점은 그들의 활동이 여행활동에 필요한 전반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과 지역성을 가질 경우 경쟁력이 낮아지는 원리로 인해 전국적인 활동범위의 확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여행자의 편의시설의 규모에 따라 고객을 접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의 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 간의 유동적인 여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6) 宁泽群, 《旅游产业化:一个产业视觉的解读》(湖北宜昌: 中国饭店发展战略研讨会论文, 2001).

7) 北京联合大学旅游学院, 《北京市旅游饭店业发展规划大纲2004-2008》(北京: 2003).

그러므로 중국의 여행사 시장은 형성시작과 더불어 전국적 시장을 두고 경쟁을 해왔다.

중국의 여행업 시장은 관광산업에서 대외 개방의 정도가 가장 낮은 시장을 가지고 있었다. 장기간 동안 국유투자가 절대적 우위를 형성해왔고 개혁개방 초기부터 국가가 정부특허 경영권을 부여한 3개 국유 여행사의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3개의 국유 여행사는 “중국국제여행사(CITS), 중국여행사(CTS), 중국청년여행사(CYTS)”이며 이들 여행사는 시장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방문하는 모든 국제 여행시장을 독점해왔다⁸⁾. 이러한 3대여행사의 독점 현상은 1992년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표방하고 시장이 합법적 지위를 얻는 시점부터 점차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했고, 중앙정부는 그에 따른 조치로 1996년 “여행사 관리 조례”를 반포하면서 중국의 민영자본이 여행사 시장 진입의 장애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3대 여행사의 독점이 본격적으로 붕괴한 시점은 2001년 11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이며, 외자 여행사가 중국 여행사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국가정책이 본격적인 개방정책으로 선회되면서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국민의 국내여행이 여전히 90%가량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외자 여행사가 중국국내에서 중국 여행사와 경쟁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여전히 3대 국유여행사의 영향력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여행사가 제시한 여행상품은 대다수가 동질성(homogeneity)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 여행상품의 동질성은 경제발전으로 인한 여행자의 급격한 증가와 이윤의 확대가 상품의 개발을 통한 질적 향상을 저해해왔기 때문이다.

여객운송업(Transport Industries)은 중국에서 관광산업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행 활동의 특징적 현상은 여행지의 이동이므로 여객운송업이 구성요소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국제사회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은 여객운송업과 함께 발전해 왔고

8) 杜江, 戴斌, 《旅行社管理比较研究》(北京: 旅游教育出版社, 2000), pp.74-75.

특히 항공산업은 여객운송업의 발전과 상호 보조적 발전경로를 가진다.

여객운송업은 일종의 네트워크형 산업이라 칭해진다. 네트워크를 여객운송의 기초적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독점적 특성이 비교적 강하고 때로는 공공산업의 범주에 편입하기도 한다. 중국의 경우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전형적 독점시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타 국가에서도 대동소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의 구성이 철도, 고속도로, 선박, 항공 등의 국가 기간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여객운송업의 발전상황은 다음 도표와 같다.

〈표1〉 중국여객운송업의 여객량

단위: 만 명

년도	철도(기차)	도로(자동차)	수운(선박)	항공
1978	81791	149229	23042	231
2002	105606	1475257	18693	8594
증가율(%)	29.59	88.59	-18.87	3620.35

출처: 國家統計局編, 《中國統計摘要2003》(北京: 中國統計出版社, 2003), p.142.

중국에서 여객 운송업의 대다수가 여전히 국가통제의 상태에 있고 시장진입의 장애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산업의 대부분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시장화의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항공 산업의 경우 국유항공기업의 분할을 통하여 지방정부가 투자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공항과 항공사를 분리하는 제도적 관리제도의 개혁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초보적이지만 경쟁성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위의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철도(기차)의 이용에서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경제성장에 따른 자가용의 증가로 인해 자동차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철도 산업의 역시 경쟁과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음식 서비스업(Food Service Industries)은 비교적 전통적인 산업이다. 관광산업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을 해왔고 관광산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관광시장의 발전이 없다면 음식서비스 산업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중국에서 음식 서비스업의 발전은 비교적 일찍부터 시장화를 진행해왔고 시장진입장벽은 관광산업 전체에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다. 전형적인 다원화 투자 시장이다. 국유 혹은 국가가 주식을 소유한 기업은 전체에서 13%정도에 그치고 있다⁹⁾.

〈표2〉 중국의 음식서비스업 발전현황 대조표

년도	영업수입(억 원, 인민폐)	사회소매소비 총액(억 원, 인민폐)	소매소비 총액의 비중(%)	음식점 수(만개)	종사자 수(만명)
1980	80	2140	3.7	29.9	176.5
1990	419.8	8300.1	5.1	151.1	414.8
1994	1175.1	16264.4	7.2	217.4	635.1
2000	3752.6	34152.6	11	-	-
2001	4368.9	37585.2	11.6	-	-
2002	5092	40763	12.5	-	1660

출처: 韓明: “歷年全國餐飲業發展情況表”, 《加快發展現代餐飲業》(北京: 中國物資出版社, 2002); 中國飯店協會編, 《中國餐飲業指南2002》(北京: 中國物資出版社, 2003), p.6, p.26.

위의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소매 소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음식서비스업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은 개인의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의 증가가 음식서비스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9) 韓明, 《加快發展現代餐飲業》(北京: 中國物資出版社, 2002), p.6.

중국의 음식서비스업 시장은 기본적으로 지역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쇄 체인점 형태의 추세는 2000년 이후 형성단계에 있다. 전국적인 체인점의 발달은 반드시 식품물류배송의 발전과 배달서비스가 발전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이 분야에서 발전의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03년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인 음식물류배송에 관한 물류배송센터를 갖춘 기업이 117개 기업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 69개 기업이 패스트 푸드와 관련된 기업이었으며, 전국 31개 성과 시 그리고 자치구에서 아직 7개가 배송센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¹⁰⁾. 이는 아직 중국에서 물류배송의 규모화 된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그러나 이것은 발전 잠재력이 많음을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관광 명소 및 레크리에이션업(Attractions/Recreations/Theme Park)은 사실 투자의 규모와 경영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택의 각도에서 본다면 몇 가지 서비스 상품에 대해 각각의 산업들 간에 대체성이 아주 강하다.

중국의 관광명소는 전통적 사회주의 체제에서 서로 다른 행정관리구에 속해 있었고 역사 유적지는 문물관리 부서가 경치가 우수한 지역은 국가 원림(園林)부서가 담당했으며, 레크리에이션과 관련된 오락업은 문화부서가 담당해왔고 새롭게 생겨난 인공적인 관광시설 및 관광지는 국가 여유(旅遊)부서가 관리했다. 또한 어떤 곳은 중앙 정부가 어떤 곳은 지방정부가 관리 감독하고 있어 다양한 행정직속기관의 관할이 진행되고 있었다.

중국정부가 WTO에 가입한 이후부터 시장은 점차적으로 개방이 되었고 관광지 개발 또한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시장의 진입이라는 측면에서는 현재 어떠한 장애도 없는 상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규범화 된 시기는 2003년 2월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가 반포하여

10) 国家统计局贸易外经统计司, 《2004中国连锁餐饮企业统计年鉴》(北京: 中国工商出版社, 2004), p.3.

2005년 5월1일 실시한 〈旅游区(点)质量等级的划分与评定〉(GB/T17775-2003)에서 국가 표준이 시행되면서 시작되었다.¹¹⁾

2-2. 중국국가여유국(中國國家旅游局: CNTA)과 중국여유협회(中國旅游協會: CTA)의 역할

중국의 관광산업을 관리하는 정부기구로는 일반적으로 두 개가 있다. 즉 중국국가여유국(中國國家旅游局: CNTA)과 중국여유협회(中國旅游協會: CTA)가 그 것이다.

중국국가여유국(中國國家旅游局: CNTA)은 국무원으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아 전국 관광산업에 대해 통일적 산업관리를 진행하는 국무원 직속기구이다. 반면에 중국여유협회(中國旅游協會: CTA)는 중국관광산업의 관련 사회단체 조직과 기업의 사업단위가 평등의 기초에서 자발적으로 조직한 전국적 종합적 산업협회이며 독립된 사단법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관광관련 산업의 발전이 비교적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관광산업의 행정관리기구의 출현 역시 역사가 일천하다고 볼 수 있다. 국무원의 직속조직인 중국국가 여유국은 1982년에 출범하였고, 사단법인 성격의 중국여유협회는 1986년 1월에 정식 설립 및 비준이 된 조직이다.

그러므로 1986년 이전에는 오직 국무원에서 전반적인 관광산업을 통제 및 관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자연스럽게 국무원이 추구하는 모든 관리방식이 중국 관광산업의 모델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중국관광산업을 이끌어 왔던 모델을 시기별로 조직의 역할을 정리해 보면 크게 다음 다섯 가지 시기의 단계적 발전모델로 볼 수 있다.

첫째는 1949년에서 1976년의 시기로 외사위주의 정부와 기업의 합

11) 高舜礼, 《中国旅游业对外开放战略研究》(北京: 中国旅游出版社, 2004), p.125.

일(外事为主,政企合一)적 단계 모델이다. 1964년 이전에 어떤 전문적인 관리 행정관리 기구가 설립·운영되지 못했고 중앙일급 국무원의 대리 업무를 진행한 중국국제여행사총사(中国国际旅行社总社)가 정부의 관광 관리 직무를 대리 해왔다. 1964년에 중국국가여유국이 설립되었지만 1966년부터 문화대혁명의 발발로 인해 관리체제는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고 오직 외교적 사업의 일부분이 그 역할이었으며 외교부 관련 기관과 여유국 그리고 여유총사의 합일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¹²⁾.

둘째는 개혁개방이 선언되고 시작되었던 1978년에서 1980년까지 진행된 산업운영과 정부와 기업의 합일(产业运作,政企合一)시기이다. 이 시기는 새로운 시기로의 전환이 시작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여행 사업관리국은 국무원 직속의 관리 총국으로 바꾸고 관광사업의 성격이 외교사업에서 경제적 측면으로 방향이 전환된 것이다. 이 시기의 관리 체제의 특징은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지 못하고 영도와 경영이 일체화 되어(政企不分,领导与经营一体化)있었다는 것이다¹³⁾.

셋째는 1981년에서 1986년까지 진행된 정부와 기업의 분리 및 통일적 영도(政企分开,统一领导)가 진행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외사업무를 주로 해왔던 기능들이 경제이윤 창출형으로 완전히 바뀌고 관리와 경영이 통일되었던 방식이 파괴되고 새로운 관리체제로 다원화를 시도한 시기였다. 1981년 국무원 국가여유국은 12개의 직능에 대해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고, 1982년 中国旅行游览事业管理总局을 국가여유국으로 개명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같은 해 7월 국가여유국이 국가여유총사가 분리되고 여유국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국적인 관광사업의 행정기구 국가 되어 전국의 관광여행을 통일적으로 관리하지만 직접적 경영조직 단체의 역할과 접대임무를 하지 않게 되었다. 여유총사는 기업화 관리를 담당해 왔다. 따라서 1964년부터 지속되어 왔던 18년간의 행정관리기구의 역할과 여행사 기업의 합일적 국면은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조건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던 것이다¹⁴⁾.

12) 宁泽群, 《旅游经济, 产业与政策》(北京: 中国旅游出版社, 2005), p.276.

13) 위의 책, p.277 참조.

넷째, 1986년부터 1997년의 시기에 나타난 분급관리(分级管理)의 모델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행정관리가 업종관리로 바뀌고 직접관리가 간접관리로 전환되었으며 시장을 통해 간접관리와 조정을 진행하며 관광관련 행정기관은 철저하게 경제적 관리의 궤도로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 계기는 1986년 六届全国人大四次会议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외화수입증가 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중시하면서 이루어졌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시기에 중국여유협회(中国旅游协会: CTA)가 정식 비준을 받아 설립되었다는 것인데, 비록 협회가 국가여유국의 영도와 민정부의 업무지도 및 감독 관리를 받는다는 조건이 있지만 독립 법인을 갖춘 사회단체의 역할로 정부와 기업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시장의 중개조직의 일종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여유허회의 발전은 중국관광산업발전의 모델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¹⁵⁾.

마지막으로 1997년 이후부터 진행된 여행의 역할강화 및 정부의 역할축소(大旅游, 小政府)의 모델이다. 이 시기에는 국가여유국의 기능을 대폭 축소 및 전환하고 여유국 관련 정부기구와 기업을 철저히 분리하며, 관광법제 건설을 강화하고 업계관리에 대해 산업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장경제체제를 가속화하는 내용이였다.

3. 중국관광정책과 발전모델의 상호관계

관광발전모델의 형식은 종종 관광목적지의 주관 정부부서 혹은 기관이 실시하는 관광발전전략의 목표에 의해 형성된 결과이다. 이러한 주관 정부부서·기관 및 국가가 발전전략 혹은 목표로 제정하는 각종 지도성 방침 혹은 조례와 규장제도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관광정책과 발전모델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의 관광정책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시기

14) 위의 책, pp.277-278 참조.

15) 위의 책, p.281 참조.

는 1978-1991년의 시기이고, 둘째는 1991-현재까지의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구분의 이유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1949년부터 1978년 개혁개방이 선언된 시기까지의 30년 기간은 정치서비스를 위한 의사활동에 국한되어 관광 역할에 대한 의미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개혁개방이후의 시기에는 중국정부의 주도아래 관광산업이 안정적 성장을 거듭해 왔고 정부 역시 각종 제도적 완비와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개혁의 주도적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1. 초기단계(1978-1991)의 정책분석

통상적으로 완전한 중국인의 관광시장은 중국인의 국내관광·해외관광객의 입국관광·중국인의 해외관광 등의 3대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국가의 서로 다른 시기에, 정치·경제·사회의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책방향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서로 다른 관광모델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역시 중국만의 특수한 정치·경제·사회의 과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모델적 과정을 경과했다.

1978년부터 1991년 시기에 중국은 관광활동에 관한 경제적 기능을 명확히 하였고 관광산업의 발전 기초를 마련했다. 입국여행자는 신속히 증가했으며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수입은 나날이 급증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관광이 사회경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인식되었고 관광산업이 규모화 되었으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가 시작된 시기였다.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각종 산업에서 개혁 청사진의 부재로 인해 가장 쉽게 발전자금을 확보하고 발전자금 결핍이라는 경제발전과정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결정자들은 관광산업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중국개혁개방 정책결정자인 덩소평이 “관광은 다양하게 돈을 벌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잘 도모해야 한다.¹⁶⁾” 고 관계 정부부서에 지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6) 高舜礼, 《中国旅游业对外开放战略研究》(北京, 中国旅游出版社, 2004), p.4.

이 시기의 중국관광발전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관광사업을 개방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작업은 해외 관광여행자들을 중국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해외관광객의 유치로 중국의 관광산업을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발전시키는 전략이었다. 두 번째는 외화획득이다. 관광산업의 발전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 경제에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내국인의 관광수요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중시대상이 아니었다.

정책의 제정은 완전히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필요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우선적인 목표가 외화획득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정책은 당연히 외화벌이를 위해 집행될 수밖에 없었다.

1981년 10월 10일 국무원에서 반포한 〈关于加强旅游工作的决定〉와 1984년 7월 27일에 반포한 〈关于开创旅游工作新局面几个问题的报告〉 그리고 1985년 1월의 〈关于当前旅游体制改革几个问题的报告〉 등의 내용은 모두 1986년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한 7가지 5개년계획에서 관광부문을 통한 외화벌이를 위한 준비조치였다¹⁷⁾.

〈표3〉 1978-1991년 기간의 중국입국여행자와 여행수입

년도	외국 여행자 수(만명)	외국여행자로 인한 관광수입(억/달러)
1978	71.6	2.63
1979	152.90	4.49
1980	350.00	6.17
1981	376.70	7.85
1982	392.40	8.43
1983	379.10	9.41
1984	514.10	11.31

17) 1986년 4월의 전국인민대표대회 4회 4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7가지 5개년 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강조되었다. “要大力发展旅游业,增加外汇收入,促进各国人民之间的友好往来”.

1985	713.30	12.50
1986	900.10	15.31
1987	1076.00	18.62
1988	1236.10	22.47
1989	936.10	18.60
1990	1048.40	22.18
1991	1246.40	28.45

출처: 中華人民共和國國家旅游局,
《中國旅遊統計年鑒2004》(北京: 中國旅遊出版社, 2004), p.24

위의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해외관광자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여행수지가 증가하였을 지라도 관광 상품의 우수성이나 서비스의 향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중국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동양 국가를 대표하는 브랜드 가치와 오랜 기간의 봉쇄로 인한 신비감이 가져온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정책들에 대해 실시 시기와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책적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관광발전의 기초가 될 수는 없었다.

3-2. 성장기(1992-현재)의 정책분석

90년대 이후 중국경제가 고속성장 단계에 진입하면서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새로운 부유층이 형성되었다. 고소득 계층의 출현과 국가기관 종사자들의 공적자금을 활용한 여행소비가 급증하면서 전체적인 관광산업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해외 관광자의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여행의 활성화는 관광산업의 폭발적 성장의 기초가 되었다.

특히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에 따른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출현은 시장을 합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었고 전통적 사회주의체제가 근본적인 전환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민의 여행수요를

어떻게 충족시켜야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에 관심을 집중시켜야할 필요조건이 성립되었다.

또한 2001년 11월 10일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정부는 무역수지의 대등원칙의 요구에 따라 국제사회의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고 자국민의 해외여행에 대해 점차적으로 개방해야만 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정책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992년 6월 국무원은 제3차 산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결정〈关于加快发展第三次产业的决定〉에서 관광산업을 제3차 산업발전의 중점사업으로 지정하고 각급정부와 관련 부서는 관광관련 모든 산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계획에 편입시켰다. 2001년 4월 11에는 국무원에서 세계관광 대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国务院关于进一步加快旅游业发展的通知(国发[2001]9号)〉를 반포하여 국내 여행자의 급증에 따른 여행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결정과 통지는 각급정부가 관광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지지를 유도하였고 관광 관련 정부 관리기구의 건립을 통한 새로운 시스템을 형성하게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4〉 중국정부의 1992년 이후의 관광관련 정책

년도	반포 기관	정책	주요내용
1992	국무원, 국가여유국	〈关于加快发展第三次产业的决定〉, 〈关于扩大边境旅游促进边疆繁荣的意见〉	관광산업을 제3차 산업의 중점사업으로 지정
1993	국가여유국	〈关于严格按规定办理东南亚旅游业务的通知〉, 〈关于开办出境旅游业务的通报〉	동남아 국가로의 출국에 대한 관리규칙
1996	국무원	〈边境旅游暂行管理办法〉	러시아, 북한, 베트남, 미얀마 등 변경국가여행의 대한 규정
1997	국가여유	〈中国公民自费出国旅游管理	친척방문목적에서 장유목

	국, 공안부	暫行辦法	적 출국으로 전환
1999	국무원	〈全國年節和紀念日放假辦法〉	5.1절, 10.1절, 춘절 등 장기 연휴기간에 대한 규정
2001	국무원	〈國務院關於進一步加快旅遊業發展的通知〉	세계관광강국 건설을 위한 발전계획
2002	국무원	〈中國公民出國旅遊管理辦法〉	개방형 관리, 소비자 권익보호

* 위의 도표는 필자가 각 년도 별 정책들을 정리하여 재구성하였음.

2002년에 국무원이 반포한 〈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이하 관리방법)〉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첫째는 입법이 원래 주관하던 정부부서에서 국무원행정법규차원으로 격상되었고, 둘째는 해외여행이 과거의 지령성 혹은 독점성에서 전문경영자로 개방식 운영체제로 전환했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관리목표가 확대되어 여행사가 본래의 목적인 자유 경쟁의 여행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중국 특유의 관광발전은 관광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정책의 배경과 원인의 형성은 시장의 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라는 성격을 보여준다. 이는 중국 사회의 정치와 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라 여전히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관광에 대한 제약성과 정부의 통제는 시대발전의 내재적 요구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게 한다.

4. 중국관광산업의 발전모델

소위 관광산업의 발전모델이라는 것은 주로 관광목적지라는 개념과 연결되는 개념이다. 관광소비자의 관광욕구 혹은 수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수요에 대한 만족이후에 나타나는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소비행위라는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다른 지

역에서 소비를 할지라도 소비행위는 단순히 소비행위일 뿐이다.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도 없다. 그러므로 관광모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광목적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외부로부터 온 관광객이 목적지에서 행한 소비행위가 거대한 새로운 시장수요를 형성하고 이윤창출기회를 제공하며 발전 잠재력을 보여준다면 새로운 관광 상품과 서비스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자극하기 때문에 관광목적지의 정부와 기업 및 각종 조직은 새로운 산업으로 이윤창출의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산업발전모델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관광산업발전모델이라는 개념은 일종의 현실적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수들의 객관적 개괄이며, 정부 혹은 관련 기관의 발전지도사상과 규칙이 아니다. 그러므로 관련법규, 정부의 정책, 발전전략, 시장의 변화 등은 모델형성의 중요한 변수일 뿐이다.

4-1. 중국관광산업의 발전과 역할

중국관광산업 발전은 개혁개방과 함께 진행되어왔다. 개혁개방이전의 사회주의 전통체제 시기에는 사회주의적 체제관념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만 강조되고 소비는 경시되었으며, 관광이라는 것은 사치품으로 배척당해왔다. 동시에 국내 인민 생활의 수준이 낮고 대외 봉쇄정책으로 인하여 관광산업의 발전에 대한 물질적 관념적 기초 결핍과 정치적 조건이 결핍되어 발전이란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었다.

개혁개방이후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국가 경제건설에 대량의 자금이 필요했고 대외개방의 문이 열리면서 이러한 대내외 조건과 환경의 변화가 중국관광산업을 형성하고 시장을 창조했다.

현재의 중국 관광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발전과정에서 그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기능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종합경제에 대한 역할이다. 즉, 외화 획득· 소비확대· 일자리

증가 내수확대·서비스 향상 등의 종합적인 경제적 역할이다. 1978년부터 현재까지 국제여행 누적 금액은 2000억 달러를 넘어섰다¹⁸⁾.

둘째는 사회발전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다. 관광산업은 새로운 관념·지역적 차이의 평형·빈곤으로부터의 탈출에 대해 긍정적 작용을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발전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즉 환경보호와 전통문화의 발전 및 부흥을 촉진하고 지속적 발전을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 정신문화의 증축과 민족문화의 발전 그리고 현실적 문화자산의 지속적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광산업의 역할은 중국의 중화사상과 전통문화산업의 세계화에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발전의 잠재력은 어느 산업보다 크다고 본다.

4.2. 비규율적 발전모델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다는 중국정부의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은 중국관광산업이 여전히 중국만의 조건과 국가적 상황이라는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중국관광산업발전모델의 선택이 오직 중국적 조건의 기초에서 국제적 경험을 결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비규율적 발전모델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시장체제의 국가에서 보여 지는 국내관광의 발전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해외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이 발전하는 국제사회의 규율적인 발전모델과는 정반대로 중국은 해외여행객이 중국관광을 활성화하고 중국국내여행이 발전하면서 해외여행으로 전환되는 비규율적 발전모델로 성장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전모델은 중국이 가지는 역사적 체제적 원인에서 출발한다. 개혁개방이전의 30년이라는 기간에서 관광은 당과 정부의 요구로 인해 외교적 교류라는 업무에 국한되어 있었고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과

18) 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网站: www.cnta.gov.cn

건설을 선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산업의 범주로 이야기 할 수가 없다. 1978년 개혁개방 선언이후 관광과 여행의 개념이 외교접대형에서 경제이익 창출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관광은 단일적 해외여행자의 입국여행시장의 형성으로 기본적 모델이 형성되었지만 국내 경제수준이 낙후되어 있었고 국민생활 수준이 낮아 대중적인 여행활동은 제한적이었다.

90년대 초기의 모델은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여행의 주도하에 국내여행이 기초를 형성하는 발전모델이었다. 즉, 국내여행과 국제여행이 협조 발전하는 모델이었다. 그러나 93년부터 국내여행이 고속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1993년 국내여행객의 수는 4.1억 명에 총수입 864억(인민폐)에서 1998년 6.94억 명에 여행수입이 2391억(인민폐)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해외여행자 위주의 산업발전모델이 국내여행자 위주의 모델로 완전히 바뀌었다.

현재 중국은 이미 아시아에서 신흥 관광객 유출의 국가로 환골탈태하고 있다. 2000년도에 중국인 출국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고, 2015년에는 1억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¹⁹⁾. 중국인 해외여행의 발전추세는 중국관광산업의 발전모델을 전환시켜왔고 국내여행의 활성화와 더불어 관광강국의 기초를 형성하는 기본적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4.3. 국가 독점적 정부주도형 발전모델

개발도상국가라는 의미에서 중국은 80년대부터 국가가 추진하는 개혁개방정책과 사회경제적 조건들로 인하여 오직 정부의 정책에 의해 산업이 발전하는 정부주도형 발전모델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왔다. 이것은 한국의 60-70년대의 발전 모델과 아주 흡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에서 특히 관광산업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항상 예상을 초과하는 발전 형태를 보여 왔다.

19) 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网站: www.cnta.gov.cn

정부주도형 관광산업발전모델의 중국적 특징을 관광발전의 잠재력이라는 측면·자원의 개발 및 상품생산의 조합이라는 측면·관광조직과 관광운영방식·관광시설의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광산업발전의 잠재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중심도시와 동남아시아 연해지역의 숙박 및 교통시설은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지역적 거리가 가까워 해외관광객 유치에 용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관광산업발전은 이러한 도시와 지역이 중심이 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가는 과정에 있으며 점진적으로 완성된 경제적 체계를 만들어가는 정책적 작용의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개혁의 방법론은 점진적 방법과 선부론을 적절히 혼합하여 해안지역의 우선적 개발을 통해 내륙과 서부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15대 전국인민대표대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중국정부가 추구하는 서부 대개발과 도시화 정책은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 특히 관광도시가 중국관광발전의 기본적 틀을 구성한다고 전제한다면 자원의 개발, 시설의 건설, 도로건설, 지역의 구분 등이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한다.

자원의 개발과 상품생산의 조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관광 자원은 중국정부의 독점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관광 상품은 종종 세계 모든 국가에 걸쳐 흡인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관광 산업 발전은 현존하는 자연적·문화적 자산과 역사적 가치 그리고 인공적 경관을 기초로 하면서 관광 상품과 혼합되는 구조로 추진된다. 그러므로 현재 중국관광목적지의 대부분은 볼거리가 비교적 풍부한 지역에서 모든 국제적 이벤트와 관광 상품이 구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관광조직과 관광운영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중국 최고의 자원과 그 자원을 활용해 개발한 상품을 중국 여행자에게 제공하여 국제 관광시장에 소개한다. 더 많은 국제적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관광지 정부는 전과정 관광노선을 개발한 상품을 준비하고 또 코스별로 개발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도시별로 전통적 문화행사와 연계한 주제형 상품과 특별한 이벤트를 가미한 관광 상품을 현지 정부차원에서 진행한다.

관광 시설의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관광시장 발전이 국제 관광객의 유치로부터 시작된 역사적 원인으로 인해 국외여행자의 시장 수요 및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 중국관광발전 진행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급시설의 건설해왔고, 고급시설이 갖추어진 후에 중급 및 하급 시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예는 모두다 정부주도하에 진행된 발전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5. 결론

중국관광산업에 관한 연구는 현재 한국의 학계에서 심도 있게 연구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중국관광객의 증가에 대비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관광객이 가장 많은 관광을 하고 있는 중국의 관광산업전반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중국 정부의 어떤 기구가 산업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운영방식이 시장과 사회주의 체제사이에서 어떠한 정책과 모델로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기본적인 중국관광산업에 대한 이해 및 연구 분석의 부족이 미래 한국의 여행수지 적자와 맹목적 시장접근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관광산업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과 모델에 대한 기본적 틀을 파악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중국의 관광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194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과정을 거쳐 왔다. 관광시장의 발전은 정부의 주도하에 비규율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면 정책적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는데 이는 사회주의 전통체제에서 시장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시장화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관광산업 정책의 목표는 경제적·사회적·지속성장가능여부 등의 측면에서 다원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시장체제의 국가와는 달리 중국만의 발전과정을 가지고 특수한 목적과 목표로 발전했다. 초기에는 중국관광산업의 발전목적이 주로 국가정치와 국

민경제발전에 서비스하는 과정이었으며 국민의 관광수요 및 사회복지 혹은 삶의 질 향상이란 개념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국내여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는 국민적 관광수요를 정책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어떤 국가의 정책이든 모두 특수한 역사적 배경의 산물이며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합리적 정책이라면 반드시 실시 과정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조정을 통해 순리적으로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의 관광정책이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관광산업의 총체적인 방침과 정책이 비교적 허술하다고 본다. 현재 중국의 3대 관광시장(내국인 관광, 외국인 관광, 중국인 해외여행)에서 내국인 관광이 외국인 관광을 훨씬 초과 했고 해외여행도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한 시장위주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시장발전의 현황과 발전추세에 위배되는 비규율적 발전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이 수립될 때는 관광산업 전반에 관한 현실에 대해 총체적 조사와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중국의 관광정책은 등소평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물을 건넌다(摸着石头过河)”의 정책적 접근방식을 적용했다고 보여 진다. 예를 들면 2000년 이후에 반포된 ‘황금연휴’에 대한 정책이 시설과 교통 그리고 관광 상품 등의 측면에서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음에도 정부주도하에 추진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보여줬고 일정의 배치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많다.

종합적으로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종합적 산업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그 영향을 미치므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의 관광산업발전 정책은 거시적 측면을 중시하고 미시적 측면의 중요성이 적게 고려되었다. 즉 국가와 지역에 대한 연구가 중요시되고 소비자의 미시적 측면이 소홀이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정국에서 정부 주도형 산업정책과정에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라고 본다.

[參考文獻]

- 查爾斯·R·戈爾德耐, J.R.布論特·里奇, 羅伯特·W·麥金托什, 《旅游業教程: 旅游業原理, 方法和實踐(第板)》(大連: 大連理工大學出版社, 2003).
- Derek French and Heather Saoard, *Dictionary of Management Pan Books*, London, 1983.
- 威廉·琵厄波德, 《全球旅游新論》(北京: 中國旅游出版社, 2001).
- 谷惠敏, 《世界著名飯店集團管理精要》(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2001).
- 中華人民共和國國家旅游局, 《中國旅游統計年鑒2004》(北京: 中國旅游出版社, 2004).
- 宁澤群, 《旅游產業集團化: 一个產業視覺的解讀》(湖北宜昌: 中國飯店發展戰略研討會論文, 2001).
- 北京聯合大學旅游學院, 《北京市旅游飯店業發展規劃大綱2004-2008》(北京: 2003).
- 杜江, 戴斌, 《旅行社管理比較研究》(北京: 旅游教育出版社, 2000).
- 國家統計局編, 《中國統計摘要2003》(北京: 中國統計出版社, 2003).
- 韓明, 〈歷年全國餐飲業發展情況表〉, 《加快發展現代餐飲業》(北京, 中國物資出版社, 2002).
- 中國飯店協會編, 《中國餐飲業指南2002》(北京: 中國物資出版社, 2003).
- 韓明, 《加快發展現代餐飲業》(北京: 中國物資出版社, 2002).
- 國家統計局貿易外經統計司, 《2004中國連鎖餐飲企業統計年鑒》(北京: 中國工商出版社, 2004).
- 高舜礼, 《中國旅游業對外開放戰略研究》(北京: 中國旅游出版社, 2004).
- 宁澤群, 《旅游經濟, 產業与政策》(北京: 中國旅游出版社, 2005).
- 高舜礼, 《中國旅游業對外開放戰略研究》(北京, 中國旅游出版社, 2004).
- 中華人民共和國國家旅游局, 《中國旅游統計年鑒2004》(北京: 中國旅游出版社, 2004).
- 中華人民共和國國家旅游局网站: (www.cnta.gov.cn)

[中文摘要]

〈中国旅游产业的发展模式与政策分析〉

权世振

中国旅游业发展是与改革开放同步进行的。改革开放以前,由于受传统计划体制观念的影响,注重生产和轻视消费,旅游被当作一种奢侈品。目前,中国还在社会主义初级阶段,发展旅游业必须从中国的基本条件和国情背景等实际出发,即中国旅游业发展模式的选择,只能建立在自身条件的基础上。因此,中国旅游业的发展模式既不同于西方国家先发展国内旅游,后发展国际旅游的常规发展模式,又不同于一些发展中国家先发展入境旅游,再发展国内旅游和出境旅游的非常规发展模式。中国旅游产业经历了从单一入境旅游市场,到入境旅游国内旅游两个市场并举,再到入境旅游-国内旅游-出境旅游三个市场全面发展的过程。所以,本文章的重点在于这样的中国旅游产业发展模式从什么原因出来,还在于从那一个政策来引导。

키워드 : 중국여행산업, 발전모델, 산업정책

한·중 양국 소비문화 비교연구***

— 대학생들의 소비 관련 생활방식 특성을 중심으로 —

全冬梅* · 徐永輝**

〈목 차〉

- | | |
|----------------|-----------------------|
| 1. 서론 | 4. 자료 분석결과 |
| 2. 이론적 배경 | (1) 조사대상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 (1) 소비문화의 개념 | (2) 측정도구의 평가 |
| (2) 소비문화의 분석방법 | (3) 소비 관련 생활방식 특성비교 |
|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5. 결론 |
| (1) 연구문제 |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 |
| (2) 연구방법 |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

1. 서론

최근 기업의 국제화 및 세계시장의 글로벌화 경향에 따라 기업의 국제마케팅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해외시장의 소비문화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기업 생존과 성장의 필수요건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소비문화는 소비재나 소비행동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로서 소비자의 소비 관련 가치를 결정하고 소비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국내외시장 소비문화 특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밝혀내어 효과적인 국제마케팅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

* 中國 青島大學 國際商學院 副教授

** 中國 青島大學 國際商學院 副教授

*** 본 연구는 中國 國家教育部 留學歸國人員 科研啓動基金的 支援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기 때문이다.

해외시장의 소비문화 특성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비교문화적(cross-cultural) 연구는 자료수집 및 연구진행상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금전적 비용이 소요됨으로 현실적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시장 소비문화 특성의 차이에 관하여 한국에서 수행한 유수의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구미 또는 일본과의 비교연구이며, 중국과의 비교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중 양국 경제관계 발전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보완성에 기초하여 1992년 수교 이후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선 무역 측면에서 양국간의 거래액은 1992년의 64억 달러에서 2005년의 1,119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2005년 현재 중국은 한국의 제2대 무역 대상국, 한국은 중국의 제6대 무역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그 다음에 해외직접투자 측면에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1996년의 27.2억 달러에서 2004년의 62.5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1년 중국에서 WTO 가입 이후 내수시장을 점차적으로 개방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보고 중국에 대한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한편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근년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현재 중국은 한국의 제1대 투자 대상국, 한국은 중국의 제4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¹⁾ 한·중 양국의 경제관계가 이와 같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소비문화 특성에 대한 비교연구는 양국 학계에서 당면하게 된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소비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소비문화에 대한 이해는 너무 포괄적이고, 정교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소비행위를 문화현상으로 간주할 때 연령, 사회계층, 직업, 거주지역, 생활수준, 시대 등에 따라서 다양한 소비문화가 나타날 수 있다.²⁾

1) 中國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各年度.

2) 손상희, 〈소비사회와 청소년 소비문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오늘날 N세대(Net Generation)라고 불리는 신세대들은 경제성장에 기초하여 기존 세대와 다른 문화를 일궈내고, 그들 나름의 독특한 소비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들은 사이버 공간을 삶의 중요한 무대로 인식하고 컴퓨터 정보통신의 발전 속에 성장하여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한 '접속'을 중요시 하고 있다. 그들은 소비시장에 있어서 강력한 단일계층의 소비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성세대와 전혀 다른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 현대사회 신세대들은 이전 젊은 세대들보다 많은 가처분소득을 가짐으로 구매력이 클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 구매 결정을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기업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미래 소비의 중심이 되어 미래의 소비문화를 결정하고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란 점에 있다. 따라서 그들을 경쟁사보다 먼저 이해하고 확보한다는 것은 미래의 상품 판매를 예약해 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고객관계 마케팅(CRM: Customer Relationship Marketing)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중요성은 보다 커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³⁾ 때문에 신세대들의 소비문화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신세대를 대표하는 대학생에 초점을 두고 한·중 양국 대학생들의 소비문화 특성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밝혀내고 효과적인 국제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체계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소비문화의 개념

마크로킨(McCracken)은 소비문화를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행위

15:4(1997), pp.341-353.

3) 이수범, <소비자로서의 N세대 성향에 대한 연구>, 《광고연구》 52(2001), pp.199-215.

나 관행을 나타내는 일반적이고 분석적인 개념으로, 그 사회의 세계를 해석하고 구성하는 관념이나 활동, 즉 '문화'가 소비재나 소비행동에 내재되어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개념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에 의하면, 소비자의 소비행위는 욕구충족을 위한 것이지만 소비문화적 관점에 의하면 소비자의 욕구 자체는 내재적으로 생성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적 소비가치와 관련되는 것으로, 소비행위의 궁극적 명분은 이러한 사회문화권에서 형성된 소비가치의 실현이며 소비문화는 소비 관련 가치들의 총체라 할 수 있다.⁴⁾

김종구·박성용은 소비문화란 소비생활과정에서 나타난 '한 부류의 현상'으로써 넓은 의미의 문화의 관점에서 평가되고 이해된 재화나 서비스의 유형, 소비행위유형, 소비에 대한 공통된 사고방식, 그리고 이들로 이루어진 소비생활양식 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즉 소비에 대한 관념 및 태도, 소비철학, 소비윤리 등 소비에 대한 공통된 사고방식들, 소비행동의 유형들, 공통적이고 일반적으로 소비되고 사용되는 소비대상물들은 사회구성원들의 상징행위들에 의해 생성된 한 부류의 결과물로 보고 민족문화나 경제발전정도, 가치관이나 도덕관 등 넓은 의미의 문화의 맥락에서 평가된 소비에 대한 공통된 사고방식들, 소비행동의 유형들, 소비대상물들, 그리고 이들로 구성된 소비생활양식 등을 그 사회의 소비문화라고 보고 있어 비교적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⁵⁾

백경미는 현대의 소비문화는 소비를 기능적 측면 이상의 상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시각에서 개인소비자들이 제품 및 서비스의 기능적 사용을 넘어서서 자아개념 전달수단 및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소비를 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일련의 사회에서의 소비가치관 및 소비행

4) McCracken, G., *Culture and Consumption New Approaches to the Symbolic Character of Consumer Goods and Activitie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8. 이상률 역, *문화와 소비*, 서울: 문예출판사, 1991. 심영, <속담에 나타난 소비가치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소비문화 연구>, 《소비자학연구》 17:2(2006), pp.85-113에서 재인용.

5) 김종구·박성용, 《소비문화에 관한 연구》(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동 양식을 의미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⁶⁾

이두원·김인숙은 소비문화를 소비자가 소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소비를 하는가, 즉 소비의식을 포함한 소비생활의 가치체계, 준거틀, 전제, 이데올로기 등을 통합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⁷⁾

현대 소비문화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소비주의문화가 있는데, 이는 소비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의 행동양식을 결정하게 된 문화, 나아가 소비가 개인의 사회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가 된 문화로, 또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개인과 집단의 생활양식을 구성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기제로 정의되고 있다.⁸⁾

이상에서 살펴본 정의를 종합해 보면 소비문화는 문화가 소비가치 또는 소비행동에 내재되어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개념으로, 한 사회의 소비문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인 소비자의 소비가치 및 소비행동에 의해 형성되며, 또한 소비자의 소비가치를 결정하고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재가 문화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이용된다고 할 때 소비행위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場に 따라 통용되는 상징과 문화적 규칙이 다르므로 소비문화는 연령, 사회계층, 직업, 거주지역, 생활수준 등과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⁹⁾

한편 많은 연구에서 소비문화를 연구함에 있어서 생활방식을 소비문화의 포괄적 대체개념과 소비자의 전반적인 소비성향에 대한 유용한 예

6) 백경미, <현대소비문화와 한국소비문화에 관한 고찰>, 《소비자학연구》 9:1(1998), pp.17-32.

7) 이두원·김인숙, <한국현대 소비문화 변천사 연구: 현대신문광고(1960~2000)에 나타난 소비가치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2:3(2004), pp.141-175.

8) 손상희, 위의 논문.

9) 손상희, 앞의 논문.

측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생활방식(life style)이라는 용어는 사회학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사회학계 연구자들 사이에서 생활방식은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양식의 사회적·계층적 차이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생활방식의 이러한 개념은 1963년 미국 마케팅협회(AMA)에서 소비자 행동 및 마케팅 분야에 새롭고 유력한 분석도구로 소개되면서 비로소 마케팅 분야에 도입되었다.¹⁰⁾

레이저(Lazer)는 생활방식이란 시스템적인 개념으로 전체사회나 세부집단(segment)의 집합적이고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특색 있는 생활양식(mode of life)을 뜻하며, 이러한 생활방식은 특정 문화나 특정 집단의 생활양식을 표현하는 독특한 구성요소와 질에 관련되고, 사회에서의 생활의 역동성에서 발전되고 출현된 패턴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정의하여 사회집단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즉, 이러한 생활방식은 문화, 가치, 자원, 상징(symbol), 인허, 제재(sanction) 등의 정형화된 결과로서 구매하는 제품, 사용하는 상징체계, 소비하는 방법이 생활방식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¹¹⁾

레비(Levy)는 많은 생활자원의 결합 또는 개개의 활동이 암시하는 하부 심벌(Sub-Symbol)로부터 합성된 복합 심벌이라고 하여 개인의 생활방식에 중점을 두었다.¹²⁾

무어(Moore)는 가족 생활방식에 초점을 두어 생활방식은 패턴화된 생활양식으로 가족성원이 여러 가지 상품, 사건, 자원을 생활양식에 맞게 적합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개념을 규정하였다.

호킨즈·베스트·코니(Hawkins, Best and Coney)는 생활방식은 생활주기를 통해 형성된 고유한 개인적 특징의 작용으로서 상황(situation),

10) 조윤기, 앞의 논문.

11) Lazer, W., "Life Style Concepts and Marketing", in Stephen A. Greyser(ed.), *Toward Scientific Marketing*, Chicago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1963, pp.130-131. 조윤기,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12) Levy, S. J., "Symbolism and Life Style", Chicago: AMA, 1963. 조윤기,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문화(culture), 사회계층(social class), 준거집단(reference groups), 가족(family), 개성(individual characteristics)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¹³⁾

앵겔·블랙웰·미니어드(Engel, Blackwell, Miniard)는 생활방식을 사람들이 생활하고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양식이라고 정의 내렸다.¹⁴⁾

이상에서 살펴본 개념들을 종합해 볼 때 생활방식은 특정 개인이나 가족, 계층 또는 집단의 생활양식, 가치관, 태도, 실제적 행동 등이 통합된 체계로서 소비를 규정하고 또한 소비에 의해 규정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소비문화의 분석방법

소비문화 관련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소비문화에 대한 분석방법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두원·김인숙은 한국현대 소비문화 변천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현대 신문광고에 나타난 소비가치체계를 분석하였다.¹⁵⁾ 한편 최석신·가타가미 히로시·이광배는 한·일 양국 신세대의 소비문화에 관한 비교연구에서 생활방식을 소비문화의 포괄적 대체개념으로 보고 대학생들의 생활방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¹⁶⁾

본 연구는 소비 관련 생활방식을 소비문화의 포괄적 대체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로 생활방식의 분석방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생활방식을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거시적(macro) 분석방법과 미시적

13) Hawkins, D. I., Best, R. J. and Coney, K. A., *Consumer Behavior*, Texas: Business Publication Inc., 1983. 조윤기,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14) Engel, J. F., Blackwell, R. D., Miniard, P. W., *Consumer Behavior*, 8th ed., Dryden, 1995. 허경옥,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점포선택 및 만족도의 차이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5:3(2006), pp.385-395에서 재인용.

15) 이두원·김인숙, 앞의 논문.

16) 최석신·가타가미 히로시·이광배, <한·일양국 신세대의 소비문화에 관한 비교연구>, 《상품학연구》 27(2002), pp.233-259.

(micro) 분석방법이 있다. 거시적 분석방법은 사회전체의 생활방식 동향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경향분석법(social trend approach)이나 Stanford Research Institute(SRI)의 사회추세예측조사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거시적 차원의 분석은 사회전체의 동향만을 파악하고 개개 생활자의 특징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활방식의 새로운 동향을 잘 나타내주는 부류가 어떤 집단인지 생활방식의 개인차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미시적 차원의 분석이 필요하다.¹⁷⁾

미시적 분석은 생활방식의 이해를 통해 사회를 세분화해 보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¹⁸⁾ 다시 말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부 집단들의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마케팅, 소비자행동 측면을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서는 미시적 분석이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¹⁹⁾

많은 연구들이 미시적 분석방법 중에서도 AIO(Activity, Interest, Opinion) 분석방법을 선호한다. AIO 분석방법은 소비자들의 일상 활동, 주변의 사물에 대한 흥미, 사회적·개인적 문제들에 관한 의견의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활동(Activity)은 매체접촉, 쇼핑, 신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웃과의 대화 등과 같은 명백한 행위이다. 이들 행위는 일상적으로 관찰될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이유는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관심(Interest)은 어떠한 사물, 사건 또는 화제에 대하여 특별하고 지속적인 주의를 가지고 흥분하는 과정을 말한다. 의견(Opinions)은 질문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하여 개인이 제시하는 구두 또는 서술형의 반응으로 다른 사람의 의향에 대한 신뢰, 미래의 사실에 대한 예측, 대체적인 행동의 결과에 대한 상벌평가와 같은 사람들의 해석, 기대, 평가를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²⁰⁾

AIO 분석방법이 선호되는 이유는 소비자행동에 있어서 집단간의 차

17) 최석신·가타가미 히로시·이광배, 위의 논문.

18) 채서일, <체계적 분석의 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연구>, 《소비자학연구》 3:1(1992), pp.46-63.

19) 허경옥, 앞의 논문.

20) 조윤기, 앞의 논문.

이를 활동, 관심, 의견이라는 3가지 차원과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분리해야만 명확히 분석할 수 있으며, 또한 연구자의 연구의도에 따라 문항의 변형이나 수정이 가능하고, 일반적 생활방식 분석과 구체적 생활방식 분석 모두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²¹⁾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조사대상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소비 관련 생활방식의 요인구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소비 관련 생활방식의 특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1. 조사도구 및 측정방법

본 연구는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과 소비 관련 생활방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성별, 연령, 학년, 월평균 용돈 등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고, 소비 관련 생활방식의 특성에 관한 문항은 최석신·가타가미 히로시·이광배의 한·일 양국 신세대들의 소비문화에 관한 연구와 채정숙의 대학생들의 생활방식의 비교 문화적 연구에서 사용

21) 최석신·가타가미 히로시·이광배, 앞의 논문.

한 문항을 바탕으로 AIO 방법에 의하여 39개의 문항을 작성하였다.²²⁾

소비자의 소비생활 전체를 하나의 분석대상으로 보기보다 생활 영역 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²³⁾ 본 연구는 소비자의 소비 관련 생활방식을 의생활, 식생활과 전반적인 구매패턴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동의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 S대학의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요인분석과 Cronbach's Alpha 검정을 한 후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문항 35개만 발취하여 본 조사에 이용하였다.

중국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용한 설문지는 한국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되, 월평균 용돈 항목은 중국의 소득 수준에 맞게 수정하였다. 설문지의 번역은 중국인으로서 한국에서 7년 동안의 유학생생활을 했던 연구자가 담당하였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중국인 교수에게 설문지 수정을 요청하여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교정한 후 본 조사에 이용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확률적 편의표본추출법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 자료의 수집은 부산광역시 소재 4년제 대학인 S대학과 광주광역시 소재 4년제 대학인 C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300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6년 9월 18일에 예비조사를 거쳐서 본조사는 2006년 9월 25일에서 29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배분된 총 300부 설문지 중 286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

22) 최석신·가타가미 히로시·이광배, 앞의 논문과 채정숙, <라이프스타일의 비교 문화적 연구: 한국과 캐나다 거주 대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0:4(1999), pp.79-98 참조.

23) 채정숙, 위의 논문.

한 설문지 28부를 제외한 258부를 최종 유효표본으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중국 자료의 수집은 산둥성(山東省) 칭따우시(靑島市) 소재 4년제 대학인 Q대학과 지린성(吉林省) 이엔지시(延吉市) 소재 4년제 대학인 Y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400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6년 9월 25일에서 29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배분된 총 400부 중 372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42부를 제외한 330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처리는 통계 패키지 SPSS for Windows 12.0을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조사대상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소비 관련 생활방식의 측정도구를 평가하기 위해서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을 실시하였고,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소비 관련 생활방식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t검정을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결과

(1) 조사대상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이 되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 과 같다.

성별은 두 집단 모두에게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전체적으로 22세 이상(약 51%)이 가장 많고, 그 다음 21세(약 28%), 20세(약 16%), 19세(약 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8세(약 1%)는 아주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두 집단간에 비교를 해보면 한국 대학생의 경우에는 22세 이상이 약 87%의 비율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대학생의 경우 21세가 가장 높은 비율(약 42%)

로 나타나고 20~21세가 약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대학생들에 비해 중국 대학생들의 연령분포가 낮은 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은 전체적으로 3학년의 비율(약 50%)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4학년(약 27%), 2학년 (1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학년(약 7%)은 아주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월평균 용돈은 한국 대학생의 경우 11~20만원(약 36%)이 가장 많고, 21~30만원(약 31%)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대학생의 경우 101~200위안(약 27%)이 가장 많고, 201~300위안(약 19%)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한국과 중국 대학생집단의 인국통계학적 특성

변수	구분	한국		중국		전체	
		N	%	N	%	N	%
성별	남	105	40.7	99	30.0	204	34.7
	여	153	59.3	231	70.0	384	65.3
	합계	258	100.0	330	100.0	588	100.0
연령	18세	0	0.0	5	1.5	5	0.9
	19세	1	0.4	25	7.6	26	4.4
	20세	8	3.1	88	26.7	96	16.3
	21세	24	9.3	138	41.8	162	27.6
	22세 이상	225	87.2	74	22.4	299	50.9
	합계	258	100.0	330	100.0	588	100.0
학년	1학년	8	3.1	35	10.6	43	7.3
	2학년	37	14.3	52	15.8	89	15.1
	3학년	125	48.4	170	51.5	295	50.2
	4학년	88	34.1	73	22.1	161	27.4
	합계	258	100.0	330	100.0	588	100.0
월평균	10만원 이하	35	13.6	54	16.4		

용돈	(100위안 이하)					
	11~20만원					
	(101~200위안)	94	36.4	89	27.0	
	21~30만원	79	30.6	64	19.4	
	(201~300위안)	31	12.0	31	9.4	
	31~40만원	19	7.4	40	12.1	
	(301~400위안)			52	15.8	
	40만원 이상	258	100.0	330	100.0	
	(401~500위안)					
(500위안 이상)						
합계						

주: 한화 대 중국 인민폐 환율은 2006년 10월 19일 매매기준으로 120.87:1이다.²⁴⁾

(2) 측정도구의 평가

1. 평가방법 및 기준

본 연구는 소비 관련 생활방식 특성의 측정도구를 평가하기 위해서 통계 패키지 SPSS for Windows 12.0을 이용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신뢰성(reliability)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개념에 대한 측정을 반복했을 때 일관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신뢰성 검정에는 주로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검정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같은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측정도구 내의 항목별 평균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신뢰성을 확인하려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각 구성개념의 측정항목들이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24) 외환은행, www.keb.co.kr. 검색일: 2006.10.19.

아보기 위해서 Cronbach's α 를 계산하였다.

Cronbach's α 값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사회과학 연구에서 0.6을 최저 허용치로 사용하기도 한다.²⁵⁾

타당성(validity)은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를 의미한다. 타당성은 그 평가방법에 따라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 기준 관련 타당성(criterion-related validity), 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내용타당성은 특정 측정도구의 대표성에 관한 개념이며, 기준 관련 타당성은 특정 변수간의 통계적인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1950년 이전까지의 연구에서는 내용타당성과 기준 관련 타당성이 많이 취급되어 왔으나, 1955년 이후 주로 개념타당성이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개념타당성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이해타당성(nomological validity)으로 구분된다. 집중타당성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했을 때 얻어진 측정치들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고, 판별타당성은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했을 때 얻어진 측정치들간에는 상관관계가 낮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해타당성은 특정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인데 이론이 검증되면 이해타당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연구에서의 타당성은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의 기본원리는 항목들을 상관관계가 높은 것끼리 묶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요인 내에 묶여진 측정항목들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다른 요인에 적재된 측정항목은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요인 내의 항목들은 집중타당성에 해당되며 요인간에는 판별타당성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²⁶⁾

본 연구는 요인분석에 있어서 구해진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25) Nunnally, J. C, *Psychometric Theory*, McGraw-Hill, New York, 1978.

26)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학현사, 2001).

요인의 수를 적절히 줄이기 위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법을 이용하였고, 요인의 회전으로는 직각회전(varimax rotation)방법을 이용하였다. 요인추출에 있어서 평가기준으로서 고유치(eigen value)를 1.0 이상으로,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을 0.4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 관련 생활방식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의생활, 식생활, 구매패턴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요인분석은 영역별로 실시하여 요인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한국 자료와 중국 자료를 합쳐서 한꺼번에 분석에 이용하였다.

2. 평가 결과

① 의생활 영역

의생활 영역에서는 9개의 문항이 요인분석에 이용되었으며, 그 결과 <표 2>와 같이 패션 지향, 개성 지향, 간편성 지향 등 3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별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 값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2> 의생활 영역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

요인명	고유치	항목 내용	요인적재량	Cronbach's α
패션 지향	2.789	주위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는지 눈여겨 본다	.813	.624
		옷을 살 때 유행에 중점을 둔다	.644	
		패션에 관한 잡지나 기사를 즐겨본다	.585	
		구두, 액세서리 등은 옷에 맞춰서 산다	.554	
개성 지향	1.401	옷차림에 나만의 개성을 추구한다	.855	.667
		옷차림은 다른 사람과의 차별을 추구한다	.805	
		남의 눈에 띄는 옷을 좋아한다	.531	
간편성	1.130	간편한 캐주얼 옷을 주로 입는다	.852	.644

지향		몸매가 돋보이는 옷보다 활동하기 편한 옷이 좋다	.835	
----	--	----------------------------	------	--

② 식생활 영역

식생활 영역에서는 4개의 문항이 요인분석에 이용되었으며, 그 결과 <표 3> 과 같이 건강식 지향과 간편식 지향의 2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별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 값은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3> 식생활 영역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

요인명	고유치	항목 내용	요인 적재량	Cronbach's α
건강식 지향	2.089	음식을 먹을 때 영양가를 고려한다	.912	.808
		되도록이면 무공해식품을 먹으려고 한다	.902	
간편식 지향	1.213	인스턴트 식품을 잘 먹는 편이다	.906	.761
		패스트푸드를 잘 먹는 편이다	.874	

③ 구매패턴 영역

구매패턴 영역에서는 22개의 문항이 요인분석에 이용되었으며, 그 결과 <표 4> 와 같이 명품구매 지향, 인터넷 구매 지향, 계획적 구매 지향, 환경제품 구매 지향, 충동구매 지향, 신제품 구매 지향 등 6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별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 값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4> 구매패턴 영역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

요인명	고유치	항목 내용	요인 적재량	Cronbach's α
명품	3.890	유명상표는 남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사게된	.809	.758

구매 지향		다 유명상표의 제품을 지니면 품위가 있어 보인다 다 유명상표의 제품을 사면 친구들이 부러워한다 다 물건을 살 때 제조업체와 브랜드를 따진다 제품은 비싼 것이 역시 품질도 좋다	.780 .749 .581 .530	
인터넷 구매 지향	3.097	인터넷 구매의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인터넷에서 구매하기를 좋아한다 인터넷에서 구매한 적이 있다	.907 .904 .813	.891
계획 적 구매 지향	2.718	구매 결정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검토한다 물건을 살 때 여러 곳을 둘러보고 결정을 내린다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운다 물건을 살 때 주위사람에게 많이 물어보고 산다 세일기간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편이다	.816 .771 .705 .549 .469	.715
환경 제품 구매 지향	1.675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적 제품을 구입하는 편이다 제품을 구입할 때 환경오염문제를 생각한다 나의 소비행위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	.876 .859 .851	.857
충동 구매 지향	1.494	계획이 없더라도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면 잘 산다 쇼핑하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면 바로 산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산다 종종 기분에 좌우되어 구매하고는 후회한다	.805 .727 .581 .578	.683
신제품 구매 지향	1.119	신제품을 먼저 사는 편이다 새로운 제품은 값이 비싸더라도 잘 사는 편이다	.719 .700	.696

(3) 소비 관련 생활방식 특성비교

이상에서 분류된 소비 관련 생활방식 특성이 한국과 중국 대학생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각 영역별 요인에 해당되는 항목들의 평균점수를 내어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5> 과 같다.

의생활 영역을 살펴보면 간편식 지향이 한국과 중국 대학생 모두에게 있어서 5점 척도상의 평균이 3.5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 대학생의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패션 지향이 약간 높게(3.30) 나타났고 개성 지향은 보통수준(3.03)으로 나타났다. 중국 대학생의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패션 지향과 개성 지향이 모두 3.23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간의 차이검정 결과, 개성 지향은 중국 대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p < .001$).

식생활 영역에 있어서 한국 대학생의 경우 간편식 지향은 보통수준(3.04)으로 나타났고 건강식 지향은 낮은 수준(2.72)으로 나타났는데 반하여, 중국 대학생의 경우에는 간편식 지향이 낮은 수준(2.81)으로 나타났고 건강식 지향은 높은 수준(3.52)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간의 차이검정 결과, 건강식 지향은 중국 대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p < .001$), 반면에 간편식 지향은 한국 대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p < .01$).

구매패턴 영역에서는 두 집단 모두 계획적 구매 지향은 비교적 높은 수준(약 3.5)으로 나타났으며, 명품 구매 지향, 충동구매 지향, 신제품 구매 지향은 낮은 수준(3.0 이하)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대학생의 경우 환경제품 구매 지향은 높은 수준(3.10)으로 나타나고 인터넷 구매 지향은 낮은 수준(2.19)으로 나타난 반면에 한국 대학생의 경우 환경제품 구매 지향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2.13) 인터넷 구매 지향은 높은 수준(3.48)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차이검정 결과, 명품 구매 지향과 인터넷 구매 지향은 한국 대학생이 중국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 < .05$; $p < .001$), 환경상품구매 지향은 중국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p < .001$).

〈표5〉 한국과 중국 대학생 집단간의 소비 관련 생활방식 특성 차이검정 결과

영역	소비 관련 생활방식 구성변수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도
의생활	패션 지향	한국	3.30	.69	1.276	.203 (n.s)
		중국	3.23	.65		
	개성 지향	한국	3.03	.85	-3.34	.001***
중국	3.23	.64				
식생활	건강식 지향	한국	3.71	.88	.332	.74 (n.s)
		중국	3.69	.75		
구매패턴	간편식 지향	한국	2.72	1.02	-10.60	.000***
		중국	3.52	.81		
구매패턴	명품 구매 지향	한국	3.04	.90	3.14	.002**
		중국	2.81	.82		
	인터넷 구매 지향	한국	2.97	.78	2.44	.015*
		중국	2.83	.66		
	계획적 구매 지향	한국	3.48	1.02	16.294	.000***
		중국	2.19	.90		
환경제품 구매 지향	한국	3.51	.72	1.34	.182 (n.s)	
	중국	3.44	.59			
충동구매 지향	한국	2.13	.79	-15.58	.000***	
	중국	3.10	.71			
신제품 구매 지향	한국	2.80	.76	-1.92	.055 (n.s)	
	중국	2.91	.67			
신제품 구매 지향	한국	2.46	.88	.90	.369 (n.s)	
	중국	2.40	.73			

* p <.05 ** p <.01 *** p <.001 n.s: not significant

이상과 같이 각 영역별 소비 관련 생활방식 특성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 대학생 집단 간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비 관련 생활방식 특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대상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한국과 중국 대학생 집단 간에 성별과 학년의 분포에서는 유사성을 보였지만 연령과 월평균 용돈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들 차이는 사회경제적 측면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연령은 한국 대학생의 경우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남학생들의 연령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중국 대학생들에 비해 연령분포가 높은 쪽으로 치우치게 되었다. 월평균 용돈은 한국과 중국의 소득차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국 대학생의 월평균 용돈이 중국 대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소비 관련 생활방식 특성을 비교한 결과, 각 영역별 요인에서 유사점도 있지만 많은 차이점도 보였다.

유사점으로서의 의생활 영역에서의 패션 지향과 간편성 지향, 구매패턴 영역에서의 계획적 구매 지향, 충동구매 지향, 신제품 구매 지향이 한국과 중국 대학생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생활 영역에서의 패션 지향과 간편성 지향은 두 집단 모두 3.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두 집단 모두 패션에 민감하고 격식의 구매를 받지 않고 활동하기 편한 옷차림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구매패턴 영역에서의 계획적 구매 지향은 두 집단 모두 3.5 정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충동구매 지향과 신제품 구매 지향은 두 집단 모두 3.0 이하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두 집단 모두 합리적인 구매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이점으로서의 의생활 영역에 있어서 개성 지향은 중국 대학생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식생활 영역에서는 건강식 지향이 중국 대학

생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난 반면에 간편식 지향은 한국 대학생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구매패턴 영역에서는 명품구매 지향과 인터넷 구매 지향은 한국 대학생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났으며, 환경제품 구매 지향은 중국 대학생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최근의 글로벌화 경향에 따라 전세계의 소비문화의 일원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질적인 문화의 흡수성이 뛰어난 대학생 집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소비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국제마케팅에 있어서 양국 소비문화의 차이점을 감안하여 그에 따른 절적인 전략 구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양국 대학생 집단간에 소비문화 특성상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하는 탐색적 연구로서 차이 배후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소비문화 특성상의 차이점에 대한 현상 파악에만 그치지 않고 차이점의 근원적인 원인 및 형성과정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표본선정에 있어서 한국표본의 경우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소재 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중국표본의 경우 칭따오시(靑島市)와 이엔지시(延吉市) 소재 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신세대들은 지역 또는 소득계층과 같은 변수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세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세대 소비문화도 하위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향후의 연구에서 신세대 하위집단에 따라 세분화된 소비문화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參考文獻]

- 김중구·박성용, 《소비문화에 관한 연구》(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 백경미, 〈현대소비문화와 한국소비문화에 관한 고찰〉, 《소비자학연구》 9:1(1998), pp.17-32.
- 손상희, 〈소비사회와 청소년 소비문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1997), pp.341-353.
- 심영, 〈속담에 나타난 소비가치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소비문화 연구〉, 《소비자학연구》 17:2(2006), pp.85-113.
- 이두원·김인숙, 〈한국현대 소비문화 변천사 연구: 현대신문광고(1960~2000)에 나타난 소비 가치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2:3(2004), pp.141-175.
- 이수범, 〈소비자로서의 N세대 성향에 대한 연구〉, 《광고연구》 52(2001), pp.199-215.
- 조윤기,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마케팅전략〉, 《전문경영인연구》 9:1(2006), pp.21-44.
- 채서일, 〈체계적 분석의 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연구〉, 《소비자학연구》 3:1(1992), pp.46-63.
- 채정숙, 〈라이프스타일의 비교문화적 연구: 한국과 캐나다 거주 대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0:4(1999), pp.79-98.
- 최석신·가타가미 히로시·이광배, 〈한·일 양국 신세대의 소비문화에 관한 비교 연구〉, 《상품학연구》 27(2002), pp.233-259.
- 허경옥,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점호선호 및 만족도의 차이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5:3(2006), pp.385-395.
- 中國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各年度.
- Engel, J. F., Blackwell, R. D., Miniard, P. W., *Consumer Behavior*, 8th ed., Dryden, 1995.
- Hawkins, D. I., Best, R. J. and Coney, K. A., *Consumer Behavior*, Texas: Business Publication Inc., 1983.
- Kluckhohn, P. R., Values and Value Orientations in the Theory of Action. In T. Parsons & E. Shils(Ed.),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MA: Havard University Press, 1951
- Lazer, W., "Life Style Concepts and Marketing", in Stephen A. Greysen(ed.), *Toward Scientific Marketing*, Chicago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1963, pp. 130-131.

- Levy, S. J., "Symbolism and Life Style", Chicago: AMA, 1963.
- McCracken, G., *Culture and Consumption New Approaches to the Symbolic Character of Consumer Goods and Activitie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8. 이상률 역, 《문화와 소비》(서울: 문예출판사, 1991).
- Moore, D. G., "Life Style in Mobile Suburbia", *Toward Scientific Marketing* ed., Greysen, S. A., Chicago: AMA, 1963.
- Nunnally, J. C., *Psychometric Theory*, McGraw-Hill, New York, 1978.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umption Cultures Between Korea and China: laying emphasis upon life style characteristics about consumption

Quan, Dong-mei
Xu, Yong-hui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consumption cultures between Korean and China by analysing the consumption life style.

This study extracts clothing habits, eating habits and shopping patterns from consumption life style and distributes 588 questionnaires to university students of Korea and China.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are no differences of fashion orientation and convenience orientation about clothing habits, planned buying orientation, impulsive buying orientation and new product buying orientation about shopping patterns between Korea and China. But there are differences of personality orientation about clothing habits, healthy food orientation and convenience food orientation about eating habits, famous brand buying orientation, internet buying orientation and environment protection product buying orientation about shopping

pattern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results offer suggestions to international marketers that different marketing strategy is very necessary according to different consumption cultures.

〈Key Words〉 consumption culture, life style, AIO approach, clothing habits, eating habits, shopping patterns.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M&A 현황 및 전망

張智惠*

〈목 차〉

1. 서론
2.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M&A 현황
3.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M&A 특징
4.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M&A 관련 정책
5. 결론

1. 서론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많은 해외직접투자(FDI)를 유치하였고, 2002년에는 세계 제2위의 투자 수혜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M&A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2005년에 중국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M&A 시장이 되었다.¹⁾ 2005년

* 중부대 시간강사, 청운대 외래강사

1) 2001년에 세계 M&A 시장의 규모는 17,400억 달러였으며, 중국은 140억 달러였다. 2002년~2004년까지는 세계시장은 각각 11,910억 달러, 10,090억 달러, 19,500억 달러였으며, 중국은 264억 달러, 285억 달러, 245억 달러였다. 2005년에 이르러 세계 M&A 규모는 27,000억 달러로 2001년에 비해 10,000억 달러 증가했고, 중국은 315억 달러로 2001년에 비해 두 배 이

하반기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중국에서의 M&A²⁾는 41개국 226개 글로벌 기업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중국에서 M&A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유기업 개혁 시에 구조 조정의 하나의 방편³⁾으로써 M&A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외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기존 경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중국 내 M&A가 급속히 늘어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WTO 가입은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와 동시에 M&A를 가속화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자 기업의 중국 기업 M&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M&A는 미국 엘런 브렌들리가 57억 위안에 하얼빈 맥주의 지분을 인수하고, LNM사가 26억 위안 화링(華菱)의 지분 37%를 인수했으며, 미국 칼라일 그룹이 쉬공 공정기계의 지분 85%를 인수하려 하는 등 철강, 기계, 시멘트, 유통 등 시장 전망이 좋고 자본과 기술 집약도가 높은 업종과 업계의 선두그룹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진 경제에 예속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과 핵심 산업이 외국으로 넘어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중국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외자를 줄이면 중국 성장률 감소로 인

상 증가하였다.(Thomson Financial, UNCTAD.2006)

2) 2005년 7월~2006년 6월까지의 통계(Grant Thornton Corporate Finance 보고서). 이 통계에 따르면 인수 기업의 수치는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거래 금액은 140억 달러로 52% 증가하였다.

3) 국가가 지분 및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유기업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만 낮은 경제 효율로 인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금융 및 국가 재정 부실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구조조정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1997년부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업, 우편, 철도, 항만 등 공공사업을 제외한 상업적 경쟁이 가능한 사업은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산 매각이나, 기업 공개, M&A등의 다양한 방식 등을 통해 정리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하여 '적정 성장률 유지를 위한 외자 유치'와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한 외자의 견지'⁴⁾사이에서 정책을 내놓기에 바쁘다. 그리하여 2006년 8월 8일 상무부는 자본 비율 통제를 통한 M&A 규제와 국가 주요 산업이 외자 기업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업체 인수합병(M&A)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M&A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에서의 연구는 간단한 고찰정도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이 2004년 이전의 상황만을 가지고 M&A에 관한 전망에 그치고 있을 뿐⁵⁾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내에서의 외자기업의 중국 기업에 대한 M&A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M&A 관련 정부 정책을 통해 향후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M&A시 발생할 여러 장애와 리스크 요인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2.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M&A 현황

세계 FDI의 증감은 국제 M&A 거래에 연동되는데, 그것은 전세계 FDI의 70~80%가 국제 M&A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⁶⁾이다. 그러나 중국은 1990년대 초중반 이후 개발도상국 중 최대의 직접투자 유치 대상국으로 떠올랐지만 M&A 방식의 투자는 연간 수십억 달러 정도로

4) 중국시멘트 협회의 경우 매각 규모가 1억 달러가 넘는 토종업체에 대한 외국기업의 인수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5) 외자 기업의 중국기업 M&A에 관한 글에는 김석진, <중국 M&A 시장이 열린다>, 《LG 주간경제》2003:7,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M&A 현황 및 전망>, KOTRA 해외조사팀 (2004.5), <중국진출 M&A가 뜬다>, 《한국무역》(한국무역협회, 2004.7), 《중국의 M&A 시장》(삼성경제연구소, 2006.6.21), 조대현, 김동하, 임호, <중국경제의 핵심 키워드 M&A>, CHINDIA JOURNAL(2006.10) 등이 있다.

6) 《외국기업의 중국 기업 M&A현황 및 전망》(KOTRA 해외조사팀, 2004.5), 1쪽.

직접투자 총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중국에서 외자기업의 M&A는 90년대 초 홍콩중척회사(香港中策公司)가 산시(山西)성 타이위안고무공장(太原橡膠廠)을 인수한 후 그다지 순조롭지 못했는데, 통계에 따르면 2001년 중국이 유치한 FDI중 외자기업의 인수합병은 4.96%정도 7)였다.

당시 중국에 대한 M&A가 부진했던 요인은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중국기업이 대부분 국유기업이거나 집단소유제 기업이라는 특성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 개방 20여 년간 기업에서도 개혁이 이루어져오긴 했지만 국유 또는 공유의 주도적 지위라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원칙 자체가 포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중국기업을 인수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다.

두 번째는 외국기업의 중국 국내 기업 M&A와 관련된 법규가 완비되어 있지 않았다는데 있을 것8)이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중국기업을 인수 합병하고자할 때 해당사례가 중국 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도 모호했고 승인절차도 복잡해 일을 추진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세 번째는 주권 분할에 따라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유통주의 가치는 실질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인주의 가치와도 일치되지 못한다. 이러한 상이한 주식가치의 불일치는 중국에서의 M&A가 부진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7) 외자 기업의 인수합병에는 외자회사, 기업, 경제조직 또는 개인의 직접적인 지분구매 혹은 자산구매방식을 통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이 포함되며, 1999년~2005년 사이 M&A는 3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평균거래액은 2,000만 달러에도 못 미쳐 M&A 시장은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었다.

8) M&A 관련 법규로는 <외상투자방향지도규정(指導外商投資方向規定)>,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 <외상투자기업의 중국내잠정규정(外商投資企業境內投資的潛行規定)>,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 이 있다. 그러나 외자의 M&A 심사제도 및 절차, 심사권한과 책임, 심사기간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상장기업에 대한 외자의 M&A 관련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2001년 10월에 발표된 <상장기업과 외상투자 관련 문제에 관한 약간의 의견(關於上市公司涉及外商投資有關問題的若干意見)>에서는 외상투자기업의 중국내 상장기업의 비유통주식과 관련한 원칙적 규정을 하고 있으나 심사절차가 복잡하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들로 1990년대의 중국기업에 대한 M&A는 부진하였다. 그러나 1999년을 기점으로 중국에서의 M&A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2001년의 경우 세계 M&A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8.1%로 급감하였으나, 중국에서의 M&A는 3.6% 증가하였으며, 2002년에는 감소하긴 하였지만 세계 M&A에 비교하면 소폭 감소 한 것⁹⁾이라 볼 수 있다.

중국기업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M&A 거래금액(1995~2001)(단위:억 달러)

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금액	4.0	19.1	18.6	8.0	24.0	22.5	23.3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2

이후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M&A는 2004년의 경우 FDI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2001년에 보다 두 배 이상 오르는 등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2002년 4월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의 개정¹⁰⁾과 2002년 가을부터 M&A 관련 법률이 발표되면서 외국 기업의 중국 기업 M&A 환경 개선에서 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중국기업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M&A 금액 및 건수 (2002~2004)

(단위: 10억 달러)

년도	2002	2003	2004
금액	24.6	28.9	24.5
건수	959	1,570	2,141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2005)

하지만 높은 증가율과 거래량에 비해 실질적인 내용은 높은 수준이

9) 세계 M&A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7.7% 감소했으나, 중국의 경우는 11% 감소하였다. 上同, 2-4쪽.

10) 이전에 투자를 금지했던 통신, 연료, 열에너지, 도시배수, 하수구 등의 분야 외에 76개의 투자 장려 조항을 추가하였다.

라 보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2004년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1,535억 달러였으며, 신규 사업 구축 및 중국기업과의 합작사업에 6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M&A는 12%정도만을 차지해 외국인 투자유치 상위 10개국의 평균 비율 47%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 이러한 이유는 중국에서의 외국인 투자가 주로 합작투자에 제한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M&A되는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인 것도 중국에서의 외국인 투자에서 차지하는 M&A비중을 작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 외자사 후징옌(胡景岩)은 제2차 국제 M&A 포럼에서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 하였는데, 현재 중국은 경공업, 가전제품, 방직, 식품, 기계제조, 자동차, 엘리베이터 등을 중심으로 M&A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M&A 시장에 대한 외자의 규모를 600~700억 달러라고 하였다.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M&A 실적

〈2004년~2005년 2월〉 (단위: 백만 달러)

업종	보험	금융	석탄	제지	음료	의료장비
금액	571	179	111	73	58	28
업종	전자	소프트웨어	물류·유통	기계	가구	
금액	25	19	7	3	1	

자료: 〈中 중소기업 M&A 붐〉, 《매일경제》, 2006.02.28

그러나 M&A되는 기업들 중 82%이상이 5,000만 달러 대에 그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 중심이기 때문이었다. 앨런 라우 매킨지 컨설팅 홍콩지점 파트너는 “금융과 보험 등 기업 규모가 원래 큰 업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다수 중국기업이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외국인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부품, 소프트웨어, 의료장비, 주방기기, 가구업체 등 거의 모든 제조업종이 중소기업체”라고 설명했다.¹¹⁾

11) 〈中 중소기업 M&A 붐〉, 《매일경제》(2006.2.28).

그러나 현재 많은 산업 부문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외국기업에 의한 M&A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에서는 통신, 연료, 열에너지 등의 분야와 76개의 투자 장려 조항을 목록에 추가하였다. 또한 국영기업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기업공개 기준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과도한 설비 투자에 의한 생산능력 과잉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자산과 사업을 싼 값에 매입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중국 정부는 부실 국유기업을 감당하기엔 재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외자의 인수합병을 이용 국유기업의 개혁이나 구조조정 등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상무부 외자사 후징옌(胡景岩)은 “현재 외자는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동북 노후공업기지, 중부와 서부지역의 오래된 국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동시에 이들 기업과 빈번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최근 중국 측에서 M&A를 장려하고 있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중국 정부가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는 성공적인 국유기업 개혁을 하기 위해서이며, 세 번째는 중국은 현재 소비재 시장의 70% 이상이 공급과잉인 상태이기 때문에 산업에서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이유들로 중국 정부 차원에서 M&A를 장려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중국은 경영효율이 낮은 국영기업수를 민영화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하여 현재 167개에서 80~100개 정도로 줄이기로 하였다고 한다. 매각 대상은 원유·담배·통신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¹²⁾이다.

EIU의 글로벌 기업의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¹³⁾에 따르면 중국에서 M&A를 했거나 고려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3%를 차지 중국에서 M&A를 하려는 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의 M&A 시장은 내용면에서는 많은 변화를 겪으며 질적인 성장

12)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AWSJ)》의 내용 《중앙일보》(2006.4.4)참고.

13) *Economist Intelligence Unit: The Great Bye-out: M&A in China*, 2006.

을 하고 있지는 못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의 외자 기업의 M&A를 질적인 면에서 성공시키려 한다면 외자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M&A를 하는 동기와 트렌드의 연구가 필요하다.

3.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M&A 특징

외국기업이 중국기업을 M&A할 때 관심을 두는 업종은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관련 산업 정책이나 산업의 성숙도 및 다국적기업의 세계 M&A의 전략 목표 및 다국적기업의 중국 내 투자방향등 여러 요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외자 기업에서의 M&A를 선호하는 이유는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성공적인 중국 진출을 위해 현지 유통 채널 확보 및 브랜드 확보를 하여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전에는 시장전망이 밝거나 독점력이 강한 업종에 M&A가 집중되어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자본 기술 집약형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주요 대상 업종이었다. 2001년~2004년 사이 외국 기업이 중국기업 M&A를 추진하고 있는 업종은 주로 외국인 투자 장려업종과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높은 업종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산업, 교통운수 등 주요산업과 WTO 가입 후 개방된 의약, 소매업, 공공사업, 금융서비스업종¹⁴⁾이었다.

2005년 7월~2006년 6월까지 1년 동안 41개국 266개 글로벌 기업이 중국기업을 인수 전년 동기 인수기업의 수치와 비슷하지만 거래 금액은 140억 달러 규모로 52% 증가하였다.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거래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금융업이었으며, 거래 건수에서는 하이테크 산업¹⁵⁾이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M&A는 여전히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 IT업계 및 금

14) 상해시의 경우 2003년 상반기 M&A 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39.1%, 부동산이 15.94%를 차지했다. <외국기업의 중국 기업 M&A현황 및 전망> (해외조사팀, 2004.5), p.20.

15) 《인민일보》(2006.9.4).

용 업계와 서비스업에 대한 M&A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¹⁶⁾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M&A 산업별 현황(2005년)¹⁷⁾

	산업	M&A 규모(백만 달러)	M&A 건수
1	금융	13,399	100
2	제조업	2,267	51
3	생필품	2,141	38
4	통신	1,575	18
5	첨단기술	1,217	74
6	소매업	1,143	11
7	재료산업	659	53
8	부동산	649	15
9	에너지 및 동력	367	15
10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328	19
11	의료	313	26
12	소비재 및 서비스	287	33

외자기업이 중국기업을 M&A할 때 업종 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우선 선호하는 업종의 측면에서 봤을 때 비교적 시장화가 잘 된 맥주, 시멘트 업종과 중국 금융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시티 그룹 벤처 캐피탈(CVC)은 50억 위안 규모의 주식을 매입해 천밍 그룹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 미국의 골드만 삭스는 20억 1,000만 위안에 소양 후이 그룹의 전체 국유자산을 매입했다.

두 번째는 중국 내 유통 경로 확보 및 로컬 브랜드 확보하여 시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M&A를 추진¹⁸⁾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다농은 와하하와 러바이스를 인수하여 중국 생수 시장에서 점유율 1위

16) Grant Thornton Corporate Finance 보고서

17) Thomson Financial

18) ‘반드시 지배권을 확보해야 하고, 대상이 반드시 업계의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향후 수익률이 15%를 넘어야 한다’는 세 가지가 현재 다국적기업이 중국 M&A 활동에서 제시하는 기본 조건이 되었다. 이 밖에 지배권, 판매통제권 및 재무권, 브랜드 사용권 통제도 목표로 삼고 있다.

를 차지했다. 또 뉴질랜드의 폰테라 그룹은 2005년 12월에 중국 조제분유 시장에서 12년 연속 판매 1위를 차지한 썬루 그룹의 지분 43%를 인수하였다. 이것은 장기적 이익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중국기업의 M&A를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위의 사례와 같이 시장점유율 제고와 규모 우의 획득 등의 장기적 가치를 추구한다.

세 번째로는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M&A가 계획적이며 단계적인 전략적 형태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 합자나 합작 방식으로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파트너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 최대주주가 되어 독자적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네 번째로 전신, 전력 등 정책적 독점현상이 뚜렷한 업계에서는 M&A가 된 사례가 드물다. 외자기업은 중국에 M&A를 할 때 주로 중견기업인 업계의 선두기업만 선택하며 국유기업의 제도개혁 및 지방의 국유 재산권 개혁의 기회를 이용해 M&A에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으나 최근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170억 위안의 매출을 올린 중국 최대 건설 중장비 메이커인 쉬공(徐工)그룹은 2005년 10월 미국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과 3억 7,900만 달러 규모의 M&A에 합의 하였고, 373억 위안의 매출을 올린 중국 14위 철강사 라이우(萊蕪)는 2006년 2월 세계 2대 철강사인 아셀로(Arcelor)와 6,400억 달러 규모의 M&A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 두 그룹의 외자기업과의 M&A는 실현되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다. 이유는 위의 두 기업은 중국 정부가 지정한 중점 산업에 속하고, 또 올 8월에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업체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 중국 정부의 규정의 변화 때문이다.

다섯 번째, 전반적으로 포석해 전체 업종을 통째로 삼키려고 한다. 이러한 형태는 건설장비업에서의 M&A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캐터필러(Caterpillar)사는 쉬공(徐工)에 대한 부분적 지배권을 얻은 후 바로 산둥(山東)건설장비공장을 겸병하였다. 최근 캐터필러는 또 주식출자 방식으로 샤먼(廈門)건설장비유한회사를 인수하려 시도하고 있다. 또한 썬이중공(三一重工)주식유한회사, 광시(廣西)류저우(柳州)건설장비그룹, 허베이(河北)쉬안화(宣化)건설장비그룹에 대한 M&A를

피하고 있다.

또 중국에서의 M&A 법제도도 우선 기업의 상장여부에 따라 규제 법규가 양분화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상장회사에 대한 M&A는 주로 《증권법(證券法)》의 규제를 받는다. 그동안 정부는 외자기업의 중국 상장 기업 M&A의 경우 상장주식의 종류에 따라 기준을 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주권분치(股權分置)’개혁 및 《증권법》이 수정되면서 모든 상장거래 주식에 대한 외국자본의 M&A가 가능해졌다.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상태에 따라 《공사법(公司法)》, 《전민소유제공업기업법(全民所有制)》, 《성진집체소유제기업조례(城鎮集體所有制企業條例)》, 《합화기업법(合夥企業法)》 등의 적용을 받는다. 전민소유제기업이나 집단소유제기업의 경우에는 주주권이 확립되지 않아 회사법인 형태로 전환 절차를 걸쳐야 한다.

또한 M&A 목표 기업의 내부 동의 및 외부 비준 절차가 양분화 되어 있다.¹⁹⁾ 이것은 ‘국유자산의 유실 방지’와 ‘국가경제 혼란 방지’를 위해 엄격한 인허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전민소유제기업의 M&A는 기업의 최고 권력기구인 직원대표대회 또는 농민대표대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는 M&A법제도가 외상투자법에 준한다는 것이다. 이에 외상투자 기업 설립 인허가에 준하는 인허가 절차 및 세수혜택 정책을 적용²⁰⁾한다.

4.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M&A에 관한 정책

기업이 글로벌화를 할 때는 그 기업의 글로벌화 전략, 해외 시장 진

19) 일반적인 기업 M&A에서는 정부가 독점규제 등 공공이익을 위해 개입하는 것을 제외하면 인수자와 목표회사의 협상결과에 따라 M&A가 확정된다.

20)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근거 허가대상에 속하는지 지분비율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비상장회사일 경우에는 M&A후 목표기업의 지분 25%이상을 취득하면 기존외상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 목적, 기업 경영 자원과 역량, 기업의 생산방식, 진출 대상국의 투자 환경과 시장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하게 마련이다. 직접 투자 방식은 현지에 인적·물적·재무적 자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 기술 라이선싱, 프랜차이징 방식에 비해 위험의 정도가 높은 대신, 현지 생산·판매에 대한 통제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²¹⁾ 외자 투자방식에는 M&A와 그린필드 투자가 있는데 M&A가 그린필드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와 유통망에 있어서 리스크도 적고 기술경쟁이 치열한 이 시기에 공장 건설과 시운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미다국적 기업은 첨단 기술 분야나 진입장벽이 높은 업종에 투자할 때 인수합병을 통해 즉시 진입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한다.²²⁾

중국은 2002년 이후 세계 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했지만, 서방 여러 국가들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70~80%를 M&A를 통해 진행되는 데 비해, 외자의 대부분이 그린필드형 투자로 유입된 것으로 M&A거래는 2005년까지는 미미했었다. 그동안 중국에서 M&A가 부진했던 이유는 중국의 기업들이 대부분 국유기업으로 외국기업이 중국 기업의 소유권을 인수하기 어려워서였고, 또 중국 내 M&A관련 법규가 미비했었다는 데 있었을 것이다.

중국은 국영기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부터 대형 국유기업간의 M&A를 활발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2001년 11월 제 16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외국기업의 M&A를 적극 장려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외국기업의 중국기업에 대한 M&A 관련법령을 정비하였다.

2002년 4월에는 《외국인 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개정해 대외 개방 업종의 폭을 확대시켰다.²³⁾ 또한 2002년 가을에는 외국 기업의 중국 상장기업 비유통주 인수 허용 등 외국 기업의 중국 국유 기업 및 기타 중국 기업 인수조건·절차 규정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중

21) 김익수, 《사들이는 중국, 팔리는 한국》(삼성경제연구소, 2005), 29-30쪽.

22) 上同, 53쪽.

23) 그동안 외국기업에 제한해 왔던 금융, 유통, 통신, 기타 서비스 등의 업종을 외국인 투자 장려 목록에 포함시키는 등 총 76개의 업종을 추가하였다.

국기업 M&A제한을 점차 완화시켜 나갔다.

2002년 10월에는 외국 기업의 중국 상장회사의 M&A 방법을 설명한 《상장회사 M&A 관리 방법》을 발표하였다. 2002년 11월에는 《상장기업 국유주 및 법인주의 외국인 투자자로의 양도에 관한 통지(關於向外商轉讓上市公司國有股和法人股有關問題的通知)》가 발표되었는데, 이것으로 1995년 9월에 금지된 외국기업에 의한 중국기업의 M&A가 허용되었다. 이 일로 중국의 상장기업은 외자 기업을 통해 경영개선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외자의 그린필드형 투자방식에서 M&A 투자방식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후 중국 정부는 M&A 관련 법규를 계속해서 발표하였다. 《상장기업 국유주 및 법인주의 외국인 투자자로의 양도에 관한 통지(關於向外商轉讓上市公司國有股和法人股有關問題的通知)》이 발표된 그 달에 상장기업의 국유주나 법인주의 취득을 제한부로 외국기업에게 인정하는 《적격 외국기관 투자자(QFII)의 국내 증권투자에 대한 조치(合格境外機構投資管理暫定辦法)》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2003년 11월에는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 개조에 관한 잠정규정(利用外資改組國有企業暫定規定)》을 발표되었는데, 내용은 외국기업에 국유기업(금융기관 및 상장기업을 제외)의 주식, 채권, 자산 양도 등을 통해 국유기업을 개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3년 3월에는 외자계 기업의 중국기업 M&A 관련 법령 중 M&A의 적용범위가 넓고 실용적이라 평가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국내기업 인수·합병 잠정규정(外國投資者并購境內企業暫定規定)》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법규와 함께 2001년 12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취소되거나 낮아지게 되었는데, 중국의 M&A 관련법 제정과 WTO가입을 계기로 해외직접투자도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겠다. 2003년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M&A는 38억 2,300만 달러로 2002년에 비해 84.4% 증가하였다.

2006년 상반기 중국 내 M&A 현황을 보면 2006년 1월에서 7월 사이 41개 국가 266개 기업들이 중국 기업에 대한 M&A를 실행했다. 또한 전체 M&A 건수는 1년 전과 비슷하지만 규모가 52%나 증가해 총

140억 달러에 달하는 것²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가 중국 경제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부분 외에도 많은 부정적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6개 부처와 공동으로 2006년 8월 9일 외국투자자에 대한 M&A 규정인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업체 인수·합병(M&A)에 관한 규정》을 발표²⁵⁾(9월 8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문건은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국내 업체를 인수합병 할 때 중국의 법률, 행정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 합리, 등가유상(等價有償), 신용의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경쟁을 과도하게 집중, 배척하거나 제한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또 국유자산 유실이나 사회경제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공공이익을 저해해선 안 되며,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국내 업체 M&A는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및 규칙에서 규정한 투자자자격 기준 및 산업, 토지, 환경보호 등의 정책에 부합해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제정하였다.

또 이미 공포된 FDI 가이드라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단독투자 경영이 금지된 산업²⁶⁾에 대해서는 M&A를 할 수 없으며, 중국 측이 주식을 지배하거나 상대적으로 지배해야 하는 산업인 경우는 합병 후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의 모든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중국 측 지배주주를 규정한 산업이거나 상대적으로 지배해야 하는 산업일지라도 M&A 이후 중국 측이 주식을 지배하거나 상대적으로 지배하도록 하는 원칙이 유지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기계설비등 특정업종에 대해서만 신고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번 규정에서는 종업원 2,000명 이상의 기업이나 중국 전통 브랜드나 유명상표를 보유한 기업, 중국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칠만한 기업을 인수합병 할 때에는 상무부에 신고하도록

24) M&A 추진 기업 중 미국기업이 가장 많았고, 영국기업(버진군도 포함)과 싱가포르 기업이 2,3위를 차지하였다. 《인민일보》(2006.9.4)

25) ‘국가 경제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모호한 문장이 있긴 하지만 이번 규정은 M&A에 관한 절차를 명문화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26) 원전, 발전설비, 철강, 조선, 석유화학설비, 기어, 변전기 등의 7개 업종은 외국 자본의 M&A 금지 업종으로 지정했다.

하였다. 또 2003년 7월에 공포된 잠정규정에는 없었던 ‘중점산업 및 국가 경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포괄적이지만 해당 산업을 규정²⁷⁾하였다.

어떤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M&A시 대상 기업의 국유자산 양도가 요구되거나 상장회사의 국유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국유자산 관리위원회 승인이, 상장사를 합병할 경우에는 증권감독관리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 2) M&A를 할 때 중국 내 중점 산업에 해당되거나 국가 경제 안전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유명 브랜드 보유 또는 중국 전통 브랜드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무부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M&A후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의 투자 총액 상한선을 정해서, 추가 투자에 따른 지분 변동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였다.

또한 이 문건은 종전의 《외국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합병(M&A)에 관한 잠정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던 반독점 심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다. 인수기업 및 피인수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일정수준이 상인 경우 등은 상무부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에 보고하거나 반독점 심사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해당기준에는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기업 등의 신청에 의해 당국이 시장 점유율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심사를 받도록 규정²⁸⁾하고 있다.

반독점 심사 대상은 인수기업 및 피인수기업 중 한쪽이 당해 연도 중국 시장 내 매출액 15위안 이상이며, 1년 내 중국 내 관련기업 인수합병이 10개 이상이고,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이상,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중국내 시장 점유율이 25%이상인 경우이다. 규제 내용은 상무부 및 국가 공상행정총국에 보고 및 반독점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

27) 7대 중점 업종, 원자력 발전, 발전설비, 송변전설비, 조선, 기아제조, 석유화학, 철강, 《홍콩문회보》(2006.6.15).

28) 이전에는 외자기업의 투자행위를 상무부에서 총괄하였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국내 무역을 총괄하는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에 상무부와 대등한 조사 심의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내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M&A후 중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클 경우에는 중국기업, 관련 부처, 관련 협회가 상무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해당투자자의 심사를 청원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외자의 M&A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M&A를 할 경우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25%로 묶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시장 공정 경쟁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경우, 적자기업에 대한 M&A로 취업을 보장하는 경우,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인재관리를 통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경우, 환경(보호)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경우 등은 조사 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이외에 주식 교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 방법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M&A 수단이지만 중국기업과의 거래에서는 크게 활용되고 있지 못했다. 이전에 주식 교환 방식 M&A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내 외국인투자법을 적용받게 되어 주로 현금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최근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유지해온 기업들에 한해 주식교환 방식을 통한 M&A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국기업들의 무분별한 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교환 방식을 이용할 때에는 쌍방의 주식가치 평가는 공인받은 중국 기관에서 실시토록 하였으며, 주식 교환 등을 위해 특수 목적 회사를 만들 때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증권감독관리 위원회는 2006년 5월에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후 《상장회사 인수 관리방법》을²⁹⁾ 7월경에 발표하였

29) 주요 내용은 첫째, 상장회사 인수제도를 대폭 조정하여 강제적인 100% 청

는데 이 제도는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방법은 강제적인 100% 청약 인수 방식을 인수자 선택 방식으로 조정했다는 부분에서 상장회사의 M&A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밖에도 WTO 가입 이후에 외자이용정책법규에도 변화가 일어나, 중국은 WTO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약〉에서 회원국이 현지의 경제수준 요구, 무역균형요구, 외화균형요구, 대외판매비중요구 등 투자관리 조치에 대한 사용금지와 투자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제한과 왜곡을 방지하는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와 법률을 수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무역균형제한을 취소하고, 외자기업의 수입을 총 매출액의 30% 이내로 규제하는 것에 대한 요구를 취소한다. 두 번째, 국내 판매 수량제한 및 외화사용제한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체적인 외환수지균형에 대한 요구를 취소한다. 세 번째, 외국인투자에 대한 통제 및 시장진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보험, 통신, 법률, 회계, 건축, 관광, 교육, 운송 등 서비스 무역 분야를 개방하면서 해외서비스업체가 상기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 허가 제도를 개혁하고, 투자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며, 정기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외자정책 변동 상황을 보고한다. 네 번째, 정책발표체계를 수립하고, 지정된 매스컴에 외자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외자정책을 수시로 획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섯 번째, 서부 대개발 전략을 철저히 실시하고 새로운 지역우대정책을 실행한다. 여섯 번째, 외자유치의 산업정책을 완비하고, 외자기업이 첨단

약 인수방식을 인수자 선택방식으로 조정해 인수자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인수비용을 낮췄다. 두 번째로 강제적인 정보 공개 등의 여러 조치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중소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 한다. 세 번째 관리감독방식을 전환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의 사전 심사 허가제를 사전 관리 감독과 사후 관리 감독을 적절히 결합하는 형태로 바꿔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네 번째, 재무 컨설팅 등 중개회사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고 상장회사 인수활동에 대한 시장메커니즘의 제제 역할이 제대로 가능하도록 했다. 다섯째, 회사 관리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고 경영자(MBO)를 엄중 관리토록 했다. 여섯 번째, 외자가 중국 기업을 인수할시 국가 산업정책과 산업 진입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의 안전과 사회공익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기술 산업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일곱 번째, 인수합병, 리스크투자, 증권투자 등 여러 가지 방식의 외자이용을 적극 모색하면서, 외자 기업의 인수합병을 권장, 규범화하는 법규를 출시한다는 것이다.³⁰⁾ 이러한 것들은 WTO 가입 이후 중국에서 외자기업의 인수합병에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해 앞으로 더 많은 인수합병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5.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M&A에 관한 의견

7월 22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회 중국 산업안전 포럼 경제 포럼에서는 외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주요 산업에서 외국기업에 의한 인수합병(M&A)을 저지하려는 정책³¹⁾이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산하 투자연구소의 보고서³²⁾에 따르면 국제적인 노하우를 참고해 외자의 국유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거시적 조정을 폭넓게 진행하고, 외자 투자 조사·심사 전문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유기업에 대한 외자의 중요한 M&A 안전을 엄격히 심사하고 외국인 투자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외국인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추리리(褚立力) 동광제일투자집단(東方第一投資集團)회장 역시 “경제

30) 여기엔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 등 3가지 외자법 및 관련 실시 세칙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에 대한 외자의 M&A 현황>, 《中國外資網》(2005.6.22).

31) 하나의 예로 2006말 입법을 목표로 제정 중인 반독점법안은 외국기업의 인수합병을 제한하는 실질적 제도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32) 이와 관련해 2006년 8월 1일부터 5일까지 베이다이허(北戴河)에서 제 29회 발전개혁업무 연구회의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상에서 산업경제 안보 문제는 국제 경쟁에 수반되는 것이므로 적극 대비해야된다고 하며 중국 당국은 중국 국내 기업에 대한 외자의 M&A에 대해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 밝혔다. <传华对外资并购更谨慎国家派员调查洛轴并购案>, 《香港商报》(2006.8.7).

글로벌화 흐름 속에서 구미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해외투자, M&A등을 환영한다. 그러나 자신들이 M&A 대상이 될 경우에는 태도가 달라지는 모순된 반응을 보인다. 그들은 현지의 정치 분위기나 경제안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³³⁾라고 하였다. 위의 두 의견 모두 외자가 중국내 중점 산업을 독점하여 이후 중국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유기업 M&A를 엄격히 규제한다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업체 인수 합병(M&A)에 관한 규정》을 8월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의 국영 건설 장비업체인 쉬공(徐工)을 인수하려던 칼라일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자본도 최대한 활용하고 투자에 따른 각종 위험을 통제해 국가 안전도 보장하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잡기’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이야기³⁴⁾했다.

그렇다면 중국은 적대적 M&A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바이진푸(白津夫) 중앙 정책연구실 경제연구국(經濟研究局) 부국장은 “외국기업의 M&A는 중국의 결정적 분야의 주요 기업에 집중돼 있다. 이제 이들의 활동은 비즈니스의 범주를 떠나 분명한 전략적 목표가 있다”라고 하며, “다국적기업이 중국의 업계 중견기업을 M&A하는 것은 이들의 전반적인 중국 투자구도의 전략적 조치이며 중국의 산업 성장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의 산업 경쟁우위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우선 업계의 중견기업을 무너뜨려 전체 산업 발전을 제압하는 목적을 달성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중국기업들이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할 뿐 자주의식이 부족한 것, 그리고 눈앞의 정치실적만 추구하는 지방정부의 근시안적인 행각 역시 객관적으로 다국적기업의 M&A를 조장했다”라고 분석³⁵⁾했다.

그는 다국적기업의 전략 M&A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다음과

33) 秦旭东, 〈商务部高调回应外资设限〉, <http://invest.cec-ceda.org.cn>, (2006.8.11)

34) 〈中, 외국인자본 M&A 제동〉, 《매일경제》(2006.8.4).

35) 〈外資鯨吞國企的 重大隱患〉, 《小康雜誌》(2006.10.12).

같이 제시했다. 첫 번째, 전략산업을 한층 더 명확히 하고 산업 발전과 기업의 개혁을 전반적으로 계획한다. 전략산업과 주요 기업에 대해서는 외자 진입 방식과 허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M&A 재편은 정부의 전략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 두 번째, 적극적인 외자 도입을 통해 구조 조정과 재편 개혁에 속도를 내으로써 중국 산업의 규모와 수준을 꾸준히 제고한다. 한편 개방 과정에 자주성과 이성을 유지하고 윈-윈 합작의 의식을 수립함으로써 대외 합작에서 자주성을 지키고 자기발전을 실현한다. 세 번째, 외자의 M&A 발전을 적극적,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그리하여 외자의 M&A가 중국 외자 도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외자 M&A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발전을 규범화한다. 네 번째, 여러 부처 공동의 M&A 심사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대형 M&A를 통한 재편은 특별 평가와 논증을 거치도록 한다. 또한 전략산업과 전략적 의미가 있는 중요한 기업에 대한 M&A 재편은 반드시 특별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이와 함께 M&A 관련 국가경제 안전 정보 메커니즘을 수립해 잠재 리스크를 방지한다. 다섯 번째, 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입법을 통해 외자의 M&A를 규범화한다. 중국은 외자 M&A를 겨냥한 단독적인 산업정책과 관련 법률을 아직 제정하지 않아 외자의 M&A를 관리와 감독의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체제 및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법률 규범을 강화해야 한다.

국연망 거시경제연구부의 의견 역시 대내외적으로 외자이용방식이 변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맞춰 외자유치정책과 외자유치의 주안점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첫 번째 외자이용 전환기에 중국은 계속 외자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해 외자의 질을 높여야 한다. 즉 산업구조의 조정방향과 일치해야 하는데 에너지 소비 및 오염 유발이 적고 과학기술 수준이 높은 산업의 비중을 높이고, 농업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두 번째는 기술 프리미엄 효과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다. 이것은 현지기업이 다국적기업과 연관해서 기술획득을 하고, 인력자원의 이동을 하며, 다국적 기업이 핵심 연구센터를 설립하도록 장려하는 가운데 획득되어질 것이다. 세 번째는 관련 우대 정책의

조정을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법률체제를 완비하고 보완하여 다양해진 외자 투자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⁶⁾ 이러한 내용에서 봤을 때 현재 갖가지 외자관련 및 M&A 관련 논쟁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아직 외자유치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M&A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 보여 진다. 단지 중국에서 외자기업이 절대적 지분 보유나 시장 독점을 막는 보호주의적 투자유치 정책을 선택해 핵심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

6. 결론

중국에서의 외자기업의 M&A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나 올 8월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업체 인수·합병(M&A)에 관한 규정》은 외자기업이 중국기업을 M&A하려는 것이 줄어들게 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져올 수도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M&A를 할 경우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25%로 묶겠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제한은 외국투자자의 자본비율이 25%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외국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때도 중국 기업과 똑같은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외환사용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다.

또한 칼라일의 쉬공 인수 합병과정에서 보듯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업체 인수·합병(M&A)에 관한 규정》은 일정정도 외국기업의 중국기업에 대한 M&A 제약이 될 것이고 나아가 이것은 또한 국유기업 개혁에 제약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외자유치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며 개방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M&A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된다. 파이낸셜 타임즈(FI)의 8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규정은 합리적이고 오히려 투자자들을 더 끌어들이는 계기가

36) 〈引资政策转折期的深层思考〉, 国研网宏观经济研究部, 国研网《宏观经济》月度分析报告, 5-6쪽(2006.8.11).

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규정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게는 합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것은 외자가 지분인수 방식을 통해 중국 기업을 인수 할 수 있다는 것을 정식으로 명시화 하여 중국의 경영환경이 국제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겠다. 이에 서비스업이나 내수시장을 겨냥해 진출하는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M&A는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국유기업 중 일부는 어느 정도의 국내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 M&A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다농 역시 M&A를 통해 시장 지배력 함께 일부 면세 효과도 누렸다.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은 중국에 있어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었고, 현재도 시장경제체제 개혁의 연장 상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이라기보다 국제 기준에 적합한 내국민대우 원칙을 적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중국은 이전에 비해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양적인면보다는 질적인 면을 중시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즉 최근 발표되고 있는 M&A 관련 여러 발표들은 현재 외국인 투자에 있어 고려하는 것은 투자규모보다는 자국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고려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외자기업이 절대적 지분 보유나 시장 독점을 막는 보호주의적 투자유치정책을 선택해 핵심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문헌

1. 윤종훈, 이호준, 《M&A 전략과 실전 사례》(매일 경제 신문사, 2005.4).
2. 李揆哲, 《중국경제통상법》(진원사, 2006.8).
3. 허운학, 《중국법 실무해설》(로앤비, 2004.10).
4. 조대현외 3, <중국경제의 핵심 키워드 M&A>, 《CHINDIA JOURNAL》(포

스코경영연구소, 2006.10.10).

5. 박한진, 《10년후, 중국》, 해냄, (2005)

-인터넷

1. 《關於外國投資者并購境內企業的規定》(商務部, 2006.8.14).
2. 江咏 朱劍鋒 劉易, 〈外資凶猛: 斬首收購行業龍頭企業〉, 《新財富》, (2006.4.28).
3. 〈中國并購風潮—來自標準普爾的分析〉, 《商業周刊》(2006.7.26)
4. 〈傳華對外資并購更謹慎國家派員調查洛軸并購案〉, 《香港商報》(2006.8.7).
5. 〈引資政策轉折期的深層思考〉, 國研網宏觀經濟研究部, 國研網《宏觀經濟》月度分析報告(2006.8.11)
6. 秦旭東, 〈商務部高調回應外資設限〉, <http://invest.cec-cceda.org.cn>, (2006.8.11)
7. 脚夫車, 〈中國開始控制外資流入〉, 《華爾街日報》(2006.9.4)
8. 〈近期外資政策的調整并不改變中國引進外資戰略〉, 國研網宏觀經濟研究部 編撰, 國研網
9. 《宏觀經濟》月度分析報告, (2006.9.29)
10. 陶勇, 〈外資鯨吞國企的 重大隱患〉, 《小康雜誌》(2006.10.12)
11. 李圓, 〈跨國并購助推外國直接投資增長〉, 《經濟參考報》(2006.10.18)
12. 〈外企不會形成壟斷 不涉及國家經濟安全〉, 商務部(2006.11.3)
13.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UNCTAD, (2006)
14. *Asia-Pacific M&A Bulletin*, PWC, Mid-year (2006)
15. 〈외국기업의 중국 기업 M&A현황 및 전망〉, KOTRA 해외조사팀(2004.5)
16. 〈중국 진출, M&A가 뜬다〉, KITA China 북경지부(2004.6.1)
17. 〈중국의 외국기업 M&A 규제(I)〉,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14:40 (2005.10)
18. 〈중국의 외국기업 M&A 규제(II)〉,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14:41 (2005.10)
19. 박현정, 〈중국, 장비제조업 M&A 제한조치 발표〉, 《KIEP 세계경제초점》(2006.7.13)
20. 〈중국, 외국기업의 주식교환 방식 M&A규정 마련〉,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15:32(2006.8)
21. 곽용수, 이규인, 〈중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대축소 배경과 전망〉, 《海外經濟情報》(2006.9.14)

22. 曾成樺 外3, 〈외국자본의 중국기업 M&A에 대한 심층 분석〉, 삼성경제연구소(2006.10.11)
23. 〈중국의 M&A 시장〉, 삼성경제연구소(2006.6.21)

[中文摘要]

1978年改革·開放以後中國擴招着好多FDI, 到了2002年當成世界第二的投資受惠國。隨之外資企業的中國企業併購也開始增加起來。到了2005年中國在亞細亞成了第二的併購市場。

在中國外資併購飛速增加的原因就是三個：第一，現在中國政府以外資併購用國有企業改革時構造調整的一個方法。第二，外資企業中國進出時爲了活用現有經營資源。第三，加入世以加快外資併購的速度。

但最近對外資併購擔憂的聲音越來越多。因爲最近發生了外資併購就是鋼鐵、機械、水泥、流通等發展可能性比較的高還有成本及技術集約化的比較的好龍頭企業爲主。本文針對首先考察了對外資併購的現況及中國政府的政策，要展望以後外資併購時發生可能的問題要因。

關鍵詞：外資併購，外資企業，中國企業

대한중국학회 학술지 발행 규정

1. 편집위원회 규정

- 1) 회칙 제4장 제22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 2)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인 《中國學》의 편집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3) 위원의 선정 기준
 - 가. 전국 각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중국학 전공자
 - 나. 연구 활동이 왕성하고 학문적 성취가 탁월한 자
- 4) 위원의 선정 절차
 - 가. 편집위원은 임원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선정한다.
 - 나. 전공,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의 인원을 추천받아 최종 12명 전후의 인원을 선정 위촉한다.
 - 다. 최종 선정 위촉된 편집위원 중에서 1인을 이사로 선임한다.
- 5) 위원의 임기
 -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 6) 위원회의 개최
 - 가.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가 주재한다. 단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학술이사와 협조하여 당무를 주재한다.
 - 나. 매호의 학회지 발간을 위한 제1차 편집위원회는 8월말 발행분은 7월 첫 주 금요일에, 12월말 발행분은 11월 첫 주 금요일에 개최한다.
 - 다. 이후의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발행 준비에 따라 편집이사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횟수로 소집 개최한다.

2. 논문심사 규정

- 1) 심사의 취지
 -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내외의 중국학 학술발전

을 촉진한다.

2) 심사 시기

매년 8월말 발행분은 7월 첫 주 금요일 회의를 거쳐 심사를 의뢰하여 7월 말에 심사를 마감하고, 12월말 발행분은 11월 첫 주 금요일 회의를 거쳐 심사를 의뢰하여 11월 말에 심사를 마감한다.

3) 심사위원의 자격

가. 전국 각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중국어문학 전공자

나. 투고된 원고와 같은 분야에 관한 저서나 논문을 발표한 자가 있는 자

4) 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

가. 선정 시기: 심사위원은 매호 학회지 발간을 위한 제1차 편집위원회에서 위 3)의 '심사위원 자격'에 의거 선정한다.

나. 심사위원의 수: 투고된 논문의 1편 당 심사위원 수는 3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심사위원의 위촉: 선정된 심사위원에 대해서 편집이사는 지체없이 일정한 양식의 심사의뢰서와 심사서 양식 및 해당 논문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5)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편집이사는 심사논문 발송 전 당해 논문의 저자를 인지할 수 있는 각 항목, 예컨대 필자 성명, 소속, 그리고 각주 및 참고문헌 중 '줄고'등으로 표기된 부분을 제거하여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6) 심사의 항목 및 배점

가. 심사항목은 '체제의 적합성', '논리전개의 명확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논문제목의 적합성과 논문의 완성도', '학문적 기여도'의 5항목으로 한다.

나. 항목 당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다. 심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심사항목을 변경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라. 심사항목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7) 심사결과의 처리

- 가. 3명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에게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다.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문서를 통해 투고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라. 심사결과 심사위원의 의견제시와 편집위원의 판단에 의해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마. 수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바. 투고자가 수정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개진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재심을 할 수 있다.

8) 심사의 면제

학회에서 초청한 국내외 저명 학자의 강연 원고 및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외국인 초청학자의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3. 투고규정

1) 원고의 내용

중국학 전반에 관한 연구논문과 번역, 서평 및 학술활동 보고서, 그리고 연구자료를 게재한다. 이 중 논문은 학술적 가치를 갖는 내용과 학술논문의 체계를 갖춘 것을 대상으로 하고, 번역은 중국학에 대한 고전적 저술 중 학술적 역주를 갖춘 글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사용언어

우리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기타의 외국어로 된 원고도 게재할 수 있다.

3) 인용문

원전을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어의 인용문은 우리말 번역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인용문에도 주석을 가한다.

4) 분량

논문은 당 학회의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여 매 편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의 기준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한 별도의 조판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5) 고료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필자에게 해당 학회지 약간 부와 추인본 약간 부를 증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사이버 논문 공개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는 학회에서 개설한 홈페이지 혹은 관련 사이버 공간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초록

논문은 중국어 또는 영어 초록(200자 원고지 3매 가량)과 주제어(4개 내외)를 첨부하여야 한다.

8) 기타

저자명과 논문제목은 영문을 병기하여야 한다. 기타 원고 작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원고작성요령’을 참고할 것.

4. 학술지 발행 규정

- 1) 학술지 발행 시기: 학술지는 매년 8월 말과 12월 말 2회 발간한다.
- 2) 원고 마감 시기: 8월말 발행 학술지의 원고는 당해 년 6월 30일, 12월 말 발행 학술지의 원고는 당해 년 10월 30일을 기해 접수를 마감한다. 단 우송된 원고는 우송일자 소인을 기준으로 위의 기준을 적용한다.

論文審査細則

대한중국학회 학술지 《中國學》의 논문심사 규정 및 편집위원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중국학 전반과 관련된 각 분야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2)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 체재의 적합성(20%)
 - (2) 논리 전개의 명확성(20%)
 - (3) 내용의 독창성(20%)
 - (4) 논문제목의 적합성과 논문의 완성도(20%)
 - (5)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20%)
- 3) 심사 결과는 (1) 게재 가, (2) 수정 후 게재, (3) 게재 유보, (4) 게재 불가 등으로 나눈다.
- 4) 상기 3)항의 (2)에 해당되는 논문은 심사평가서에 의거,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3)에 해당되는 논문은 차기 논문집의 심사대상에 우선 포함되고, (2)에 해당되는 논문은 심사평가서에 근거해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여 반영 후 게재한다.
- 5) 편집위원회는 학계의 분야별·전공별로 학술업적이 뛰어난 자를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 6)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 7)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논문심사위원회를 둔다.
- 8) 논문심사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두되, 3인 이상의 홀수 인원으로 구성한다.
- 9)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교수는 반드시 피하

여 구성하도록 하며, 각 분야의 권위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10) 편집위원회는 심사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논문심사위원회에 원고를 제시하고 게재여부의 심사를 요구한다.
- 11) 논문심사위원회에는 외국의 학자도 참여할 수 있다.
- 12)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3)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14)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원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15) 편집위원회 혹은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6) 원고의 게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책임을 진다.
- 17) 본 학회에서 개최한 각종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공개토론을 거친 완성된 논문은 심사를 면제한다. 다만 발표 당시 토론자에게 최종 사독을 위촉하여 토론 자료의 반영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 18) 원고 작성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심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필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 19) 원고 작성 요령은 별도의 투고규정을 참조한다.
- 20)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21) 이상의 심사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원고작성요령】

학회지의 원활한 편집과 출판을 위해서 투고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꼭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문단모양					글자모양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들여 쓰기	줄간격	정렬 방식	글꼴	장평	자간	글자 크기
본문	0	0	韓 2 中 4	150	양쪽 혼합	신명조	95	-1	10
인용문	3	2	0	140	양쪽 혼합	신명조	95	-1	9
각주	2	0	-2	120	양쪽 혼합	신명조	95	-1	9
참고문헌	5	0	-5	150	양쪽 혼합	신명조	95	-1	9
제목 크기	논문제목	-	-	120	가운데	견명조	95	0	17
	장제목	-	-	120	가운데	신명조	95	0	14
	절제목	-	-	2	왼쪽	중고딕	95	0	12
	소절제목	-	-	2	왼쪽	중고딕	95	0	11
편집용지	용지 종류	용지 방향	여백주기						
	A4 용지	보통	위·아래 위 60 아래 60	왼·오른쪽 왼쪽 50 오른쪽 50	머릿말 10				

1. 원고제출마감은 매년 6월 30일(8월 30일 발행분), 10월 30일(12월 20일 발행분)까지로 한다.
2. 한글 워드는 한글 2002 이상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중문 워드나 낮은 버전의 한글을 사용한 파일은 편집자 임의로 코드를 변환합니다. 이에 따르는 출력사고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3. 중문으로 작성한 원고의 경우 번체자 또는 간체자 출력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요구가 없을 시에는 일률적으로 간체자 출력을 합니다.

4. 논문 제출 시 논문의 영문제목과 본인의 영문이름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한글에서 지원하지 않는 벽자나 기호, 사진 등은 본인이 직접 스캔하여 파일 안에 첨부하여 주시고 출력본 1부에 해당 부분을 붉은색 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6. 각주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단행본의 배열순서: 저자 및 역자명, 《서명》(출판지, 출판사, 출판연월), 인용 쪽수. 예) 胡雲翼 저, 장기근 역, 《중국문학사》(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4), 5쪽.
 - ② 논문의 배열순서: 논자명, 〈논문명〉, 《논문집명》 권수: 호수(출판연월), 인용쪽수. 예) 楊尙梅, 〈節操意識〉, 《三峽大學學報》 23:4(2001.7), 44쪽.
7. 참고문헌의 처리는 각주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쪽수는 표기하지 않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단행본: 胡雲翼 저, 장기근 역, 《중국문학사》(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4)
 - ② 논문: 楊尙梅, 〈節操意識〉, 《三峽大學學報》 23:4(2001.7)
8. 초록은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한글원고는 중국어 또는 영어로, 중국어 원고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9.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이 아닌 일반 논문 제출자는 논문 제출과 동시에 심사료 3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교내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일 경우에는 조판비 10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10.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하되, 최대분량이 200매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분량이 과다한 논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판비를 받습니다.
11. 논문 등재자가 받을 수 있는 별쇄본은 15부이며, 추가로 필요시 별도의 인쇄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12. 디스켓과 출력본 4부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디스켓에 필자의 연락

처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서명은 《 》 (HNC 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16, 3417), 논제, 작품명 및 편명은 < > (HNC 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14, 3415), 중간점은 · (HNC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04)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부▷